



동 아 시 아 일 본 학 회

The Association of Japanology in East Asia

**동아시아일본학회
2025년 추계연합국제학술대회**

전환기 동아시아의 다층적 이미지
: 공간 · 신체 · 역사

일시 : 2025년 10월 25일(토) 오후 1시
장소 : 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온라인(On-Line) Zoom 회의실

- 주 최 : 동아시아일본학회, 동북아시아문화학회
동아대학교 역사인문이미지연구소
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주 관 : 동아시아일본학회
- 후 원 :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국립부경대학교,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동아시아일본학회
2025년 추계연합국제학술대회

전환기 동아시아의 다층적 이미지
: 공간 · 신체 · 역사

【개회식】

▶ 장소: 아람홀(7층)

시간			사회자
13:00~ 13:20	개회사	김병진(동아시아일본학회 회장)	홍성준 (단국대)
		윤 일(동북아시아문화학회 회장)	
		신동규(동아대학교 역사인문이미지연구소 소장)	
		김창경(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소장)	
	축사	소고 슌스케(十河俊輔)(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소장)	

【기조강연】

▶장소: 아람홀(7층)

기조강연			
시간	발표자	발표제목	사회자
13:20~13:50	Michelle La Fay (北海道大学)	韓国における女性宣教師の働き ~ 日本の事例と比較して ~	김 욱 (서울대)
13:50~14:30	다무라 후미노리 (서울대)	일본 지방권에서 진행된 방치된 지역화: 행정투자의 변화를 중심으로	

【기획발표】

▶장소: 아람홀(7층)

기획발표	인구감소시대의 일본 국토 공간의 변화에 관한 연구			
시간	발표자	발표제목	토론자	사회자
14:40~16:00	이호상 (인천대), 다무라 후미노리 (서울대)	일본 중소도시의 중심시가지 활성화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바라키현 쓰치우라시(土浦市)를 사례로	정현일 (부산연구원) 현 민 (국립부경대)	이호상 (인천대)
	전지영 (국립부경대)	일본 오버투어리즘의 현황과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지역정책		

【정기총회】

▶장소: 동아시아일본학회(640호), 동북아시아문화학회(628호)

시간		사회자
18:10~ 18:30	동아시아일본학회 2025년도 하반기 정기총회	신웅철 (한밭대)
	2025년 동북아시아문화학회 정기총회 및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시상	손다은 (국립부경대)

【폐회식】

▶장소: 아람홀(7층)

시간			사회자
18:30~ 18:40	폐회사	김병진(동아시아일본학회 회장)	신웅철 (한밭대)
		윤 일(동북아시아문화학회 회장)	

【개인발표】

▶ 제1세션 (장소: 516호)

제1세션 (개인발표)				
시간	발표자	발표제목	토론자	사회자
16:10~16:50	미나리 사야카 (시마네현립대)	ラフカディオ・ハーンの日本女性観 —西洋的女性像との比較を通して—	최은경 (동아대)	이승희 (부산대)
16:50~17:30	박시연 (성균관대)	메이지 궁내성 간행 『婦女鑑』 과 『幼學綱要』 속 여성 권력자상 연구	한현석 (한국해양대)	
17:30~18:10	김태훈 (시코쿠 가쿠인대)	해방 후 일본으로 복귀한 천리교 히키아게 교회의 현황 조사 보고	남휘정 (성신여대)	
18:10~18:40	동아시아일본학회 2025년도 하반기 정기총회			
	2025년 동북아시아문화학회 정기총회 및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시상			
	폐회식			

▶ 제2세션 (장소: 517호)

제2세션 (개인발표)				
시간	발표자	발표제목	토론자	사회자
16:10~16:50	사다카네 다카유키 (릿쿄대학)	資本主義の統治性：東京の経験から	서동주 (서울대)	김송배 (부경대)
16:50~17:30	가토리 치하루 (고베대)	「悲劇的武将」に対する文学作品形成の韓日比較 －林慶業と源義経の場合－	곽동곤 (대구대)	
17:30~18:10	이나바 마이 (광운대)	화가 정말조의 교토시대의 활동	김화영 (수원과학대)	
18:10~18:40	동아시아일본학회 2025년도 하반기 정기총회			
	2025년 동북아시아문화학회 정기총회 및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시상			
	폐회식			

▶ 제3세션 (장소: 633호)

▶ [비대면 Zoom 주소] <https://m.site.naver.com/1SQ44>

제3세션 (개인발표)				
시간	발표자	발표제목	토론자	사회자
15:20~16:00	천호재 (계명대)	중간구문에 있어 속성 해석의 생성 메커니즘 -인지자의 총칭화와 환유의 투사 관점을 중심으로-	류신애 (신라대)	신웅철 (한밭대)
16:00~16:40	오혜경 (ICU)	Strategic Teacher Roles in Japan-Korea High School Virtual Exchange: Beyond Facilitation	장윤아 (국립부경대)	
16:40~17:20	오혜경 (ICU) 김민영 (호평고등학교)	한일 고등학교 간 온라인 국제 교류수업(VE) 사례 비교 연구 - 호평고의 2023년과 2024년 교류를 중심으로 -	이윤아 (신라대)	
17:20~18:00	김다현 (나고야대)	기획된 장소로서의 지브리파크: 다섯 구역의 공간 전략과 장소성의 특수성	다무라 후미노리 (인천대)	
18:10~18:40	동아시아일본학회 2025년도 하반기 정기총회			
	2025년 동북아시아문화학회 정기총회 및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시상			
	폐회식			

▶ 제4세션 (장소: 532호)

제4세션 (개인발표)				
시간	발표자	발표제목	토론자	사회자
15:00~15:30	손진희 (송실사이버대)	한·일 청년층 비정규·무직 집단에 대한 복지정책 비교 연구: 일본 ‘프리터(フリーター)’와 한국 ‘NEET족’을 중심으로	김화영 (수원과학대)	최종민 (서울대)
15:30~16:00	김화영 (수원과학대)	일본 청년 세대의 불안과 정체성 - 요네즈 켄시의 음악을 중심으로 -	손진희 (송실사이버대)	
16:00~16:30	임대진 (송실사이버대)	일본 초고령사회와 미용복지 제도 발전 과정	이경수 (세한대)	
16:30~17:00	이진희 (송실사이버대)	한·일 돌봄서비스 인식 차이에 따른 마케팅 전략 비교 연구	양 희 (혜전대)	
17:00~17:30	조문기 (송실사이버대)	인간중심 돌봄 실현을 위한 휴머니튜드 케어 실천모델 연구	마스미쓰 고이치 (鹿児島純心 女子短期大学)	
17:30~18:00	마스미쓰 고이치 (鹿児島純心 女子短期大学)	AI・ICT技術を活用した協働学習型授業モデル開発 に関する研究 －「こども家庭福祉」科目における検証－	손진희 (송실사이버대)	
18:10~18:40	동아시아일본학회 2025년도 하반기 정기총회			
	2025년 동북아시아문화학회 정기총회 및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시상			
	폐회식			

▶ 제5세션 (장소: 427호)

제5세션 (개인발표)	東北亜：韓国文学 & 信仰			
시간	발표자	발표제목	토론자	좌장&사회자
14:50～15:20	李京蘭 (国立釜慶大学)	한국과 일본의 수목신앙 비교 연구	蘇仁鎬 (清州大学)	· 座長 · 蔡榮姬 (国立釜慶大学) · 司會 · 李恩珍 (全北大学)
15:20～15:50	蘇仁鎬 (清州大学)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문학사의 두 좌표	이오륜 (成均館大学)	
15:50～16:20	이오륜 (成均館大学)	망국(亡國)의 시대, 유학자 김윤식의 시각: 전통적 세계관과 서양 신학문에 대한 비판적 수용	李京蘭 (国立釜慶大学)	
東北亜：韓国 社会 & 思想				
시간	발표자	발표제목	토론자	좌장&사회자
16:30～17:00	李京和 (国立釜慶大学)	Fluxus and Young Children’ s Play: A Resonance	李恩珍 (全北大学)	· 座長 · 蘇仁鎬 (清州大学) · 司會 · 李京蘭 (国立釜慶大学)
17:00～17:30	李恩珍 (全北大学)	여성학적 입장에서 본 알타이벨트 민족들의 혼인문화	洪昌裕 (国立釜慶大学)	
17:30～18:00	洪昌裕 (国立釜慶大学)	부산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극복하는 혁신적 도시브랜딩 전략	李京和 (国立釜慶大学)	
18:10～18:40	동아시아일본학회 2025년도 하반기 정기총회			
	2025년 동북아시아문화학회 정기총회 및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시상			
	폐회식			

▶ 제6세션 (장소: 428호)

제6세션 (개인발표)	東北亜：中国語学 & 教育			
시간	발표자	발표제목	토론자	좌장& 사회자
14:50～15:20	金正必 (慶尙国立大学)	정도부사의 주관성과 정도성의 양범주 대비분석	李仁珠 (慶尙国立大学)	· 座長 · 金玲敬 (江西師範 高等学校) · 司會 · 李旼憬 (国立 釜慶大学)
15:20～15:50	李仁珠 (慶尙国立大学)	중국어 명량사와 동량사의 교차 사용에 대한 고찰: ‘个’ 와 ‘次’ 를 중심으로	金正必 (慶尙国立大学)	
15:50～16:20	崔麗娜 (世翰大学)	국제관계 악화기 중국 최초 수산고등교육기관의 중일 수산교류 전략: 직예수산강습소 설립자 쑨펑자오의 3차 도일 실천을 중심으로	孔鳳振 (国立釜慶大学)	
東北亜：日本政治 & 政策				
16:30～17:00	松本茂樹 (兵庫大学)	重厚長大都市の再生と若者流出： 神戸市と釜山市の都市政策比較研究	青地・イザン ペール真美 (大和大学)	· 座長 · 吉野浩司 (鎮西学院 大学) · 司會 · 堀田彰子 (兵庫大学)
17:00～17:30	成謙進 (国立釜慶大学)	1950년대 재일조선인 국적을 둘러싼 담론 -스즈키 하지메(鈴木一)의 『親和』 기고문을 중심으로-	松本茂樹 (兵庫大学)	
17:30～18:00	青地・イザン ペール真美 (大和大学)	極右ポピュリズムの台頭と無党派層	成謙進 (国立釜慶大学)	
18:10～18:40	동아시아일본학회 2025년도 하반기 정기총회			
	2025년 동북아시아문화학회 정기총회 및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시상			
	폐회식			

▶ 제7세션 (장소: 635호)

제7세션 (개인발표)	東北亜：日本語教育			
시간	발표자	발표제목	토론자	좌장& 사회자
14:50～15:20	吉野浩司 (鎮西学院大学)	京城帝国大学時代の鈴木栄太郎の農村調査	青地・イザン ベール真美 (大和大学)	・座長・ 金子 哲 (兵庫大学) ・司會・ 孔美熙 (国立 釜慶大学)
15:20～15:50	竹下知佳 (大邱大学)	クリエイティブ・ラーニングの場としての日本語作文授業ー「田丸メソッド」を活用した活動と学習者の「学び」ー	堀田彰子 (兵庫大学)	
15:50～16:20	堀田彰子 (兵庫大学)	主体者を軸とした教育モデルの構築： 兵庫大学サマーキャンプの事例とグローバル化概念および Generative theory の融合	竹下知佳 (大邱大学)	
東北亜：日本文化 & 歴史				
16:30～17:00	金子 哲 (兵庫大学)	播磨国印南郡報恩寺文書に関する一考察	村川逸朗 (西海文化財 研究所)	・座長・ 申宗大 (国立 釜慶大学) ・司會・ 竹下知佳 (大邱大学)
17:00～17:30	金玲敬 (江西師範 高等科学学校)	《新撰字鏡》동형자 수록 양상 고찰	尹 一 (国立釜慶大学)	
17:30～18:00	村川逸朗 (西海文化財 研究所)	長崎県福江市中島遺跡の縄文時代後期文化について	金子 哲 (兵庫大学)	
18:10～18:40	동아시아일본학회 2025년도 하반기 정기총회			
	2025년 동북아시아문화학회 정기총회 및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시상			
	폐회식			

▶ 제8세션 (장소: 408호)

제8세션 (개인발표)	東北亞：海域人文学			
시간	발표자	발표제목	토론자	좌장& 사회자
14:50~15:20	金芝淑 (慶星大学)	동해안 어촌 생활어에 나타난 고유 지명 명명(命名)법 연구	梁敏鎬 (国立釜慶大学)	· 座長 · 孫東周 (国立 釜慶大学) · 司會 · 崔瑯耿 (国立 釜慶大学)
15:20~15:50	申尙沅 (国立釜慶大学)	조선후기 전라도 도서(島嶼)지역 노비 '출계집단(出系集團)'의 형성과 계승	徐敬順 (国立釜慶大学)	
15:50~16:20	徐敬順 (国立釜慶大学)	근대 한국의 어업구조와 수산업 변화 - 『한국수산지』를 중심으로 -	申尙沅 (国立釜慶大学)	
16:30~17:00	孔美熙 (国立釜慶大学)	국제교류항 나가사키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항만 재생	文慧珍 (釜山大学)	· 座長 · 金昌慶 (国立 釜慶大学) · 司會 · 梁敏鎬 (国立 釜慶大学)
17:00~17:30	李旼憬 (国立釜慶大学)	바다를 건너온 맥주, 해양도시가 빛은 맛: 부산의 맥주 문화 연구	孔美熙 (国立釜慶大学)	
17:30~18:00	金昌慶 孔鳳振 (国立釜慶大学)	부산 해양 교육 확산을 위한 해양문화원형의 콘텐츠화	李丹 (国立釜慶大学)	
18:10~18:40	동아시아일본학회 2025년도 하반기 정기총회			
	2025년 동북아시아문화학회 정기총회 및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시상			
	폐회식			

【패널발표】

▶ 제9세션 (장소: 534호)

제9세션 (패널발표)		근대 동아시아의 우생사회론		
시간	발표자	발표제목	토론자	사회자
16:10~18:10	김영죽 (성균관대)	18세기 『태고신기』 독법(讀法)의 제 문제: ‘근대 우생학의 단초’ 혹은 ‘전통 심신 수양과 환경-성정의 유비’	김현미 (퇴계학 연구원)	박이진 (성균관대)
	우제인 (성균관대)	에도시대 중기 산가(産家)의 위생풍습	홍성준 (단국대)	
	송연현 (성균관대)	Python 기반 『華年』 우생학 담론 연구	김병진 (단국대)	
18:10~18:40	동아시아일본학회 2025년도 하반기 정기총회			
	2025년 동북아시아문화학회 정기총회 및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시상			
	폐회식			

▶ 제10세션 (장소: 611호)

제10세션 (패널발표)		근대 표상-팸플릿과 이미지		
시간	발표자	발표제목	토론자	사회자
15:00~18:00	신동규 (동아대)	팸플릿의 개념과 특성 및 일제강점기 팸플릿 자료의 가치와 문제점에 대한 고찰	김기성 (동아대)	김기성 (동아대)
	나승희 (부산대)	신문·광고·도시의 확장: 일제강점기 일본어신문의 프로파간다적 연계에 관한 고찰 - 신문 기사와 광고의 연결성을 중심으로	임다함 (동아대)	
	阪野祐介 (長崎大学)	近代期に長崎を出立した「海外」旅行 －長崎県立長崎中学校と植木元太郎を事例に－	김선희 (아주대)	
	황익구 (동아대)	조선부업품공진회와 부업 담론의 전개 -신문·잡지 미디어를 중심으로	양지영 (가천대)	
	허지애 (동아대)	1930년대 관광팸플릿의 기생 이미지 연구 -『경성정서(京城情緒)』를 중심으로-	최인택 (동아대)	
18:10~18:40	동아시아일본학회 2025년도 하반기 정기총회			
	2025년 동북아시아문화학회 정기총회 및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시상			
	폐회식			

▶ 제11세션 (장소: 612호)

제11세션 (개인발표)		방법으로서의 ‘신체’ : 전후를 가로지르는 젠더 · 섹슈얼리티		
시간	발표자	발표제목	토론 (라운드테이블)	사회자
16:10~18:10	조소진 (전북대)	해방을 둘러싼 신체 - 전공투에서 우먼리브까지 -	발표자 + 이가현 (고려대) 임다함 (동아대)	이승준 (세종대)
	이승준 (세종대)	1980년대 대중문화와 변태=탈피하는 신체 -도가와 준과 야푸즈-		
	박수정 (인천대)	『에반게리온』의 신체(들) —포스트페미니즘, 포스트휴먼 사유를 통해 다시 보는 『에반게리온』—		
	김진우 (세종대 박사과정)	여아 애니메이션의 젠더 수행과 장소에 관한 고찰 : 『프리파라』의 세계관을 중심으로		
18:10~18:40	동아시아일본학회 2025년도 하반기 정기총회			
	2025년 동북아시아문화학회 정기총회 및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시상			
	폐회식			

▶ 제12세션 (장소: 613호)

▶ [비대면 Zoom 주소] <https://m.site.naver.com/1SQ44>

제12세션 (패널발표)		일본의 대표적 순례, 시코쿠 헨로		
시간	발표자	발표제목	토론자	사회자
16:10~18:10	주혜정 (청암대)	시대를 걷는 순례자들 - 일본 영화 속 시코쿠 헨로에 나타난 사회·정서적 변화 -	김희영 (전남대)	최가진 (전남대)
	김희영 (전남대)	시코쿠 헨로 순례자의 종교적 심성	최가진 (전남대)	
	송영숙 (전남대)	일본 시코쿠 지역 고보 대사 전설의 유형 및 양상	주혜정 (청암대)	
18:10~18:40	동아시아일본학회 2025년도 하반기 정기총회			
	2025년 동북아시아문화학회 정기총회 및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시상			
	폐회식			

【개회식】

▶장소: 아람홀(7층)

시간			사회자
13:00~ 13:20	개회사	김병진(동아시아일본학회 회장)	홍성준 (단국대)
		윤 일(동북아시아문화학회 회장)	
		신동규(동아대학교 역사인문이미지연구소 소장)	
		김창경(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소장)	
	축사	소고 슌스케(十河俊輔)(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소장)	

안녕하십니까.

동아시아일본학회 회장 김병진입니다.

《전환기 동아시아의 다층적 이미지: 공간·신체·역사》라는 깊이 있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학문적 열정으로 자리를 빛내주신 연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아시아일본학회는 동북아시아문화학회, 동아대학교 역사인문이미지연구소, 그리고 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와 함께 이번 학술대회를 주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깊은 학술적 유대를 이어오고 있는 동북아시아문화학회와 다시 한번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매년 가을, 우리는 서로의 학문적 성과를 나누고 미래를 모색하는 귀한 전통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는 우리 학회가 주관을 맡아 여러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아름다운 도시 부산에서 열릴 수 있도록 처음 제안해주시고 많은 협조를 해주신 동아대학교 역사인문이미지연구소의 신동규 소장님, 그리고 장소 섭외와 준비에 큰 도움을 주신 동북아시아문화학회 윤일 회장님과 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김창경 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이렇게 풍성한 학술 교류의 장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동아시아일본학회는 설립 이래로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국제적이고 학제적인 연구를 지향해왔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인 《전환기 동아시아의 다층적 이미지》는 이러한 우리 학회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잘 보여주는 아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간’, ‘신체’, ‘역사’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 동아시아의 복합적인 모습을 입체적으로 조망하는 이번 기획은, 특정 분과 학문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시각이 교차하고 융합하는 지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저희의 비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오늘날 동아시아는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인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경험,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이 복합적으로 얹히며 만들어내는 다양한 문화적 이미지를 심도 있게 성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학문적 과제입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바로 그 과제에 응답하며, 동아시아의 상호 이해와 공존을 위한 새로운 학문적 담론을 창출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개의 학술기관이 국경과 분야를 넘어 함께 지혜를 모으는 이 자리야말로, 동아시아 지식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상생과 협력의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주시는 모든 연구자분들과, 자리를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활발한 지적 교류를 통해 새로운 학문적 영감을 얻고, 연구자 간의 연대를 더욱 굳건히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0월 25일
동아시아일본학회 회장
김병진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학문적 열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연구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동북아시아문화학회 회장 윤일입니다.

먼저, 오늘 “전환기 동아시아의 다층적 이미지”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국제학술대회에 함께해 주신 국내외 연구자 여러분께 깊은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대회는 동북아시아문화학회와 동아시아일본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동아시아의 역사적 전환기를 새롭게 해석하고, 그 속에서 형성된 다양한 문화적 이미지들을 학제적으로 조명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북아시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측면에서 끊임없는 변화와 재구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현대사를 거치며 이 지역은 서로 교차하는 기억과 이미지, 갈등과 화해, 모방과 창조의 과정을 통해 매우 복잡적이고 다층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해왔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환기’라는 개념은 단순한 시간적 구분을 넘어, 동아시아의 내면을 성찰하고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사유의 틀이 됩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역사학, 문학, 예술, 문화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동아시아 각국이 서로를 어떻게 인식해왔는지, 또 자신의 이미지를 어떻게 구성해왔는지를 입체적으로 논의하게 됩니다. 이러한 논의는 단지 과거를 재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상호 이해와 공존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 학회를 비롯한 여러 연구 공동체가 국경을 넘어 협력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동아시아의 지식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예라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본 학술대회를 위해 함께 해 주신 모든 발표자, 토론자, 참석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자리가 풍성한 지적 교류의 장이 되고, 향후 공동 연구와 학문적 연대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0월 25일
동북아시아문화학회 회장
윤일

Dear distinguished guests, colleagues, and fellow researchers,

It is my great honor and pleasure to welcome all of you to this international conference, jointly organized by the Northeast Asian Cultural Studies Association and the East Asian-Japanese Studies Association. I would like to extend my deepest gratitude to each and every one of you for joining us today under the theme, "Multilayered Images of East Asia in a Time of Transition."

As we gather here, we are reminded that East Asia is a region marked by dynamic historical transformations—political upheavals, cultural shifts, and evolving identities. In times of transition, these layers of change give rise to complex cultural images, shaped not only by internal developments but also by interactions, conflicts, and exchanges across national borders.

This conference aims to explore how such multifaceted images of East Asia have been constructed, represented, and reimagined throughout different historical periods, especially during pivotal moments of transformation. Scholars from diverse fields—history, literature, and cultural studies—will share their insights, shedding light on how East Asian countries have perceived one another and how they have portrayed themselves to the world.

The theme of "transition" goes beyond chronological shifts—it invites us to critically reflect on the cultural, ideological, and discursive reconfigurations that continue to shape this region today. In doing so, we hope to foster not only scholarly dialogue but also mutual understanding among cultures that have long shared intertwined histories.

Moreover, the very fact that our two academic associations are coming together across institutional and national lines speaks to the growing importance of regional collaboration in academic research. This partnership reflects the direction in which East Asian and Northeast Asian studies must continue to move—toward openness, dialogue, and interdisciplinary engagement.

In closing, I would like to thank all the presenters, panelists, and participants who have made this gathering possible. I sincerely hope this conference becomes a space for meaningful exchange, academic inspiration, and future collaboration.

Thank you.

President, The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n Cultures
YOON II

안녕하세요. 어느덧 완연한 가을이 되어 아침저녁으로는 쌀쌀한 느낌이 듭니다만, 학술대회를 개최하기에는 딱 좋은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연구와 강의에 바쁘신 와중에도 이번 동아시아일본학회, 동북아시아문화학회, 동아대학교 역사인문이미지연구소,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가 연합으로 개최하는 2025년 추계국제학술대회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번 학술대회 개최에 많은 애를 써주신 부경대학교 관계자 여러 분들과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과 함께 축하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저는 동아대학교 역사인문이미지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는 신동규입니다. 이번에 우리 연구소가 참여하게 된 것은 현재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으로 「일제강점기 한국 관련 팸플릿의 분석·번역·해제·이미지 DB 구축」이라는 연구과제 수행의 일환이기도 합니다만, 다른 무엇보다도 이렇게 4개 단체가 참여한 뜻깊은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할 수 있게 되어 더없이 영광이고, 또 여러 선생님을 모신 학술 토론의 장에서 가르침과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기에 저는 물론이고, 우리 연구소 구성원 모두는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학술대회 주제는 「전환기 동아시아의 다층적 이미지: 공간·신체·역사」인데, 우리 연구소에서는 제10세션에서 「근대 표상-팸플릿과 이미지」라는 주제로 다섯 분이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내용의 주제가 그간 잘 연구되지 않았던 팸플릿과 이미지라는 분야로 전체 주제의 공간과 역사라는 부분에 해당하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일본 홋카이도대학의 미셀 라 페 선생님, 서울대학교에 계시는 다무라 후미노리 선생님의 기조 강연을 비롯해 약 70여 분의 발표와 토론이 각 세션마다 이루어지고 있어 그야말로 진정한 연구의 장으로서 학술대회의 의미를 더욱 깊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학술대회가 열띤 토론의 장이 되어 참가하신 여러 선생님들께 뜻깊은 연구발전의 자리가 되기를 기원하고, 끝으로 여러 선생님들께 공동 개최하는 4개 단체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 그리고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개최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0월 25일
역사인문이미지연구소 소장
신동규

안녕하십니까? 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소장 김창경입니다.

오늘 이곳 국립부경대학교에서 동아시아일본학회,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그리고 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동아대학교 역사인문이미지연구소 등 다양한 연구기관이 모여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점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학술대회를 준비하느라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아시아일본학회 김병진 회장님, 동북아시아문화학회 윤일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국제학술대회는 “전환기 동아시아의 다층적 이미지: 공간, 신체, 역사”라는 주제로 동북아 지역의 인문학적 확장과 전개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대회임과 동시에 다가오는 시대에 동아시아에 대한 인문학적 고민과 성찰을 가져다줄 수 있는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동아시아에서의 인문학은 인문학 고유의 연구 성과를 창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시대적 변화에 따른 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성과 또한 창출해야 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는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융합 학문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용주의적 현실 문제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제학술대회는 이런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한국 일본 중국의 연구자들이 모여 논의의 장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된 점입니다. 이는 인문학과 기타 학문과의 연결 고리와 더불어 길항 관계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현재 인문학 연구가 지녔던 한계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성의 논의가 제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논의의 장을 통해 향후 인문학의 역할과 방향성을 정립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 국제학술대회의 원만한 진행에 많은 도움을 주신 동아시아일본학회 그리고 동북아시아문화학회 회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이곳 부산의 가을 풍광과 멋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0월 25일
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소장
김창경

【기조강연】

▶ 장소: 아람홀(7층)

기조강연			
시간	발표자	발표제목	사회자
13:20~13:50	Michelle La Fay (北海道大学)	韓国における女性宣教師の働き ~ 日本の事例と比較して ~	김 욱 (서울대)
13:50~14:30	다무라 후미노리 (서울대)	일본 지방권에서 진행된 방치된 지역화: 행정투자의 변화를 중심으로	

韓国における女性宣教師の働き～日本の事例と比較して～

Michelle La Fay(北海道大学副総長)

本日は東北アジア文化学会にご招待いただき、大変光栄に存じます。Michelle La Fayと申します。釜慶大学と北海道大学は2000年から大学間交流協定がありますが、初めてキャンパスを訪れることになり、大変楽しい時間を過ごしております。

まず、最初に自己紹介をしたいと思います。アメリカ合衆国のアイダホ州出身で、大学はカンザス州の小さいリベラルアーツ大学でした。その大学の留学プログラムで1989年に札幌の北星学園大学に留学しました。その後、北海道大学で10年間をかけて博士課程を取得しました。研究分野は宗教学で明治・大正期(1868-1926)日本におけるプロテスタント・キリスト教です。

北海道大学とアメリカ合衆国との関係について

北海道大学は創設当初からアメリカ合衆国と深い関わりを持ってきました。1876年日本政府の北海道開拓使は札幌農学校を設立し、アメリカ合衆国のマサチューセッツ農業大学からWilliam S. Clark(1826-1886)を招へいしました。Clarkの日本滞在は短かったのですが、彼の有名な言葉は今も響き続けています。おそらく韓国でもこの言葉は知られていると思います。“Boys, be ambitious.” Clarkと他の二人の教師(William Wheeler(1851-1932)とDavid Penhallow(1854-1910))は英語で授業を行ないました。北海道開拓使副官長の黒田清隆(1840-1900)は学生に道德教育をClarkに依頼すると、Clarkは聖書を教材とし、初代学生たちはキリスト教徒となりました。Clarkが札幌を去った後、初代学生たちは二期生にキリスト教を紹介し、彼らもまたキリスト教徒となりました。第二期生の一人である内村鑑三(1861-1930)とそのキリスト教思想について「内村鑑三における聖書『註解』の方法」と題する博士論文を執筆しました。本日の主題とは直接関係はないですが、内村鑑三と朝鮮との関わりについて簡単に触れておきたいと思います。1924年から1928年にかけて、咸錫鉉(ハム・ソクホン)(1901-1989)、金教臣(キム・ギョシン)(1901-1945)と4人の同級生は東京高等師範学校在学中に内村鑑三のもとで無教会主義者となりました。朝鮮に帰国後、彼らは『聖書朝鮮』を刊行しました。

咸錫鉉と金教臣が朝鮮に帰国後目指したキリスト教は、朝鮮的なキリスト教だと言ってもよいと思います。「聖書朝鮮」はその一つの現れだと思います。ここで「土着化」の問題について触れたいと思います。「土着化」あるいは新語である「terraculture」という用語は、いずれも宗教(この場合はプロテスタント・キリスト教)が特定の国に伝来した後、その国の文化・社会とどのように関わり、その社会に浸透していくかを指します。内村鑑三は「日本キリスト教」を主張しましたので、咸錫鉉と金教臣が同様の思想を継承したと考えられています。

これはプロテスタント・キリスト教が朝鮮に導入され、朝鮮社会に定着した過程の一例に過ぎません。プロテスタント・キリスト教はどのように朝鮮に入って土着したのかということは、これだけでも極めて広範な主題であり、本講演では関連する幾つかの点にのみ触れます。同様に、カトリックとプロテスタントの歴史は複雑に絡み合っており、おそらく日本よりも韓国においてその傾向が強いと考えられるので、今回は両者の比較はしません。以下では「キリスト教」という表現はプロテスタント・キリスト教のみを指すものとします。

韓国と日本におけるキリスト教

日本でキリスト教を研究する中で、韓国のキリスト教徒数が日本とは大きく異なることに驚かざるを得ません。以前、宗教関係の学会で韓国人研究者と話す機会があり、その人は、その一因として両国の「キリスト教の流入経路」を挙げました。朝鮮ではキリスト教が草の根レベルから社会に浸透したのに対し、日本では（旧）武士階級というエリート層を通じて広がったという説明になりました。これは確かに一つの要因です。日本でキリスト教を紹介する際、取り上げる人物（男女問わず）はほぼ侍出身です。横浜・熊本・札幌の三つのキリスト教グループの場合、全員が男性で、そのほとんどが明治維新（1868年）によって権利を剥奪された武士の息子たちでありました。日本の女性のキリスト教徒についても、武士の家系の出身であることが多いですが、彼女たちがキリスト教徒になる道がかなり異なります。

朝鮮では、比較的自発的に発生したキリスト教の広がりにより、新たに勧誘された信徒は下層階級に属する傾向がありました。この解釈は、日本の状況と比べて朝鮮では勧誘対象となる人々の層がより厚く、キリスト教が一般日本社会に浸透していくよりも、横方向に広がる方が容易であった可能性を示唆しています。

しかし、これが唯一の要因ではないようです。他に二つの重要な要因があります。一つは、道徳的完成を強調した新儒教の影響であり、この概念はキリスト教の信仰とよく一致しました。もう一つの要因はshamanismであり、これも意外にもキリスト教の一側面と一致していました。アメリカ合衆国から派遣された最初の女性宣教師の一人、Annie Laurie Adams Bairdは、苦境にある女性を助けるためにshamanismが用いられる状況を目撃し、驚くところで、Bairdはその女性のために祈るように頼まれました。Bairdは、この種の治療が効果的で女性にとって有益であったため、これを認めることに何の抵抗も感じなかったと述べています。キリスト教も、より強力な存在、すなわち神という超越的な側面を持っており、その力によって憑依や悪魔に関する事例に対処する具体的な方法を提供したので、その意味では、shamanismと親和性があると言えます。shamanismは日本のキリスト教普及の要因としてみられません。

日本との共通点も見られ、重要な点の一つは近代化です。アメリカ合衆国から朝鮮に渡ったキリスト教宣教師たちは、近代化をもたらす者として好意的に受け止められました。これは日本でも同様で、「お雇い外国」が積極的に招かれ、日本に近代的な生活様式をもたらすとともに、意図的か否かを問わず、彼らと共にキリスト教が持ち込まれることが多かったわけです。さらに、宣教師による教育重視の姿勢は、両国の人々が教育に与えた重要性和並行していました。この側面もまた、両国における近代化の思想と関連しています。この時期に設立された教育機関がキリスト教関係者によって創設されたのは当然のことと言えます。

アメリカ合衆国からの女性宣教師

北海道大学で勤め始めた頃、大山（山川）捨松（1860-1919）に関する本『鹿鳴館の貴婦人 大山捨松日本初の女子留学生』を友人にもらいました。この本を読み終えた後、当時の女性たちに強い関心を抱くようになりました。驚くべきことに、彼女たち自身による一次資料が数多く存在することを発見しました。研究の範囲を広げるにつれ、女性宣教師や初期の女性改宗者たちによって語られるキリスト教の補完的な歴史が存在することが明らかになりました。他の国々と同様、キリスト教の歴史は主に男性の視点から語られ、男性の行動が主役を占めてきました。本日は、こうした女性たち、彼女たちが朝鮮と日本でキリスト教界のみならず社会全体に与えた影響に焦点を当てたいと思います。

まず、キリスト教が朝鮮と日本においていかに土着化していったかを比較したいと思います。その後、幾人かの歴史的人物を考察しながら、女性宣教師が宗教活動、社会、人権に与えた影響に触れていきます。言うまでもなく、この議論は韓国と日本におけるキリスト教の複雑さのほんの一端を示すに過ぎません。

最初に紹介したいのは、宣教師でもキリスト教を広める信徒でもない、勇敢な旅行者であり鋭い文化観察者、Isabella L. Bird (1831-1904) であります。彼女の著作は当時の世界各国の社会を垣間見せてくれるため、ここで取り上げたいと思います。本発表のための調査を始めた際、すぐに彼女の言及を発見しました。宣教師ではなかったのですが、彼女は朝鮮におけるキリスト教について次のように述べています。「朝鮮人キリスト教徒の寛大さは、その経済力に比例して我々をはるかに凌駕しているという印象を受けた」とも述べています。

日本や朝鮮における女性宣教師と初期の女性改宗者に関する研究において、いくつか非常に興味深い点を見出しましたので、ここで紹介したいと思います。

このテーマについて調査する中で最も興味深い点の一つは、朝鮮と日本と両方における独身女性宣教師の数が男性宣教師の数を上回る年が多かった点であります。男性宣教師も様々な分野で活動しましたが、女性は医療、教育、社会福祉、慈善活動といった分野に多大な努力を注ぎました。女性宣教師は活動の中核を女性の教育（識字教育を含む）に据えることが多かったのです。また、子どもや家族への支援も提供しました。こうした分野での宣教活動は、結果として女性の権利の発展に寄与した可能性があります。

アメリカ人の女性宣教師が多かったのには重要な理由がいくつかあります。第一に、それは女性が担える仕事でありました。独身女性でもできる仕事でありました。教会や宣教団体が後援するため、社会全体から尊敬され、また尊敬に値する仕事として認められていました。多くの場合、女性が単独で海外に渡航する機会を与えました。これは有給の職位であり（男女間で賃金格差はあったものの）、女性たちに自律性、自立した生活、そして自由をもたらしました。

宣教活動を受ける側にとって、女性宣教師の存在には多くの利点もありました。例えば、独身の男性が単独ではアクセスが難しい社会的な場所でも、女性ならより容易にアクセスできる場合があります。医療施設や個人の家などがその例であります。女性宣教師の数の中には、比較的多くの女性医師が含まれていることにも驚きます。特に朝鮮では、女性が男性医師の診察を受けることに非常に抵抗があったため、女性医師や医療従事者は非常に歓迎されました。

この現象の興味深い側面の一つは、宣教師の出身国と宣教対象国との関係です。女性宣教師は宣教活動を行うために教育を受けることが求められており、前述したように、多くの宣教師は宣教活動に加え医療や教育分野でも活動していました。こうして宣教分野で教育を受けた女性への需要が高まった結果、出身国で教育を受けた女性の数が増加したのです。それによって、宣教活動のおかげで両国の女性が恩恵を受けたのです。

この状況について気づいた興味深い矛盾は、独身女性宣教師たちが、妻として、子どもの母として、そして家族の宗教的生活の守護者としての女性の理想的なキリスト教家庭について教えることが期待されていた点であります。しかし、先ほど説明したように、独身女性宣教師は、理想的なキリスト教生活として教えていたことと実際の生活はまったく異なるものだったことは興味深いところだと思います。

朝鮮と日本における歴史的人物

次に、上述の多くの点を浮き彫りにする女性宣教師や初期の女性改宗者たちの例をいくつか挙げ

たいと思います。

宣教師による教育重視の姿勢と、韓国人・日本人双方の教育を尊重する姿勢こそが、最も重要な側面であると言えるでしょう。そして教育は自律性と独立性を育むのに役立ち、それが後に朝鮮と日本における女性のキリスト教活動の特徴の一つとなりました。

韓国で有名なキリスト教系女子大学を挙げるのに、さほど苦労しないと思います。1886年メソジスト監督教会女性海外宣教協会の宣教師Mary F. Scranton (1832-1902) によって女子学校が創設され、1887年に梨花学堂 (梨花女子大学の前身) と命名されました。

ここで重要なのは、朝鮮でも日本でも、宣教師の活動は価値あるものですが、それぞれの土地の最初の信者たちがいなければキリスト教は広がらなかったという点です。「Bible Women」は朝鮮におけるキリスト教の草の根的普及の大事な一例です。Scrantonは朝鮮の「Bible Women」の創設者としても知られています。現代的に言えば、女性同士のネットワークを活用してキリスト教を広めつつ識字教育や一般医療を提供した団体です。「Bible Women」はその仕事に極めて熟達しており、宣教師が到達できない地域へも赴くこともできました。また現地で示した独立した姿と自律性により、外国宣教師への依存度が低下し、朝鮮のキリスト教会の独立性をより高めることにつながったのだと思われます。

しかし日本では、Bible Womenに相当する運動は見当たりません。キリスト教を広めるために組織的に活動した女性の集団は存在しませんでした。一般的に女性は、女性キリスト教宣教師、またはキリスト教になった女性が設立した教育機関に入学し、教育を受け、おそらくはその後、自らの独立を勝ち取ったのでしょう。

一つの例として、Esther Kim Pak (1876-1910) は1886年、Scrantonの女子学校の最初の学生の一人であり、雨の降る夜、寮の部屋でキリストの呼びかけを感じ、1891年に洗礼を受けました。彼女はアメリカ人医師で宣教師でもあるRosetta Sherwood Hall (1865-1951) の通訳を任され、医学に魅了されました。キリスト教徒の朝鮮人男性と結婚後、渡米して医学博士号を取得しました。1900年に帰国すると、数千人に医療を施すとともにキリスト教の普及にも尽力しました。

日本については、教育をとおしてキリスト教の普及に貢献した個人について具体的な例を挙げることが可能です。例えば、1871年の岩倉使節団と共にアメリカ合衆国へ教育を受けに派遣され、近代女性の模範として日本に帰国した女子留学生を挙げることができます。五人のうち三人はアメリカでの教育を終え帰国しました。瓜生 (永井) 繁子 (1861-1928) は東京音楽学校のピアノ教師となり、キリスト教徒の日本人男性と結婚しました。大山 (山川) 捨松は高度な教育を受けたものの、帰国後の就職に苦労しました。後に結婚しましたが、英語が話せたので夫の仕事を通じて来日する多くの外国人と交流を持ちました。また友人である津田梅子の女子学校 (現在の津田女子大学) 設立を支援しました。特に津田梅子 (1864-1929) は、女性が教育を受け、あらゆる仕事に就く能力を有することを強く主張しました。

まとめ

この講演の冒頭で、キリスト教が韓国と日本の両国において女性の権利の拡大に貢献してきたと述べました。しかし、キリスト教と女性の権利との因果関係を究明することは極めて困難だと思います。

それは「意図」の問題に帰着するかもしれません。女性宣教師たちは意図的に権利の概念を導入したのか、それとも権利の概念は彼女たちのキリスト教信仰に内在していたのか？あるいは、意

図的な事例と意図しない事例の両方が存在するのかもしれませんが。

Bible Womenの場合、その独立性と自律性は女性宣教師たちに倣ったものかもしれないですが、主に彼女たちの働き方から必然的に発展したものだと考えられます。

アメリカ合衆国で教育を受けた朝鮮人女性と日本人女性は、実際にキリスト教を直接に体験しました。そういった体験が、帰国後の彼女たちの社会と関わる仕方に大きな影響を与えたことは確かだと考えられます。教育と宣教の仕事によって得られた自律性と独立性は、少なくとも彼女たちが他の女性たちの生きたロールモデルとなることを可能にしたと言えるでしょう！

参考文献

49th Annual Report of the 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1918.

Ahn, Katherine H. Lee, *Awakening the Hermit Kingdom: Pioneer American Missionaries in Korea*, William Carey Library, 2009.

Baird, Annie Laurie Adams, *Daybreak in Korea*, New York: Young People's Missionary Movement of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1909.

Baird, Annie Laurie Adams, *Inside Views of Mission Life*,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13.

Baker, Frances J., *First Women Physicians to the Orient*, Wome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Methodist Episcopal Church, Boston, 1904.

Bird, Isabella L., *Korea, and Her Neighbors*, United States: Fleming H. Revell Company, 1897.

Choi, Hyaeweol, "In Search of Knowledge and Selfhood: Korean Women Studying Overseas in Colonial Korea," *Intersections: Gender and Sexuality in Asia and the Pacific*, Issue 29, May 2012.

Kuno, Akiko, *Unexpected Destinations: The Poignant Story of Japan's First Vassar Graduate*, Kodansha America, 1993. 久野明子『鹿鳴館の貴婦人 大山捨松日本初の女子留学生』中央公論新社, 1993年。

Year book, 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Fifty-second Annual Report, Boston, 1921.

Year book, 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Seventy-first Annual Report, Boston, 1940.

일본 지방권에서 진행된 방치된 지역화: 행정투자의 변화를 중심으로

다무라 후미노리(서울대 아시아연구소)

1. 연구배경 및 목적

2014년 『마스다 보고서』 공개 등을 계기로 일본사회에서는 지방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구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한편 도쿄 일극집중도 여전히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도쿄를 비롯한 대도시와 지역 사이의 격차는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과거로부터 일본의 국토정책은 지역간 격차 해소를 지향점으로 제시해 왔다. 1962년에 책정된 전국총합개발계획(전총계획)은 국토균형발전을 기본목표로 설정했으며, 2023년에 책정된 제3차 국토형성계획에서도 과거 국토계획에 명시된 빈도보다 대폭 줄기는 했으나, 국토구조의 기본구상에 국토균형발전을 포함시켰다. 이처럼 국토균형발전을 목표로 내건 국토정책이 1962년 이후 60년 이상에 걸쳐 추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격차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토정책이 국토공간상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일본의 국토공간상에서 공간적 차별성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났는지 규명함을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2.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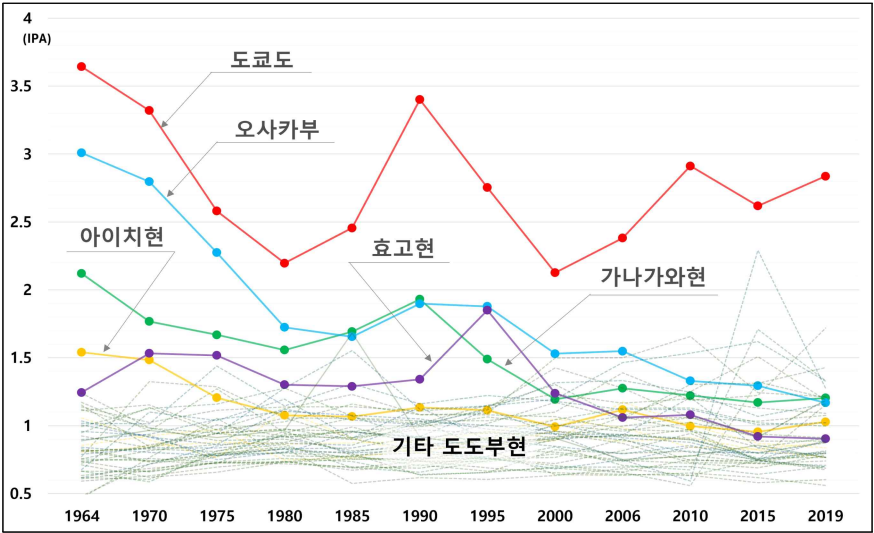
연구목적으로 제시한 국토정책의 국토공간상에서의 전개 양상을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도도부현별·시기별 행정투자액에 대한 분석을 수행했다. 행정투자는 국토정책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森裕之, 1997: 8)이자, 국토정책의 의도가 공간상에서 수행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속성을 가진 행정투자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토정책이 국토공간상에서 전개된 양상의 도출을 시도했다.

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제1차 전총계획이 책정된 1962년도부터 2019년도이며, 공간적 범위는 47개 도도부현을 대상으로 했다. 분석에는 일본의 『도도부현별행정투자실적보고서』의 각 연도 자료를 활용했으나, 中野英夫(1999)를 참고해 도도부현별 행정투자액을 각 도도부현별 인구 및 거주지(可住地) 면적으로 지수화(IPA지수)시킨 다음, 전국평균에 대한 값으로 평준화시켜 분석을 수행했다.

3. 분석결과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1차 이후 제4차 전총계획 기간에는 도쿄도 및 기타 도부현 사이의 행정투자 격차가 점차 축소세를 보이고, 또한 오사카부나 아이치현 등 상위 도부현들과 도쿄도 및 기타 도부현 사이의 격차도 축소하면서 국토정책이 국토공간상에서 균형 지향으로 전개되었음을 도출했다. 둘째, 1998년에 책정된 제5차 전총계획기 이후에는 도쿄도에 대한 행정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 경향을 보였으나, 도쿄도를 제외한 46개 도부현의 행정투자는 전국평균치로 수렴되는 양상을 보였다. 즉 이 시기에는 국가에 의한 고도의 공간적 선택성(st

ate spatial selectivity)(Brenner, 2004a) 아래 도쿄도에 초점을 맞춘 국토정책이 전개되었음을 도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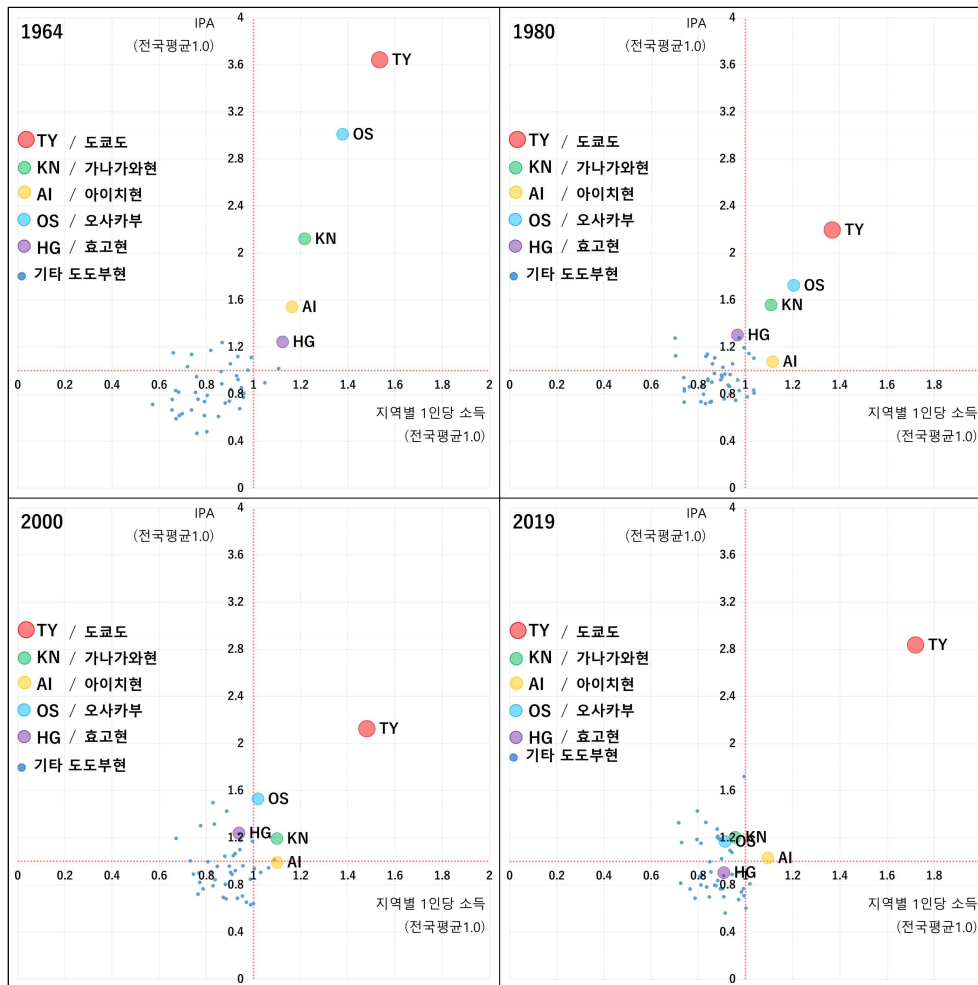


[그림 1] 도도부현별 전체 행정투자 IPA지수 추이

4. 결론 및 연구의 의의

이처럼 일본의 국토정책은 제1차부터 제4차 전총계획기에 해당되는 1990년대 후반까지는 공간적 케인즈주의(Brenner, 2019; Martin & Sunley, 1997)의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이어서 제5차 전총계획이 책정된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도쿄도에 대해서는 Urban Locational Policy(Brenner, 2004b)가 적용되었으나, 기타 도부현에서는 행정투자의 축소라는 양상으로 나타난 국가의 퇴장(retreat of the state)이 관찰되었다. 또한 이러한 지방권에서는 국가의 퇴장과 동시진행적으로 지역경제의 저성장까지 관찰되면서, 지방권의 방치된 지역(Left Behind Place)(Pike et al., 2023; 김용창, 2024)화가 현재에도 진행 중에 있음이 도출되었다.

또한 위에서 제시한 연구 성과와 함께 본 연구는 두 가지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첫째, 일본 행정투자 데이터의 약 75%를 차지하는 비전산화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분석 가능한 데이터세트를 구축했다. 둘째,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1962년 이후 47개 도도부현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장기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여 행정투자 데이터의 실증 연구 활용 가능성을 입증했다.



[그림 2] 연도별 도도부현별 행정투자와 1인당 소득 추이

참고문헌

- 김용창, 2024, 서울 영토 확장주의를 넘어 균형 발전을 위한 기회 균등 국토 공간 전략으로, 동향과 전망, 120, 9-54.
- Brenner, N., 2004a, Urban Governance and the Production of New State Spaces in Western Europe, 1960-2000,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11(3), 447-488.
- Brenner, N., 2004b, New State Spaces: Urban Governance and the Rescaling of Statehoo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renner, N., 2004a, Urban Governance and the Production of New State Spaces in Western Europe, 1960-2000,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11(3), 447-488.
- Martin, R. and Sunley, P., 1997, The Post-Keynesian State and the Space Economy, in Lee, R. and Wills, J. (eds.), Geographies of Economies, London: Routledge, 865-962.
- Pike, A., et al. 2023, 'Left behind places': A geographical etymology, Regional Studies, 58(6), 1167-1179.

中野英夫, 1999, 公共投資支出の経済分析, 三菱経済研究所.

森裕之, 1997, 日本の公共投資の制度的特徴と課題, 高知論叢, 58, 1-32.

기획발표

인구감소시대의 일본 국토 공간의
변화에 관한 연구

▶장소: 아람홀(7층)

기획발표	인구감소시대의 일본 국토 공간의 변화에 관한 연구			
시간	발표자	발표제목	토론자	사회자
14:40 ~ 16:00	이호상 (인천대), 다무라 후미노리 (서울대)	일본 중소도시의 중심시가지 활성화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바라키현 쓰치우라시(土浦市)를 사례로	정현일 (부산연구원) 현 민 (국립부경대)	이호상 (인천대)
	전지영 (국립부경대)	일본 오버투어리즘의 현황과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지역정책		

일본 중소도시의 중심시가지 활성화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바라키현 쓰치우라시(土浦市)를 사례로

이호상(인천대 일본지역문화학과)
다무라 후미노리(서울대 아시아연구소)

1. 문제의식과 연구목적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중소도시는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지역경제 침체, 빈집 및 셔터거리의 확산 등 여러 난제를 복합적으로 겪어 왔다. 고도성장기에 가속된 모터리제이션과 교외입지 선호는 중심시가지 상업기능의 이탈을 촉진했고, 이에 대응해서 1998년 ‘마을만들기 3법’(중심시가지활성화법·대규모소매점포입지법(본 법은 2000년)·개정도시계획법) 시행, 2006년 마을만들기 3법 개정(개정 3법), 2014년 도시재생특별조치법 개정과 입지적정화계획 도입 등 잇달아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정비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심시가지 쇠퇴는 구조적으로 지속되었다. 본 발표는 이러한 정책들이 기대만큼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이유를 지역학적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개정 3법 이후 약 20년간 전개된 ‘종합적 마을만들기’의 과제와 한계를 쓰치우라시(土浦市) 사례를 통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지방도시의 쇠퇴 관련 기존 논의가 인구학적 요인에 과도하게 수렴되어 온 한계를 지적하며, 본 연구는 ① 라이프스타일 변화(소비형태의 구조적 변동), ② 경쟁체제 전환 속 중심상권의 경쟁력 약화(공간·유통 체제), ③ 헤이세이 대합병의 외부효과(제도·거버넌스)라는 세 축을 결합한 원인 분석틀을 제시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더불어 쓰치우라 역세권 및 교외 상업집적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병행하였다.

3. 일본 중소도시 쇠퇴 진단의 재구성

3.1. 인구감소가 아닌 라이프스타일 변화: ‘유출’과 ‘대체’

중심시가지 쇠퇴의 직접 원인은 총량 인구의 감소라기보다는 중심시가지 이용자나 소비자의 유출과 소비형태의 변화이다. 철도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중심시가지에 위치한 전통적 상점가는 좁은 도로, 부족한 주차시설, 평일 주간 중심의 영업시간, 노후화된 시설 등의 특성으로 대표되지만, 이러한 특성 때문에 맛별이와 자가용 사용이 보편화된 30~50대 소비층의 일상적인 생활양식에 부합하지 못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통신판매나 온라인소비 확산은 오프라인 중심시가지 상권의 독점적 지위를 약화시켰다. 지역활성화 정책이 ‘상주인구 늘리기’로 치우친 사이에 교류인구나 체류 관점에서의 대책은 후순위로 밀렸다.

3.2. 모터리제이션 탓이 아닌 중심시가지의 ‘경쟁우위 상실’

중소도시 중심시가지 쇠퇴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모터리제이션은 그 자체가 원인이라기 보다는, 교외형 대규모 상업시설과의 경쟁에서 중심시가지가 제공하는 ‘총체적 사용자 경험’(접근성, 소비행태, 날씨의 영향, 영업시간 등)이 뒤쳐진 것이 핵심이다. 교외 쇼핑센터는 대규모

모 무료 주차, 복합문화 기능, 악천후 대비, 야간영업, 다양한 소비자 편의시설 등으로 가족 단위 수요를 흡수했고, 그 결과 중심시가지는 지역 내외 고객의 쇼핑 선택지에서 이탈하였다. 대중교통 강화와 같은 보행 친화적 대책도 중요하지만, 자가용 사회가 강점을 갖는 비용적, 시간적 제약을 해소하지 못하면 수요 회복은 제한적이다.

3.3. 교외개발이 아니라 ‘대합병’의 제도적 파급

헤이세이 대합병에 의해 광역화된 행정구역 안에서 ‘균형개발’ 명분으로 공공, 상업, 산업, 주거 기능이 교외에 분산 배치된 결과, 중심시가지의 중심성은 제도적으로 약화되었다. 합병 이후 지점 통폐합이나 사무공간의 공실, 관사의 빈집화가 누적되었다. 복수의 중심시가지가 공존하는 상황은 행정력, 예산, 지역 내부의 합의를 분산시켰고 정책의 파편화 및 그 효과가 희석되는 사태를 초래했다. 대규모 점포의 중심시가지 입지 규제는 역설적으로 소비활동을 외곽으로 밀어내면서 외부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4. 사례: 쓰치우라시의 변화와 한계

쓰치우라 역세권 상점가는 빈점포가 절반에 이를 정도로 침체했으며, 협소한 도로나 유료 주차장, 노후화된 상가, 영업시간 불일치 등 복합적 요인이 소비자들의 불편을 증폭시켰다. 반면 교외 국도변의 로드사이드에 위치한 쇼핑몰이나 대규모 점포 등 신규 상업지역에서는 주차나 다양한 점포의 구성, 날씨, 여가시설에 대한 접근성 등에서 오는 이점을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했다.



[그림 1]
쓰치우라역 역세권의 한산한 모습



[그림 2]
평일 낮에도 붐비는 교외 대규모 쇼핑몰

이에 반해 기존 중심시가지에서는 최근 호텔이나, 고층 공동주택, 관공서 등 비상업적 도시 기능이 확충되며 도시기능의 혼합이 진전되고 있다. 특히 쓰치우라역 바로 앞 주상복합건물에서 종합슈퍼인 이토요카도(イトーヨーカドー)가 철수하고 그 자리에 쓰치우라시청이 이전했다는 점은 상징적 전환 사례이다. 또한 도쿄권 통근 가능성과 자전거 레저 수요의 증가로 거주와 관광, 문화적 체류 기능이 서서히 회복되는 조짐이 관찰된다.



[그림 3]
행정과 주거 기능이 집적된
쓰치우라역 역세권



[그림 4]
쓰치우라역사 내 상업공간이 자전거 친화적
환경으로 정비된 모습

그럼에도 지역의 주 상권이 이미 교외로 이전하고 광역화된 상황에서, 중심시가지의 과거의 상업중심지로 되돌린다는 목표는 공간적·경제적 제약 아래 실현 가능성이 낮다. 오히려 중심시가지는 권역 내외부를 연결하는 매개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행정과 문화, 교육, 관광, 커뮤니티 등 생활 편익과 공공성 기반의 가치를 중심으로 재정의될 필요가 있다.

5. 결론

중심시가지 쇠퇴는 인구감소, 라이프스타일과 유통구조, 제도변동이 복합적으로 교차한 구조적 전환이 표면화된 현상이다. 쓰치우라시 사례는 ‘도심=상업중심지’라는 등식을 넘어, 도심을 생활·공공·문화의 플랫폼으로 재구성할 때에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향후 과제로는 ① 자가용 사회를 전제한 모빌리티 친화적 접근성 확보, ② 교류인구에 기반한 체류형 수요의 창출, ③ 권역 내에서의 다핵적 거버넌스의 정착 등을 들 수 있다. ‘도시의 얼굴’로서 중심시가지는 과거의 상업중심지로의 회귀가 아니라, “작지만 지역 내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밀도 높은 일상과 공공성의 무대”로 전환될 때 비로소 회복의 경로를 찾을 것이다.

일본 오버투어리즘의 현황과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지역정책

전지영(국립부경대학교 글로벌지역학연구소)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최근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는 급격히 증가하는 관광객 유입으로 인해 지역 사회와 관광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현상이 정책적·학문적 관심을 끌고 있다(UNWTO, 2018; Milano et al., 2019). 오버투어리즘은 일반적으로 관광지의 수용능력(carrying capacity)을 초과하는 상태, 즉 과잉·과대·과밀의 상황을 의미하며, 이는 관광객의 체류 경험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Dredge & Jamal, 2015)).

일본의 경우 특히 도쿄, 교토, 오사카 등 대도시와 주요 관광지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며, ‘관광公害’ 또는 ‘과잉관광’이라는 사회적 담론으로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억눌렸던 국내외 관광 수요가 급속히 회복하면서 특정 지역으로 관광객이 집중되는 양상이 심화되었고, 도시 공간의 과밀화, 생활환경 악화, 지역사회와 관광객 간 갈등, 관광자원 관리의 비효율성 등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에서 나타나는 오버투어리즘의 현황과 그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관광정책의 변화를 고찰하는 데 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정책을 중심으로, 관광객 분산 전략, 지속가능한 관광(sustainable tourism) 관리체계, 지역주민과 관광객 간의 조화로운 공존 방안을 살펴봄으로써 일본의 경험이 갖는 정책적 함의와 한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오버투어리즘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관광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일본 관광정책의 전개

본 장에서는 일본의 관광정책을 시대별로 전개 과정을 구분할 수 있으나, 단순한 연대기적 서술만으로는 정책의 연속성과 전환의 맥락을 충분히 드러내기 어렵다. 따라서 교통 인프라 확충, 외화 획득, 대규모 개발, 그리고 지속가능성이라는 단계별 구분을 통해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유효하다. 메이지시절부터 전전까지는 근대국가 기반과 교통망 정비, 전후는 외화 획득, 고도성장기와 버블기는 국가적 이벤트와 대규모 개발, 그리고 1990년대 이후는 지역 내발형·지속가능 관광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거쳤다. 이처럼 일본의 관광정책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을 따른 전개가 아니라, 국가적 필요와 외부 충격에 대응하며 정책 목표를 변화시켜 온 단계적 진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1) 교통인프라 확충 단계(1868~1945)

일본의 관광정책은 메이지유신(1868) 이후 근대국가 형성과 더불어 교통 인프라 확충과 함께 시작되었다. 1869년에는 관문이 폐지되어 국내 이동이 자유화되었고, 1872년 신바시-요코하마 간 철도가 개통되면서 철도망이 급속히 확장되었다. 1906년 철도국유법 제정으로 전국 철도망이 정부 주도로 통합되자, 국내 여행은 급격히 대중화되었다. 이 시기에 온천 관광, 사찰 참배, 명승지 순례 등이 새로운 근대적 관광 형태로 발전하였다. 또한 1897년 「(고사사보호법)古社寺保存法」, 1919년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호법)史跡名勝天然記念物保存法」, 1931년 「국립공원법(国立公園法)」 제정은 문화재와 자연자원의 보존 및 관광 활용을 병행

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1937년 중일전쟁과 1941년 태평양전쟁 발발로 관광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2) 외화획득형 인바운드 정책 단계(1945~1950년대)

전후 일본은 경제적 폐허 속에서 관광을 외화 획득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했다. 1945년 운수성 내 관광 행정이 부활하였고, 1949년 「국제관광사업조성법(国際観光事業助成法)」, 「국제관광호텔정비법(国際観光ホテル整備法)」, 1950년 「국제관광문화도시(国際観光文化都市)」 제도 등이 잇따라 제정되었다. 이는 미국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달러를 확보하려는 전략이었다. 1950년대 중반 이후 한국전쟁 특수(1950~1953)와 고도성장을 배경으로 국민 생활 수준이 향상되자 국내관광도 빠르게 재개되었다. 1950년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 1956년 국민숙사(國民宿舎) 제도 등은 국민의 여가와 관광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였다. 즉, 이 시기는 전쟁 직후 관광이 외화 획득 수단으로 기능하다가 점차 국민생활 향상에 따른 국내관광 진흥으로 확장된 시기였다.

3) 대형 이벤트와 대규모 개발 단계(1960년대~1980년대)

1960년대는 고도경제성장과 함께 관광정책이 국가적 이벤트와 대규모 개발 중심으로 전개된 시기이다. 1960년 「국민소득배증계획(國民所得倍增計画)」, 1963년 「관광기본법(観光基本法)」 제정은 관광을 국가 발전 전략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 1964년 도쿄올림픽과 1970년 오사카 엑스포 개최는 신칸센, 고속도로, 대형 숙박시설 등 관광 인프라의 비약적 확충을 이끌었다. 동시에 1964년 해외여행 자유화로 일본인의 해외여행이 급증하며 양방향 국제관광 시대가 열렸다. 그러나 1973년 제1차 오일쇼크 이후 대규모 관광수요는 위축되었고, 개발 중심 정책은 점차 수정되었다.

1980년대 버블경제기에 들어서면서 관광정책은 다시 대규모 개발과 외발적 성장에 치중하였다. 1987년 「리조트법(リゾート法)」(総合保養地域整備法)에 따라 전국 42개 지역에서 대규모 리조트 개발이 추진되었고, 같은 해 ‘해외여행자배증계획(テン・ミリオン計画)’이 수립되어 5년 내 해외여행자 1천만 명 목표를 조기 달성하였다(1990년). 그러나 이러한 외발적 개발 중심 정책은 버블 붕괴 이후 심각한 재정 부담과 환경 파괴라는 부정적 유산을 남겼다.

4) 지역 내발형·지속가능 관광 단계(1990년대~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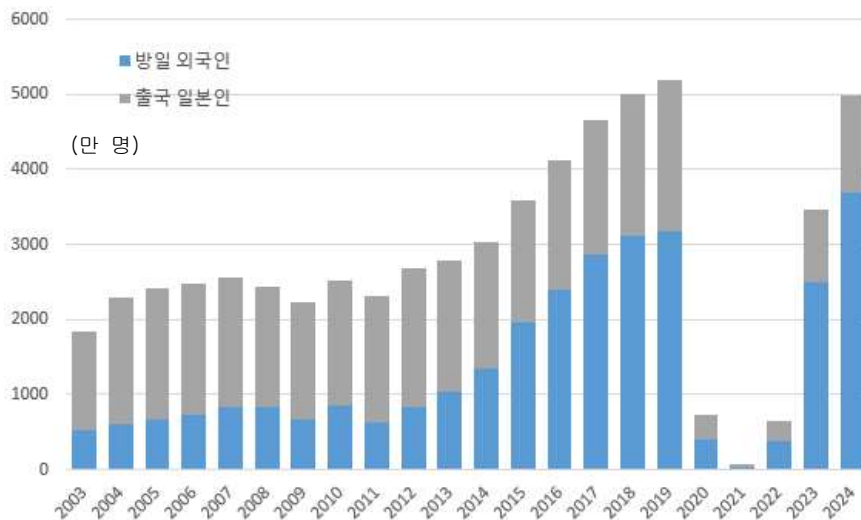
1990년대 이후 일본 관광정책은 버블경제 붕괴의 교훈을 반영하여 대규모 외발형 개발에서 지역 내발형·지속가능 관광으로 전환하였다. 1990년대 초반 리조트 사업은 대부분 중단되거나 축소되었고, 대신 농촌 체험, 산업 관광, 마을 걷기 등 소규모·체험형 관광이 부상하였다. 1995년 「농어촌여가법(農山漁村余暇法)」 제정으로 그린투어리즘이 제도화되었고, 지역이 직접 관광상품을 기획·운영하는 착지형 관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2000년대에는 ‘관광입국’을 국가 전략(2003)으로 천명하며 인바운드 확대가 본격 추진되었고, 2010년대에는 아베노믹스와 지방창생 정책 속에서 관광이 지방경제 활성화의 핵심으로 자리잡았다. 2018년에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3천만 명을 돌파했으나, 오버투어리즘 문제가 사회적 논란으로 대두되었다. 2020년대 코로나19 팬데믹은 인바운드 수요를 전면 차단하면서 관광산업에 전례 없는 충격을 주었지만, 동시에 ‘지속가능한 관광’이라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일본 관광정책은 환경 보전, 지역사회 공존, 관광 수요 분산을 중시하는 지속가능성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3. 일본 오버투어리즘의 현황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방일 외국인 여행자 수는 2020년 이후 대폭으로 감소하였으나 2023년 방일 외국인 여행자 수가 약 2,507만명으로, 코로나 이전 2019년(3,188만명)의 79% 수준으로 회복하였다(그림 1). 또한 2024년 국적별 외국인 여행자 수를 보면, 전체 방문객 약 3,687만명 중 한국(8,817,765명), 중국(6,981,342명), 대만(6,044,316명), 미국(2,724,594명), 홍콩(2,683,391명), 태국(1,148,848명) 순으로 아시아 지역 여행자가 전체 81%를 차지했다(일본 정부관광국, 2024).

이는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 수요가 여전히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강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지리적 근접성과 항공 노선의 편리성, 문화적 친숙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북미·유럽 등 장거리 시장의 회복도 점차 확대되고 있어, 일본 관광시장이 점차 다변화되는 흐름을 나타낸다.



[그림 1] 방일 외국인 여행자·수출국 일본인 수 추이
(출처: 일본정부관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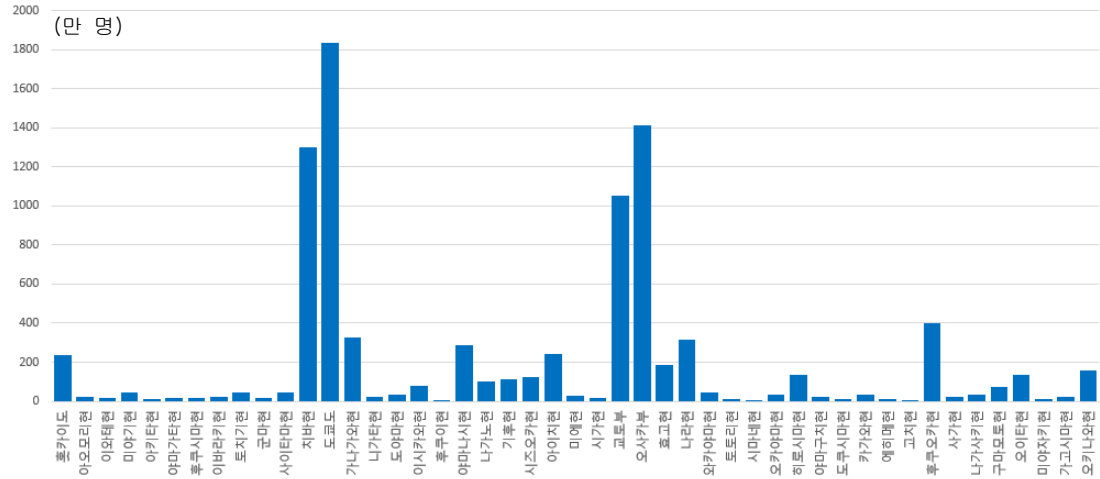
방일 외국인 여행소비액은 2024년 8조 1,257억 엔으로, 코로나 이전 2019년 4조 8,135억 엔을 웃도는 과거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전년도와 비교하여 53.4% 증가하였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 1조 7,265억 엔(전체 약 21.2%), 대만 1조 897억 엔(전체 약 13.4%), 한국 9,632억 엔(전체 약 11.8%), 미국 약 9,021억 엔(전체 약 11.1%), 홍콩 약 6,584억 엔(전체 약 8.1%)로 전체 65.7%를 차지했다(国土交通省, 2025).

방일 외국인 관광소비액을 비목별 구성비를 보면, 숙박비 33.6%, 쇼핑구입비 29.5%, 식비 21.5% 순으로 많았다. 2023년과 비교하여 쇼핑구입비가 증가했고, 2019년과 비교하여 숙박비는 증가하였으나, 쇼핑구입비는 감소하였다. 또한 방일 외국인 1인 지출비는 22만 7천엔으로 추정된다(2023년비 6.6% 증가, 2019년비 43.1% 증가).

이는 방일 외국인 관광시장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 새로운 성장 국면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며, 관광객의 소비 패턴이 단순한 쇼핑 중심에서 숙박·체험·식음료 등 체류형 소비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동시에 고부가가치 관광 수요 확대가 일본 관광산업 전반의 질적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2024년 방일 외국인 관광객 소비 동향을 상위 5개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도쿄도가

1,834만 명의 방문자와 2조 8,702억 엔의 소비액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였다(그림 3). 이는 일본 관광의 중심지로서 도쿄의 국제적 위상과 다양한 관광 인프라가 결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뒤이어 오사카부가 1,409만 명, 1조 2,935억 엔으로 2위를 기록하며 간사이 지역의 핵심 관광 거점으로서 드러났다.



[그림 3] 도도부현별 방일 외국인 여행자 방문자 수(2024년)
(출처: 国土交通省)

2024년 방일 외국인 관광의 특징은 도쿄도, 오사카부, 교토부를 중심으로 한 3대 도시권에 관광객과 소비가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오버투어리즘 문제와 직결된다. 도쿄와 오사카, 교토는 교통 접근성, 국제적 인지도, 숙박·상업 인프라의 집적 효과로 외국인 관광객을 대규모로 흡수하면서, 교통 혼잡·생활 불편·문화재 훼손과 같은 오버투어리즘 부작용을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교토의 전통 거리, 오사카 도톤보리, 도쿄의 시부야와 아사쿠사 등은 과밀로 인한 주민 불만이 두드러진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도시권의 과밀 현상과는 대조적으로, 다수의 지방도시는 여전히 관광객 유치와 소비 확대에서 한계를 보이며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후쿠오카와 홋카이도 같은 일부 거점 지역은 체류형 관광으로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다수의 지방 도도부현은 짧은 체류와 낮은 소비 단가로 인해 관광 수익 창출이 제한적이다. 이는 일본 관광산업이 한쪽에서는 오버투어리즘을, 다른 한쪽에서는 관광객 부족을 동시에 경험하는 이중적 구조를 보여준다.

따라서 일본의 관광정책은 대도시권의 집중과 과잉 문제를 완화하면서도 지방도시의 관광 잠재력을 발굴·육성하는 균형 전략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4장에서는 2023년 3월 관광입국 추진각료회의에서 결정된 ‘오버투어리즘 미연방지·역제에 위한 대책팩키지’를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한 지역정책을 살펴볼 것이다.

4.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일본의 지역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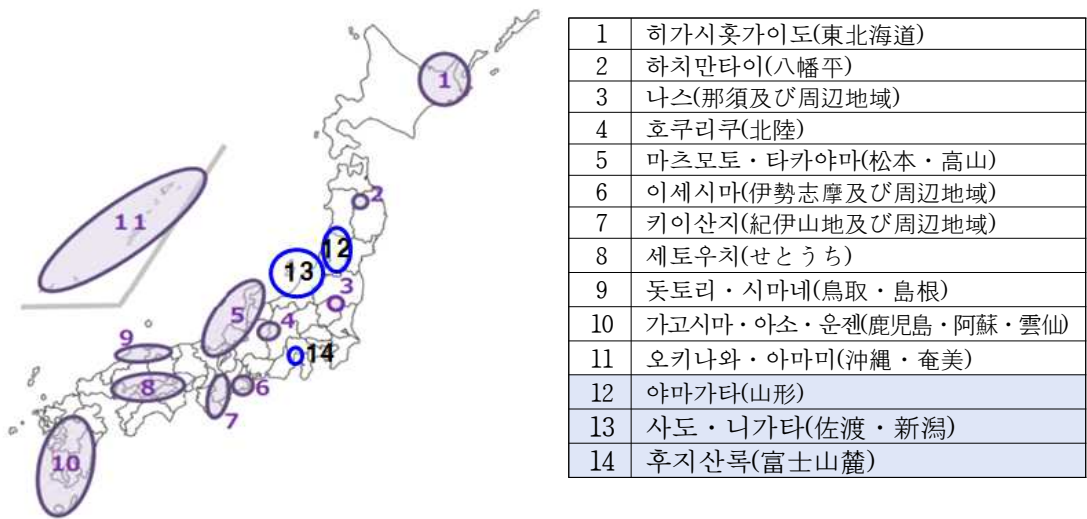
1) 관광객 집중에 따른 과도한 혼잡과 관광객의 비매너 행위에 대한 대응

관광객이 집중되는 지역에서는 교통수단과 관광 인프라를 정비하여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특히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운임 설정, 시간대, 시기, 장소별로 분

산을 유도한다. 또한 관광객의 비매너 행위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다국어 간판과 디지털 매체를 활용해 정보를 제공하며, 사유지 무단출입이나 문화재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보안카메라 등을 설치한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쾌적하고 질서 있는 관광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관광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며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와 관광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2) 지방도시로의 관광객 분산 추진

2023년 3월 일본 관광청에서는 지방도시 관광객 소비액보다 대도시권 중심의 관광객 소비액이 많은 것에 주목하여 지방창생2.0(トラベルボイス, 2025)에 공헌하기 위해 지방도시로의 관광객 분산을 추진하기 위해 모델지역 11곳을 선정하였다(그림 2). 2024년 9월 야마가타, 사도·니가타, 후지산록 3곳을 추가하여 선정하였다. 특히 본 사업을 통해 선정된 각 지방도시 관광지의 매력 향상과 관광객을 위한 환경정비를 통해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의 관광객 집중을 분산시키고 지방도시로의 관광객 확대를 도모한다(국토교통성, 2024). 이를 통해 이를 통해 일본의 관광 수요가 대도시권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를 완화하고, 각 지역이 가진 고유한 문화·자연 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촉진하며, 궁극적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잡힌 국가적 관광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2] 지방도시의 고부가가치 인바운드 관광지 만들기(2024년 9월)
(출처: 관광입국추진각료회의 자료)

3) 지역주민과의 협력을 통한 관광진흥

각 지역의 사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민을 포함한 지역 관계자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계획 설정 및 실시를 포괄적으로 전개해야한다. 또한 각 지역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기 위해 관광청이 주체가 된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연계를 통한 지원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관광 관리가 가능해지고, 주민·지자체·중앙정부 간의 협력 기반이 강화되어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과 지역 사회의 균형 있는 성장을 실현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급속히 회복된 일본 관광시장에서 나타난 오버투어리즘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도쿄·오사카·교토를 중심으로 한 대도시권에서 관광객과 소비가 과도하게 집중되어 교통 혼잡, 생활 불편, 문화재 훼손 등 오버투어리즘의 부작용이 심화되는 반면, 지방도시는 낮은 체류일수와 소비 단가로 관광 수익 창출에 한계를 보이며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이는 일본 관광산업이 대도시권의 과잉관광과 지방의 관광객 부족이라는 이중 구조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응하여 일본 정부는 ‘오버투어리즘 미연방지·억제 대책 패키지’를 통해 교통 및 인프라 정비, 관광객 분산 유도, 주민 참여 기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 모델 지역의 지정과 같은 정책적 시도는 관광 수요의 공간적 재분배를 통한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일본의 사례는 오버투어리즘이 단순한 관광객 과잉 문제가 아니라 관광의 공간적 불균형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주며, 지속가능한 관광 실현을 위해서는 대도시권 집중 완화와 지방도시 활성화를 병행하는 균형 전략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 Dredge, D., & Jamal, T. (2015). Progress in Tourism Planning and Policy: A Post-Structural Perspective. *Tourism Management*, 51, 285-297.
- Milano, C., Cheer, J. M., & Novelli, M. (2019). *Overtourism: Excesses, Discontents and Measures in Travel and Tourism*. CABI.
- UNWTO (2018). ‘Overtourism’ ? - Understanding and Managing Urban Tourism Growth beyond Perceptions. Madrid: World Tourism Organization.
- 国土交通省 (2024). 『高付加価値旅行者の誘客に向けて集中的な支援等を行うモデル観光地3地域を追加選定しました』. 国土交通省観光庁. <https://www.mlit.go.jp/kankocho/content/001764408.pdf> (최종접속일: 2025.10.02.).
- 国土交通省 (2025). 『【インバウンド消費動向調査】2024年暦年の調査結果(確報)の概要』. 国土交通省観光庁. https://www.mlit.go.jp/kankocho/content/001856155.pdf?utm_source=chatgpt.com (최종접속일: 2025.10.02.).
- トラベルボイス (2025.09.26). 『政府が取り組む「地方創生2.0」と観光の位置づけは?』. <https://www.travelvoice.jp/20250926-158414?media=tvm> (최종접속일: 2025.10.02.).
-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객통계, <https://www.jnto.go.jp/statistics/data/visitors-statistics/>

개인발표

▶ 제1세션 (장소: 516호)

제1세션 (개인발표)				
시간	발표자	발표제목	토론자	사회자
16:10~16:50	미나리 사야카 (시마네현립대)	ラフカディオ・ハーンの日本女性観 —西洋的女性像との比較を通して—	최은경 (동아대)	이승희 (부산대)
16:50~17:30	박시연 (성균관대)	메이지 궁내성 간행 『婦女鑑』 과 『幼學綱要』 속 여성 권력자상 연구	한현석 (한국해양대)	
17:30~18:10	김태훈 (시코쿠 가쿠인대)	해방 후 일본으로 복귀한 천리교 히키아게 교회의 현황 조사 보고	남휘정 (성신여대)	
18:10~18:40	동아시아일본학회 2025년도 하반기 정기총회			
	2025년 동북아시아문화학회 정기총회 및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시상			
	폐회식			

ラフカディオ・ハーンの日本女性観 —西洋的女性像との比較を通して—

三成清香(島根県立大学 准教授)

1. ラフカディオ・ハーン - “異なり”への注目と強調

ラフカディオ・ハーンの日本観を考えると忘れてはならないのは、彼が19世紀を生きた西洋人だということである。彼は日本を見、その豊かな文化を発信したが、それが西洋至上主義的視点からはかけ離れていたことで、彼がいかに西洋社会の観念にとらわれていたかは見逃されがちである。しかし、人生の大半を西洋諸国で過ごしたハーンの観念は当然19世紀の西洋社会に依拠していた。太田雄三は、ハーンに人種主義的な側面があると指摘し、エドワード・S・モースとの比較を通じて論じている。

人種主義的なハーンの態度と関連していると思われるのは、彼がほとんどつねに日本人と我々（西洋人）はいかに違うかということを問題にしたことである。（中略）モースは彼の著『日本その日その日』などで具体的に数多くの日米比較を行ない、ほとんどの場合日本の方に軍配を上げているけれども、彼の場合はその違いは越えられないものでも恒常的なものでもなかった。モースにおいては、日本の方が優れていることがあれば、日本から学べばよい、のである。しかし、ハーンにおいては、違いは多くの場合、生まれながらの人種の違いに根ざしていると思なされる。したがって、それは越え難い違いなのである。¹⁾

この指摘の通り、ハーンはとりわけ初期の著作において、日本人の特異性を強調する傾向があった。本発表で取り上げる「女性」に関する描写も例外ではない。もっとも、この“異なり”の強調をただちにオリエンタリズム的なまなざしとして片づけてしまうのは適切ではない。ハーンの日本女性観は、来日後大きく変化したからである。ハーンはジャポニスムが与えた虚構のイメージから脱却し、日本の生活（松江で共に暮らしたセツやその家族）のなかに日本の実態を見ていった。したがって、ハーンの日本女性観を論じる際、その背景には西洋社会が求めた女性像があったということ、異なりの強調が虚構の再生産ではなく、日本での暮らしがハーンに見せたものだったということに留意する必要がある。

本研究の目的は、ラフカディオ・ハーンの日本女性観を、西洋社会における女性像との比較を通して検討することである。本発表では特に、ハーンが生きた19世紀西洋社会の女性観について概観し、それがハーンの描く日本女性像にいかに関与したのかについて、ハーンの日本滞在を考慮に入れつつ考察していきたい。

2. 西洋社会における女性像

—Patmore, *The Angel in the House* (1854) と Tennyson, *The Princess* (1847) —

ハーンの日本女性観を理解するには、彼が生きた19世紀後半から20世紀初頭にかけての西洋社会、とりわけヴィクトリア朝期の女性観を考慮する必要がある。1850年に生まれたハーンは、ま

1) 太田雄三『ラフカディオ・ハーン—虚像と実像』（岩波書店、1994）13-14頁。

さにヴィクトリア朝の最盛期に成人した。産業革命によってイギリスは世界で最も強大な帝国となり、機械化による大量生産は労働者を都市に集め、社会構造を大きく変化させた。家庭と職場は二極分化され、階級格差は拡大していった。その一方で、家庭における道德教育やキリスト教的価値観が重視され、男女の役割分担が強く規範化された。

この時代のイデオロギーを端的に示すのがSeparate spheresという考え方である。男性はMaster of the Houseとして外で働き、女性はAngel in the Houseとして家族を守る存在であるべきとされた。家庭は「汚れた外の世界」から夫や子どもを守る道德の砦であり、女性は妻として、母として、道德的責任を負うと考えられた。女性が社会的地位を求めたり、家の外で職に就くことは望ましい生き方ではなく、家庭こそが女性の場とされたのである。さらにこの時期、子どもは「小さな労働者」ではなく「無垢で守られるべき存在」とみなされるようになり、家庭での道德教育の重要性が一層強調された。

こうした時代状況を背景に生まれた文学作品として、二つの対照的な例を挙げたい。一つはC・パットモアの『家庭の天使』The Angel in the House (1854)である。ここには理想的な妻・母の姿が描かれており、夫に献身し、従順で優しく、自己犠牲的である女性像が称揚されている。この作品は大きな影響力をもち、ヴィクトリア朝社会における女性規範を広める役割を果たした。もう一つはA・テニソンの『王女』The Princess (1847)である。ハーン自身が「ヴィクトリア時代最大の詩人」と評価した桂冠詩人テニソンのこの作品は、パットモアとは異なる女性像を提示している。主人公〈アイダ王女〉は、「男は戦場、女は家庭の炉辺／男は剣を、女は針を持ち／男は頭脳を、女は心を司る／男は命じ、女は従う／それ以外は混乱である」²⁾と言う父の言葉に反発し、女性だけの学問の場を築こうとする。ここでは女性の知性と自立が探求され、教育の重要性が強調される。もっとも、この物語は、女性が男性から分離・独立することではなく、男女の共生と調和に至る結末を迎える点が重要である。すなわち、パットモアの「家庭の天使」に体现される従順と自己犠牲の価値観とは対照的に、テニソンの作品は男女の相互補完・共生を未来像として描き出しているのだ。

しかし、19世紀後半に入ると状況は大きく揺れ動く。女性の権利運動や労働者の権利運動が活発化したのである。イギリスではE・パンクハーストが女性参政権を求める運動を展開し、アメリカではS・B・アンソニーやE・C・スタントンが公民権運動を主導した。こうした潮流のなかで家庭の天使像は女性の自由を制限する抑圧的な規範として批判の対象となり、女性の教育機会・職業選択・参政権などの権利要求が社会を揺るがした。ハーンはまさにこうした激動の時代に生きたのである。

この時代背景を踏まえると、彼が日本において出会った女性たちへの驚きの意味が理解しやすくなる。西洋社会の女性たちが権利を求めて声高に叫んでいた時代にあって、誰にも強いられることなく家族に献身し、信仰や慣習に生きる日本女性の姿は、ハーンにとって異なり以外の何物でもなかった。彼はチェンバレン宛書簡の中で、以下のように述べている。

もしこの優しさが抑圧と圧制の結果であるとするならば、抑圧と圧制も全面的に悪いとは言えません。これに反してアメリカ女性は、自分が偶像崇拜の対象となりながら、その性格をどんなにダイヤモンドよろしく硬直させてしまうことでしょうか。事象の永遠の秩序において、いずれが至高の人間でありましょうか？――子供っぽくて、人を信じやすく、気立ての優

2) Tennyson, Alfred. 1848. *The Princess*. Boston: W. D. Ticknor, p. 120 (拙訳)

しい日本女性でしょうかーそれともわれわれの、より人為的な社会に住んでいる、華やかで、計算ずくめの、人の心を見ぬく西洋の魔女（キルケ）、悪に対する能力は巨大で善を目指す才能に乏しい魔女でしょうか。（中略）そこで疑問が生じます。すなわち「至高の善を理解するには、われわれは悪の最大の力をまず学ぶことがぜひとも必要なのであろうか？」というのも、一方は他方の影であるかもしれないからです。³⁾

この私的な文章からは、単なる異国趣味的理想ではなく、西洋社会の規範との差異から生じた驚きと感嘆が読み取れる。すなわち、ハーンが異なりに目を向け、それを強調したのは、虚構的イメージの投影ではなく、ヴィクトリア朝的女性像と鋭く対照される現実の経験として受けとめられた結果であった。西洋社会の「中心」になじめなかった周縁の者としての立場も、この驚きを受け止める感受性を強めていたと考えられる。

3. ハーンが描いた日本女性

ここからは、ハーンが描いた日本女性像においてどのように異なりが強調されているかを見てみよう。まず、*Out of the East*（『東の国から』、1895）に収められた「永遠の女性」には〈夫人〉という人物が登場する。彼女は「いかにもしとやかな、まじめな婦人」でありながら、ほとんど姿を見せず、ミステリアスな存在として描かれている。読者はこの記述を通じて、日本女性を不可解でありながら魅力的な存在として思い浮かべることになるだろう。従来の西洋で流布していたゲイシャ等のイメージを覆す、新たな日本女性のイメージにもつながっている。この〈夫人〉は「我々西洋人とは異なる者」として描かれている。

さらに「おばあさんの話」には、セツの養母トミが登場する。彼女は「この上なく愛情深く、利己心の欠片もなく、お構いなしになれる自己犠牲への見返りなどを、頭の片隅にもおかない……古い日本の典型的な女性」と評される。ここでも「自己犠牲」「利己心の欠如」といったことが強調され、西洋社会では既に批判の対象となっていた自己犠牲的価値観を持つ異質の存在として表象されていることがわかる。

公刊された作品のみならず、私的な書簡にもハーンの「驚き」が表れている。たとえばチェンバレン宛の書簡には、日本に滞在する尊敬すべき人物に対して率直な思いを綴るハーンの姿が浮かび上がる。そこでは、家長を敬い、従順に仕える妻の態度や、神仏へ祈りを捧げる人々の姿が浮かび上がる。そこには、昔ながらの習慣に従い、家長を敬う妻の態度、神仏へ祈りを捧げる人々の姿が驚きをもって記されている。

こうした異なりの強調は、前述の通り、先行研究でも指摘されてきた。太田雄三は「このような日本人のユニークさの強調は、多くの日本人の歓迎するところであった。（中略）日本文化のユニークさについての思い込みを強めるような言葉は、確かにハーンの著作のいたる所に見つかるのである」⁴⁾と述べている。ハーンが英文でこれらを記していた以上、日本人を読者として想定してはいなかったが、その文章は結果的に、後世にまで日本文化のユニークさを印象づける役割を果たすこととなった。

しかし、重要なのは、ハーンが日本女性のあり方を異国趣味的な「想像上の東洋」に見たの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ハーンの日本女性観は、西洋的女性像との対比を背景に、松江での実体

3) ラフカディオ・ハーン『ラフカディオ・ハーン著作集』14巻（恒文社、1983）415頁。

4) 太田雄三、前掲（註1）、14頁。

験に基づき、驚きをもって構築されていった。もちろん、こうした異なりの強調だけでは、ハーンの女性観を十全に説明することはできない。彼の生涯において決定的な意味をもったのは、小泉セツとの結婚生活であった。一見、家庭の天使のように思われるセツだが、実際には物語を語り伝える者としてハーンの創作活動の一翼を担った。続いては、セツや小泉家との生活を手がかりに、ハーンの日本女性観における「共生と調和」の側面を検討する。

4. 小泉セツとの結婚—共生と調和、そして創造する力—

ハーンは、日本が古き良き世界であるままであることを望み、急速に近代化していく日本の姿を嘆いていたことから極めて保守的な人物であったことが分かる。このハーンの日本滞在を支え続けたのが、妻セツと小泉家の人々である。セツの献身に注目すると、彼女は、家庭の天使としての役割を担っていたようにも見える。夫や子どもに愛情を注ぎ、家族のために労を惜しまない姿は、まさにヴィクトリア朝的な理想像を体現しているかのようである。実際、セツは社会的地位や経済的自立を求めた女性ではなかった。

しかし、セツの姿を単に家庭の天使としてのみ理解することは適切ではない。彼女は、物語を夫に語り聞かせることによって、ハーンの著作世界に深く関わった共創者でもあった。幼少期に学問を断念させられたセツは、書店を巡り、書物を読み、夫に語り伝えることで「語り部」としての役割を果たしたのである。その背景には、養母トミによる支援もあった。

母が父の身の廻りの世話の他に、材料漁りの読書に従事出来るよう、母の養母慈明院さんか後には女中共を督勵しつゝ食事及子供等一切の世話を引受けて居られた。故に慈明院さんは隠居にして隠居に非ずであった。5)

これは長男一雄の回想である。ここから分かるのは、セツがハーンを支えたように、トミがセツを支えていたということである。この小泉家という場所において、ハーンの著作世界は広がりを得たと考えられる。

セツとハーンの関係は、テニスン『王女』における〈ナラ王子〉が〈アイダ王女〉へ歌った詩を想起させる。

女は未熟な男ではない、ただ異なるだけだ。	女性の問題は男性の問題でもある
もし女を男と同じにしたならば	二人は共に沈むか、共に高まる
愛は滅びるだろう。	縛られるか、自由になるか
愛の本質は、同じであることではなく、	それも共に7)
違いの中に調和を見出すことなのだから6)	

これらの詩が表しているように、セツとハーンはまさに「異なる存在」でありながら、その違いを調和させることで創造的な営みを可能にしていた。

さらに重要なのは、この関係が「エロス = 創造の力」として機能していた点である。ハーン自

5) 小泉一雄『父小泉八雲』（小山書店、1950）118頁。

6) Tennyson, Alfred、(註2)、pp.100 (拙訳)。

7) Tennyson, Alfred、(註2)、pp.159 (拙訳)。

身、西洋における情欲思考的状况を批判しながらも、それが「最高の意味において、一つの創造する力」であると述べている。さらに、それは単なる欲望にとどまらず、感受性・包容力・他者への優しさをへとつながっていくものであるとも信じていた。初婚の失敗後、ハーンは、情熱的な愛情はすぐに燃え尽きるが、友情に基づく結婚は持続的に成熟すると書いた。セツとの結婚はこの「友情」によって支えられつつも、同時に新たな物語を生み出すエロスの力を孕んでいたといえる。それは、家庭的安定や理性的な「友情による結婚」にとどまらず、創造の源泉となる情動的な結びつきであったと解することができる。

こうして見ると、セツには家庭の天使という側面もあったものの、トミを含む小泉家の共同性の中で「共創者」として位置づけられるべきである。セツが語り部として提供した物語は、ハーンの著作にかけがえのないものであった。ハーンはその語りを通じて自らの文学的想像力を広げていった。この「共生と調和」、そして「エロスによる創造の力」こそが、ハーンの日本女性観のもう一つの側面を形づくっている。

5. おわりに

本研究では、ラフカディオ・ハーンの日本女性観を、西洋社会における女性像との比較を通じて検討した。その結果、ハーンは実体験を通じて日本女性に家庭の天使としての側面を見ていた一方で、彼の再話活動や執筆活動が共生と調和の結果でもあるという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ハーンの著作には確かに、不可解で従順、自己犠牲的な存在としての日本女性像が描かれている。これは一見、先行研究が指摘する異なりの強調であるかのように読み取れる。しかし、それ以上に、これらの描写がヴィクトリア朝社会に広まった家庭の天使像と共鳴しながら、それらに対抗しようとする女性たちの姿を相対化する役割をもっていたと言えるのである。

さらに重要なのは、セツとの結婚生活が「共生と調和」の場となっていたということである。セツは家庭の天使として夫に従うだけの存在ではなく、物語を語り伝えることで創造に参与した女性であった。彼女の語りはハーンの文学的想像力を広げ、また養母トミを含む小泉家の共同性がそれを支えていた。セツとの結婚は、異なる存在への驚きと理解を統合する場であり、ハーンにとって「異なりから創造する力」へと深化していった。この点を端的に示すのが、チェンバレン宛の書簡である。ハーンは「自分の小世界」と呼んだ小泉家について、「昔風の習わし、昔風の考え方と礼儀から成り立っている、小さなほほえましい世界」であり、自分にとっては不可欠な存在であると述べている。そこは柔和で優しい空間であり、彼にとって現実の西洋社会の重圧や孤独を和らげる「夢」のような場であった。ハーンはこの「小世界」によって支えられ、生き延び、また創造し得たのである。

ハーンの日本女性観には、異なりの強調は確かに存在しているものの、それは虚構的投影ではなかった。むしろセツとの結婚と小泉家という小世界を通じて、ハーンはジャポニズム的幻想から脱却し、現実の生活に根ざした異なりを理解する視座へと到達したのである。

絶対的に正しいとされたものに向かって西洋が動き出し、日本もそれに追従すべく躍起になっていた時代にハーンは生きていた。だからこそ、冒頭で引用したように共に「良さ」に向かって進んでいこうとするいわば同質化が肯定的に受け入れられたのである。一方、ハーンは、〈ナラ王子〉が歌ったように、差異の中の調和に意義を見出した。これは、怪談をはじめ、ハーンの著作に共通して読み取れる態度であり、現代を生きる我々が改めて評価すべき部分でもある。

参考文献

太田雄三『ラフカディオ・ハーン—虚像と実像』（岩波書店、1994）

小泉一雄『父小泉八雲』（小山書店、1950）

小泉八雲、平井呈一訳『東の国から・心』（恒文社、1986）

長谷川洋二『八雲の妻—小泉セツの生涯』（今井書店、2014）

ラフカディオ・ハーン『ラフカディオ・ハーン著作集』（恒文社、1983）

Patmore, Coventry. 1885. *The angel in the house*. London: George bell and son

Tennyson, Alfred. 1848. *The Princess*. Boston: W. D. Ticknor

메이지 궁내성 간행 『婦女鑑』과 『幼學綱要』 속 여성 권력자상 연구

박시언(성균관대 유가예술문화콘텐츠연구소 연구원)

1. 서론

본 연구는 메이지 궁내성(宮内省)이 천황과 황후의 교지(教旨)를 받아 편찬한 열전(列傳) 형식의 남녀용 수신 교과서, 『유학강요(幼學綱要)』(1882)와 『부녀감(婦女鑑)』(1887)을 중심으로, 두 텍스트에 나타난 여성 권력자의 재현 방식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천황을 정점으로 권력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천황의 ‘남성화’를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동시에, 여성의 정치적 지위를 새롭게 규정하였다. 여성 천황의 존재는 배제되었으나 황후는 국가의 상징이자 문명의 체현자로 부각되었다.¹⁾ 이로써 에도 시대까지 불분명했던 황후의 위상은 근본적으로 변화하였고, 이러한 젠더 권력 구조는 현대 일본의 황실로까지 이어졌다. 따라서 본고는 궁내성이 편찬한 수신 교과서 속 여성 권력자 표상을 분석함으로써, 메이지기 일본 사회가 정치권력 속 여성의 지위를 어떻게 구상했는지를 규명하고, 나아가 이러한 구상이 교육을 통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유학강요』와 『부녀감』은 일본, 중국, 서양의 역사에서 특별한 업적을 남긴 인물을 선별하여, 당대 일본의 지향에 맞게 재편한 텍스트이다. 이는 역사적 인물을 교육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의 일환이었다. 편찬에는 모토다 나가자네(元田永孚)와 니시무라 시게키(西村茂樹) 등 당대 최고 지식인이 참여했으며, 『유학강요』는 일본 최초로 전국에 하사된 교과서로서 관립·공립학교는 물론 사립학교와 사족·평민 사회 전반에까지 보급되었다.²⁾ 『부녀감』 역시 화족여학교뿐 아니라 다양한 여학교와 일반 여성들에게까지 확산되었다.³⁾ 기존 연구들은 두 텍스트가 ‘국민화’를 추진하는 도구로 기능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유학강요』는 천황 존숭과 인의충효의 정신을, 『부녀감』은 양처현모와 유교적 여성상을 함양했다고 평가했으며, 두 텍스트를 훗날 제정된 교육칙어의 전신으로 인식했다.⁴⁾ 이러한 연구는 편찬 배경과 편찬자의 사상을 바탕으로 텍스트의 위상을 규정하는 데 의의를 지녔으나, 예화 자체의 구체적 서사와 재현 방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부족하였다.

최근 들어서는 두 텍스트에 등장하는 인물의 서사와 재현 방식을 본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다양한 사회문화사적 맥락 속에서 해석하려는 연구가 등장하였다. 이들 연구는 두 텍스트가 지닌 ‘국민화’ 기능을 인정하면서도, 독자의 자발적 독해 영역에 주목하여 텍스트를 보다 확장된 시야에서 이해하려 하였다.⁵⁾ 특히 『유학강요』와 『부녀감』이 근대 전환기, 즉 전통과 근대가 경합하고 절충되던 과도기에 편찬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두 텍스트를 동아시아 전통과 서구 문명이 교차하는 장으로 이해할 필요성을 가진다.

1) 메이지 황후의 변화하는 표상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若桑みどり, 『皇后の肖像: 昭憲皇太后の表象と女性の国民化』, 筑摩書房, 2001 참조.

2) 矢治佑起, 「『幼學綱要』に関する研究—明治前期徳育政策史上における意味の検討—」 『日本の教育史学』 33, 1990, pp.37-45.

3) 越後純子, 『近代教育と『婦女鑑』の研究』, 吉川弘文館, 2016, pp.252-276.

4) 두 텍스트의 선행연구는 졸고 박사학위논문 「메이지기 여성상 연구 - 궁내성 간행 『婦女鑑』을 중심으로 -」(2025), 「수신서 『유학강요』의 위상과 ‘전통의 발명’ - 일본인물의 ‘위인화’를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86, 2023)를 참조.

5) ‘자발적 독해 영역’에 관해서는 박이진·박시언, 「수신 교과서 『부녀감(婦女鑑)』의 텍스트성-일본 근대 전환기 여성 표상의 다양성-」, 『史叢』105,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2022 참조.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유학강요』와 『부녀감』에 재현된 여성 권력자의 모습이 과도기적 맥락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들 텍스트가 여성의 정치적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과정에서, 근대 일본의 정치 질서와 젠더 구조 형성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규명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두고자 한다.

2. 근대 황후의 발명과 표상 - 『부녀감』에 나타난 ‘여성 권력자’ 상(像)

에도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황실에는 천황과 황후의 ‘일대일 부부’ 개념은 명확하지 않았다. 천황의 정실은 공식적으로 공표되지 않았고, 정실을 지칭하는 호칭조차 일관되지 않아 황후의 존재는 제도적으로나 상징적으로 불분명했다. 그러다 메이지기에 접어들면서 황후는 천황의 유일한 배우자로 위상을 확보했고, 정치적 역할이 부여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황후의 교지에 근거해 편찬된 『부녀감』은 정치권력 속 여성의 모습을 어떻게 재현했을까? 대표적인 예화로 「돌리 페인 부인(脫勒邊夫人)」(권2) 예화를 살펴보겠다.

<예화 1> 돌리 페인은 북아메리카의 사람으로 제임스 매디슨의 부인이다. 1809년, 남편 매디슨이 합중국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전후 팔 년 동안 그 높은 지위에 있었는데, 그 시절은 나라 안에서 가장 다사다난하던 때로 외부적으로는 영국과의 전쟁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당파 간의 갈등이 있어 서로를 적과 같이 여기며 정부에 저항하는 일이 극심했다. 이 상황에서 처신하는 것은 실로 어려웠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부인의 온화한 얼굴과 부드러운 성품 덕분에 각 당파의 반대 지도자들조차도 이 부인 앞에서는 불평이 갑자기 풀리고, 얼굴빛이 밝아지며 친밀함을 느꼈으니, 마치 얼음과 눈이 태양을 만난 것과 같았다. 매디슨이 인망을 얻은 것은 전적으로 그 부인의 덕에 의한 것이었다. 매디슨은 과묵하고 위엄 있는 사람이어서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는 데에 그쳤으나, 부인은 매우 기억력이 뛰어나 한 번 보고 들은 사람의 이름과 얼굴, 목소리를 기억해 절대 잊지 않았다. 그러므로 다시 그 사람을 만나면 즉시 전에 만났던 때를 떠올려 이에 응대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특별한 애정과 존경을 받는다고 여겨, 존경하는 마음이 더욱 두터워졌다.⁶⁾

『부녀감』에 등장하는 124명의 여성 인물 가운데 ‘일본의 황후’는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는다. 이는 메이지기 이전까지 황후의 제도적 지위가 불분명했던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전통적 황후의 이미지가 부재했음을 보여준다. 대신, 중국의 황후와 서양의 왕비를 적극 소환하며, 이들의 역할은 당시 메이지 황후가 지향했던 역할과 상응한다.

위 예화의 주인공 돌리 페인(Dolley Payne, 1768-1849)은 미국의 제4대 대통령인 제임스 매디슨(James Madison, 1751-1836)의 영부인으로, 남편의 재임 동안 정치적 파트너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상적인 퍼스트레이디의 역할 계보를 확립한 인물로 평가된다. 이 예화는 ‘위엄 있는 대통령’과 ‘온화한 영부인’의 대비를 통해, 돌리 페인을 대통령과 정치적 파트너십을 구현한 여성 권력자로 묘사한다. 마찬가지로 메이지 황후도 천황과의 ‘파트너십’을 형성했는데, 황후는 1879년 내정야화(內廷夜話)를 시작으로 천황과 동석하여 정사 관련 정보를 공유했고, 1886년 천황의 병환 시 그를 대신해 금요배식을 수행했다. 전시 상황에서 황후의 역할은 더욱 두드러졌다. 러일전쟁 당시 황후는 병환 중인 천황을 대신해 고위 군사 관계자들과 알현하며 전황을 보고받았고, 온화한 태도로 장군들을 격려하며 사례금을 하사하는 등 전쟁 수행을 지원했다.⁷⁾ 이른바 천황은 관제개혁을 통해 카리스마와 국가원수의 위상을 확보한 반

6) 『婦女鑑』 卷2, 「脫勒邊夫人」(지면의 한계로 원문 생략)

면, 황후는 자선·복지·교육을 주도하며 자애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실제 행차 기록에서도 두 사람의 역할은 뚜렷하게 구분된다. 천황이 주로 군사·순행 등 권위적 활동을 수행했다면, 황후는 학교·병원·적십자 전람회 등 사회적 활동에 집중했다.⁸⁾ 이렇듯 천황과 황후는 상호보완의 파트너십 안에서 존재가치를 확립했으며, 이러한 젠더정치의 방향성은 돌리 페인과 제임스 대통령의 관계성과 오버랩된다.

실제로 메이지 황후는 서양 왕비의 정치적 역할과 지위에 관심이 많았다. 그 직접적인 모델은 프러시아 왕비이자 독일 제국 초대 황후 아우구스타(Augusta of Saxe-Weimar, 1811-1890)로 알려져 있다. 아우구스타의 비서였던 몰(Mohl)은 메이지 황후에 대해, “황후는 서양풍 왕후의 의무를 다하려고 했다. 독일제국 황후 겸 프러시아왕국 왕비 아우구스타가 일본 황후의 모범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외교단을 비롯하여 지속적으로 도쿄의 궁중을 방문하게 된 외국 왕후들의 접대는 황후가 일상생활 가운데 유념하시는 것이었다. 황후가 가장 알고 싶어 하였던 것은 바로 왕비로서의 업무였다”라고 기록하였다.⁹⁾

이처럼 새롭게 수용한 서양 왕비의 사례들은 에도 시대까지 불분명했던 황후의 역할을 정립하는 데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지향은 『부녀감』에서도 반영하였다. 그러나 황후의 위상과 역할이 점차 부각되면서 여성의 정치적 지위가 마치 확립되는 듯 보였음에도, 현실 정치에서는 제도적으로 여성의 권력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실제로 『부녀감』 발간 2년 뒤인 1889년에 제정된 대일본제국헌법(大日本帝國憲法)과 황실전범(皇室典範)은 여성 천황의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배제하였다.¹⁰⁾ 즉, 서구 여성 권력자의 이미지를 수용하여 메이지 황후를 문명의 체현자이자 이상적 여성 권력자로 재현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는 한편, 현실 정치에서는 여성 천황의 존재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배제하는 모순이 드러난다. 이러한 모순적 시선은 여성의 정치적 역량을 표면적으로 긍정하면서도, 실제로는 권력 구조 내 여성의 지위를 엄격히 제한하려는 메이지기의 복합적 젠더정치의 역학을 보여준다. 그 결과, 황후는 문명의 체현자이자 여성 국민의 이상적 모델로 찬사를 받게 되었으나,¹¹⁾ 동시에 정치권력이 여성에게 가하는 유리천장은 더욱 견고해졌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연구는 여성 천황의 존재 가능성이 여전히 논의되던 1882년, 궁내성이 편찬한 『유학강요』 속 여성 권력자 상에 주목한다. 특히 『부녀감』에는 여성 천황이 전혀 등장하지 않았지만, 『유학강요』에는 여성 천황이 명확히 재현되어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사라져가던 여성 천황의 존재가치가 『유학강요』 속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그려지고 있는가? 본 연구는 이 질문을 중심으로, 메이지기 젠더정치의 과도기적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여성 천황과 ‘젠더 부재’ 표상 - 『유학강요』에 나타난 ‘여성 권력자’ 상(像)

7) 황후의 정치적 활동과 관련한 기록에 대해서는 明治神宮, 『昭憲皇太后實錄』 別卷, 吉川弘文館, 2014, pp.54-129, 참조.

8) 천황과 황후의 행차 기록에 대해서는 片野真佐子, 『近代皇后像の形成』, 『大正デモクラシー・天皇制・キリスト教』, 新教出版社, 2001, p.91, 참조.

9) O・フォン・モール, 金森誠也, 『ドイツ貴族の明治宮廷記』, 新人物往來社, 1988, p.54, 인용.

10) 『大日本帝國憲法』 第一章 第一條,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통치한다.[大日本帝國ハ萬世一系ノ天皇之ヲ統治ス](国立公文書館 デジタルアーカイブ 열람)

『大日本帝國憲法』 第一章 第二條, “황위는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황실의 남자 자손이 계승한다.[皇位ハ皇室典範ノ定ムル所ニ依リ皇男子孫ヲ繼承ス](国立公文書館 デジタルアーカイブ 열람)

『皇室典範』 第一章 第一條, “대일본국 황위는 조종의 황통인 남계의 남자가 계승한다.[大日本国皇位ハ祖宗ノ皇統ニシテ男系ノ男子之ヲ繼承ス](国立公文書館 デジタルアーカイブ 열람)

11) 1889년 헌법 반포일에 천황과 마차에 동승해 축하 퍼레이드를 한 황후의 모습을 통해, 영어 교사인 엘리스 베이컨(Alice Mabel Bacon)은, 천황과 황후의 동승은 결혼을 통해 황후도 천황과 동등한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되었음을 천황 자신이 인정한 것이라며, 아내의 지위에 대한 서양적 사고방식을 공식적으로 채용한 것으로, 일본 여성들에게 큰 진보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서는 와카쿠와 미도리, 앞의 책(2007), pp.148-149, 참조.

『유학강요』에 수록된 일본 예화 112편 가운데, 천황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15편, 조연(부가 인물)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30편에 이른다. 특히 역대 122대 천황 가운데 단 8명에 불과한 여성 천황 중 무려 5명(7대)이 『유학강요』에 수록되었다는 사실은, 이 텍스트에서 여성 천황이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¹²⁾ 그렇다면 이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재현되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일까? 먼저 일본 최초의 여성 천황으로 알려진 스이코 천황의 예화를 살펴보자.

<예화 2> 스이코 천황 31년, 소가 우마코는 가쓰라기현을 하사받아 봉호로 삼기를 청하였다. 천황은 조칙을 내리며 말하기를, “짐은 소가 씨의 후손으로, 대신은 짐의 외숙이니, 청하는 바를 따르지 않을 이유는 없다. 그러나 짐의 세대에 갑자기 이 현을 잃는다면 어찌 후세의 비난을 받을 뿐이겠는가. 대신 또한 불충의 이름을 덮어쓰게 될 것이다.”라며 끝내 들어주지 않았다.¹³⁾

스이코 천황의 예화는 천황의 덕행과 결단력을 부각하며, 업적을 ‘천황’이라는 직위와 권위에 근거해 평가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이라는 사실이 전혀 강조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천황의 위상과 역할을 규정하는 데 있어 성별은 본질적인 기준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유학강요』의 다른 여성 인물들과 뚜렷하게 대비된다. 대부분의 여성 인물들이 아내, 어머니, 딸이라는 가족적 관계 속에서 덕목을 부여받는 것과 달리, 여성 천황은 오직 ‘천황’이라는 정치적 지위를 통해서만 위상을 확보한다.

주목할 점은 남성 천황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다. 남성 천황이 주인공으로 등장할 때 역시, 스이코 천황의 예화처럼 그의 덕행을 주로 칭송하며, 그는 모범적 통치자로서 후대가 본받아야 할 규범적 덕목을 구현한다.¹⁴⁾ 반면, 조연으로 등장할 때는 주인공의 위상을 뒷받침하는 보조적 인물로 제시한다. 결국 『유학강요』에서 천황의 성별은 본질적 차이를 낳지 않으며, 주인공으로 등장할 경우 덕성과 지혜가 강조된다는 공통점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다음으로 살펴볼 사례는 고교쿠 천황(皇極天皇), 곧 사이메이 천황(齊明天皇)의 예화이다.

<예화 3> 덴지 천황이 황자였을 때, 소가 이루카가 권력을 독차지하여 황족들을 제멋대로 죽였다. 이루카의 무례한 횡포가 점차 드러나는 것을 보고, 비밀리에 나카토미 가마타리와 함께 그를 제거할 것을 모의했다. 소가 이시카와 마로, 사에키 고마로, 가쓰라기 와카이누카이 아미타를 불러 도움을 요청하였다. 때마침 삼한의 사신이 공물을 바치러 왔다. 고교쿠 천황이 태극전에 거하시어, 이루카가 들어와 시중을 들었다. (덴지-인용자) 천황은 미리 이시카와 마로에게 삼한의 표문을 읽게 하고, 고마로와 아미타에게는 이루카를 베라는 명을 내렸다. 위문부에 명하여 모든 문을 닫게 하고, 친히 긴 창을 들고 태극전 옆에 섰다.

12) ①스이코천황(推古天皇): 『幼學綱要』 卷之六, 「公平第十七」; ②고교쿠천황(皇極天皇): 『幼學綱要』 卷之七, 「識斷第十九」; ③사이메이천황(齊明天皇): 『幼學綱要』 卷之四, 「禮讓第十」; ④지토천황(持統天皇): 『幼學綱要』 卷之七, 「識斷第十九」; ⑤겐쇼천황(元正天皇): 『幼學綱要』 卷之一, 「孝行第一」; ⑥고켄천황(孝謙天皇): 『幼學綱要』 卷之一, 「忠節第二」; ⑦쇼토쿠천황(稱徳天皇): 『幼學綱要』 卷之一, 「友愛第二」

13) 『幼學綱要』 卷之六, 「公平第十七」 (지면의 한계로 원문 생략)

14) 대표적으로 「孝行第一」에는 진무 천황(神武天皇)이 황조 천신의 교사를 지내는 모습을, 닌묘 천황(仁明天皇)이 태황태후를 알현하는 장면을 「勤學第六」에는 고코묘 천황(後光明天皇)이 정주학에 매진하는 모습을 담았다.

가마타리는 활과 화살을 들고 호위하였다. 이시카와 마로는 표문을 읽으며 다 읽을 즈음에 손이 떨리고 목소리가 떨리며 땀이 흐르고 등이 젖었다. 이루카는 이를 이상히 여기며 물었다. 이시카와 마로가 말하기를, “천황의 위엄이 가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라고 했다. 고마로 일행은 두려워 감히 실행하지 못했다. 그러자 (덴지-인용자) 천황이 급히 달려가 이루카를 공격하여 그의 어깨를 찔렀다. 고마로 일행은 나아가 그의 다리를 베었다. 이루카는 좌정에 매달리며 말하기를, “신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라고 하였다. 고교쿠 천황이 크게 놀라 (덴지-인용자) 천황에게 묻기를, “경은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였다. (덴지-인용자) 천황이 땅에 엎드려 아뢰어 말하기를, “이루카가 황족을 모조리 멸하고 장차 천위를 위협하려 합니다. 어찌 그를 주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고교쿠 천황은 즉시 안으로 들어갔다. 고마로 일행은 마침내 이루카를 참살하였다. (덴지-인용자) 천황은 법흥사로 들어가 반란에 대비했다. 이루카의 주검을 그의 아버지 에미시에게 넘겨 주었다. 이후 아야 아타에 등이 무리를 지어 에미시를 도와 반란을 일으키려 하였다. (덴지-인용자) 천황은 장군 고세 도쿠타코를 보내어 반역자들이 순응하도록 회유하였다. 결국 이들은 패배하여 흩어지고, 에미시는 주살되었다.¹⁵⁾

고교쿠 천황의 예화 역시 마찬가지다. 이 예화에서 강조되는 것은 오직 ‘천황’으로서의 정치적 지위이며, 그가 ‘여성’이라는 사실은 전면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특히 고교쿠 천황과 덴지 천황이 모자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로서의 모습은 전혀 부각되지 않는다. 이는 여성 천황이 생식과 양육이라는 전형적 아내·어머니의 이미지와 분리되어, 『유학강요』 안에서 성별을 초월한 존재로 재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유학강요』는 여성 천황의 권위를 남성 천황과 비교해 축소하거나 변형하지 않으며, 이는 당시 활발히 전개되던 여제 논쟁의 맥락을 고려할 때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이와 같이 천황이 주인공으로 등장할 경우에는 덕성과 지혜가 강조되지만, 조연으로 등장할 때는 주인공의 위상을 강화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유학강요』에서 고다이코 천황(後醍醐天皇)이 여섯 차례나 언급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과 맞닿아 있다. 그의 존재는 구스노키 마사시게(楠木正成) 등의 충절을 극대화하는 데 활용되기 때문이다. 결국, 『유학강요』 속 천황 표상은 성별과 무관하게 일정한 규범적 구조 속에서 작동한다. 다시 말해, 천황이 주인공일 때는 모범적 덕목이 부각되고, 조연일 때는 주인공의 위상(위업)을 뒷받침하는 매개로 등장한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남성과 여성 천황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성별은 천황의 권위와 지위를 규정하는 요인이 되지 않으며, 여성 천황 역시 정치적 지위 자체로 등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학강요』 속 여성 천황의 표상은 ‘젠더 부재’의 천황상과 맞닿아 있으며, 『부녀감』에서 황후가 남성 천황의 ‘파트너’로 그려지는 방식과는 뚜렷이 대비된다. 이것은 성별을 초월한 존재로, 천황을 인식해 온 전통적 인식과도 연결된다. 다케다 사치코(武田佐知子)에 따르면, 고대 일본에서 남녀 천황은 의복과 의례에서 차이가 없었고, 천황은 본래 ‘중성적’ 존재로 이해되었다.¹⁶⁾ 실제로 메이지 유신 전후의 천황도 어린 시절 황실 여성들의 보호 속에서 성장했으며, 긴 머리와 분가루 등 외양은 오히려 ‘여성성’에 가까웠다.¹⁷⁾ 또한, 메이지 정부가 천황의 권위를 정당화하는 근거를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의 후손’이라는 신성성에서 찾은 점은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천황은 스스로를 ‘억조(億兆)의 부모’로 호명하며, 국민과의 관계

15) 『幼學綱要』 卷之七, 「識斷第十九」(지면의 한계로 원문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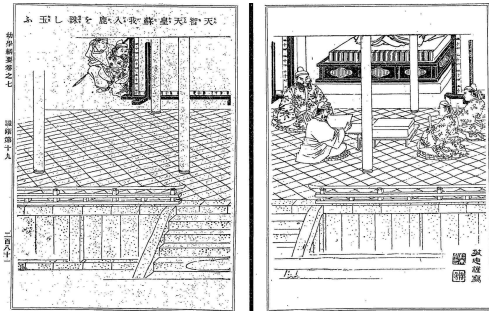
16) 武田佐知子, 『衣服で読み直す日本史』, 朝日新聞出版, 1998.

17) 가노 미키요, 『천황제와 젠더』, 손지연 외 옮김, 소명출판, 2013, p.176.

를 부모-자식 관계로 비유했다. 가노 미키요는 천황이 일관되게 ‘아버지’가 아니라 ‘부모’로 불렸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를 성별에 구애받지 않는 ‘젠더 부재’의 존재로 해석하였다.¹⁸⁾

이는 천황의 정체성과 역할이 특정 성별에 의해 규정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메이지 유신 이전까지 천황은 성별을 초월한 ‘젠더 부재’의 존재로 인식되었고, 일본 역사 속에서 천황의 직위는 특정 성별에 한정되지 않는 ‘젠더 프리(gender-free)’¹⁹⁾한 영역이었다. 따라서 『유학강요』에서 여성 천황이 성별을 초월한 존재로 재현된 것은 이러한 전통적 천황상과 긴밀히 연결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학강요』 속 여성 천황의 표상은 전통적 ‘젠더 부재’의 맥락과 연결되면서도, 또 다른 층위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남성 천황은 삽화에서 대체로 남성적 신체를 지닌 모습으로 가시화되는 반면, 여성 천황의 모습은 시각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화 3>에 제시되는



<도판 9> 元田永孚, 『幼學綱要』下卷, 「識斷第十九」,
宮内省藏板1쇄판, 吉川弘文館, 1883.

삽화 <도판 1>에서도, 고쿄쿠 천황이 어좌에 앉은 주체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상 자체는 그리지 않는다. 이러한 시각적 생략은 천황을 ‘여성의 신체’로 표현하는 데 따랐을 불편함이나 주저함을 반영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즉, 텍스트 차원에서 천황은 성별을 초월한 존재로 묘사되었지만, 시각적 차원에서는 여성의 신체성을 드러내는 데 일정한 제약이 작동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양상은 전통적으로 ‘젠더 부재’로 인식된 천황상이 여전히 유지되는 동시에, 메이지기에 들어 천황을 ‘남성적 군주’로 재편하려는 흐름이 병존했던 과도기적 국면을 드러낸다. 특히 『유학강요』가 궁내성 주도로 편찬된 교과서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성 천황의 신체성을 굳이 형상화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국가가 의도적으로 구축하려 한 천황의 이미지와 긴밀히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메이지 정부는 천황을 남성적·부성(父性)적 군주로 시각화하여 국가적 권위를 정당화하려 했으며, 이 과정에서 여성 신체의 재현은 불필요하거나 오히려 부적절한 요소로 간주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유학강요』 속 여성 천황의 표상은 한편으로는 성별을 초월한 전통적 천황상과 맞닿아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 신체의 시각적 재현이 의도적으로 배제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는 메이지기의 정치적·교육적 맥락에서 형성된 과도기적 현상으로, 젠더 질서 재편 과정에서 천황의 성별적 위상을 둘러싼 긴장과 모순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사례라 할 수 있다.

18) 가노 미키요, 앞의 책(2013), p.175.

19) 젠더프리란 성의 정형화 해소를 강조하는 것으로, 해당 용어가 최초로 쓰인 것은 1995년 동경여성재단이 작성한 팸플릿 ‘Gender Free’이며 이 팸플릿은 미국의 교육학자 바바라 휴스톤의 ‘공교육은 젠더프리여야 하는가’라는 논문의 영향을 받았다. 이후 젠더프리는 다양한 매체에 의해 일본 전국으로 유포되었고, 교육분야에서도 젠더프리는 확산되기 시작했다. 소위 전후의 ‘남성은 일, 여성은 가정’이라는 성역할분업을 전제로 한 일본의 평등교육에 의문을 제기하며 개인이 성별을 넘어서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교육이라는 의미에서 ‘젠더프리 교육’이라는 용어가 사용됐다. 1990년대 남녀공동참획을 젠더평등을 넘어서 젠더 그 자체의 해소, 젠더로부터의 해방, 젠더프리를 지향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지영, 「일본에서의 젠더프리 개념의 형성과 쇠퇴」, 『日語日文學研究』 69(2), 2009, pp.551-553, 참조.

4. 결론

본 연구는 『부녀감』과 『유학강요』에 나타난 여성 권력자 표상을 분석하여, 메이지기 일본에서 젠더 질서가 변형되고 여성의 정치적 지위가 재구성되는 방식을 고찰하였다. 『부녀감』은 여성 천황을 배제하는 대신에 서구 여성 권력자의 이미지를 황후와 결합시켜 이상적 여성 권력자로 부각시켰다. 『유학강요』는 여성 천황을 성별적 특성을 지우고 ‘젠더 부재’의 존재로 재현하였다. 그러나 삽화에서 여성 천황의 모습이 의도적으로 생략된 점은 천황의 남성성·부성성을 강조하려는 당시 국가적 기획과 연결된다. 두 텍스트는 천황과 황후의 교지를 통해 편찬된 만 큼, 교육적 기능을 넘어 국가의 정치적 지향과 당대 사회문화사적 가치를 반영한 상징적 장치였다. 여성의 공적 주체성을 부분적으로 긍정하면서도 최고 권력의 영역에서는 철저히 배제해 나가는 표상은, 메이지기의 이중적 젠더 질서를 선명히 드러낸다.

****지면의 제약으로 본문에서는 일부 논의와 사례를 생략하였습니다. 발표 자리에서 보충하겠습니다.*

해방 후 일본으로 복귀한 천리교 히키아게 교회의 현황 조사 보고

김태훈(시코쿠가쿠인대학)

1. 들어가며

일본 교토시 히가시야마쿠에는 천리교 경성 대교회가 있다. 경성은 우리가 잘 알 듯 일제강점기 서울의 명칭이다. 또 오사카시 아베노쿠에는 대구 분교회가 있고, 지금은 폐쇄한 듯 보이나 기타큐슈시에는 부산 분교회의 간판과 건물이 남아 있다. 그 외 신라 분교회, 용산 분교회, 천안 분교회, 남원 분교회, 평양 분교회, 함흥 분교회 등 한반도의 지명 등에서 유래한 천리교 교회소가 일본 각지에 분포하고 있다. 왜일까?

이들은 모두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활동하던 천리교 교회소들인데 해방 후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자신들이 조선에서 사용하던 교회소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후 일본에서 복구한 교회들인 것이다. 폐쇄된 곳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발표자가 조사한 바로는 일본 각지에 이런 교회소가 87개소나 확인된다.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활동하던 일본계 종교들에 대한 연구는 최근 한국 학계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분야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이원범에 의한 본격적인 연구를 필두로 일본불교 제점숙, 신사 문혜진, 교파신도 권동우 등 2000년대 이후 다양한 연구들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제국 일본의 영토 확장에 따른 각 종파들의 이른바 해외 포교, 식민지 포교의 상황에 주목한다. 각 종파들의 포교활동이 가진 제국/식민지성을 분석하는 중요한 재료로 신사 참배 강요와 황국 신민화의 일환인 교화 정책 담당자로서의 일본계 종교 활동을 분석하고, 이를 위한 기초적 연구로서 포교거점의 수, 지역적 분포, 신자 확보 상황 등을 조사한 연구들이 2010년대 후반부터 비약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는 1945년 8월의 해방 이전, 공간적으로는 식민지 조선에 집중하여 지금까지 축적해 온 이러한 연구들은, 결국 한반도의 근대화 과정과 식민지 경험을 통해서 해방 공간과 현대 한국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맥락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로 이어져야 할 단계에 들어섰다고 생각한다. 다양하고 복잡한 종교적 상황과 전후의 냉전과 탈냉전 그리고 글로벌화 시대로 이어져 온 국제 정세의 급변이 맞물리면서 일제강점기 일본계 종교의 조선 포교에 대한 경험이 오늘날 한국과 일본 사회에 무엇을 남기고 있는지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연구적 성과물은 아직 나오지 않은 듯 보인다. 아니 이제 그 출발점에 서 있는 것이다.

현재 일본 각지에서 한반도의 지명 등에서 유래한 명칭을 사용하는 천리교 교회소가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어떤 형태와 의미로든 제국/식민지의 역사적 경험이 현재까지 그들의 일상 속에 이어져 오고 있다는 의미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의미를 언어화하는 작업을 통해서 식민지 조선의 일본계 종교들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비로소 현대적 과제를 드러내는 길로 나아가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해방 당시 조선 천리교 교회수

발표자는 2020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식민지 조선에서 활동하고 있던 천리교의 포교 거점 수를 211개소로 집계한 바 있다. 이는 『조선총독부관보』와 총독부의 행정문서 등을 통해 확인한 ‘선교소’ ‘교회’의 명칭을 계수한 것인데, 211개소 모든 포교 거점의 명칭과 소재지 주소, 포

교 담당자, 이동 사항 등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식민지조선의 일본인 종교자들」(www.jrpkc.org)에서 공개하고 있다(옆QR코드). 즉 조선총독부로부터 포교 인가를 받아 등록된 포교 거점의 수인 것이다. 211개소라는 집계액의 정확도에 대해서는, 일본 천리교교회본부가 발간한 『천리교 사전』에서도 같은 수로 확인되므로 문제가 없어 보이나, 실은 오류가 있었다. 부산의 ‘초량 선교소’가 중복되었고 ‘수원 선교소’는 후일 ‘조선 수원 교회’로 또 ‘동한 선교소’가 ‘길선 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별도 계산되었다. 즉 3개소가 중복 집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보다 정확히는 208개소가 맞다는 말이 된다. 그런데 천리교교회본부가 발간한 공식 집계에서는 211개소이니, 총독부의 인가와 교회본부의 인가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200여 개소의 인가된 포교 거점보다 훨씬 많은 수의 포교자들이 거점을 형성하여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면 조선인으로는 최초로 교회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마산 미션 교회 김선장의 산하에는, 광태길(거제 포교소 담임자 1924년 5월 설립), 김주철(창원 포교소 담임자 1924년 5월 설립), 박지회(진영 포교소 담임자 1924년 10월 설립), 박재호(중앙 포교소 담임자 1928년 10월 설립), 최문익(경선 포교소 담임자 1929년 6월 설립) 등 다수의 포교자들에 대한 활동 기록들이 있으나 이들이 총독부의 인가를 받았다는 『관보』의 기록은 없다. 이중 박지회와 최문익은 1936년에 와서야 포교자로서 기록이 보일 뿐이다. 즉 실상은 ‘단독 포교’의 단계에서는 미인가 상태에서 포교사로 활동하다가 신자가 모이고 어느 정도 규모를 확보한 후에 정식 인가 절차를 밟는 수준이었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총독부 인가 수와 실제 활동 규모에는 제법 큰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천리교에만 한정된 바는 아니고 당시 일본계 종교와 조선의 많은 종교 포교자들의 활동 상황에 공통된 실상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아무튼 발표자의 집계 오류를 인정하면서 208개소 거점의 지역적 분포를 보자면, 서울 42, 부산 19, 경기 12, 충청 9, 전라 22, 경상 46, 강원 1, 황해 11, 평안 20, 함경 26인데 이를 다시 현재 남북한의 지역별로 나누어 보면 현재의 38선을 기준으로 한국지역에 151개소, 북한지역에 57개소가 있었다. 남북으로 재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해방 후 소련군 점령의 북한과 미군 점령의 남한 지역이 처한 히키아게(송환, 귀환) 상황이 극명하게 달랐기 때문이다. 천리교의 전후 히키아게가 남과 북에서 얼마나 차이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한편 해방 후 남한 지역에 있던 천리 교회 건물 등 재산은 미군정에 의해 적산으로 접수된 후 다수의 교회 재산이 개신교 쪽으로 임대 등의 형태로 흘러 들어가 탈식민지 공간에서의 종교적 재편으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조선 포교 관리소 겸 조선 교회의 재산은 조선 신학교로 임대되어 현재는 서울 성남 교회가 되어 있고 조선에서 가장 많은 산하 교회 수를 가지고 있던 경성 대교회는 현재 영락 교회가 되어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3. 히키아게 교회 현황 조사

일본 천리교교회본부는 1951년 4월말 기준 미복구 해외 히키아게 교회 일람을 정리했는데 조선에서 돌아온 교회의 명칭은 모두 56개소로 되어 있다. 이 중 삼천포 교회, 부산해 교회, 서대전 교회의 세 곳은 교회본부가 정리한 일람에는 있으나 『관보』에는 기록이 없는 곳이다. 아무튼 208개소의 교회들 가운데 1951년 4월말 기준으로 56개소가 아직 미복구 상태라는 의미가 되는데 바꾸어 말하면 152개소가 동년 4월 이전에 한국이든 일본 국내에

서든 복구가 되었다는 뜻일 것이다. 한국의 상황에 대한 조사는 다음 과제로 남겨 두고 우선 일본 국내의 복구 상황에 집중해 보자.

발표자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87개소의 명칭이 확인된다. 이를 앞서 언급한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에서 구글맵을 이용하여 이미 폐쇄되어 위치를 확정할 수 없는 곳을 제외한 84개소를 표시하였다. 아울러 『관보』 등의 데이터를 함께 기록하여 각 교회소의 식민지 조선에서의 활동 지역, 담임자 이름 등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정리하였다. 그리고 87개소 중 북한 지역에 있던 교회소가 24개소, 남한 지역에서 63개소가 복구된 것으로 보인다.

히키아게 교회들에 대한 1차 조사로서, 208개소의 명칭을 인터넷상에서 검색한 결과로 파악된 곳이 87개소이다. 따라서 각 소속 대교회 별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예를 들어 아주 극히 드문 예이겠지만 명칭을 변경하였거나 통합하는 형태로 복구된 교회들이 있을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추후 조사 과제로 남겨 두고 여기서는 우선 87개소를 지역별로 그 분포를 확인해 보자.

오사카 · 교토 · 나라의 이른바 긴키 지역에 23개소와 후쿠오카 · 야마구치 지역에 23개소로 46개소가 집중되어 있고 그 외 지역에 나머지 41개소가 산재해 있다. 후쿠오카의 하카타항과 교토부의 마이즈루항을 통해서 히키아게한 천리교 교인들이 긴키와 후쿠오카 두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정착했다고 추측할 수 있겠다.

오사카부	9	교토부	8	나라현	6	후쿠오카현	15	야마구치현	8
아이치현	2	에히메현	1	오카야마현	5	기후현	1	미야자키현	1
구마모토현	1	히로시마현	5	카가와현	2	사가현	1	사이타마현	2
미에현	4	시가현	2	가고시마현	1	니이가타현	1	시즈오카현	2
치바현	1	오이타현	2	돗토리현	2	후쿠이현	2	효고현	2

구글맵의 정리 작업을 바탕으로 1차로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21개소의 현지 조사를 시행했다. 발표 시간 관계상 히키아게 교회 두 곳을 소개하기로 하자.

2024년5월		2025년5월		2025년8월		
18일	19일	17일	18일	15일	16일	17일
대구 분교회 (오사카시)	청진 분교회 (오사카시)	충주 분교회 (나라시)	선안 분교회 (오사카부)	안경 분교회 (후쿠오카)	경인 분교회 (후쿠오카)	경진 분교회 (기타큐슈)
		계림 분교회 (나라시)	함흥 분교회 (오사카부)		경기 분교회 (후쿠오카)	서흥 분교회 (기타큐슈)
		평양 분교회 (교토부)	평남 분교회 (오사카부)		경북 분교회 (후쿠오카)	원산 분교회 (기타큐슈)
		조룡 분교회 (교토부)			부산 분교회 (기타큐슈)	보수 분교회 (시모노세키)
					옥산 분교회 (기타큐슈)	영등포 분교회

						(아베시) 무선 분교회 (호후시)

오사카시에 있는 대구 분교회는 총독부로부터 1911년 10월에 설립 인가를 받아 대구부 팔운정 83번지에서 포교 활동을 시작했다. 담임자는 유우키 가메지로(結城亀次郎), 1919년 11월에 동본정 49-1번지로 이전하였고 1925년 8월부터 무라카미 쓰루에(村上津留恵)가 후임을 맡아 패전과 히키아게를 맞이했다. 오사카시 아베노쿠의 현 위치는 히키아게 후 그대로라 한다. 현재 무라카미의 손자가 4대 교회장을 맡고 있다. 한편 한국의 대구에도 대한천리교대구교회가 있는데 한국 전쟁 당시 대구로 피난 온 김태봉의 노력으로 대구에 있던 신자들을 모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최근 이전한 위치는 서성로 16길. 이곳에는 대구제일성결교회와 천주교대안성당 그리고 대한천리교대구교회가 나란히 들어서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자리는 일제강점기 일본 불교의 동본원사와 서본원사가 있던 곳이다. 일본 천리교교회본부는 같은 명칭의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식민지 제국 역사의 현재는 오사카와 대구에 두 개의 천리교대구교회를 낳았다. 명칭이 같은 교회는 부산 교회와 울산 교회도 있다.

후쿠오카현 아스카시에 있는 경기 교회는 1925년 12월 경성부 황금정 4정목에서 총독부 인가를 받았고 와키야마 마타사부로(脇山又三郎)가 초대 교회장으로 1941년 11월에 경성부 신당정으로 옮겨 패전을 맞이했다. 아스카시의 현 위치는 히키아게 후 함께 온 신자들의 힘으로 복구한 자리라 한다. 마타사부로의 손자 요시미치(脇山喜道)가 3대 교회장을 역임하고 있는데 1940년생으로 패전 당시 5세였던 그는 부산항을 출발한 히키아게선 안에서 중풍에 걸려 화물칸 계단을 내려갈 수 없었던 할아버지 마타사부로를 업고 내려 준 조선인의 고마움을 아직도 기억한다고 했다. 현재 경기교회 신전 벽에는 낡고 찢어진 ‘천리교 경기교회 조선’ 깃발이 역사의 풍량을 대변하듯 걸려 있다.

히키아게 교회들에 대한 1차 현지 조사에서 확인된 현황의 특기 사항으로, 다수의 교회들이 이미 폐쇄되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오사카부의 선안, 함흥, 평남 분교회, 기타큐슈의 부산, 원산 분교회, 야마구치현의 보수, 영등포 분교회 등 1차 조사 21곳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7개소가 이미 폐쇄된 것으로 보인다. 교회소 건물과 간판이 확인될 뿐 ‘아키야’(빈집) 상태로 확인되었고 기타큐슈의 원산 분교회의 경우는 일반 민가가 들어서 있었다. 천리교한국교단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교회본부는 코로나사태 이후 일본 전역에서 이미 기능을 상실한 2천여 곳의 교회를 정리하는 작업을 실시했다고 한다. 현대 일본인들의 종교 이탈 경향의 지속과 코로나 사태라는 직격탄으로 인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교회들을 정리한 것이다. 히키아게 교회들은 전후 일본 사회에 빈손으로 정착해야 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정리된 교회들 가운데 히키아게 교회들이 다수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히키아게 교회들 또한 담임 교회장의 노령화, 후계자 부재, 기존 신자의 감소와 신규 신자의 불확보 등 향후 10년을 보장할 수 없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 교회장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신자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교회장이 별도의 직업 활동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4. 나가며

전후 80년.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질 단계에 놓여진 히키아게 교회들의 오늘을 목격하면서, 동아시아의 근대 경험이라는 히스토리 속에 이들을 어떻게 그려 넣어야 할지 발표자는 아직

그 밑그림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 아직 조사해야 할 곳이 60여 곳 남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알 수 없으나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모두 둘러보려 한다. 한 곳 한 곳 찾아가 확인하고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제국/식민지의 경험과 전후 사회를 연결하는 ‘히키아게 교회’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단서가 반드시 나올 거라는 기대에 기댈 뿐이다.

김태훈 「『조선총독부관보』로 보는 일본계 종교 유입의 전체도」 『공존의 인간학』 제4집, 전주 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2020년 8월.

天理大学附属おやさと研究所編 『天理教事典』 第三版, 244쪽, 2018년.

加藤聖文 『海外引揚の研究 - 忘却された「大日本帝国」』 岩波書店, 2020년 참조.

김일환 「미군정기 조선신학교의 천리교 재산 임대 과정에 대한 재검토」 『한국교회사학회지』 제67집, 한국교회사학회, 2024년 5월.

「植民地朝鮮の日本人宗教者」 내 「天理教布教拠点」 <https://www.google.com/maps/d/u/0/edit?mid=1JJYamqwtwlhPqmdqFJP5GMXT93tiZUU&ll=37.55384520937206%2C126.94614903132376&z=12>

김태봉 선생 유고집 『나의 길 천리교』 2012년.

▶ 제2세션 (장소: 517호)

제2세션 (개인발표)				
시간	발표자	발표제목	토론자	사회자
16:10~16:50	사다카네 다카유키 (릿쿄대학)	資本主義の統治性：東京の経験から	서동주 (서울대)	김송배 (부경대)
16:50~17:30	가토리 치하루 (고베대)	「悲劇的武將」に対する文学作品形成の韓日比較 －林慶業と源義経の場合－	곽동곤 (대구대)	
17:30~18:10	이나바 마이 (광운대)	화가 정말조의 교토시대의 활동	김화영 (수원과학대)	
18:10~18:40	동아시아일본학회 2025년도 하반기 정기총회			
	2025년 동북아시아문화학회 정기총회 및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시상			
	폐회식			

資本主義の統治性—東京の経験から—

貞包英之(立教大学)

ミシェル・フーキューは、「誰が、誰に、あるいは何に、いかにして従うか」を定める規則を「統治性」という言葉によって考えた。それによって社会はつくられるとしたのだが、フーキューは十分にあきらかにしなかったが、資本主義もこうした規則を独自に定めるといえよう。だからこそそのあり方を考えることは、そこから脱出(exit)を考えるうえできわめて重要になる。

この資本主義の統治性は、ひとつにはいうまでもなく、労働を通して稼働する。資本主義社会のなかで人は多くの場合賃労働者として、誰かに従い、生計を立てることを求められる。しかしここで考えたいのはそれ(だけ)ではなく、消費がもたらす統治性である。資本主義は、大量のモノを生産しつつその消費を促すいわゆる消費社会的状況を生み出すが、そのなかで誰が誰にいかなる権力が働かせるのかをあきらかにしていきたいのである。

そのために本発表が、分析の対象とするのが、渋谷の流行である。1980年代の東京で渋谷という特殊なファッションの流行が発達していくが、そのあり方は人びとが消費社会的状況を生きていくなかでいかなる支配従属関係を強いられていくかをよく示す。

その特徴としてまず重要になるのが、渋谷が衣服を商品として買う時代の一般化を前提としてつつそれへのある意味での対抗として成立していたことである。1960~70年代、既製服が一般化し、その頂点として70年代後半にはDCブランドの流行がみられたが、それはとくに10代後半の若年層には負担になる。DCブランドのような高価な服は好きに買えなかったからであり、そうした中高生たちが、比較的安価なアメリカンカジュアルのアイテムを組み合わせることに熱中することで渋谷は生まれる。

その意味で渋谷は、年長世代に対抗した、若者による創造的な抵抗の試みとしてあったが、それのみならず、それが都内の有名私立一貫校に通う、裕福な家庭の子弟たちを中心に生まれたことが重要になる。彼・彼女らにとって渋谷は、単なる普段着ではなく、自分たちが所属する特定の文化的集団を示す「制服」としてあった。「良い」衣服を見分ける知識や、それを着こなす「センス」は、「育ちの良さ」、すなわち経済的・文化的に恵まれた出自を証明する文化資本の表現とされるのである。

重要なことは、だからこそそれが先行世代への従属を招いていくことである。増大していくフォロワーとの差異化のために渋谷も徐々に高級化していくが、それもあり渋谷のようなファッションを自由に消費していくためには、先行世代への従属が強く求められるようになる。たんに金銭的に親に依存する必要があったからのみならず、それを可能にするために、ある種の「センス」をも先行世代の影響下に置いていくことが求められる。親たちが好んだアイヴィー的なアメリカンカジュアルを再構成した渋谷はその象徴といえる。渋谷はそうして、①親への依存と、②バブルのなかで東京という都市は階層的に固定化され、閉塞されていく社会を受け入れることを正当化していくひとつの装置になった。

渋谷はこうして若年層をますます市場の支配下においていくとともに、親との長期に渡る交渉を要請していく。結果としてそれが肯定した階層的関係は、後のたとえば裏原系のモードなどのかたちで反発を受けることもあったが、世代的従属はそうではなかった。その後の少子化と経済的な不況のなかで、ファッションの中心は高齢化し、誰もが着られるが、それゆえ若年層に

特化しないファスト・ファッションが一般化されていく。この意味で、渋谷カジの流行は、市場の商品を買い生きる者が受けた力の一例として、ファッションがますます消費財化されていくなかで親、あるいは先行する世代的集団とのさらなる従属関係を求められるようになった若年層の姿を照らし出すのである。

「悲劇的武將」に対する文学作品形成の韓日比較－林慶業と源義経の場合－

香取千晴(神戸大学大学院人文学研究科博士後期課程)

1. 発表の目的

日本と韓国は互いに漢字や儒教などの文化的共通点を持つが、地理的状况や社会制度には異なる点が多い。特に、日本の「武士」にぴったりと該当する存在は中国にも朝鮮半島にも無いといえる。一方で、戦争で活躍した武將が英雄として讃えられるという現象は、当然ながらどの国・地域にも存在する。そのような人物は日本にも韓国にも数多く存在するが、華々しい活躍をしながらも不幸な死を迎えた「悲劇的英雄」の枠では、日本では源義経、韓国では林慶業が代表の一人と言って差し支えないだろう。

そのような英雄的人物には、英雄の敵対者、英雄を陥れる悪役的人物が設定されることが多い。英雄の人物の英雄性を引き立たせるために、悪役的人物はより悪く描かれるものである。源義経の場合は梶原景時、林慶業の場合は金自點が代表的であるが、彼らははじめから英雄的人物に敵対的だったのだろうか。特定の人物を英雄として造形する過程としての、悪役的人物の設定はどのようになされるのか、日本と韓国の文学作品を通して比較検討を試みる。

2. 梶原景時の場合

12世紀末、平氏政権打倒のために源頼朝ら源氏を中心となって各地で起こった戦乱（治承・寿永の戦乱）で、頼朝の弟である源義経の率いる源氏軍は最終的に平氏を滅亡させることに成功した。しかし義経は頼朝と不和になり、戦後半年ほどで逃亡生活を送ることになり、奥州藤原氏にかくまわれていたが、鎌倉幕府（頼朝）の圧力に屈した奥州藤原氏に攻められ死ぬことになった。『平家物語』などに描かれる義経の戦法は奇襲のような派手なもので、そのように華々しく戦勝したにもかかわらず数年のうちに死ぬことになってしまったため、悲劇的英雄として多くの文学作品が創作され、人々から大きな人気を集めた。義経の官職であった「判官」から取った「判官びいき」という表現は立場の弱い人に無条件に同情することを言うが、そのような言葉が出来るほどの「悲劇的英雄」の代表格である。

義経と頼朝の不和の原因は、歴史学的な解釈では、一般的に義経が頼朝の許可を得ずに官位を得たことや、京の朝廷（後白河法皇）が義経を取り込もうとしたことなどが言われている。しかし文学作品においては頼朝の側近であった梶原景時が、頼朝に対して義経の悪口を吹き込んだことが原因ということになっている。

権威ある歴史事典である『国史大辞典』では、景時について以下のように紹介されている。¹⁾

梶原景時 ？－1200

鎌倉時代前期の武將。相模国住人五郎景清の子。通称平三。源頼朝挙兵の時、大庭景親に属したが、石橋山にいき、頼朝の危急を救い、のち頼朝に従って源義仲追討をはじめ、平家追討に功があった。文治元年（1185）屋島攻撃の際、源義経と逆櫓の策を争い、それを含んで、義経を頼朝に讒訴し失脚させた。生来弁舌に巧みで頼朝に重用され、侍所所司・厩別当

1) 【梶原景時】、国史大辞典, JapanKnowledge, <https://japanknowledge.com/lib/display/?lid=30010zz100320>, (参照2025-10-02)

などの要職にあり、建久元年（1190）頼朝上洛には、後陣奉行に任せられた。京都の公家社会の人々とも交渉があり、京都的な教養を持ち、歌道に通じた。しかし、その要領のよさと、巧みな弁舌によって、利己的な権勢欲で人をねたみ、おとし入れることが多かった。正治元年（1199）十月、新將軍源頼家に結城朝光を異心をいだく者として讒言したことから、有力御家人六十六名の弾劾を受けて、鎌倉を追放され、翌年謀叛を企て上洛の途中、正月二十日駿河国の在地武士に討たれた。（安田元久）

この文章を執筆した安田元久氏は日本中世史の大家であるが、下線の箇所は一見、やや主観的で景時に対しての先入観に基づいているようだ。では実際に景時がどのような人物だったのかを同時代の歴史史料から見てみよう。

まず九条兼実著の日記『玉葉』²⁾では、景時が滅亡したことを受けて「積悪の輩」「天下の悦」と景時の死を喜ぶような書き方をしている。次に九条兼実の弟である慈円著の歴史書『愚管抄』³⁾では、景時を「鎌倉ノ本体ノ武士」と称賛する一方、「自分のことばかり考えて、他人を見下し馬鹿にしたので、周囲から糾弾された」とある。作者不明の歴史書『六代勝事記』⁴⁾では「景時という壮士ありき」と称讃しているが「権威をかさに着て傍若無人だ」とも評している。

以上は京都側からの記述なので、鎌倉幕府の人物に対しては偏見があるかもしれない。一方鎌倉幕府編纂の歴史書である『吾妻鏡』⁵⁾では、文治三年（1187）三月十日条で、景時が夜須行宗を「讒訴」し、罰として鎌倉の道路整備をさせられたことを始めとし、畠山重忠（同年十一月十五日条）、安達景盛（正治元年（1199）八月十九日条）、結城朝光（同年十月二十七日条）等への「讒言」の記事があり、十月二十七日条には三浦義村による「景時の讒言のせいで多くの人が被害を蒙った」との証言が載せられる。一方、囚人として景時に預けられていた城長茂が景時の推挙で幕府の家臣として加えられる（文治四年（1188）九月十四日条）ということがあったが、囚人、罪人身分の能力のある武士が景時の口添えで復帰するという記事も散見される。確かに「讒言」もしていたようだが、良くも悪くも細かく報告をする性格だったようだ。例えば、戦況についての義経や範頼（頼朝の弟、義経の兄）の簡単な報告に対して景時の報告が詳細であったため頼朝が感心したという記事にその性格がよく現れている（寿永二年（1184）一月二十七日条）。

ところで「景時が義経を讒言したのか」については、元木泰雄氏らの先行研究では、景時が義経を讒言する原因になったと言われる「逆櫓」争いの事件自体、虚構の可能性が高いとされている。⁶⁾「逆櫓」事件は、景時が船に「逆櫓」をつけて攻めようと提案したものを義経が一蹴したことから一瞬即発の事態になった事件として『平家物語』⁷⁾に描かれた場面である。『吾妻鏡』には「逆櫓」事件の記事がない。また、義経が屋島に出船する元暦二年（1185）二月十八日記事には景時の名前自体がなく、景時は前年より義経ではなく範頼の麾下にいたので、この当時は範頼と九州にいたと考えるほうが自然なようである。

また、『吾妻鏡』には、景時と義経の関係する記事は、
・元暦二年（1185）四月二十一日条：景時は頼朝に書状を送るが、その中に「義経は勝手な振る

2) 国書刊行会編『玉葉』名著刊行会、1971年

3) 岡見正雄・赤松俊秀校注『日本古典文学大系 愚管抄』岩波書店、1967年

4) 弓削繁校注『六代勝事記・五代帝王物語』三弥井書店、2000年

5) 『吾妻鏡』の引用は黒板勝美編『国史大系三十二 吾妻鏡 前篇』吉川弘文館、2000年

6) 『源義経』歴史文化ライブラリー223、吉川弘文館、2007年

7) 本稿の『平家物語』には、覚一本、延慶本など代表的な異本すべてを含む。

舞いが多く、景時のみならず他の御家人の恨みを買っている」と書く。

・同年五月四日条：この書状を見た頼朝は義経勘当を言い渡し、その書を景時の使者に託す。

・同年十月六日条：義経を偵察した梶原景季（景時の息子）の報告を受けて、頼朝が「義経の仮病は明らかだ」と言い、景時はそれを後押しするように「一日くらい寝たり食べたりしなければ衰弱しているように見えるものだ」と言う。

という以上三箇所のみである。義経の頼朝に対する対立的行動には叔父の源行家も関与し、後白河法皇とや反鎌倉的貴族との政治的な問題も関係するので、『吾妻鏡』の記事だけでは景時の讒言が義経失脚の原因と断言するのは難しい。

ところが『平家物語』になると、前述の「逆櫓」争いの後、景時と義経とどちらが先陣を担当するかでまた争いになる場面が登場し、さらに戦後、頼朝が義経を鎌倉に入らせなかったことに対する義経の陳述書「腰越状」の章を通して、以前の争いが遺恨となって景時が義経を讒言したと印象付けるように構成されている。さらに義経の一代記である『義経記』⁸⁾においては義経失脚の原因は景時のみに収斂し、義経をかくまっていた観修坊、義経の愛人の静など別の登場人物の口を通して景時への憎悪が語られるようになる。室町時代に成立した舞曲⁹⁾では、『堀川夜討』では自身にとって邪魔者である土佐房を義経の討手に差し向け、『しずか』では妊娠している静の腹を裂いて性別を確かめようと提案するなど、陰険な人物として描かれるまでになっている。

さらに、一部の作品では、景時の死の契機も義経に結び付けられるようになる。義経の死後、首実検をすると義経の口の中に書状があり、そこには景時を誅罰して恨みを晴らしてほしいと書かれている、という「含み状」¹⁰⁾モチーフを含む作品である。

『義経記』の異本である『義経物語』では、景時はすぐには処罰されなかったが、的の前を通った際に矢に当たって死ぬ。幸若舞曲の『含み状』でも立場が危ういと逃げ出した景時一族が駿河国で射殺される。室町物語『さがみ川』¹¹⁾は「含み状」のくだりは出てこないが、義経の怨霊が現れて頼朝に恨みを訴え、頼朝は景時らに斬首を命じ、景時らは逃亡するがやはり矢に当たって死ぬ、という展開である。義経の死は文治五年（1189）に対し、梶原氏の滅亡は正治二年（1200）であり、頼朝の死後、将軍親政頼家派の景時らに対し、実朝擁立派の北条氏による敵対勢力粛清の一環で滅ぼされたものである。歴史的事実と時系列もずれ、義経の恨みを景時の死によって晴らす展開がなされているのである。

ところで、このように景時が義経の敵役として恨みを買うようになるまでにどのような要因があったのだろうか。そこで改めて『吾妻鏡』を見ると、義経とは関係のないところで景時を貶める型の説話がある程度形成されていたことがわかる。

まずは文治五年（1189）九月七日条で、頼朝ら鎌倉幕府軍が奥州藤原氏を滅ぼした奥州合戦の一場面である。ここで景時は、捕虜になった由利八郎を尋問することになったが、無礼な態度で由利を怒らせてしまう。次に尋問した畠山重忠は丁寧な態度で由利を感心させ、尋問に応じてくれた、という内容である。

この記事と類似した性格を持つのが建久六年（1195）三月十二日条で、頼朝ら鎌倉幕府一団が二度目の上洛をし、東大寺に参詣した際の記事である。その際東大寺の衆徒と鎌倉の随兵の間で争いが起こり、景時が止めようとしたが無礼な態度を取ったので状況がさらに悪化した。代わ

8) 『義経記』の主な異本間で大きな違いはない。

9) 取り上げた舞曲は三弥井書店の『幸若舞曲研究』所収のものを参考にした。

10) 中国の「眉間尺」説話が変化したものという先行研究がある。角川源義「義経記の成立「北国落」について」（1964）など。

11) 『室町時代物語大成』五、角川書店、1977年

りに結城朝光が出て来て丁寧に接すると、衆徒たちは感動した、という内容である。

この「景時・重忠・朝光」の組み合わせで、もう一つ記事がある。文治三年（1187）十一月十五日・二十一日条で、重忠が地頭職をしていた沼田御厨で、代官が横暴を働き、重忠が責任をとらされて所領を没収されたが、重忠は身の潔白を証明すると自宅に引きこもる。景時は、重忠が謀反を企てているのではと頼朝に「内内に告げる」が、朝光は、「重忠は生まれつき廉直で謀反する人ではない」と言う。頼朝は、「弓馬の友」の下河辺行平（朝光にはいここに当たる）に重忠の本意を確かめ連れてくるよう命じ、行平は無事、重忠を連れて来る、という内容である。これらの説話には、「間違っている景時」対「正しい重忠・朝光」という構図の話型がある。

朝光といえば、景時に讒言されたことを知ると御家人たちを集めて景時弾劾に成功し、景時の追放、死を招いた人物である。同時に、かつて頼朝が御家人たちに対し、義経追討のために上洛準備を命じた際、大多数の御家人たちは参加を躊躇したのに対し、朝光と兄の朝政だけはすぐにでも出陣できると応答したほど頼朝に忠実で重宝された側近であった（文治元年（1185）十月二十四日条）。一步間違えれば義経の敵対者に選ばれるところを、朝光や朝政ら小山一族は御家人たちの勢力争いを上手く生き抜いたせいか、景時の対立者としてむしろ良い立場を与えられている。重忠も『吾妻鏡』の段階では義経との接点はなかったが、景時と同じく北条氏に滅ぼされながら、むしろ清廉潔白なイメージと景時の対立者としての立場を与えられ、『義経記』等で義経の味方という立場を獲得したものである。

以上から考察すると、『吾妻鏡』の段階から景時を敵対的に扱う環境が存在していた。そのため後に義経の敵役として当てはめられてしまい、景時の悪役化が進展していったといえる。

3. 金自點の場合

林慶業は丙子胡乱時に親明派として清と戦ったが、謀反の疑いで獄死したという悲劇的な最期を迎えた。その生涯を基に、英雄軍談小説『林慶業伝』が成立した。朝鮮の王が清の皇帝に屈服するという丙子胡乱自体が大きな衝撃であり、その後に生まれた多くの文学作品は、その衝撃をどのように克服するかという役割も負っている。その方法の一つとして、英雄の活躍の強調があり、その反比例としての敵対的人物への憎悪があげられる。

『林慶業伝』が民間に広まっていたことは、有名な「煙草屋殺害事件」―煙草屋で林慶業伝の語りを聞いていた人が、慶業の死の場面で怒り出し、煙草葉を刻む刀で語り手を殺害したという事件（『正祖実録』正祖一四年（1790年）八月十日記事）でわかるが、これは同時に林慶業を陥れた人物である金自點への憎しみも共有されていたことを示している。

『林慶業伝』は慶業の父が早世した（実際はしていない）ことや、架空の異民族の敵「カダル」との合戦、胡王（清）や朝鮮王からの過剰な信頼など、源義経の『義経記』と同じく創作部分が多いのだが、自點の描写に関しても慶業への過剰な迫害が目立つ。『林慶業伝』¹²⁾における自點の登場箇所をまとめると、

- ①辛未年（1631）自點が逆心を抱いているが慶業を恐れて実行できない
- ②自點は胡軍が攻めてきても何の対策もできなかった。
- ③慶業を始末するために胡国へ戦争に行かせる。しかし慶業は却って活躍し、名声を得る。
- ④再び同じような計略をするが、王に諫められる。
- ⑤朝鮮に戻って来た慶業に対して、王のねざらいの言葉をわざと伝えず、ひどい扱いをする。

12) 内容は京版本『林慶業伝』（이복규編『임경업전』시인사, 1998年）のもの。

⑥慶業を逆賊であるとして牢に閉じ込め、殴って殺し、自殺したように見せかける。

⑦しかし、慶業を陥れた罪で濟州島に流刑になる。

⑧王の夢に慶業が現れ、自點による慶業の殺害が露呈する。

⑨結局、自點は一族郎党死刑になり、慶業の遺族によって体をバラバラにされる刑に処される。

となる。自點ははじめから慶業を無き者にしようと企んでおり、慶業の殺害の罪によって殺されることになっている。

しかし史実と異なる点として、『仁祖実録』仁祖十四年(1636)二月五日記事を見ると、自點は慶業の上司にあたり、自點は慶業の罪を許してもらうように取り成しをしている。また、慶業の処刑に関しては、慶業が清軍に加わって明を攻撃しろという朝廷からの命令に背き、僧の姿になって明に脱出したことが原因であり、『仁祖実録』仁祖二十四年(1646)六月十七日記事では確かに自點は慶業の処刑に賛成しているが、他の官僚の意見も聞いたほうがよいと積極的に賛成しているわけではなく、その他の官僚たちも賛成しており自點だけの主張ではなかった。また、自點の死(1651年)は慶業の死(1646年)から4年後のことであり、有力者を排除して別の王子を王位につけようという謀反画策の罪で処刑されたものだ。つまり、歴史事実としては、慶業の死に自點が大きく関与したわけではない。

金自點は仁祖反正で出生した親清派の文臣で、孝宗の代になると後ろ盾がなく失脚し、処刑された人物である。また、丙子胡乱に対して都元師として十分な対策ができなかったことは事実である。今までは文学作品や説話での自點への憎悪は慶業への哀悼意識の裏返し、反清的な民衆意識の表れと言われてきたが、パク・キョンナム氏は反清・親明意識に関しては政治的な事情が先立ち、民衆意識ではなく士大夫層によって主導されてきたのではないかと分析した。¹³⁾イ・ジョンピル氏はさらに、慶業の死の当時から陰謀を疑う雰囲気があったこと、『孝宗実録』の記事を分析し、親清派だが後ろ盾のなくなった自點が標的になり、行動が怪しいという噂から謀反の疑いが既成事実化し、死に至ったと分析している。¹⁴⁾それが早くも李選の『林慶業伝』(1688年)や宋時烈の『林將軍慶業伝』(1689年)で自點が慶業を迫害したという認識を決定づけた。

これには肅宗の時代(17世紀末)に尊明廃清の世論が強まったことも親清派の自點への攻撃に影響している。同様の結末(自點が慶業を殺害するが悪事が顕れ処刑される)を持つ『朴氏伝』も含めて、イ・ジョンピル氏は、自點のように国家の趨勢の責任まで問われるようになった人物像を「公共の敵」の形象と名付け、丙子胡乱の全責任まで自點に負わせる世界観が形成されていると分析した。¹⁵⁾

金自點の場合は、政治的な情勢の変化で標的となり、親明・英雄的存在である林慶業の死の原因に結びついてしまったものと言える。

4. 梶原景時と金自點の共通点と相違点

以上を見ると、梶原景時と金自點が悪役として形成される過程には類似点がある。両者とも、源義経または林慶業の死に対して大きな責任を負っていないにもかかわらず、政治情勢の変化で敗北者になったことで敵対者としての性格が形成され、英雄を陥れる悪役的存在になり、関連のない自身の死も英雄的人物の迫害に結び付けられるようになった点である。

13) 박경남「임경업(林慶業) 영웅상의 실체와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 23호, 2003년

14) 이종필『조선중기의 전쟁과 고소설의 기억』 소명, 2017년

15) 同上。

ただし、景時の場合は「内戦の勝者の中での権力争いの敗者」であり、自點の場合は「対外的に敗北したという状況の中での政治的敗者」という違いがあり、英雄が希求される状況でのこの差は大きいと考える。慶業に対して自點を敵対者とする民衆心理には、英雄を結局死に至らしめた朝鮮の権力層の無能と無責任に対する批判意識があるようだ。¹⁶⁾一方、義経と景時については、本来義経と葛藤のあった頼朝は、悪人的景時を許容していた責任を問われることはなく、祝祭的な性格を持つ幸若舞曲などでは武士政権の祖として崇められ、すべての悪事を景時に負わせることになった。そもそも、彼らが平氏に対する勝者同士であり、敗者の声が浮かび上がりづらく、頼朝から始まった武家政権の是非については不問に近い状況であった。¹⁷⁾中国、朝鮮と異なり日本で長らく文民統制が行われなかったことは、武力への批判意識が生じなかったことが関係す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日本と朝鮮の社会的差異を念頭に置きながら、さらに検討を深めたい。

16) 윤보운「임경업전_의비판의식연구」어문연구121号, 2024年など。

17) 『平家物語』や『曾我物語』に表れる頼朝の残虐性については水原一氏（「頼朝魔王像」）などから指摘があるが、社会批判的な大きな言説を形成するまでには至っていない。（「平家物語卷十二の諸問題」駒沢国文20号、1983年2月など）

화가 정말조의 교토시대의 활동

이나바[후지무라] 마이(광운대)

들어가는 말

정말조(鄭末朝, 1908-1977)는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일본 교토로 이주하여, 교토에서 '일본화(日本畫)'를 수학한 화가이다. 정말조에 관한 자료는 극히 희소하여 오랫동안 그의 생몰연도조차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며 광복 이후에는 일본을 떠나 월북(越北)하였다는 오보까지 전해진 '망각된 화가'였다. 또한 현재 확인 가능한 작품의 대부분이 인쇄된 흑백 도판에 국한되어 있어 작품 연구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윤희의 탁월한 연구에 의해 정말조가 아시아-태평양 전쟁 말기에 교토를 떠나 오카야마현 쓰야마시(岡山県津山市)로 이주하고 1977년에 사망할 때까지 그곳에서 거주하였음이 밝혀졌다.¹⁾ 또한 이윤희의 논문을 토대로 한 황정수의 연구는 정말조의 작품을 새롭게 발굴한 사실까지 포함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²⁾ 아울러 근대기 조선 유학생들의 채색화단(彩色畵壇)에 관해 연구한 김소연 또한 교토에서의 정말조의 행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³⁾

전후의 정말조는 건강 악화 등으로 두드러진 활동을 보이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여러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같은 시기 교토에서 수학한 박생광의 만년 활동과 비교하면 그는 다소 미미한 작가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화숙(畵塾)에서 수학한 조선인 화가로서 보기 드문 존재였던 정말조의 공적은 다시금 주목될 필요가 있다.

정말조는 1930년대 후반부터 조선미술전람회(이하 조선미전)와 일본의 관전인 신문부성 미술전람회(이하 신문전)에 연속 입선하는 쾌거를 이룩한 화가였다. 당시의 미술 잡지 등에 실린 평론을 살펴보면, 정말조가 매우 왕성하게 제작 활동을 전개하며 작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토대로 하여 정말조가 가장 활발히 활동했던 교토 시기와 그 시기의 작품에 다시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그가 소속되어 있던 화숙 쇼코샤(靑甲社)에서의 전람회와 관전에 출품된 작품들은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언급된 적이 거의 없었다. 남겨진 작품 도판의 대부분은 인쇄 매체에 실린 흑백 사진이어서 작품 분석에 일정한 한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향후 정말조 연구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정말조와 교토회화전문학교

일제강점기에는 다수의 조선인 학생들이 유학으로 일본에 건너갔다. 미술 분야의 경우 도쿄 미술학교를 비롯하여 미술학교가 집중되어 있던 도쿄 지역에서 수학한 학생들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나 1930년대 이후에는 타 지역으로의 유학에도 관심이 기울여지기 시작하였다.⁴⁾ 정말조가 학교에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시기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말조는 그림을 배우기 위해 교토로 이주한 것은 아니었으나, 훗날 '일본화가(日本畵家)'로 활동하게 되는 그에게 교토에서 배움의 기회를 얻은 것은 분명히 행운이었다고 할 수 있다.

1) 이윤희, 「재일 조선인 화가 정말조(鄭末朝)」, 『근대서지』 제8호, 근대서지학회, 2013, pp. 203-223.

2) 황정수, 「일제강점기 교토의 디아스포라, 한국인 화가 정말조」, 『미술세계』, 2월호, 2018, pp. 142-147.

3) 金素延, 「韓国近代美術留学と「東洋画」の模索—彩色畵壇を中心に—」, 『美術研究』 제429호, 東京文化財研究所, 2020, pp. 475-498

4) 金素延, 위의 논문, p.489.

교토에서 ‘일본화’를 배운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교토 화단이 오랜 전통 회화의 중심으로 지칭되기 시작한 것은 메이지 이후 도쿄 화단과의 대비 속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교토 화단에는 마루야마파(丸山派), 시조파(四条派)가 있었고, 막말에 이르러서도 마루야마파와 시조파는 물론 무로마치(室町) 시대부터 이어진 가노파(狩野派) 역시 건재하였다. 그 밖에도 남화(南畵, 문인화), 도사파(土佐派), 모치즈키파(望月派) 등 다양한 유파들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전통적 유파들에 더하여 교토의 일본화단은 메이지 이후 근대적 미술 교육을 가장 먼저 도입한 점에서 큰 특징을 지닌다. 정말조가 일본화를 배운 교토시립회화전문학교(이하 회화전문학교)가 바로 그것이다. 1909년 요시다초(吉田町)에 위치한 교토시립미술공예학교(이하 미술공예학교)의 교사(校舎) 내에 회화전문학교가 개교하였다. 미술을 전공하는 전문학교로서는 1903년 전문학교령 공포와 동시에 전문학교로 인가된 도쿄미술학교에 이어 설립된 것이다(도쿄미술학교 자체는 1887년에 개교). 회화전문학교의 교칙을 살펴보면 선행한 도쿄미술학교의 과정과 규모를 기준으로 설계된 것으로 보이나 교육 방침은 도쿄미술학교처럼 교원·지도자의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지 않고 미술공예학교를 계승하는 8년에 걸친 일관된 교양 교육을 시행하였다.⁵⁾

미술공예학교에 부속하는 고등 교육 기관으로 개설된 회화전문학교의 초대 교장으로 취임한 인물이 심리학자 마쓰모토 마타타로(松本亦太郎)였다. 마쓰모토는 1908년 교토제국대학의 심리학 교수로 부임하여 교토에 오게 되었다. 그는 미학이나 미술사 전공자는 아니었으나 미국과 유럽 유학 경험이 있었으며 국내외 미술에 대해 깊은 조예를 지닌 인물이었다.⁶⁾ 마쓰모토의 주도로 출발한 회화전문학교는 근대 교육에 주력했다. 일본화과와 도안과가 설치된 동교에서는 특히 교양주의를 근간으로 하여 “일본 회화를 연구하고자 하는 자”를 위해 일본 회화사뿐만 아니라 서양 회화사, 심리학 개론, 철학 개론, 미학 등이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었다.

개교 당시 교수진에는 다케우치 세이호(竹内栖鳳, 1864-1942), 기쿠치 케이게츠(菊池契月), 야마모토 순교(山元春挙), 기쿠치 호우분(菊池芳文) 등 교토 일본화의 실력자들이 포진되었다. 또한 졸업생으로는 무라카미 가가쿠(村上華岳), 쓰치다 바쿠센(土田麦僊), 니시야마 스이쇼(西山翠嶂, 1879-1958), 오노 지코(小野竹喬), 후쿠다 헤이치로(福田平八郎) 등 근대 일본화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다수의 일본화가들을 배출하였다.

회화전문학교의 후신인 교토시립예술대학의 100주년 기념 동창회 명부에 따르면, 정말조는 처음에는 미술공예학교에 입학하여 1931년 봄 졸업 후 회화전문학교로 진학하였으며 1934년 3월 25일에 졸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정말조는 미술공예학교 재학 당시 도안과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1931년3월 졸업 시에는 〈朝鮮古代趣味壁掛図案〉이 학교에 의해 매입되었다(1931년 8월 구입). 이 작품은 높이 208.5cm, 너비 146.5cm에 달하는 상당히 대형의 작품으로, 마포(麻布)에 안료를 사용하여 중앙에 공작을 그리고, 배경에는 홍백의 모란을 배치한 것으로 색채가 풍부하고 매우 선명하다. 또한 〈조선고대취미벽괘도안〉 이외에도 1928년에 제작된 족자 형식의 〈便化模様〉 역시 소장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1928년 3월 구입). 재학 중 두 점이나 학교 매입 작품으로 선정된 사실은 정말조의 우수성을 잘 보여준다.

또한 정말조의 회화전문학교 재학 시 활동 가운데 하나로 사격부에 소속되어 있었던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회화전문학교 팀은 간사이 학생 사격대회에서 3년 연속 우승할 정도의 실력을

5) 松尾芳樹, 「京都市立絵画専門学校の校則」, 『京都市立芸術大学芸術資料館年報』 29호, 京都市立芸術大学芸術資料館, 2020, pp. 1-2.

6) 田中圭子, 「京都の美術学校における美術教育の近代化について」, 『美術教育』 290호, 日本美術教育学会, 2007, p. 11.

갖추고 있었다.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교토의 저명한 도예가의 공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정말조가 어려운 형편 속에서 학업을 이어갔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동아리 활동 등을 병행한 점을 고려하면 학생 생활 자체는 그리 궁핍하지 않았을 것이라 추측된다. 도기에 채화를 하거나 기모노의 무늬를 그리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일본화가들은 당시 적지 않았다.

회화전문학교를 졸업한 정말조는 1937년 쇼코샤에 입문하였다. 쇼코샤는 당시 교토에서 가장 유력한 화숙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교토 화단의 중진이었던 다케우치 세이호의 제자 니시야마 스이쇼에게 사사했다는 사실은 정말조가 교토 근대 일본화의 정통한 계보 속에 위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쇼코샤 소속 문하생 가운데에도 회화전문학교에서 수학한 화가들이 있었다. 도모토 인쇼(堂本印象), 나카무라 다이사부로(中村大三郎), 우에무라 쇼코(上村松篁)와 같은 선배 화가들을 비롯하여, 동료인 사와 고진(沢宏毅, 정말조와 동년 졸업) 또한 학교와 화숙 양쪽에서 학습하였다. 이처럼 교토에서 활동하던 일본화가들은 학교와 화숙을 병행하거나 졸업 후 화숙에서 다시 수학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드물지 않았다. 화숙은 기본적으로 사사 관계에 입각하여 스승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니시야마 스이쇼가 회화전문학교의 교수직을 맡고 있었다는 사실은 전통적인 화숙임에도 불구하고 근대적 미술 교육을 실천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다른 화숙들과는 구분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쇼코샤와 정말조

1921년 니시야마 스이쇼가 창설한 쇼코샤의 주요 활동에는 연구회, 밑그림(下絵) 상담회, 간부회, 견학회, 그리고 숙전(塾展, 쇼코샤전)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연구회는 쇼코샤의 문하생들이 “연구회만을 믿는다”고 말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화숙에서는 사사의 유파에 제자가 따르는 것이 관례였으나 정말조의 동료였던 아키노 후쿠(秋野不矩)에 따르면 니시야마 스이쇼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을 잘 살려주는 지도를 하였다고 한다.⁷⁾

1937년에 쇼코샤에 입문한 정말조는 이듬해 제11회 쇼코샤전에 <봄>(1938)을 출품하였다. 이 작품은 한복을 입은 여성이 치마를 잡고 서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여성의 옆에는 청자로 보이는 향아리에 키 큰 꽃이 꽃혀 있다. 쇼코샤의 숙보(塾報)에는 작품 도판과 함께 작가 본인의 코멘트가 실려 있다.

“사방은 포근하고 따스한 봄빛에 가만히 싸여 있는 가운데, 흰옷을 입은 부인이 홀로 고요히 서서 무엇인가에 잠겨 있는 모습. 단채(單彩)로 간결하긴 하지만 그 반면 고요 속에서 맑고 고결한 기품과도 같은 것에 마음이 움직이는 느낌으로 그려 보았습니다만 아직 초심(初心)에 까지는 한 걸음 더 남아 있어 부끄러운 작품입니다”⁸⁾

이 작품에 대한 “정말조 씨의 <봄>에는 어딘가 미숙하고 연약한 기운이 감돌고 있으나 동시에 억누를 수 없는 피부의 향기가 내적인 무엇을 암시하고 있어, 기대하게 만드는 바가 있다”라는 평은 화숙의 신인에 대한 평가로서는 상당히 호의적인 것이었다.⁹⁾

정말조는 이듬해 쇼코샤전에는 <회춘(懷春)>(1939)을 출품하였다. ‘회춘’이란 젊은이가 이성을 생각하고 춘정(春情)을 품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특히 여성에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한복을 입은 여성이 고개를 약간 숙인 채 그려져 있으며 사랑하고 사모하는 젊은 여성

7) 秋野不矩, 『日本画を語る』, なにわ塾叢書, 1989, p. 21.

8) 『青甲社塾報』 9, 1938, 쪽 없음.

9) 神崎憲一, 「青甲社第十一回展」, 『塔影』, 1938년 5월호, p. 53.

의 한결같은 마음이 전해지는 작품이다. 자신의 작품에 대해 작가는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다.

“때는 봄기운이 감돌면 우주 만상이 모두 각자의 희망을 향해 생기가 약동하는 법인데 처녀의 마음은 오로지 여기…라고 하는 식의 생각을 두고 저런 포즈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물의 단순한 색조에 대하여 배경의 벽거리에는 섬세하고 화려한 요소를 배치하여 양자의 대비에서 오는 흥미로움을 의도하였으나 완성된 결과는 배경에 지나치게 치중한 탓에 보시는 바와 같은 작품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¹⁰⁾ 이 작품에 대하여 다카야마 다쓰조(高山辰三)는 “어눌한 붓놀림이지만 역시 향토의 기분이 넘쳐흐르는 점에서 호감이 가는 작품이다”라고 평하였다.¹¹⁾

이후 정말조는 쇼코샤 숙전은 물론 관전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출품하였다. 1938년부터 신문전에 6년 연속 입선하였으며 또한 조선미전에도 1939년부터 6년 연속으로 입선하였다. 이를 통해 그가 쇼코샤에서 눈에 띄게 실력을 키워 나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말조와 관전— 일본과 조선

정말조가 쇼코샤에 입문한 이듬해 제2회 신문전에 첫 입선한 사실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당시에는 작가들이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장이 많지 않았으며, 신문전은 국가 주도의 관전으로서 일본에서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전람회였다. 이때 출품된 작품은 〈이채(梨採)〉(1938)이다. 이 작품은 배를 따고 있는 조선인 여성을 그린 것으로, 모두 흰 한복을 입은 세 명의 여성과 한 명의 소녀가 화면에 배치되어 있다. 한 사람은 키를 돋우어 막 배를 따려 하고 있으며 나머지 세 사람은 앉아 있다. 풍성하게 익은 배와 원형의 논 풍경이 어우러져 풍요로운 가을의 정경을 보여주고 있다.

제3회 신문전에 출품된 〈방랑(さすらひ)〉(1939)은 지팡이를 든 맹인 노인을 손녀로 보이는 소녀가 끈을 잡고 이끌고 있는 장면을 그린 것이다. 이 작품은 「미술과 취미사」가 제정한 창궁상(蒼穹賞)을 수상하였으며 “정말조 씨의 〈방랑〉은 훌륭하다. 아동이나 노인의 묘사에 기품이 있으며 더구나 화면 전체에 감도는 방랑의 애감(哀感)이 보는 이의 가슴을 절실히 파고 든다”라는 호평을 받았다.¹²⁾ 본 작품에 대해서는 그 외에도 “반도인 작가 정말조의 〈방랑〉을 추천한다. 대체로 자극적인 채색을 피하고 그림을 내면으로 지탱하려 하고 있다. 어찌하여 이러한 작품에 특선을 주어야 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와 같은 평가도 보인다.¹³⁾

1940년 신문전은 ‘기원2600년 봉축전(奉祝展)’이라는 명칭으로 개최되었으며 정말조는 2곡 1쌍 형식의 〈만감(萬感)〉(1940)으로 입선하였다. 후지모리 준조(藤森順三)는 이에 대해 “화제(畫題)의 의미는 잘 알 수 없으나 주변에 늘어선 작품들 가운데서는 좋은 편이었다. 몇 명의 반도인을 그린 것이다. 노인이 화자이고, 앞에 앉아 있는 5, 6명의 남녀가 듣고 있다는 설정일 것이다. 노인의 얼굴도 일단 그려져 있으며 청자(聽者)들의 얼굴 표정이 각각 다른 점도 흥미롭다. 그림의 완성도 또한 비교적 원숙한 편이다”라고 평하였다.¹⁴⁾ 갓을 쓰고 흰 한복을 입은 남성의 모습으로부터 그들이 양반 계급임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어린 시절 일본으로 건너온 정말조가 조국을 방문하여 취재하였을 때 얻은 정경을 반영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어서 제4회 신문전에 입선한 〈노점(露店)〉(1941)에 대해서는 간자키 겐이치(神崎憲一)가

10) 「青展出品作解説」, 『美術と趣味』, 4월호, 美術と趣味社, 1939, p. 19.

11) 高山辰三, 「青甲社展管見」, 『美術と趣味』4월호, 美術と趣味社, 1939, p.13.

12) 松村徹三, 「文展特急その他」, 『美術と趣味』12월호, 美術と趣味社, 1939, p. 14.

13) 阿波野麟, 「文展の新人達」, 『美術日本』12월호(文展号), 美術日本社, 1939, p. 38.

14) 日展史編纂委員会, 『日展史』14, 社団法人日展, 1984, p. 468.

장문의 평을 남기고 있다.

“정 씨는 이미 수년 전부터 작품이 지닌 독자성으로 인정을 받아왔다. 거기에는 여름의 해 질녘이나 가을의 달빛 속에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호금(胡琴)의 애잔한 소리, 그것에 뒤영키는 당나귀의 울음소리라도 들려오는 듯한 애절하게 다가오는 향수(鄉愁)가 감돌고 있다. 조선의 시골을 여행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러한 땅에 스며드는 듯한 여로의 정취를 경험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 씨 작품이 발하는 특이성은 바로 이 흙 냄새, 민중의 표정을 잘 포착한 데에 있다고 말하고 싶다. 〈노점〉 앞에 서 있는 두 소년의 표정 속에는 일본에서 태어나 조선을 여행한 화가만이 그려낼 수 있는 가련하면서도 애뜻한 조선이 담겨 있는 듯하다”.¹⁵⁾

그 후에도 정말조는 일관되게 조선인을 그리는 작업을 지속하였으며 제5회 신문전에 〈풍수(豐收)〉(1942), 제6회 신문전에 〈조염(爪染め)〉(1943)을 출품하여 연속 입선하였다. 〈풍수〉는 수확 후 묶어 말리고 있는 갈대 더미 앞에 아기를 안은 여성이 앉아 있는 장면을 그린 작품이다. 여성 앞에 놓인 식기는 갈대를 베어낸 농민들의 점심 식사 뒤의 흔적일까. 이 작품은 구성이 매우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서사가 느껴지는 한 점이라 할 수 있다.

〈조염〉 또한 매우 강한 서사성을 지닌 작품이다. 봉선화 꽃잎으로 손톱을 물들이는 조선의 풍습을 그린 것으로 임신 중으로 보이는 배가 부른 젊은 어머니와 그 딸의 옆모습을 그리고, 전경의 봉선화가 청초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다구치 노부유키(田口信行)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밀한 분석과 평가를 내리고 있다.

“차갑게 빛나고 있다. 조선인 아가씨의 손톱 물들이기라는 가련한 풍습에 취재하여 한 조각의 우수(憂愁)를 띤 어두운 민족성의 회고는 충분히 발길을 멈추게 하는 힘이 있다. 죽책 안의 봉선화와 한 송이의 백일홍, 엉덩이를 드러낸 소녀와 약지와 새끼손톱을 물들이는 소녀의 견고한 대비에는 버릴 수 없는 함의가 담겨 있다. 끊임없이 게을리하지 않는 정진에 경의를 표한다”.¹⁶⁾

그런데 위에서 소개한 정말조 작품에 대한 비평을 통해 느껴지는 것은 일본인 비평가들이 조선인 화가를 바라보는 시선이다. 정말조의 화가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평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른바 ‘향토색(郷土色)’ 문제가 여기에서 부상한다. 식민지 풍속에 대한 일본인의 이국 취향과 아시아주의가 일본 화단에도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앞에서 소개한 비평에 나오는 중국의 악기 ‘호금’이라든가 ‘일본에서 태어난 조선인 작가’, ‘어두운 민족성의 회고’와 같은 말들로 비평가들의 오해와 선입견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인 화가로서의 정체성을 제대로 드러내는데 정말조는 고심하였을 것이다.

정말조는 신문전과 병행하여 조선미전에도 연속 입선하였다. 최초의 입선은 제18회 조선미전에서의 〈춘교(春郊)〉(1939)였다. 도록에 수록된 흑백 도판은 선명하지 않지만, ‘봄의 들판’이라는 제목 그대로 한복 차림의 세 소녀가 다정하게 꽃을 따는 정경이 그려져 있다. 이듬해 제19회에 출품한 〈추원(追遠)〉(1940)은 두 남성과 어린 소녀가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의 상황을 묘사한 작품이다. 두루마기를 걸친 남성들은 생선과 닭을 들고 있으며, 소녀는 음식을 담은 소쿠리를 머리에 이고 있다. 조선의 일상생활 한 장면을 포착한 이 작품은 조선총독부상을 수상하였고 제20회에 출품한 〈여(旅)〉(1941)에서도 또다시 조선총독부상을 받았다. 제20회 이후 조선미전의 도록은 발간되지 않아(20~23회는 목록만 존재) 작품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무감사로 출품한 제21회의 〈춘난(春暖)〉 역시 조선총독상을 수상하였다. 이는3

15) 日展史編纂委員会, 『日展史』 14, 社団法人日展, 1984, p. 478.

16) 日展史編纂委員会, 『日展史』 15, 社団法人日展, 1985, pp.455-456.

년 연속의 쾌거였다. 더 나아가 제22회의 〈청일(晴日)〉도 특선으로 입상하였다. 이 작품은 같은 해 교토시미전에도 출품되어 수상하였다. 또한 조선미전 최종회인 제23회의 〈조염(爪染)〉은, 앞서 언급한 작품과 동일한 것이 출품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상으로 정말조의 일본과 조선의 관전에서의 활약을 살펴보았다. 그가 충분한 평가를 받았으며 기대를 모은 작가였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맺음말

정말조는 화학교에서 근대 미술 교육을 받고 졸업 후에는 교토의 명문 화숙에서 수학한 정통파 화가였다고 할 수 있다. 일본화의 아성이라 할 수 있는 교토에서 일본인 화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나, 정말조는 미술공예학교의 졸업작품이 매입되는 등 학생 시절부터 이미 높은 실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쇼코샤의 스승 니시야마 스이쇼 역시 그 점을 간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니시야마 스이쇼가 문학생들의 개성을 존중하였던 사실은 정말조가 조선의 풍속을 지속적으로 그리며 자신의 세계를 일관되게 구축할 수 있었던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정말조가 화가로서 가장 활발히 제작 활동을 전개하던 시기는 중일전쟁과 이어지는 아시아·태평양전쟁의 시국과 겹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시국을 반영한 ‘쇼코샤 해군 헌화전(靑甲社海軍献画展)’과 ‘산업전사 증화전(産業戰士贈画展)’에도 참여하였다. 전자에는 〈비룡(飛龍)〉(1941), 후자에는 〈대화심(大和心)〉(1943)을 출품하였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정말조 작품의 핵심은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이었다. 그러한 그에게 군이나 기업에 헌납할 그림을 제작하는 일은 매우 복잡한 심경을 동반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윤희에 따르면 정말조는 전후에도 작품을 계속 제작하였으나 건강이 좋지 않아 입퇴원을 반복하였다고 한다. 그 때문인지 전전(戰前)의 활약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작품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진다. 관전의 흐름을 이어받아 1946년부터 시작된 일본미술전람회(이하 일전)에서 제3회에 입선한 〈다행(多幸)〉(1947)과 제11회에 입선한 〈점(占い)〉(1955)이 확인될 뿐이다. 이주지인 쓰야마시에서 제자 양성에도 적극적이었다고 전해지기 때문에 정말조는 작업을 지속하였을 것이고 일전에도 계속 응모했을 것이다. 그러나 GHQ 점령하에서 찬반 논의가 분분한 가운데 재개된 ‘관전계’ 전람회였던 일전에 있어 정말조와 같은 구 식민지 출신 작가에 대한 심사 기준은 전전의 관전과는 달라졌을 것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전의 정말조의 활약과 그의 작품에 대한 평가는 한층 더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제3세션 (장소: 633호)

▶ [비대면 Zoom 주소] <https://m.site.naver.com/1SQ44>

제3세션 (개인발표)				
시간	발표자	발표제목	토론자	사회자
15:20~16:00	천호재 (계명대)	중간구문에 있어 속성 해석의 생성 메커니즘 -인지자의 총칭화와 환유의 투사 관점을 중심으로-	류신애 (신라대)	신웅철 (한밭대)
16:00~16:40	오혜경 (ICU)	Strategic Teacher Roles in Japan-Korea High School Virtual Exchange: Beyond Facilitation	장윤아 (국립부경대)	
16:40~17:20	오혜경 (ICU) 김민영 (호평고등학교)	한일 고등학교 간 온라인 국제 교류수업(VE) 사례 비교 연구 - 호평고의 2023년과 2024년 교류를 중심으로 -	이윤아 (신라대)	
17:20~18:00	김다현 (나고야대)	기획된 장소로서의 지브리파크: 다섯 구역의 공간 전략과 장소성의 특수성	다무라 후미노리 (인천대)	
18:10~18:40	동아시아일본학회 2025년도 하반기 정기총회			
	2025년 동북아시아문화학회 정기총회 및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시상			
	폐회식			

중간구문에 있어 속성 해석의 생성 메커니즘 -인지자의 총칭화와 환유의 투사 관점을 중심으로-

천호재(계명대학교)

1. 시작하기

- (1) a. 太郎が花子を傷つけた。(能動構文)
b. 花子は人の言動に余計に傷つく。(有生主語中間構文)
c. 花子はあの試合に負けて深く傷ついた。(非能格自動詞構文)
d. 花子が太郎に傷つけられた。(受動構文)

千(2005a: 110)

<본 발표의 목적>

- ①三原(2020)가 제안한 속성 해석의 메커니즘이 중간구문에도 적용되는지를 고찰한다.
a. 중간구문에도 잠재적 인지자가 존재하는가? 있다면 어떠한 양상으로 존재하는가?
b. 중간구문이 기술하는 속성은 어포던스의 최적해인가?
c. 중간구문에 적용되는 관찰점의 공공성, 지각의 공공성, 인지자의 총칭화, 속성의 발생은 三原(2020)의 속성 개념과 어떻게 다른가?
d. 중간구문에서 속성의 해석이 형성되는 메커니즘은 三原(2020)의 메커니즘과 어떻게 다른가?
②본 발표의 주장은 속성해석을 강조하는 언어 표현의 발굴에 어떻게 공헌하는가?
③중간구문은 잠재 논항의 통사구조 내 배치가 가능한가?
④본 발표의 주장은 속성 개념의 정밀화에 어떻게 공헌하는가?

2. 속성 개념의 이론적 배경-三原(2020)

- ①속성서술수동문이 나타내는 속성은 어포던스(affordance, 행위 가능성)에 대한 최적해
②속성의 발생에는 인지자의 총칭화가 필요하다.
③속성은 환유(metonymy)에 의해서 주제에 투사된다.

2.1 잠재적 인지자 三原(2020:56)

- (2) a. あの街は、よく暴走族にめちゃくちゃにされている。(潜在的受影者)
b. この雑誌は、10代の若者によく読まれている。(潜在的觀察者)
c. 当時は、いわゆる「フォークソング」がよく歌われていた。(潜在的経験者)
d. 三上山は、手頃なハイキングコースとして多くの市民に親しまれている。
(潜在的判断者)

- ①잠재적 수영자→(あの街の)住民
②잠재적 관찰자→編集者、出版者、觀察者
③잠재적 경험자→当時のことを思い出している経験者
④잠재적 판단자→三上山は市民の憩いの場だと判断する人
三原(2020)의 잠재적 수영자, 잠재적 관찰자, 잠재적 경험자, 잠재적 판단자→ 속성서술수동문이 묘사하는 사태를 인지하는 잠재적 인지자(implicit sentient)

2.2 속성서술수동문의 성립 三原(2020:57)

(3)属性叙述受動文の表す属性はアフォーダンスに対する最適解である。

어포던스: 사물(인간)이 환경 속에서 인지자에 대해 지니는 의미. 예)イス→座る, 本→読む

(4)사물에 대한 인지: 인지자에 의한 탐색행위→사물을 지각→어포던스를 제공

(5)この雑誌は、10代の若者によく読まれている。

<속성서술수동문 성립의 전제 조건>

①(5)의 주제 「この雑誌」는 백과사전적 지식을 바탕으로 몇 가지 어포던스를 지닌다.

②「読む」「定期購読」「(雑誌に掲載された)写真を眺める」→読む

③잠재적 인지자는 어포던스 중 그 속성서술수동문이 화제가 된 환경을 탐색→주제구

「この雑誌」를 구성하는 특성 중에서 최적해의 어포던스「よく読まれる」를 선택

④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속성 부여의 메커니즘을 규명했다고 할 수는 없다.

2.3 인지자의 총칭화 三原(2020:58)

(6)この沢の水は甘い。

(7)a.この沢の水は、私には甘い。(君はどう?) b. この沢の水は、今日は甘い。

<인지자의 총칭화에 의한 속성의 발생 순서>

①관찰점의 공공화 ②지각의 공공성 ③인지자의 총칭화 ④속성의 발생

(8)인지자의 총칭화: 甘い→この沢の水에 투사→「は」대조 해석→주제 해석→최적의 어포던스를 선택 ※속성은 인지자의 총칭화에 의해 발생함

2.4 속성 부여의 메커니즘 三原(2020:60-63)

<속성 메커니즘> 속성은 비유이다→속성은 환유(metonymy)이다.

(9)a. 근접성 博人君は黒帯だ→<환유의 원형>

b. 원인·결과 きのうの火事はタバコだ→<결과:원인>

c. 전체·부분 マスカットはアレクサンドリアだ→<類·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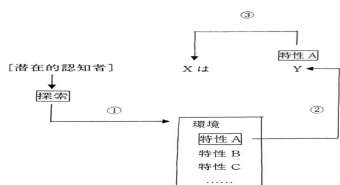
d. 임시적 관련성 アカヒレは5番テーブルです<문맥 의존도가 높다>

※환유는 근접성에 의거하는 관계

(10)속성 부여는 품사를 가리지 않는다. 명사, 형용사, 동사

(11)a.この雑誌(X)は、10代の若者(Y)によく読まれている。

b. 속성을 투사하는 방향성은 「Y→X」여야 한다.



①잠재적 인지자는 「X는 Y」라는 문장이 발화되는 문맥 탐색

②Y를 구성하는 가능성 중 몇 가지 특성 중에서 최적해의 어포던스로 판단되는 특성A를 선택

③특성 A를 X의 속성으로서 환유에 의해 X에 투사

<그림1> 속성 부여의 메커니즘

3. 중간구문의 문법적 특징 千(2025c:111-114)

- (12)a. 다양한 자동사형에서 중간동사가 만들어진다. ㉠(13)
 b. 중간구문은 대응하는 능동구문(타동사구문·사역구문)을 지닌다. ㉠(14)
 c. 중간구문의 주어 명사는 대응하는 능동구문의 목적어 명사이다. ㉠(14)
 d. 중간구문에는 표면적으로 동작주 논항이 명시될 수 없지만 의미적으로 그 존재는 함축된다. ㉠(15)
 e. 중간동사는 상태동사이다. 이것은 몇 가지 공기 제약을 통해서 입증된다. ㉠(16)
 f. 중간구문에는 난이부사(양태부사)가 필연적으로 생긴다. ㉠(17)
 g. 중간구문은 주어 명사의 일반적·총칭적 속성을 기술한다. ㉠(17)
- (13) うぬぼれる、でしゃばる、笑う、感動する、遠慮する、怒る、動じる
- (14)a. 花子は韓国ドラマにすぐ感動する。b. 韓国ドラマが花子を感動させた。
- (15)a. *慶子は些細なことで太郎によってすぐ怒る。
 b. *太郎は次郎によってちょっとしたことですぐ動じる。
- (16)a. *梢はすぐ悲しんでいる。b. *梢は一生懸命に悲しむ。
 c. *梢は教室ですぐ悲しむ。d. *梢は演技をするためにすぐ悲しむ。
- (17)a. 花子は人の言動に余計に傷つく。b. うちの子はすぐいらいらする。
- (18)a. 葵はよく働いている。b. 葵は一生懸命に踊っている。
 c. 葵は舞台の上で踊っている。d. 講演を聞くために生徒たちが講堂に集まった。
- ㉠(18)은 비능격구문임

4. 중간구문의 속성 분석

4.1 잠재적 인지자와 중간구문

- (19)太郎は人前で何かをする時にすぐに緊張する。
- ①잠재적 수영자: 타로 본인, 타로와 접하는 주변인물(학생, 친구, 동료 교사, 동료 직원, 상사, 청중), (22)를 지각하는 사람
 ②잠재적 관찰자: 타로의 가족, 타로의 주변인물, 타로와 대화하는 사람, 심리학자
 ③잠재적 경험자: 타로 본인, 지각자, 화자, 청자
 ④잠재적 판단자: 타로의 행동을 직간접적으로 전해 듣거나 보고를 통해 사실을 알게 된 제3자, 타로를 두세 번 만난 사람

(20)중간구문은 잠재적 수영자, 잠재적 관찰자, 잠재적 경험자, 잠재적 판단자 모두 가능함

4.2 중간구문의 성립

- (21)この雑誌は、10代の若者によく読まれている。(=(5)) (속성서술수동문)
 (22)属性叙述受動文の表す属性はアフォーダンスに対する最適解である。(=(3))
 (23)彼女は仕事にいつも骨惜しみする。(중간구문)
 (24)三原(2020)식의 설명 :

彼女は仕事にいつも骨惜しみする{よく働く/よく協力する/よく休む}。

→彼女は仕事にいつも骨惜しみする。(최적해)

<본고의 주장> 협의의 어포던스(술어만을 최적의 어포던스로 여김)→광의의 어포던스

스(술어에서 파생되는 다층적 어포던스를 고려): 협의의 어포던스는 다층적이고 다각적인 행위와 공간에서 지각자가 가장 상징적인 표현으로 축약된 것이다.

①협업적 어포던스: 그녀는 일이 느리다(업무 배제)→다른 사람에게 업무 배분

②평판적 어포던스: 그녀는 교활하거나 게으르다→불평한다/거리를 둔다

③조직적 어포던스: 회사 업무에 비협조적, 회사 규율에 위배, 관리 감독을 강화, 승진에서 배제하거나 퇴사 고려, 연봉 협상에 연봉 삭감

④상호작용적 어포던스: 그녀와 업무와 관련하여 대화를 할 때, 설득할 것인가, 압박을 할 것인가,

①②③④→いつも骨惜しみする라는 최적해가 선택

4.3 인지자의 총칭화와 중간구문

(25)太郎は試合で相手の気迫に押されるとすぐ逃げ腰になる。(중간구문)

①관찰점의 공공성->타자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타자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확신

(26)太郎は、場所を問わず、相手の気迫に押されるとすぐ逃げ腰になる。

(27)太郎は、いついかなる時でも、相手の気迫に押されるとすぐ逃げ腰になる。

②지각의 공공성->타자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타자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확신

(28)太郎は試合で相手の気迫に押されるとすぐ逃げ腰になるが、その様子はどんな人でも目の当たりにすることができる。

③인지자의 총칭화->타자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타자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확신

(29)太郎は試合で相手の気迫に押されるとすぐ逃げ腰になる。

(30)だれもが試合で強い気迫で押せば、太郎をすぐに逃げ腰にさせることができる。

(31)a. 太郎は{*私には}試合で相手の気迫に押されるとすぐ逃げ腰になる。(중간구문)

b. 太郎は、試合で相手の気迫に押されると、私にはすぐ逃げ腰になるように見える。

④속성의 발생->(29)의 속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신

☞(33)「太郎は」 대조 해석→주제 해석

(32)太郎は試合で相手の気迫に押されるとすぐ逃げ腰になる。(중간구문)

(33)面接で難しい質問をされた途端、太郎はすっかり逃げ腰になった。(비능격구문)

4.4 중간구문에서 속성이 형성되는 메커니즘

(34)うちの娘はよく隠れる。(중간구문)

X Y

①(34)의 중간구문에서도 Y(동사)라는 속성이 X에 투사된다. 즉「Y→X」라는 방향성으로 속성이 투사된다.

②중간구문에서도 잠재적 인지자는 「X는 Y」라는 문장이 발화되는 문맥을 탐색한다.

③하지만 탐색은 잉여적으로 이루어진다. 예)시각→모습이 자주 안 보임, 청각→소리(숨소리, 발소리, 억지로 참는 장난 끼 있는 웃음 소리, 작은 기침소리)로 인식, 후각→냄새(아이 몸에서 나는 특유의 체취, 식사 시 반찬 냄새, 샴푸향, 비누향 등), 촉각→숨은 아이의 옷자락, 머리카락이 닿음, 바람이 없는 가운데 커튼이 움직여 지각자의 몸에 닿음

- (35)a. この沢の水は甘い. (미각) b. 蘇州は東洋のベニスだ. (시각, 청각)
 c. ビーバーはダムを作る. (시각, 청각) d. ベルリンフィルの演奏は重厚だ. (청각)

☞ b와 c, d는 직접 체험, 간접 체험 ok, 중간구문은 직접 체험

- ① 중간구문에서도 Y를 구성하는 가능성 중 몇 가지 특성 중에서 최적해의 어포던스로 판단되는 특성A가 선택되나 그 특성 A가 선택되기까지 다양한 어포던스가 관여한다. (35)은 단순한 어포던스, 제한된 어포던스
 ② 중간구문에서는 지각자 일개인에 의한 총칭화가 실현된다. 정보제공문
 → 전형적 총칭문, 존재적 총칭문, 중간구문 ☞ 천호재(2009)
 ③ 중간구문에서도 특성 A를 X의 속성으로서 환유에 의해 X에 투사된다.
 특성A: よく隠れる / 특성B: よく笑う / 특성C: すぐ泣く / 특성D: すぐすねる

5. 본 연구의 의의와 확장

5.1 속성 해석을 강조하는 언어 표현의 발굴

- (36) この雑誌は、10代の若者によく読まれている. (수동+ている) 三原(2020:57)
 (37) この沢の水は甘い. (형용사) 三原(2020:61)
 (38) 蘇州は東洋のベニスだ. (명사) 三原(2020:61)
 (39) ビーバーはダムを作る. (동사(구)) 三原(2020:61)
 (40) その建物の扉は、いつ見ても閉まっている. (비정물 속성 서술) 崔(2016:217)
 (41) 私は感情の振り幅が小さい人間だ. いつも心のどこかが冷めている.
 (사람의 속성 서술) 崔(2016:223)
 (42) 太郎は仕事に必要以上にこせこせする. (작례) 중간구문→유생주어중간구문
 (43) この抹茶は水によく溶ける. (작례) 중간구문→무생주어중간구문

5.2 잠재 논항의 통사구조 내 배치

- (44) 太郎は、場所を問わず、相手の氣迫に押されるとすぐ逃げ腰になる.
 (45) 彼は試合でいつもあっけなく負ける.
 (46) 花子は蚊によく刺さる.
 (47) 花子は学校の朝礼で、よくバタリと倒れる.
 (48) うちの社長は小さなことですぐブチ切れる.
 (49) 花子はちょっとしたことでもひどく驚く.
 (50) 太郎は人前で何かをする時にすぐに緊張する.
 (51) 太郎は人におだてられるとすぐいい気になる.
 (52) 太郎は{*私には/*私にとっては}試合で相手の氣迫に押されるとすぐ逃げ腰になる.
 (53) 太郎は{*次郎によって}ちょっとしたことでもすぐ動じる.
 (54) 중간구문에는 원칙적으로 통사상 잠재 논항을 배치할 수 없다. 의미적으로 잠재 논항의 존재를 암시하는 표현만 명시가 가능하다. (51)과 (56)은?

5.3 속성 개념의 정밀화

- (55) この雑誌は、10代の若者によく読まれている. (수동+ている) 三原(2020:57)

- (56)この沢の水は甘い。(형용사) 三原(2020:61)
- (57)蘇州は東洋のベニスだ。(명사) 三原(2020:61)
- (58)ビーバーはダムを作る。(동사(구)) 三原(2020:61)
- (59)①속성서술수동문이 나타내는 속성은 어포던스(행위가능성)에 대한 최적해이다.
 ②속성의 발생에는 인지자의 총칭화가 필요하다.
 ③속성은 환유(metonymy)에 의해서 주제에 투사된다.
- (60)アルミは熱で簡単に曲がるが、鉄は曲がらない。(강도 속성) 崔(2016:217)
- (61)赤井作品は細かいところまで行き届いている。(작품성, 스타일적 속성) 崔(2016:219)
- (62)近親結婚はおもしろくない遺伝上の問題をおこす。(기능의 속성) 崔(2016:220)
- (63)(彼女は)白色で気品があって、ふっくらと太っている。(신체적 속성) 崔(2016:222)
- (64)撮影に入ると鬼になる巨匠はよく怒る。(심리적 속성) 崔(2016:222)
- (65)信長は戦国諸豪のなかでもいわば新興勢力に属している。(관계적 속성) 崔(2016:223)
- (66)①속성서술수동문이 나타내는 속성은 어포던스(행위가능성)에 대한 최적해이다.
 →중간구문에서도 최적해의 어포던스로 판단되는 특성A가 선택되나 그 특성 A가 선택되기까지 언어표현으로 나타나지 않는 다양한 어포던스가 관여한다.
 ②속성의 발생에는 인지자의 총칭화가 필요하다.
 →중간구문에서도 잠재적 인지자는 「X는 Y」라는 문장이 발화되는 문맥을 탐색한다. 하지만 탐색은 잉여적으로 이루어진다.
 →중간구문은 개인의 직접적 체험에 의한 총칭화에 의해 성립한 것이다.
 ③속성은 환유(metonymy)에 의해서 주제에 투사된다.

6. 마치기

참고문헌

- 천호재(2009)「제5장 일본어의 총칭문과 중간구문」『중간구문의 개별 언어 분석 및 범언어적 분석』 한국문화사, pp. 97-117
- 崔瑞暎(2016)「現代日本語の動詞文と叙述の類型」『日語日文学研究』98(1)、韓国日語日文学会、pp.209-228
- 千昊載(2025a)「自己と他者の概念に動機づけられる日本語有生主語中間構文の意味現象」『日本文化研究』93、pp.109-129
- _____(2025b)「生態心理学的視点にもとづく属性叙述受動構文の意味研究」『日語日文学研究』132、韓国日語日文学会、pp.133-163
- _____(2025c)「自己と他者をつなぐ行為」にもとづく日本語の有生主語中間構文の意味分析」『日本語文学』104、韓国日本語文学会、pp. 217-242
- 三原健一(2020)「属性の起源」『京都ノートルダム女子大学研究紀要』50、京都ノートルダム女子大学、pp.55-64

Strategic Teacher Roles in Japan–Korea High School Virtual Exchange: Beyond Facilitation

Hye-Gyeong Ohe (International Christian University)

Keywords: Virtual Exchange (VE), teacher roles, Japan–Korea exchange, collaborative learning, foreign language education

1. Introduction

Foreign language education today emphasizes not only linguistic knowledge but also intercultural competence and global citizenship. Within this trend, Virtual Exchange (VE) has emerged as an innovative form of collaborative learning that enables sustained intercultural interaction without physical mobility. Since the COVID-19 pandemic, VE has been institutionalized as a complement or alternative to study abroad. VE can enhance not only language proficiency but also cultural understanding, digital literacy, and problem-solving skills (吳, 2024). However, meaningful learning requires more than opportunities for interaction: teachers' careful design and educational mentoring are crucial.

Despite its growth, VE research shows three gaps: (1) limited work on non-English languages, (2) fewer studies in secondary schools due to curricular and institutional constraints, and (3) insufficient focus on teachers' concrete mentoring roles. This study addresses these gaps by analyzing teachers' roles in Japan–Korea high school VE projects, highlighting the gap between self-perception and actual practice, and identifying strategies to sustain VE in non-English contexts.

2. Theoretical Framework and VE Models

VE is defined as structured, technology-mediated intercultural learning supported by teachers or facilitators (EVOLVE, 2019). Its theoretical roots lie in sociocultural theory (Vygotsky, 1978), the interaction hypothesis (Long, 1996),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theory (Hall, 1976; Gudykunst, 2003). These frameworks stress that language development, meaning negotiation, and cultural sensitivity emerge through guided interaction. Teacher roles are thus integral to turning online interaction into productive learning.

Models of VE include COIL (Collaborative Online International Learning), e-tandem, and short-term online projects. While COIL emphasizes semester-long collaborative tasks, e-tandem pairs students for reciprocal language exchange, and short-term projects provide intensive interaction for beginners. In all models, teachers act as curriculum designers, facilitators, and mediators of intercultural learning.

3.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in Japan–Korea VE

Globally, Erasmus+ and the Stevens Initiative have institutionalized VE, but practices remain English-centered. In East Asia, Korea has promoted VE through government programs, though support has fluctuated. Japan offers some assistance through prefectural boards of education, but VE tends to rely heavily on teacher initiative, with limited budget and training. Both countries face technological barriers such as unstable connections and limited access to licensed platforms like Zoom. Overall, VE remains dependent on individual teachers' enthusiasm rather than institutional systems.

4. Research Design

The study conducted semi-structured interviews (1–2 hours) with six teachers: four Japanese-language teachers in Korea and two teachers in Japan (one part-time Korean instructor, one international exchange coordinator). In addition, video recordings of VE sessions (3–6 times per year, often after school) were analyzed. The interviews explored teachers' perceptions of their roles, while the videos revealed their actual practices during VE sessions.

5. Findings

5.1 Teacher Perceptions vs. Practice

Interview data showed that teachers often defined their role narrowly as “scheduling,” “providing Zoom links,” or “guiding presentation preparation,” frequently stating they “left the rest to students.” In contrast, video analysis revealed active interventions: facilitating small-group work, solving technical issues, prompting hesitant students, summarizing or interpreting across Japanese and Korean, and providing immediate feedback. A clear gap emerged between limited self-perceptions and multi-layered actual practices.

5.2 Multifaceted Roles

Building on Belz & Müller-Hartmann (2003), four overlapping teacher roles were identified:

- 1) Linguistic supporter: encouraging learner output, reformulating, and clarifying misunderstandings.
- 2) Cultural mediator: bridging cultural differences and turning misunderstandings into learning moments.
- 3) Technical supporter: handling connection issues, platform functions, and troubleshooting.
- 4) Affective supporter: – creating a safe space, motivating shy students, and alleviating anxiety.

These findings show that teacher involvement is indispensable, especially for beginner learners with limited language resources.

6. Discussion

The results confirm that VE success depends on teachers’ educational strategies rather than incidental assistance. Yet teachers often fail to recognize the strategic nature of their interventions, framing them as mere support tasks. To strengthen VE as a sustainable pedagogical model, teacher roles must be repositioned as central educational practices. This requires (1) professional development integrating linguistic, intercultural, digital, and mentoring skills; (2) institutional and financial support for technology and training; and (3) practical guidelines for designing tasks, scaffolding interaction, and conducting reflection activities.

7. Conclusion

Japan–Korea high school VE demonstrates that teachers’ roles are multifaceted and essential, even if underestimated by the teachers themselves. Without their intervention, beginner learners cannot achieve meaningful interaction or intercultural understanding. VE should be reconceptualized not as an optional exchange activity but as a structured educational practice grounded in teacher expertise and institutional support. Strengthening training, budgets, and technical infrastructure is vital for ensuring sustainability.

References

- Belz, J. A., & Müller-Hartmann, A. (2003). Teachers as intercultural learners. *Language Learning & Technology*, 7(2), 68–99.
- DeWit, H. (2016). Internationalisation and the role of online intercultural exchange.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20(2), 123–139.
- Gudykunst, W. B. (2003). *Cross-cultural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age.
- Hall, E. T. (1976). *Beyond culture*. Anchor.
- Helm, F. (2015). The practices and challenges of telecollaboration. *Language Learning &*

- Technology*, 19(2), 197–217.
- Lewis, T., & O'Dowd, R. (2016). *Online intercultural exchange*. Routledge.
- Long, M. H. (1996). The role of the linguistic environment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 W. Ritchie & T. Bhatia (Eds.), *Handbook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pp. 413–468). Academic Press.
- O'Dowd, R. (2018). From telecollaboration to virtual exchange: State-of-the-art and the role of UNICollaboration. *Journal of Virtual Exchange*, 1, 1–23.
- Ohe, H.-G. (2024). 異文化間オンライン言語文化交流学習（VE）とは何か？—用語と理論的背景, 課題を中心に—[What is virtual exchange (VE)? Terminology, theoretical background, and future issues]. *教育研究* [Educational Studies], 66, 109–120.
- Vygotsky, L. S. (1978). *Mind in society: 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rocesses*. Harvard University Press.
- Ware, P. (2013). Intercultural learning in online environments. *Language Learning & Technology*, 17(2), 1–15.

Acknowledgement: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Grant-in-Aid for Scientific Research (KAKENHI), Grant Number 25K04373, for the project “高校の韓国語教室における国際間交流協同授業（VE）の教授的戦略とガイドラインの構築 [Pedagogical Strategies and Guideline Development for Virtual Exchanges (VE) in High School Korean Language Education].”

한일 고등학교 간 온라인 국제 교류수업(VE) 사례 비교 연구

－ 호평고의 2023년과 2024년 교류를 중심으로－

오혜경(國際基督教大學) · 김민영(호평고)

키워드: 온라인 국제간 공동 수업(Virtual Exchange), 한국과 일본, 고등학교, 비교 연구

1. 서론

오늘날 외국어 교육은 단순한 언어 지식의 습득을 넘어 다문화 공존 능력과 글로벌 시민성 함양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국제 사회가 점차 상호 의존적으로 변화하면서, 외국어 학습은 단순히 언어 구사 능력 향상을 넘어, 학습자가 이 문화적 맥락에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온라인 국제 교류 수업(Virtual Exchange, 이하VE)이다. VE는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외 학습자와 연결하고, 언어 문화적 상호 작용을 경험하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 교육 활동으로 자리잡고 있다(De Wit, 2016; 吳, 2024; Lewis & O'Dowd, 2016).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은 물리적 이동을 수반하는 해외 연수, 교환 학생 프로그램 등을 크게 위축시켰다. 그 결과, 오프라인 교류를 대체하는 활동의 일환으로 온라인 기반 교류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VE는 전통적인 국제 교류 활동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방식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VE의 특징은 단순히 온라인에서 외국 학습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넘어서, 구조화된 학습 목표와 과제를 바탕으로 상호 작용을 디자인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언어 능력뿐 아니라 협력에 기반한 문제 해결 능력, 디지털 리터러시, 글로벌 시민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효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학문적, 실천적 의의가 크다.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VE 사례 발표는 주로 영어를 매개 언어로 한 것들이 연구자들의 대부분이 대학에 재직하고 있다는 특성상 대학들 간의 교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에 비해 중등 교육 단계에서, 특히 한국어나 일본어와 같은 비영어권 언어를 활용한 VE의 사례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한국교육부에서는 ‘온라인 국제 공동 수업’이라는 명칭하에 VE를 실시하는 중, 고등학교에 대해 대규모 지원 사업을 벌이기 시작했지만 비영어권 화자들이 상대방의 언어를 사용하여 실시되는 언어 및 문화 교류 수업에 대한 실천 보고 또는 사례 보고가 많지 않아 현장에서 VE 실시를 고민하거나 실천 중인 교사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들을 공유하는 것은 언어적, 문화적 상호성을 강화하고 학습자들에게 실질적인 외국어 사용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한국 호평 고등학교와 일본 츠루기 고등학교 간 VE 사례(2023년, 2024년)를 비교 분석한다. 2023년도 교류는 상호 언어 교환적 학습을 시도하여 한국 학생은 일본어를, 일본 학생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2024년도 교류는 일본어를 공용어로 설정하여 집중적인 언어 사용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 두 차례의 교류는 비록 파실리에이터의 의도는 아니었으나 수업 디자인과 관련된 차이가 뚜렷하며, 이에 따른 교육 효과와 학생 반응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2023년에는 경기도교육청의 지원 예산이 있어 택배를 통한 교류 물품 교환, 기모노 체험 등 부가적 활동이 가능했지만, 2024년에는 예산이 갑작스럽게 중단되면서 이러한 활동을 진행할 수 없었다. 이는 단순히 재정적 문제를 넘어 VE의 질적 경험을 크게 좌우하는 요소임

이 드러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두 해의 교류 경험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VE 디자인을 위한 조건을 탐색하고, 이를 토대로 중등 교육 현장에서 VE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있다.

2. 연구 맥락과 방법

2.1 연구 배경

호평 고등학교는 경기도에 위치한 일반계 고등학교로 일본어를 제2 외국어로 선택하는 학생 비율이 높다. 반면 일본 이시카와현에 위치한 츠루기 고등학교는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을 중심으로 K-POP이나 한국어와 관련된 방과후 활동이 진행되기도 하나 한국어가 정규 과목으로 채택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하지만 국제 교류에 관심이 높은 교사 덕분에 한일 교류 활동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양 교는 2023년부터 정기적으로 온라인 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Zoom을 활용하여 연간 3~5회의 교류 세션을 운영하고 있다.

2.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다음의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 1) 교사 및 관찰자의 관찰 기록: 교류 진행 중 또는 교류 종료 후 교사 및 관찰자(연구자)가 실시간 또는 녹화된 비디오를 보면서 작성한 관찰 메모
- 2) 교사의 반성적 저널: 교류 종료 후 교사가 작성한 성찰 노트
- 3) 사후 설문 조사: 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및 자기 평가 설문

분석은 네 가지 초점 영역에 맞추어 이루어졌다.

- 1) 운영 방식
- 2) 학생들의 언어 사용 및 학습 효과
- 3) 학생들의 반응
- 4) 운영 여건 및 제도적 지원

3. 2023년도 교류 사례

3.1 운영방식

2023년도 교류는 상호 언어 문화 학습형으로 고안되었다. 호평고 학생들은 일본어, 츠루기 고등학교 학생들은 한국어를 사용하여 자기 소개 및 주제 발표를 하였다. 교류 주제는 학교 생활, 취미, 지역 문화 소개 등 비교적 일상적이고 친근한 주제들이 중심이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의 VE 지원 예산을 활용하여 상호 택배 교환, 기모노 체험 활동 등이 가능했다. 학생들은 서로의 지역 특산품이나 기념품을 소포로 주고받으며 교류의 현실감을 높였고, 일본 학생들이 준비한 기모노 체험 자료를 통해 한국 학생들이 일본 전통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 이러한 활동은 교류에 대한 몰입도와 친밀감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3.2 학생들의 언어 사용 및 학습 효과

이 교류의 가장 큰 특징은 언어 문화적 상호성이었다. 학생들은 자신의 목표 언어를 사용하면서 상대방의 언어와 문화를 직접 배우고 가르칠 수 있었다. 이는 단순한 외국어 수업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상호 교환적 학습 경험이었다. 그러나 초급 학습자가 다수를 차지하여 언어적 부담이 컸다. 한국 학생들은 일본어 발화를 시도했지만 어휘 부족으로 긴 대화를 이어가기 어려웠고, 일본 학생들은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발표를 암기 위주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과적으로 실시간 상호 작용은 단편적이고 제한적이었으며, 번역기를 활용하거나 교사의 통역에 의존하여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3.3 학생들의 반응

사후 설문 조사에서 한국 학생들은 “실제 원어민과 대화하는 것이 신기했다”, “새로운 경험이었다”라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동시에 “어려워서 말이 잘 안 나왔다”, “부담스러웠다”는 응답도 많았다. 즉, 2023년도 교류는 신선함과 호기심이라는 긍정적 요소와 함께, 언어적 난이도와 부담이라는 부정적 요소가 공존하는 형태였다.

4. 2024년도 교류 사례

4.1 운영 방식

2024년도 교류는 츠루기 고등학교의 한국어 학습자의 부재로 인해 일본어 단일 언어를 사용해서 교류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한국과 일본 학생들 모두 일본어를 사용하여 발표와 토론을 수행하였고, 일부 활동은 정규 일본어 수업과 연계되었다. 그러나 2023년에 있었던 택배 교환, 기모노 체험과 같은 활동은 진행되지 못했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의 VE 예산이 갑작스럽게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예산 부족은 단순히 부가적 활동의 부재를 넘어, 교류의 질적 풍부함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4.2 학생들의 언어 사용 및 학습 효과

2024년도 VE에서는 사용 언어가 일본어로 설정되면서, 한국 학생들의 일본어 발화 시도는 뚜렷하게 증가하였다. 학생들은 초급 수준의 어휘와 문법을 활용하여 가능한 한 일본어로 질문하고 응답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러한 시도는 상호 이해 증진과 의사소통 자신감 향상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 한편, 일본 측 학생들도 교류 활동에 높은 관심을 보였고, 토론과 과제 수행 과정에서 비교적 적극적인 발화를 보였다. 그러나 한국 측 학생들이 모두 일본어 초급 학습자였기 때문에, 일본어로만 진행되는 교류 상황은 한국 측 학생들에게 언어적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발화 이해에 어려움을 겪거나 반응이 지연되는 경우도 관찰되었으며, 이는 상호 작용의 흐름을 유지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일본 측 학생들에게 한국어는 학습 목표 언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교류 동기를 유지하기 어려웠다. 결과적으로 이번 VE는 양측 모두 초기에 활발한 참여를 보였으나, 언어 수준과 학습 목표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상호 언어 사용의 지속성과 균형 있는 교류를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4.3 학생들의 반응

한국 학생들은 “일본어가 실제로 통한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다음에는 직접 만나고 싶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즉, 2023년의 호기심 위주의 반응이 2024년에는 자신감과 학습 동기 강화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일본 학생들에게는 한국어 사용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아, 학습 동기와 몰입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5. 연도별VE 비교및시사점

	2023년도(상호 언어 문화 학습형)	2024년도(일본어 단일 언어형)
참여 학생	호평고 2학년 학생 20명/츠루기고 3학년 학생 12명	호평고 2학년 학생 18명/츠루기고 3학년 학생 7명
교사의 의도 및 목표	의사소통 중심의 상호 문화 이해, 실질적 교류 경험 제공	지속 가능한 사회 의식 함양, 협력적 의사소통 촉진
언어 사용	호평고: 일본어/ 츠루기고: 한국어 → 상호언어교환구조	양교학생모두일본어사용→ 단일언어기반교류
교육적 효과	언어·문화 상호성 강화, 학습자 간 상호 이해 증진/ 초급 학습자에게 언어 부담이 큼.	한국 측 학생의 일본어 발화 기회 증가 및 학습 자신감 향상/주제 난이도 과다로 의사소통 실질성 약화.
주제 및 활동	자기 소개, 학교 소개, 음식, 대중문화, 전통 의상 체험 등 친숙한 주제 중심/ 택배 교환, 기모노 체험 등 문화 체험 병행	“지구를 지키기 위한 실천 행동”, “국제 아동 권리” 등 사회적 이슈 도입/ 친숙한 주제와 SDGs 교육 병행
학생 반응	“실제 원어민과의 대화가 신기했다” 등 긍정적 반응/“어려워서 말이 잘 안나왔다”는 부담감이 병존	한국 측 학생들은 “일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했다”는 자신감 강화.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는 학생의 흥미와 자신감, 참여도가 감소/일본 측 학생들의 열의는 점차 감소
운영 방식	방과 후 중심의 자율형 교류, 교사 주도 운영. 경기도교육청 예산 지원으로 택배 교환, 기모노 체험 등 부가 활동 가능	일부 정규 수업과 연계하여 운영. 예산 지원 중단으로 부가 활동 불가, Zoom 유료 계정 일부 도입
제도·기술 지원	경기도교육청 VE 예산 지원(택배·체험비 포함)	예산 중단으로 교사의 부담 증가, 기술적 안정성 향상이나 운영 범위 축소.
교사의 성찰	언어 수준 차를 고려한 주제 선정의 필요성 인식/ 친숙 주제의 긍정적 효과 확인	학생의 언어 수준과 주제 난이도 간 불균형이 교류 몰입도에 영향을 준다는 점 자각

7. 교사의 성찰 및 제언

- 1) VE의 언어 운영 방식은 학습자의 수준과 교류의 목적에 따라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2023년의 상호 언어 교환형은 문화적 공감과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이었으나, 초급 학습자에게는 언어적 부담이 컸다. 반면 2024년의 단일 언어형(일본어 중심)은 발화 안정성과 목표 언어 사용량을 증가시켰지만, 상대 언어 사용 기회가 사라지면서 교류의 상호성이 약화되고, 일본 학생 측의 학습 열의도 점차 감소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즉, 언어 사용 구조는 발화의 양뿐 아니라 교류의 질과 상호 몰입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 2) VE의 교육 효과는 주제 선정과 학습자 언어 수준의 조화에 달려 있다. 2023년에는 학생의 생활과 밀접한 친숙한 주제가 대화 지속성과 흥미를 높였던 반면, 2024년에는 ‘지구를 지키기 위한 실천 행동’과 같은 추상적이고 난이도 높은 주제가 언어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생들의 집중력과 자신감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교사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학습자의 언어 수준에 맞는 주제 선정의 중요성을 성찰하게 되었으며, 향후 프로젝트 기반

협력 수업 디자인에 반영시킬 계획이다.

- 3) 예산과 제도적 기반은 VE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다. 2023년에는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지원 덕분에 택배 교환, 기모노 체험 등 문화적·감각적 활동이 가능했으나, 2024년 예산이 중단되면서 교류의 풍부함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VE의 질적 경험이 제도적 지원 여부에 따라 현저히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정책적 차원에서 VE 예산과 교사 연수, 기술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장기적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 4) VE 수업의 언어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그룹 교류와 병행한 1:1 e-탠덤 구조의 도입이 필요하다. 사후 설문 조사 결과, 학생들은 교류 경험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으나 언어 능력 향상에 대한 체감은 낮았다. 이는 단체 중심의 소통 구조가 개별 언어 사용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1:1 e-탠덤을 병행하면 학습자가 보다 주도적으로 언어를 사용하고, 자기 효능감 및 지속적 학습 동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Kötter, 2003).
- 5) VE는 교사 간의 실천 공유를 통해 질적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비영어권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중등 단계 VE의 연구 및 사례 보고는 여전히 부족하다. 본 연구는 실제 교사의 실행 경험을 바탕으로 VE 디자인과 운영에 있어 구체적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VE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의의가 있다. 교사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실천의 공유는 VE의 지속 가능성과 교육적 완성도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
- 6) VE의 본질은 단순한 온라인 교류를 넘어, ‘협력적 의사소통’과 ‘공동체적 연대’를 통한 글로벌 시민성의 확장에 있다. 향후 VE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온라인을 통해 공동의 실천 행동을 계획하고 실행함으로써, 언어를 매개로 한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과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강화하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학습자의 언어 능력별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Belz, J. A., & Müller-Hartmann, A. (2003). Teachers as intercultural learners. *Language Learning & Technology*, 7(2), 68-99.
- De Wit, H. (2016). Internationalisation and the role of online intercultural exchange.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20(2), 123-139.
- Helm, F. (2015). The practices and challenges of telecollaboration. *Language Learning & Technology*, 19(2), 197-217.
- Kötter, M. (2003). Negotiation of meaning and codeswitching in online tandems. *Language Learning & Technology*, 7(2), 145-172.
- Lewis, T., & O'Dowd, R. (2016). *Online intercultural exchange: Policy, pedagogy, practice*. Routledge.
- O'Dowd, R. (2018). From telecollaboration to virtual exchange: State-of-the-art and the role of UNICollaboration in moving forward. *Journal of Virtual Exchange*, 1, 1-23.
- 吳惠卿(2024). 異文化間オンライン言語文化交流学習(VE)とは何か? *教育研究*, 66, 109-120.
- Rubin, J. (2016). The learning benefits of international virtual exchange. *Internationalisation of Higher Education*, 2(1), 37-41.

Ware, P. (2013). Intercultural learning in online environments. *Language Learning & Technology*, 17(2), 1-15.

본 연구는 일본학술진흥회 과학연구비(과제번호: 25K04373)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기획된 장소로서의 지브리파크: 다섯 구역의 공간 전략과 장소성의 특수성

김다현(나고야대)

1. 들어가며

최근 일본 애니메이션은 더 이상 스크린 속에서만 소비되는 서사가 아니다. 작품의 세계는 평면적인 영상 표현을 넘어 삼차원의 현실 공간 속에서 ‘장소’로 재현되며, 팬들은 이를 직접 체험하고 경험함으로써 서사의 감각을 확장한다. 이러한 흐름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2022년에 아이치현 나가쿠테시에 개장한 ‘지브리파크’이다.

지브리파크는 스튜디오 지브리의 세계를 단순히 물리적으로 재현하는 공간을 넘어, 공공성·정책·환경·문화산업 전략 등 다양한 요소가 교차하며 형성된 복합적인 문화적 장(場)으로 기능한다. 특히 이 시설은 2005년 아이치 만국박람회의 부지를 정비하여 조성된 ‘사랑·지구박 기념공원(모리코로파크)’¹⁾이라는 기존의 공공공간 안에 설립되었다는 점에서, 민간 자본이 주도하여 구축된 다른 테마파크와 명확히 구별된다.

지브리파크는 지브리 작품의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자연환경, 작가성, 장소성 등이 다층적으로 얹혀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정책적 기획과 문화산업적 전략과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장소적 경험을 창출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조건 속에서 지브리파크 내부에 조성된 다섯 개 구역이²⁾ ‘작품’, ‘작가’, ‘장소’라는 요소를 어떤 방식으로 결합하여 공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설계 과정에서 누가 어떠한 주체로서 공간 구축을 담당했는지, 그리고 작가의 의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지브리파크는 단순히 애니메이션의 배경을 실물화한 공간이 아니다. 오히려 스크린 위의 평면적 서사를 삼차원의 현실 공간으로 전환하고, 관객이 직접 ‘경험 가능한 장(場)’ 속에서 작품 세계와 상호작용하도록 설계된 복합적 공간이다. 여기서 말하는 ‘공간 재현’은 단순히 시각적 모티프를 물리적으로 복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관객의 신체적 동선, 시각적 연출, 이야기 구조 등 다양한 요소가 서로 맞물리며 형성되는 ‘장소성’의 문제이며, 이로써 애니메이션의 세계는 보다 총체적이고 체험적인 층위에서 현실 공간으로 구현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일본 애니메이션이 ‘지명이 없는 익명적 공간’에서 ‘기호화된 도시 공간’으로 변모해 온 문화적 맥락 속에서, 지브리파크의 공간 표현은 독자적인 특수성을 획득한다. 지브리 작품의 세계는 역사·환경·지역성과 긴밀히 결합하며 현실 공간 속에서 재구성되고, 이는 애니메이션 서사의 물리적 확장과 장소화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결국 지브리파크는 외형적으로는 공공성과 역사성을 지닌 문화시설로서 존재하지만, 그 내부에는 미야자키 하야오(宮崎駿)와 미야자키 고로(宮崎吾朗)의 작가주의적 세계관이 깊숙이 반영된 장소가 구축되어 있다. 본고는 이러한 맥락에서 각 구역의 기획 의도와 공간 전략을 중심으로, 작품성·작가성·장소성이 어떠한 구조적 원리에 따라 결합하여 삼차원 공간으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브리파크가 단순한 캐릭터 재현을 넘어 다층

1) 愛・地球博記念公園 (モリコロパーク)

2) 청춘의 언덕(青春の丘), 지브리대창고(ジブリの大倉庫), 돈도코숲(どんどこ森), 모노노케 마을(もののけの里), 마녀의 계곡(魔女の谷) <https://www.nagoya-info.jp/ko/spot/detail/249/> (검색일: 2025.09.25)

적인 역사적·문화적·공간적 문맥을 내포하는 문화적 실천의 장으로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2. 지브리파크의 공간적 특성: 작품, 작가, 장소의 조건

지브리파크의 공간 구성은 단순히 다섯 구역을 작품별로 재현하는 차원을 넘어, 작품과 공간 배치에 내재한 구조적 논리에 기초한다. 본고는 지브리파크가 어떤 원칙에 따라 다섯 구역으로 분할·배치되었는지 고찰하고, 각 구역이 해당 작품의 서사와 세계관과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되는지 분석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각 구역의 공간적 특성이 개별 작품의 단순한 모사가 아니라 작가적 의도와 장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공간과 장소 개념을 고찰해 보면, 이푸 투안(Yi-Fu Tuan)은 ‘장소’란 본래 의미를 지니지 않는 추상적 공간이 인간의 경험을 통해 의미를 부여받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장소의 형성 주체는 인간의 감각적 경험과 인식에 있으며, 시간의 축적이나 감정의 투영을 통해 공간은 ‘장소’로 전환된다.³⁾ 이러한 관점은 장소를 ‘의미화된 공간’으로 이해하는 데 유효한 틀을 제공하지만, 그 의미 형성 과정이 개인의 내면적 경험에 과도하게 의존한다는 점에서 한계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장소를 보다 다층적인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브리파크의 공간 구성은 작품을 알고 있는 방문객의 기억이나 감정과 같은 주관적 경험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이는 지자체에 의한 정책(아이치현), 기업의 콘텐츠 전략(스튜디오 지브리), 나아가 사회적 연설(주니치 신문)이라고 하는 다양한 외적 요인 및 제도적인 기획에 의해서도 형성⁴⁾되고 있다. 다시 말해, 이 공간은 단순히 ‘경험을 통해 의미가 부여된 장소’가 아니라, 애초부터 특정한 의미를 부여 받은 상태로 설계되고 소비되는 것을 전제로 한 공간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브리파크는 공간이 경험을 통해 장소로 전환된다는 투안의 도식과는 상이한 조건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지브리파크가 위치한 장소는 2005년 아이치 만국박람회 이전부터 이미 ‘공원’이라는 물리적 공간으로 존재했으며, 박람회 당시에는 ‘자연의 지혜’를 주제로 한 공공 공간으로 기획되었다. 그 후 박람회 종료 이후에도 지브리 관련 행사⁵⁾들이 지속적으로 개최되면서, 이 공간은 점차 문화적 장소로서의 의미와 정체성을 축적해 왔다. 특히 지브리파크로의 전환 과정에서 박람회의 주제가 계승되는 동시에, 지브리의 브랜드와 작가적 세계관이 기획적으로 이식되면서 공간의 의미는 다시 재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지브리파크는 시간적 경험의 축적뿐만 아니라 특정 콘텐츠와 제도적 기획에 의해 사전에 구조화되고 의미가 부여된 공간이라는 점에서, 장소 형성을 인간의 감각적 경험에 중점을 두는 기존 장소론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을 지닌다. 따라서 지브리파크는 장소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 ‘기획된 장소’라는 보완적 개념의 도입을 필요로 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브리파크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 2005년 만국박람회의 유산과

3) Yi-Fu Tuan(2001)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Univ of Minnesota Press, 이푸 투안, 윤영호, 김미선(번역) 『공간과 장소: 공간에 우리의 경험과 삶, 애착이 녹아들 때 그곳은 장소가 된다』, 사이, 2020, p.19 참조.

4) 愛知県 『ジブリパーク整備の概要・基本合意書の締結について』、2019年5月。

5) 2015년에 사랑·지구박 기념공원(아이치현 나가쿠테시)에서 개최되어 큰 반향을 일으킨<지브리의 대박람회>는 지브리파크 개원1년전인2021년7월, 나고야시의 아이치현 미술관에서 다시 개최되어, 지브리파크에 수장되기 전의 ‘마지막 피로연’으로서 홍보되었다.
<https://www.ghibli.jp/event/expo/> (검색일: 2025.09.25)

스튜디오 지브리 콘텐츠가 기획적으로 결합하는 과정 속에서 의미가 구성된 공간, 즉 ‘기획된 장소’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점과 관련하여 요시미 준야(吉見俊哉)의 도시공간론은 중요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그는 아사쿠사(浅草)와 긴자(銀座)를 대조적으로 분석하면서, 아사쿠사는 공동체적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장소’가 형성되는 공간인 반면, 긴자는 외부로부터 주어진 기호를 통해 의미가 부여되는 ‘공간’으로 기능한다고 지적한다.⁶⁾ 또한 그는 박람회와 같은 근대 도시의 이벤트 공간이 시선과 동선을 조직하는 구조를 통해 근대 국가의 이데올로기를 상징적으로 구현하고, 도시 공간을 기호화하는 장치로 작동한다고 분석한다.⁷⁾

이러한 논의는 아이치 만국박람회의 공간 구성에도 적용된다. 2005년 당시 박람회장은 ‘환경’을 주제로 설계되었으며, 공간을 매개로 특정한 가치관과 정서를 전달하는 상징적 전시 공간으로 기능하였다. 이후 지브리파크로의 전환은 이러한 기호적 문맥을 부분적으로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지브리파크는 ‘사랑·지구박 기념공원’, 즉 아이치 만국박람회의 유산으로 남은 공원 부지 중에서, 아이치현과의 협의를 통해 개발이 허가된 구역을 선정하여 조성⁸⁾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지브리파크는 전체 공간을 다섯 개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테마파크로서의 설계를 진행하였다. 각 구역은 해당 작품의 세계관과 분위기를 상징적 건축물, 캐릭터와 장면의 재현, 서사적 오브제 등의 ‘기호’를 통해 가시화함으로써 방문객이 작품의 정서와 서사를 연상하도록 유도한다. 즉, 건물의 형태나 재료, 동선의 구조, 배치 방식이 단순한 재현을 넘어 작품이 지닌 의미를 공간적으로 해석 및 전달하는 상징적 장치로 기능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기호적 요소들은 기존 공원의 구조와 동선을 고려한 배치 속에서 전시 공간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다.

그러나 요시미의 이론은 외부에서 주입된 기호나 이데올로기가 도시공간을 구조화한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지브리파크처럼 박람회의 유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개입, 그리고 디자인 설계에 관한 감독의 의도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공간의 형성과정 전체를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지브리파크는 외부 기호가 일방적으로 덮여온 결과라기보다, 여러 사회적·문화적 요인이 작용하는 가운데 지브리 작품의 세계관이 공간 설계에 반영되는 형태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지브리파크의 공간은 작품을 둘러싼 작가성이나 장소의 사회적 맥락이 중층적으로 얹힌 결과로 이해되는 것이며, 그것은 도시공간이 어떻게 기획되고 해석되는지에 대해 다층적인 고찰을 촉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브리 작품을 살펴보면, 구미(欧米)나 일본의 특정 지역에 실재하는 건물이나 장소를 그대로 로컬 이미지로 차용하기보다는, 어디인지 특정할 수 없지만 ‘익숙하게 느껴지는 공간과 풍경’을 주로 그려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설정은 관객으로 하여금 현실의 특정 장소를 방문했을 때 ‘왠지 지브리다운 느낌’이라는 감각적 인상⁹⁾을 불러일으키고, 이를 통해 작품 세계와 현실 공

6) 吉見俊哉(2008)『都市のドラマツルギー』河出書房新社, pp.215-216, pp.235-239 참조.

7) 吉見俊哉(1992)『博覧会の政治学：まなざしの近代』中央公論新社.

8) 아리마 신사쿠(2024)의 자료에 의하면, 지브리파크는 5개의 구역이 합계 7.1ha 정도로, 제2기 정비 구역에 포함되어 있던 <모노노케 마을>과 <마녀의 계곡>이 각각 0.8ha, 2.9ha를 차지한다고 한다. 특히, 제1기 정비 지역이었던 <지브리 대창고>는 옛 운수 품이었던 건물 공간을 활용해 컨버전(용도를 변경하는 대규모 개수)에 의한 정비를 실시했다. 또한 <청춘의 언덕> 및 <돈도코 숲>은 기존의 수목 경관에 녹아들 수 있도록 수목지 내에서 명소적으로 시설을 정비하였다. 한편 제2기 정비구역 <모노노케 마을> 및 <마녀의 계곡>은 해당 공원에서 아이치 만국박람회가 개최되었을 때 외국 파빌리온 존으로 이용된 공간을 활용해 새롭게 정비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有馬晋作(2024)「成長する県営都市公園 愛・地球博記念公園〜ジブリパーク第2期整備エリアの開園〜」pp.30-3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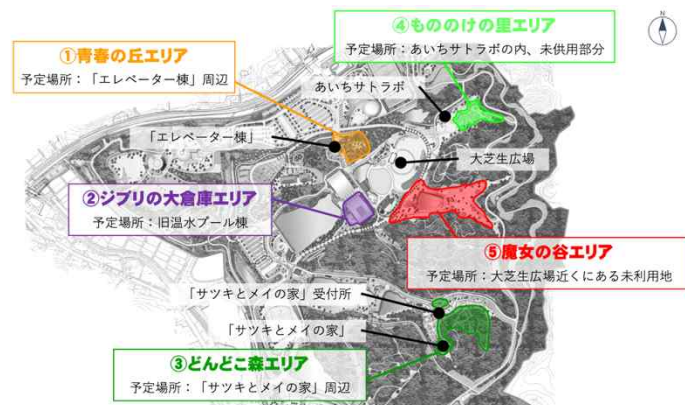
9) 宮崎吾郎「ジブリパークができることで、公園が生き生きとすればいいと思う。」『熱風：スタジオ

간을 연결 짓는 해석과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2.1 3차원 공간에서의 작품과의 관계

우선 지브리파크가 공원 내 어느 구역에 설계되었는지 살펴보면, 자연환경 보전과 아이치현과의 협의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입지 상의 일정한 제약이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파크의 시설은 2005년 아이치 만국박람회 이후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정된 부지를 중심으로 배치되었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각 구역에서 지브리 작품의 세계관이 어떠한 방식으로 재현되고 있는지, 또한 각 구역과 해당 작품 사이에 어떠한 관계성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림1] 지브리파크 정비구상¹⁰⁾

[그림1]은 지브리파크 구성에 관한 아이치현의 공식 자료에 포함된 정비 구상 이미지이다. 이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브리파크의 구성은 ‘사랑·지구박 기념공원’ 전체를 테마파크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설과 미활용 부지를 단계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먼저, <청춘의 언덕(青春の丘)> 구역은 공원 입구 부근의 ‘엘리베이터 타워’ 주변 부지에 설계되었으며, 방문객이 파크에 입장하는 순간부터 지브리파크 전체를 상징적으로 소개하는 도입 공간의 역할을 한다.

<지브리 대창고(ジブリの大倉庫)> 구역은 만국박람회 종료 후 공원 내에 남아 있던 옛 온수 풀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조성된 것으로, 주요 실내 전시 공간으로 설계되었다.

<돈도코의 숲(どんどこ森)> 구역은 2005년 박람회 당시 건설된 ‘사츠키와 메이의 집’이 원래 존재하던 장소를 중심으로 조성되었으며, 기존 지역 자산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공간화가 이루어졌다. 이어지는 2기 조성 사업인 <모노노케 마을(もののけの里)> 구역은 아이치현이 관리하는 ‘아이치 사토라보(あいちサトラボ)’ 자연 체험 시설 내 미활용 농지 부지를 활용하여 설계되었다.

마지막으로 <마녀의 계곡(魔女の谷)> 구역은 공원 동쪽의 ‘대잔디 광장’ 인근 미활용 부지를 개발하여 조성된 곳으로, 비교적 자유도가 높은 공간 설계가 가능한 장소로 선정되었다.

『ジブリの好奇心』 20(7), 2022년 7월, p.10 참조.

10) 愛知県『ジブリパーク整備の概要について』 2018년 12월, p.1 참조.

또한 각 구역의 명칭은 이러한 지리적·환경적 조건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즉, 지브리 작품의 세계관을 단순히 일대일로 공간적으로 복제한 것이 아니라, 각 조성 부지의 특성과 조건을 반영하여 선택적으로 작품의 요소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공간이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돈도코의 숲>과 <모노노케 마을>은 모두 자연환경에 둘러싸인 구역으로, 숲과 인간의 관계를 주제로 한 작품과 높은 친화성을 가진다. ‘돈도코의 숲’은 『이웃집 토토로』(1988)에 등장하는 ‘사츠키와 메이의 집’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박람회 당시 건축된 이 건물을 토대로 주변의 숲이 토토로가 등장할 것 같은 자연 풍경으로 조성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편, <모노노케 마을>은 『원령공주』(1997)의 무대를 모티프로 한 야외형 공간으로, 기존의 자연체험시설 ‘아이치 사토라보’와 연계된 위치에 설계되었다. 이 구역은 공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토야마 만들기(里山づくり)’ 활동과도 연동되어 있으며, 인간과 자연의 공생이라는 『원령공주』의 주제를 일본 전통 농촌 풍경의 재현을 통해 공간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각 구역의 공간 설계는 개발 가능한 부지나 기존 시설과의 관계를 전제로 구상되었으며, 작품과 공간 간의 결합에는 일정한 제약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제약에는, 다른 대형 테마파크처럼 자유롭게 대규모 어트랙션을 설치하기 어려운 자연환경적 조건뿐만 아니라, 공원이라는 공공공간의 성격과 지브리 작품이 가진 주제적 특성 사이의 조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포함된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각 구역은 필연적으로 ‘자연과의 공생’이나 ‘지역과의 연계’와 같은 주제를 중시하는 공간으로 구축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작품 세계를 공간적으로 재현하려는 시도에 있어서는 연출의 자유도나 표현의 다이내믹함이 제약 받는 측면 또한 존재한다. 다시 말해, 지브리파크는 기존 테마파크와는 다른 노선을 택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그 선택은 제도적·환경적 조건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그러한 조건이 공간 표현 방식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2.2 ‘지브리다움’을 형성하는 작가와의 관계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브리파크의 전체 구상에는 공간적·제도적 제약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아이치현과의 조정을 거쳐 디자인을 총괄한 미야자키 고로 감독의 의도, 그리고 지브리 작품 세계를 현실 공간에서 구현하려는 기획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지브리다움(ジブリらしさ)’을 구현하는 테마파크가 무엇을 지향하며, 어떤 방식으로 공간적 구성을 실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브리다움의 공간적 표현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작품 전반에서 일관되게 다루어 온 자연·생명·공생이라는 주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주제가 설계 의도에 따라 의식적으로 공간화된 것인지, 아니면 현실적 조건 속에서 결과적으로 형성된 것인지를 구분하는 일이다. 이 구분을 통해 지브리다움이 단순한 미학적 특성을 넘어 공간적·제도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는 개념임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브리 작품에 일관되게 흐르는 ‘지브리다움’은 단순한 영상 표현이나 판타지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미야자키 하야오가 일관되게 탐구해 온 자연과 인간, 권력과 사회, 성장과 갈등과 같은 주제의 총체이며, 특히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그의 시선은 종종 유토피아적 이상과 현실적 타협 사이를 오가며 조화와 갈등을 동시에 그려내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세계관은 일본의 전통적 전승, 전후 역사적 맥락, 글로벌화 속 문화 정체성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곧 ‘작가성’의 집약체라 할 수 있다.

이에 미야자키 고로는 “지브리다움이란 고정된 정체성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가 뒤섞인 콜라주”라고 말한다.¹¹⁾ 이 발언은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고정된 이미지로서의 지브리다움을 부정하며, 그것이 다층성과 복합성을 지닌 개념임을 시사한다. 겉으로는 지브리 작품이 다양한 해석과 열린 상상력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나치게 첨단적이거나 미래지향적인 세계관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경향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파크의 공간 구성에서도 나타나며, 작가의 시선이 외부의 여러 조건과 맞물리면서 조정되고 타협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된다.

따라서 지브리다움은 미리 정해진 본질이 아니라, 제작 현실, 상업적 요구, 지역 협력, 환경 보전 등의 조건 속에서 의도적으로 구축되고 전략적으로 관리되는 브랜드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지브리파크의 공간 연출은 이러한 복합적 조건 속에서 방문객 경험과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고려하며 지브리다움을 한정된 형태로 구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작가주의적 시선의 영향은 공간 연출 방식에서도 확인된다. 지브리의 세계관을 논할 때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요소는 미야자키 하야오 특유의 공간 재현 전략이다. 수잔 네이퍼어(Susan Napier)는 ‘사츠키와 메이의 집’을 방문한 소감을 통해 이를 ‘미야자키 월드(Miyazaki World)’라 표현하며, 각각의 작품이 고유한 매력을 지니면서도 모두 한 명의 작가의 상상력에서 비롯된 몰입감 높은 세계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츠키와 메이의 집’은 단순한 전시물이 아니라, 미야자키의 상상력과 창작 의지가 공간적 형태로 구현된 사례라 할 수 있다. 높은 재현 정밀도를 가능하게 한 것은 감독이 작품 전체에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했기 때문¹²⁾이며, 이를 통해 애니메이션 세계가 현실 공간으로 확장될 수 있었다.

또한 많은 지브리 작품에서 주인공이 도시를 떠나 자연 속으로 이동하며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는 서사는 『이웃집 토토로』 『마루 밑 아리예티』(2010) 『추억의 마니』(2014) 등에서 반복된다. 이러한 서사는 자연 환경이 지닌 치유와 회복의 힘,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공생 가치를 강조하며, 지브리다움의 핵심을 이루는 주제라 할 수 있다.

종합하면, 지브리다움은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가성, 스튜디오 지브리의 세계관, 아이치현과의 협력, 환경과의 공존이라는 조건이 교차하는 가운데 형성되는 중층적이고 유동적인 개념이다. 지브리파크는 이러한 지브리다움이 현실 공간에서 어떻게 재구성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이며, 그 공간적 표현에는 이념과 타협, 상상력과 제도, 작가성과 관광 자원 사이의 긴장 관계가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2.3 장소적 조건: 박람회 유산, 환경, 지역사회와의 관계

지브리파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놓여 있는 장소적 조건, 즉 만국박람회의 유산, 자연 환경과의 관계, 지역사회와의 협력이라는 세 가지 층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지브리파크 설립의 중요한 계기는 2005년 아이치 만국박람회에서 전시 파빌리온으로 조성된 ‘사츠키와 메이의 집’이었다. 이는 작품 속 배경을 현실 공간에 구현한 사례로, 이후 기념공원 내에 영구적으로 보존되면서 일시적 전시에서 지속적 공간으로의 전환을 이끌었다.

11) “‘지브리란 이런 것이다’라는 강한 무언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초기에는 『나우시카』나 『라푼타』 같은 SF적 이미지가 있었지만 『토토로』는 전혀 다르다. 『붉은 돼지』와 『폼포코』 사이에도 공통점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결국 지브리는 여러 요소가 뒤섞인 콜라주 같은 것이다.” — 宮崎吾郎 「ジブリパークができることで、公園が生き生きとすればいいと思う。」 『熱風：スタジオジブリの好奇心』 20(7), 2022年7月, pp.14-15 참조.

12) Susan Napier(2019) Miyazakiworld: A Life in Art, Yale University Press / 수잔 네이퍼어, 하인헤 움김(2021) 『미야자키 하야오의 어둠과 빛: 미야자키 월드』, Being, 2021, p.10 참조.

이러한 전시 경험의 축적은 지브리파크라는 삼차원 공간 형성의 기초가 되었다. 또한, 공간 설계 과정에서는 ‘새로운 공간을 창조한다’는 접근보다 기존 공원과 자연환경을 ‘살려내는 방식’이 중시되었다.

미야자키 고로 감독이 밝히듯, 당초에는 대대적인 재개발 구상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자연과의 공존을 전제로 한 설계로 방향이 조정되었다. 이는 지브리가 꾸준히 강조해온 ‘자연과의 공생’이라는 가치관과도 연결된다.¹³⁾

더불어, 지브리파크의 조성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없이는 불가능했다. 개장 이전부터 행정기관, 교통기관, 주변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되어 지역 활성화, 교통 접근성 개선, 공공성 확보 등이 논의되었고, 이는 시설 운영 전반에도 반영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브리파크는 민간 자본이 주도하는 일반적인 테마파크와 달리, 공공공간의 일부이자 지역 협력의 산물이라는 성격을 지닌다.

결국 지브리파크의 장소적 조건은 단순한 물리적 제약을 넘어, 박람회 유산의 역사성, 자연 환경과의 공존, 지역사회와의 협력이라는 복합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었다. 이러한 중층적 조건은 공간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 요소로 기능하며, 지브리파크를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공간이 아닌 역사·환경·사회가 교차하는 복합적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한다.

3. 나가며

본고는 지브리파크가 단순히 애니메이션 세계를 현실 공간에 재현한 테마파크가 아니라, 작품성·작가성·장소성이 중층적으로 얹히며 형성된 ‘기획된 장소’라는 점을 밝히고자 했다. 지브리파크의 공간은 스크린 속 세계를 입체화한 시각적 모방을 넘어, 인간의 경험과 이동, 감각을 통해 의미가 생성되는 장이며, 동시에 정책과 산업 전략, 사회 담론 등 외부적 요인이 결합하여 사전에 의미가 부여된 기획 공간이기도 하다.

또한 본 논의는 다섯 개의 구역이 각각의 작품 세계관을 재현하는 동시에, 작가주의적 세계관, 자연 환경과의 조화,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서로 다른 공간 전략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전략은 ‘지브리다움’을 구현하기 위한 창의적 시도이자 제도적·환경적 제약 속에서의 타협의 산물로서, 공간이 단순한 팬 경험을 넘어 역사·사회·문화가 교차하는 복합적 장으로 기능함을 시사한다.

결국 지브리파크는 작품 세계의 확장을 통해 애니메이션 소비의 지평을 넓히는 동시에, 더 이상 스크린 속 허구가 아닌, 현실 공간에서 체험되고 공유되는 문화적 실천으로 자리매김한다. 또한 지브리파크의 사례는 공공 공간, 지역 사회, 문화 산업이 결합하여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장소적 가치와 이용 방식을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은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현실 속 공간과 연동하며 새로운 소비와 체험의 장을 만들어내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향후 테마파크 연구나 미디어 공간 연구에서 애니메이션 콘텐츠의 사회문화적 영향력을 논의하는 데 유용한 관점을 제시한다.

참고문헌

Susan Napier(2019) Miyazakiworld: A Life in Art, Yale University Press / 수잔 네이퍼, 하인해 옮김(2021)『미야자키 하야오의 어둠과 빛: 미야자키 월드』, Being, 2021, p.10.
Yi-Fu Tuan(2001)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Univ of Minneso

13) 宮崎吾郎「ジブリパークができることで、公園が生き生きとすればいいと思う。」『熱風：スタジオジブリの好奇心』20(7), 2022年7月, p.9 참조.

ta Press, 이푸 투안, 윤영호, 김미선(번역)『공간과 장소: 공간에 우리의 경험과 삶, 애착이 녹아들 때 그곳은 장소가 된다』, 사이, 2020, p.19

愛知県『ジブリパーク整備の概要について』2018年12月, p.1

愛知県『ジブリパーク整備の概要・基本合意書の締結について』, 2019年5月。

有馬晋作「成長する県営都市公園 愛・地球博記念公園～ジブリパーク第2期整備エリアの開園～」2024年、pp.30-31.

宮崎吾郎「ジブリパークができることで、公園が生き生きとすればいいと思う。」『熱風：スタジオジブリの好奇心』20(7), 2022年7月.

吉見俊哉『博覧会の政治学：まなざしの近代』中央公論新社、1992年。

-----「テーマ部会II：都市論と都市社会学」『日本都市社会学会年報』1993巻11号、1993年、pp.40-41.

-----『都市のドラマトウロジー』河出書房新社、2008年、Kindle版。

▶ 제4세션 (장소: 532호)

제4세션 (개인발표)				
시간	발표자	발표제목	토론자	사회자
15:00~15:30	손진희 (송실사이버대)	한·일 청년층 비정규·무직 집단에 대한 복지정책 비교 연구: 일본 ‘프리터(フリーター)’와 한국 ‘NEET족’을 중심으로	김화영 (수원과학대)	최종민 (서울대)
15:30~16:00	김화영 (수원과학대)	일본 청년 세대의 불안과 정체성 - 요네즈 켄시의 음악을 중심으로 -	손진희 (송실사이버대)	
16:00~16:30	임대진 (송실사이버대)	일본 초고령사회와 미용복지 제도 발전 과정	이경수 (세한대)	
16:30~17:00	이진희 (송실사이버대)	한·일 돌봄서비스 인식 차이에 따른 마케팅 전략 비교 연구	양 희 (혜전대)	
17:00~17:30	조문기 (송실사이버대)	인간중심 돌봄 실현을 위한 휴머니튜드 케어 실천모델 연구	마스미쓰 고이치 (鹿児島純心 女子短期大学)	
17:30~18:00	마스미쓰 고이치 (鹿児島純心 女子短期大学)	AI・ICT技術を活用した協働学習型授業モデル開発 に関する研究 －「こども家庭福祉」科目における検証－	손진희 (송실사이버대)	
18:10~18:40	동아시아일본학회 2025년도 하반기 정기총회			
	2025년 동북아시아문화학회 정기총회 및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시상			
	폐회식			

한·일 청년층 비정규·무직 집단에 대한 복지정책 비교 연구: 일본 ‘프리터(フリーター)’와 한국 ‘NEET족’을 중심으로

손진희(송실사이버대학교)

I. 서론

21세기에 들어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 고용 안정성은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두 국가는 산업구조의 급격한 전환, 장기적 경기 침체, 고용 형태의 유연화라는 공통된 맥락 속에서 청년 비정규직의 증가와 무직 상태의 장기화를 경험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90년대 거품경제 붕괴 이후 정규직 채용 축소와 노동시장 구조 변화가 본격화되면서 ‘프리터(フリーター)’ 집단이 급속히 확산되었다(김태영, 2003). 프리터는 단순한 비정규·시간제 노동자를 넘어, 청년 세대의 구조적 불안정성을 상징하는 사회적 담론으로 자리 잡았다. 반면 한국에서는 2000년대 이후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개념이 사회적 논의의 중심에 등장하였다. NEET는 교육·취업·훈련 영역에서 모두 배제된 청년층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제도권 밖 청년의 현실을 드러내고 복지정책 개입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석병훈, 2024).

양국에서 나타난 청년층 비정규·무직 집단의 증가는 단순한 고용 지표 악화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배제, 경제적 빈곤, 정신건강 악화 등 다차원적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된다. 실제로 OECD의 NEET 지표는 청년층의 비활동 상태가 국가 경제 성장률, 사회 안전망 수준,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지적한다(OECD, 2024). 따라서 청년층의 장기적 비고용 문제는 개인 차원의 어려움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사회 통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과제가 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은 직업훈련 제도와 공공 취업안정소(“Hello Work”)를 중심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프리터 집단이 장기간 비정규 노동자로 고착되는 현상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한국 역시 청년 고용 정책을 다각도로 확대했지만, NEET 집단을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복지정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Jones & Beom, 2022; OECD, 2024).

선행연구들은 일본의 프리터 현상과 한국의 NEET 집단을 각 국가의 맥락에서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김수혜, 2019; 조대연 외, 2018; 오학수, 2016; 김영 외, 2011), 두 집단을 ‘비정규·무직 청년’이라는 공통 범주로 묶어 비교·분석하고, 정책적 대응과 제도적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일본에서는 프리터가 노동시장 내부의 주변부 노동자로 인식되는 반면, 한국에서는 NEET가 제도 밖 청년으로 개념화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차이를 규명하는 것은 학문적·정책적 측면에서 모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의 프리터와 한국의 NEET 집단을 중심으로 청년층 비정규·무직 현상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불안정 고용 문제를 국가별 특수성을 넘어 동아시아의 공통 과제로 재조명하며,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청년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청년층 비정규·무직 집단의 개념과 특성

청년층의 비정규·무직 문제는 후기 산업사회에서 나타난 구조적 변동의 전형적 산물로, 단순히 개인의 진로 선택이나 일자리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전환 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일본의 ‘프리터(フリーター)’는 1980년대 후반 거품경제 붕괴 이후 기업의 신규 정규직 채용 축소와 노동시장 경직성 속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이들은 주로 15~34세 청년층 가운데 정규직 고용을 희망하지 않거나 장기간 비정규직에 머무르는 집단으로 정의되며, 일본 후생노동성은 프리터를 “정규직 이외의 형태로 근로하는 청년층”으로 공식 분류하였다(Honda, 2005). 반면 한국의 ‘NEET(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집단은 학업·직업훈련·취업 등 어느 영역에도 속하지 않은 청년을 지칭하며, OECD의 공식 통계 범주에 포함되어 국제 비교의 주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OECD, 2022). 한국에서 NEET 현상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가 본격화되면서 두드러졌으며, 특히 대학 진학률은 높지만 안정적인 일자리 진입이 제한된 청년층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한국노동연구원, 2015). 결국, 일본의 프리터와 한국의 NEET는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맥락에서 형성되었으나, 공통적으로 “이행기의 청년(youth in transition)”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즉, 학업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사회적 배제와 불안정성이 장기화되는 구조적 문제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두 집단은 유사하게 이해될 수 있다.

2. 사회적 배제 이론과 청년 문제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이론은 청년층의 프리터와 NEET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나 능력 부족으로 환원하기보다는, 제도적 불평등과 사회적 제약의 결과로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이용호, 박로사, 2021).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지위를 가진 청년은 경제적 자립이 지연되며, 이는 다시 사회적 관계망의 약화, 정치적 무관심, 나아가 세대 간 불평등 심화로 이어진다. 일본의 경우 프리터는 초기에는 “자율적 노동 선택”이라는 긍정적 담론 속에서 등장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장기적 불안정 상태에 머무르게 되자 점차 “패배한 청년”이라는 낙인이 부여되었다(Honda, 2005). 반면 한국의 NEET 청년은 출발 단계부터 “무능” 혹은 “노력 부족”으로 규정되며, 개인적 책임의 문제로 축소·해석되는 경향이 강했다. 이러한 차이는 사회적 배제가 단순히 제도적 차원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담론과 문화적 인식 속에서도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프리터와 NEET 집단은 단순한 청년 실업 집단으로 이해하기보다, 교육·고용·복지 영역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복합적 문제군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청년층의 불안정 문제를 구조적·다차원적 시각에서 분석해야 함을 시사한다.

III. 한국과 일본 청년층 비정규·무직 현황과 분석

1. 통계적 현황

1.1. 한국 청년 NEET 현황

한국의 청년 NEET 비율은 OECD 평균을 상회하며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14년 17.5%였던 NEET 비율은 2020년에 20.9%까지 상승하였고, 2022년에도 18.3%를 기록하였다. 이는 같은 해 OECD 평균인 12.6%보다 5.6%p 높은 수치로, 우리나라 청년층이 교육·훈련·고용 경로에서 상당 부분 이탈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도 구조적 어려움이 뚜렷하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2004년 9.5개월이었던 졸업 이후 첫 취업까지 평균 소요기간(15~29세)은 2024년 11.5개월로 늘어났다. 또한 ‘쉬었음’ 상태로 분류되는 청년 인구 역시 2023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에는 4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취업 준비나 학업·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층이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특히 2020년대 이후 가속화된 증가세는 경기침체, 불안정 고용 환경, 노동시장 구조적 제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한국 청년 NEET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나 의지 부족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첫 취업 지연과 비활동 상태의 장기화라는 구조적 현실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현상은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늦추고 사회적 배제를 심화시키며, 나아가 세대 간 불평등 확대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청년 노동시장 이행 지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취업 지원을 넘어, 교육·훈련 기회 확대와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병행하는 종합적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

1.2. 일본 청년 NEET 및 프리터 현황

일본의 청년 NEET 비중은 한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인다. OECD의 공식 지표에 따르면 일본 청년층의 NEET 비율은 대체로 3% 내외에서 유지되어 왔다. 세계은행과 ILO 자료에 의하면 2019년 일본 청년 NEET 비율은 3.14%로, 성별로는 여성 3.76%, 남성 2.73%로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IndexMundi 역시 3.11%라는 유사한 수치를 제시하여, 일본이 OECD 국가 중 비교적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한 비율만으로 일본 청년 문제의 심각성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OECD의 「Investing in Youth: Japan」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청년 NEET 인구는 약 170만 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약 3분의 2는 구직 활동조차 하지 않는 비활동 상태(inactive)에 속한다. 이는 일본 역시 청년층 사회적 배제 문제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보여준다.

또한 일본 고유의 개념인 ‘프리터(freeter)’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1년 기준 프리터 규모는 약 417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장기간 비정규·시간제 고용에 종사하는 청년층을 가리킨다. 일본 사회에서는 NEET와 프리터 개념이 병행 사용되면서 청년 불안정 고용 문제를 대표하는 주요 지표로 자리매김해 왔다. 아울러 Kagawa 등의 연구는 일본이 NEET의 연령 범위를 15~34세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국가 간 통계 비교 시 이러한 정의 차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다.

2. 복지정책 및 제도적 대응 비교

2.1 노동시장 구조와 청년층 고용경로

일본의 노동시장은 전통적으로 종신고용제와 연공서열제를 축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이 제도적 틀은 청년층에게 비교적 안정적인 정규직 진입 경로를 보장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장기 불황과 더불어 기업의 인건비 절감 전략이 본격화되면서 비정규직 고용이 급격히 확대되었다. Honda(2005)는 이 시기를 “청년 고용 패러다임의 전환기”로 규정하며, 프리터 현상이 구조적 불안정 고용을 대표적으로 상징한다고 분석하였다. 프리터는 저임금·불완전 고용 상태에 장기간 머무르며, 직업 경력의 단절뿐 아니라 사회보장제도 접근에도 제약을 받는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OECD(2017)는 일본 청년의 약 3분의 1이 비정규직 경로에서 노동시장에 진입하며, 이 가운데 정규직으로의 전환 비율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하였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대규모 구조조정과 함께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본격화

되었다.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빠르게 확대되었고, 청년층의 안정적 노동시장 진입은 점차 어려워졌다. 특히 고등교육 진학률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70% 이상)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수요와의 불일치가 심화되면서 대졸 이상 청년층에서 NEET 현상이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고용정보원(2025)에 따르면, 청년층의 졸업 이후 첫 취업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2004년 9.5개월에서 2024년 11.5개월로 늘어났으며, '쉬었음' 상태로 분류되는 청년 인구가 40만 명을 상회하는 등 노동시장 진입 지체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동시장 구조 변화는 청년층의 생애주기 전반에도 중대한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 일본과 한국 모두 청년층이 고용 불안을 경험함으로써 주거, 결혼, 출산 등 주요 삶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불안정성의 확대와 세대 간 불평등의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 나아가 ILO(2020)는 이러한 현상을 단순히 노동시장 문제로 국한하기보다, 복지·주거·교육 정책을 아우르는 다층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2.2 복지정책적 대응

일본 정부는 2000년대 초반 버블경제 붕괴 이후 급증한 프리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고용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잡카페(Job Café),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역 청년서포터스스테이션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였다(Yamamoto & Nohara, 2015). 이러한 제도는 구직 상담, 적성검사, 구인·구직 매칭 등을 통해 초기 취업을 촉진하는 인프라 구축 성과를 거두었으며, 후생노동성 통계에 따르면 잡카페 상담 건수는 연간 수십만 건에 달했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율은 여전히 낮았고, Shirahase(2014)는 정책이 단기 알선·상담 중심에 머물러 구조적 불안정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평가하였다.

한국은 제도화 시점은 늦었지만 2010년대 이후 「청년고용촉진특별법」(2012), 청년희망재단(2015), 청년고용센터 설치를 통해 대응을 본격화하였다. 특히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 공제, 일경험 지원 프로그램은 청년에게 직접적인 취업 기회와 소득 보전을 제공하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취업성공패키지에는 10년간 200만 명 이상이 참여하여, 그 중 115만 명 이상이 취업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고용 유지율은 1년 기준 45% 내외에 불과해 안정적 고용으로의 연계에는 한계가 있었다. 석병훈(2024) 역시 한국 정책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못했고, 직업훈련 역시 단기성과 중심에 머물렀다고 지적한다. <표 1> 은 한·일 청년층 비정규·무직 집단 복지정책을 비교한 것이다.

구분	일본 (프리터 중심)	한국 (NEET 중심)
정책대상	- 15~34세 프리터(비정규·단기 고용 청년) - 장기 미취업·구직 포기 청년(NEET 포함) - 노동시장 내부 '주변부 노동자' 중심	- 15~29세 NEET(학업·훈련·취업에 속하지 않은 청년) - 장기 미취업자 및 고용보험 미가입 청년 - 노동시장 밖 제도적 보호 사각지대 청년
대표 정책	- 청년고용대책 기본계획(2003) - Job Café 설치 - 청년서포트스테이션 운영 -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매칭 서비스	- 청년고용촉진특별법(2012) - 청년고용센터 - 취업성공패키지(2009~2019) - 청년내일채움공제, 일경험 지원 프로그램
주요 내용	- 구직 상담, 직무적성 검사, 구인·구직 매칭 - 단기 직업훈련, 현장실습 연계 - 상담·생활안정 지원(서포트스테이션) - 지방정부와 협력한 인프라 구축형	- 맞춤형 취업상담 및 직업훈련 연계 -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상담·훈련·취업 지원 -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청년 장기근속 지원 - 일경험 지원: 단기 채용 및 직무경험 제공
성과/예산	- 잡카페 연간 상담 수십만 건(후생노동성) - 취업 촉진에는 효과적이나 정규직 전환율은 낮음 - 지방정부 예산+국가 보조로 운영	- 취업성공패키지 10년간 누적 참여자 200만 명 → 이 중 115만 명 이상 취업 성공 - 1년 고용 유지율 약 45% - 고용노동부 일반회계+청년고용기금 활용
한계	- 정규직 고용 전환 효과 미흡 - 단기 알선 중심, 구조적 불안정 해소 한계	- 고용보험 사각지대 여전 - 단기성과 중심, 지속성·포괄성 부족
정책 성격	- 고용 경로 지원형	- 소득·취업 연계형

<표 1> 한·일 청년층 비정규·무직 집단 복지정책 비교표

종합하면, 일본은 인프라 구축형·내부 노동시장 지원에, 한국은 재정지원형·제도 밖 청년 지원에 각각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성격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두 나라 모두 정규직 전환·지속적 고용 안정 효과는 미흡하다는 한계를 공유한다. 따라서 향후 청년 비정규·무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취업 알선이나 단기 재정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교육·훈련, 고용보험·사회보장, 주거·심리 지원을 아우르는 다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청년을 단순한 노동시장 참여자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복지국가적 전략으로 이어져야 한다.

3. 청년층 사회통합을 촉진할 복지 정책적 시사점

일본의 프리터와 한국의 NEET 문제는 단순한 고용 불안정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배제와 불평등의 구조적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양국 모두 다양한 청년고용 지원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정규직 전환의 한계, 고용보험 사각지대, 사회적 낙인 등의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따라서 향후 청년층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단기적·분절적 정책을 넘어서 다층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한다.

첫째, 노동시장 이행 지원의 다층화가 필요하다. 단기적 취업 알선이나 훈련 중심의 정책을 넘어, 청년이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서 경험하는 구조적 지체를 완화하기 위해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이 요구된다. 예컨대, 졸업 직후 청년에게는 구직·훈련 연계를 강화하고, 장기 NEET

집단에는 고용뿐 아니라 사회복귀를 위한 심리·정서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일본의 지역 청년서포터스테이션 사례는 구직 지원과 상담·생활 안정 지원을 결합하여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Ito, 2008).

둘째, 교육·훈련과 고용정책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 한국의 고학력 청년과 일본의 프리터 집단 모두 노동시장 수요와 교육 성과 간 불일치 문제에서 비롯된 현상이므로, 대학·직업교육 기관과 기업을 연결하는 중장기 협력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취업률 제고를 넘어, 안정적인 경력 경로 형성을 촉진할 수 있다. OECD(2017)의 Investing in Youth: Japan 보고서 역시 교육과 노동시장의 통합적 조정을 권고하며, 지속 가능한 경력 형성을 위해 양자의 연계를 제도화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셋째, 사회보장제도의 포괄성 확대가 요구된다. 일본은 고용보험과 사회보장 체계가 프리터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와 단기 재정지원 위주 정책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무직 청년도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 요건 완화, 소득보전제도 개선, 주거·의료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일본 노동정책연구·훈련기구(JILPT)의 보고서는 전환지원정책이 청년 비정규직 집단을 제도적으로 포섭하는 것이 청년층 사회적 배제를 완화하는 핵심 과제임을 지적한다(JILPT, 2005).

넷째, 사회적 낙인 완화와 청년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 프리터와 NEET에 대한 ‘패배주의’ ‘무능’과 같은 담론은 정책 효과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공공 캠페인, 미디어 담론 개선, 청년 당사자 참여 확대를 통해 청년층을 사회적 자산으로 인식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태도 변화가 아니라 정책 수용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청년층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청년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단순한 고용정책을 넘어, 지역사회 활동, 자원봉사,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망을 복원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할 수 있다. 한국의 청년 고용지원 프로그램 성과 분석에서도, 취업 지원과 더불어 사회적 관계망 확대와 사회참여 경험이 NEET 예방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Lee, 2020).

여섯째, 정신건강 지원과 주거정책 연계가 필요하다. 최근 청년 담론에서 고립, 우울, 고시원·원룸 중심의 열악한 주거 문제가 강조되고 있는 만큼, 정신건강 상담·치료와 안정적 주거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이는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안정성과 사회적 관계망 회복을 동시에 촉진하여, 장기적 사회통합의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III. 결론

본 연구는 일본의 ‘프리터(freeter)’와 한국의 ‘NEET(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집단을 비교하여, 첫째, 두 집단이 형성된 사회적 배경과 담론적 맥락을 검토하고, 둘째, 양국의 청년 고용지원 및 복지정책을 분석하며, 셋째, 향후 청년층 사회통합을 촉진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두 나라는 모두 1990년대 경제 위기와 노동시장 유연화 과정 속에서 청년층의 안정적 정규직 진입이 점차 어려워지는 구조적 공통점을 보였다. 일본의 경우, 종신고용제와 연공서열제가 붕괴되며 프리터 현상이 본격화되었고,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고등교육 진학률 증가와 노동시장 수요 간 불일치 속에서 NEET 집단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맥락은 사회적 배

제 이론의 틀 속에서, 청년층의 불안정 고용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구조적 불평등의 산물임을 보여준다. 또한 사회적 담론 차이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 프리터는 1990년대에는 ‘자율적 선택’으로 용인되었으나, 2000년대 이후 ‘패배주의’라는 낙인으로 전환되었다. 반면 한국에서는 NEET가 초기부터 ‘무능’과 ‘게으름’으로 규정되며 개인 책임의 문제로 환원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담론적 차이는 정책 수용성과 청년층 지원정책의 효과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책적 대응 측면에서 일본은 「청년고용대책 기본계획」 수립 이후 잡카페(Job Café), 직업능력개발훈련, 청년서포트스테이션 등을 조기에 도입하여 취업 인프라를 확대하였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한국은 비교적 늦게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정과 청년희망재단 설립 등을 통해 고용지원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직접적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구조적 문제 해결에는 미흡하다는 한계가 지적되었다. 결국 일본은 고용 경로 지원형 정책, 한국은 소득·고용 연계 중심 정책에 무게를 두었으나, 두 나라 모두 단기적 처방 중심이라는 공통된 제약을 드러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한국은 노동시장 진입 지연 청년이 장기적 NEET 집단으로 고착되지 않도록, 직업훈련과 고용지원에 더해 심리·정서적 지원과 사회적 관계망 회복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프리터의 불안정 고용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층을 포괄하는 고용보험 체계와 사회보장 제도의 실질적 확충이 요구된다. 나아가 양국 모두 청년을 단순한 ‘취업 대상자’로만 간주하는 관점을 넘어, 사회적 배제 위험을 완화하고 적극적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다층적·통합적 복지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제한된 문헌과 비교 범위에 기반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향후 연구에서는 △청년 당사자의 생애사적 경험을 반영한 질적 조사, △장기적 고용·소득 통계에 기반한 구조적 분석, △청년 복지·고용정책 효과성 평가를 종합하는 심층적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후속 연구를 통해 청년층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고,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하는 정책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2019). 취업성공패키지 성과 보고서. 세종: 고용노동부.
- 김수혜. (2019). 한국과 영국 니트족 유입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적 비교연구: PIAAC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30(1). 185.
- 김영. (2011). 녹지 않는 빙하와 청년의 취업상황 - 경기회복기의 도표를 중심으로. 한림일본학. 18. 121-153.
- 김태영. (2003). 일본에서의 노동시장의 변용과 『프리터』. 일본학보. 57. 603-617.
- 석병훈. (2024). 청년 니트족 증가 원인과 대책. KEFe매거진.
- 오학수. (2016). 일본의 비정규직 문제의 현상과 전망. 일본비평. 15. 112-139.
- 이용호, 박로사. (2021). 청년의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73(3). 91-121
- 일본 후생노동성. (2005-2018). 잡카페 운영 및 상담 실적 통계. 도쿄: 후생노동성.
- 조대연, 김은비, 김경근, 정홍인. (2018). 우리나라 고학력 청년 니트족의 유형화와 니트 탈출 방안. 역량개발학습연구. 13(2). 165-190.

한국고용정보원. (2025). 청년니트의 구성 변화와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 한국고용정보원. <https://www.keis.or.kr>

한국노동연구원. (2015). 청년층의 고학력화에 따른 학력과잉 실태 분석 (노동정책연구 특별호). 한국노동연구원

Honda, Y. (2005). *Freeters: Young people and the Japanese employment system*. Tokyo: University of Tokyo Press.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2020). *Global employment trends for youth 2020: Technology and the future of jobs*. Geneva: ILO. https://www.ilo.org/global/publications/books/WCMS_737648/lang--en/index.htm

Jones, R., & Beom, J. (2022). *Labour market reforms and youth employment in Korea*. OECD Publishing.

Kagawa, M., Taki, H., Moriyama, T., & Ojima, F. (2022). "NEET in Japan: Focusing on Gender and Cohort," in *The Dynamics of Marginalized Youth*, Routledge.

OECD. (2017). *Investing in youth: Japan*.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9789264275898-en>

OECD. (2022). *Education at a glance 2022: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69096873-en>

OECD. (2024). *Society at a glance 2024*.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19991290>

Shirahase, S. (2014). Youth employment policies and social inequality in Japan. *Social Science Japan Journal*, 17(1), 45-64.

Yamamoto, K., & Nohara, H. (2015).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in Japan: Job Cafés and youth support stations. *Asian Social Work and Policy Review*, 9(2), 148-162.

Ito, Y. (2008). Role of "Youth Support Station" in Japan. Keio University Discussion Paper. Retrieved from https://koara.lib.keio.ac.jp/xoonips/modules/xoonips/download.php/BA76859882-00000134-0001.pdf?file_id=166022

JILPT. (2005). *Transition Support Policy for Young People with Low Skills*. Japan Institute for Labour Policy and Training. Retrieved from <https://www.jil.go.jp/english/reports/documents/jilpt-reports/no5.pdf>

Lee, J. (2020). An evaluation of the youth employment support program in South Korea: Focusing on the outcome of preventing NEET.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10, 104785. <https://doi.org/10.1016/j.childyouth.2019.104785>

OECD. (2017). *Investing in Youth: Japan*.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9789264275898-en>

일본 청년 세대의 불안과 정체성 -요네즈 켄시의 음악을 중심으로-

김화영(수원과학대학교)

서론

21세기 일본 청년 세대는 장기화된 경기 침체, 고용 불안정, 주거난과 같은 구조적 제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종종 ‘사토리 세대(悟り世代)’ 혹은 ‘달관·무욕의 세대’로 불리며, 소비·출세·연애에 무관심하거나 사회 규범 밖의 삶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사회적 조건은 지그문트 바우만이 말한 ‘유동적 근대’ 속에서 안정된 정체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시대적 특징과 맞물려 있다. 청년들은 불확실성과 불안을 일상적으로 경험하며, 그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고 재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대중음악은 이러한 세대적 감정을 집약적으로 담아내는 중요한 문화 텍스트다. 그중 요네즈 켄시(米津玄師, 1991~)는 서정성과 사회에 대한 비판을 결합한 가사로 동시대 청년 문화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그의 음악은 개인적 경험을 출발점으로 하지만, 이를 보편적 정서와 사회적 담론으로 확장하여, 청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구성한다.

특히 「루저(LOSER)」(2016), 「잿빛과 푸름(灰色と青)」(2017), 「레몬(Lemon)」(2018), 은 서로 다른 정서적 결을 지니면서도, 청년 세대의 불안, 자기 인식, 사회적 소외라는 공통된 주제를 공유한다. 「루저」는 사회의 승패 규범에서 벗어난 ‘패배자’의 위치를 긍정하며 경쟁 논리에 저항하는 주제를 형상화한다. 「잿빛과 푸름」은 청춘의 전환기에서 느끼는 불확실성과 양가감정을 섬세하게 포착하여, 변화와 성장의 경계에 선 주체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레몬」은 상실과 애도의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수용하며, 고통을 자기 서사의 일부로 통합하는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본 발표는 요네즈 켄시의 위 세 곡의 가사에 대한 원문 분석과 사회·문화적 해석을 통해, 일본의 청년 세대가 불확실성과 불안 속에서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재구성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 곡의 언어적 표현, 상징적 어휘, 서사적 전개 방식 등을 분석하고 이를 일본 청년 세대가 처한 사회 경제적 현실과 연관지어 해석한다. 나아가 요네즈 켄시의 음악이 단순한 위로나 감정의 표현을 넘어, 청년들이 자아를 돌아보고 이해하며, 세대 간의 공감을 확장할 수 있는 하나의 문화적 매개로 기능함을 규명하고자 한다.

제1장 청년 세대의 불안과 정체성의 혼란

바우만은 현대 사회를 ‘유동적 근대(Liquid Modernity)’로 규정하며, 전통 사회에서 가능했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체성의 형성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산업화 시기에는 직업, 계급, 가족 구조와 같은 사회적 지위가 개인의 삶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규정했지만, 후기 근대사회에서는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사회 구조가 불확실해짐에 따라, 개인은 끊임없이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재조정해야 한다.

이러한 유동성은 특히 청년 세대에게 심각한 도전으로 작용한다. 일본의 경우, 버블 붕괴 이

후 장기 불황과 비정규직 고용 확대, 취업난, 주거비 상승 등은 청년들의 사회 진입과 자립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 결과, 청년들은 확실한 미래 전망 없이 불안정한 생활을 지속하며, 이를 회피하거나 최소한의 욕망만을 유지하는 ‘사토리 세대’의 특징을 보이게 되었다.

청년기의 정체성 형성은 심리사회적 발달의 핵심 과제이자, 사회적 통합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현대 일본 청년들은 경제적 불안정, 경쟁의 심화, 사회적 고립과 같은 조건 속에서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정신분석학자 에릭 에릭슨(Erik Erison)은 『정체성-청소년과 위기』(초출:1968, 2022)에서 정체성 혼란을 성장기의 정상적이고 발달적인 위기로 보고 있으나, 바우만의 ‘유동적 근대’ 사회에서는 기존의 전통적 이행 경로가 불확실해지고 성인기의 진입 자체가 지연되거나 상시적 위기상태로 변환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석했다.

일본의 청년들은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서사를 구성한다. 일부는 사회 규범에 순응하려 노력하지만, 또 다른 일부는 기존 질서에 편입되지 못한 자신을 ‘패배자’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긍정하고, 새로운 가치 체계를 모색한다. 예를 들면 요네즈 켄시의 「루저」는 이러한 ‘패배자’ 서사를 대표적으로 구현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대중음악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시대의 정서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문화 텍스트다(김현옥 2011). ‘가사’는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동시에, 세대적 경험과 사회적 담론을 공유하는 매개 역할을 한다. 특히 21세기 이후 일본 대중음악은 감정적 공감과 개인적 서사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강화되었으며, 이는 사회적 불안과 고립을 경험하는 청년 세대의 감수성과 맞물려 있다.

요네즈 켄시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개인의 이야기’를 세대의 이야기로 확장하는 독창적인 서사를 제시한다. 그의 곡 「레몬(Lemon)」은 사랑과 상실, 애도의 과정을 통해 고통을 삶의 일부로 수용하는 정서를 전달하고, 「루저(LOSER)」는 사회적 기준에서 벗어난 자아를 긍정하는 메시지를 담는다. 두 곡은 서로 다른 정서적 지향성을 드러내지만 모두 청년 세대의 불안과 정체성 문제를 깊이 있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제2장 요네즈 켄시의 음악 세계와 세대 감성

요네즈 켄시는 일본 도쿠시마현 출신의 싱어송라이터로, 2010년대 초반 니코니코 동화 플랫폼을 통해 ‘하치(ハチ)’라는 필명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초기에는 보컬로이드 곡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네이티브형 창작자로 주목받았으며, 2012년 메이저 데뷔 이후 독특한 가사 세계와 장르 혼합적 음악성을 기반으로 폭넓은 청중층을 확보했다.

그의 활동 시기는 일본이 버블 붕괴 이후 장기 불황에 접어든 지 이미 수십 년이 지난 시기로, 청년층의 고용 불안정, ‘사토리 세대’ 담론, 개인화된 인간관계가 두드러진 사회적 배경과 맞물려 있다. 이러한 시대 조건 속에서 요네즈 켄시는 상업적 성공을 거두면서도, 주류 음악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사회적 소외, 상실, 자기 긍정과 같은 테마를 다루고 있다.

요네즈 켄시의 음악은 ‘나’의 경험과 감정을 출발점으로 삼으면서도, 그 서사를 듣는 이의 삶과 연결시키는 특징을 지닌다. 이는 자전적 서사가 곧 세대적 서사로 확장되는 구조를 만든다. 예를 들어, 「루저」는 사회적 기준에서 ‘패자’로 분류되는 자아의 고백을 담고 있지만, 가사의 1인칭 화법과 반복되는 반항적 어휘는 청중이 자신의 경험을 투영하게 만든다. 반면 「레몬」은 개인적 상실 경험을 노래하면서도,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실의 감정’을 보편화하여 애도의 공동체적 공감을 형성한다.

이러한 서사 구조는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공감이 가능한 집단 경험이라는 확장 과정을 거치

며, 동시대 청년 세대의 불안과 정체성 문제를 음악 속에서 재현한다.

2010년대 이후 일본의 음악 소비는 물리적 음반 판매에서 디지털 스트리밍과 SNS 공유 중심으로 급격히 전환되었다. 특히 유튜브, 틱톡과 같은 플랫폼은 짧고 강렬한 음악적 인상과 가사 한 구절의 확산성을 중시하는 청취 문화를 확산시켰다.

요네즈 켄시는 이러한 미디어 환경을 적극 활용한 대표적 아티스트로, 뮤직비디오의 시각 예술성과 가사의 상징성을 결합해 청년 세대가 자발적으로 공유하고 공감하는 흐름을 만들었다. 「레몬」은 2025년 기준 유튜브 조회 수 9억 회를 돌파하며, 일본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강한 반향을 일으켰다. 이는 곡이 전달하는 상실과 애도의 정서가 국경과 언어를 넘어 보편적 공감을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그의 음악은 단순히 '위로'에 머무르지 않고, 청취자가 자기 자신의 불안과 결핍을 인식하고 그것을 재구성하도록 만드는 정체성의 성찰의 장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제3장 낙오자 서사의 자기 긍정, 「LOSER」

いつもどおりの通り独り/ こんな日々もはや懲り懲り/ もうどこにも行けやしないのに/ 夢
見ておやすみ
いつでも僕らはこんな風に/ ぼんくらな夜に飽き飽き/ また踊り踊り出す明日に/ 出会うた
めにさよなら
歩き回ってやっとついた/ ここはどうだ楽園か? /いまとなっちゃもうわからない

アイムアルーザー / どうせだったら遠吠えだっていいだろう / もう一回もう一回行こうぜ
僕らの声
アイムアルーザー/ ずっと前から聞こえてた / いつかポケットに隠した声が

今勝ち上がるためのお勉強/ 朗らかな表情 /踊る阿呆に見る阿呆/ 我らそれを端から笑う阿
呆
ああわかってるって 深く転がる/ 俺は負け犬

アイムアルーザー/ なんもないならどうなったっていいだろう
アイムアルーザー /きっといつかって願うまま 進め/ ロスタイムのそのまた奥へ行け

ここいらでひとつ踊ってみようぜ/ 夜が明けるまで転がっていこうぜ/聞こえてんなら声出し
ていこうぜ

제4장 상실, 애도, 그리고 기억 「Lemon」

夢ならばどれほどよかったでしょう/ 未だにあなたのことを夢にみる
戻らない幸せがあることを/ 最後にあなたが教えてくれた
言えずに隠してた昏い過去も/ あなたがいなさや永遠に昏いまま
あの日の悲しみさえ/ あの日の苦しみさえ/ そのすべてを愛してた あなたとともに
胸に残り離れない/ 苦いレモンのにおい

今でもあなたはわたしの光

雨が降り止むまでは歸れない/ 切り分けた果實の片方の様に
今でもあなたはわたしの光

제5장 청춘의 전환, 「灰色と靑」

朝日が昇る前の欠けた月を/ 君もどこかで見ているかな/ 何故か訳もないのに胸が痛くて
滲む顔 霞む色/ 今更悲しいと叫ぶには/ あまりに全てが遅すぎたかな / もう一度初めから
歩けるなら
すれ違うように君に会いたい

どれだけ背丈が変わろうとも/ 変わらない何かがありますように/ くだらない面影に励まされ/
今も歌う今も歌う今も歌う

朝日が昇る前の欠けた月を/ 君もどこかで見ているかな/ 何も無いと笑える朝日がきて
始まりは靑い色

결론

참고문헌

김현옥(2011) 「대중음악과 대중정서의 상관성:2000년대 트로트 음악을 중심으로」『인문과학연구』제31집,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일본 초고령사회와 미용복지 제도 발전 과정

임대진(숭실사이버대학교 뷰티미용예술학과)

초록

본 연구는 일본의 초고령사회에서 ‘미용복지(美容福祉)’가 제도화된 과정을 분석하고, 그 실천적 전개가 고령자의 삶의 질(Quality of Life) 향상과 인권 보장에 미치는 복지적 함의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는 일본의 관련 법제 및 정책 분석, 노인요양시설 및 지역사회의 실천 사례, 질적 연구 자료를 종합하여, 미용복지가 단순한 외모 관리가 아닌 존엄과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복지 실천임을 논증한다. 이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의 제도 설계 가능성을 탐색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I. 서론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 중 하나로, 고령자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복지적 대응이 시급하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영역이 ‘미용복지’로, 이는 ‘미용은 돌봄이다(美容はケアである)’라는 인식에 기반한다. 2000년 노인개호보험제도의 도입, 2005년 후생노동성 위생관리 지침 제정, 2013년 이후 지자체 주도의 방문미용 제도화 과정을 거쳐 발전해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적 맥락과 실천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한국에서의 제도 설계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분석과 사례분석을 병행하는 질적 탐색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문헌분석에서는 일본의 관련 법제(이·미용사법, 노인복지법 등), 후생노동성 지침, 주요 학술연구를 검토하였다. 사례분석에서는 노인요양시설과 지역사회 내 출장·방문미용 서비스 운영 현황, Recruit Co., Ltd.의 전국 이용자 패널조사(2021~2023)를 활용하였다. 또한 질적 인터뷰와 참여관찰 연구를 참조하여 고령자의 주관적 경험과 자기표현 욕구를 분석하였다.

III. 일본 미용복지의 제도적 기반

일본의 미용복지의 ‘미용은 돌봄’이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제도적 기반이 형성되었다. 후생노동성은 출장·방문미용을 공식 복지서비스로 인정하고, 시설 내 전용 공간 설치와 위생관리 지침을 마련하였다. 또한 ‘복지미용사’, ‘개호미용사’와 같은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전문 인력 양성체계를 확립하였다. 야마노미용예술단기대학의 ‘미용복지학과’는 미용·복지를 융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미령학(美齡学)’ 개념을 통해 노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자기표현을 지원하는 교육 모델을 제시하였다.

IV. 실천 모델과 효과

노인요양시설의 95% 이상이 정기적으로 출장미용을 운영하며, 일부 지자체는 방문미용을 지역생활지원사업으로 제도화하였다. 조사에 따르면 방문미용 이용률은 2021년 24.9%에서 2023년 28.0%로 증가하였다. 고령자의 변화로는 ‘웃음 증가(49.5%)’, ‘활력 회복(22.5%)’, ‘대화 활발(20.9%)’ 등이 보고되었다. 질적 조사에서는 미용서비스가 단순한 위생 관리가 아니라 자

기표현과 일상성 회복, 정서적 안정의 수단임이 확인되었다.

V. 정책적 시사점과 결론

일본의 미용복지는 고령자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제도적·실천적 자원으로 기능한다. 정책적 과제로는 서비스 인지도와 이용률 간의 격차 해소,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마련, 공공복지 내 정규 서비스 편입 등이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지방정부 단위의 시범사업 추진, 복지미용사 자격제도 도입, 장기요양보험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미용복지는 고령자의 자기결정권과 존엄을 실현하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으로, 한국형 제도 설계를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참고문헌

야마노미용예술단기대학(2019), 『美齡学と美容福祉学の教育システムの構築』.
도쿄복지대학(2020), 『老人福祉施設における出張理容・出張美容の実施に関する調査研究』.
Recruit Co., Ltd.(2023), 「高齢社会における美容室のあり方」.
齋藤美和·武田夏美(2021), 『美容福祉学研究』제5권.
石井美代子(2018), 『ケアと文化』제16권.

한·일 돌봄서비스 인식 차이에 따른 마케팅 전략 비교 연구

이진희(숭실사이버대)

1. 서론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돌봄(care) 서비스는 사회복지와 서비스 산업 양 측면에서 중요한 성장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는 국가로서,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두 나라의 문화적 배경, 가족 구조, 복지제도의 차이는 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이용 행태에서 뚜렷한 차이를 만든다. 본 연구는 이러한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 각국 시장에 적합한 마케팅 전략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돌봄서비스의 개념

돌봄서비스란 노인, 장애인, 환자 등 신체적·정신적 제약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개인에게 제공되는 전문적·비전문적 지원 활동을 의미한다. 범위는 장기요양, 방문 간호, 요양원·실버타운 입주 서비스, 재활 및 건강관리, 돌봄 로봇·디지털 헬스케어까지 확장된다.

2.2 서비스 마케팅 이론

돌봄서비스는 **서비스 마케팅 7P(Product, Price, Place, Promotion, People, Process, Physical evidence)**를 적용하기 좋은 산업이다. 또한 관계 마케팅(relationship marketing), 사회적 마케팅(social marketing) 개념 역시 서비스 신뢰도와 윤리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적합하다.

2.3 한·일 문화적 맥락

한국: 가족주의 전통과 효(孝) 문화가 강해, 돌봄은 오랫동안 가족의 책임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핵가족화와 맞벌이 증가로 국가 및 공공서비스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졌다.

일본: 개인주의와 민간 서비스 중심 문화가 발달하여, 돌봄은 '서비스 구매'라는 인식이 비교적 자연스럽다. 공공제도는 기본 틀을 제공하되, 민간 시장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왔다.

3. 한국과 일본의 돌봄서비스 인식 비교

3.1 한국의 인식

보건복지부와 민간 조사기관 조사에 따르면, 한국 노인의 80% 이상은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실제 서비스는 시설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강하다. 많은 국민은 돌봄서비스가 충분치 않다고 인식하며, 가족에게 부담이 될까 두려워하는 비율이 80% 이상으로 나타난다. 돌봄을 복지·권리로 보는 시각이 강하고, 서비스 품질보다는 가격·공공성에 대한 기대가 크다.

3.2 일본의 인식

일본은 '돌봄과 일의 병행' 문제의식이 뚜렷하다. 조사에 따르면 돌봄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약 20%에 달한다. 서비스 이용자는 방문형·통원형 돌봄을 선호하며, 가족 돌봄 의존도는 한국보다 낮다. 인식 조사에서는 돌봄 인력 부족을 88%가 심각한 문제로 꼽았으며, 공공 서비스와 민간 서비스를 적절히 조합하여 활용하려는 태도가 두드러진다. 즉, 돌봄을 가족의 의무라기보다는 사회적 문제이자 개인 선택의 영역으로 본다.

3.3 비교 요약

가족 돌봄 의존도: 한국 높음 vs 일본 낮음

서비스 인식: 한국은 복지 성격 강조, 일본은 상품·서비스 성격 강조

주요 우려: 한국은 비용·가족 부담, 일본은 인력 부족·서비스 품질

선호 형태: 한국은 거주지 중심, 일본은 방문·통원형 서비스

4. 마케팅 전략 분석

4.1 한국 시장 전략

Value Marketing: 소비자는 가격과 국가 지원 여부에 민감하다. 따라서 합리적 가격, 공공 서비스 연계, 보험 혜택을 강조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다.

Community Marketing: 돌봄을 가족·지역사회와 연계해 ‘안심’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디지털 헬스케어 마케팅: 모바일 앱, AI 기반 건강 모니터링, 원격 돌봄 서비스와 같은 스마트케어 솔루션은 젊은 세대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

4.2 일본 시장 전략

Premium Marketing: 일본 소비자는 품질과 전문성을 중시한다. 의료·재활·전문 인력이 강조된 서비스 브랜딩이 효과적이다.

Experience Marketing: 체험형 마케팅(돌봄 로봇 시연, VR 체험, 단기 돌봄 서비스 체험권)은 새로운 서비스 도입에 대한 저항을 줄인다.

Purpose-driven Marketing: 사회적 가치와 윤리성을 강조하는 광고가 설득력을 가진다. “노인의 존엄성”이나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키워드로 내세우는 것이 효과적이다.

5. 사례 분석

한국: 장기요양보험과 연계된 민간 돌봄기업은 가격 경쟁력과 접근성을 무기로 성장 중이다. 그러나 서비스 차별성이 부족해 ‘신뢰도’와 ‘브랜드 이미지’ 제고가 과제이다.

일본: 파나소닉, 소니 등이 로봇 돌봄 시장에 진입해 프리미엄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기반 NPO가 독창적 모델을 만들어내며, 돌봄을 사회적 혁신으로 연결하는 사례가 많다.

6. 결론 및 제언

한국과 일본은 공통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직면했지만, 문화적 맥락과 정책 차이로 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상이하다. 한국은 복지 중심·가족 의존적 성격을, 일본은 서비스 중심·개인 선택적 성격을 보인다. 따라서 마케팅 전략 역시 차별화되어야 한다. 한국은 가격 합리화, 공공 연계, 지역사회 신뢰 구축이 핵심이며, 일본은 품질·전문성 강화, 체험형 서비스 제공, 사회적 가치 호소가 효과적이다. 향후 연구는 양국 소비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정량적 비교조사, 세

대별 인식 차이 분석 등을 통해 더 깊은 마케팅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중심 돌봄 실현을 위한 휴머니티드 케어 실천모델 연구

조문기(송실사이버대)

I. 서론

한국 사회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치매 및 만성질환 노인의 급증은 장기요양제도의 수요를 크게 확대시키고 있다. 그러나 현장의 장기요양 서비스는 여전히 표준화 중심의 서비스 제공, 개별적 욕구 반영 부족, 요양 제공자의 소진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인간중심 요양의 구현은 미흡하다.

특히 치매 노인의 경우, 행동심리증상(BPSD)으로 인해 요양의 거부, 공격성, 불안이 흔히 나타나며, 이는 제공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 단순한 기능적 지원을 넘어, 존엄과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요양 모델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휴머니티드 케어를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 및 사례관리 표준모델에 접목하여, 인간중심 요양의 실천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휴머니티드케어¹⁴⁾는 프랑스에서 시작되어 일본을 거쳐 아시아 각국으로 확산되었다. 최근 일본 연구들은 그 효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棄子嘉美 등(2021)은 휴머니티드 기법을 적용한 간호개입 효과에 관한 문헌 리뷰에서, 노인의 BPSD 완화, 불안 경감, ADL 유지·향상 효과가 확인되었고, 간호사에게는 요양 자신감 상승과 소진 완화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山形県三川病院(2019) 사례연구에서는 구강케어에 휴머니티드를 적용했을 때 노인의 거부반응이 줄고, 표정과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本田美和子(本田美和子(2016)는 휴머니티드가 다감각적 의사소통 기법으로서 치매 노인의 혼돈과 저항을 완화하고, 요양 제공자의 접근 방식을 변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다기관 연구에서 휴머니티드가 노인-제공자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비용 대비 효과성(SROI 4.07)을 갖는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大坪昌喜·角マリ子(2018)의 선행 연구고찰에서는 휴머니티드 도입 후 장기적 실천을 위한 조직 차원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휴머니티드 케어가 노인-제공자-조직 모두에 긍정적 효과를 갖는다는 점을 보여주며, 한국 장기요양기관의 모델 설계에도 적용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II. 급여제공과 사례관리의 실천모델 제안

급여제공 모델은 일본에서 발전해 온 휴머니티드(Humanitude) 케어 연구를 통해 실증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本田(2016)는 휴머니티드를 “지각·감정·언어에 기반한 포괄적 커뮤니케이션 케어 기술”로 규정하면서, 치매로 인해 치료나 검사에 협조가 어려운 대상에게도 언어적·비언어적 방식으로 “당신은 소중한 존재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체계화하였다. 또한 휴머니티드는 대상자의 능력을 빼앗지 않는 케어를 원칙으로 하며, 회복·유지·말기 동반의 3개 케어 레벨을 설정하여 대상자의 상태에 맞춘 표준화된 제공 방식을 제시한다(本田, 2016).

14) Yves Gineste와 Rosette Marescotti의 돌봄 철학 정립을 통해 *Humanitude*는 관계 기반 케어 철학으로 자리잡았으며, 그 구현 방식으로서 4기동 등 구체적 케어 방식을 포함하게 되었다. 이런 어원 및 발전 경로는 *Humanitude*가 단순한 테크닉이나 매뉴얼이 아니라, 인간성 회복과 돌봄자의 태도 변화라는 철학적 기반을 가진 개념임을 강조하게 해준다.

특히 휴머니티드의 4대 기동인 ‘보기·말하기·접촉·서기’는 상호주시, 긍정적 언어 사용, 편안한 신체 접촉, 하루 합계 20분의 서기 활동과 같은 구체적 실행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지침은 제공자의 행동을 표준화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대상자의 개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조정을 가능하게 한다(本田, 2022).

임상현장 적용 사례에서는 ‘서기·걷기’의 체계적 도입이 욕창·폐렴 등 합병증 예방과 더불어 삶의 의욕 회복과 존엄 유지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다학제 컨퍼런스를 케어 현장과 결합하여 노인의 기능을 평가하고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방식도 소개된다. 반면, 낙상 예방을 이유로 서기와 이동을 제한하는 관행은 오히려 기능저하와 가정·지역 복귀 실패로 이어진다고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일상생활 자체가 재활”이라는 관점에서 케어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ユマニチュード入門, 2014).

또한 棄子 외(2021)의 문헌 리뷰는 휴머니티드 개입이 치매 노인의 BPSD 경감, 불안 완화, ADL 유지·개선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온다고 종합하고 있으며, 제공자에게는 자신감 향상과 소진 완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 연구자들은 장기추적과 양적 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도, 케어의 유용성은 충분히 확인된다고 보고하였다. 현장 관찰에서는 기존에 구강 케어를 거부하던 노인이 휴머니티드 적용 후 협조하는 사례가 보고되어, 급여제공 모델의 주요 난제인 거부와 저항 문제에 대한 해결 가능성을 제시한다(棄子 외, 2021).

휴머니티드 케어가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과 사례관리 과정에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연구모형을 제안한다.

이 모형은 투입, 과정, 산출, 결과의 네 단계로 구성되며, 각 단계가 상호 연계되어 인간중심 요양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첫째, 투입 단계에서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적 팀과, 수급자의 개별 장기요양계획서 및 사정자료가 기반으로 제공된다. 이러한 투입 요소들은 요양 과정에서 존엄과 개별화를 보장하는 출발점이 된다.

둘째, 과정 단계에서는 급여제공과 사례관리의 두 흐름이 동시에 작동한다. 급여제공 과정은 계획 수립, 실행, 모니터링·조정, 평가의 절차로 이루어지며, 사례관리 과정은 사정, 계획, 실행, 평가와 종결의 순환적 구조로 운영된다. 두 과정 모두에 휴머니티드 기법이 일관되게 적용되며, 이를 통해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존엄을 보장하는 관계 중심의 케어가 가능해진다.

셋째, 산출 단계에서는 다양한 직접적 효과가 기대된다. 요양 수급자의 케어 수용성이 높아져 요양 거부와 저항이 감소하고, 치매의 행동·심리 증상(BPSD)이 완화되며, 일상생활수행능력(ADL)의 유지와 개선이 나타난다. 또한 요양 제공자의 소진이 줄고 전문성이 강화되며, 기관 차원에서는 서비스 질 관리(QI) 지표가 향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넷째, 결과 단계에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성과가 도출된다. 수급자의 존엄성이 회복되고 자기결정권이 강화되며, 요양 제공자와 수급자 간에는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된다. 가족과 지역사회는 신뢰가 높아지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모델이 정책 차원의 표준모델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된다.

이 연구모형의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이론적 기반은 인간중심 요양(Person-Centered Care)과 관계 중심 케어 철학에 두고 있다. 둘째, 실천적 도구로는 휴머니티드 네 가지 기법을 활용하며, 이를 사례관리 교재에서 제시하는 사정·계획·실행·평가 절차와 접목한다. 셋째, 평가 지표는 수급자·제공자·기관의 변화를 다층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구체적으로는 BPSD 점수 변화, ADL·IADL 유지율, 케어 거부율, 제공자 소진 척

도, 가족 만족도 등이 활용된다.

결국 이 연구모형은 투입에서 결과까지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휴머니티드 케어가 장기요양 현장에서 인간중심 요양을 실현하는 실천적 표준모델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급여제공 모델은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개별화와 표준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설계된 실천적 틀이다. 개별화는 수급자의 건강 상태, 생활 습관, 가치와 선호를 반영하여 맞춤형 케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표준화는 서비스 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기준과 기관 지침을 준수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 휴머니티드 기법을 접목함으로써, 서비스는 단순한 행위 전달을 넘어 존엄을 기반으로 한 관계 형성의 과정으로 확장된다.

단계별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검토하고 기능 상태를 파악한다. 둘째, 급여제공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사례회의를 통해 단기 및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수급자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구체화한다. 셋째, 실행 단계에서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다학제적 협력을 통해 휴머니티드의 네 가지 기법을 적용한다. 넷째, 모니터링 및 조정 단계에서는 정기적 방문과 점검을 실시하여 서비스의 내용과 횟수를 조정한다. 마지막으로, 평가·피드백 단계에서는 성과를 확인하고 수급자와 가족의 의견을 반영하여 서비스를 개선한다.

이 모델의 의의는 ‘맞춤형 케어’와 ‘안전하고 일관된 케어’를 동시에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급자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기관 차원에서 서비스 질 관리와 평가 지표 개선에 기여한다는 점에 있다.

사례관리 표준모델은 수급자의 다차원적 욕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적합한 서비스를 사정, 계획, 실행, 평가 및 종결의 순환 과정으로 운영하는 체계이다.

구체적으로, 초기면접 단계에서는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존중을 기반으로 한 관계를 수립한다. 사정 단계에서는 욕구와 강점을 구분하여 분석하며,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요인을 포괄적으로 평가한다.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단기와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사례회의를 통해 합의된 목표를 도출한다. 실행 단계에서는 다학제적 협력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해 휴머니티드 기법을 적용한 실천을 수행한다. 평가와 종결 단계에서는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긍정적 경험을 강화하여 향후 요양 참여를 촉진한다.

이 모델은 단순한 서비스 연계 절차에 그치지 않고, 수급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인간다운 요양을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둔다.

휴머니티드 케어는 급여제공 모델과 사례관리 표준모델 모두에서 핵심적인 의미를 가진다. 급여제공 과정에서는 바라보기, 말하기, 접촉하기, 서기를 적용하여 일상적 케어 속에서 신뢰와 존엄을 강화한다. 사례관리 과정에서는 초기면접과 사정 단계에서 비언어적 표현을 존중하고, 계획과 실행 단계에서 수급자의 주도성을 강조하며, 평가 단계에서는 긍정적 경험을 축적하여 요양 참여 의지를 높인다.

최근 선행연구에 따르면, 휴머니티드는 치매 노인의 행동·심리증상(BPSD)을 완화하고 케어 수용성을 증진시키며, 요양 제공자의 소진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또한 교육과정에 도입되어 간호사와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비용 대비 효과성 역시 검증되고 있다.

사례관리 표준모델은 휴머니티드의 이론과 기법, 그리고 국내 사례관리 교재가 제시하는 절차적 틀을 결합할 수 있다. 우선 휴머니티드가 제시하는 감각통합(시각·청각·촉각) 접근, 상호주시, 물리적 거리와 지속시간의 규정은 초기면접과 사정 단계에서 비언어적 신호를 포함한 다차원적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本田, 2022). 이러한 접근은 한국 사례관리 교재가 강조하는

“관계 속 상호작용”과 계획-실행-점검-조정의 순환 구조와 부합한다. 교재에서는 기록과 평가를 질 관리와 책임성 확보의 수단으로 명시하고 있으며(한국사례관리학회, 2014), 이는 휴머니티드의 체계적 기록·피드백 절차와 상호 보완된다.

실행과 기록, 사례회의 역시 양자의 공통 기반을 찾을 수 있다. 교재는 면대면 직접기술과 간접조정, 그리고 공단-기관-지역자원의 협력을 통한 사례회의를 강조한다. 휴머니티드는 동시에 여러 사람이 발화하지 않고 “한 명의 화자” 원칙을 지키는 등 상호작용 규범을 제시함으로써 사례회의에서 합의된 계획을 현장 실행에서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게 한다(本田, 2022).

더 나아가 교재가 강조하는 인간중심, AIP(노인통합프로그램), 정상화 원칙은 휴머니티드의 가치와 철학과도 일치한다. 휴머니티드는 신체억제 금지, 야간수면 방해 최소화, 강제 케어 제로를 목표로 하는 등 존엄 기반의 표준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이는 사례관리의 계획과 실행 과정에서 강제 최소화와 자기결정권 존중을 제도화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한다(本田, 2016; ユマニチュード入門, 2014).

이상의 검토를 통해 급여제공 모델과 사례관리 표준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 실무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급여제공 모델은 휴머니티드의 4기둥과 표준 케어 계획에 내재화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서기 20분’ 기준이나 상호주시, 긍정적 언어 사용, 촉각적 안정 제공과 같은 구체적 지침을 일상화할 수 있다. 또한 다학제 컨퍼런스를 케어 현장과 결합하여 기능 평가, 목표 설정, 일일 실행, 기록, 재조정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사례관리 표준모델은 초기면접과 사정에서 감각적·비언어적 신호를 포함한 평가를 실시하고, 계획-실행-평가의 전 과정에 휴머니티드의 원칙을 삽입할 수 있다. 특히 강제 최소화와 수면 보호, 신체 억제 금지 등의 원칙을 적용해 인간다운 요양을 제도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 실행·기록·사례회의는 교재 절차를 준수하면서, 휴머니티드의 상호작용 규범을 반영한 팀 교육으로 일관성을 높일 수 있다.

Ⅲ. 기대효과 및 결론

휴머니티드 케어를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 모델과 사례관리 표준모델에 통합하여 인간중심 요양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휴머니티드는 치매 노인의 BP SD 완화, 케어 수용성 향상, ADL 유지, 제공자의 소진 감소 등 긍정적 효과를 보였으며(本田, 2016; 棄子 외, 2021), 이는 맞춤형과 표준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근거가 된다.

급여제공 모델에서는 ‘보기·말하기·접촉·서기’의 네 기둥과 3레벨 접근을 표준업무로 내재화 함으로써 기능 유지와 합병증 예방, 케어 거부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사례관리 표준모델은 감각·비언어 신호를 포함한 다차원적 사정, 강제 최소화와 자기결정권 존중, 기록·사례회의를 통한 품질관리 강화로 보완될 수 있다.

제안한 연구모형은 투입-과정-산출-결과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수급자의 존엄성 회복과 자기결정권 강화, 제공자 전문성 증진, 기관 서비스 질(QI) 개선, 정책적 표준화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다만 장기적 추적과 정량적 근거 축적, 조직문화·근무환경 개선은 향후 과제로 남는다.

결론적으로, 휴머니티드 기반 모델은 한국 장기요양 현장에서 “맞춤형이면서도 일관된” 케어를 구현할 수 있는 실천적 표준이 될 수 있으며, 초고령사회 대비 요양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 전략으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2023). 요양보호사 표준 양성 교재.
- 한국사례관리학회. (2014). 『사례관리론』. 서울: 학지사.
- 本田美和子. (2014). 『ユマニチュード入門』. 東京: 医学書院.
- Coulton, C. (1991). Measuring the quality of social services. *Social Service Review*, 65(1), 1-17.
- 棄子嘉美 외. (2021). ユマニチュード技法を用いた看護介入の効果に関する文献レビュー. *看護ケアサイエンス学会誌*, 20(2), 71-80.
- 山形県三川病院. (2019). 認知症患者へのユマニチュードケアの効果に関する事例研究.
- 本田美和子. (2016). 優しさを伝えるケア技術: ユマニチュード. *心身医*, 56(7), 692-697.
- 本田美和子. (2022). The effectiveness of multimodal communication care methodology “Humanitude”. *Tokyo Journal of Dementia Care Research*, 6, 28-39.
- 大坪昌喜・角マリ子. (2018). 我が国におけるユマニチュード実践の現状と課題に関する文献的考察.

AI・ICT技術を活用した協働学習型授業モデル開発に関する研究

ー「こども家庭福祉」科目における検証ー

益満孝一・猪谷生美・大竹山なつき

1. 問題の所在

21世紀のデジタル社会において、AI・ICT技術の急速な発展と普及は、あらゆる専門職領域に根本的な変革をもたらしている。特に大韓民国（以下、韓国）では、教育分野におけるデジタル化が国策として推進されており、その動向は国際的な注目を集めている。同国では2025年より、個別最適化された学習の実現を目的とした「AIデジタル教科書」の導入が開始された（韓国教育省、2023）。また、政府の支援を受けた活発なEdTech（Education Technology）産業が、公教育向けの多様なソリューションを開発しており、教育革新を技術面から支えるエコシステムが形成されている（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2024）。幼児教育の領域においても、韓国は2010年代から保育現場へのICT導入を先進的に進めてきたと報告されている（Pae, 2017）。

このような国際的な潮流の中、日本においても情報技術の活用は不可欠な要素となっている。保育所保育指針（2017年改定）で「情報機器を活用する際には、その特性を理解し、保育に効果的に取り入れていくよう配慮すること」と明記されて以降（厚生労働省、2017）、現場でのICT活用は急速に進展した。具体的には、子どもの発達記録や保育記録の効率的な管理、保護者と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ツール、保育実践の振り返りと改善などが挙げられる（全国保育士会、2023）。さらに、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拡大を契機に、オンライン保護者会やリモート研修が普及するなど、その活用範囲は格段に拡大している（日本保育学会、2022）。

こうした社会的、実践的需要の高まりを受け、国レベルでもデジタル人材の育成が急務とされている。文部科学省は「数理・データサイエンス・AI教育プログラム認定制度」を創設し、高等教育機関における体系的なデジタルリテラシー教育を推進している（内閣府、2022）。しかしながら、保育現場で求められる実践的なデジタル活用能力の育成は、従来の保育者養成教育において十分には検討されてこなかった。この養成段階における教育内容と、現場で必要とされる実践的能力との間に生じている乖離こそ、本研究が取り組むべき喫緊の課題である。

本研究で導入する協働学習（Collaborative Learning）は、学習者間の相互作用を通じて知識の共同構築を図る教育方法論として、その教育効果が多くの研究で実証されている（Vygotsky, 1978; Johnson & Johnson, 1999）。特に、AI・ICT技術と組み合わせることにより、情報収集・分析能力や問題解決能力の向上といった多面的な効果が報告されている（OECD, 2021）。

そこで本研究は、A短期大学の保育士および幼稚園教諭を養成する専攻（以下、B専攻）で開講されている科目「こども家庭福祉」を対象とする。同短期大学では、全学共通科目としてデータサイエンス教育を導入しており、専門科目におけるデジタル教育展開の基盤が整備されている。この環境下で、AI・ICT技術を活用した協働学習型授業モデルを開発し、その教育効果を定量的に検証することで、保育者養成課程における効果的なデジタル教育の在り方を探究する。具体的な研究課題として、①グループサイズ（2人組・4人組）による学習効果の違いの検証、②グループ内役割による学習特性の分析、③AI・ICT技術活用が協働学習に与える影響の解明、④保育者

養成教育における効果的なデジタル教育モデルの提案、の4点を設定する。

本研究の理論的意義は、保育者養成教育における協働学習理論とデジタル教育論の統合的枠組みの構築にある。また実践的意義としては、保育者の職業準備教育の質的向上に貢献し、その成果が他の保育者養成機関における教育実践の参考資料として活用されることが期待される。

2. 研究方法

2.1. 調査対象

本研究の調査対象は、A短期大学B専攻に在籍する2年次学生30名（女子）である。

2.2. 手続き

全15回の「こども家庭福祉」の授業において、AI・ICT技術を活用した協働学習を実践した。学生は2人組（18名）と4人組（12名）のグループに自主的に分かれ、指定された教科書の担当章について、PowerPointを用いた発表資料の作成と15分間の口頭発表を行った。

授業では、学生の進捗に応じてChatGPTや画像生成AIなどのAI技術の活用を促し、優れた活用事例はクラス全体で共有することで全体の質の向上を図った。また、学習内容の理解度を測る確認テストの問題作成においては、GoogleのAI支援ツールであるNotebookLMを活用し、効率的かつ体系的な作問を実現した。

2.3. 調査内容

授業実践の効果を測定するため、以下の4つの領域から構成される調査を実施した。

学習活動への参加状況：PowerPoint作成過程における8項目（情報検索、企画・構成、発表等）への関与度を10段階評価で測定した。

（1）A1 情報検索を行った（情報検索活動）

A2 PowerPointの文字入力を行った（文字入力作業）

A3 PowerPointの絵やグラフ、写真などの挿入を行った（視覚的要素作成）

A4 PowerPointの動画作成、音楽作成を行った（動画・音楽作成）

A5 PowerPointの企画や構成を行った（企画・構成立案）

A6 PowerPointの作成全般を行った（作成全般）

A7 発表を行った（発表実施）

A8 進行やスケジュール調整などの総括的な役割を行った（進行・調整役割）

（2）AIやICTの知識・技術について（B項目）

AIやICTの知識・技術に関する学習効果を測定するため、以下の5項目を設定した。評価基準は、1点「あてはまらない」、2点「あまりあてはまらない」、3点「どちらともいえない」、4点「かなりあてはまる」、5点「大変あてはまる」とした5段階評価を用いた。

B3 PowerPoint作成は楽しかった（学習の楽しさ）

B4 PowerPointをよりよくするためにAIを活用した（AI活用度）

B5 この授業を通して、AIやパソコンの知識や技術が増えた（知識・技術の向上実感）

B6 この授業を通して、AIやパソコンの知識や技術について、友だちと共有する楽しさを体験できた（知識・技術の共有体験）

B7 この授業を通して、AIやパソコンの知識や技術を日常的にも使うようになった（日常生活への転移）

（３）パワーポイント作成における貢献度

パワーポイント作成における貢献度を測定するため、以下の5項目を設定した。評価基準は1点：ほとんど私はしていない、3点：少し私はした、5点：みんなで分担しておこなった、7点：たいてい私はおこなった、10点：ほとんど私はおこなった、である。

A9パワーポイントの作成についての貢献度（総合的貢献度）

B2グループのお友だちの貢献度（他者評価）

（４）AI支援ツールを活用した協働型学習

学習内容の理解度を客観的に測定するため、教科書の各章（全15章）について5問ずつの○×問題を作成し、計75問（各1点）の確認テストを実施した。

2.4. 分析方法

収集したデータは、IBM SPSS Statistics Ver.30.Jを用いて分析した。記述統計を算出するとともに、グループサイズによる差を検証するために独立サンプルのt検定を行った。有意水準は5%に設定した。

3. 結果

3.1. 学習活動への参加状況

PowerPoint作成過程において、学生は情報検索（平均7.3点）、文字入力（平均6.9点）、視覚的要素作成（平均6.8点）などに積極的に関与していた。一方で、専門性が求められる動画・音楽作成（平均3.5点）は一部の学生に限られ、活動内容によって関与度に偏りが見られた。企画・構成や発表は「みんなで分担しておこなった」（5点）と回答した学生が最も多く、全体として協働的な取り組みが行われたことが確認された。（表1 学習活動参加状況（パワーポイント作成過程）：学会当日配布、以下同じ。）

3.2. AI・ICTの知識・技術について

AI・ICTの知識・技術に関する5項目全てにおいて、平均値が4.6以上と極めて高い肯定的な回答が得られた。特に「知識・技術の向上実感」（平均4.8点）、「AI活用度」（平均4.8点）、「日常生活への転移」（平均4.77点）が高く、学生が主体的に技術を活用し、その有用性を実感していることが示された。（表2 AIやICTの知識・技術について）

3.3. パワーポイント作成における貢献度

自身の作成への貢献度（自己評価）の平均は8.3点、グループの仲間からの貢献度（他者評価）の平均も8.3点であり、自己評価と他者評価が高い水準で一致していた。この結果から、グループ内での協働作業が円滑に進められ、互いの貢献が適切に認識されていたことが示唆される。（表3 パワーポイント作成における貢献度）

3.4. AI支援ツールを活用した学習内容の理解度

AIを用いて作成した確認テストの結果、得点分布は特定の層への偏りが見られず、中央値周辺（23点台）に学習者が集中する正規分布に近い傾向を示した。このことは、本授業モデルが多様な学習レベルの学生に対して、一定の学習効果をもたらした可能性を示唆している。

3.5. 協働学習におけるグループサイズ別の比較分析

グループサイズ（2人組・4人組）が学習活動の各項目に与える影響をt検定で分析した結果、いずれの項目においても統計的に有意な差は認められなかった（ $p > .05$ ）。このことから、本授業実践においては、グループの人数が学習効果に大きな影響を与えなかったと考えられる。（表4 協働学習におけるグループサイズ別の比較分析）

4. 考察

本研究で開発したAI・ICT技術を活用した協働学習モデルは、保育者養成課程の学生に対して高い教育効果を持つことが示された。第一に、学生はAI等のデジタルツールを積極的に活用し、自身の知識・技術の向上を強く実感していた。これは、専門科目の学習内容とデジタルスキルの育成を統合したアプローチが、学生の主体的な学びと学習意欲を促進したことを示している。

第二に、グループサイズによる学習効果に有意差がなかったという結果は、教育実践において重要な示唆を与える。これは、課題の内容や学生の状況に応じて、柔軟なグループ編成が可能であることを意味する。少人数教育が基本となる短期大学において、この知見は教育効果を最大化する上で有益である。

第三に、貢献度に関する自己評価と他者評価が高い水準で一致したことから、本モデルが円滑な協働関係の構築を促したことが示唆される。これは、将来保育現場で求められるチームワーク能力の素地を養う上で効果的であったと考えられる。

5. 結論

本研究は、AI・ICT技術を活用した協働学習型授業モデルが、保育者養成教育において高い効果を示すことを実証的に明らかにした。主要な結論は以下の通りである。

AI・ICT活用の高い効果：学生は主体的にAI・ICT技術を活用し、知識・技術の向上、学習意欲の向上、日常生活への応用といった多面的な効果を実感した。グループ構成の柔軟性：2人組と4人組の間で学習効果に有意差はなく、教育現場の状況に応じた柔軟なグループ編成が可能であることが示された。協働学習の促進：グループでの協働作業は円滑に行われ、学生の協働的問題解決能力の向上に寄与したことが示唆された。

これらの結果は、本授業モデルが21世紀の保育者に求められるデジタルリテラシーと協働性を同時に育成する有効な教育アプローチであることを示している。

6. 本研究の限界と今後の課題

本研究は単一の短期大学における30名の学生を対象とした実践であり、結果の一般化には限界がある。今後は、より大規模なサンプルでの検証や、他の科目での応用可能性の検討、卒業後の追跡調査による長期的な効果検証が必要である。

謝辞：本研究にあたり、アンケート調査にご協力いただきました受講生に深く感謝いたします。

▶ 제5세션 (장소: 427호)

제5세션 (개인발표)		東北亜：韓国文学 & 信仰		
시간	발표자	발표제목	토론자	좌장& 사회자
14:50~15:20	李京蘭 (国立釜慶大学)	한국과 일본의 수목신앙 비교 연구	蘇仁鎬 (淸州大学)	· 座長 · 蔡榮姬 (国立 釜慶大学) · 司會 · 李恩珍 (全北大学)
15:20~15:50	蘇仁鎬 (淸州大学)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문학사의 두 좌표	이오륜 (成均館大学)	
15:50~16:20	이오륜 (成均館大学)	망국(亡國)의 시대, 유학자 김윤식의 시각: 전통적 세계관과 서양 신학문에 대한 비판적 수용	李京蘭 (国立釜慶大学)	
東北亜：韓国 社会 & 思想				
시간	발표자	발표제목	토론자	좌장& 사회자
16:30~17:00	李京和 (国立釜慶大学)	Fluxus and Young Children' s Play: A Resonance	李恩珍 (全北大学)	· 座長 · 蘇仁鎬 (淸州大学)
17:00~17:30	李恩珍 (全北大学)	여성학적 입장에서 본 알타이벨트 민족들의 혼인문화	洪昌裕 (国立釜慶大学)	
17:30~18:00	洪昌裕 (国立釜慶大学)	부산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극복하는 혁신적 도시브랜딩 전략	李京和 (国立釜慶大学)	· 司會 · 李京蘭 (国立 釜慶大学)
18:10~18:40	동아시아일본학회 2025년도 하반기 정기총회			
	2025년 동북아시아문화학회 정기총회 및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시상			
	폐회식			

한국과 일본의 수목신앙 비교 연구

이경란 (국립부경대학교 강사)

I. 머리말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 마을 입구 또는 한가운데 자리한 당산나무 또는 신목은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공동체를 지켜주는 신목(神木)이었다. 은행나무, 느티나무, 소나무와 같은 장수목(長壽木) 은행나무, 느티나무, 소나무와 같은 장수목(長壽木)은 마을 사람들의 보호와 풍요, 조상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의의 대상이었으며, 정초나 단옷날에 행해진 당산제 또는 대신제는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대표적 민속 행사였다. 나무는 인간과 신령, 그리고 공동체를 매개하는 초월적 존재로 인식되었으며, 제의 과정에서 금줄을 두르는 의례가 수반되었다. 일반적으로 금줄은 새끼줄을 오른쪽으로 꼬지만, 금줄인 경우 반대로 왼쪽으로 꼬아 일상성이 아님을 표시하고 나무가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라 신체(神體)로 간주되었음을 보여준다.

수목신앙은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었다. 일본에서도 신목(神木)과 신사 숲(鎮守の森)을 중심으로 유사한 신앙 구조가 발달하였다. 비쭈기나무, 삼나무, 녹나무와 같은 거수(巨樹)나 고목(古木)은 신령이 깃드는 장소로 인식되었으며, 시메나와(注連縄)를 두르거나 마쓰리(祭)를 통해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하였다. 한국의 당산제와 일본의 신사제와는 구조적으로 유사하지만, 일본의 경우 신목이 신사라는 제도적 공간 속에서 숭배되고 국가 신도(神道)와 결합하여 제도화된 성격을 띠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수목신앙을 비교 민속학적 관점에서 고찰한다. 한국의 당산목과 당산제를 중심으로 한 민속적 신앙 구조와, 일본의 신목 및 신사 숲을 중심으로 한 신앙 구조를 대조함으로써, 동아시아적 공통성과 지역적 차이를 동시에 드러내고자 한다. 나아가 수목신앙이 단순한 자연 숭배를 넘어 공동체와 신령, 사회적 질서를 매개하는 중요한 민속적 장치였음을 밝히고자 한다.

II. 한국의 수목신앙

한국의 수목신앙은 고대부터 마을 공동체 신앙과 결합하여 발전하였다. 고조선의 신단수(神檀樹) 전승은 나무가 천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매개체였음을 보여준다. 삼국시대에도 수목은 성역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고구려 고분 벽화에는 세계수 형상이 표현되었으며, 백제 금동대향로에는 연꽃과 더불어 신성한 나무가 묘사되어 불교와 융합된 수목 신앙을 반영한다. 신라의 시림, 천경림, 낭산 신유림 등 왕실 차원의 신성 숲 전승 역시 나무와 숲이 공동체와 국가 정체성을 지탱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불교 억압 정책 속에서도 마을 단위의 수목신앙은 민속 차원에서 유지되었다. 마을 어귀, 들판, 중심부에 서 있는 느티나무, 은행나무, 팽나무는 공동체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숭배되었으며, 정초나 단옷날에 당산제를 올려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였다. 제가 아닌 평상시에도 떡·술·김밥 같은 음식이 공물로 바쳐져 있는 것이 목격되고, 제 때에는 나무에 금줄을 두르거나 장승을 세워 신성한 공간을 표시하였다. 이때 금줄은 평소의 오른쪽 꼬임이 아닌 반대로 왼쪽으로 꼬아짐으로써 일상의례가 아님을 표시한다. 이러한 의례는 나무를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라 공동체의 질서와 안녕을 보장하는 신체(神體)로 인식하게 하는 장치였다.

현대에도 수목신앙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제주 와흘본향당의 팽나무는 화재와 태풍으로 고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수호신으로 제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부산 기장의 곰솔은 마을 주민들의 신앙 대상이자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부산 구포 당숲의 팽나무는 생활 폐수로 고사하였다. 와흘본향당과 구포당숲 등은 수목은 고사했지만 제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신목이 단순히 물리적 나무가 아니라 공동체 정신을 담는 상징성 그리고 수목에 대한 현대인의 이중성을 보여준다.

또한 불교 사찰과 결합한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여러 사례가 있지만 전라북도 부안 내소사의 느티나무, 충청북도 영동 영국사와 충청남도 금산 보석사에는 거대한 은행나무가 당산목으로 숭배되며, 사찰이 불교 의례와 당산제를 함께 주관하는 전통이 이어져 왔다. 특히 이들 사찰들은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중심이 되었고, 사찰 승려들이 불교 의례를 결합하여 공동체적 결속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융합은 불교가 민속신앙을 배척하기보다 포용하면서 지역사회 속에 뿌리내린 방식을 잘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수목신앙은 민속 공동체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불교와의 융합을 통해 제도 종교가 충족하지 못하는 영역을 보완하였다. 나무는 단순한 숭배 대상이 아니라 공동체의 정체성과 질서를 지탱하는 상징적 축으로 기능하였다.

Ⅲ. 일본의 수목신앙

일본의 수목신앙은 고대 신화 속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고사기』와 『일본서기』에는 아마테라스가 히노키·쿠스노키를 재목으로 신사를 세우게 했다는 전승, 스사노오가 느티나무로 화신했다는 신화가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전승은 특정 수종이 신의 좌소로 간주되었음을 보여주며, 나무가 신령의 강림처로 제도화되는 토대가 되었다.

신사 제도 정비 이후, 수목신앙은 국가 신도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자리 잡았다. 신사 경내의 신목은 신의 임시 거처(依代, 요리시로)로 여겨졌고, 녹나무·삼나무·편백·비쭈기나무 등은 대표적 신목으로 숭배되었다. 나무에 시메나와(注連縄)를 두르고 고헤이(御幣)를 매다는 의례는 신령의 강림을 청하는 상징 행위였다. 각 지역의 마쓰리는 신목을 매개로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는 중요한 축제로 기능하였다.

일본 수목신앙은 민속적 차원뿐 아니라 문화예술적으로도 확장되었다. 정원 양식에서는 특정 나무가 공간의 중심으로 배치되어 신성성을 표현했고, 이케바나에서는 나무와 꽃이 신의 현현을 상징하는 장치가 되었다. 또한 헤이안조 문학에서는 거목이 신과 인간 감정의 매개로 형상화되었으며, 나무 아래에서 벌어지는 신비적 체험담이 괴이문학으로 전승되었다.

불교 전래 이후 신불습합의 전개는 수목신앙에도 영향을 미쳤다. 사찰 경내의 노거수는 불법을 수호하는 가람신의 상징으로 인식되었고, 불보살의 좌소로 간주되었다. 도쿄 세타가야구의 젠요지(善養寺) 비자나무는 그 대표적 사례이다. 수령 700~800년의 거목 뿌리에는 수동(樹洞)이 있어 그 속에 공양탑이 안치되었고, 나무 자체가 제단으로 기능하였다. 사찰 주지는 차를 나무에 올리며 불교적 공양과 수목신앙을 결합하였고, 비자 열매는 수확되어 신도들에게 성물처럼 나누어졌다. 이로써 나무는 사찰 공동체와 불교 의례의 중심이 되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나나오시의 지조지(實相寺) 모밀잣밤나무가 있다. 이 나무는 수령 700년의 신목으로, '절체절명의 순간 기도하면 반드시 도움을 준다'는 신탁이 전승된다. 나무 자체가 불보살의 현현처로 받아들여지며, 사찰과 민속 신앙이 교차하는 신불습합적 성격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일본의 수목신앙은 신사 제도를 통한 국가적 조직화와 민속·불교적 층위가 교차하

며 전개되었다. 나무는 신의 강림처이자 불보살의 좌소로 인식되었고, 공동체 의례와 문화예술, 불교 신앙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성역화되었다. 이로써 일본의 수목신앙은 단순한 자연 숭배를 넘어 신사·사찰·민속이 교차하는 복합적 종교 문화로 정착하였다.

IV. 수목신앙의 비교와 의의

1. 동아시아적 보편성과 한국적 전개

한·일의 수목신앙은 동아시아 신관의 공통 기반 위에서 성립하였다. 나무는 하늘과 땅, 인간과 신령을 잇는 신체로 인식되며, 공동체가 신과 교감하는 통로로 기능한다. 이때 핵심은 ‘자연물 자체’에 깃든 신성에 대한 체감이며, 의례·표징·공간 배치가 그 체감을 공동체적 경험으로 전환하는 장치라는 점이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전환이 마을 공동체의 자율적 운영을 매개로 안정화되었다. 즉, 수목을 둘러싼 상징과 행동은 사찰·서낭당·마을 어귀라는 생활 공간 속에서 주민 합의의 의례화로 정착했고, 그 과정에서 종교적·사회적 기능이 포개졌다.

이 전개는 첫째, 주체의 문제에서 분명하다. 주민이 기획·집행·평가까지 담당하는 의례 구조는 신앙의 ‘제도화’보다 ‘공동체화’를 앞세운다. 의례의 형식은 시대·지역에 따라 변화하지만, 참여자 네트워크와 역할 분담(예컨대 준비·집례·재정·사후 관리)은 마을 질서의 일부가 되어 반복을 보장한다. 둘째, 공간 기억의 문제에서, 신목이 훼손·고사해도 의례가 지속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수목신앙의 핵심이 나무에 고정된 숭배가 아니라, 나무를 매개로 생성된 관계·기억·규범의 지속에 있음을 말해 준다. 셋째, 불교와의 결합에서, 불교의례는 공동체 의례의 언어와 형식을 흡수하며 상호 조정되었다. 불교가 초월적 구조를 제공했다면, 공동체 의례는 ‘생활적 안녕’을 제도화했고, 양자는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했다. 이 결합은 ‘신격의 위계’보다 ‘공동체 효용’에 따라 합리화되었고, 결과적으로 한국 수목신앙은 민속적 자율성과 사찰의례의 상호작용 속에서 안정적인 복합 체계를 만들어 냈다.

한국적 전개의 또 다른 특징은 윤리적·생태적 감수성의 내장이다. 수목을 금기·표징 등의 경계 짓는 행위와 정화·보수·보호 등의 돌보는 행위가 결합된 대상으로 대하며, 공동체의 질서·복지와 직결된 규약으로 관리한다. 근대 이후 보호수·문화재 지정은 이 민속적 감수성을 공적 제도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나 지정의 근거와 실천의 현장은 여전히 공동체에 뿌리내려 있으며, 공동체의 동의·참여가 있을 때만 제도적 보호가 실효를 거둔다. 요컨대 한국의 수목신앙은 국가의 승인보다 마을의 승인을 우선하는 구조를 통해, 종교적 신념·사회적 규범·생태적 실천을 생활권 단위의 통합 질서로 묶어 낸다.

마지막으로, 한국적 전개는 의례의 표층 변화와 심층 지속이라는 이중 운동을 보인다. 표층에서는 축제화·관광화가 진행되며 서사와 연출이 현대적으로 개편되지만, 심층에서는 불안 해소·공동체 재확인·자연 경외라는 기능이 변함없이 작동한다. 이로써 수목신앙은 과거의 잔재가 아니라, 변형을 수용하며 현재성을 갱신하는 살아 있는 문화적 실천으로 남는다.

2. 일본의 제도화·병존 구조와 현대적 의의

일본의 경우 동일한 신관을 공유하면서도 제도 종교의 프레임 속에서 수목신앙이 조직화되었다. 핵심은 ‘나무=신의 좌소’라는 관념을 신사 제도가 공인·관리한다는 점이다. 이는 특정 수종·표징(시메나와·오헤이 등)·배치 규범을 표준화하고, 축제·기원·금기를 공적 의례로 승인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그 결과 수목신앙은 민속적 자율성만으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지속 가능성과 가시성을 제도적으로 보장받는다.

이 구조는 신불관계에서도 특징적이다. 일본은 오랜 기간 신불융합의 논리로 신목·불교가

공존하는 해석들을 유지했고, 메이징이의 분리 정책을 거친 뒤에도 현장의 실천은 관습적 병존을 다층적으로 지속했다. 중요한 것은, 병존의 원리가 교리적 통일이 아니라 장(場)과 역할의 분담에 있다는 점이다. 신목은 '현현·강림'의 장소를 상징하고, 불교는 구복·교화의 기능을 맡는 식으로 공간과 기능이 협업한다. 즉, 신앙의 진위를 가르는 논증보다 공간·의례·실천이 만들어 내는 합치가 우선한다.

제도화는 동시에 위험 관리와 보존 기술을 고도화한다. 일본의 신사들은 신목의 병해·노거수 관리·안전 동선을 과학적으로 설계하며, 문화재·경관 보존과 연계된 운영 지침을 발전시켜왔다. 이 과정에서 수목신앙은 종교 행위에 그치지 않고, 경관 정책·관광·지역경제와 결합한 복합 시스템으로 확장되었다. 다만, 제도화가 강할수록 참여의 자발성·지역성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봉사·자치회·보조금 제도 등이 신사 운영과 연계되며 제도와 공동체의 접합부를 촘촘히 만든다.

현대적 의의 측면에서 일본의 수목신앙은 세 가지 합의를 제공한다. 첫째, 공공성의 확장이다. 신목은 사적인 기복의 대상이면서도 경관·안전·교육의 공공 자원이 된다. 둘째, 지식의 혼성이다. 전통 지식(금기·의례)과 현대 과학(수목의학·안전공학)이 결합해 돌봄으로서의 신앙을 제도화한다. 셋째, 병존의 정치다. 종교 분화와 세속화를 경험한 사회에서, 서로 다른 체계(신도·불교·지방행정)가 갈등 최소화의 규범을 합의하고 의례를 통해 반복 실천한다. 여기서 수목은 단순한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의 매개가 된다.

이상의 비교에서 드러나는 가장 큰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공동체의 자율로부터 신앙·규범·생태 실천을 엮어 내는 모델을, 일본은 제도의 안정성으로부터 보존·가시화·전승을 담보하는 모델을 제시한다. 둘째, 양국 모두 수목신앙을 통해 인간·자연·사회를 재배열하며, 불안 관리·정체성 확인·윤리 형성이라는 기능을 수행한다. 셋째, 기후 위기 시대에 수목신앙은 환경 인문학적 자산이다. 한국의 모델은 참여·공감·돌봄의 미시적 회복력을, 일본의 모델은 장기 보존·안전·경관 관리의 거시적 체계를 보여 준다. 비교의 의의는 어느 한쪽의 우위를 가리는 데 있지 않고, 공동체성의 깊이와 제도성의 넓이를 상호 보완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한다는 데 있다. 이때 나무는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라, 기억을 조직하고 합의를 갱신하는 상징적 축(軸)으로 작동한다.

V. 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과 일본의 수목신앙은 공통적으로 나무를 신령이 깃든 신체(神體)로 인식하고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를 매개하는 신앙 체계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전개의 양상에서는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은 민속 공동체 중심의 자율적 의례 구조를 유지하면서 불교와 융합하여 발전하였고, 일본은 신사의 제도적 틀 속에서 신도와 결합하여 불교와 병존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동일한 신관(神觀)을 공유하면서도 각 지역의 사회적·정치적 맥락에 따라 신앙의 형태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수목신앙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종교사적 측면에서 수목신앙은 외래 종교 수용 과정에서 토착 신앙과 결합하여 독자적인 종교 문화를 형성한 중요한 사례이다. 둘째, 문화사적 측면에서 나무는 단순한 숭배 대상이 아니라 공동체의 정체성과 사회적 결속을 담보하는 상징적 축으로 기능하였다. 셋째, 현대적 측면에서 수목신앙은 오늘날 환경 위기와 생태 윤리 담론 속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성찰하게 하는 귀중한 전통적 자산으로 재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수목신앙 비교는 단순한 역사적 고찰을 넘어, 동아시아적 보편성과

지역적 독자성을 동시에 드러내는 학술적 의미를 지닌다. 나무를 매개로 한 인간과 자연, 공동체와 종교의 관계망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문화적 실천이며, 앞으로의 종교문화 연구와 환경 인문학 논의 속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될 것으로 본다.

【 Abstract 】

A Comparative Study of Tree Worship in Korea and Japan

LEE Kyongra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Tree veneration in Korea and Japan commonly regarded trees as sacred bodies inhabited by divine spirits, forming a religious system that mediated communal well-being and social order. Yet, their trajectories diverged: in Korea, arboreal worship was sustained through autonomous communal rituals and developed further through integration with Buddhism; in Japan, it was institutionalized within the Shinto shrine system and coexisted with Buddhism under the framework of state Shinto. This contrast demonstrates how a shared cosmology could evolve differently depending on social and political contexts. The significance of studying tree faith can be summarized in three points. First, from a religious-historical perspective, it illustrates how indigenous beliefs interacted with incoming religions to create distinctive cultural forms. Second, from a cultural-historical perspective, trees functioned not merely as objects of worship but as symbolic axes sustaining communal identity and cohesion. Third, in modern contexts, tree faith offers valuable insights into human - nature relations, providing resources for ecological ethics amid environmental crises. Therefore, the comparative study of Korean and Japanese tree faith reveals both East Asian universality and regional particularity, underscoring its ongoing relevance as a cultural practice and its importance for future research in religious culture and environmental humanities.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문학사의 두 좌표

소인호 (청주대학교 교수)

1. 서론

중국에서의 한국문학사 연구는 몇 단계의 변천 과정을 겪어 왔다. 허문섭의 『조선고전문학사』(1985)는 출간 이후 많은 대학에서 주교재로 채택되면서 초창기 한국문학사 교육에 중요한 기준점을 제공하였다. 중국에서의 한국문학사 연구가 아직 뿌리내리지 않은 상태였던 만큼 기본적으로 북한의 문학사 서술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후에는 한중 수교를 계기로 남한에서의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남북한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최근에는 자체적인 연구 역량이 쌓이면서 동아시아적 상호 관계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엿보인다. 이암 외, 『조선문학통사』(2010)는 현 단계에서 중국의 한국문학 연구 수준을 집대성한 대표적인 업적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조선고전문학사』와 『조선문학통사』는 사실상 중국에서 한국문학사 연구의 출발점과 종착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두 문학사는 시기별로 서두에 일반적인 개황을 제시하고 대표적인 장르의 동향과 주요 작가 및 작품을 다루는 방식으로, 중국의 문학사가 채택하고 있는 일반적인 체제를 따르고 있다. 영역별 배분을 보면 『조선문학통사』에서는 한문학과 불교문학, 비평문학의 비중이 확대되었고, 특히 한중 교류와 연관된 내용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하에서는 편의상 시가와 산문 문학의 두 영역으로 나누어 주요 갈래에 대한 기술 양상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2. 영역별 기술 양상 비교

2.1. 시가 문학

2.1.1. 국어 시가

원시 고대 가요는 모두 <구지가>와 <공후인>만을 다루었다. 『조선고전문학사』는 <구지가>를 원시적인 노동가요적 성격과 의식가요적 성격이 복합된 최초의 인민구전가요로, <공후인>을 노예제사회가 형성되면서 출현한 개인 창작 고대서정가요로 보았다. 『조선문학통사』는 ‘구하구하(龜何龜何)’라는 이두식 표현에 주목하여 <구지가>를 조선 고대의 향곡과 향가체를 병용한 예술 형식으로 보았다.

삼국시대의 구전가요는 향가의 출현과 서정시 문학의 발전을 촉진하였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가 부여된다. 『조선문학통사』는 한문으로 기록되고 악보와 노래가 수반되며 향악 혹은 속악으로 불렸다는 점에서 ‘향곡’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산유화>에 대해서는, 원래 부여 지방에서 유행하던 남녀상열지사가 백제 유민의 망국의 한을 표현한 노래로 전변되어 온 것으로 보았다. 『조선고전문학사』는 <목주가>를 고려가요 <사모곡>과 연관 지으면서, 신라에서 창작되어 구전되다가 조선시대에 문자로 고착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향가에 대해서, 『조선고전문학사』는 신라에서 기원하여 향찰표기법에 의해 쓰여진 노래로 규정하였다. 특히 10구체 향가는 조선 최초의 정형시 형식으로서 후대의 민속시가 형식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조선문학통사』는 신라의 노래로 한정하지 않고 삼국시기에 발생한 향찰로 표기된 민속시가 양식이라는 점에서 향곡과 구분하였다. <서동요>는 현전하는 백제의 유일한 향가로 보았다.

고려시대 국문 시가 부분에서, 『조선평전문학사』는 10구체 향가 형식이 6구체 구성 형식을 가진 경기체가를 거쳐 3장 6구의 시조 형식으로 계승되었다는 합법칙적 발전 구도를 제시하였다. 『조선문학통사』는 고려 속요에 대해서 ‘장가’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절주와 음률의 자유로움, 연장체 형식, 감탄사와 의성어로 구성된 낙구 형식 등을 주요 특징으로 들었다. 경기체가는, 장가의 영향을 받았으나 한시도 전통 국어시기도 아닌 새로운 형식이라는 점에서, ‘별곡’으로 지칭하였다.

조선 전기 국문 시가 부분에서, 『조선평전문학사』는 악장을 ‘건국송가’로 지칭하고 경기체가는 별도로 다루지 않았다. 가사는 경기체가와 시조의 기본 율조와 고려 서정가요의 장가적 구성 등 선행 민족시가 형식의 요소들을 계승하여 나타난 새로운 시가 형식으로 파악하고 정극인의 <상춘곡>을 첫 작품으로 보았다. 반면에 『조선문학통사』는 포교를 위한 고려말 승려의 작품에서 기원하여 조선의 사대부가 계승 발전시킨 양식으로 보면서 혜근의 <승원가>를 첫 작품으로 꼽았다. 특히 ‘3대 국어시인’으로 명명한 정철, 윤선도, 박인로의 작품 세계를 시가 형식, 이미지, 언어, 예술 수법, 풍격의 측면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다.

조선 후기 국문 시가 부분에서, 『조선평전문학사』는 평민층 시조 시인들의 문학 유파 형성과 창작 및 시평 활동, 국문 시가집의 편찬 사업을 가장 앞세웠다. 가사의 분화 발전 경향에 대해서는 잡가와 규방가사, 기행가사, 일반 장편가사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면서 근대 계몽기 가사 및 창가와 의 계기적 연관성을 강조하였다. 잡가는 가사의 분화 발전 과정에서 출현하여 17세기 후반 이후 창곡의 성행 과정에서 주로 도시 평민층 가객들에 의해 창작 향유된 가사의 변종으로 파악하였다. 『조선문학통사』는 가사의 발전 경향으로 제재와 작자층의 확대, 서사적 경향성의 강화, 민족 고유 언어의 활용 등을 제시하면서 규방가사와 기행가사의 예술적 성취를 가장 높이 평가하였다. 잡가의 특징으로는 작자가 대부분 하층 인물로 추정되는 가운데 내용상 도시 평민의 생활 감정을 노래하였고, 형식상 가사 시조 민요 판소리 체제를 받아들여 다원적 특색을 지닌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서 시가 이론 비평을 추가 기술하고 있는데, 실학과 문학관이 등장하여 민족문학론과 자주적 문학론을 내세우고 한중 시가 이론의 관계를 재정립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1.2. 한시

삼국시기의 한시로는 <황조가>, <영고석>, <견우중문시>, <태평송>이 다루어졌다. 통일신라시대 한시는 『전당시』에 수록된 작가와 작품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데, 『조선문학통사』에서는 김교각을 한중 문화교류의 상징적 인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고려시대의 한시에서, 『조선평전문학사』는 상대적으로 고려 전기의 서정 한시를 소략하게 취급하고 해좌칠현파의 낭만주의적 창작 경향과 이규보의 사실주의 시풍을 상세히 기술하였다. 『조선문학통사』는 고려 전기 한시를 문종(1046-83)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고려 후기는 조선 한시 문학이 최고봉에 이른 시기로 보아 무신란과 공민왕 즉위를 경계로 세분하여 다루었다. 특히 이제현을 이규보와 함께 ‘고려 한시의 쌍벽’으로 내세우며 별도의 장을 할애하면서, 그의 원나라에서의 문학 활동을 ‘中朝문학 공동의 자산’으로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조선 사절문학의 발전사를 개척하였다는 점에서 정몽주의 사행시를 상세히 소개하였다.

조선 전기 부분을 보면, 『조선평전문학사』에서 따로 기술되지 않은 사절문학과 불교문학, 악부시가 『조선문학통사』에서는 별도의 장으로 추가, 강조되어 있다. 사절문학은 고려시기에 이어 한중 문화교류의 차원에서 거듭 비중 있게 다루었는데, 40여 종에 달하는 <조천록> 가운데 대표적인 사행시를 선별하여 상세하게 소개하였다. 불교문학은 불교 시가(경기체가, 승려

와 일반대중의 국문시가, 국문장편서사시), 불교 산문(정론산문, 불교고사, 불교전기, 국문불교 서사산문, 국문소설), 선시(禪詩)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이전 시기에 비해 조선조의 악부시는 서사성이 강화되고 시적 형식이 다변화되면서 운율과 수사법, 조선식 한자어의 활용 면에서 높은 예술성과 민족적 특색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하였다.

조선 후기 한시에서 『조선고전문학사』는 위항시인(평민 시인)과 김립의 작품을 중점적으로 소개하였다. 위항시인 한시의 주요 특징으로는 불합리한 현실에 대한 비판, 봉건적 착취에 대한 폭로, 피압박민들의 불행한 운명에 대한 동정, 조국의 아름다움에 대한 예찬, 민간의 인정 세태에 대한 찬미, 근대적 사회경제 동향의 반영 등을 꼽았다. 김립은 특수한 작시 기교와 파격적인 한시 형식을 창조함으로써 봉건 말기 민족시가 발전의 새로운 근대적 경향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이 시기를 대표하는 민족적 서정시인이자 풍자시인으로 평가하였다. 『조선문학통사』는 진보 문인의 한시, 해동악부체, 위항시, 김립의 한시를 다루었다. 위항시인의 한시는 17-18세기 중엽(형성기), 18세기 후반-19세기 중엽(시사 결성과 가집 활성화), 19세기 후반(쇠퇴기)의 세 단계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특히 '해동악부체'에 대해서는 구성과 형식, 음악적 특성 면에서 중국의 악부와 차별화된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2.2. 산문 문학

2.2.1. 설화

신화 부분에서는 두 문학사 모두 사회적 토대의 상이함을 근거로 '해모수신화'와 '주몽전설'을 분리 기술하였다. 이는 단군과 해모수 이야기를 '고대신화'로, 주몽과 혁거세 이야기를 '중세건국설화'로 구분하고 있는 북한 문학사의 시각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고전문학사』는 고조선의 <단군신화>, 부여의 <해모수신화>, 가야의 <수로왕신화>, 탐라의 <삼성혈신화>를 다루었다. <수로왕신화>와 <삼성혈신화>는 중세신화의 범위에 속하지만 그 연원이 상고시대로 소급된다는 것이다. 『조선문학통사』는 <삼성혈신화>를 제외하는 대신 <혁거세신화>를 추가하였다.

설화 자료의 선정을 보면, 삼국시기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통일신라시기에는 상당한 편차가 있다. 『조선고전문학사』는 건국 설화, 반침략 애국주의 설화, 반봉건 생활세태 설화 외에 불교 설화 정도를 추가하였다. 이에 비해 『조선문학통사』는 종교고사, 애정고사, 신기(神奇)고사, 풍속고사, 역사고사 등으로 폭넓게 다루고 있다. 하지만 <거타지> 설화의 주제를 당나라와의 선린 우호로 파악하는 등 다소 왜곡된 해석이 엿보인다. 고려 이후의 설화문학은 두 문학사 모두 별도로 다루지 않았다.

2.2.2. 산문 양식

삼국-통일신라 시대의 산문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발전 도식의 맥락에서 유사성을 보이지만 구체적인 산문 양식 및 관계 설정 면에서 일정한 차이가 드러난다. 『조선고전문학사』는 삼국 시기에 연대기와 전기, 정론적 산문, 비지문이 출현한 이후 통일신라 시기에 창작우화와 여행기, 수이전체와 같은 예술적 산문이 출현하면서 새로운 발전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조선문학통사』는 '수이전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부와 변문, 여행기(遊記)와 사전(史傳)문학에 주목하였다. 사전문학은 별도의 장으로 다루면서, 기존 문학사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녹진의 <간충공부>, 김장청의 <김유신행록>을 새로운 자료로 발굴 소개하였다.

고려시대에 새로 출현한 산문 양식으로는 가전(의인전기체)과 패설이 공통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그 발생 배경에 있어서는 일정한 관점 차이가 엿보인다. 『조선고전문학사』는 수이전

체 산문의 창작이 이어지는 가운데 역사산문을 비롯하여 패설문학과 의인전기체 산문이 새로 출현함으로써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하였다. 『조선문학통사』는 후대에 큰 영향을 미친 고려 산문의 특징적 갈래로서 부와 변문, 패설체 산문, 의전체 산문, 문학비평을 들었다. 중국에서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던 의전체(가전체)가 고려에서 상당한 규모로 발전한 점을 조선 한문 산문의 독특한 현상으로 보았다. 아울러 민족적 전통을 계승하려는 강한 사회적 목적의식을 드러내고, 다루는 대상과 내용이 민간고사나 역사지리 일화 문학비평 등으로 광범위하다는 점을 고려 패설체 산문의 특징으로 꼽았다. 한편 이 시기 역사 산문을 대표하는 『삼국사기』에 대해, 『조선고전문학사』는 열전에 수록된 전기 작품들의 문장 구성과 언어 표현이 소설적인 문체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였고, 『조선문학통사』는 열전뿐 아니라 본기의 문학적 가치도 적극적으로 평가하였다.

2.2.3. 소설

소설의 발생에 대해서는, 두 문학사 모두 조선시대에 와서 진정한 의미의 소설이 출현하여 서사문학 양식의 새로운 발전 단계가 시작된 것으로 파악하고 김시습의 『금오신화』를 첫 작품으로 꼽았다. 그 배경으로는 사회경제문화적 배경, 문학 자체의 발전, 외래문학의 영향이 공통적으로 제시되었다. 『조선고전문학사』는 중세 소설의 출현을 주로 패설문학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설명하면서, 『금오신화』를 근대적 의미의 단편소설의 제 요소를 구비한 중세소설의 첫 작품집으로 보았다. 『조선문학통사』는 패설체 산문과 함께 몽유록, 의전체 산문, 기행 산문, 기실 산문(실기류), 국어 산문 등을 폭넓게 서술하였다. 『금오신화』에 대해서는 작가 개인의 사상과 감정, 선명한 민족적 특색, 개성적 심미 표현 등에서 『전등신화』와의 차별성을 부여하고, 조선 전기문학 발전의 필연적 결과이자 진정한 의미의 첫 소설로 평가하였다.

조선후기 소설의 성행 배경으로는 사회경제적 변화, 서민층의 사회미학적 요구, 훈민정음의 광범한 사용, 풍부한 소설적 전통, 판소리 예술의 발전, 중국 소설의 수입과 전파, 書舖와 낭독소설 직업군의 출현 등이 공통적으로 언급되었다. 『조선고전문학사』는 국문소설을 구전설화에 기초한 민간 소설과 개인 창작 소설로, 한문소설을 단편소설집과 장편소설로 나누어 소개하였다. <임진록>은 조선 최초의 전쟁 제재 역사소설로, <홍길동전>은 중세 문학에서 처음으로 농민 대중의 반봉건 투쟁을 전면에 반영하고 농민 투쟁의 영도자 형상을 창조한 작품으로 평가하였다. 『조선문학통사』는 소설의 전체 규모를 국문소설 400종과 한문소설 200종 가량으로 파악하였다. <임진록>은 전쟁을 반영한 첫 연의성(演義性) 강사(講史)소설로, <홍길동전>은 이른 시기에 생산된 ‘문인 국어소설’로 소개하였다. 판소리계 소설에 대해서는 ‘강창각본체 소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특히 <춘향전>, <심청전>, <흥부전>을 ‘조선 3대 고전소설’로 지칭하고 후대의 소설, 공연, 영화, 지역 축제, 해외 사례 등을 소개하면서 현대적 계승 양상과 국제적 위상을 강조하였다.

3. 결론

이상에서 『조선고전문학사』와 『조선문학통사』의 영역별 기술 양상을 비교해 보았다.

허문섭의 『조선고전문학사』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문학사 기술에 의존하고 있지만, 중국에서 한국문학사 연구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시기별 기술에서는 민족적 양식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통시적인 합법칙적 계승 관계를 강조하였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불교문학이나 한문학, 연극 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작품에 대한 해석과 평가에서는 지배와 피지배, 민족과 외세, 사실주의와 낭만주의 등 이분법적 구도의 과도한 적용이 엿보인다.

이암 외, 『조선문학통사』는 현재까지 중국에서 이루어진 한국문학 연구 성과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통사로서의 성격을 구현하기 위해 문학을 둘러싸고 있는 ‘토양’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국문학의 전체적인 흐름과 주요 국면, 대표 작가와 작품을 총괄적으로 서술하였다. 남한과 북한, 중국에서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비교문학적인 관점도 적극 활용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작가와 작품이 추가적으로 발굴 소개되었고, 악부시와 사행문학 등 기존의 문학사에서 미흡하게 다루어졌던 분야의 서술이 대폭 보완되었다. 그렇지만 삼국 시기를 상고 문학에, 17세기를 조선 전기에 포함시키는 등 상호 이질적인 문학 현상을 하나의 시기로 묶어 서술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Two Coordinates of Korean Literature History Published in China

SO Inho (Cheongju University)

In this presentation, I compared the detailed descriptions of the two Korean literature history books which were respectively written by Heo Mun-seop, and Lee Am et al.. Through this, I tried to gauge the trends in the study of Korean literature history in China.

Although 『History of Classical Korean Literature』 relies mainly on North Korean literary history, it played an important role in laying the foundation for the study of Korean literary history in China. In the description of each era, national styles were given priority and the diachronic legal succession relationship was emphasized. In the interpretation and evaluation of the work, the dualistic structure of domination and subordination, nationality and externality, realism and romanticism was excessively applied.

The 『General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condenses the results of research on Korean literature that has been conducted in China. It comprehensively describes the overall flow and major aspects of Korean literature, as well as representative writers and works. Accordingly, new authors and works were additionally discovered and introduced, and descriptions of previously inadequately covered areas were significantly supplemented. On the other hand, the style and expression of the original work were not properly conveyed.

망국(亡國)의 시대, 유학자 김윤식의 시각: 전통적 세계관과 서양 신학문에 대한 비판적 수용

이오륜 (성균관대학교 유교철학·문화연구소 연구원)

1. 연구목표

본 연구는 조선 말기에서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조정의 고위 관료로 활동했던 김윤식(金允植, 1835-1922)이 국가의 쇠락과 외세의 압박 속에서 조선을 구하기 위해 어떠한 사고를 전개했는가를 규명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당시 김윤식은 전통적 가치와 근대적 요구 사이에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모색을 시도하였다. 그는 전통적 가치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마땅히 비판할 부분은 비판하고, 시대적 흐름과도 부합하도록 변용함으로써 조선의 생존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김윤식의 외교적 활동이나 정치적 입장에 치중하여 그의 사유를 지탱하는 철학적 기반에 대한 탐구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김윤식이 유가적 가치 체계를 기반으로 당시의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다.

첫째, 김윤식이 유가적 여러 덕목들을 국가의 존망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인식했음을 밝힌다. 그는 도덕 질서가 사회의 근본임을 강조하였으며, 도덕이 상실된 국가는 실질적으로 이미 멸망한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당시 사회에 만연한 미신과 풍수지리설을 유가적 논리에 근거하여 비판함으로써 합리적 사회 질서를 지향한 점을 고찰한다.

셋째, 외세의 침략과 근대 문물의 유입 속에서 서양 신학문을 단순한 모방이나 배척의 대상이 아니라 유가 이론의 현대적 확장으로 이해한 지점을 밝힌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한 사상가로서 김윤식 재조명하고자 한다. 나아가 한국 근대 지성사의 한 흐름을 한층 더 명확히 설명하고, 오늘날 직면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유의미한 시각들을 발굴하고자 한다.

2. 기대효과

본 연구가 지니는 기대효과는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김윤식에 대한 평가는 경술국치(庚戌國恥) 당시의 무기력한 모습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독립의 염원을 이루고자 노력했던 모습에 집중되었다. 이로 인해 그의 사유를 지탱하는 유가적 세계관과 실천적 원리에 대한 고찰은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본 연구는 김윤식의 정치·사회적 입장이 유가의 철학적 토대 위에서 어떻게 전개되었음을 체계적으로 규명함으로써 근대 지성사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둘째, 전통과 근대·동양과 서양·도덕과 제도의 조화를 모색한 김윤식의 태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치 갈등과 문화적 충돌을 성찰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특히 전통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새로운 사고를 수용하고자 하는 태도는 글로벌화와 AI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현대 사회에도 분명한 시사점을 남기고 있다.

셋째, 김윤식의 사유를 동아시아 전체 사상사의 맥락 속에 탐구함으로써 유가 전통과 근대적 학문 체계가 어떻게 조우하고 재구성될 수 있는지를 밝힐 수 있다. 이것은 한국 철학 독자성을 드러내는 부분이면서 동아시아 지성사 연구의 또다른 접근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요약

본 연구는 김윤식의 문집인 『운양집(雲養集)』과 당시의 사료들을 통해 그의 사유 구조를 심층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연구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김윤식은 전통적인 주자학을 비롯하여 개화사상까지 폭넓게 수학하면서도 유가의 정신을 수호하고자 노력한 인물이다. 그는 유가의 도덕적 원칙이 단순한 사변적 개념이 아니라 개인의 수양과 국가 경영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리임을 시종 강조한다. 예컨대 오류와 효·열과 같은 유가적 덕목이 국가의 존속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고 보았으며, 유가의 정신이 사라진 국가는 몰락할 수밖에 없다고 인식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그는 유가의 이상적 사회인 대동사회에 주목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근대 서양의 의회입헌주의를 유가적 정치 이상과 연결시켜 이해한다. 즉 김윤식에게 있어서 유가는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자 반드시 수호해야 할 원칙이었던 것이다.

둘째, 당시에는 미신에 대한 뿌리 깊은 믿음이 존재하였는데, 김윤식은 유가적 정신에 입각하여 이것들을 비판한다. 당시 유행했던 미신으로는 천당과 지옥을 비롯한 여러 종류가 있었지만 그가 유달리 강한 논조로 비판한 이론은 바로 사회에 널리 퍼진 풍수지리설이었다. 김윤식이 보기에 풍수지리설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가의 전통적 개념인 혼과 백·기의 감응에 대한 관점과는 완전히 위배되는 미신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그는 유가의 경전을 인용하거나 풍수지리설 자체의 논리적 모순을 이용함으로써 풍수지리설은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다. 이러한 견해는 그가 당시의 지식인으로서 상당히 수준 높은 비판적 사고를 갖추었음을 보여준다.

셋째, 김윤식은 조선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양의 신학문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많은 유학자들은 전통적 가치에 집착하며 신학문을 배척하였고, 김윤식은 이를 시대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 태도로 비판한다. 그렇지만 그는 서양의 신학문을 무조건적으로 추종해서는 안 되며, 조선의 현실에 맞게 변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김윤식은 학문의 본질이 유가의 욕예를 벗어날 수 없다고 보았는데, 서양의 신학문 또한 욕예의 확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그는 신학문을 유가적 시각에서 해석하고 수용하는 것이 전통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여겼다. 즉 서양의 신학문 또한 전통적 가치의 확장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통과 근대의 조화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해보면 김윤식은 전통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시대적 변화를 포용하려 했던 유학자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문물과 질서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을 제시해주며, 전통을 기반으로 하되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균형 잡힌 자세가 필요함을 일깨워준다.

참고문헌

- 구지현·백승철 옮김(2013), 『운양집 5』, 해안.
- 이주해·이지양·정두영 옮김(2013), 『운양집 4』, 해안.
- 장인성(2002), 『장소의 국제정치사상』,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성배(2001), 「김윤식의 정치사상 연구: 19세기 조선의 유교와 근대」,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 김용태(2010), 「애국계몽기 운양 김윤식의 사상과 활동」, 『한문학보』 제22집, 우리한문학회.
- 심의용(2019), 「동도서기론의 변용에 대한 연구 - 운양 김윤식을 중심으로」, 『인문사회21』 제10권 4호, 인문사회21.
- 이상일(1990), 「운양 김윤식의 정치사상연구」, 『태동고전연구』 제6집, 태동고전연구소.
- 이지양(2014), 「김윤식의 동도서기론과 개화론」, 『열상고전연구』 제42집, 열상고전연구회.
- 정성희(2015), 「근대 초기 유학자의 현실인식과 대응논리 - 운양 김윤식을 중심으로 -」, 『유학연구』 제32집, 유학연구소.
- 황재문(2013), 「운양 김윤식의 중국 인식 - 영선사 활동 시기를 중심으로」, 『고전과 해석』 제15집,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Confucian Scholar Kim Yunsik in an Era of National Ruin: A Critical View of Traditional Thought and Western Modern Knowledge

LEE Ohryun

(Institute of Confucian Philosophy & Culture, Sungkyunkwan University)

Kim Yunsik was a Confucian scholar who sought to defend Confucian values while engaging critically with both traditional Neo-Confucianism and Western modern knowledge. He emphasized that Confucian moral principles, such as the Five Relationships and filial piety, were not abstract ideas but practical foundations for personal cultivation and state governance. From this perspective, he linked the Confucian ideal of the Datong society with Western constitutionalism. At the same time, Kim criticized superstitions prevalent in his era, especially geomancy, which he regarded as logically inconsistent and contrary to Confucian doctrines. He argued that Joseon's survival required the adoption of Western learning, but he rejected uncritical imitation, insisting instead on adapting it within a Confucian framework. For him, Western knowledge could be understood as an extension of the Six Arts, and thus harmonized with Confucian tradition. In sum, Kim Yunsik can be seen as a thinker who endeavored to preserve Confucian values while selectively embracing the changes of his time.

Fluxus and Young Children's Play: A Resonance

LEE Kyeonghwa (Professor, Pukyong National University)

1. Introduction

The 2019 Revised Nuri Curriculum and the 2024 Revised Standard Childcare Curriculum declare a play-based curriculum as their fundamental orientation, emphasizing play as young children's primary mode of living and learning. This policy has stimulated pedagogical interest and inspired diverse academic research on early childhood play.

In contemporary philosophy, meta-discourses such as post-structuralism and new materialism have informed studies that adopt post-reconceptualization approach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se approaches attempt to move beyond dominant developmentalist perspectives, treating play as a rich, multifaceted practice in its own right or as a vital form of social participation, rather than reducing it to a tool for cognitive development (Osgood & de Rijke, 2025). While Johan Huizinga (1938/2000) long emphasized the fundamental role of play in human culture and art, and recent scholarship has begun to explore the intersections of contemporary art and playfulness, research that directly investigates early childhood play through an artistic lens remains scarce.

Amidst rapid societal change and the rise of new meta-discourses, exploring play from alternative perspectives is crucial to broadening the academic conversation. Responding to this need, the present study aims to reconceptualize the meaning of play by examining Fluxus, a significant artistic movement of the 1960s, and connecting its principles with the lived experiences of young children's play. In doing so, this paper seeks to broaden the interpretive horizon of play and to integrate practical discussions regarding play as art, particularly with respect to the positionality of teachers.

2. Resonating Fluxus and Early Childhood Play

Fluxus, an international art movement that emerged in the early 1960s, was an experimental, anti-establishment endeavor that challenged traditional art forms and expanded the very boundaries of art (Han, 2023). Founded by George Maciunas and shaped by the works of artists such as John Cage, Yoko Ono, Nam June Paik, and Alison Knowles, Fluxus rejected elite notions of high art and pursued new ways of living and creating. Although difficult to define with precision, Fluxus is often described through concepts such as the integration of art and life, experimentalism, chance, playfulness, temporality, and musicality (Friedman, 1998/2024).

For young children, play is inherently life itself, making its value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fundamental. Contemporary re-examinations of play, spanning philosophical perspectives as well as neuroscience, underscore its significance beyond the confines of developmental psychology. Huizinga (1938/2019) notably described play as a voluntary, rule-bound activity distinct from ordinary life, generating its own order and often involving tension and competition. More recently, Jeong (2024) has emphasized play as a process-oriented activity, one that embraces becoming and chance, and that challenges traditional dichotomies while fostering imagination and creativity.

In Korea, the national curriculum's field support documents, such as the Teachers' Guide for Understanding Play (Ministry of Education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9), highlight play's characteristics of freedom, initiative, and enjoyment—unconstrained by fixed purposes, rules, time, or space; driven by intrinsic motivation; and fostering immersion and imagination. These attributes of children's play reveal striking resonances with the principles of Fluxus art. Accordingly, this study explores the resonance between Fluxus and early childhood play across three interconnected dimensions: (1) boundary-transcendence, (2) repetition, chance, and variation, and (3) integration and solidarity.

2.1. Boundary-transcending

The first resonance between Fluxus art and children's play is boundary-transcending, which refers to efforts to cross or dismantle existing artistic, social, and conceptual boundaries. The Fluxus movement sought to reveal reality by overturning traditional concepts (Cho et al., 2011)—a drive similarly evident in children's play. Both Fluxus and play resonate in their capacity to traverse, blur, or collapse boundaries between art/play and life, as well as those of status and power.

2.1.1. Breaking Down the Boundaries Between Art/Play and Life

A central objective of Fluxus was to erase the boundaries between art and life (Friedman, 1998/2024). Artists such as Joseph Beuys, Marcel Duchamp, John Cage, and Allan Kaprow rejected conventional artistic divisions, integrating art with daily experiences, performances, and organic happenings (Kim, 2016; Park, 2022). Ultimately, Fluxus envisioned art and life as “a single unified field of reference” (Friedman, 1998/2024). Children's play similarly resonates with this principle, as it is inseparable from daily life and characterized by improvisation and process orientation. For example, when children plant watermelon seeds during snack time, their play becomes naturally intertwined with lived experience (Teachers' Guide for Understanding Play, pp. 72 - 79).

2.1.2. Transcending Boundaries of Status and Power

Fluxus artists actively resisted the authority and ownership associated with traditional art, embracing “an art as a score that could be indifferent to who performed, staged, or exhibited it” (Cho et al., 2011). Duchamp's readymades marked a shift from exclusive aesthetics to

inclusive action, thereby challenging the privileged status of the artist. This anti-elitist and democratic ethos—envisioning a world where every individual holds equal value—was also evident in Nam June Paik’s vision of accessible media (Friedman, 1998/2024). This rejection of normative dichotomies within Fluxus mirrors children’s play, which continually traverses and dismantles boundaries imposed by adults and institutions. For instance, when children create bicycle paths or build bird nests using a teacher’s plan and materials, but guided by their own interests, they exemplify this boundary-transcending nature of play (Teachers’ Guide for Understanding Play, pp. 146 - 161).

2.2. Repetition of Chance and Variation

The second resonance between Fluxus art and children’s play is the repetition of chance and variation. This characteristic embraces unpredictability, generating new meanings through an evolving process without fixed objectives. Fluxus art, never a finalized form but rather something constantly changing and in motion, is deeply tied to temporality and experimentalism. This impulse to subvert prescribed concepts is likewise inherent in children’s play, where engaging in chance-driven, experimental processes free from predetermined purposes creates a shared space of resonance.

2.2.1. Chance Events and Happenings

Fluxus employed chance as a core element, embracing unpredictability and happenings rather than pursuing the artist’s perfect control (Friedman, 1998/2024). By emphasizing spontaneity, Fluxus often incorporated humor and irony. John Cage, for example, advocated musical composition through chance, rejecting artificial structuring and employing diverse sounds through his prepared piano (Cho et al., 2011). Children’s play similarly unfolds as a sequence of chance-driven, unpredictable events. Its improvisational and accidental qualities align with Fluxus’s notion of “process-oriented art,” which privileges fluid movement over fixed forms. Children’s imaginative stories or spontaneous movements in response to discoveries such as trees, insects, or the wind exemplify this resonance (Teachers’ Guide for Understanding Play, pp. 160 - 163).

2.2.2. Repetition of Purposeless Becoming: Change Through Experimentation

Fluxus attributed meaning to the continuous process of becoming itself, rather than to predetermined goals. It understood art as “a process of continuous experimentation, invention, relationships, creation, and play” and viewed reality as constant transformation (Park, 2022). Nam June Paik similarly sought pathways toward the unknown, asserting art as an ideology for reaching the unrevealed, mirroring improvisation. In parallel, children’s play is a process of enjoyment and immersion, propelled by repetition and variation rather than external goals. It resonates with Fluxus by embracing uncertainty and continuously generating change. A child’s remark—“You’ll know what to play once you try it”—when asked about their play, perfectly illustrates this ethos (Teachers’ Guide for Understanding Play, pp. 64 - 71).

2.3. Integration and Solidarity

The third resonance between Fluxus art and children's play is integration and solidarity. This dimension involves organically unifying disparate elements within a given context and generating new meanings through collaborative engagement. Both Fluxus and play share this space of co-creation, integrating genres and media while fostering communication and solidarity.

2.3.1. Integration of Genres and Media

Fluxus was described as an “avant-garde art that declared the unity of life, existence, and art” (Cho et al., 2011). Rejecting the authority of traditional art institutions, Fluxus integrated public spaces and everyday life into action-based forms of public art (Kim, 2016). Furthermore, it pursued hybridization by blending rigid media, genres, and forms, and actively incorporated diverse materials. John Cage, for instance, integrated unconventional sounds (e.g., car brakes) into music, while Nam June Paik pioneered intermedia and total art through electronic music and video art (Cho et al., 2011). This integrative orientation strongly resonates with children's play. Children naturally combine and transform media and activities according to their interests, treating everyday objects as potential play materials. A child using an elephant-trunk instrument to imagine a swimming pool exemplifies this integration of genres and media (Teachers' Guide for Understanding Play, pp. 38 - 45).

2.3.2. Co-creation Through Communication and Solidarity

Fluxus sought to engage audiences as active participants rather than passive spectators (Friedman, 1998/2024). Forms such as event scores emphasized interaction, transforming art into a collaborative process between performer and audience. The “friends for friends” character of Fluxus festivals further illustrated this ethos of solidarity (Cho et al., 2011). Similarly, children's play is always relational and co-creative: children interact, collaborate, and sometimes conflict with one another—and with non-human elements—to create new play forms and meanings. Through such communication and solidarity, play is continuously generated and transformed, resonating with the Fluxus spirit. For instance, when children collectively devise new ways to spin tops—through dialogue, negotiation, and even conflict—they embody this shared space of co-creation (Teachers' Guide for Understanding Play, pp. 172 - 177).

3. (In)Conclusion: The Transforming Positionality of Teachers

The privileged position of play, long granted absolute value as a fundamental principle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can be traced to developmentalism—a dominant discourse that still exerts powerful influence. Grounded in this developmental paradigm, the current national

curriculum emphasizes play primarily as a process and method for children's learning. Teachers are expected to support child-initiated play by distinguishing between “play” and “activities” along a continuum of child versus teacher initiative (Pyle & Danniels, 2017). Within this framework, early childhood teachers are positioned as observers, recorders, and facilitators who enable children to engage in and enjoy play based on their own interests, learning through play. The teacher thus occupies the role of an external supporter, assisting children—the subjects of play—in their activities and outcomes.

But if we view children's play as art in itself, transcending developmentalist paradigms and the narrow frame of teaching and learning, how might the teacher's role as an outsider be reimagined? If play is understood as an act of transgressing and deconstructing boundaries, as a repetitive yet chance-driven process that constantly varies, and as a practice of solidarity and integration within entangled relations, then the educational space of play—and the (emergent, indeterminate) objects that arise within it—can be conceived as a vast assemblage, an art archive. In such a space, shared with children and akin to an art performance hall or museum, the teacher may enact roles as a co-creator of art with children, as a participatory audience member, as a curator, and at times as a docent.

In this sense, the teacher assumes the positionality of a curator who co-creates play with children while also collecting, preserving, managing, exhibiting, sharing, and researching the processes and materials of play. Simultaneously, the teacher may act as a docent who interprets and contextualizes these exhibited or shared artifacts, as well as the child-players who create them. As co-creator, participatory audience, curator, and docent, the teacher's task is not to discover new objects but to cultivate new relationships and new ideas within the shared milieu of the educational institution. It is thus time to move beyond conventional views of play as merely a developmental indicator or a pedagogical process, and instead to imagine play more creatively—as art, as collaboration, and as a generative space of becoming.

References

- 교육부, 보건복지부(2019). 2019 개정 누리과정-놀이이해자료. 세종시: 교육부, 보건복지부.
- 김영현(2016). 「낮설게 하기」를 활용한 현대사회의 비유적 표현 연구: 본인의 작품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혜연(2022). 「비영속성과 놀이의 미학: 앨런 캐프로의 환경과 해프닝」. 『서양미술사학회논문집』 57, pp.75-94.
- 정낙림(2024). 「놀이와 현대예술」. 『대동철학』 108, pp.331-361.
- 조정환 · 전전자 · 김진호(2014). 『플럭서스 예술혁명』. 서울: 갈무리.
- 한광우(2023). 「놀이의 관점에서 본 현대미술의 유희성 연구」. 『박물관학보』 46, pp.241-261.
- Friedman, K. ed. (2024). 플럭서스 리더(정유진 역, *The Fluxus Reader*). 서울: 갈무리. (원저 1998년 발간).
- Huizinga, J. (2000).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Homo ludens: A study of the play-element in culture). 서울: 을유문화사. (원본 1938 발간)
- Osgood, J., & de Rijke, V. (2025). *Postdevelopmental Approaches to Play*. New York, NY: Bloomsbury Publishing.

Pyle, A., & Danniels, E. (2017). "A continuum of play-based learning: The role of the teacher in play-based pedagogy and the fear of hijacking play".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28(3), pp.274-289.

【 국문초록 】

플럭서스와 유아 놀이의 공명

이경화(국립부경대학교)

유아교육 분야에서 지배적으로 작동해 왔던 발달주의 패러다임과 교수학습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놀이 담론들에 대해 저항의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다양한 학문을 배경으로 유아 놀이의 의미를 재해석하려는 목소리들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한 목소리에 동의하면서 연구자는 1960년대 등장한 플럭서스 예술과 유아 놀이의 공유하는 특성을 통해 놀이의 포스트-재개념화를 시도하였다. 플럭서스 예술의 핵심 아이디어와 유아의 놀이 사이에 존재하는 탈경계, 우연과 변형의 반복, 통합과 연대라는 연대와 통합의 공명 지대를 연구를 통해 드러내 보였다. 그리고 놀이의 관찰기록자 및 놀이지원자라는 외부자적 역할에서 공동의 예술 창작자이자 참여적 관객, 놀이예술 아카이브의 큐레이터이자 도슨트로 유아교사의 위치성 전환이 가능함을 제안하였다.

알타이벨트 민족들의 혼인문화연구*

: 여성주의 관점에서

15)이은진 (전북대학교 강사)

1. 머리말

알타이벨트 민족들의 혼인문화연구는 역사, 민속, 음식, 인류학, 법학, 복식 등의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개별민족의 특수성에만 집중하여 각 민족 간 비교를 통한 보편성을 밝히진 못했다. 이유를 보면 이들의 혼인문화는 줄곧 남성중심 영웅서사와 가부장적(patriarchy)입장에서 다루어져 여성이 가진 권한은 도외시 된 채, 남성에게 여성이 종속되고 여성에 대한 결정권을 남성이 가지게 되었다고 결론지은 점이다(쿤츠, 2009, pp. 87-88).

혼인의 주체가 여성임에도 알타이벨트의 혼인문화에 대한 기존연구들은 조혼, 의혼, 족외혼, 일부다처제, 약탈혼, 신부교환 등으로(막시모바, 2013; 김종순, 2016), 여성의 존재를 간과한 혼인문화의 표면적 현상연구에 그친 한계점이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여성을, 인간학적 관점에서 그가 속한 사회 환경이나 사회문제와의 관계에 착안하여 알타이벨트 민족들의 혼인과정 의례, 구전, 언어, 설화, 속담, 풍습이 반영된 혼인문화를 여성주의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혼인이란 보편적으로 남.여, 양성(兩性)의 결합임과 동시에 공동체의 문화를 총체적으로 반영하는 의례이다. 이 연구는 알타이벨트 지역 민족들의 혼인문화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여성주의 혼인을 살펴 여성이 혼인의 주체이자 행위 당사자로서 수행한 역할과 기회를 찾아 여성 스스로 정당한 권리를 획득해 가는 존재로 규명할 것이다.

2. 알타이벨트민족들의 여성주의 혼인문화

1) 야쿠트족

알타이벨트와 사얀-산맥 지대의 투르크계 민족들은 상호간 교류 과정에서 사회, 문화적 변화를 겪으며 서사시 형식에 영향을 끼치는데 야쿠트족은 지리적으로나 기후적으로¹⁾ 고립되어 있어 고대의 형태를 지킬 수 있게 되었다(Емельянов, 2000: 3-4).

야쿠트서사시 올롱호 중에 여전사를 주인공으로 하는 『크오스 대빌리에』에서는 애초에 ‘타알라이(танала, 혼례복)’만한 크기이던 하늘이 점점 커지고 그 아래에 최초의 땅이 생겼다. 이 땅이 바로 그 중간세계인 ‘우나아르 따에베 호툽의(Унаарыта-Эбэ-Хотун)²⁾ 야쿠트 여성의 전통 겹옷인 날개옷(Ураса)이다(Данилова Н. К., 2020)³⁾. 이 우라사는 신부가 입는 혼례복으로 혼인 후 여름집을 지을 가죽옷으로 신부의 혼수품에 포함되어 처가살이 혼속이 유지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로(NRF-2023S1A5B5A17084768)

동북아문화학회 학술대회발표를 위해 동북아문화연구 제84집(pp. 45-71)에 수록된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음.

1) 겨울에는 영하60°, 여름에는 영상40°, 연평균100°차이

2) Хотун, 호툽, 하얀새(할머니, 성스러운 땅, 생명의 근원, 시베리아 레나강지류).

3) 타알라이는 생가죽(rovdugi)으로 만든 야쿠트 전통혼례복으로 소매 윗부분에 조각낸 모피를 끼워 넣을 수 있고 허리는 금속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다

된 것으로 이해된다⁴⁾.

여성주인공 크으스 대빌리아는 천상계의 전사들과 싸운 죄로 창조자인 ‘우룽 아아르 토윤(Юрюн аар туюн)’에 의해 북쪽 하늘 아래로(Кыыс Дэбийлийэ, 1993: 151) 유배당하게 되었다. 그녀는 신의 명령에 따르되 자기주도로 행동하며 불행을 해소하는 의례로 하르 불자하르(말의 정강이 뼈 뺏기)와 헛싸움의 정화의례를 치른다. 신랑감을 구하기 위해 다른 세계로 떠날 때 머리가 셋 달린 독수리 ‘옥소코(сүүс)’⁵⁾로 변신해 이동하거나 주어진 위훈을 수행하고 귀향할 때도 변신하여 날아간다(P. E. Efremov, 2000).

이 여성영웅은 주체적으로 신랑감을 선택하고 지하세계로부터 나타난 아바스를 포로로 약탈한 후 신랑으로 삼아 고생과 시련 끝에 신랑을 선택하여 자기가 속한 집단 내로 편입시키는 여성주의 혼인양상을 볼 수 있다.

2) 에벤키족

원시 에벤키신화에 나타나는 토템은 ‘여성-동물, 곰’으로 ‘최초의 조상’이라는 데 의의가 있으며 한반도의 신화와도 관련되어 있다. ‘백조처녀(девушка-лебедь)’의 형상 역시 흥미로우며 다른 민족들 설화에서도 공통으로 볼 수 있는 백조를 시조로 보는 고대의 토템신앙이 반영되어 있다(문준일, 2019 재인용).

통구스 신화에서 오마 모니 족, 생명나무의 주인은 일반적으로 씨족 조상의 어머니이자 영적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 존재이다(이현경, 2025). 이 오마-모니(ома-мони)에는 에덴동산의 생명나무(히브리어 : עֵץ הַחַיָּה)와 일본의 신리(神籬, 히모로키), 한민족의 신단수(神檀樹), 각 마을의 당산나무, 서낭당의 신목, 솃대까지 거목송배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여성주의 혼인문화에 대한 어휘는 에벤키족의 혼인상대를 찾는 과정과 친족어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이들의 친족어휘에는 ‘남편은 밖에서 데려 온 남자’라는 뜻의 접두어 이(И)가 붙은 이체(ИЧЭ)이고 남편의 형제들은 ‘남편이 밖에서 데리고 온 남자’라는 뜻의 이편(ИПЭН)이 있어 이 어휘들의 접두어 ‘이(И)’는 ‘들다(入)’라는 뜻으로 모계중심사회였음을 알 수 있다(Василевич, 1966, pp. 144-146; 불디레프, 2000, p.484).

이들의 형사취수혼(北史: 特木爾宝力道, 2010, 재인용)은 물론, 언니가 죽은 후 그 여동생이 형부와 혼인하는 자매연혼(sororate)도 일반적이었다(Krader, 1963, 246).

혼인 후 거주방식은 에벤키 울룽호에서 용사 이르키스몬자가 아내의 가족들과 살고 있는 것으로 처가살이 풍습이 반영되었고(2001: 황우철, 재인용), 여성영웅 쿡마찬(кугмачаны)은 멀리 떠나 신랑감을 구하기 위해 매로 변신하고, 주체적인 뽀싸움을 벌여 뼈를 쏘아 맞힐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해 혼인이라는 성역을 통과한다(荻原眞子, 2001, 107). 아들 코코로콘 역시 아내 인모콘을 맞이하기 위해 장인이 될 주기르 만자와 씨름하고 뼈를 교환하거나 뽀싸움, 난투극을 벌여 혼인을 성취한다(荻原眞子, 2001, 107).

의례는 신랑모자 뽀뽀기, 불넘기 등이 있고 내몽골 문혁시대까지도 바지를 방석에 꿰매거나 신발 뽀뽀기(韓艷麗, 2013), 농담하기, 족발뽀 뽀뽀기, 마차 읊기기(후르겐 호이치라마-хҮргэн ху ичрама)습속 등은 20세기까지 유지되었다(靑木富太郎, 1952 : 113 - 128).

4) 한국의 목도령과 홍수, 야쿠트의 엘레이(Эллей)신화에서(코바코바 올리아나, 2007), 아내를 얻기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며 아내집에 거주하던 모계제사회의 노역혼 유습, 처가살이에 필요한 우라사(Ураса)가 필요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혼례지참품에는 자작나무 칸막이와 기둥 세 개, 이동식 천막이 될 우라사(Ураса)가 포함됨.

5) 머리 셋 달린 독수리(옥소코, сүүс)는 한민족의 신조(神鳥)인 삼두일각조(三頭一脚鳥), 삼두매, 삼두웅과 유사하다. 러시아 차르 마이클 1세의 조각상에 사용한 옥소코의 상징과도 비교된다.

3) 몽골족

몽골의 혼인문화는 중세유목사회의 풍속으로 보통 신랑이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혼인연대와 결속이 형성된 부족을 방문해 신부를 구하거나, 초원에서 약탈해 오거나(『몽골비사』), 형수와 의 혼인(levirate), 조혼 등이 있다.

13세기 목축사회의 부모들은 자녀가 아홉 살이 되면 혼담을 정하느라 분주했으며, 10세가 되기 전 약혼에 임했다(姚慧, 2008). 대부분 10세가 이 되기 전 약혼한 후 14세면 혼인할 수 있었다(特木爾宝力道, 2010).

이는 13세기 유목사회의 보편적 양상(姚慧 2008)으로 17세기에는 오이라트(уйрат)법에 혼인연령을 정해 놓을 정도로 아내 얻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으며(라자노프스키, 1996), 서민 유목민의 혼인일지라도 ‘며느리 청하기(Ber Guikh)’라는 정식청혼절차가 있어 일생 혼인을 중요한 관례로 여겼다(몽골비사, 177절).

혼인관계는 처가 쪽이 큰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외조카를 지원하는 것이 여성의 의무이고 남자가 처가식구에게 욕하는 것을 중죄로 다스렸다(鈴木敬夫, 2010). 이 규정은 여성의 권리와 이익을 전면 보호한 것으로 여성이 일정한 지위와 권리를 가졌던 것을 의미한다(特木爾宝力道, 1963, pp. 18~19). 여성의 지위는 민간신앙에도 나타나 에썬 하드(ээж хаад, 어머니 바위, 튜브아이막 소재)와 에썬 머드(ээж мод, 어머니 나무, 몽골전역)에서도 알 수 있다.

혼인풍습 중 여성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자의 말 타는 기술과 강인한 체력으로 신랑의 힘과 담력을 시험하기 위해 장인 될 사람은 청혼하려고 간 신랑에게 일정시험을 제시한다. 이 시험은 ‘신랑이 손가락으로 양의 목덜미를 찢는 것인데 살과 뼈를 제대로 발라 분리하는가’를 보려는 것으로 신랑은 이를 극복하여 혼인을 성취했다(荻原眞子, 2001).

4) 한민족

한국은 일찍이 부여는 일부일처제였고 옥저에서는 돈을 받고 혼인하는 매매혼이, 고구려에서는 데릴사위제가 행해졌다. 『삼국지』<위서 동이전>과 <후한서>에는 ‘신부집에서 혼인하고 신부가 자녀를 출산하여 성장한 후 시댁으로 돌아간다’는 고구려 서옥(婿屋)과 솔서(率婿), 남귀여가(男歸女家)가 기록되어(김지희, 2018, 6-50) 전통적으로 여성중심의 모거제(matrilocal)사회였음을 알 수 있다.

약탈혼 풍습을 반영한 동명왕편에서는 해모수가 유화를 납치하고 선녀와 나무꾼에서는 나무꾼이 선녀를 약탈하며 지하국 대적 퇴치에서도 괴물이 여자를 납치했던 것을 통해 알타이 벨트 민족들의 약탈혼의 보편성을 알 수 있다(체렌소드눔, 2005). 또, 유화는 천신의 아들인 해모수가 하백에 의해 시험을 받자 변신술을 쓰고 독수리로 변신해 하백을 제압하고 천신의 자손임을 인정받아 시험을 통과한다. 가락국기(허황후, 아유타국에서 수로왕을 찾아옴), 서동과 선화⁶⁾, 온달과 평강 등의 사례에서 주인공들이 혼인에 주어진 시련을 극복함으로써 여성이 주도적으로 혼인을 성취한 것을 알 수 있다.

우귀나 데릴사위제는 모계사회의 남귀여가(男歸女家)혼으로, 처가에 눌러사는 처가살이를 뜻하며 고구려에서 행해진 서류부가혼(婿留婦家婚)은 사위가 장인(丈人) 집에서 며슴살이하면서 노동력을 제공해 주는 것이 전제 조건이었다.

6) 선화공주가 귀양처로 갈 때 서동이 시위하여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고 처가의 인정을 받음. 온달 편에서 평원공주도 마찬가지.

5) 일본족

고대 일본의 혼인형태는 신랑이 신부집에 들어가는 데릴사위제인 ‘무코이리콘(婿入婚)’과 며느리를 맞아들이는 ‘요메이리콘(嫁入婚)’이었다(大島建彦 外, 1971).

고대의 혼인은 ‘요바이(夜這い)’ 풍습이 있었는데 이 요바이는 남·여 격리가 보편화되기 이전 일본 전통사회에서 남자가 혼인하고 싶은 여자의 침실에 몰래 들어간 후, 여자의 부모로부터 허락받아 혼인하는 보쌈형태의 혼인풍속이다(김현정, 2015, p. 19). 이 혼인 절차는 남녀 중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구애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남성이 여성의 어머니 집(母屋/오모야)으로 찾아가는 모계제 혈연사회의 초서혼(招婿婚)을 볼 수 있다(김영, 2022 재인용). 이때 남성은 사흘 밤을 연속해서 여성의 집을 찾아가 신부측 어머니의 허락으로 혼인절차를 밟게 된다(임현정, 2012). 남성이 구혼의 형식을 진행하며 혼인의 성립은 어디까지나 여자에게 있었다. 혼례후 신부는 계속 친정에 머물며 신랑의 신부방문은 수년 동안 또는 평생 지속되는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천황가에서도 ‘쓰마도이콘(妻訪婚)’을 유지했으며, 일본의 고·중세 혼인문화는 사위의 노동력을 착취했거나 제공받는 것이 보편적이었다(김영, 2022, 47-74).⁷⁾

6) 튀르키예

튀르키예는 고대부터 알타이벨트 민족들과 유사한 혼인문화양상을 보이는데 그 예로 고구려, 부여와 몽골, 야쿠트의 민족들이 가졌던 형수취수혼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민족들과 비교했을 때 형수가 아닌 제사취수혼, 즉 역연혼(逆縁婚)풍속이 있었다.

튀르키예 유목민 일부는 아직도 ‘신랑다루기’와 ‘약탈혼’ 관습을 유지하고 있으며, 루마니아에도 ‘신부 납치’와 ‘신랑매달기’가 혼례놀이로 남아있다. 일본의 사위던지기(婿投げ-무코니게)도 튀르키예의 에띠와 한민족의 신랑다루기, 동상례 등과 크게 다르지 않다.

튀르크 고대 신앙에서 창조신화에 등장하는 최초의 신, 아크 안(Ak Ana)은 땅과 하늘이 만 들어지기 전에 존재했다고 여겨지는 여신으로(Kalkan, 2010, pp. 448-450) 이러한 천신사상은 야쿠트의 에르 소코트호와 에벤키의 오미아 모니, 몽골 텡그리, 한국의 단군, 일본의 아마테라스에서 같은 뿌리를 공유한 공통점이 있다.

튀르크의 많은 민족 서사시의 중심 주인공은 여성영웅으로 남성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지위를 가지며 자유롭게 활동한 보편성을 뜻한다. 이 여성들은 모두 지배계급 출신이며(Ekici, 2004, p. 367), 스스로 혼인과 미래를 결정하고 유목생활로 연단된 여전사의 성격을 갖고 있다(바사란 바하르, 2021).

3. 맺음말

지금까지 혼인은 종족의 결합이며 혼인을 매개로 한 중매혼 등은 부거제(父居制)사회로 설명되어 이 가부장적 문화를 생산한 사회에서는 ‘남성’, ‘가장’, ‘아버지’가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 의식이 강하다. 이러한 남성주의 관점은 여성을 피해자로, 수동적이거나, 자발적이지 못한 존재로 바라보게 했다. 가부장 체계 속의 여성을 무기력하거나 의존적인 존재로 간과하지 않으려면 공식적이고 공공연한 여성의 권위와 비공식적이면서 공공연히 인정되지 않는 권위에 대한 인간학적 구분이 필요하다.

7) 한국과 일본은 여성의 집에서 혼례를 행하였으며, 혼인에 있어서만은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난 독특한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을 일본학계는 일본고유의 혼인제도이자 남방계문화요소라고 주장해왔으나, 김영(2022)은 고·중세 여성중심 혼인문화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했다.

문화적 통념과 규범은 실제로 여성들이 여성의 역할이나 기대되는 사항, 편견과 제한을 어떻게 느끼고, 행동했는지, 여성의 정체성이 남녀의 행위에 끼친 영향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야쿠트, 에벤키, 몽골, 한국, 일본의 데릴사위와 서옥, 남귀여가는 신랑이 처가살이하면서 신부집에 노동력을 제공했던 모계사회 풍속이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야쿠트의 아바스, 에벤키의 아바히, 몽골 망가스, 한민족의 지하국 퇴치 괴물, 몽골의 솿염소를 탄 장부, 한민족의 서동과 선화공주, 온달과 평강공주는 혼사위기가 있을 때 위기극복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보여준 유사성이 있다. 이러한 내용은 일본 풍토기(風土記)의 날개옷 설화(羽衣), 중국 수신기(搜神記, 干寶, 君島久子, 1989. pp.310-320 재인용)에 기록된 새아내(鳥女房)와 고대인도와 북유럽의 에다(Elder Edd), 게르만 발키리에(Walküre), 니벨룽겐의 노래, 아메리카 인디언까지 전승되어 범세계적이고 통시대적인 혼인문화의 원형을 알 수 있다.

알타이벨트 민족들의 여성주의 혼인문화에 대한 정보는 혼인에서 여성의 역할과 남성과 동일한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임에도 인접지역에조차 알려지지 않아 혼인관련 선행연구에서 여성의 역할은 축소 시킨 남성중심으로만 분석한 한계점이 있었다.

남·여 동등한 위치에서 혼인문화를 재구성하고자 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자료들은 객관적 데이터에 기초한 것이 아니기에 연구자의 주관적 관점으로 해석된 제한점이 있다. 차후 더 높은 수준의 융·복합 연구를 통해 여성이 주체가 되고 주재자가 된 알타이벨트 민족들의 여성주의 혼인문화의 보편적 가치가 고양되고 보강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지희(2018), 「고구려 혼인 습속의 계층성(階層性)과 그 배경」, 『동북아역사논총』 제60호, 동북아역사재단, pp.6-50.
- 김중순(2013), 「야쿠트의 현대화된 전통혼례에 관한 상징인류학적 이해 : 빅터 터너의 커뮤니티타스를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 35, 동북아시아문화학회, pp.343-362.
- 김 영(2022), 「문학에 나타난 한일 고중세의 혼인제와 여성연구」, 『한일관계사연구』 78, 한일관계사학회, pp.47-74.
- 김채수(2012), 「고대 알타이문명과 일본 천황가」, 『日本文化研究』 42, 동아시아일본학회, pp. 105-134.
- 막시모바, 알렉산드라(2013), 「야쿠트와 한국의 전통혼례 비교연구」, 계명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준일(2019), 시베리아 에벤키족 설화에 나타난 새들의 신화적 형상, 『슬라브연구』 35(2), p.69-95.
- 바사란, 바하르(2021), 「코로올루 서사(Köroğlu Narrative)의 글로벌문화콘텐츠로서의 가능성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현경(2025), 「통구스 샤머니즘에서 장대 위에 있는 새 형상의 의미」, 『미학예술학연구』 제74집, 한국미학예술학회, pp.80-103.
- 임현정(2012), 「동북아시아 혼례문화 비교」,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코바코나 올리아나(2007), 「고구려 주몽신화와 사하 엘레이신화 비교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 쿤츠 스테파니, 김승욱 역(2009), 『진화하는 결혼』, 작가정신(원저, 2006: Coontz, Stephanie).
- 황우철(2020), 「알타이민족의 혼인전통 비교연구:여성주의적 관점에서」, 계명대학교대학원 박

사학위논문.

Ekici, Metin(2004), Türk dünyasında Köroğlu. İlk kol. İnceleme ve metinler. Physical description, Ankara: Akçağ, p.367.

Данилова, Н. К.(2020), Ритуальная одежда народа саха: тангалай сон(историческая память и семантика), Научный диалог. № 11. С. pp.362-378.

Василевич, Г. М.(1966), Исторический Фольклор эвенков, Москва: наука. pp.144-146.

大島建彦(1971), 『日本を知る事典』, 社會思想社, p.19.

荻原眞子(2001), 「エベキの英雄叙事詩イルキスモンジャ勇士」, 『ユーラシア諸民族の叙事詩研究(1)』, 千葉大学人文社会文化科学研究科 研究プロジェクト 報告書第54集 54(1), pp.84-122.

姚慧(2010), 「霍爾其格嘎查, 蒙古族婚姻儀禮と婚姻儀禮の歌の現状の調査と研究」, 内蒙古大学芸術学院学報. pp.44-53.

特木爾宝力道·鈴木敬夫(2010), 「モンゴル.オイラート法典から見る17世紀のモンゴル族の婚姻. 家族制度(孟根巴根 譯)」, 『札幌學院法學』27, (1), 札幌学院大学総合研究所法政研究部会編, pp. 35-53.

田中茂樹(1997), 「妻訪婚における禁忌」, 『法社会学』 49, 日本法社会学会, pp.183-187, 248.

韓艷麗(2013), 「モンゴル民族の婚姻儀禮に関する考察 : 内モンゴル自治区通遼市ホルチン左翼中旗の事例を中心に」. 『地域政策科学研究』 11, pp.79-100.

君島久子(1989), 「中国の民間伝承と日本一羽衣.浦島を軸として」, 『日本民間伝承の源流』, 小学館, pp. 287-290.

呼日樂巴特.烏仁其木格(2012), 『ホルチン民俗』, 内モンゴル人民出版社.

古日拉沙(2014), 『中国少数民族の婚姻と家族 上巻』, 内モンゴル科学技術出版社.

Key words:

알타이벨트, 혼인문화, 여성주의, 가모장사회, 사회극

Altai-belt, Marriage Culture, Feminism Perspectives, matriarchy, Theory of Social Drama

**A Study on the Marriage Culture of the Altai-belt Peoples
– From a Feminist Perspective**

LEE Eunjin (Jeon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marriage culture of the Altai Belt peoples from a feminist viewpoint, focusing on aspects that have traditionally been overlooked—especially the central roles played by women. By conducting a cross-cultural comparison among the ethnic groups of the Altai Belt, the research investigates the commonalities and kinship patterns shared across the region.

The findings reveal that women among the Altai Belt peoples often played larger and more central roles in the institution of marriage than their male counterparts. Women were not merely passive participants but key agents in shaping marriage practices, often positioned as initiators and creators within their communities.

The study also shows the persistence of matriarchal traditions within the marriage systems of these societies. This includes customs such as deril-sawi(a form of bridegroom adoption), ug-Gui(matrilocal marriage), and chŏ-ga-sari(a practice where the husband lives with the wife's family). These patterns point to a heritage in which women held considerable social power. Marriage, in this context, was not regarded as the end of a life phase but rather as a transformation into another performative process within society. Women played an active role in leading and shaping the success of the marriage, not just within the family, but as visible participants in public social rites.

Among the Altai Belt peoples, including Korea, marriage rituals were often marked by symbolic performances referred to as "abduction dramas." These included traditional practices such as hoesaum(mock battles), ssireum(wrestling), handling the groom, yobai, yeddi, dongsangrye, and nantu-geuk(various forms of staged conflict). These rites functioned as corrective behaviors and symbolic enactments that helped integrate the marriage into the communal order, reinforcing social bonds through shared cultural scripts.

Reimagining Busan's Urban Future: Innovative City Branding Pathways for Resilience Amid Population Decline and Societal Aging

HONG Changyu (Associate Professor, Pukyong National University)

The paper discusses how strategic city branding can help Busan curb accelerated population decline, rapid aging, and youth out-migration by relocating branding from outside the city to a genuine, resident-focussed identity-building process associated with structural urban improvements. Grounded in new literature on current U.S. city branding, and based on the demographic data of the city of Busan, it proposes a multi-pillar system incorporating more than one of the following strands: sustainability, digitalization, talent, and inclusivity to boost the resilience of the demographic pyramids and the long-term competitiveness of the city. The central research question has to do with how branding – re-conceived as identity, governance, and investment – can help mitigate demographic risks while enhancing the quality of life of present and future inhabitants.

1. The Unraveling Metropolis: Busan's Demographic Precipice

The city of Busan faces the demographic reality that jeopardizes its long-term vitality and sustainability. The challenges are not cyclical or temporary, but structural, deeply-embedded and self-reinforcing. A full diagnosis of this pathology exposes a metropolis on a cliff, with a strategic response that must be much deeper than that historically worked out by conventional urban policy.

Busan has the unenviable distinction of being the first metropolitan city in South Korea to officially become a "super-aged" city, which is defined as a city where the elderly population of 65 years and older accounts for more than 20% of the total population. The current population of this cohort was estimated to be around 23% of the total city population in March 2024. It is an inflection point, which took place much earlier than the national average, putting Busan at the forefront of the demographic future that awaits the rest of the country. Such status is not just a statistical indicator; it

represents the beginning of massive and increasing structural forces. The city's tax base is dwindling due to a dwindling number of prime working-age people, while the need for health care, geriatric social services, and age-appropriate public infrastructure is soaring. This shift in the old-age dependency ratio, along with a diminishing workforce population, poses an unsustainable economic burden that can be seen as a structural distortion, affecting everything from public transportation scheduling to emergency medical response.

The city's demographic crisis is characterized by a double and simultaneous mode of deterioration. The first one is a clear absolute decline in population, the number of Busan residents decreasing by around 600,000 from its peak in 1995. The result of low endogenous growth and substantial out-migration has led to long-run de-population. The fertility rate continues to hover stubbornly below the replacement level, which means that each generation is smaller than the generation before.

The second, and arguably more corrosive, form of decline is the persistent, age-selective exodus of its youth. In particular, net out-migration is most problematic among the 25-29 age cohort, which is one of the groups that is expected to infrastructure the future economic and social vitality of any city. Unfortunately, this post-graduate "brain drain" is heavily concentrated in the Seoul-capital region, which has a strong gravitational pull because of its high concentration of high-value corporate headquarters, research institutes and perceived career advancement opportunities. This loss of youth, education, and ambition debilitated Busan's entrepreneurial ecosystem, undermined its tax base, and reduced the demand for services and amenities that are attractive to young families such as schools and cultural venues. This creates a strong negative feedback relationship, where the out-migration of young people causes the city to be less desirable for the remaining youth and thus, drives further out-migration.

The profundity of Busan's situation is described by the "extinction-risk index," a demographic index that gives a stark assessment of a region's ability to regenerate itself. With an index value of 0.490, Busan officially falls under a "danger" class. This index is a more sophisticated measure than a gross measure of birth rates; it is the proportion of the female population in their main reproductive years (ages 20-39 years) to the total population of the elderly (65 years and over). A low value, like that of Busan, signifies that the cohort of potential mothers is tiny compared to the large population of elderly people, and thus the power to generate future generations is very weak and therefore in a state of crisis.

This indicator is a good diagnostic tool that highlights the structural character of the demographic disadvantages the city encounters. It highlights the fact that the problem

cannot be solved using isolated policy answers or promotional materials. Shallow measures are insufficient to change the demographic ratios that are causing the city to decline in the long-run. The urgency that the extinction-risk index expresses is thus a call for systemic intervention – for a deeper reorganisation of the city's value proposition, governance and urban experience. It requires a paradigm change in marketing thought towards transformative, structural surgery in the city.

2. Beyond the Slogan: Reconceptualizing the Role of the City Brand in an Age of Urban Decline

In the context of such overwhelming demographic challenges, traditional approaches to city branding are not only insufficient, but can be actively damaging. The paradigm of superficial promotion needs to be replaced by a new one, which will reframe the city brand as a primary tool of governance and a driver of structural transformation.

Historically, city branding has often been synonymous with "boosterism" – the practice of promoting a city through aspirational slogans, logos, and large-scale advertising campaigns . This approach prioritizes the crafting of an external image, often with little connection to the lived reality of residents. For a city like Busan, where tangible problems of population decline, aging infrastructure, and youth unemployment are part of daily life, such a strategy is destined to fail. It risks creating a significant gap between the marketed promise and the experienced reality, breeding cynicism among the local population whose endorsement is essential for any brand's credibility. In an era of digital transparency, where prospective residents or investors can easily verify a city's quality of life through online forums and data portals, a brand detached from reality is quickly exposed, damaging the city's reputation more than if no campaign had been launched at all.

This report proposes fundamental evolution in the concept of the city brand, and moves it away from the field of marketing towards the core of urban governance. In this new paradigm the brand is no longer an external message to be projected but something internal: an organizing principle for policy, investment and service delivery. Its main role is to coordinate divergent municipal departments – from infrastructure, transportation, economic development, social services, and so on – to a coherent, common narrative . This story must be grounded in concrete, measurable improvements in three areas: livability for those already there, inclusion of all ages and backgrounds, and development of strong structures of opportunity for the next generation. The brand thus becomes a

strategic tool for resident retention priority, targeted talent attraction and developing intergenerational well-being.

This is a very effective way of turning the traditional branding logic on its head. Instead of starting with a message and hoping to shape perception, this model starts with tangible measures, such as taking concrete actions and investments in the quality of the urban experience. The branding is permitted to be organic from this bettering reality. It becomes a result of good governance, not a replacement for good governance. When an official city brand is, for example, "A Global Leader in Age-Friendly Sustainability", this creates a public-facing mandate that can be used to break down bureaucratic silos. Th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the Parks Department, and the Health Department are no longer operating in silos but are guided by a common mission and it is easier to justify and coordinate budgets for projects such as universally accessible transit stations or interconnected greenways. The brand is, therefore, not only an external communication device but an extreme internal accountability mechanism.

Under this new model, brand credibility is a direct function of authentic and sustained investment. The promises of the brand must be backed by evidence that the residents can see, touch, and experience in their lives. Slogans of a "dynamic, green city" are hollow when people are exposed to polluted air, unsafe streets and inaccessible public parks. Conversely, a new and well-lit and safe bicycle path, a restored urban stream, or a thriving local market, are all powerful and credible brand statements. The credibility of the brand relies on genuine investments that provide measurable benefits, including healthier environments, safer communities, productive economic ecosystems and accessible platforms for digital participation. Expenditure on these things is not a marketing cost, but a direct investment in the core product: the city itself.

3. A New Urban Lexicon: Global Trends in Strategic City Branding

The proposed strategic change for Busan is not an isolated and radical idea but is consistent with a global convergence of thought in the field of urban strategy. A review of the recent literature, especially from studies that are US-based, shows a definite shift away from simplistic top-down marketing to more balanced and honest strategies of city-branding. These trends are led by universal drivers which are closely identified with the issues facing Busan itself.

Four dominant trends are reshaping the practice of city branding in response to the complexities of the 21st-century city:

Sustainability as Core Identity

The increasing number of cities that are going beyond "greenwashing" to enshrine sustainability in their DNA and competitive edge. This is a comprehensive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goals, where green infrastructure investments, renewable energy, and social equity are presented as an integral part of the brand promise and quality of life the city offers.

Digital-First Engagement

The rise of digital technology has changed the way city governments and its citizens relate to each other. Smart cities now rely on digital technologies not only for one-way promotion but for co-management, which allows for constant feedback loops, data-based service enhancement, and the co-creation of territorial solutions with the citizens.

Resident-Centric Co-Creation

There is an emerging recognition that the inhabitants of a city are that city's most vital stakeholders and most credible brand ambassadors. This trend causes a shift in the focus of branding efforts away from external audiences (tourists, investors) to the internal population. The overriding objective is then to increase resident satisfaction and place attachment with the recognition that a city that is a great place to live is also a great place to visit, work and invest in.

Explicit Linkage to Talent Attraction and Retention

In the global knowledge economy, cities are waging a heated "war for talent." Consequently, city branding is becoming more like employer branding at city scale. A successful city brand needs to indicate that there are clear opportunities for career advancement, innovation and a high standard of work-life balance in order to attract and retain the mobile, educated workforce that contributes to economic growth .

These four trends have not occurred in a vacuum. They are direct and logical responses to a set of powerful forces affecting cities around the world. Urban demographic pressures such as aging populations, international migration and domestic youth mobility mean that cities such as Busan are having to rethink how they can stabilise their populations and attract new human capital. The rise of digital tools and social media has led to a transparent context whereby any mismatch between the brand image of a city and its lived reality is immediately revealed, demanding a greater focus on authenticity. Finally, a concurrent buildup of public skepticism about corporate-style

marketing and "greenwashing" has translated into a powerful demand for some sort of performance-based commitment to sustainability and social equity, pushing cities to demonstrate, rather than merely declare, their values.

The confluence of these trends suggests that the very meaning of "city branding" is taking on a new extension, combining with the fundamental disciplines of urban planning with the economic and public administration disciplines. While the body of literature identifying these trends may be "U.S.-anchored," the underlying drivers are global in nature. This implies that the framework based on these principles is not an alien model to be applied to Busan, but a set of internationally recognized best practices that can be contemplated to adapt to the cultural, economic and geographical context of Busan unique to its maritime identity, and "mountain-sea biophilia" .

4. Conclusion: From a City at Risk to a City of Resilience

Busan is facing a demographic crisis with existential proportions. The information about its super-aged status, population decline, youth exodus and startling extinction-risk index give a clear picture about a city whose long-term viability is in question. This reality requires an equally serious, strategic and structural response.

This report has argued that for a city in demographic peril, the function of a city brand must be essentially re-constructed. It can no longer be a superficial exercise of marketing and promotion. Instead, it needs to become an authenticity-first, resident-centric governance platform; a tool not for advertising the city, but for rebuilding it from the inside out.

The way forward for Busan is the synergistic use of sustainability to live up to the advantage, digital technology used for adaptive governance, inclusive design for all generations, and a tangible talent value proposition that can provide a compelling alternative to that of Seoul. This strategy is aimed at serving the twin purposes of reversing the overall deficit of its youth while also supporting and respecting its aging society.

Success from these efforts is not guaranteed and will not be immediate. It depends on long-term political will, the courage to overhaul long-standing governance structures, and the discipline of long-term investment and transparent measurement. The ultimate objective is to transform the accumulation of everyday, incremental gains in quality of life, a safer crossing of the street, a greener neighborhood park, an internship opportunity, a more responsive public service, into a powerful and credible new identity.

It's an identity that needs to be shared and validated by its own residents first, and then it can be acknowledged by the world and guarantee a resilient and thriving future for Busan.

부산의 인구 재생을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

홍창유 (국립부경대학교 부교수)

본 연구는 대한민국 최초의 '초고령' 광역시가 된 부산의 심각한 인구 위기를 진단한다. 급격한 인구 감소, 지속적인 청년 유출, 위험 수위의 저출산율은 도시의 장기적인 사회경제적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본 저자는 홍보에 치중하는 전통적 도시 브랜딩이 이러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며, 브랜딩을 '인구 회복탄력성을 위한 통합적 거버넌스 플랫폼'으로 재정의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진정성 있는 정체성', '주민 공동 창조', '디지털 기반 소통', '포용적 인재 전략'의 4대 전략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이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기회, 포용성의 실질적 개선에 도시 정체성의 기반을 두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결국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투자를 통해 쇠퇴를 반전시키고, 도시 브랜드를 피상적인 구호가 아닌 회복력 있는 미래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약속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제6세션 (장소: 428호)

제6세션 (개인발표)	東北亜：中国語学 & 教育			
시간	발 표 자	발 표 제 목	토 론 자	좌 장 & 사회 자
14:50 ~ 15:20	金正必 (慶尙国立大学)	정도부사의 주관성과 정도성의 양범주 대비분석	李仁珠 (慶尙国立大学)	· 座長 · 金玲敬 (江西師範 高等学校) · 司會 · 李旼憬 (国立 釜慶大学)
15:20 ~ 15:50	李仁珠 (慶尙国立大学)	중국어 명량사와 동량사의 교차 사용에 대한 고찰: ‘个’ 와 ‘次’ 를 중심으로	金正必 (慶尙国立大学)	
15:50 ~ 16:20	崔麗娜 (世翰大学)	국제관계 악화기 중국 최초 수산고등교육기관의 중일 수산교류 전략: 직예수산강습소 설립자 쑨펑자오의 3차 도일 실천을 중심으로	孔鳳振 (国立釜慶大学)	
東北亜：日本政治 & 政策				
16:30 ~ 17:00	松本茂樹 (兵庫大学)	重厚長大都市の再生と若者流出： 神戸市と釜山市の都市政策比較研究	青地・イザン ペール真美 (大和大学)	· 座長 · 吉野浩司 (鎮西学院 大学) · 司會 · 堀田彰子 (兵庫大学)
17:00 ~ 17:30	成 謙 進 (国立釜慶大学)	1950년대 재일조선인 국적을 둘러싼 담론 -스즈키 하지메(鈴木一)의 『親和』 기고문을 중심으로-	松本茂樹 (兵庫大学)	
17:30 ~ 18:00	青地・イザン ペール真美 (大和大学)	極右ポピュリズムの台頭と無党派層	成 謙 進 (国立釜慶大学)	
18:10 ~ 18:40	동아시아일본학회 2025년도 하반기 정기총회			
	2025년 동북아시아문화학회 정기총회 및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시상			
	폐회식			

정도부사의 주관성과 정도성의 양범주 대비분석

김정필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1. 서언

일반적으로 정도부사(程度副词)는 동사나 형용사 앞에서 그 정도나 강도를 나타낸다고 정의된다. 정도부사는 주로 정도 강조를 나타내는 부사들이며, 대개 ‘很’을 중심으로 정도의 약화에서 최상급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정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어에서 많이 사용되는 정도부사의 주요 의미와 그 특징을 살펴보면, 대부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대개 정도부사 ‘很’은 한국어 ‘매우, 아주’ 등으로 번역하지만, 가장 일반적이고 중립적인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이다. 형용사나 심리 동사를 수식하며, 관용적으로 ‘是’자구문에서도 형용사 앞에서 단순히 서술의 역할을 할 때도 사용된다.

둘째, ‘很’보다는 좀 더 높은 정도로 인식되는 ‘非常’도 ‘매우, 아주, 대단히’로 번역되며, ‘很’보다는 강도가 높고 정중한 느낌을 준다.

셋째, ‘十分’은 한국어 ‘십분’으로 번역되기도 하나, 여전히 ‘매우, 아주’ 등으로 ‘非常’과 유사하게 강한 정도를 나타낸다. 다만 ‘非常’보다는 문어체에서 더 자주 사용된다.

넷째, ‘特别’는 ‘특별히, 유난히, 대단히’ 등으로 해석되며, 보통보다 훨씬 높거나 특출난 정도를 나타낸다고 설명한다.

다섯째, ‘挺’은 ‘꽤, 상당히’ 등으로 번역하며, ‘很’보다 정도가 약간 낮고 구어에서 자주 쓰인다. 뒤에 종종 ‘的’를 붙여 사용하기도 한다.

넷째, ‘真’은 ‘정말, 진짜’ 등으로 번역한다. 주로 감탄이나 강한 긍정을 나타내며, 주관적인 느낌을 표현한다.

다섯째, 정도가 과도함을 나타내는 ‘太...了’는 ‘너무 ~하다’로 번역되며, 정도가 지나치거나(주로 부정적인)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을 나타낸다. 하지만, 칭찬이나 감탄에도 사용될 수 있으며, 문장 끝에 了가 함께 오는 경향이 많다.

여섯째, ‘极了’는 ‘극히, 지극히’ 등으로 번역되며, 형용사 술어나 동사 술어 뒤에서 보어로 기능하며, 최고 수준의 정도를 나타낸다.

일곱째, ‘顶’은 ‘가장, 최고’ 등으로 번역되어, ‘最’와 유사하나 구어에서 주로 사용된다. 최고 수준의 정도를 나타낸다.

여덟째, 최상급의 ‘最’는 ‘가장, 제일’ 등으로 번역되며, 최상급의 정도를 나타낸다.

아홉째, 약한 정도를 나타내는 ‘比较’는 ‘비교적, 꽤’ 등으로 번역되며, 보통 수준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높음을 나타낸다.

열 번째, ‘有点儿’은 ‘조금, 약간’으로 번역되며, 주로 부정적인 어감을 나타낸다. 특히 불만족이나 불편함을 표현할 때는 형용사 앞에 위치하여 부사어가 된다. 즉 술어 뒤에서 보어가 될 때는 주관성이 약화된다.

열한 번째, ‘稍微’는 ‘약간, 조금’으로 번역되면, 정도가 아주 미미함을 나타낸다.

이상은 중국어 교재나 어법 교재,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학습에서 주로 설명되는 정도부사의 구분법이다. 하지만 정작 각 정도부사의 경계를 그어 그 차이를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그

래서 본문은 정도부사가 표현하는 정도성과 주관성의 두 속성을 양범주 분석을 통해, 대립쌍 사이의 이분법적 경계를 설정하고, 아울러 정도성을 통한 양범주 분석의 한계를 상쇄하는 노력도 시도해 보고자 한다.

2. 정도부사의 어법 기능과 주관성 표현

일반적으로 정도부사는 일반적으로 심리동사(예: 喜欢, 爱, 讨厌 등)나 형용사 앞에 위치하여 그 술어 성분을 수식하는 부사어로 기능한다. (예: 我很高兴。) 다만 정도성을 지니지 못하는 동작 동사(예: 去, 做 등)는 정도부사의 수식을 직접 받기 어렵다. (예: × 很去 he`nqu`)

가장 대표적인 정도부사 ‘很’은 대개 정도의 기준선을 나타내기도 하고, 약간 높은 정도를 표현한다. 이음절 부사: ‘非常’이나 ‘特别’와 같은 이음절 정도부사는 ‘很’보다 더 강한 정도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또 문어체와 구어체가 대비되어 나타나기도 하는, ‘十分’, ‘极其’ 등은 문어체적인 느낌이 강하게 작용하며, ‘挺’이나 ‘太...了’ 등은 구어체의 성격이 강하다.

또 기능상으로는 정도보어와 대비하여 살펴볼 필요도 있다. 즉 일부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은 동사/형용사 뒤에 와서 정도 보어의 역할을 하는데(예: 好极了, 忙得很), 분포위치에 따른 의미 또한 구별할 필요가 있다.

중국어 정도부사(程度副词)는 단순히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넘어, 화자의 주관적인 평가나 감정을 표현한다. 즉 부사가 내포하는 주관적인 뉘앙스는 부사마다 다르게 나타나며, 정도를 통해 그 주관성의 강약을 드러낸다.

1) 정도부사의 주관성 표현

정도부사는 부사어가 되어 술어(주로 형용사)를 수식할 때, 술어가 표현하는 의미의 정도를 나타냄과 동시에 화자의 심리적 태도나 평가를 함께 전달하게 된다.

먼저 정도부사 很은 비교적 약한 주관성 정도를 표현하며, 일정 정도의 객관성을 내포하고 있다. 중국어에서는 단독 형용사가 술어가 되지 못하게 되는데, 이때는 ‘很’을 부가하여 문법적 요구에 부응하게 된다. 때로는 한국어 ‘아주’와 같이 번역함으로써 단순히 서술어를 수식하는 기능도 존재함으로써, 초급중국어 학습자들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한다.

‘挺(...的)’은 구어체로 많이 사용되어 ‘꽤, 상당히’ 등 긍정적인 측면에서 화자가 만족스럽게 느낀다는 주관적인 평가를 하게 된다. 어법적으로 뒤에 ‘的’를 부가하는 경우가 많다.

‘太(...了)’는 주관적 감정 정도가 과도하게 지나침을 표현하여, 화자의 강한 감탄이나 불만을 표현한다. 하지만 현대중국어에서는 부정적 상황 이외에 긍정적 상황에도 사용된다.

‘真’은 강한 감탄 혹은 확신을 나타내어, 화자의 감정이 진실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국어로는 ‘정말, 진짜’ 등으로 번역되며, 강한 감탄이나 긍정적인 확신을 표현한다.

‘有点儿’은 약간의 부정적 뉘앙스, 즉 불만이 ‘조금, 약간’ 있다는 정도를 표현하지만, 주로 불만족이나 부정적인 상황을 가리킬 때 사용되어 주관적인 평가가 부정적임을 내포하고 있다.

‘极(了)’ 최고 수준의 감탄 정도가 최고에 달했다는 화자의 강한 만족이나 감탄을 주관적으로 표현하지만, 부사어보다는 객관화를 시도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2) ‘很’의 비주관성

정도부사의 대표인 ‘很’은 형용사를 수식할 때 객관적인 정도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 주관성이 약하지만, 다음과 같은 문법적 환경에서는 주관성이 약화되거나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 어법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중국어에서 단음절 형용사는 종종 단독으로 서술어가 될 수 없고,

일반적으로 ‘很’이 붙어 형용사가 완전한 서술을 표현한다. 이 경우 ‘很’은 ‘매우’라는 의미보다 서술 기능을 위한 문법적 요소로써, ‘很’의 주관성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예: 他很高兴. 그는 기뻐한다.) 특히 ‘非常’이나 ‘太’ 등과 같이 더욱 강한 감정을 나타내는 부사들과 대비될 때에는 ‘很’은 상대적으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서술을 나타낸다. 따라서 ‘很’은 중국어에서 가장 흔하고 많이 사용되지만, 실제 사용에서는 다른 정도부사들과 비교할 때 그 뉘앙스와 강도, 기능 면에서 차이가 드러난다.

그러면 ‘很’ 이외의 주요 정도부사들의 주관성 표현을 살펴보자.

먼저 강한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와 비교했을 때, ‘很’은 오히려 중립적이고 일반적인 정도를 나타내거나, 심지어 문법적으로 다음절 형용사를 서술어로 기능하도록 할 때는 정도의 의미가 약화된다. 하지만 다음의 부사들은 강한 주관성과 각기 정도를 표현한다.

먼저 ‘非常’은 정도나 감정의 강도가 ‘很’보다 뚜렷하며, 격식 있는 상황이나 문어체에서도 자주 사용된다.

둘째 ‘十分’은 ‘非常’과 유사한 강도를 표현하면서도, ‘很’보다 정중하고 문어적인 느낌을 준다.

셋째 ‘特别’는 정도부사 ‘很’이 표현하는 ‘매우’를 넘어선 ‘특별함’을 강조할 때 사용되며, ‘특별히, 유난히’으로 번역되어 다른 것들과 구분될 정도로 뛰어난 정도를 나타낸다.

넷째, ‘真’은 ‘정말, 진짜’로 번역되며, 화자의 강한 감탄이나 확신을 주관적으로 표현한다. ‘很’이 비교적 중립적인데 비해, ‘真’은 감정 개입이 강하게 드러난다.

3) 구어체 또는 주관성을 띤 부사와의 비교

한국어 ‘꽤, 상당히’ 등으로 번역되는 ‘挺(的)’은 ‘很’보다 정도가 약간 낮거나 비슷하며, 주로 구어에서 사용된다. 뒤에 ‘的’를 부가하는 경우가 많으며, 구어적 뉘앙스가 뚜렷하게 드러난다.(예: 挺好的)

한국어 ‘너무 ~하다’로 번역되는 ‘太(...了)’는 ‘很’이 일반적인 강도를 나타내는 것에 비해, 정도가 지나침을 나타낸다. 즉 ‘太’는 기준을 초과한 과도한 정도를 표현하며, 강한 감탄(긍정/부정 모두)을 나타낸다. 문장 끝에 了가 함께 오는 경우가 많다.

有点儿(yo`udia`nr) 조금, 약간 ‘很’보다 정도가 약함. 특히, 부정적인 어감이나 불만을 나타내는 데 주로 사용되어, 중립적인 ‘很’과 대비됨. (예: 有点儿冷 - 조금 춥다(부정적/불만))

4) 최상급 및 특수한 위치의 부사와의 비교

정도부사/보어 의미 很과의 비교 특징

最(zui) 가장, 제일 최상급을 나타내어, ‘매우’를 뜻하는 ‘很’과는 의미상 구분이 명확함. ‘很’은 높은 정도를, ‘最’는 최고 정도를 의미.

极了(ji`le) 극히, 지극히부사어 위치가 아닌 정도 보어 위치(술어+极了)에 오며, 최고 수준의 강한 감탄을 나타냄. ‘很’은 술어 앞, ‘极了’는 술어 뒤.

比较(bi`jia`o) 비교적, 꽤 상대적인 정도를 나타냄. ‘很’은 절대적인 ‘매우’라면, ‘比较’는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꽤’라는 의미를 가짐.

요약하자면, 很은 ‘매우’라는 뜻보다는 형용사를 서술어로 만들어주는 중립적인 역할을 하거나, 다른 부사 대비 **강도가 낮은 ‘매우’**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다른 정도부사들은 강도(强, 弱), 감정(감탄, 불만), 사용 위치(술어 앞/뒤), 문체(구어/문어) 등에서 ‘很’과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3. 중국어 정도부사의 정도성과 양범주 속성의 대비 분석

‘양범주 분석(Polarity Analysis)’과 ‘정도성(Gradience)’은 언어학, 특히 의미론 및 구문론에서 단어나 구의 의미와 문법적 속성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중요한 개념이다.

양범주 분석은 언어 표현의 의미나 문법적 속성을 두 개의 상반된 극(極, poles)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방식으로, 대표적인 예가 긍정(肯定, Positive)과 부정(否定, Negative)의 양극 대립으로 볼 수 있다. 즉 양범주 분석의 핵심 원리는 언어 현상을 흑백논리처럼 두 가지 대립범주(예: 참/거짓, 있음/없음, 긍정/부정)로 설명하려고 시도한다.

예를 들면, 의미 분석의 경우에는 문장의 진리치(Truth Value)를 참 아니면 거짓으로만 구분한다. 또 문법 분석의 측면에서 보면, 명사나 동사를 가산(Count)과 불가산(Mass) 혹은 완료(Perfective)와 미완료(Imperfective)로 구분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양범주 분석의 한계는 이분법적인 사고는 선명한 경계를 통해 명확한 구분을 가능하게 하지만, 실제 언어에는 경계가 모호한 현상이나 중간 단계가 많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즉 정도성 개념은 이러한 이분법적 분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음의 정도성 분석 방법을 상호 결합하는 방법으로 접근해 보면 어떨까 한다.

1) 정도성 (Gradience, 程度性)

정도성은 언어 현상이 이분법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연속적인 스펙트럼이나 계층적인 단계를 가진다. 그래서 그 경계가 유동적이라는 특징을 지니며, ‘정도’나 ‘강도’의 차이에 따라 속성이 달라질 수 있다.

정도성 분석의 핵심 원리는 언어 현상을 “얼마나 그러한가?”라는 “How much?”의 차원에서 접근하며, 기점 A와 목표점 B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중간 단계(A…B)가 존재할 수 있다.

대개 속성은 실사의 속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본래 정도성은 형용사(Adjective)의 속성으로 분석된다. 즉 ‘크다(大)’와 ‘작다(小)’ 사이에는 ‘조금 크다’, ‘매우 크다’, ‘상당히 크다’ 등 무한한 정도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정도부사(很, 非常, 太 등)의 기능은 이러한 형용사의 속성을 일정 정도로 변별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문법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문장이 ‘완전히 문법적’이거나 ‘완전히 비문법적(*)’이지 않고, ‘약간 어색함(?)’이나 ‘거의 비문법적(??)’과 같은 중간 단계를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하게 된다.

그러면 양범주 분석과 정도성은 다음과 같은 관계로 그 연계를 설명할 수 있다.

개념	설명	예시
양범주 분석	A 아니면 B (이분법)	그는 참이다. / 그는 거짓이다.
정도성	A 와 B 사이의 연속체	그는 매우 행복하다. / 그는 조금 행복하다.

따라서, 양범주 분석이 언어의 기본 구조를 논리적으로 포착하려 한다면, 정도성은 그 구조 내에서 나타나는 미묘하고 가변적인 현실을 포착하여 언어 현상을 더 현실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 Abstract 】

Comparative analysis of the subjectivity and degree of adverbs of degree between the two categories

KIM Jeongpil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Certainly, here is the English translation of the provided text.

The concepts of Polarity Analysis and Gradience are crucial in linguistics, particularly in semantics and syntax, used to explain the meaning and grammatical properties of words and phrases.

Polarity Analysis is a method of analyzing the meaning or grammatical properties of a linguistic expression by dividing them into two opposing poles (e.g., Positive and Negative). The core principle of Polarity Analysis attempts to explain linguistic phenomena using a binary opposition, like a black-and-white logic (e.g., True/False, Existence/Non-existence, Positive/Negative).

For instance, in semantic analysis, the truth value of a sentence is distinguished as either true or false. From a grammatical analysis perspective, examples include classifying nouns or verbs into Count and Mass or Perfective and Imperfective, respectively.

The limitation of Polarity Analysis is that while binary thinking allows for clear distinctions with sharp boundaries, actual language contains many phenomena with fuzzy boundaries or intermediate stages. The concept of Gradience can complement the limitations of this binary analysis, which leads to the suggestion: Why not explore an approach that combines Polarity Analysis with a Gradience analysis method, as detailed below?

Note: I've maintained the structural flow and emphasized the key technical terms as they were in the original Korean text.

중국어 명량사와 동량사의 교차 사용에 대한 고찰

- ‘个’와 ‘次’를 중심으로 -

이인주 (경상국립대학교 강사)

1. 서론

중국어에서 양사는 수량과 범주를 명확히 하는 역할로 사용되는데, 사물의 단위인 명량사(名量词)와 동작의 단위인 동량사(动量词)로 나누어 보는 이분법적 분류 방식이 보편적이다(陈望道 1973, 刘月华 2001). 그중 통용 양사인 ‘个’와 ‘次’는 사용 빈도가 매우 높으며,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하나 때때로 범주를 초월한 교차 결합을 형성하기도 한다. 예컨대 ‘一个打击/一次打击’, ‘两个会议/两次会议’와 같이 명량사 ‘个’가 용언성 성분과, 동량사 ‘次’가 체언성 성분과 결합을 이루어 모두 문법적으로 적합한 표현을 만든다. 이때 ‘个’는 개체의 존재나 개별성을 중요시하는 반면, ‘次’는 사건 발생의 횟수에 중점을 둔다. ‘两次会议’의 경우 동량사 ‘次’를 사용함으로써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건의 횟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두 번 개최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범주를 초월한 결합과 관련해 기존의 연구에서는 단독 범주 안에서의 분석이 대다수이며, 주로 이들의 통사적 지위에 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왔다(邵敬敏 1996, 张谊生 2003, 石毓智, 雷玉梅 2004). 邵敬敏, 刘焱(2001)의 논의에서는 동적 특성을 가진 명사는 동량사와도 결합한다는 점을 주목하였고, 이는 명량사와의 결합과 분명히 차이가 있음도 간략히 지적하였다. 하지만 양사 의미의 실질적 정보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실제 담화 상황에서 어떤 의도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다.

이에 본고에서는 ‘个’와 ‘次’의 교차 사용의 면모를 짚어보면서, 각각의 개별적 속성과 고유한 기능에 대해 재고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이를 지표로 삼아 ‘수사+个+용언성 성분’, ‘수사+次+체언성 성분’과 같은 구문의 사용에 연관된 일련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명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중국어 양사 사용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个’와 ‘次’의 본질적 속성과 교차 사용 현상

‘个’와 ‘次’는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하나, 수식구조에서 종종 호환 사용이 가능한 양상을 보인다. 담화 내에서 ‘个’와 ‘次’의 교차 사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양사가 어떤 의미자질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자질이 중심어를 양화(量化)하는 방식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个’와 ‘次’는 다음과 같은 본질적 속성의 대립을 보인다.

명량사 ‘个’: [공간성] [개체성] [실체성] [독립성] [임의적 개수]

동량사 ‘次’: [시간성] [사건성] [과정성] [연속성] [순차적 횟수]

본고는 이러한 속성의 차이로 인해 ‘个’와 ‘次’가 중심어의 서로 다른 의미 측면을 부각시키는 것을 검증하고자 한다. 여기서 교차 사용은 ‘个’가 용언성 성분과 결합하거나, ‘次’가 체언성 성분과 함께 쓰이면서 의미상, 구조상 모두 연관성을 형성하는 유형을 의미한다. 해당 결

합 범주에 속하는 성분과 예문은 다음과 같다.

수사 + ‘个/次’ + 체언성 성분 : 사건명사

(1) 我们获得了一个/一次 机会。

(2) 最近举行了 两个/两次 会议。

동사 + ‘个/次’ + 용언성 성분 : ‘동작류’, ‘심리류’, ‘감각류’ 동사

(3) 他受到了 一个/一次 打击。

(4) 坐下来做了 几个/几次 深呼吸。

3. 의미자질에 따른 선택 제약

‘个’와 ‘次’의 본질적 속성 차이는 전체 문장의 명확한 정보와 함의를 파악하는 데에 유의미한 지표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실제 언어 사용에서 문맥에 따른 선택 제약으로 구현된다. 본고의 3장에서는 ‘个’와 ‘次’가 모두 문법적으로 가능한 경우일지라도 양화 대상에 대한 인식에 따라 어느 한쪽이 더 자연스러운 현상, 그리고 한쪽만 가능하고 다른 쪽은 불가능한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个’와 ‘次’의 근본적인 차이는 양화 대상을 인지하는 방식에 있다. ‘个’는 양화 대상을 공간 속에 존재하는 독립된 개체로 인지하는 반면, ‘次’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전개되는 사건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대립은 실제 담화에서 양사의 선택을 결정하는 핵심 기제로 작용한다.

(5) C检查后, 又让我们去做 ㄱ.两个/ㄴ.*两次 检查 : 肾功能(五楼)、OCT(五楼)会。

(검사 후, 우리에게 또 두 가지 검사를 하게 했다: 신장 기능(5층), OCT(5층).)

(6) 仅仅是GRE和TOFEL ㄱ.两个/ㄴ.*两次 考试, 就需要付出旁人难以想像的辛劳。

(GRE와 TOFEL 두 시험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노력이 필요하다.)

예문(5)에서 ‘两个检查’는 서로 다른 종류의 검사를 가리킨다. 이는 각각이 독립된 개별 항목으로 인식되며, [개체성] 자질이 요구되는 맥락이다. ‘两次检查’를 사용하면 같은 검사를 두 번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 예문(6) 역시 ‘GRE’와 ‘TOFEL’이라는 별개의 시험을 개체로 제시하므로 이때는 ‘个’의 사용이 자연스럽다. ‘次’는 유사한 성격의 사건이 시간 순서에 따라 반복되는 것을 함의하므로, 서로 다른 종류의 항목을 나열하는 상황과 충돌한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7) 中国围棋代表团选手11日和13日在东京同日本围棋选手进行了 ㄱ.?两个/ㄴ.两次 比赛。

(중국 바둑 대표팀 선수들은 11일과 13일에 도쿄에서 일본 바둑 선수들과 두 차례 경기를 가졌다.)

(8) 一九八五年十月在达博拉 ㄱ.?一个/ㄴ.一次 地震之后, 又发生了余震。

(1985년 10월 다보라에서 한 차례 지진이 발생한 후, 또다시 여진이 발생했다.)

예문(7)은 중국의 대표단 선수와 일본의 대표단 선수가 11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경기를 치

른 상황이다. 이는 시간의 축에서 연속성을 띠고 성격상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므로 [연속성], [사건성] 자질을 지닌 ‘次’가 적합하다. ‘两个比赛’라고 하면 완전히 별개의 경기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문맥과 맞지 않는다. 예문(8)의 ‘地震’은 특정 시점에 발생한 하나의 사건으로, ‘一次’를 사용함으로써 그러한 의미가 강조된다. 특히 ‘又发生了余震’라는 후속 맥락이 있어 사건의 연속성이 두드러지므로 ‘수’로의 호환은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

4. 통사구조에 따른 사용 제약

앞선 3장에서는 ‘수’와 ‘次’의 의미자질이 양화 대상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어떻게 선택 제약으로 작용하는지 살펴보았다. 그러나 양사의 선택은 의미자질뿐 아니라 통사구조에 의해 제약되며, 의미와 구조는 상호작용하여 문장 수용성을 결정한다. 4장에서는 이러한 통사적 제약이 의미자질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분석함으로써 ‘수’와 ‘次’가 단순한 수량 정보 전달 이상의 역할을 하는 점을 논증하고자 한다.

1) 술어 동사의 논항 구조와 양사 선택

동사가 요구하는 논항의 의미-통사적 속성은 양사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수여동사 ‘给’는 이중목적어 구문을 형성하며, 다음과 같은 논항 구조를 요구한다. ‘给+수혜자+대상물’, 이때 대상물로서 목적어 논항은 개체성이 강조되는 실체를 가리키므로, 동작의 계량 단위인 ‘次’의 선택은 문장 수용성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9) 竟是怎么一回事, 应该给群众 ㄱ.一个/ㄴ.?一次 交待。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대중에게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

(10) 请各位给我 ㄱ.一个/ㄴ.?一次 拥抱。

(여러분, 제게 포옹 한 번 해 주세요.)

(11) 您是瞧出我是这种人了, 拿这话给我 ㄱ.一个/ㄴ.?一次 警醒。

(당신은 내가 이런 사람임을 알아보고 그 말로 나에게 깨우침을 주시는군요.)

예문(9)-(11)에서 용언성 성분인 ‘交待’, ‘拥抱’, ‘警醒’ 등은 다른 환경에서는 ‘次’와 결합을 이루어 사용된다. 예를 들어, “和老师来一次拥抱, 感谢他们的辛勤付出。(선생님들과 한 번 포옹하며, 그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에서는 ‘一次拥抱’가 자연스럽다. 그러나 ‘给’류 술어 동사의 논항으로서는 [개체성] 자질의 ‘수’의 사용이 일반적이다.⁸⁾

2) 형용사 수식어와의 공기 관계

‘수’와 ‘次’의 교차 사용에서 통사 구조적 측면의 제약으로 양사와 중심어 사이에 수식 성분이 개입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때 수식어의 의미 유형은 양사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12) ㄱ. 我看了一个表演。 ㄴ. 我看了一次表演。

8) 朱德熙(1979)에 따르면 ‘给’의 수여 의미가 성립하려면 대상물이 수여자의 영역에서 수혜자의 영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실체여야 한다. a) 수여자(A)와 수혜자(B) 쌍방이 존재한다. b) 수여자가 주고 수혜자가 받는 사물(C)이 존재한다. c) A가 능동적으로 C를 A로부터 B로 이동시킨다. 朱德熙, 「与动词“给”相关的句法问题」, 『方言』, 第2期, 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 1979, 82p.

(나는 공연을 봤다.)

(13) 我看了 一个/次 精彩的表演。

(나는 멋진 공연 하나를 봤다.)

예문(12ㄱ), (12ㄴ)의 중립적 문맥에서는 의미상 초점의 차이는 있으나 ‘个’와 ‘次’ 모두 자연스럽다. 그러나 (13)과 같이 형용사 ‘精彩’가 개입하면 ‘个’가 선호되고 ‘次’는 부자연스러워진다. 이는 수식 계층의 차이 때문이다. 명량사는 중심어와 직접 수식 관계를 형성하므로, 다음과 같은 구조가 성립한다.

[一个 [精彩的 表演]]

양화 속성

여기서 ‘精彩的’는 ‘表演’의 질적 속성을 수식하고, ‘一个’는 이렇게 수식된 명사구 전체를 양화한다. 이와 같은 통사적 제약을 이해함으로써, 중국어 문장의 구조적 특성과 문법적 제약이 문장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5. 결론

본고는 중국어 통용 양사 ‘个’와 ‘次’의 교차 사용 양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고, 이들의 본질적 속성과 선택 제약에 관한 일련의 문제를 의미론적, 통사론적 관점에서 다루었다.

먼저 양사가 양화 대상을 인지하는 방식의 차이가 선택 제약으로 나타남을 제시했다. ‘个’와 ‘次’는 [개체성]과 [사건성]을 중심으로 본질적 속성의 대립을 보인다. ‘个’가 대상을 독립된 개체로 파악하여 개별성이나 실체성에 초점을 둔다면, ‘次’는 사건성과 연속성을 가진 시간적 궤적상의 동적인 횡수로 인식한다. 이러한 대립은 이질적 항목의 나열(‘两个检查’)과 시간적 연속 사건(‘两次比赛’) 맥락에서 명확한 선택 경계를 형성하였다. 또한 양사의 선택은 단순한 의미적 차이를 넘어 통사구조에 의한 제약을 받음을 논증하였다. 특히 술어 동사의 논항 구조와 형용사 수식어와의 공기 관계는 ‘个’와 ‘次’의 사용 가능성과 문장 수용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결론적으로 ‘个’와 ‘次’의 교차 사용은 단순히 양화 대상의 통사적 범주만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양사가 지닌 본질적인 의미자질과 문장 구성 성분의 통사적 요구가 상호작용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중국어 학습자들에게 ‘个’와 ‘次’의 사용을 개체-사건, 독립-연속이라는 인지적, 구조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적절한 양사 사용의 실질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A Study on the Crossover Usage of Noun and Verbal Classifiers in
Chinese -Focusing on ‘个(ge)’ and ‘次(ci)’**

LEE Inju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provides an in-depth examination of the crossover usage patterns of the frequently used Chinese general classifiers ‘个(ge)’ and ‘次(ci)’ from semantic and syntactic perspectives. While ‘个(ge)’ and ‘次(ci)’ belong to different categories, their actual usage exhibits crossover combinations that cannot be adequately explained by traditional single category analyses. The findings reveal that ‘个(ge)’ and ‘次(ci)’ form a fundamental opposition centered on [individuation] and [eventuality], with ‘个(ge)’ conceptualizing referents as independent entities and ‘次(ci)’ perceiving them as discrete event units in temporal sequences. These differences in semantic features manifest as context-dependent selection constraints and interact with syntactic structures to determine classifier choice.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classifiers are crucial linguistic elements that reflect speakers’ cognitive frameworks. The results are expected to provide practical guidelines for Chinese language learners to understand and naturally employ ‘个(ge)’ and ‘次(ci)’ within the systematic contexts of entity-event and independence-continuity.

국제관계 악화기 중국 최초 수산고등교육기관의 중일 수산교류 전략: 직예수산강습소 설립자 쑨핑자오의 3차 도일 실천을 중심으로

최리나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 독립연구자)

I. 서론

20세기 초 중국에서는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자국의 농업 근대화를 실현하여 국가적 및 민족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애국주의적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중국은 고대로부터 농업 경제를 국가의 근간으로 삼아온 농업대국이었으나, 19세기 중반 서구 국가들이 이미 근대적 농업사회로의 전환을 완료했던 당시까지만 해도 여전히 전통 농업 방식을 행하고 있었다. 이러했던 중국 농업은 19세기 말 서구의 근대적 농업 과학기술이 유입되면서 본격적으로 근대화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¹⁾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집단은 바로 도일(渡日) 유학생들이었다. 20세기 초 중국은 일본, 미국, 유럽 등 다양한 지역으로 농과 유학생들을 파견하였으나, 1910년대에 미국 유학생 집단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까지 그 유학 대상국은 사실상 일본에 국한되었다.²⁾ 해외 유학을 통해 근대 교육을 이수하고 귀국했던 농과 유학생들은 중국 각지의 고등교육기관에서 농과 교수로 재직하며 근대 중국의 농업 근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들 대다수는 일본 유학생 출신이었다.³⁾

특히 근대 중국의 수산 교육 형성과 발전 과정에서 일본 유학을 통해 근대적인 수산 지식을 습득하고 귀국했던 수산 인재들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수산 교육 초창기 전국에서 수산학을 가르쳤던 교사들 중 대다수는 일본 유학생 출신이었다. 이들은 귀국 후 전국 각지의 고등교육기관에 수산학과를 설립하고 교과과정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사례를 적극 참고하였는데,⁴⁾ 이들에 의해 근대 중국의 수산교육은 점진적으로 근대적 교육체계를 갖추어 갔다.⁵⁾

따라서 20세기 초 불안정한 국제정세 하에서 근대적인 수산 지식 습득을 위해 일본으로 유학하였던 중국인 유학생들의 도일 실천 양상과, 이들을 매개로 전개된 중일 양국 간 수산 교류는, 근대 중국의 수산사를 살펴보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동북아시아 지역의 농업사, 교육사 및 문화교류사의 복합적 지형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있어 중요한 학술적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들 유학생들을 둘러싼 중일 양국 간의 수산교류를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선행연구가 극히 미비한 가운데, 20세기 초 일본으로 유학하여 수산학을 전공했던 중국 유학생들이 그나마 단편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자료로는 중국 최초 수산고등교육기관인 '직예성립갑종수산학교'(直隶省立甲种水产学校)가 1917년 우수 졸업생 10명을 일본에 유학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 직예성립갑종수산학교는 1909년 직예공예총국참의(直隶工艺总局参议) 겸 직예

1) 吴祖鲲·刘小新 (2003), 「中国近代农业教育的兴起及其特点」, 『长白学刊』 第6期, pp.79-81.

2) 雷鸣 (2003), 「浅析20世纪初中国留学生东渡日本的原因」, 『历史学系』 第10号, p.12.

3) 张坤 (2009), 「留学生与中国近代农业科学体制化 (1896-1936)」, 山西大学硕士学位论文, p.33.

4) 刘惠生 (1981), 「水产教育的回顾与探讨」, 『厦门水产学院学报』 第1期, pp.136-142.

5) 于潇·王凌超 (2019), 「中国近代水产教育的特点与问题: 以中等及以上专门学校为例」, 『史话』 第3期, pp.73-79.

공립공예전문학교 서무장(直隶公立工艺专门学校 庶务长)으로 재직 중이던 쑨펑자오(孙凤藻)가 학교 설립을 위해 두 차례의 일본 시찰을 마치고 귀국한 뒤 설립한 ‘직예수산강습소’(直隶水产讲习所)가 개칭된 교명이다.⁶⁾ 1917년에 이루어진 당교의 유학생 파견은 쑨펑자오가 교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중일 양국 간의 수산 교류를 통해 그가 직접 이들을 인솔하여 독일함으로써 이루어진 사안이었다.

따라서 쑨펑자오의 세 차례 독일 실천에 대한 고찰은, 20세기 초 수산학 전공 중국 유학생들의 일본 유학 양상과, 이들을 매개로 이루어진 중일 수산교류 양상을 살펴보는 데 있어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제공해 준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직예수산강습소’의 학교 연혁을 소개한 세 편의 연구가 발견될 뿐이며,⁷⁾ 당교를 매개로 한, 中日 수산교류 양상을 심층적으로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 최초 수산고등교육기관인 직예수산강습소의 설립자 쑨펑자오의 세 차례 독일 실천을 중심으로, 위기 시대였던 20세기 초에 당교를 중심으로 전개된 중일 수산교류의 제반 양상에 대해 심층적인 고찰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쑨펑자오의 세 차례에 걸친 독일 실천을 분석함에 있어서,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장’(Field/Champ) 이론을 차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그의 세 차례 독일 실천을 둘러싼 ‘장’의 역학 구조를 분석하고, 궁극적으로는 중국 최초 수산고등교육기관인 직예수산강습소 설립 초창기에 당교를 매개로 형성된 중일 수산교류 양상이 어떠한 모습을 띠며 어떠한 ‘장’의 산물인지를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자 하였다.

II. 국내 및 국제사회 ‘장’과 직예수산강습소의 설립

쑨펑자오는 총 세 차례에 걸쳐 독일하여 근대 일본의 수산업을 시찰하였다. 그러나 그의 독일 실천은 단순한 시찰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그는 일본 체류기간 동안 중국 최초의 수산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일본의 주요 어업 지역과 양식 시설을 면밀히 고찰하였으며, 나아가 일본의 수산 전문가들과 교육기관 설립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도 하였다.⁸⁾ 따라서 그의 독일은 수산학의 학문적 탐구를 지향한 ‘유학’으로서도 그 의미를 지닌다. 특히 제1차 독일시기 체류기간이 약 6개월⁹⁾에 달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유학’으로도 간주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약 6개월 간의 일본 시찰을 마친 그는 귀국하여 직예수산강습소 설립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준비 과정에서 제2차 보충 시찰을 위해 또 다시 독일했던 것으로 파악된다.¹⁰⁾

직예수산강습소의 설립은 근대 중국이 교육 근대화의 흐름에 합류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

6) 刘金泉(2024), 「百年职校录:天津水产学校」, 『职业教育研究』 第12期, pp.93-95.

7) 杨娟·张学礼·仁靖宇 (2017), 「民国时期河北职业教育研究及启示:以河北省立水产专科学校为例」, 『科教文汇』 第374期, pp.83-84; 刘金泉(2024), 「百年职校录:天津水产学校」, 『职业教育研究』 第12期, pp.92-96; 刘桂芳 (2011), 「中国百年水产教育重要文献的研究:记河北省立水产专科学校出版物」, 『职业教育研究』 第11期, pp.179-180.

8) 刘桂芳 (2011), 「中国百年水产教育重要文献的研究:记河北省立水产专科学校出版物」, 『职业教育研究』 第11期, p.180.

9) 1909년 10월 독일하였고, 1910년 봄 직예수산강습소를 설립했던 사실로부터 미루어 볼 때, 제1차 일본 체류기간은 약 6개월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刘桂芳 (2011), 「中国百年水产教育重要文献的研究:记河北省立水产专科学校出版物」, 『职业教育研究』 第11期, p.180.

10) 刘桂芳 (2011), 「中国百年水产教育重要文献的研究:记河北省立水产专科学校出版物」, 『职业教育研究』 第11期, p.180.

로써, 쑨핑자오의 도일 실천은 단순히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이 명확해진다. 그의 제1, 2차 도일 실천은 근대 중국의 수산업 발전을 위한 수산 인재 양성을 둘러싼, 교육 '장'과 국내사회 '장'의 복합적인 역학 관계 속에서 발현된 것이었다.

아울러, 20세기 초 중국에서 수산학교를 시급히 설립하여 수산인재를 양성해야 했던 원인은, 단순히 “어획 및 가공 등 제반 분야에서 외국의 수산 경쟁력을 따라 잡기 위한”¹¹⁾ 당면한 목표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수산학교의 설립은 수산인재 양성을 전제로 하였으며, 이러한 수산인재 양성은 수산업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서 근대 중국의 국가적·민족적 위기 극복, 즉 ‘구국’의 시대적 필요성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

즉, 청정부가 수산 기술 혁신과 근대적 수산 교육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적 위기를 해소하려고 했던 시도는, 당시 지속적으로 위협받던 해양 주권의 회복을 급선무로, 장기적으로는 해양 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국가적 전략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이에 쑨핑자오의 제1, 2차 도일 실천 및 이를 통한 직예수산강습소의 설립은, 단순히 쑨핑자오 개인의 학문적 탐구를 위한 유학의 의미를 넘어서, 20세기 초 내우외환에 직면한 중국을 둘러싼 국제사회 '장'의 역학적 압박에 대한 청정부의 전략적인 대응이자 국가적 당위성에서 기인한 ‘호명’(呼名)이었다고도 해석될 수 있다.

Ⅲ. 학교 '장'과 중일 수산교류 전략

그러나 일본과의 수산 교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1900년대 각 '장'들의 역학 관계는 1910년대를 기점으로 중대한 변화의 국면을 맞이하였다. 신해혁명 발발에서 시작된 대내외적 정치 격변은, 기존의 유학생 사회 구도를 흔들며 중국 지식인들의 도일 실천을 둘러싼 초국적 이동 '장'의 역학 구도에 부정적인 변동을 야기하는 국면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이는 근대적 수산 지식 습득을 통해 자국의 수산 근대화에 기여하고자 일본 유학을 시도하던 중국 지식인들의 유학 '장' 자체에 근본적인 구조 변화와 위기 상황이 도래했음을 의미했다.

1911년, 무창봉기 소식이 재일 중국인 유학생 사회에 급속히 전해지자, 다수의 중국인 유학생들은 신해혁명에 참여하고자 학업을 중단한 채 집단 귀국하는 양상을 보였다.¹²⁾ 이러한 단체 귀국 사건은 1900년대에 형성되었던 일본 유학 '장'의 안정적인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전환점이 되었다. 1910년대 중국의 일본 유학 열기는 1900년대에 비해 현저한 침체 양상을 드러냈으며, 특히 1910년부터 1912년 사이에 유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1차적인 변곡점을 경험하였다.¹³⁾

교육 '장'을 둘러싼 국내사회 '장'과 국제사회 '장'에서 저항과 한계가 명확해지자, 쑨핑자오는 자신의 전략적 실천 초점을 학교 '장'으로 전이시켰다. 이로써 그는 학교 '장'을 핵심적인 매개로 활용하여 근대적 수산 인재 양성이라는 새로운 실천 공간을 창출하고, 기존 '장'들의 구조적 한계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자 하였다.

중화민국 건립 이후, 쑨핑자오는 일본의 각 관립수산강습소의 협조 하에 일본인 교원들을 초빙하여 중일 수산교류를 이어갔다.¹⁴⁾ 또한, 졸업생들 가운데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 10명을 선발하여 일본으로 유학 보냈다. 이들의 유학 경비 조달 방식은 관련 자료의 부재로 인해

11) 刘金泉(2024), 「百年职校录：天津水产学校」, 『职业教育研究』第12期, p.94.

12) 최리나(2024a), 「교육 '장'과 정치 '장'이 20세기 초 중국인 농과 도일 유학생 수의 변화에 미친 영향: 홋카이도제국대학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사회』 제8권 4호, p.278.

13) 최리나(2024a), 「교육 '장'과 정치 '장'이 20세기 초 중국인 농과 도일 유학생 수의 변화에 미친 영향: 홋카이도제국대학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사회』 제8권 4호, p.278.

14) 楊峻懿(2019), 「清末民国期の水産教育と直隸水産講習所」, 『社会システム研究』22, p.243.

명확히 규명하기 어렵지만, 당시 교장이었던 쑨펑자오가 이들 유학생들을 직접 인솔하여 도일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학교 측은 일본의 수산 학교로 진학하여 학업을 지속할 이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성대한 송별 행사를 개최했다.¹⁵⁾

쑨펑자오의 주도로 일본에 파견되었던 이들 유학생들 대다수는 유학을 마친 후 모교로 복귀하여 교원으로 재직하였으며 근대 중국 수산계의 핵심 엘리트층을 형성했다. 특히 근대 중국의 ‘수산3걸’(水产三杰)로 칭해지는 장위앤디(张元第), 정언썬우(郑恩綏), 류룬(刘纶)이 이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직예수산강습소가 배출한 인재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았음을 방증한다. 20세기 30년대까지 직예수산강습소의 전체 교직원 20여명 중 일본 유학생 출신은 5분의 4에 달하였는데,¹⁶⁾ 이는 이들 유학생들이 일본 유학을 통해 습득한 문화자본이 중국 수산 교육의 학교 ‘장’에 얼마나 깊숙이 영향주었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쑨펑자오의 직예수산강습소 설립과 운영은, 유학생들을 일본으로 파견하여 수산 지식을 학습하게 하고, 다시 그들로 하여금 유학을 마친 후 모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하게 함으로써 일본의 근대적인 수산 지식을 국내에 체계적으로 보급하는 전략적 통로로 기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직예수산강습소의 학교 ‘장’은 20세기 초 국제관계 악화기에 단순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근대 중일 수산교류의 핵심적인 매개체로서 일본의 선진적인 수산 지식을 중국에 도입하고 이를 통해 근대 중국 수산교육의 맹아적 단계를 넘어 초보적 발전을 이끄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이었다.¹⁷⁾

IV. 결론

본 연구의 연구 목적은 중국 최초의 수산고등교육기관인 직예수산강습소의 설립자 쑨펑자오의 세 차례에 걸친 도일 실천을 중심으로, 국제관계 악화기였던 당교 설립 초창기에 학교를 매개로 전개된 중일 수산교류의 제반 양상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의 ‘장’ 이론틀을 적용하여, 쑨펑자오의 세 차례에 걸친 도일 실천을 둘러싼 다층적인 ‘장’들의 역학 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직예수산강습소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쑨펑자오가 주도했던 중일 수산교류가 어떠한 양상을 지니며, 그의 이러한 행위 실천이 어떠한 ‘장’의 산물인지를 규명코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쑨펑자오의 제1차 및 제2차 도일 실천은 교육 ‘장’을 둘러싼 국내사회 ‘장’과 국제사회 ‘장’의 거시적 역학관계 속에서 태동하였다. 직예수산강습소의 설립은 근대 중국이 교육 근대화의 흐름에 합류하기 위한 전략적 시도였으며, 이에 쑨펑자오의 도일 실천은 단순한 개인의 목적을 넘어섰다. 그의 초기 도일 실천은 근대 중국의 수산인재 양성이라는 수산 교육 ‘장’의 형성을 지향했으며, 동시에 국제사회 ‘장’의 역학적 압박에 대한 청정부의 전략적 대응이자 국가적 당위성에 호명된 도일이었다.

둘째, 쑨펑자오는 1910년대에 접어들면서 수산 인재 양성과 관련된 기존의 ‘장’들, 즉 교육 ‘장’을 둘러싼 국내 및 국제사회 ‘장’에서 저항과 구조적 한계를 경험하자, 전략적 실천 초점

15) . 「水产学校首届留日学生」, 水产门户网(<http://www.bbwwfish.com/article.asp?artid=103533>, 2023.05.18.)

16) 刘桂芳(2011), 「中国百年水产教育重要文献的研究:记河北省立水产专科学校出版物」, 『职业教育研究』 第11期, p.180.

17) 刘桂芳(2011), 「中国百年水产教育重要文献的研究:记河北省立水产专科学校出版物」, 『职业教育研究』 第11期, p.180.

을 학교 ‘장’으로 치환하였다. 그는 학교 ‘장’이 지닌 고유한 작동 논리와 상대적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중일 수산교류를 이끌었다. 그는 학교 ‘장’을 매개로 일본인 교원들을 초빙하여 일본의 근대적인 수산 지식을 유입하고, 유학생들을 직접 인솔하여 일본으로 파견함으로써 미래의 수산 인재를 양성하는 실천 활동들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능동적이고도 투쟁적인 ‘장’들의 중심에는 근대 중국 최초의 수산고등교육기관인 직예수산강습소라는 학교 ‘장’이 강력한 구심점으로서 확고히 자리잡고 있었다.

**Fisheries Exchange Strategies of China's First Higher Fisheries Education
Institution During a Period of Worsening International Relations:
A Study Centering on Sun Fengzao's Three Investigations to Japan, Founder
of the Zhili Fisheries Education Institution**

CUI Lina

This study aims to conduct an in-depth examination of the various aspects of fishery exchange between China and Japan that developed around the Zhili Fisheries Education Institution, China's first higher fisheries education institution. Specifically, it focuses on its founder, Sun Fengzao, and his three investigations to Japan, conducted amidst deteriorating international relations. To achieve this, this study adopted French sociologist Pierre Bourdieu's 'field' theory, using it to analyze the dynamic structure of the 'field' surrounding his three practical investigations to Japan. This study's ultimate goal was to clarify the nature of the fishery exchange between China and Japan, formed through the Zhili Fisheries Education Institution during its early establishment, and the specific 'field' from which it emerged. This study holds academic significance as it deviates from the conventional understanding that existing research on the history of fisheries schools has been limited to mere chronological listings of facts and static introductions of individual institutions. Instead, it presents a dynamic educational sociological analytical perspective o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exchange' during a period of deteriorating international relations. Furthermore, this novel approach is expected to provid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fisheries-specialized educational institutions today, aiming to foster fisheries professionals suited for the global era, as they re-evaluate the strategic direction of international exchange and seek effective practical measures.

重厚長大都市の再生と若者流出： 神戸市と釜山市の都市政策比較研究

松本茂樹（兵庫大学 教授）

第 1 章 序論

1.1 研究背景

第2次世界大戦以降、日本の神戸市および韓国の釜山市は、港湾を基盤とした国際工業都市として発展し、鉄鋼・造船・機械などの重厚長大産業を中核軸とした成長を遂げてきた（経済企画庁，1985；韓国産業通商資源部，1992）。神戸市には神戸製鋼・川崎重工業などが拠点を構え、西日本の重工業中核都市として機能した。釜山市も、現代重工業・大宇造船海洋など造船・海運分野の中心都市として、韓国南東部の産業拠点としての地位を確立してきた。

しかし1990年代以降、グローバル化・技術革新・産業空洞化・少子高齢化といった構造変化の波が急速に進展し、従来の製造業中心モデルは徐々に限界を露呈するようになった。IT・知識集約型産業への転換が都市競争力の鍵とされる中、神戸市・釜山市では、重工業中心構造が根強く残存し、変化対応は限定的であった。その結果、若年層がより多様な就業・起業機会を求め、首都圏（東京・ソウル）へ流出する傾向が顕著化している（総務省，2023；KOSIS，2022）。

加えて、両市には典型的な歴史的ショックが存在する。神戸市では1995年の阪神淡路大震災が、都市・産業構造と雇用ネットワークに甚大な打撃を与え、製造・流通・港湾機能の空白が地域産業の弱体化誘因となった（神戸市，1996）。韓国では、1997年アジア通貨危機（IMF危機）が財閥系企業の構造的脆弱性を露呈させ、造船・重工業分野の雇用崩壊と地方工業都市の衰退を促した（韓国銀行，1998；KOSIS，2022）。こうしたショックは、地域経済構造の転換を強制的に促す契機でありながら、一方で重工業依存体質を変えにくい障害ともなった。

1.2 人口動態と都市縮退の兆候

人口動態データを見ると、神戸市と釜山市が成長期を過ぎて減少局面に入っていることを確認できる。

神戸市の人口の推移（住民基本台帳ベース、日本人住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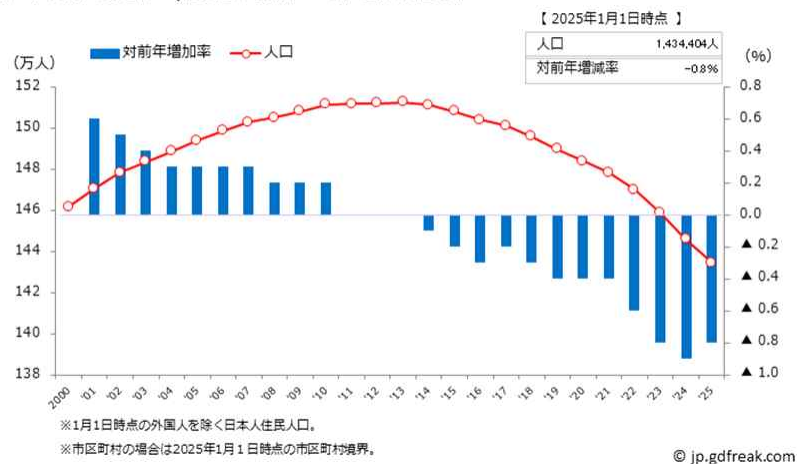


図 1-1: 神戸市の人口推移および将来予測（1994-2014 の実績を含む）
（出所：ResearchGate 経由図表「The evolution of population in Kobe」）

神戸市では、阪神淡路大震災があった 1995 年に人口が急減した後、2000 年代にかけて回復傾向になったものの、近年は全国的な人口減少傾向とともに再び減少局面に転じている。神戸市の将来人口推計によれば、2025 年時点では約 149.1 万人、2040 年には約 135.4 万人とする見通しが出ていたが、実際には 2025 年 1 月 1 日時点における人口は 143 万 4,404 人であり、推計以上に人口の減少が進んでいる。



図 1-2: 釜山市人口推移（1995-2025 年および将来予測）
（出所：韓国統計庁、釜山市統計年鑑等）

一方、釜山市の人口データについては、釜山市登録人口トレンドを扱う “Busan Statistics by Category” によれば、通貨危機があった 1995 年の人口ピーク約 3.8 百万人から減少傾向に入り、近年は 3.3 百万人台にまで落ちているとされる。国際統計サイト Macrotrends によれば、Busan (都市圏人口ベース) は 2023 年時点で約 3,472,000 人、2024~2025 年にかけて 3,477,000 ~ 3,484,000 人水準と推移している。こうした数字は、釜山市が減少傾向をたどっている可能性を示している。

以上のような人口減少傾向は、労働力母体の縮小、高齢化進行、若年層流出という複合的リスクを都市に課すものであり、都市再生・産業転換の構図に直接的に影響を与える。

1.3 研究目的と意義

本研究は、神戸市と釜山市という、港湾 + 重工業依存型都市という共通点を持つ地域を比較対象とし、以下の 3 点に焦点を当てる。

1. 重厚長大産業の成功が醸成した経路依存性と構造的固定化

※「経路依存性 (Path Dependence)」とは、ある制度や技術、社会の選択が過去の決定や出来事に強く影響され、将来の選択肢や変化が制約される現象を指す。

2. 阪神淡路大震災およびアジア通貨危機といった外的ショックが、都市構造転換に与えた影響

3. 若年層の首都圏流出と都市縮退のメカニズムおよび政策的示唆

この比較分析は、地方中核都市の産業再編モデル構築および若年層誘引戦略を検討する上で実践的知見を提供することを目指す。

第 2 章 先行研究の整理

2.1 産業構造転換と地域経済の停滞に関する研究

日本、韓国の重厚長大産業都市において、産業構造転換の遅れが地域経済の停滞を招いたことを指摘する研究は多い。日本では、石油危機以降の産業構造転換を論じた藤田 (2005) や、地域経済の再生と産業多角化の必要性を論じた大西 (2010) が代表的である。これらの研究は、製鉄・造船・機械といった「重厚長大産業」に依存した都市が、グローバル競争や技術革新に対応できず、若年層の流出や地域活力の低下を招いたことを明らかにしている。

韓国でも同様に、釜山・蔚山・浦項といった産業都市が 1997 年の通貨危機以降、産業多角化の遅れに直面したことが報告されている (Lee, 2003; Kim, 2011)。特に釜山市については、造船・港湾関連産業に偏重した産業構造が新たな雇用を創出できず、若者のソウル首都圏への流出を招いたことが指摘されている (Park, 2017)。

2.2 都市間比較研究：神戸市と釜山市の類似性

神戸市と釜山市は、戦後においてともに港湾都市として発展し、重厚長大産業が地域経済を牽引したという共通点を持つ (中村, 2015; Han, 2018)。両市ともに「港湾・貿易・製造業」の三位一体構造を基盤としており、海外輸出による経済拡大の恩恵を享受した。しかし 1990 年代以降、グローバル競争の激化、アジア近隣国の台頭、製造業の海外移転により、その優位性は失われた (Yamamoto, 2016)。

また、外的ショックによる構造的変化の遅れも共通している。神戸市では 1995 年の阪神淡路大震災が、地域経済に深刻な打撃を与え、製造業の回復が遅れた (内閣府, 2005)。一方、釜山市では 1997 年の韓国通貨危機 (IMF 危機) が金融・産業システムの再編を促したものの、

地域中小企業の淘汰が進み、若者の雇用機会が減少した（Choi, 2002）。このように、両市は異なる社会的ショックを経ながらも、結果的に産業転換が遅れ、人口流出に直面しているという共通課題を抱える。

2.3 若者流出と都市ブランド・イメージの研究

若者の都市流出に関する研究は、経済要因のみならず、「都市の魅力」「職業選択の自由度」「文化的多様性」など、ソフトな要因に注目する傾向がある。たとえば田村（2019）は、地方都市の若者流出は「成長産業の不足」と「ライフスタイルの多様性欠如」が複合的に作用することを示している。また、韓国では Lee & Park（2020）が、釜山の若者離脱は「産業の硬直性」と「創業支援環境の弱さ」に起因すると分析している。

神戸においても、震災後に都市再生が進められたものの、若者が魅力を感じるような IT・スタートアップ産業の集積は十分ではなかった（神戸市, 2020）。これにより、東京への若者流出は継続している（総務省, 2022）。

2.4 本研究の位置づけ

以上の先行研究を整理すると、神戸市と釜山市の事例は、それぞれの歴史的・経済的文脈に根ざしながらも、共通して「重厚長大型産業への依存」「産業転換の遅れ」「外的ショックによる構造変化の遅延」「若者流出」という四つの要因に集約されることが分かる。

しかし、両市を同一視点で比較分析して、産業構造・政策・社会意識の違いを統合的に考察した研究は少ない。本研究はこの点に着目し、神戸市と釜山市という「双子都市的構造」を持つ港湾産業都市の事例から、重厚長大型産業の成功がもたらした「構造転換の遅れ」のメカニズムを明らかに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第 3 章 分析枠組みと方法

3.1 研究目的の再確認

本研究の目的は、神戸市と釜山市という二つの港湾産業都市を比較し、鉄鋼・造船などの重厚長大型産業の発展が地域経済構造にどのような影響を及ぼし、結果として若者流出の一因となったかを明らかにすることである。特に、両市が経験した外的ショック（1995 年の阪神淡路大震災と 1997 年の韓国通貨危機）を契機とする産業構造変化の遅れと、IT・サービス産業への移行の不十分さに注目する。

本章では、この目的を達成するための分析枠組みと研究方法を提示する。

3.2 分析枠組み

本研究では、以下の分析枠組みに基づき、両市を「重厚長大産業の成功が構造転換を阻害した都市」として比較分析す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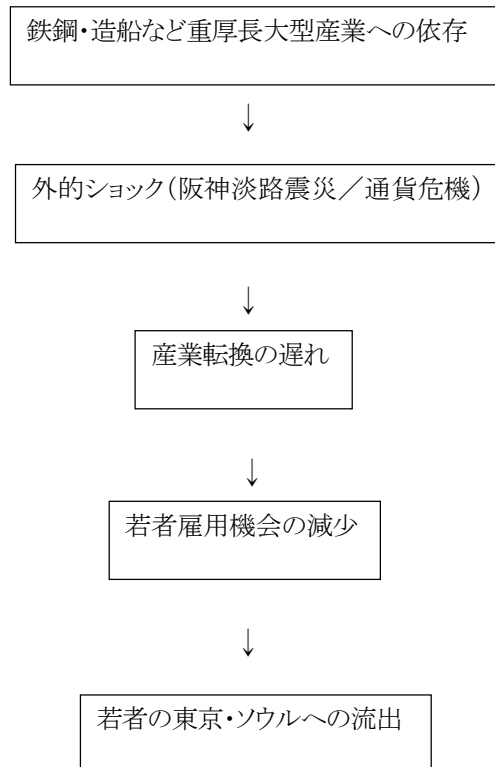


図 3-1 分析枠組み

(1) 産業構造要因

神戸市および釜山市の経済構造を、「第一次～第三次産業別就業構成」「製造業出荷額」「主要産業別付加価値構成」などの統計指標に基づき比較する。特に鉄鋼・造船・機械の比重を中心に、産業の集中度とその変化を時系列的に把握する。

(2) 外的ショック要因

神戸市の阪神淡路大震災（1995）および釜山市の通貨危機（1997）を契機に生じた経済的・社会的影響を定性的に分析する。政策文書、自治体報告書、新聞記事などの二次資料をもとに、災害・危機が産業再編に与えた影響と政策対応の違いを明らかにする。

(3) 若者流出要因

人口移動統計（日本：総務省「住民基本台帳人口移動報告」、韓国：KOSIS「Population Movement Statistics」）を用いて、15～34 歳人口の転出入比率を時系列で分析する。さらに、IT・スタートアップ雇用率、創業支援政策の有無などを加え、「若者が都市を離れる構造的要因」を定量的・定性的に整理する。

3.3 研究方法

(1) 定量分析

本研究では、以下の公的統計データを用いた比較分析を行う。

分析項目	神戸市	釜山市	期間
産業別就業構成	総務省「国勢調査」	KOSIS 「Population Census」	1990- 2020
製造業出荷額	経済産業省「工業統計表」	KOSIS 「Manufacturing Statistics」	1990- 2020
若者転出入率	総務省「住民基本台帳移動報告」	KOSIS 「Population Movement」	1990- 2020
IT 産業雇用比率	神戸市産業振興課データ	釜山経済振興院データ	2000- 2022

これらの統計をもとに、両市の産業構造変化と若年人口動態の関係を分析する。特に 1995 年～2000 年を構造転換期の分岐点として、前後比較を行う。

(2) 定性分析

自治体報告書、経済白書、新聞記事、政策資料をもとに、次の分析を行う。

- ・ 神戸市「震災復興計画」「新産業創造プログラム」などの政策過程分析
- ・ 釜山市「Post-IMF 産業再生戦略」「Creative Economy 政策」などの比較分析
- ・ 若者の意識調査（例：釜山青年フォーラム、神戸市若者意識調査）に基づく価値観の比較

これにより、産業政策と若者流出の関係性を、数値だけでなく社会的文脈からも検証する。

3.4 研究の限界と留意点

本研究は比較地域研究の性格を持つため、統計定義やデータの更新頻度に違いがある点に留意が必要である。また、「若者流出」の要因は産業構造のみならず、教育機会、住宅、文化環境など多様であるため、本研究では産業構造的要因に焦点を絞る。一方で、後続研究において社会文化的要因を補足的に検討する余地がある。

3.5 小括

本章では、神戸市と釜山市における重厚長大型産業依存構造がどのように若者流出へと連鎖するのかを分析するための理論的・方法的枠組みを提示した。次章では、この枠組みに基づいて、両市の統計データおよび政策資料をもとに実証分析を行う。

第 4 章 神戸市と釜山市の産業構造と人口動態の実証分析

4.1 分析の目的と視点

本章では、第 3 章で示した分析枠組みに基づき、神戸市および釜山市の重厚長大型産業構造の変化と若者人口動態の実態を明らかにする。両市は戦後の高度経済成長期において、鉄鋼・造

船・港湾物流などを中心に発展したが、1990年代以降のグローバル化と経済危機により、その産業基盤は揺らいだ。

特に、神戸市は1995年の阪神淡路大震災、釜山市は1997年の通貨危機（IMF危機）を契機に地域経済が構造的転換を迫られたが、結果的にIT・サービス産業への移行が遅れ、若者の大都市圏（東京・ソウル）への流出を招いた可能性がある。

4.2 神戸市の産業構造の変化

神戸市は、戦後において「鉄鋼」「造船」「機械」「港湾物流」を基幹とした重工業都市として発展した。1990年から2020年にかけての神戸市における主要産業別就業者構成比の推移は以下になる（総務省「国勢調査」より作成）。

- ・ 製造業：1990年の24.8% → 2020年には12.5%へ減少
- ・ 第三次産業：同期間に60% → 78%へ上昇
- ・ 特に医療・福祉、教育、サービス業へのシフトが顕著

製造業の出荷額は震災直前の1994年をピークに減少傾向を示し、震災後の回復も緩やかであった（経済産業省「工業統計表」）。神戸製鋼所をはじめとする大企業の再編や、造船業の縮小が地域経済に長期的な影響を与えたとされる（神戸市産業振興課，2020）。さらに、1995年の阪神淡路大震災によって港湾機能が一時的に麻痺し、国際物流拠点としての地位が釜山港・上海港に移行したことも構造転換の遅れに拍車をかけた（内閣府，2005）。

4.3 釜山市の産業構造の変化

釜山市は、1970年代以降、韓国最大の造船・港湾都市として発展した。釜山造船所や現代重工業などの立地が地域雇用を支え、1970～1990年代初頭にかけて「重化学工業都市」として繁栄した。しかし、1997年の通貨危機（IMF危機）を境に、重工業中心の経済モデルは持続困難となった（Lee，2003）。1990～2020年の釜山市における主要産業別就業構成比の推移は下記の様になる。（KOSIS「Population Census」より作成）。

- ・ 製造業：1990年の28.4% → 2020年には14.1%へ減少
- ・ 情報通信・サービス産業：同期間に4.2% → 10.3%へ上昇
- ・ 若者層の雇用機会はソウル・京畿道への集中が顕著

通貨危機後、釜山市はIT・観光産業への転換を図ったものの、ソウル首都圏との競争に遅れを取り、創業支援・ベンチャー投資環境の整備も限定的であった（Busan Economic Promotion Agency，2019）。結果として、若者の離脱率は全国平均を大きく上回る水準で推移している。

4.4 人口動態の比較分析

神戸市と釜山市における15～34歳人口の推移を比較した（神戸市統計書、KOSIS「Population Statistics」より筆者作成）。

- ・ 神戸市：1990年約42万人 → 2020年約31万人（▲26%）

・釜山市：1990 年 約 68 万人 → 2020 年 約 44 万人 (▲35%)

両市ともに若者人口の減少が顕著であり、特に釜山では首都圏 (ソウル・京畿) への転出が常態化している (Park, 2017)。神戸でも、東京圏への転出超過が続いており、2010 年代後半には若者転出率が政令指定都市中でも上位を占めた (総務省, 2022)。

4.5 産業構造と若者流出の関連分析

定量的にみると、両都市の若者流出は「製造業雇用比率の低下」と強く相関している。

例えば、神戸市では製造業雇用比率が 1990 年の 24.8%から 2020 年に 12.5%へ低下する一方、15～34歳人口比も同期間に 26%減少した。釜山市でも、製造業比率の低下▲14.3%に対し、若年層人口の減少率は▲35%に達している。

この関係は、重厚長大型産業に依存した都市において、新産業創出や若者向け雇用の不足が、人口流出を加速させたことを示唆する (Kim, 2011; Han, 2018)。

さらに定性資料からも、両市に共通して「IT・スタートアップ支援の遅れ」「文化・創造産業の不足」「都市ブランドの固定化」などが指摘されており、若者が「新しい挑戦の場」として東京やソウルを選好する傾向が見られる (田村, 2019; Lee & Park, 2020)。

4.6 小括

神戸市と釜山市の実証分析から、以下の三点が明らかになった。

1. 両市はともに、重厚長大型産業が長期的に地域経済を支えてきたが、その成功が結果的に産業転換を阻害した。
2. 外的ショック (震災・通貨危機) が構造的転換の機会となり得たが、政策対応の差により回復力に違いが生じた。
3. 若者の流出は単なる人口減少ではなく、「産業構造の硬直性」と「都市の魅力低下」に起因する社会的現象である。

これらの結果は、次章における考察において、両市がどのようにして「産業の成功が転換の遅れを招いたのか」を理論的に検討する基礎となる。

第 5 章 考察と結論

5.1 研究結果の総括

本研究では、日本の神戸市と韓国の釜山市という、いずれも戦後の重工業化を基盤に発展してきた港湾都市を対象に、鉄鋼・造船産業の変遷とその後の産業転換、さらに若者流出の要因を比較分析した。その結果、両都市は共通して「産業構造の転換期における地域経済の再編」に苦戦している一方で、転換の方向性と政策的アプローチに差異が見られた。

神戸市は阪神淡路大震災以降、都市再生と産業の多角化を進め、医療産業都市構想や創造産業 (デザイン・アート・観光) への転換を図ってきた。しかし、高付加価値産業への移行が進む一方で、地場中小企業との連携が弱く、地域全体としての「雇用吸収力」は限定的であった。

一方、釜山市は 1990 年代以降、造船・港湾物流を中心に外資導入と輸出志向型産業を推進してきたが、近年はグローバル競争の激化により造船業が低迷している。加えて、首都圏への若年層集中が進み、地域経済の「空洞化」が顕著である。すなわち、神戸は「多角化型転換による成長の停滞」、釜山は「輸出依存型産業構造による脆弱性」という、異なる課題を抱えている。

5.2 産業転換における構造的課題

両市に共通する課題は、「産業転換のスピードと地域社会の適応力との乖離」である。

高度経済成長期に形成された鉄鋼・造船関連の産業集積は、熟練労働者・関連企業・教育機関のネットワークによって支えられてきたが、これらの仕組みは新産業への移行において柔軟性を欠いた。

さらに、地方自治体が掲げる「知識集約型産業」や「デジタル産業」への転換政策は、雇用創出の規模において旧来の重厚長大産業を補完できていない。その結果、若者にとって魅力ある「安定した地元雇用」が減少し、東京・ソウルといった首都圏への流出を促進している。

5.3 神戸市と釜山市の比較から見える差異

両市を産業転換の方向性、政策主導の特徴、若者政策の観点から比較した。

観点	神戸市	釜山市
産業転換の方向性	医療・バイオ・デザイン・観光・ファッションなど多角化	造船・物流中心から ICT 産業へ転換模索
政策主導の特徴	都市再生型（震災復興との連動） 神戸医療産業都市・神戸スタート	国家プロジェクト依存型（中央主導） 釜山創業バレー・
若者政策	アップ拠点・ アクセラレーションプログラム	青年起業支援プログラム
結果	雇用の質的变化は進むが量的不足	起業支援活発も地域定着率が低い

図 5-1 神戸市と釜山市の3観点による比較

神戸は「地域主導の多角化」を試み、釜山は「国家主導の再産業化」を目指したが、いずれも若者の定着・地域雇用の持続性という点で十分な成果を挙げていない。このことは、ハード中心の再開発や外資導入だけでは「地域の内発的成長」を生み出せないことを示している。

5.4 若者流出の構造的背景

若者流出の背景には、単なる雇用不足だけでなく、「都市の魅力資本」の不足がある。すなわち、職業選択の自由度、創造的活動の場、文化・ライフスタイルの多様性といった“都市体験”の質が、東京・ソウルなどのメガシティと比較して劣っている点が挙げられる。

特に釜山では、教育・文化機能の集中がソウルに偏っていることが、若者の「移住動機」を強めている。一方、神戸は都市環境・景観の魅力があるものの、若者が「挑戦できる職域」が限定的であり、大学卒業後の地元定着率が低い。これは、日本においても経済・文化の東京一極が顕著であることの表れである。

5.5 産業転換の成功に向けた提言

本研究の比較分析から、以下の 3 点が産業転換と若者定着の鍵であると考えられる。

① 中小企業の再編と地域連携による産業エコシステムの再構築

大企業依存型から脱却し、地元企業・大学・行政が連携した「産業クラスター」の形成が不可欠である。神戸ではスタートアップ支援を地域製造業と接続させる仕組み、釜山では造船技術を応用した海洋エネルギー・環境ビジネスの展開が有効である。

② 若者のキャリア形成と地域資源の接続

大学・高専・専門学校と地元産業を結ぶ「インターンシップ型教育」や「地域課題解決プロジェクト」を強化し、若者が地域に貢献できる実感を持てる仕組みづくりが必要である。

③ 文化・創造産業の育成による都市魅力の再構築

経済合理性だけでなく、文化・芸術・観光などを組み合わせた「感性都市戦略 (Creative City Strategy) 」が求められる。特に神戸の港町文化、釜山の映画・音楽文化など、既存資源を再編集することが地域ブランディングに繋がる。

5.6 結論と今後の課題

本研究は、重工業都市の構造転換という共通課題を抱える神戸市と釜山市を比較し、両都市の政策的方向性と若者流出の関連を明らかにした。その結果、産業転換の「速度」や「政策の一貫性」よりも、むしろ「地域社会全体の包摂力」や「若者が将来像を描ける地域環境」の有無が、都市の持続可能性を左右することが示唆された。

今後の研究課題としては、①地方都市におけるスタートアップの定着条件、②若者のライフスタイル選好と就業地選択の関係、③日韓の地方都市間連携 (都市間ネットワーク) による新産業創出の可能性、などが挙げられる。

参考文献

【韓国・英語文献】

- Busan Metropolitan City. (2024). Population Statistics and Industrial Report 2024. Busan City Statistics Bureau.
- Chang, H.-J. (1993). The Political Economy of Industrial Policy. St. Martin's Press.
- Choi, S. & Kim, J. (2021). "Industrial Transformation and Urban Decline in Korea: Lessons from Busan." Korean Journal of Regional Studies, 27(1), pp.33-58.
- Hyundai Research Institute. (2022). The Shift of Heavy Industries and the Emergence of ICT in Korea. Seoul.
- Kim, S. Y. (2018). "Youth Migr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in South Korea." Asian Population Studies, 14(2), pp.145-162.
-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FRA). (2023). New Farmer Support Policy Report. Seou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Porter, M. E. (1990).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New York: Free Press.
- Putnam, R. D.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United Nations (2022).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The

2022 Revision. New York: UN DESA.

World Bank (2023). Structural Transformation and Employment in East Asia. Washington, D.C.: World Bank Publications.

【統計資料・ウェブデータ】

総務省統計局 (2024) . 『日本の地域別人口移動統計』 .

<https://www.stat.go.jp/data/idou/index.html>

韓国統計庁 (KOSIS, 2024) . 「釜山市人口統計および産業別就業者数」 . <https://kosis.kr/>

OECD (2023). Regional Outlook 2023: Productivity and Inclusiveness. OECD Publishing.

【参考文献】

藤田直樹 (2005) 『日本の産業構造転換と地域経済』、有斐閣。大西康雄 (2010) 『地域産業の再生戦略』、日本評論社。

中村亮介 (2015) 「港湾都市神戸の経済構造と再生課題、」『地域政策研究』12(3)。

Lee, J. (2003). Industrial Transformation in Korea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is. Seoul: KDI Press. Han, S. (2018). Port Cities and Urban Transition in East Asia. Busan Economic Review.

Park, J. (2017). Youth Outmigration and Regional Decline in Busan. Korean Urban Studies, 25(2). 田村聡 (2019) 『地方創生と若者の流出問題』、日本経済新聞社。

内閣府 (2005) 『阪神・淡路大震災 10 年の記録』。

Kobe City (2020). Kobe Startup Ecosystem Report. 神戸市産業振興課。総務省 (2022) 『住民基本台帳に基づく人口移動報告』。

【 Abstract 】

”Regeneration of large, prosperous cities and the outflow of young people: A comparative study of urban policies in Kobe and Busan”

MATSUMOTO Shigeki (Hyogo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urban policy responses of Kobe City in Japan and Busan City in South Korea to the challenges posed by youth outmigration and industrial transformation. Both cities historically thrived on heavy industries such as steel and shipbuilding, which contributed to their economic growth but also led to path dependence, hindering a timely shift toward IT and service sectors. As a result, younger generations have increasingly migrated to metropolitan areas like Tokyo and Seoul in search of better career opportunities and living conditions.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youth support policies—including entrepreneurship programs, housing assistance, and global talent development—this paper highlights the structural limitations and strategic efforts of each city. The findings suggest that while both cities have initiated reforms to attract and retain young residents, overcoming the legacy of industrial specialization remains a critical challenge for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

1950년대 재일조선인 국적을 둘러싼 담론 -스즈키 하지메(鈴木一)의 『親和』 기고문을 중심으로-

성혜진(국립부경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1. 들어가기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하 평화조약)이 발효되자 재일조선인은 해방 이후 연합군 점령기 동안 국적 결정이 잠정적으로 보류되어 있던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일본 국적을 상실하고 조선족을 회복하게 되었다. 이에 일본 국적을 희망하는 자는 다른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오직 국적법에 규정된 귀화 절차로써만 가능했다.¹⁾ 이는 국적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었던 베르사유 조약 등 국제적 선례와는 달리,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재일조선인 문제를 향후 한일 회담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방침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일본에 거주하던 재일조선인의 국적 문제는 한일회담의 주요 의제로 부상하게 된다. 한편, 평화조약이 발효된 같은 해, 한일회담 예비 회담이 개최된 직후 한일 민간 친선을 표방한 일한친화회(日韓親和會, 이하 친화회)가 창립되고, 이어서 기관지 『親和』도 창간되었는데, 그 중심인물 중 한 명이 스즈키 하지메(鈴木一, 1901~1993)였다. 흥미로운 점은 일한친화회의 핵심 구성원들이 재조 일본인 등 식민지 조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던 인물이었다는 데 반해, 스즈키는 전후에 들어 조선(KOREA)과 인연을 맺게 된 인물이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재일조선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는 2005년에는 한국 측이, 2008년에는 일본 측 한일회담 관련 문서가 일반에게 공개된 이후 활발히 진행되었다. 재일조선인 관련 잡지 연구 또한 그동안 주로 재일조선인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민간 친선을 표방한 일한친화회라 하더라도, 그 운영 주체가 일본의 정·재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었다는 점에서 『親和』를 재일조선인 연구의 사료로 평가하려는 시도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한일회담의 재개와 국교 정상화가 『親和』의 주요 의제 중 하나였으며, 그에 따라 재일조선인을 다룬 기고문 또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스즈키는 1951년부터 1954년까지 외무성 출입국관리청 장관으로 재직하며 재일조선인의 법적 지위를 비롯한 전후 일본의 초기 외국인 정책을 총괄한 관료이자 동시에 친화회 회장으로서 『親和』에 백여 편이 넘는 글을 기고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스즈키는 1950년대 일본 사회에서 재일조선인 국적을 둘러싼 담론을 형성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²⁾

2. 농림성 관료에서 출입국 관료로의 전환

스즈키의 전전(戰前) 약력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도쿄제국대학 법학부를 졸업한 그는 농림성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중일전쟁(日中戰爭)에 소집되었고, 전선에서 3여 년간 복무한 뒤 다시 농림성 관료로 복귀했다. 그는 전후의 저술에서 이 전장 체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에 대한 견해를 간략히 언급한 이외에, 농림성 근무 시절의 구체적 행적은 거의 알려

¹⁾ 森田芳夫(1954), 「在日朝鮮員処遇の推移と現状」『法務研究』第43集第3号, 法務研修所, pp.111-112.

²⁾ 재일조선인 문제와 스즈키 하지메에 관한 연구는 이성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성(2013), 「한일회담에서의 재일조선인의 법적 지위 교섭(1951~1965)」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한일회담(1951~65)과 재일조선인의 국적 문제-국적 선택론에서 귀화론으로」『사림』, 수선사학회; (2016), 「일본 정부의 재일조선인 정책과 한일회담-스즈키 하지메에서 사카나카 히데노리」『일본공간』,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그는 스즈키를 온정적 동화론자였음을 밝히고 있다.

지지 않았다. 그의 약력 시작은 일본 패전 직전 부친인 제42대 총리대신 스즈키 간타로(鈴木 貫太郎, 1868~1948)가 재임하던 3개월 남짓한 임기 동안 총리 비서관 근무와 이후 1947년에는 궁내청 시종 차장(侍從次長)으로 재직하며 천황을 보필한 그것부터 알려져 있다. 1950년에는 외무성 출입국관리청(이하 출입국)의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농림 관료 출신이었던 그가 출입국 장관직에 오를 수 있었던 배경에는, 부친 간타로의 영향력과 비서관 및 시종 차장으로서 천황 측근으로 근무한 경력이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군 점령 기간에, 즉 1947년 외국인 등록령이 포고된 이후 스즈키는 출입국 장관으로 부임하며 1951년 출입국관리령 제정과 1952년 평화조약 발효 이후의 외국인등록법 및 출입국 관리법의 제정 과정에 중요한 결정권자로서 관여하였다. 연합군 점령기에서 평화조약 발효 이후로 이어지는 일본의 외국인 관련 법제가 주로 재일조선인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스즈키는 이 시기 일본 사회 내에서 재일조선인이 처한 현실을 자신의 행정 경험과 결부시켜 이해해 나갔다고 볼 수 있다. 자신도 한국에 대해서는 출입국 장관이 되고 나서야 처음으로 이웃 나라 조선 문제를 접하고 “자신을 포함한 일본인 대부분이 이웃 나라에 무지했음을 통감했다”라고 회고하였다.³⁾ 특히 그는 회고록에서 “(일본인은) 한때 우리의 동포였던 재일조선인이라는 관점보다 외국인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⁴⁾라며 재일조선인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드러냈다. 그가 한국을 처음 방문한 것은 1963년 광복절 기념식 초청을 통해서였는데, 당시 그는 한국에서 이국적 정취를 느끼지 못한 이유가 “36년간의 관계(おつき合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훨씬 이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배경이 양국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게 하였기 때문”이라 언급했다(『親和』 1963년 118호).

이러한 스즈키의 조선 인식(재일조선인)은 식민지 조선과의 직접적 경험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패전 직전과 전후 시기에 부친 간타로 및 천황과의 관계, 그리고 연합군 점령하에서 형성된 전후 일본 사회의 ‘조선(KOREA) 인식’ 속에서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스즈키의 시선은 식민지 조선에 이해관계를 가졌던 재조 일본인 출신 인사들이 주도한 대한(對韓) 청구권 요구나 그리움의 담론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었다.⁵⁾

1951년 법무성이 신설되면서 출입국 관리 업무가 외무성에서 법무성 산하로 이관되었고, 1952년에는 출입국관리국으로 격하되었음에도 스즈키는 1954년까지 장관직보다 낮은 국장으로 재직하였다. 그가 출입국 관료로 근무하던 시기에는 한일회담이 개최되고, 친화회 발족과 『親和』의 창간이 이루어졌다. 스즈키는 출입국 행정의 책임자로서 재일조선인 문제를 다룬 글을 『親和』에 기고하기 시작하는데, 1954년 친정인 농림성으로 복귀하여 퇴직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親和』에 관료로서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입장에서 글을 기고하기 시작하였다.

3. ‘내정 문제’로서의 재일조선인 문제

스즈키는 현역 관료로서 1953년 ‘구보타 발’언으로 한일회담이 결렬된 직후, 『親和』를 통해 재일조선인 문제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개진하였다. 그는 “조선인은 왜 (한반도로) 돌아가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 물음에 답하는 것이야말로 『親和』가 수행해야 할 사명”이라고 언급하였다. 스즈키는 재일조선인 문제는 무엇보다 국적 선택권의 문제에서 출발해

3) 鈴木一(1968), 『韓国のころ』, 洋々社, p.1.

4) 鈴木一, 위의 책, 2쪽.

5) 스즈키가 농림성 관료로서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는다. 그의 업무가 주로 일본 내의 농림 행정에 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무 시기를 고려하면 전시 농정체제 아래에서 식민지와 완전히 무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스즈키가 의도적으로 전전의 농림성 근무 경력을 언급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야 한다고 보았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사유로 평화조약을 제시하였다. 그는 전쟁 종료 후 통상적으로 영토에 남은 민족에게 국적 선택권이 부여됐으며, 제2차 세계대전 후 체결된 이탈리아 평화조약에서도 국적 선택권이 인정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평화조약에는 국적 선택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재일조선인은 일본인으로 간주하여야 하며, 조선적을 희망하는 자는 한반도로 귀국하면 될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스즈키는 국적 선택권 조항의 부재로 인해 재일조선인이 느끼는 불안감이 영주권 획득 운동 등으로 표출되었다고 지적하며, 국제관례에 따라 이들에게 국적 선택의 자유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재일조선인 문제를 일본의 '내정 문제'로 규정하고, 이는 한일 회담의 타결 여부에 따라 좌우될 사안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재일조선인에 대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함에도, 현재 이 문제가 외무성의 소관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나아가 불량선인(不良鮮人)에 대한 단속과 강제송환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모든 재일조선인을 불량선인이라고 단정 짓지는 않았다. 오히려 '불량 분자'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더불어 '선량한 자'에게는 후생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재일조선인을 철저히 구분하였다. 또한 이승만 라인과 독도 문제(竹島問題) 등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도, 재일조선인에 대한 생활 지원을 중단하는 보복적 대응이 아니라 이를 내정 문제로 다룸으로써 일본의 인도주의적 태도를 국제 여론에 호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親和』 1953년 2호).

이어 그는 약 60만 명 재일조선인 대부분이 일본에서 태어난 일본어와 일본 교육, 생활 환경에 익숙한 사람들로, 과거 일본의 동포였던 이들의 문제를 인도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하며, 8개 조항의 종합대책을 제안하였다. 이 종합대책은 평화헌법에 기반한 일본이 국제 여론에 응답해야 할 인도주의의 실천으로 제시된 것으로, 그중에서도 “(1) 귀화 조건을 완화하여 점진적으로 귀화를 촉진할 것”을 중점 제안으로 꼽았다. 한편으로 그는 치안을 해치거나 범죄를 일으킨 소수에 대해서는 단호히 단속해야 하며, 이러한 조치는 오히려 재일조선인 사회로부터 환영받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스즈키는 이와 같은 8개 조항의 대책을 제안하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그는 과거에 탁무성과 내무성이 이러한 행정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현재는 그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의 부재를 지적하였다(『親和』 1954년 6호).

스즈키는 출입국관리국장에서 퇴직한 이후 『親和』 지면을 통해 본격적으로 재일조선인 문제를 다루었다. 그는 이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앞서 제시한 8개 조항의 종합대책에 이어, 6가지 구체적 해결 방안을 다시 제안하였다. 스즈키는 이러한 정책 제안을 통해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였으며, 『親和』를 발간한 친화회가 반관반민(半官半民) 조직으로서 재일조선인 문제에 대응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그는 『親和』 지면을 활용하여 재일조선인 정책에 관여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親和』 1956년 36호).

또한 그는 1957년 9월 기준 외국인 등록자 664,633명 중 599,375명의 재일조선인이며, 그중 약 87%인 52만 명이 전전부터 일본에 거주해 온 자들로, 약 60%는 일본에서 태어난 세대라고 통계 자료를 제시하였다. 그는 이들 대부분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본인/한국인이 된 자들이므로, 일본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자에게는 귀화를,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영주 허가를 무조건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親和』 1958년 51호).

그러나 당시 일본 국적법 제14조에 따르면, 재일조선인이 귀화를 희망하면 제출해야 할 서류는 총 10종에 달했으며, 그중 일부 항목은 재일조선인이 충족하기 어려운 요건이었다. 실제로 평화조약 발효 이후 1955년 3월까지 4천여 명이 귀화하였으나, 귀화자 대부분은 일선(日

鮮) 혼인 관계의 가족과 그 자녀들이었다. 또한 귀화를 둘러싼 재일조선인 사회 내부의 시각 역시 부정적이었다. 귀화는 ‘민족의식 차원에서 굴욕적인 처사’, ‘일본이 재일조선인을 포섭하기 위한 정책’, ‘민족적 책임의 회피’라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었다.⁶⁾ 이러한 인식은 재일조선인의 귀화 문제가 단순히 제도적 제약에 그치지 않고, 재일조선인 사회 내에서도 강한 거부감과 부정적 감정을 동반한 복합적 문제였음을 보여준다.

4. 나가기

1950년대 스즈키가 제시한 재일조선인 문제 해결론 중 하나인 ‘내정 문제로서의 접근’은, 출입국관리국이 외무성에서 법무성 산하로 이관된 이후에도 일본 정부가 이들의 문제를 내정 문제로 보기보다 한일회담을 통해 해결해야 할 국제적·외교적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그가 재일조선인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과거의 우리 동포’, ‘인도주의적 관점’이라는 온정적 태도도 분명 존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인도주의는 개인적 감정보다는, 전후 일본의 법적·정치적 맥락-즉, 부친 스즈키 간타로와 천황과의 관계, 일본국 헌법(평화헌법)의 제정,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그리고 국제적 선례로서의 베르사유 조약 및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 과정에 기반한 철저한 관료적 합리주의의 표현이었다.

참고문헌

『親和』, 日韓親和会.

鈴木一(1968), 『韓国のことろ』, 洋々社.

森田芳夫(1954), 「在日朝鮮員処遇の推移と現状」『法務研究』第43集第3号, 法務研修所.

이성(2013), 「한일회담에서의 재일조선인의 법적지위 교섭(1951~1965)」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한일회담(1951~65)과 재일조선인의 국적 문제-국적선택론에서 귀화론으로」『사람』, 수선사학회.

(2016), 「일본정부의 재일조선인 정책과 한일회담-스즈키 하지메에서 사카나카 히데노리로」『일본공간』,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⁶⁾ (10) 독립 쟁계를 영위할 만한 재산 또는 기능이 있음을 증빙할 자료의 입증이 쉽지 않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森田芳夫, 앞의 책, pp.114-115.

【 Abstract 】

**The Discourse on the Nationality of Resident Koreans in 1950s Japan:
Focusing on Hajime Suzuki's Contributions to Shinwa**

SEONG Hyeji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One of Hajime Suzuki's approaches to resolving the issue of Koreans in Japan during the 1950s—his concept of treating it as a “domestic matter”—reveals that even after the Immigration Bureau was transferred from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o the Ministry of Justice, the Japanese government continued to regard the problem not as a domestic issue, but as an international and diplomatic matter to be resolved through the Japan - Korea negotiations. Suzuki's perspective toward Koreans in Japan also contained a clear tone of humanitarianism and a sense of warmth, expressed through phrases such as “our former compatriots” and “a humanitarian viewpoint.” However, such humanitarianism was not rooted in personal sentiment, but rather represented a form of bureaucratic rationalism grounded in the postwar Japanese legal and political context—specifically, his relationship with his father, Suzuki Kantaro, and the Emperor; the enactment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the Peace Constitution);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and international precedents such as the Treaty of Versailles and the post - World War II settlement process.

極右ポピュリズムの台頭と無党派層

青地・イザンベール真美(大和大学 教授)

1. はじめに：ポピュリズムの西欧モデルは日韓にあてはめられるか？

本報告は今学術大会開催時に発刊される『東北亜文化研究 (Journal of North-East Asian Cultures)』84号掲載の拙論「極右ポピュリズムの台頭と日本の無党派層：2025年参議院選挙とフランス・モデル (The Rise of Far-Right Populism and Independent Voters in Japan: The 2025 Upper House Election as an Example)」をもとにしている。この論文は日本政治とりわけ今年の参議院選挙で台頭した新興政党、参政党を事例として扱っているが、韓国で開催される学会報告では去る2024年末から今年にかけて起こった非常戒厳と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の弾劾に至る経緯で見られた韓国のポピュリズムも例にとり、韓国の会員と意見交換をして知見を広げたいと期待している。

日韓の事例を検討すると言っても、政治参加のレベルに大きな違いがあることは、あらかじめ確認しておかねばならないであろう。図1に示したような近年、国会が7割弱、大統領選が8割弱の投票率を誇る韓国に比べて図2の日本の投票率は民主党に政権交代した時期を除いては、衆参両院ともに50%台にとどまってい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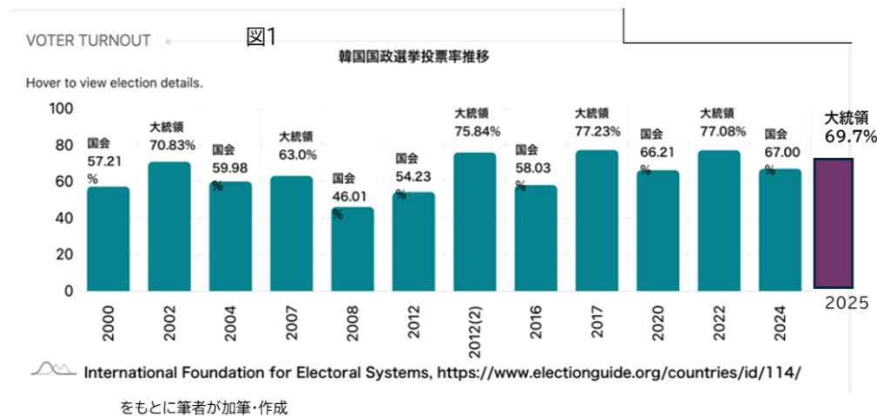


図2 日本の国政選挙投票率推移



上の図2の右側のグラフで見てとれるように、政権選択選挙である衆議院よりさらに関心の薄い参議院選挙で今年、投票率が6.46ポイント増え、昨年の衆議院選挙の53.85%よりも高い58.51%を記録したのが7月20日に行われた第27回参議院選挙である。連立政権を組む自由民主党と公明党が大きく議席を失うなか、国民民主党と並んで13議席を獲得したのは、2020年に結党された参政党である。下の図3に開票結果を示したとおり、野党第一党の立憲民主党は議席数に増減がない分、与党より「負けていない」ように見えるが、全国比例の獲得票数だけ見ると参政党に27,596票差で負けている。

表1 2025年第27回参議院選挙党派別結果

党派	自民	公明	立民	維新	国民	共産	れいわ	参政	保守	社民	N党	みらい	無所属	合計
選挙区	27	4	15	3	10	1	0	7	0	0	0	0	8	75
比例	12	4	7	4	7	2	3	7	2	1	0	1	-	50
合計 獲得議席	39	8	22	7	17	3	3	14	2	1	0	1	-	125
新勢力	101	21	38	19	22	7	6	15	2	2	1	1	13	248
勢力 増減	-13	-6	±0	+1	+13	-4	+1	+13	+2	±0	-1	+1	-	

NHK参議院選挙特設サイトを参照して筆者が作成 <https://www.nhk.or.jp/senkyo/database/sangiin/>

参政党は憲法草案に国民主権や個人の尊重の削除、帰化者の政治的排斥、自給自足、自衛軍創設を謳い（参政党HP）、「排外主義」「差別的」と批判されているのをよそに、かつて自民党の対抗勢力であった立憲民主党や同じく新しい政党であるれいわ新選組といった左派を凌駕する票を集め、とくに後述する若い無党派層がコアな支持層となっている。なお、同じく躍進した国

民民主党はかつて立憲とともに政権を担った民主党の一派ではあるが、「手取りを増やす」と称し、社会保険や税負担に不公平感を持つ若い世代の支持を受けているが、こちらも「減税ポピュリズム」と財政規律主義からの批判がある。減税ポピュリズムについては別の機会に論じることにして、本報告ではナショナリズムを用いた閉鎖的なポピュリズムを論じたい。

カス・ムーデによれば、ポピュリズムとは、社会を「純粋な人民」と「腐敗したエリート」といった均質で敵対し合う二つの集団に分断し、政治は人民の一般意志(*general will, volonté générale*)によって行わ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民主主義の思想に従い、自分たちだけが「真の人民だ」として他を排除することによって人々を結集し動員する政治手法である (Mudde, 2016,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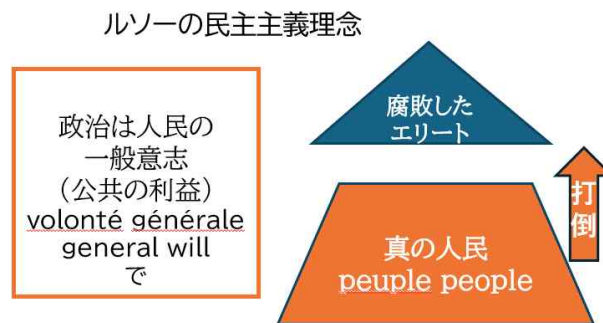
韓国政治は昨年12月に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前大統領が非常戒厳を宣布して以来、前大統領自身とその支持者達によるナショナリズムを通じた動員が激化した。尹錫悦が「従北主体思想派」「反国家勢力」から「国家を守る」ことが非常戒厳の目的であると述べたように、韓国においては南北分断がポピュリストにとって最も活用できるツールとなっている。日本ではしばしば左派の政治家の血統が中国や朝鮮半島にルーツを持つのではないかというデマが流布しているように、戦前の植民地支配や侵略にまつわる歴史否認が、日本第一党や日本保守党に見られる深刻な在日朝鮮韓国人や中国台湾人への深刻な差別的言説からイスラモフォビアも加えた参政党の台頭につながるポピュリストの系譜になっている。

以上から、「従北主体思想派」は「真の人民(*people*)ではない」と分断を煽る韓国のポピュリストと「自虐史観」は「真の人民(*people*)ではない」と主張する日本のポピュリストとを、フランスを念頭に報告者が作成したポピュリストのモデルで説明を試みる。なお、ポピュリスト・モデルの図は当学会の2022年秋季大会で報告した「ポピュリズム・ナショナリズム・インクルージョン」で発表したものを現実の諸政党の動きに合わせて改善したものである。

2. 人民とは誰か? : 排他的ポピュリズムは病的な正常 (pathological normalcy) ?

民主的な選挙がファシズムをもたらした過去をかんがみれば、極右ポピュリズムは民主主義を脅威に晒す病理(*normal pathology*)に見えるかもしれない。しかし、前出のムーデはポピュリズムを「病的な正常(*pathological normalcy*)」と呼んでおり、公式な民主主義の一部であると主張している。たとえば下記の図はジャン・ジャック・ルソー (Jean Jacques Rousseau) の一般意志 (*volonté générale*) を表したものである。市民革命期、政治権力を独占し腐敗していた特権階級のエリートは人民によって打倒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民主主義は公共の利益に沿った人民の「一般意志」によって統治されるべき政体とされ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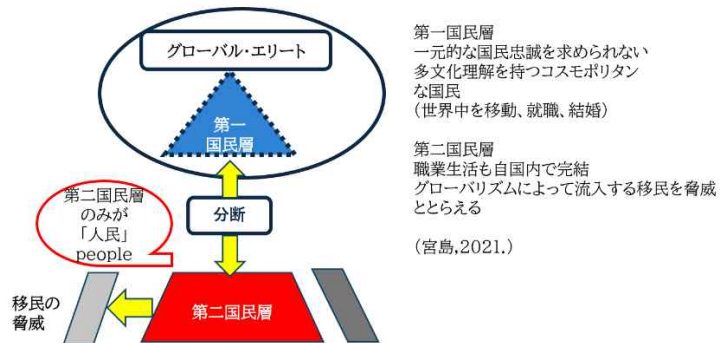
図3



ところが、国民国家の発達と同時に近代化に伴う移民流入によって、「人民とは誰なのか」をめぐるナショナリズムと少数民族の差別が進行し、グローバル化を迎えた21世紀現在、欧米においては、ジェットセッターに代表されるコスモポリタンな第一国民層すなわちグローバル・エリートと、移民に警戒しつつ生まれた土地で生活に窮する第二国民層との分断がある。

図4

ポピュリズムから見たグローバリズムと国民国家の危機



フランスの国民連合 (Rassemblement Nationale) やドイツのための選択肢 (AfD) といった移民排斥派の政党は図4で示した格差の下部に位置する第二国民層のみを「真の臣民」とするが、移民は文化的適応が容易な欧州移民のみ同化政策の対象とし、非欧州移民は排除するとマリーヌ・ルペン は公言している。

図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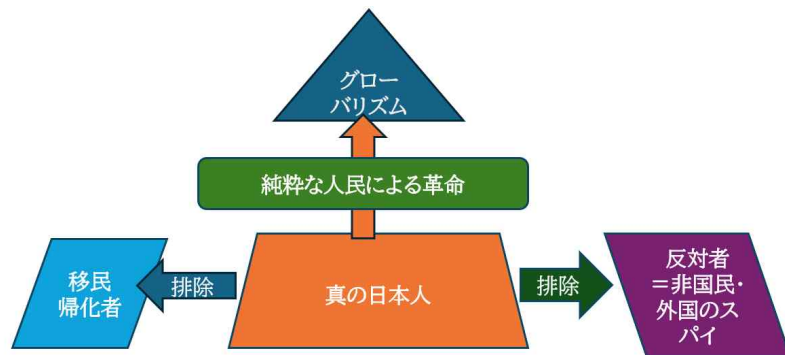
格差ピラミッドの下部 第二国民層のみが「純粋な人民」



3. 日本の排他的ポピュリズム（参政党）

国民連合は長い歴史を持ち、三度の大統領選を通じて政権を窺うプロセスの中で欧州移民に限定した—その意味では直接的な人種差別—同化受け入れを提案してはいる。これに対して参政党は新党であり、極端な発言で支持者を固めるためか、より極端に排他的な「人民」の限定をしている。ポピュリズムの本質を説明する好例なのでこちらも図で示して検討してみよう。

図6



参政党が「純血主義」であることは前述したが、さらに彼らは反対する日本人をも「日本人」から排除している。参院選直後の2025年8月8日に新宿駅前で行った彼らの街頭演説に「差別をやめろ」と抗議する群衆が押し掛けた出来事に対して、梅村みずほ議員は動画をXに投稿し、×印を付けた日の丸を掲げた人を強調し「私たちがどういった方々と戦っているのかお分かりいただけるかと思います」と綴り、絶対に負けずに「日本」を守ると訴えて共感を集めている。自分たちだけが日本を代表し、大多数の群衆が「差別をやめろ」とのみ抗議している中、バッ印がつけられた日の丸を都合よく使って異論全体を「真の日本人に非ず」と断じているのである（日刊スポーツ、2025.）。また、スパイ防止法を彼らが唱えているように、同国人であっても「外国の」工作人員であると大衆に想起させて動員する戦略は、基本的に海外からの移民やそれを出自とする国民を「真の人民」から排除するという極右ポピュリストの感情政治として国際的に共通している。

ポピュリストが念頭に置く人民の概念に関してヤン＝ヴェルナー・ミュラー (Jan-Werner Müller) は「自分たちだけが人民の代表」という閉鎖性に注目して議論を展開している。彼が著作『民主主義のルールと精神：それはいかにして生き返るのか』で自分たちの主張に反対する一般市民を彼らが「外国のスパイ・手先」とらえていると論じた部分を以下に引用する (ミュラー, 2022, p.29.)

市民社会の内側からの抗議は、ある種の特別な問題をポピュリストに投げかける。なぜならそうした抗議は、自分たちだけが人民の代表であるというポピュリストの主張を掘り崩しかねないからだ。そこでとられる解決策が、すでにウラジミール・プーチンが完成させてくれた戦略に従うものである (中略)。具体的には、市民社会のように見えているものは、じつは市民社会でもなんでもないということを「証明」し、また市井の反対意見らしく見えるものを真の人民とはまったく無関係なものとして示そうとするのだ。ある意味、これはポピュリズムのロジックと完璧に調和する。ポピュリストが「我々こそ唯一無二の人民の代表だ」と断言したならば、比類なき真正の人民に代表に対して街頭で人民が抗議する、などというのはそもそもあり得ない話だというわけだ。言ってみれば、抗議している連中は人民仲間ではなくニセモノなのだ。 (傍線：筆者)

4. 韓国の排他的ポピュリズム (尹錫悦、福音派、You Tuber)

この項については今後の考察課題であるので、会員諸氏のご教示を歓迎する。昨年末の非常戒厳から尹錫悦前大統領の罷免、逮捕、訴追に至る一連の事象を北朝鮮の手先となった左派やメディアの陰謀だと信じる人々は今も少なくない。ここでは、敵を名指しして社会を分断し、大衆動員を図った者として、福音派の牧師たち、ユーチューバー、そして尹錫悦前大統領自身を挙げ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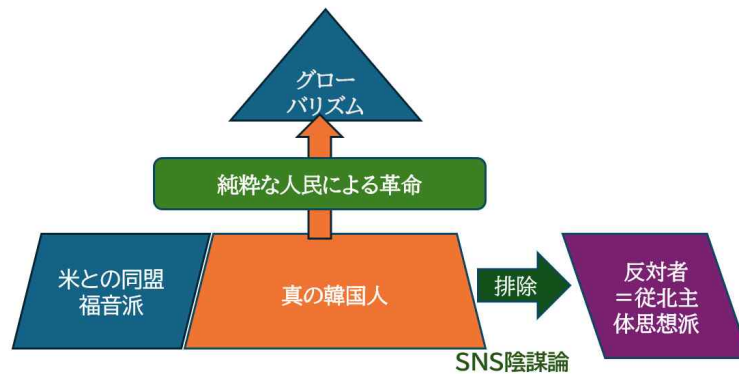
韓国の極右はアメリカのそれと同様に、キリスト教福音派の影響が大きい。代表格として、「サラン(愛)第一教会」の全光焄(チョン・グァンフン)牧師と釜山世界路教会の孫賢實(ソン・ヒョンボ)牧師を挙げることができる。前者は大韓民国立て直し国民運動本部を立ち上げ、03年以降、「反核・反金国民大会」や「米韓同盟強化のための祈禱会」を開催し、北に対抗するために米国を重視し、24年国会選挙での不正説をトランプ一期目の落選時同様に訴え、星条旗を掲げて Stop the Steal とデモ行進をした。「左派は北韓に帰れ!」「文在寅は北朝鮮のスパイ!」といった過激な発言で知られる全牧師は、2012年以来、キリスト教右派の政党を結成し(「自由統一党」得票率は2.6%)だが、議席獲得には至っていない。釜山にある世界路教会の孫賢實(ソン・ヒョンボ)牧師は高麗神学大学院出身だが、保守団体「セーブ코리아(SAVE KOREA)」を指導して戒厳令後の短期間に全国で大規模集会を開き、多くの支持者を動員した。彼の組織、「聖なる防波堤」は反LGBT 運動で有名である。

この節で参照している徐台教(ソ・テギョ)は80年を経ても南北分断が現代の韓国の社会内部の分断を作り出している事実を強調している。南北分断や北朝鮮の軍事力増強は現実であり、日本の極右がいう外国のスパイ説に比べて格段にリアリティがあり、SNSやカルトの陰謀論が説得力を持ちやすいのかもしれない。1000万人もの登録者を誇るユーチューバー、「神の一手」の申恵植(シン・ヘシク)が1000万人「もはやユーチューブと教会しかない!」と街頭の運動で叫び大反響を呼んだ。

韓国は民主化運動の歴史から一般市民がデモや集会のような投票以外の政治運動に積極的だが、ストリートやネット、教会といった場はポピュリズムの扇動が起こりやすい場でもある。韓国の場合、以下の図のように、「北朝鮮のスパイ」というフィクションで政治的に対立する相手を

「韓国人」から排除して国家の敵としやすい構図があり、かつ、アメリカとの同盟やアメリカで盛んなキリスト教右派は、韓国の極右ポピュリズムの接着剤となってい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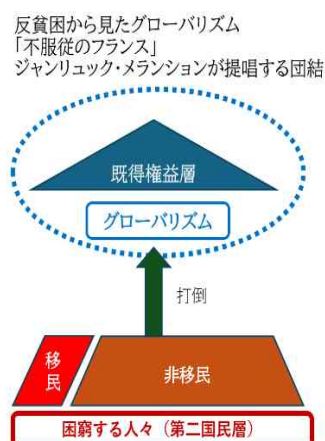
図7



5. まとめにかえて：開放的反グローバリズム

排他的・差別的でなく多様性を認めつつもグローバリズムがもたらす格差や不条理に反対する政党として、フランス国民議会で第二党の「不服従のフランス(France insoumise)」のジャン・リュック・メランション(Jean-Luc Mélenchon)の構想を最後に挙げておこう。フランスのEU離脱を目指す彼は既存のリベラルをもグローバル・エリートの一部だと批判し打倒すべき敵ととらえ、移民であろうと肌の色や宗教を問わず反貧困で社会的に団結すべきだと下図のように訴えている。

図8



幅広くすべての人々と違いを超えて見えにくい社会課題と闘うために団結しようという呼びかけは、隣人を敵だと名指しして闘おうと言うポピュリズムに比べて、大衆の心をつかみ、熱狂さ

せ、結集させる力は弱い。戦後80年、55年体制による安定のもと、政治への関心を失った日本の無党派層にとって21世紀のポピュリズムはわかりやすい政治に見える。他方、韓国においては日本よりももっと、現実存在する南北分断や福音派の影響によるポピュリズムが見られ、二大政党制をとっている以上、今回、共に民主党が「従北主体思想派」と一括されたように、社会を二つに分断するポピュリストの戦略にかかりやすいともいえる。他方で、民主主義を自らの手で勝ち取ってきた歴史的な記憶が多く市民にあるため、昨年末の非常戒厳時に民主主義を守るために命をかけて国会前に集まる良識が確保されていたと考えられる。

ポピュリズムは社会の憎悪を煽ることによって権力を得ようとする政治家の野心である。民主主義を守るために、今後も日韓で知見を交換する必要があると考える。

参考文献

イザンベール真美(2025)「極右ポピュリズムの台頭と日本の無党派層：2025年参議院選挙とフランス・モデル」、『東北亜文化研究』84号、pp.371-389.

Cas Mudde, 2016, On Extremism and Democracy in Europe, Routledge.

CasMudde,2018,The Far Right in America, Routledge.

ヤン＝ヴェルナー・ミュラー.(2022)、(山岡由美訳)『民主主義のルールと精神：それはいかに生き残るのか』、みすず書房。

徐台教(ソ・テギョ)(2025)、『分断八〇年：韓国民主主義と南北統一の限界』集英社、

春木育美(聖学院大学教授)「プロテスタント右派が主導する韓国の極右勢力」日本国際問題研究所、2025年3月11日。<https://www.jiia.or.jp/research-report/korea-fy2024-02.html>
(2025年9月30日閲覧) 日刊スポーツ, 2025.8.9.

「参政党の神谷代表「法規制が必要」街頭演説時に妨害行為多発で「言論の自由侵す行為ですよね？」」<https://news.yahoo.co.jp/articles/7bcb730ed0d0c638ab5dfe346bcbdd049312e2422>
(2025年8月10日閲覧)

参政党公式HP「参政党が創る新日本憲法草案」https://sanseito.jp/new_japanese_constitution/
(2025年8月9日閲覧)。

【 Abstract 】

The Rise of Far-Right Populism and Independent Voters

Mami Aoji-Isambert (Yamato University)

This report examines whether the recent rise of far-right populist ideologies in Japan and South Korea aligns with Western theoretical models of populism, based on a paper contributed to Volume 84 of this society's research journal.

In Japan, the new political party Sanseito has made significant gains in this year's House of Councillors election, drawing considerable attention. This party holds an exclusive far-right ideology that openly advocates discrimination based on bloodlines in its draft constitution, yet it also possesses organicist elements and is a populist party with many fervent supporters.

Regarding South Korea, it addresses the conspiracy theory of a coup d'état orchestrated by North Korean agents, as seen in the process where President Yoon Suk-yeol was forced into impeachment, removal from office, and arrest after declaring a state of emergency late last year.

Populism is a political tactic that mobilizes the masses by simplistically dividing society into two opposing groups. In Europe, where the EU is a symbol of globalism, it was not the global elite who were seen as the enemy, but rather the culturally distinct immigrants brought in by the EU. Who was considered the enemy in Korea and Japan?

Japanese populists collectively labeled those advocating anti-discrimination, feminists, and individuals who acknowledged Japan's wartime aggression and sought to foster friendship with East Asia as foreign spies or "non-nationals," treating them as enemies.

South Korea's two-party system makes this clearer. The left wing, labeled as progressive, was lumped together with pro-North Juche ideologists and deemed "enemies of the state."

It is harder for all members of society to overcome their differences and unite than it is to unite in order to fight neighbors as enemies. We should exchange insights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to avoid being swayed by the ambitions of politicians who seek to gain power by dividing society.

▶ 제7세션 (장소: 635호)

제7세션 (개인발표)	東北亜：日本語教育			
시간	발표자	발표제목	토론자	좌장& 사회자
14:50～15:20	吉野浩司 (鎮西学院大学)	京城帝国大学時代の鈴木栄太郎の農村調査	青地・イザン べール真美 (大和大学)	· 座長 · 金子 哲 (兵庫大学) · 司會 · 孔美熙 (国立 釜慶大学)
15:20～15:50	竹下知佳 (大邱大学)	クリエイティブ・ラーニングの場としての日本語作文授業 ー「田丸メソッド」を活用した活動と学習者の「学び」ー	堀田彰子 (兵庫大学)	
15:50～16:20	堀田彰子 (兵庫大学)	主体者を軸とした教育モデルの構築： 兵庫大学サマーキャンプの事例とグローカル化概念および Generative theory の融合	竹下知佳 (大邱大学)	
東北亜：日本文化 & 歴史				
16:30～17:00	金子 哲 (兵庫大学)	播磨国印南郡報恩寺文書に関する一考察	村川逸朗 (西海文化財 研究所)	· 座長 · 申宗大 (国立 釜慶大学) · 司會 · 竹下知佳 (大邱大学)
17:00～17:30	金玲敬 (江西師範 高等学校)	《新撰字鏡》동형자 수록 양상 고찰	尹 一 (国立釜慶大学)	
17:30～18:00	村川逸朗 (西海文化財 研究所)	長崎県福江市中島遺跡の縄文時代後期文化について	金子 哲 (兵庫大学)	
18:10～18:40	동아시아일본학회 2025년도 하반기 정기총회			
	2025년 동북아시아문화학회 정기총회 및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시상			
	폐회식			

京城帝国大学時代の鈴木栄太郎の農村調査

吉野浩司(鎮西学院大学 教授)

1. はじめに

2024年に「消滅可能性自治体」という言葉で、今後衰退していく地域が発表された。商店街の再生、町おこし、地域活性化という試みは、失敗し続けている。その原因の一つは、やはり地域住民たち一人ひとりが、自分たちが住んでいる地域を、安心して住み続けられるものにしたいという意識を獲得できていないからであろう。街を再活性化させるという試みは、地域住民の相互信頼と相互扶助を基礎としてしか成り立たない。鈴木栄太郎は戦前の日本において農村社会学を体系化した社会学者である。彼が提唱した「自然村」という考え方がある。これは「行政村」に対応する言葉である。行政は利便性、効率性という観点から区画整理を行う。それに対して、地域の歴史と文化に根差した自然発生的な村落共同体を、鈴木は「自然村」と呼んだ。この「自然村」概念は、失敗を続ける行政主導の地域活性化を、地域主導のものに変えて行くための重要な示唆を与えてくれるものである。本報告では、日本における自然村を明らかにするとともに、それを朝鮮においても見出そうとした、鈴木のフィールドワークの内容を紹介するものである。

2. 農村社会学者としての鈴木栄太郎

日本近代を代表する社会学者である鈴木栄太郎は、1894年に長崎県壱岐島に生まれた。旧制壱岐高等小学校から対馬中学、さらに第一高等学校を経て東京帝国大学文学部を卒業した。大学院は、京都帝国大学に進学し、米田庄太郎に師事した。1925年から岐阜高等農林学校に就職するが、意を決して朝鮮に向かうことを決意する。1942年に京城帝国大学助教授となるが、敗戦を迎える。1946年にGHQの民間情報教育局顧問を務めた。1947年より北海道大学教授となる。彼は日本における農村社会学の大成者である。1940年に『日本農村社会学原理』を出版した。本書はこの分野における日本で初めての体系的な著作であった。彼は最初期は国家論を志していたこともあり、農村社会学を確立した後は、都市社会学の研究に携わった。主に北海道大学以降のまとまった仕事として『都市社会学原理』(1957年)を著わした。

3. 鈴木栄太郎『日本農村社会学原理』における自然村

・「自然村」概念とは、家とともに日本の農村における社会化の主たる単位をなす村。特徴は次の6点。①自然村とは社会的統一である、②社会的統一は地縁的結合、すなわち居住の近接に基づく結合である、③地縁的結合の上に様々な社会的紐帯による直接的な結合が派生する、④村の成員は社会生活全般にわたる組織的な社会意識の一体系を持つ。それは成員にだけ共有されている、⑤成員の相互面識的な社会生活のあらゆる方面をこの社会意識が拘束する、⑥村で生まれる多くの集団は、この統一的・一般的意思によって統制される(『日本農村社会学原理』第2章「日本農村社会研究法」36頁)。

『朝鮮農村社会踏査記』における洞

・朝鮮における自然村は洞。洞は村の単位であるが、山神堂、洞中契、そして洞宴という集団を

結びつけるものがある。

山神堂は祭祀が行われる場所。京畿道・忠清道では山神堂、江原道では城隍堂、慶尚道・全羅道では堂山、済州島では本郷堂、醮祭堂などと呼ばれる。古い大木が神木・神体とされている。洞契（洞中契）は、村の自治的組織である。共有林や公共施設などを管理・運営し、村の祭り(洞祭)の主体ともなる。洞契の成員は村人とみなされる成人世帯主で構成される。必要に応じて成員から徴収した基金や共有資産から上がる収入などを資金として、洞祭をはじめとする村の事業が運営される。

5. まとめ

・現代の新しい自然村＝洞組織を創出することは可能か。これにより公共性を育成し、社会的紐帯を強化し、主体的な生活基盤を確立する。

参考文献

鈴木栄太郎(1973)、『朝鮮農村社会の研究』（鈴木栄太郎著作集第5巻）、未来社。

城大南鮮調査隊社会調査班(1943)、「屯山部落の社会学的研究－南鮮農村調査報告(1-3)」、朝鮮総督府『朝鮮』、第338-340号。

梁愛舜(2000)、「郷村社会の親族と近隣結合－契・プマシ・トゥレを中心に」、『立命館産業社会論集』、第35巻第4号。

京城帝国大学創立五十周年記念誌編集委員会編(1974)、『紺碧遙かに－京城帝国大学創立五十周年記念誌』、京城帝国大学同窓会。

【Abstract】

Eitaro Suzuki's Rural Fieldwork during the Keijō Imperial University Period

YOSHINO Koji (Nagasaki Wesleyan University)

In both Japan and Korea, many government-led attempts at regional revitalization have failed, partly because local residents have not fully developed a shared commitment to sustaining their communities. Eitaro Suzuki, who systematized rural sociology in prewar Japan, proposed the concept of the “natural village,” a spontaneously formed community rooted in history and culture, in contrast to the “administrative village.” This concept offers valuable insights for shifting from top-down policies to community-based revitalization. This presentation introduces Suzuki's idea of the natural village in Japan and his fieldwork that sought similar communities in Korea.

クリエイティブ・ラーニングの場としての日本語作文授業 ー「田丸メソッド」を活用した活動と学習者の「学び」ー

竹下知佳(大邱大学校 助教授)

1. はじめに

日本語教育における作文授業は長年、学習者が苦手意識を持ちがちとなつた授業というイメージが先行していたが、近年様々なアプローチによって学習者の能動的な学びを支える授業方法が提案され、作文授業に対するマイナスイメージを払拭しようとする試みがなされている。中でも小松麻美(2017)や沼田浩通(2018)に見られるような創作的な活動は、「クリエイティブ・ラーニング」や「ビジュアル・シンキング・ストラテジーズ」のような教育的観点・手法を取り入れた授業として注目すべきものだろう。しかし、そのような立場からデザインされた作文授業の実践報告は少なく、特に韓国の大学における日本語作文授業は、市販の教材を見てもわかるとおり文法的な知識を元に論理的で正確な文章を書く訓練の場と捉えられているむきがある。だが、このような訓練を通して培われる能力は、これからの社会を生きる学習者にとって本当に必要なものと言えるのだろうか。

本発表では、発表者が2025年前期に行ったクリエイティブ・ラーニング型日本語作文授業の実践報告を行う。活動の軸に据えたのは「誰でも短時間で不思議な物語をつくら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キャッチコピーで有名な物語創作メソッド「田丸メソッド」である。以下、クリエイティブ・ラーニングの概観と「田丸メソッド」を中心とした作文授業の概要、更に学習者へのアンケートから見える創作活動における学習効果について述べる。

2. クリエイティブ・ラーニングと作文教育

井庭崇(2019)は、これからの時代は創造社会、すなわち「Creation(つくる、創造)が豊かさの象徴になる社会」になると言う。そして、そこでは学びのスタイルもこれまでの「話すことによる学び」から「つくることによる学び」へと変容し、当然、教育に携わる教師に求められる教師像もそれに合わせて変わっていくと述べている。

表1 時代と教師の在り方の変化(井庭2019: fig18を一部改変して引用)

	C (Comsumption)	C (Communication)	C (Creation)
時代	消費社会	情報社会	創造社会
主な学びのスタイル	教わることによる学び	話すことによる学び	つくることによる学び
教師像	知識・スキルを教える ティーチャー インストラクター	話し合いを促す ファシリテーター	一緒に作ることに 参加する ジェネレーター

この創造社会における学びを支える創造的思考力は、「創作表現」「知識の創造」「問題解決」という三つの領域の創造的活動を通して発揮される(お茶の水大学附属中学校教育研究協議会研究

紀要2025:2)。これは日本語教育におけるクリエイティブ・ラーニングにおいても重要な指針になると考えられるが、特に「創作表現」は「詩歌、小説、意見文…(中略)…などを通して、自己のイメージを印象的かつ魅力的に表現する活動」であることから、作文授業に取り入れやすいものだと言えよう。

しかし、小松(2024:7)も指摘しているとおり、韓国の大学では「日本語教育が持つ実用指向と、社会的要請としての実用指向」が「教師を学習項目の習得とその評価を前提とした教育活動へと駆り立てる」ものとして作用してきた。そのため、作文の授業において学習者に与えられる課題も、学習者が社会に出た際に役立つような実用的な文章に偏りがちであったことは否めない。

ただ、前述の通り、つくることが豊かさの指標となる創造社会における「実用性」は、現在の情報社会における「実用性」とは概念自体が異なってくるのではないか。つまり、これまでのように意思や知識の伝達のために論理的かつ正確に話すこと以上に、今後は今ある知識を活用して何かをつくる活動自体が、価値のある実用的なものとして認められるようになって考えられるのである。そうであるなら、この先そのような社会を生きる学習者は、教育の場においてつくり方を学び、つくる中から学ぶという行為を経験することによって、創造的思考力を培わなければならない。

3. 「田丸メソッド」を活用した創造的な作文授業の実践

3.1. 田丸メソッドとはを活用した授業デザイン

前章で述べたとおり、来る創造社会において「実用性」の意味合いが変化するのであれば、これからの日本語教育においては学習者に「つくることによる学び」を提供する必要がある。しかし、いかに創造的活動が重要であるとしても、つくること自体に慣れていない学習者及び教師にとってこのような活動はハードルの高いものである。このハードルを下げる仕掛けとして有効であると考えられるのが「田丸メソッド」である。これは現代ショートショート作家である田丸雅智が提案した物語発想法で、このメソッドを使えば誰もが短時間で不思議な物語を書けるようになるというものである。

< 基本の田丸メソッド >

- ① 名詞を探す：いろいろな名詞20個探して書く
- ② 名詞から思いつくものをかく：①で挙げた名詞の中から一つを選び、その名詞から連想される言葉を自由に10個書き、①の名詞と組み合わせて不思議な言葉をつくる
- ③ 不思議な言葉から創造を広げる：②でつくった言葉から一つ選び、それがどのようなものか、どんな良いこと、悪いことがあるかなどを書き出して、物語としてまとめる

実際、このメソッドは上記の三つのステップを踏むだけで独創的な物語をつくることのできるため、教育にも取り入れやすい。そのため、近年ではこのメソッドを日本の中学校国語教育に取り入れた甘楽裕貴・杉本直美(2025)や、日本語作文教育に取り入れた小松麻美(2017)、沼田浩通・小出亜弥(2025)など、教育現場での実践例も複数報告されている。

そこで発表者は、沼田・小出(2025)が行った活動事例を参考に、勤務校であるD大学の2025年前期の授業「日本語文章練習Ⅱ」(週二コマ<一コマ75分×2>×15週、3年生対象)におい

て、「田丸メソッド」を活用した創作活動をメインに据えた作文授業を行った。受講生は16名(1年生1名、3年生14名、4年生1名)であった。

3. 2. 田丸メソッドを活用した授業デザイン

授業では、第2週目後半から中間テストまでの期間を、田丸メソッドを中心とした創作活動の時間に充てた。具体的には、穴埋め形式で不思議な言葉をつくる創作から基本のメソッドによる創作、更にそれを援用した応用的な活動まで、五つの創作活動を週替わりで行うという流れをとった。最終的には中間テスト期間に、それまでに書いた創作作文の中から一作品を選び、一枚のスライドに一文と挿絵を載せた紙芝居風のスライドにまとめ、一人3～5分程度発表を行う「創作物語発表会」を行った。以下は、発表会までの授業の流れについてまとめたものである。

表2：2025年前期D大学「日本語文章練習Ⅱ」における創作活動

実施時期	テーマ	概要
第2週	ショートショートとは何か	ショートショートの概要及び作家田丸雅智の紹介
	不思議な言葉（穴埋め形式）から創作	ステレオタイプ、コロケーションなど固定されたイメージをずらすことでの創造
第3週	基本のメソッドで創作	基本の田丸メソッドを活用した3ステップ物語創作
第4週	日本らしい名詞で創作	基本のメソッドに「日本らしい名詞」という制限を設けて難易度を上げた物語創作
	短歌を創作	俵万智のサラダ記念日をモチーフに短歌を創作
第5週	慣用句で創作	慣用句に見られる不思議な言葉を探し、それをもとに物語を創作
第6週	変換ミス・言い間違いから創作	変換ミスや言い間違いなど、ミスから生まれる不思議な言葉を探して物語を創作
第7週	発表会準備（物語のブラッシュアップ及びスライドづくり）	写真から創作（課題）についての案内／ これまでに書いた作品から好きな物語を一つ選択し、絵と文でパワーポイントにまとめる活動
第8週	創作物語発表会（中間テスト）	一人当たり3～5分程度で発表

第2～4週までの活動は基本の田丸メソッドをもとにした創作活動であるため、ほとんどの学生が一コマの時間の中で一つの作品を完成させることができた。しかし、同じパターンでの創作が続くことによるマンネリが生じる恐れがあったため、4週目後半に短歌作りを導入したり、或いはスマホにある写真を元に物語を創作をするビジュアル・シンキング・ストラテジーズの手法でつくった物語を中間課題として提出させるなど、田丸メソッド以外の創作活動も取り入れた。

4. 学習者アンケートから見た「つくることによる学び」

上記の活動の前後に、学習者に対して創作に関するアンケートを実施した。それによると、事前のアンケートのうち「今までに創作活動を行ったことがあるか」という質問に対して、11名の回答者のうち7名が「行ったことがない」と答えた。また「授業で創作活動を行うと聞いてどう思ったか」という自由記述式の質問については「楽しそう」というポジティブな回答はほぼ見られず、「文（物語）を完成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プレッシャー」、「想像力が足りないのでもうまくできるか不安だ」、「韓国語でもまだ知らない言葉が思ったより多いのに、日本語での創作活動がうまくできるか心配になった」など、日本語で物語を書くことに対する不安の声が大半であった。

一方、事後調査では実際に創作活動を通して感じたことなどについて質問した。注目すべきは「今回の創作活動を楽しいと感じたか」という質問に対して、回答者11人中10人が「非常に楽しかった(4名)」或いは「楽しかった(6名)」と答えている点である。残り一人は「普通」であり、楽しくなかったと答えた学習者がいないところを見ると、事前アンケートで書くことにプレッシャーや不安を感じていた学習者も、実際に書いてみることでその楽しさに気づいたということが言えるだろう。また、「今回の創作活動は日本語能力の向上に役立ったか」という質問に対しては、「非常にそう思う」が7名、「そう思う」が4名となっており、学習者は創作活動を通して想像的思考力を身に着けるだけでなく、日本語能力の向上も実感してい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これについては、ある学習者の感想(自由記述)に「似たニュアンスを持つ表現のうち、どれが物語の雰囲気により合っているか悩む過程を通して、様々な表現を身に着け、自分の日本語の実力を高めるのに大いに役立ちました。毎回先生からのフィードバックがあったおかげで、正しい方向に進めた点もととてもよかったです。(本文は韓国語。発表者訳)」とあるように、学習者は物語をつくる中でよりよい表現について悩み、それについて教師と話し合う中で自分の納得する「正しい方向」へ至るという体験をしている。これこそがまさに「つくることによる学び」であり、この感想からは、教師が答えを提示するのではなく、話し合い共に考えるジェネレーターの役割にあることも垣間見ることができる。

5. おわりに

本発表では、「田丸メソッド」を取り入れたクリエイティブ・ラーニング型日本語作文授業の実践報告を行った。授業の前後に行ったアンケートによると、授業前、学習者は創作活動に対して強いプレッシャーを感じていたが、メソッドを手がかりに気軽に自由な発想で物語を書く活動を行う中で、創造すること、また日本語で自由に表現することを楽しいと感じ、更には日本語能力の向上も実感していることが確認された。これら一連の活動において、学習者はつくことで自ら学ぶアクティブ・ラーナー(能動的な学習者)となっており、創作中心の作文授業はこのアクティブ・ラーナーを支援する場として機能していると言える。

今後はクリエイティブ・ラーニング型作文授業の体系的な実践方法を確立するための一助とするべく、本発表で紙面の関係上詳細に説明できなかった各活動について、創作中のやりとりや学習者の反応なども含めて整理し、広く日本語教育全般においてクリエイティブな活動ができるよう考えていきたい。

参考文献

- 井庭崇編著(2019)『クリエイティブ・ラーニング—創造社会の学びと教育』慶応義塾大学出版会
- お茶の水大学附属中学校教育研究協議会(2025)「試行錯誤と創意工夫のある『つくる学び』をつくる(3年研究の2年目)～創造的思考力を育てる学校づくりへの挑戦」『令和6年度お茶の水大学附属中学校教育研究協議会研究紀要』pp.1-12
- 小松麻美(2017)「日本語学習者と楽しむ物語の創作—田丸式メソッドによる超ショートショートづくりをめぐる」『日語日文学研究』第102巻 1号, pp.191-214
- _____ (2024)『日本語教育に創作活動を！詩や物語を書いて日本語を学ぶ』ココ出版

- 田丸雅智 (2015) 『たった40分で誰でも必ず小説が書ける超ショートショート講座』 キノボックス
- 廿楽裕貴・杉本直美(2025)「中学校国語科の物語創作における題材設定の方法―田丸式メソッドによるワークシートを活用して―」『日本体育大学大学院教育学研究科紀要』第8巻, pp.1001-1019
- 沼田浩通 (2018) 「日本語作文の授業に物語の創作を取り入れる試み―外国語高校での四コマ漫画をもちいた物語創作活動の実践報告―」『日語日文学』第79輯, pp.88-104
- 沼田浩通・小出亜弥 (2025) 「物語の創作活動を取り入れた日本語作文授業の学習効果―「田丸メソッド」を活用した授業を例に―」『한국일어교육학회 제47회 국제학술대회요지집』 pp.17-20

【 Abstract 】

Japanese writing classes as a platform for creative learning

TAKESHITA Chika (Daegu University)

This paper reports on the implementation of a creative learning-based Japanese composition class incorporating the “Tamaru Method.” This Method is a technique enabling anyone to write a funny, mysterious story in a short time.

According to pre- and post-class surveys, learners felt strong pressure regarding creative activities before the class. However, using the Tamaru Method as a guide, learners engaged in activities where they wrote stories freely and casually using their imagination. Through this process, they came to find the act of creating and freely expressing themselves in Japanese enjoyable. Furthermore, it was confirmed that they also felt their Japanese language ability had improved. Throughout this series of activities, learners became active learners who learned by creating. Thus, it can be said that such composition classes centered on creative activities function as a space supporting these active learners.

主体者を軸とした教育モデルの構築：
兵庫大学サマーキャンプの事例とグローカル化概念および
Generative theoryの融合

堀田彰子(兵庫大学 講師)

近年、開発や経済成長を前提とする教育の枠組みが見直され、学習者が主体的に関与する創造的かつ多元世界的な教育の可能性に注目が集まっている。こうした国際的な潮流に呼応し、多様な教育のあり方を再構築するために、従来の「グローバル/ローカル」といった二項対立を超える視点が求められている。EscobarやSchwittayによるGenerative theory、RoudometofやGoboのグローカル化論を手がかりに、特にJanzが提唱する「グローカル」を緊張と創造の空間として捉える視점에着目することで、実践的な教育枠組みの構築を試みる。学習者が多様な価値観や社会的文脈と対話しながら、知を共創するプロセスの再構築を目指す。

【Abstract】

Development of an Education Framework Based on Learner Agency: Insights from
Hyogo University's Summer Camp and the Synergy of Glocalization and
Generative Theory

HORITA Akiko (Hyogo University)

This study reconsiders international education by moving beyond development-and growth-centric paradigms. While policy-led initiatives for student mobility and global talent cultivation have been critiqued for their economic and institutional biases (Yoshida, 2014; Ota, 2020), alternative frameworks are emerging. Escobar (2017) and Schwittay (2021) propose *Generative Theory* to foster creative, critical learning rooted in pluriversal perspectives. At the same time, scholars such as Roudometof and Gobo emphasize glocalization as a dynamic process of social space formation, highlighting the need to rethink education in ways that reflect cultural complexity. With special attention to Janz's (2022) framing of the "glocal" as a space of tension between global and local forces, this paper proposes a practical framework that integrates glocalization and *Generative Theory*.

播磨国印南郡報恩寺文書に関する一考察

金子 哲(兵庫大学 教授)

1. はじめに

播磨国印南郡の印南山報恩寺は、現在でも兵庫県加古川市平荘町山角にある。

最重要幹線道路の筑紫大道（中世山陽道）の第一バイパスである「湯山街道（有馬街道）」と加古川の「里の川湊」を抑える台地の縁辺にあり、いかにも南都系西大寺流新義律派が好みそうな立地である。

境内には鎌倉時代中期以降の中世石造物が多く現存している。元応元（1319年）の紀年を有する5.64メートルの巨大な十三重の層塔（花崗岩製）や、「宇都宮正和応五季丙辰八月日」の銘文を有する1.846メートルの正和五（1316）年の五輪塔（花崗岩製）などが聳えている。

この両塔は兵庫県の文化財指定を受けている。五輪塔は、「宇都宮長老の墓または供養塔」と考えられている。この五輪塔は、『鎌倉遺文研究』所収の拙論の中で、「仮称東播磨正和石塔群」とした巨大かつ上質な石塔群の内の一つである。

なお、「宇都宮長老」は、南北朝後期～室町前期成立とされる播磨の地誌「峯相記（みねあいき／ぶほうき）」では、「法華山一乗寺の住職」とされているが、法華山内の南都系西大寺領新義律派塔頭の長老と考えるべきであろう。

「峯相記」では、宇都宮長老が法華山一乗寺の本堂の債権を発願し、文観房殊音が落慶法要をおこなった、と記されている。

2. 報恩寺研究の現状

報恩寺はさほど注目を集めてこなかった「地方寺院」であるが、近年次第に注目を集めつつある。

拙論「山の民・川の民の新義律派からの離脱をめぐる村落神話——播磨国印南郡益気を事例に——」（『東北亜文化研究』12号、2007年04月）もその一つである。殺生禁断の厳格化を志向し、漁業民に対する差別構造を報恩寺が有していたことを指摘し、非農業民が報恩寺の信仰圏から離脱し、真宗門徒化していく過程を論じた。

大塚紀弘「鎌倉極楽寺流律家の西国展開—播磨国報恩寺を中心に—」（『地方史研究』357号、2012年06月）は、南都系西大寺領新義律派中の極楽寺流の西国展開の典型事例の一つを報恩寺に求めている。

松尾剛次「鎌倉極楽寺流の設立と展開—初代から九代までの極楽寺歴代住持に着目して—」（『山形大学大学院文化システム研究科紀要』14号、2017年09月）は、極楽寺第三代長老の善願房順任による国分寺興業を契機として極楽寺流の西国進出が進み、報恩寺はその例の一つとしている。

小原嘉記は、「忘れられた東大寺大勧進職—建武政権期の動向を中心に—」（『仏教史学研究』第65巻第2号、2024年03月）で、後述するように報恩寺に関する大胆かつ夢多き説を打ち出している。

3. 報恩寺文書の検討

報恩寺文書の中で、年紀の古い鎌倉時代後期から南北朝時代前期の六通の文書を『加古川市史』では「検討を要す。」としている。偽文書の疑いが濃いためである。私も上記拙論の中で、「偽文書の類い」として、上述大塚紀弘論文の中で批判を受けた。

これに対し大塚紀弘は、写しと考えるならば一定程度以上の信頼がおける、とし、これを受けて小原嘉記は、【史料二】を「先行研究でも偽文書としては扱われておらず、参考にできる文書である」とし、壮大な説を構築した。

この六通の文書の中で、報恩寺が極楽寺末であることを述べている文書は鎌倉時代後期の古い三通の文書である。この三通の文書の検討を試みたい。

【史料一】正和五(1316)年 後宇多上皇院宣

(押紙)正和五年四月八日

播磨国印南庄屏村内中島田畑、所被寄附報恩寺也、為御祈禱料所、永代可令管領者也、院宣如此、仍執達如件、

中納言経継

正和五年四月八日

先越前守(花押)

証賢上人御房

【史料二】文保元(1317)年二月七日 後宇多上皇院宣

(押紙)花園院御院宣也、文保元年二月七日

播磨国印南庄殺生禁断事、去徳治之頃、被下院宣畢、而背嚴制之旨、有違越之輩云々、事実者、甚以不可然、偏依一旦之嗜、欲徒輩三宝之知見、非啻犯殺生之罪也、難遁違勅之科歟、奇也、怪也、不可不誠、慥加制禁、宜令遵行之由、可被伝仰証賢上人者、依御氣色、執達如件、

文保元年

万里小路大納言家

二月七日

宣房

本光上人御房

【史料三】某年十月十九日 俊海書状

(押紙)鎌倉極楽寺末報恩寺殺生禁断一通証文也、極楽寺住持俊海判形也

当寺末寺播磨国印南庄内報恩寺領、殺生禁断事。被成下綸旨候、御与奪之様、可申御沙汰候、以此旨、可有御披露候、恐惶謹言

十月十九日

沙門俊海(花押)

進上 御奉行所

『加古川市史』などでは、【史料一】【史料二】を「後伏見上皇院宣」とするが、これは誤りである。印南荘は「室町院領」であり、後宇多上皇が強引に手中に入れていた。後宇多上皇は治天君ではないので、原則的には院宣を出すことはできないが、後宇多院領には院宣を出すことができた。

登場する人物を簡単に説明すると、「中納言経継」は、中御門経継であり、後宇多上皇の側近である。文保元年二月七日段階では前権中納言である。「先越前守」は不明。「証賢上人」はこれらの文書が真正なる文書の写しであるならば、報恩寺長老である。これらの文書が偽文書の類いだとすれば、報恩寺がおそらくは初代の長老と記憶していた人物となろう。「宣房」は、万里小

路宣房で、後宇多側近であり、この時点では前参議である。「本光上人」はこの時点での地位は不明だが、後に極楽寺第六代長老となった本光房心日である。1338年に長老となり、1350～1352年に死去している。「俊海」は1326年に極楽寺第四代長老となり、1334年に死去した本生房俊海である。

【史料一】から検討したい。「中納言経継」は、【史料一】が真正文書もしくはその写しの写しだとすれば、後筆部分に当たる。この時点での「前越前守」がだれかは不明であることは前述したが、越前国は後宇多上皇領国であり、偽文書としてもよく考えられている。前中納言中御門経継が越前守であった経歴は一切確認できない。後筆部分は院庁の判官代もしくは四位別当クラスが出した院宣を権威づけるための作為である。なお、院宣で「管領」という語が使用されている事例は管見の限りない。【史料一】は「要検討文書」である。正和五年は、前述の「宇都宮長老の墓」とされる五輪塔が造立された年であり、報恩寺と後宇多上皇との関係が強まった頃であり、偽文書としてもその記憶の反映と考えられよう。

次に【史料三】を検討したい。真正文書の写しであるとしても、報恩寺の殺生禁断件が揺らいでいることが窺われる。ここで確認したいのは、報恩寺が朝廷権力（院権力も含む）に対して「申御沙汰」することはできず、鎌倉極楽寺長老を介してしかできない点である。

最後に【史料二】の検討を行いたい。院宣の奉者はこの時点では従三位前参議の万里小路宣房である。【史料一】の奉者に比べて遙かに地位が高い。院庁の構成員とすれば、公卿別当に該当しよう。

一年前には、院判官代、院四位別当に該当するクラスの近臣から院宣が直接に報恩寺長老と思われる「証賢」宛てに出されているのに、文保元年には、証賢の地位が格段に上昇し、証賢を院宣の宛所とすることが憚られ近侍する者を宛所にする、などと言うことはあり得ない。しかも、奉者は公卿別当に該当するクラスの万里小路宣房である。また、現存する万里小路宣房を奉者とする後宇多上皇院宣は、全て文保二（1318）年二月二十六日の後醍醐踐祚後である。「事実者」は、鎌倉幕府の裁許文書には頻出するが、管見の限り院宣での使用例はない。さらに、「遵行」という用語も極めて不自然である。幕府権力側が頻繁に使用する用語ではあるが、管見の限り院宣での使用例はない。偽文書として間違えなかろう。証賢の虚構の地位を高めるために、本光上人を近習としたのであろう。証賢の極楽寺派内部での地位を高く見せるため、また、後宇多上皇に対する地位が極めて高かった、と見せるために。

4. まとめ

報恩寺文書の鎌倉時代後期～末期の文書三通を検討したが、かろうじて真正文書の「写し」である可能性を有するのは【史料三】だけである。【史料一】は相当程度に偽文書の可能性を有している。【史料二】は完全な偽文書と断定できよう。

特に【史料二】を根拠として論を立てるのは極めて危険な行為である。小原嘉記は、「忘れられた東大寺大勧進職一建武政権期の動向を中心に」（『仏教史学研究』第65巻第2号、2024年03月）では、【史料二】に着目し、「極楽寺第六代長老となった本光房心日は、文保元年の段階では播磨報恩寺にあり、長老証賢の下で修行をしていた。このころ播磨で活躍して文観房殊音との縁を結び、文観の中央での出世により、中央権力との関係を築き、最終的に極楽寺長老の座についた。」との大胆な論を立てたが、さすがに無理があろう。

今後も、「報恩寺文書」のうち、早期の六通の文書には慎重な扱いが必要であろう。

【 Abstract 】

A Study on the Documents of Hōon-ji Temple in Innami District, Harima Province

KANEKO Satoshi (Hyogo University)

The Hōon-ji Temple in Harima Province (present-day Yamakado, Heisō-chō, Kakogawa City, Hyōgo Prefecture) has been a relatively overlooked local temple. However, in recent years, it has begun to attract scholarly attention, with researchers such as ŌTSUKA Norihiro, MATSO Tsuyoshi, and KOHARA Yoshiki contributing to the deepening of its study.

In the *Kakogawa City History*, documents from the Hōon-ji collection, particularly Documents Nos. 1-6, are categorized as “requiring further examination.” In contrast, ŌTSUKA has argued that “if regarded as copies, they may be accorded a certain degree of reliability.” Building on ŌTSUKA’s view, KOHARA contends that Document No. 2, dated 1317, “has not been treated as a forgery in prior research and can be used as a reliable source,” advancing an ambitious hypothesis based on this premise.

Nevertheless, Document No. 2 contains the term *jun’gyō*(遵行), which is unnatural in the context of an imperial edict (*insen*) and therefore inconsistent with the notion that it is a faithful copy of an authentic document. Furthermore, the purported issuer of the edict, MADANOKOUJI Sanefusa, is known to have served in such a capacity only after the enthronement of Emperor Go-Daigo in 1318. His appearance as issuer in 1317 is thus historically implausible.

In Document No. 1 of 1316, the issuer, identified as the “former Governor of Echizen,” directly conveys the imperial edict to the Elder of Hōon-ji. By contrast, in Document No. 2, dated only one year later, MADENIKOUJI Sanefusa, a Junior Third Rank Former Councillor of State, is depicted as unable to convey the edict directly to the Elder, instead transmitting it through Hōnko Shōnin, a close attendant to the Elder. Notably, Hōnko Shōnin later became the sixth elder of Gokuraku-ji in Kamakura.

Given these inconsistencies, Document No. 2 must be identified as a forgery produced to enhance the authority of Hōon-ji. Reliance upon this document as a basis for scholarly argumentation is therefore highly problematic.

『新撰字鏡』 동형자 수록 양상 고찰

金玲敬(江西師範高等專科學校 教授)

1. 『新撰字鏡』과 그 자형 특징

『新撰字鏡』¹⁾은 일본 태고종의 학승이었던 쇼주(昌住)가 저술한 日本 초기 한문 사서(辭書) 중 하나로, 平安 時期 昌泰年間(西曆901年)에 완성되었다. 일본은 4세기 때 처음 백제로부터 한자를 받아들인 후 여러 차례 견수사(遣隋使)와 견당사(遣唐使)를 파견하여 중국과 활발하게 교류하였으며, 이를 통해 상당히 풍부한 한문 전적을 들여와 한자를 익히고 사용해 왔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대량의 전적을 수입한 시기가 수당(隋唐) 시대라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한자는 예번(隸辨)을 통해 완전히 고문자의 한계를 벗어난 후 위진 남북조 시기에 이르러서는 해서체가 탄생하였고, 수당 시대 때에는 이미 해서체가 확립되어 널리 쓰이고 있었다. 그러나 해서 역시 서사의 편리와 가독성이라는 두 대척점에 있는 원칙 때문에, 변이 자형과 규범 자형이 공조하기도 대립하기도 했다. 특히 수와 당은 앞 시대에 횡횡했던 정치 문화적 혼란을 극복하며 건국되었다. 정치 문화적 혼란은 정자(正字)의 권위를 무너뜨렸고, 속자를 포함한 이체자의 성행을 불러일으켰다. 이 시기 속자의 사용은 대단히 활발하였는데, 심지어 민간 문헌보다 훨씬 조심스럽고 엄격하게 규범 자형을 채택하고 각자(刻字)하였던 비문(碑文)에서조차 놀랄 만큼 많은 속자와 이체자가 발견된다. 하물며 당시에는 아직 인쇄술이 널리 보급되기 전이라 문헌의 전파는 오롯이 사람의 전사에 기댈 수밖에 없었으니 문헌 속에 대량의 속자가 범람하는 현상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결론적으로 말해, 일본과 중국의 교류가 시작되었던 수대나 가장 전성기였던 당대나 모두 속자가 대단히 활발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중국에 유학 다녀온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가져온 문헌이든, 무역을 통해 수입된 문헌이든, 당시 수당 시대의 문자 사용 양상이 원형 그대로 일본으로 전해졌고, 그 결과 자연스럽게 중국 속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문자 환경이 형성되었다.

쇼주가 『字鏡』을 찬술하던 시기에 저본이 되었던 『玄應音義』·『玉篇』·『切韻』등 자료는 이미 일본 국내로 들어와 있었으므로 자료 면에서는 충분한 기초가 다져졌다. 그러나 당시에는 인쇄술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으므로 쇼주가 인용한 『玄應音義』·『原本玉篇』·『切韻』·『干祿字書』같은 문헌도 기본적으로는 필사본이었고, 여타 다른 필사본이 그러하듯 적잖은 속자 자형이 존재했다. 그러므로 쇼주가 이러한 자료를 기초로 찬술한 『字鏡』은 표제자의 수록, 석문의 인용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적잖은 속자를 수록하게 되었다.

대량의 속자와 이체자를 수록하고 있다는 것은 『字鏡』 문자의 가장 큰 특징이며 사서로서의 가치를 드높이는 장점인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되기도 한다. 바로 『字鏡』의 문자에는 단순한 속자나 이체자와는 궤를 달리하는 “형태가 비슷해 잘못 전사한 글자(形誤字)”가 대단히 많고, “같은 자형의 한자가 두 개 이상의 자의를 기록하는 동형자(同形字)”의 처리도 소홀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표제자, 반절, 석의(釋義), 자형관계 해설 등 여러 영역에 걸쳐 빈번히 나타나고 이때문에 『字鏡』을 읽고 교열할 때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원래의 자음, 자의의 판단에 상당한 장애를 일으켜 『字鏡』을 올바르게 활용하고 교열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일본뿐 아니라 중국을 제외한 동아시아에서 이 정도의 규모와 완성도를

1) 이하 모두 “『字鏡』”이라고 약칭한다.

지닌 한문 사서(辭書)는 상당히 귀하다. 그뿐만 아니라 『字鏡』은 중고(中古) 시대의 속자 및 동형자의 사용 현황을 여실히 보여주며, 문헌학적으로도 높은 가치를 지니므로 연구 및 교감의 가치가 충분하다. 이에 따라 필자는 이 논문을 통해 『字鏡』의 표제자, 표음, 석의, 문헌 용례, 자형관계 해설 속에 산재한 “形誤字” “同形字”의 정확한 본자(本字)가 무엇인지 규명하고, 그것과 석문 속에 뒤섞인 의미항의 정확한 귀속 관계를 밝혀 이 책 본연의 효용과 가치를 드러내는 데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고자 한다.

2. 『新撰字鏡』 동형자 수록 양상 분석

『字鏡』 속의 形誤字와 同形字는 대체적으로 “형오자 혹은 동형자로 본자를 완전히 대체”하거나, “正某某反, 借某某反” “又某某反” “若干数+反” 등의 형식을 갖춘다. 형오자나 동형자는 비단 한자 자형 서사(書寫)의 문제일 뿐 아니라 표제자와 그것이 이끄는 표음, 석의, 문헌 용례, 자형관계 해석의 불일치를 초래하므로 본래 가리키는 글자와 형음의(形音義) 정보의 정확한 귀속을 규명해야 한다.

2.1. 형오자 혹은 동형자로 완전히 본자를 대체

『字鏡卷二·口部』: 𠵽, 許葍胡邁居候三反. 誑[詬]字. 恥也. 𠵽[厚]也. 賈[罵]𠵽.

“𠵽”은 사실“𠵽”자의 형오자다. 『字鏡·口部』의 다른 곳에 수록되어 있는 “𠵽”자의 석문을 보면 “𠵽, 火夬反. 去. 息聲也.”로 되어있고, 『名義·口部』에도 “𠵽, 火史[夬]反. 息.”로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이 “𠵽”의 본자는 따로 존재한다.

자형 면에서 살펴보면, “后”의 속자는 “𠵽”로 쓰는데, “舌”과 형태가 비슷하여 와혼된 것으로 보인다.²⁾ 이러한 자형의 변이현상에 대해 『간록자서』에서는 “后”를 정자로 “𠵽”를 속자로 규정짓고 있다.³⁾ 이에 따르면 “𠵽”가 실질적으로 가리키는 글자는 “𠵽”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자음 면에서 살펴보겠다. 『名義』에서는 “呼垢反”으로, 『宋本玉篇』에서는 “呼垢呼邁”⁴⁾로 표음하고 있는데, “呼垢反”음은 “上聲曉母厚韻”이고 “呼邁”음은 “去聲曉韻候聲”이다. 『字鏡』의 “許葍”음은 “平聲曉母侯聲” 혹은 “去聲曉母候聲”이고, “胡邁”음은 “去聲曉母候聲”이다. 비록 반절자가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그 음가는 대체로 일치하므로 『字鏡』의 표음이 사실 “𠵽”의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⁵⁾

2) 『兔園策府』第三卷: “『關雎』, 后妃之德也, 風之始也, 所以風化天下而正夫婦焉, 故用之鄉人焉, 用之邦國

焉.”에서 “后”를 “𠵽”로 쓴다. 또 P. 3282V (3-3) 『燃燈文』: “惟願三千垢累, 沐浴水以雲消.”에서 “垢”는 “𠵽”로 쓴다. 黃征, 『敦煌俗字典』(第二版), 上海教育出版社 2019年 出版本, 297쪽, 250쪽.

3) 『干祿字書·上聲』: “𠵽后, 上俗下正.”

4) 『名義·口部』: “𠵽, 呼垢反. 恥辱也. 厚怒也.” 『宋本玉篇·口部』: “𠵽, 呼垢呼邁二切. 厚怒聲. 又胡口切. 吐也.”

5) “居候”음의 출처에 대해 살펴보면, 『名義·口部』의 다른 곳에서 수록하고 있는 “𠵽”字의 훈음 “𠵽, 居候反. 恥辱, 罵也.”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데, 이는 『옥편』계 자서(字書)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原本玉篇』에서 “𠵽”字자는 유실되었지만, “誑”字가 남아있어 이를 뒷받침해 준다. 『原本玉篇·言部』: “誑, 許邁·胡邁·居候三反. 『左氏傳』: 閑誑之. 杜預曰: 誑, 罵也. 『礼記』: 孔子曰: 常常以儒相誑病. 鄭玄曰: 誑病猶耻辱也. 野王案: 『左氏傳』“不思其誑”, 是也.” 또 “詢, 『說文』: 亦誑字也. 『聲類』: 或為𠵽字, 在口部.” 이를 통해 보면 『字鏡』의 세 표음, 자형 관계 “誑[詬]字”, 석의 “恥也”, “𠵽也”, “賈[罵]𠵽”는 『原本玉篇』에서 인용했음을

마지막으로 석의 부분을 살펴보면, “恥也”·“辱也”·“賈[罵]罵”는 “𠵽”의 의미향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𠵽”과 “詬”의 의미향이 서로 뒤섞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原本玉篇』의 口部 부분이 유실되는 바람에 단정 짓기에는 조심스럽지만, 같은 『옥편』계 자서인 『名義』와 대조해 보면 『字鏡』의 이 세 의미향이 “𠵽”과 “詬”모두와 연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명義』의 “口部”에는 “𠵽”자가 각각 다른 훈음으로 수록되어 있다. 『名義·口部』: “𠵽, 居候反. 恥辱, 罵也.”와 “𠵽, 呼垢反. 恥辱也, 厚怒也.” 등이다. 또 “言部”에 “詬, 居候反. 罵也, 恥辱也.”처럼 “詬”의 훈음을 수록해 놓았다. 이 세 조목을 대조 분석하다 보면 쇼주가 『원본옥편』의 자형 관계 해설을 토대로 “𠵽”과 “詬”의 형음의 정보를 한 데 뒤섞어 놓았을지도 모른다는 추정해 힘을 실게 된다. 우선 “居候反”으로 읽힐 때와 “呼垢反”로 읽힐 때 모두 가지는 의미향인 “恥辱”에 근거하면 판명되지 않는 글자 “辱也”는 “辱”字를 잘못 썼을 가능성이 크고, “恥也”와 “辱也”는 “恥辱”라는 한 어휘를 잘못 갈라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居候反”음으로 읽는 “𠵽”의 석문에 따라 보면 “恥也. 辱[厚]也. 賈[罵]罵.”는 “恥辱”를 잘못 전사한 뒤 “詬”의 석의 중에서 “賈[罵]”를 끌어와 덧붙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일 “辱”가 “厚”를 잘못 쓴 거라면, “恥也”는 저본에 나온 “恥辱”를 줄여 인용한 것이며, “厚” 역시 “呼垢反”음으로 읽힐 때의 자의인 “厚怒”의 축약형이고 “厚怒也”를 “厚罵也”로 고쳐 쓰다가 “厚也罵”로 잘못 갈라놓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석의의 인용 문제가 명확하게 파악되지는 못했지만, 쇼주가 속자의 변이된 자형의 영향으로 “𠵽”과 “詬”의 차이를 정확하게 판별해 내지 못했고, 관성적으로 “𠵽”을 “詬”로 인식하는 바람에 표제자와 그 휘하 훈음정보, 문헌 용례 인용에 부조화가 생기게 된 점은 분명하다.

2.2.正某某反, 借某某反

『字鏡卷七·草部』: 蓴, 正補各反. 入. 苴, 蓴荷也. 蒲穗也. 借(常)倫反. 平. 奴奈波.

『字鏡』의 “蓴”자조에는 “蓴”“蓴” 두 글자의 훈음이 모두 수록되어 있다. 『廣韻·入聲·鐸韻』 “匹各切”의 “蓴, 蓴苴, 大蓴, 荷名.”, 『宋本玉篇』의 “蓴, 匹各切. 蓴何草也.”, 『名義·艸部』의 “蓴, 補各反. 蓴荷. 蓴苴. 蒲穗.”에 따르면 “蓴”의 자음은 “入聲幫母鐸韻”이다. 『字鏡』과 『名義』의 반절음 “補各反” 역시 이와 같으므로 “蓴”과 그 표음 정보가 서로 상응함을 확인할 수 있다.

借音인 “(常)倫反”은 “蓴”자의 자음이다. S.2071『切三·平聲·諄韻』 “常倫切”: “蓴, 蒲秀.”와 『宋本玉篇·艸部』: “蓴, 常倫切. 蓴菜.”에 따르면, 누락된 反切上字는 “常”자이다. 俗字에서 “蓴”구건은 늘 “蓴”와 혼용되어 이를 구성요소로 하는 여러 동형자군을 형성한다. 예로 傳·傳·傳은 모두 “蓴”를 품고 있지만, 첫 번째 글자는 “傳”이고 두 번째 글자는 “傳”, 세 번째 글자는 “傳”자이다.⁶⁾ 이를 근거로 정리하자면 『字鏡』의 “蓴”이라는 글자는 정자이면서 동시에 “蓴”의 동형자라고 할 수 있다. 쇼주는 속자에서 성행하는 “蓴”과 “蓴” 두 구건 혼용 양상의 영향을 받아 “蓴”자조 안에 “蓴”의 훈음을 병합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표제자와 의미향의 관계를 규명하면 다음과 같다. 관련 자서를 통해 보면 “蓴”자는 “蓴荷”의 별명인 “蓴苴”라는 단어를 구성하는 데에 사용될 뿐 의미향이 다양하지 않다. 따

알 수 있다.

6) 傳, S.288『正名要錄』: “傳[傳], 通.” 傳, P.2524『語對』: “傳衣.” 傳 BD505(19-3)『維摩詰所說經』卷下: “使一切人食, 傳若須彌乃至一劫, 猶不能盡.” 黃征, 『敦煌俗字典』(第二版), 上海教育出版社 2019年出版, 111쪽과 218쪽에서 인용.

라서 『字鏡』과 『名義』“蓐”字條의“蒲穗也”라는 의미항은 “蓐”자가 아니라“蓐”자의 것이다.“秀”는 “식물이 이삭을 패고 꽃을 피운다(吐穗开花)”는 뜻이므로, 『切三』의 “蒲秀”는 “蒲穗”로 쓰기도 한다. 그 예로 『廣雅』에서는 “蒲穗”로 표현하고 있다.⁷⁾

결론적으로, “正補各反. 入. 苴, 蓐荷也.”부분의 훈음은 모두 “蓐”자에 속하며, 표음 정보인 “借(常)倫反. 平.”과 의미항 “蒲穗也”는 “蓐”자에 속한다. 화훈인 “奴奈波”(ぬなわ)는 “蓐菜(じゅんさい)”의 옛말로 “蓐”자에 속한다.

2.3.又某某反

“又某某反”은 『字鏡』이 동형자를 표시할 때 가장 자주 사용하는 형식이다. 일반적으로 동형자 관계인 한자 중 한쪽의 표음 정보를 첫머리에 놓고 그 아래에 석의, 문헌 용례, 자형 관계 등을 설명한 뒤, 다시 “又某某反” 혹은 “又某某+若干數+反”등의 형식으로 다른 한 글자의 훈음의 정보와 문헌 용례를 덧붙인다.

『字鏡卷四·糸部』: 纊, 鹿⁸⁾雷反. 摧也. 摧, 總也. 偁摧也. 又息良反, 喪衣也. 又馬腹帶.

“纊”은 “纊”의 이체자이며, “糸”를 의미부로 “襄”을 소리부로 형성된 글자이다. 그러나 “襄”의 형태가 점차 간략해져, “口”가 “ㄣ”형태로 변하거나, 심지어 점 몇 개로 대체되기도 한다. 예: 如: 襄(北周『寇焜墓志』)·襄(北周『王士良妻董榮暉墓志』)·襄(北魏『秦紅墓志』)등등. 게다가 속문헌에서는 “襄”자의 자형 간략화 추세에 영향을 받아 점점 “襄”자와 유화(類化)되기 시작하여 결국 “襄”(S.2073『廬山遠公話』)과 같은 “襄”과 동형의 형태를 탄생시켰다. 이러한 일련의 유화 과정을 통해 “纊”와“纊” 두 글자는 동형자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字鏡』은 이를 반영해 “纊”자형을 기준으로 “纊”와“纊” 두 글자의 훈음을 모두 수록하게 되었다.

따라서 자형과 훈음·문헌 용례의 상응에 대한 더욱 정교한 분석과 정리가 필요하다. 먼저 “鹿雷反”이라는 표음 정보의 귀속부터 살펴보겠다. 이에 관한 여러 자·운서의 해설을 보면 『原本玉篇·糸部』에서는 “纊, 且雷反. 『周禮』: 凡喪, 為天王斬衰, 王后齋衰, 王為三公六卿緇衰, 為諸侯魂衰, 為夫士疑衰. 『傳』: 纊長六寸, 博四寸.”라고 하였고, 『玄應音義』卷十五『十誦律音義』第27卷에서는 “纊衣, 鹿雷反. 『釋名』: 死三日, 生者成服曰纊. 纊, 摧也, 言 傷摧也. 纊有錫纊, 有疑纊, 有總纊也. 總音歲.”라고 하였고, 『名義·糸部』에서는“纊, 且雷反.”, S.2071『切三·上平聲·灰韻』“此回反”에서는“纊, 喪衣.”라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纊”자조의 표음 정보“鹿雷反”과“摧也. 摧, 總也. 偁摧也”등의 의미항은 모두 『玄應音義』에서 인용하였고, “鹿雷反”이라는 표음은 “纊”字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타 『原本玉篇』과 『名義』, 『切韻』의 반절과 의미항 역시 이 표음 정보가 “纊”字의 本音이라는 점을 방증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纊”에 속하는 몇가지 의미항은 기본적으로 빠짐없이 잘 정리되어 있는 편이다. 그러나 마땅히 “纊”에 귀속되어야 할 “喪失也”이라는 의미항이 “息良反”(即“纊”字) 뒤에 배치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옮겨야 한다.

이 “纊”자조에 문헌 용례의 인용에는 잘못 인용된 곳이 제법 많아서 정확한 교정이 필요하다. 우선 “摧也. 摧, 總也. 偁摧也”부분을 살펴보면, 이 용례는 『玄應音義』에서 인용한 『釋名』

⁷⁾ 『廣雅·釋艸』: “蒲穗謂之蓐.”

⁸⁾ 『字鏡』의 反切上字“鹿”자는 “纊”의 자음을 표기할 수 없는 음가를 가지고 있다. 『切韻』『玉篇』『玄應音義』의 반절음과 전사 과정에서 “鹿”과 “鹿” 두 글자가 늘 와혼되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여기의 “鹿”자는 “鹿”자의 오류임이 분명하고, 이하 모두 “鹿”으로 고치도록 한다.

의 한 부분을 다시 인용한 것이다. 『釋名·釋喪制第二十七』의 원문인 “縗,三日不生,生者成服曰縗.縗,摧也,言傷摧也.”⁹⁾와 대조하면 다른 점이 상당히 보인다. 우선 “摧也”는 『석명』의 “縗,摧也”구절에 근거하여 “摧也”라는 한 용례를 『자경』으로 인용한 것이며 여러 문헌의 다양한 용례를 인용하는 데에 주력하였던 쇼주 인만큼 이 용례의 인용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摧,總也.偈摧也”부분은 오류가 많다. 우선 원문의 “縗”를 “總”로 잘못 썼는데, 이는 『玄應音義』의 인용문을 재인용하는 과정에서 인접해 있는 “有總縗也”·“總音歲”구절의 간섭을 받아 잘못 쓰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摧,總[縗]也”역시 원문대로 “摧,總[縗]也”로 쓰거나 삭제하는 것이 맞다. 『석명』은 한 글자의 의미를 설명할 때 “同音”에 “비슷한 의미를 지닌 다른 글자”를 많이 활용하는데, 그렇다고 해설하는 데 사용된 그 글자도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 때문이다. 즉, “縗”를 “摧也”로 풀이하였다고 “摧”역시 “縗”로 바로 풀이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 쇼주는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摧,總[縗]也”라는 의미항을 부연하였다. 그리고 “偈摧也”는 “言傷摧也.”를 옮기는 과정에서 “傷”을 “偈”으로 잘못 전사한 것이다.

다음으로 표음 정보 “息良反”의 훈음 귀속을 알아보면, 이는 “縗”字를 가리킨다. 『原本玉篇·糸部』에서는 “縗,先羊反.『國語』:懷挾縗縗.賈逵曰:馬縗帶也.『楚辭』:替余以蕙縗.王逸曰:佩帶也.『說文』:紆臂頽收衣袖綵也.”이라고 하였고, 『名義·糸部』에서는 “縗,先羊反.馬縗帶.”로, S.2071『切三·下平聲·陽韻』“息良反”에서는 “縗,馬腹帶.圓器,懷挾縗縗.”라고 해설하였다. 이를 종합 해보면, 『자경』의 “息良反”음과 “馬腹帶”는 모두 『절운』에서 인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4. 若幹數+反

“若幹數+反”의形式主要收錄某字“又音”의體例.如:『字鏡卷一·口部』:“谷,古木餘玉二反.窮也.在谷部.”同書“女部”:“娘,普詣正義二反.配也.”“水部”:“濫,力敢下減二反.上.惡也.進也.亂也.盜也.濁也.臨也.貪也.泉也.觀也.”不過,這種體例有時對辨認同形字關係提供重要的線索值得研究.具體如下.

『字鏡卷七·木部』:梓,五割即里二反.今作薛.餘也.載也.楸也.檣也.牟久乃木,又久比是.

“梓”는 “梓”의 동형자이다. 우선 자형에서 “梓”와 “梓”자가 와혼되는 과정을 살펴보겠다. 『說文·木部』에 “櫨,伐木餘也.从木獻聲.『商書』曰:若顛木之有幼櫨.櫨,櫨或从木薛聲.不,古文櫨从木無頭.梓,亦古文櫨.”하고 하였는데, 『說文』의 자형 해설에 따르면 “梓”자는 “櫨”의 古文이다. “今作薛”의 “薛”이 가리키는 것은 『說文』或體 “櫨”이므로 “今作櫨”로 고쳐야 한다. “梓”의 “辛”구건은 예변과 해서화를 거치며 辛, 𣎵(『金石文字辨異』)등으로 변이되어 “梓”의 “𣎵”구건과 형태가 약간 비슷해졌고 창주는 이에 두 글자를 같은 글자로 오인 한 데에 병합해 버린 것이다.

표음정보에서 첫 번째 “五割反”음은 “梓”자의 것이다. 『王三·入聲·曷韻』“五割反”의 “櫨,頭戴.亦作𣎵.”가 이를 증명한다. S.2071『切三·上聲·止韻』“即里反”의 “梓,木名.或𣎵.”에 따르면 두 번째 “即里”는 “梓”字의 자음이다.

자형관계와 석의의 귀속부분에서, 『說文』에 근거해 “今作薛[櫨]”는 “梓”자에 속함을 확인할

9) 『釋名疏證補』, 劉熙著, 畢沅疏, 中華書局 2008年出版本, 291쪽.

수 있다. 그 외 “餘也”“載也”“楸也.”“櫪也”등은 정확한 귀속을 밝혀야 한다. 『玄應音義』卷四『華手經音義』十一卷의 “栽梓, 古文櫪·梓·不, 三形同. 今作櫪, 同.五 割反. 『爾雅』: 梓, 餘也, 載也.言木餘載生梓栽也.”와 『宋本玉篇』: “櫪, 魚割切. 餘也. 櫪不梓栱, 並同上.”두 자서의 해설을 보면, “餘也”“載也”두 의미항은 “梓”에 속한다. 이때 “載也”의 “載”는 “戴”의 통가자이다. “載也(즉 戴也)”라는 의미항은 『玄應音義』에서 인용한 『爾雅』-『爾雅卷四·釋訓』: “蓁蓁·櫪櫪, 戴也.”-에서 왔다.¹⁰⁾

의미항 “櫪也”은 아마도 “梓”에서 파생된 자의인 듯하다. 『說文』에서 “櫪(즉 櫪)”을 “말뚝”, “門櫪(문지방)”이라고 풀이하고 있고, 이 글자는 “櫪”로 쓰기도 한다.¹¹⁾ “櫪”은 원래 “木樁(말뚝)”을 뜻하고, “梓”즉 “櫪”은 “나무가 베어진 후 다시 살아난 가지(樹木砍去後重生的枝條)”를 뜻한다. “나무가 베어진 후 다시 살아난 가지”를 뜻하던 “梓”자가 어떻게 “말뚝”이나 “문지방”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을까? 여기에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했다. 우선 이 두 글자는 모두 “베어진 후의 나무(砍後的木頭)”라는 공통된 의미소가 있다. 그 후 “櫪”이 “문지방(門櫪)”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고(『爾雅·釋宮』: “櫪謂之闔.”注: “門闔. 闔謂之扉.”), 陸德明의 『爾雅音義』에서 “櫪, 其月反. 闔, 魚列反.”이라고 밝힌 바처럼, “櫪”은 “闔”와 의미가 비슷하고, “櫪”은 또 “闔”와 동음이다. 게다가 “櫪(즉 梓)”은 또 “櫪”과 “베어진 후의 나무(砍後的木頭)”라는 의미소를 공유하므로 “櫪”과 “櫪”가 의미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오해하게 된 듯하다. 이처럼 다소 건강부회하기까지한 의미항은 쇼주가 가진 문자학적 소양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餘也”“載也”“櫪也”이 세가지 의미항은 마땅히 “梓”의 아래로 귀속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楸也”는 “梓”字의 의미항이다. 『玄應音義』卷十二『那先比丘經音義』下卷에 “梓棺, 又作梓, 同. 即理反. 古者殷人上梓. 『字林』: 梓, 楸也. 『古史』云: 考陽作木棺, 有虞氏用瓦棺. 棺, 完也, 關也.”『名義·木部』: “梓, 咨里反. 榛栗椅桐梓涂. 此六力琴瑟.”『宋本玉篇·木部』: “梓, 咨里切. 木名.”등의 자서가 이를 증명한다.

그 외 푸조나무를 뜻하는 화훈 “牟久乃木(むくのき)”는 “梓”자로, 그루터기를 뜻하는 “久比是(くいぜ)”는 “梓”자로 귀속해야 한다.

3.결론

이상으로 『자경』의 형오자 및 동형자의 수록 양상과 이들이 『자경』 한자 해설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대략 서술하였다. 앞에서 잠깐 언급한 바처럼 형오자와 동형자에 대한 정리 및 교정의 부재는 이 책의 진정한 문자학·문헌학적 가치를 체감할 수 없게 만든다.

필사에서 인쇄로 문헌 전파의 방식이 바뀌면서 필사 문헌의 형오자는 교정되기도 하고, 잘못된 채로 언중의 공인을 받아 “동형자”로 승격되어 역대 자전 속에 채록되고 전승되었다. 그러나 필사 문헌 속 여기저기에 흩어진 형오자들과 동형자들 중 역대 자전과 현대에 편찬된 대형 자전에 편입되지 못한 것도 있다. 중국의 학자 중 역외 한자 문헌에 관심을 기울이던 사람

¹⁰⁾ “櫪”은 “櫪”의 혹체이고, “櫪”는 “櫪”의 통가자이다. 郭璞은 주석에서 “皆頭戴物.”이라고 풀이했고, 刑昺은 疏에서 “『周頌·絲衣』云: 載弁俵俵. 毛傳云: 俵俵, 恭順貌. 鄭箋云: 載猶戴也.”로 풀이하러, “載”는 “戴”과 같다고 했다. 『釋名·釋姿容』에서도 “戴, 載也, 載之於頭也.”로 풀이하었는데, 이 같은 해설은 모두 “載”와 “戴”는 동음에 의미적으로도 서로 연관되어 자주 통가되었음을 알려준다.

¹¹⁾ 『說文·木部』: “櫪, 弋也. 从木厥聲. 一曰門櫪也.”『廣韻·人聲·月韻』“其月切”: “櫪, 『說文』: 杙也. 一曰門櫪. 亦作櫪.”

들은 일본 사서의 연구를 통해 대형 자전에서 보충되어야 할 “형오자 및 동형자”를 모으고 있다. 『자경』 형오자 및 동형자의 수록 양상을 연구하는 것 역시 이러한 연구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자 자형의 잘못된 필사, 이에 따른 잘못된 용례나 상응하지 않는 형음의 정보 등을 굳이 찾아내고 정리하는 이유는 잘못된 용법이나 문법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오래도록 사용하면 그것이 법칙이 되듯이 한자로 기록한 문헌 속에 그것이 엄연히 존재하고 역대 자전에서도 수록할 만큼 합법화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만큼 한문 문헌 속에 엄연히 존재하는 오류 또한 제대로 망라해서 밝히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함과 동시에 아직 수록되지 않은 동형자의 용례를 보충하여 옳은 것이던 오류로 인한 용례든 수록하여 고전의 번역과 연구에 기초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Analysis of the Collection System of Homomorphic Characters in the
“*Shinsenjikyo*”**

KIM Lyoungkyoung (Jiangxi Teachers College)

Shinsenjikyo is one of the early Chinese dictionaries in Japan. *jikyo* contains a large number of variant characters, including those with similar forms that are mistakenly considered identical and those that coincidentally share the same form. These phenomena frequently appear in various aspects such as character entries, phonetic analysis, definitions, and explanations of character relationships. As a result, when reading or collating *jikyo*, misunderstandings often arise, which can interfere with the original pronunciation and meaning of the characters, ultimately hindering the reading and organization of *jikyo*. Therefore, this paper focuses on systematically analyzing the instances of form-altered characters and homographic characters in *jikyo*, as well as their general patterns—such as “form-altered character or homographic character,” “borrowed as某某反,” “also某某反,” “several某某反” etc.—and investigates the correspondence between character entries, forms, phonetic transcriptions, definitions, citations, and character relationships, making preliminary contributions to an exhaustive study of character relationships in *jikyo*.

長崎県福江市中島遺跡の縄文時代後期文化について

村川逸朗(一般社団法人西海文化財研究所代表理事)

1. 丸石利用の文化は南からの伝搬なのかその淵源とその後の文化を探る。

これまで対馬暖流の真ただ中にある西北九州の縄文時代文化などについては、北からの寒流に伴う捕鯨文化について発表を行ってきた。今回の発表では、それとは逆に南からの対馬暖流本体の北流に伴う文化の流れはないのか等を探ってみるのが目的である。

2. 対馬暖流に洗われる五島列島福江市中島遺跡の地理学的意味

長崎県福江市中島遺跡は、縄文時代後期のドングリピットの遺構が検出された遺跡である。縄文時代のドングリピット自体は壱岐市の縄文時代中期の名切遺跡での検出例が最古のものと言われている。それではなにが中島遺跡が特出しているかというと、ここで検出された丸い転石を打ち欠いたスクレーパーが、この西北九州では初出であり、それ以前では打製のものがほとんどであり、丸い転石の丸い面を有する石器は異色であると捉えられている。なお、民俗学者であった故立平進氏より、丸石を打ち欠いて石器として利用する文化は“台湾”にある旨のご教示を受けたことがある。

3. 江戸時代末期の丸石を利用した福江市石田城石垣

時代は近世まで降りてくるが、江戸時代末期に築造された石田城では搦手門の一部に、まったく打ち欠きを行わない丸石を用いて石垣の積み上げを行う。また、その石田城内にある庭園の池を取り巻く食栽としては、クス、ツバキ、クロガネモチなどとともに、ピロウ、ソテツ、ハラン、オオタニワタリなどが混じり南国の趣きを醸し出している。なお、城の石垣積み上げを行う場合は、その石を加工しただけ四角くして積み上げた方が安定感が増すと思われるが、あえて非安定要素が増すと思われる丸石を利用する考え方とは何なのか、疑問とともに、その背景と文化的源流について興味を惹かれる。

4. そもそも丸い石を積み上げることにはどうゆう意味があるのだろうか。

石田城では搦手門（通用門）の一部、一番目立つところに特に丸い石を用いて石垣を積み上げている。これを見てまず思うのは重心の軸がずれて崩れないのだろうか？ということである。まず、この第一印象が強い。昨年秋の本学会の『ある律宗寺院の確定』の発表（金子哲2024）、での兵庫県加古郡稲美町中村にある円光寺墓所にある地蔵山墓地に所在する応安元年（1368年）の花崗岩製五輪塔の水輪部は、奈良市西大寺奥の院の観尊塔と呼ばれる五輪塔と比較して、より丸く水輪部の上に載る笠及び台座との接点が小さい。つまり支点が小さいということは不安定であるし、崩壊を免れるためには、重心を通し、あえて擬人法的な修辞を行えば自立させ、もっというなら自律的な性格をもたせなければ、それを避けることはできない。

5. 応安元年（1368年）の花崗岩製五輪塔やその後の宝篋印塔等が築造された頃の時代背景

上記の円光寺墓所には、その五輪塔とともに明德元年（1390年）の花崗岩製宝篋印塔も所在している。この塔は“祐勢”という律僧によって、地域住民を束ねる中間管理層としての「齋戒衆」などへの「受戒」を行ったモニュメントであった。自主的に天満大池の改修を行い、耕地開発を進めたともいわれている。これらの石造物は地方色を有するもので、南都系西大寺流新義律派との関係を証明できるものではない（金子哲2024）。地方の自立的、かつ独自色の萌芽をも示すものといえ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

6. 中国宋との関係

五輪塔など石塔の製作にあたっては鎌倉時代の奈良東大寺再建にあたり、重源に招かれ宋より日本に渡り、日本に石の加工技術を伝え、後に日本に帰化した石大工伊行末（い・ゆきすえ）の子孫で伊派（いは）といわれる石工集団や、忍性と共に関東へ渡った伊派の分派大蔵派といわれる石工集団が、宋伝来の高度な技術を駆使しておこなった。

7. まとめにかえて

長崎県の西海に所在する平戸・生月や五島列島は、対馬暖流本体の北流に洗われながらも、例えば平戸や生月がリマン寒流の転回によるヤリイカ漁がおこなわれるのに対し、五島福江市までは暖流の恩恵により米の二期作を行っている。今回南からの暖流による文化の影響について“丸い石”を題材として考察を行った。未だその緒に就いただけであり今後も、このテーマについて継続していきたい。

【 Abstract 】

On the Late Jomon Culture at the Nakajima Site in Fukue City, Nagasaki Prefecture

MURAKAWA Itsuro

(Saikai Cultural Properties Research Institute, General Incorporated Association)

1. Did the culture of round stone use spread from the south? Exploring its origins and subsequent culture.

Previous presentations have focused on the Jomon culture of northwestern Kyushu, located in the middle of the Tsushima Warm Current, and its whaling culture associated with the cold current from the north. The purpose of this presentation is to explore whether there was a converse cultural flow associated with the northward flow of the main body of the Tsushima Warm Current from the south.

2. The Geographical Significance of the Nakajima Site in Fukue City, Goto Islands, Washed by the Tsushima Warm Current

The Nakajima Site in Fukue City, Nagasaki Prefecture, is a site where remains of a late Jomon period acorn pits were discovered. The oldest known Jomon acorn pit is said to be the one found at the Nakiri site in Iki City, dating to the middle Jomon period. So what makes the Nakajima site so unique? The scrapers discovered here, made by chipping off round boulders, are the first of their kind in northwestern Kyushu. Most previous stone tools were made from chipped stones, making stone tools with the rounded sides of boulders unique. The late folklorist Susumu Tatehira once told me that the culture of chipping off round stones and using them as stone tools originated in Taiwan.

3. Late Edo Period Stone Walls at Ishida Castle in Fukue City: Using Round Stones

Going back to the early modern period, at Ishida Castle, built at the end of the Edo period, part of the back gate was constructed using unchipped round stones. Furthermore, the edible plants surrounding the pond in the garden within Ishida Castle include camphor trees, camellias, and Japanese silverleaf, along with Chinese fan palms, cycads, orchids, and giant jasmine, creating a tropical atmosphere. When stacking the stone walls of a castle, it would seem that processing the stones to make them as square as possible would increase stability, but the idea of using round stones, which are thought to increase the instability, raises questions and intrigues the background and cultural origins of this idea.

4. What is the significance of stacking round stones in the first place?

At Ishida Castle, the stone walls are stacked using particularly round stones in the most visible part of the back gate (service gate). The first thing that comes to mind when you see this is, won't the center of gravity shift and cause the wall to collapse? This first impression is strong. In last fall's publication of "Identifying a Ritsu Sect Temple" (Kaneko Satoshi 2024), the Society noted that the water ring of a granite stupa dating from 1368, located in the Jizoyama Cemetery at the Enkoji Temple Graveyard in Nakamura, Inami-cho, Kako-gun, Hyogo Prefecture, is rounder and has a smaller point of contact with the cap and base that rests on top of the water ring, compared to the stupa known as the Eison Tower in the inner sanctuary of Saidaiji Temple in Nara City. In other words, a smaller fulcrum makes it

unstable, and the only way to avoid collapse is to make it self-sustaining by using anthropomorphic language, or even to give it an autonomous character, through a center of gravity.

5.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Construction of the Granite Five-Ring Pagoda from 1368 and Later Hokyoin Pagodas

The Enkoji Cemetery mentioned above also contains a granite Hokyoin Pagoda from 1390. This pagoda was erected by a monk named "Yusei," who performed the precepts for the "Saikaishu," a middle-level administrative group that governed the local residents. It is said that he independently renovated Tenman-oike Pond and promoted the development of farmland. These stone structures have a local character and cannot be used to prove a connection to the Nara-based Saidaiji School of Shingi-Ritsu (New Ritual Ritual) (Kaneko Satoshi 2024). Perhaps they also demonstrate the beginnings of local independence and individuality.

6. Relationship with the Song Dynasty in China

The creation of stone pagodas, such as five-ringed pagodas, was carried out by a group of stonemasons known as the Iha school, descendants of the stonemason I Yukisue, who traveled from Song to Japan at the invitation of Chogen during the Kamakura period (1185-1333) for the reconstruction of Todaiji Temple in Nara. He introduced stonework techniques to Japan and later naturalized in Japan. The group also included a group of stonemasons known as the Okura school, a branch of the Iha school who traveled to the Kanto region with Ninsho. They utilized advanced techniques introduced in Song.

7. Conclusion

While Hirado, Ikitsuki, and the Goto Islands, located in the western sea off Nagasaki Prefecture, are washed by the northward flow of the Tsushima Warm Current, for example, Hirado and Ikitsuki rely on the diversion of the Liman Cold Current for spear squid fishing, while the Goto Islands, up to Fukue City, benefit from the warm current and enjoy a double rice crop. In this article, I examine the cultural influence of warm currents from the south, using "round stones" as a subject. We have only just begun, and we would like to continue working on this topic in the future.

▶ 제8세션 (장소: 408호)

제8세션 (개인발표)	東北亞：海域人文学			
시간	발표자	발표제목	토론자	좌장& 사회자
14:50~15:20	金芝淑 (慶星大学)	동해안 어촌 생활어에 나타난 고유 지명 명명(命名)법 연구	梁敏鎬 (国立釜慶大学)	· 座長 · 孫東周 (国立 釜慶大学) · 司會 · 崔璿耿 (国立 釜慶大学)
15:20~15:50	申尙沅 (国立釜慶大学)	조선후기 전라도 도서(島嶼)지역 노비 '출계집단(出系集團)'의 형성과 계승	徐敬順 (国立釜慶大学)	
15:50~16:20	徐敬順 (国立釜慶大学)	근대 한국의 어업구조와 수산업 변화 - 『한국수산지』를 중심으로 -	申尙沅 (国立釜慶大学)	
16:30~17:00	孔美熙 (国立釜慶大学)	국제교류항 나가사키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항만 재생	文慧珍 (釜山大学)	· 座長 · 金昌慶 (国立 釜慶大学) · 司會 · 梁敏鎬 (国立 釜慶大学)
17:00~17:30	李旼憬 (国立釜慶大学)	바다를 건너온 맥주, 해양도시가 빛은 맛: 부산의 맥주 문화 연구	孔美熙 (国立釜慶大学)	
17:30~18:00	金昌慶 孔鳳振 (国立釜慶大学)	부산 해양 교육 확산을 위한 해양문화원형의 콘텐츠화	李丹 (国立釜慶大学)	
18:10~18:40	동아시아일본학회 2025년도 하반기 정기총회			
	2025년 동북아시아문화학회 정기총회 및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시상			
	폐회식			

동해안 어촌생활어에 나타난 고유 지명 명명(命名)법 연구

김지숙(경성대학교 조교수)

1. 머리말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인 데다가 3,305개의 도서를 가지고 있어 일찍부터 수산업이 발달하였다. 이러한 지형적인 특징으로 바다 환경에 적응하여 그와 관련된 직업과 문화를 만들었고 이로 인해 어촌 문화를 담고 있는 언어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김지숙(2024)). 어민들은 오랜 세월 바다와 함께 살면서 바다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지명에 담아냈다. 즉 지명은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특수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흔적이다. 이 연구는 동해안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 생활 방식, 어업 활동 등이 반영된 고유 지명의 명명 방식을 분석하여 어민들이 환경을 인식하는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는 방언학, 민속학, 지리학 등의 분야의 어휘 발굴뿐만 아니라 사라져가는 어촌의 언어 문화를 발굴하고 기록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리라 본다.

2. 연구 목적 및 방법

지명은 중국의 지리를 최초로 일괄 정리한 <한서(漢書, 중국 전한의 역사책, 1세기 후반)> 지리지 머리말에 나오는 말이다. 따라서 지명의 역사는 2000년이 넘었다고 할 수 있다.¹⁾ 최초의 지명은 나라 이름, 수도와 같은 육상 지명 등에 국한되었지만 사람들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면서 해양 지명까지 확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지명이란 지리적 실체들을 서로 구별해주는 언어적 표현으로서, 일정한 환경에서 인간이 경험하고 지각하여 만든 고유명사라고 할 수 있다(국토지리정보원, 2012). 즉, 지명은 단순히 장소나 지형을 가리키는 언어가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공간에 대한 인식의 결과로 나온 것이다. 이 연구의 대상인 해양 지명에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해협, 만, 포 등도 존재하지만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바다 속의 바위도 존재한다. 이처럼 해양 지명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가에 따라 해상 지명(sea surface names)과 해저 지명(undersea feature names)으로 분류되는데, 해상 지명은 해면 위의 지형에 대한 명칭으로 대양, 바다, 해협, 수로, 만, 포 등을 말한다. 또한 간조 시 바닷물에 잠기지 않고 해수면 위로 노출되고 만조 시 바닷물에 잠기는 여, 서, 암, 탄 등의 간출암도 해상 지명으로 분류한다. 반면 해저 지명은 초(礎), 퇴(堆), 해저협곡, 해저산, 해저산맥, 해령, 해구 등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을 의미한다.²⁾ 현재 동해안 지역에서 불리는 지명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해양 지명의 명명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안세진 외(2019:313)에서 언급된 1877년부터 1910년까지 일본에서 간행된 해도에 표기된 ‘黃達嶼(황달서), 烏岩(우두암), 龍田礁(용전초), フェーム岩(용암), 彦嶼(언서), 漁夫岩(어부암), フク瀬(복뢰), Manderi Reef(만데리여), 南越礁(나무초), 橋本礁(교본초), 馬岩(도뢰), 海門礁(고래여), 甘嶼(감서), 尾張岩(가섬앞초), 玄嶼(Kamuru Ÿo)(가문여), 出雲礁(완도초)’를 통해서도 재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된 지명은

1) 건설부국립지리원(1987:11) 지명 유래집 참고.

2) <해양지명 표준화 편람(2004, 국립해양조사원)>은 해양 지명을 해상 지명(sea surface names)과 해저 지명(undersea features names)으로 구분하였고 해상 지명은 항상 수면 위에 보이는 부분으로 해양, 해협, 만, 포, 수로 등이며 해저 지명은 물속에 잠겨서 보이지 않는 초, 퇴, 해저 협곡 등 물속의 지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지명을 구성하는 요소에 따라 전부 요소와 후부 요소로 구분하는데, 위에 언급된 ‘만, 포, 여, 서, 암’ 등은 후부 지명소, 속성 지명으로 앞에 위치해 다른 지리적 실체와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형태소는 전부 지명소, 고유 지명이라고 한다.³⁾ 이 연구는 이 중 전부 요소에 나타난 고유 지명을 명명법에 따라 분석한 것이다.

해양 지명의 사용 양상을 통해 현지인들이 공간을 인식하고 해양 지형에 대한 명명 실태를 파악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동안의 연구자가 구축한 자료를 토대로 예비 조사를 한 후 본격적인 조사는 크게 두 시기로 구분된다. 먼저 2010년 1월 10일부터 2013년 10월까지의 국립국어원의 민족생활어 조사로 동해안 어촌 지역인 강원도와 경상도 일부 지역 등을 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 연구의 일환으로 2022년 8월부터 2025년 현재까지 동해안 일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구축된 자료는 민족지학적(ethnography) 연구 방법을 통해 어촌의 방언 및 어휘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언어의 분화 양상과 명명법을 파악한다.⁴⁾ 더불어 지형 및 환경 요소와 지명의 관계를 분석하여 어민들의 환경 인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조사에 사용된 질문지는 연구자가 참여했던 국립국어원 민족생활어 조사의 <어촌 생활어 질문지>와 연구자가 추가로 구성한 내용과 사진을 보완하였다.⁵⁾ 현재까지 조사한 지역의 음성 자료는 전사 프로그램 Transcriber 1.4.2를 사용하여 텍스트 문서로 가공하고 아래의 예를 추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엑셀(Excel) 자료를 재구성하였다.

(1) a. 예. {돌}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여기 뭐 {꼬꾸랑돌} 캐샐고 또 이거 무슨 돌이고 {갈매기돌} 캐샐고 돌 이름 돌을 바닷 속에 있는 돌을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을 만들어가 지어가지고. 그 답에는 물 속에 들어간 거는 {무덤}. 여그. 여기. 여그는 저 {갯방돌}. (경주)

b. 그 말고도 {도박바우}. {새바우}. {갈매기바우}. 인제 갈매기가 앉으면 그래 인제 일로 보고 앉으면 {도박잠}. 도박 많이 한다고 도박잠. 시개 많이 난다고 {시개잠}. 시개라고 있어. 여 셋잠. 그래 여기는 그래. {구생이대가리}. 바위 이름이 구생이대가리. 응. 구생이대가리. 구생이 많이 앉는다고.(영덕)

c. 그 바위는 가면. 응. 그 시개잠. 도박잠. 또 유세잠. {유사잠}. 유사잠이란 건 왜글냐 하면 옛날에는 인제 이 동네 인제 어른들이 잠 그거 하는 어른들이 돌아가면서 동네 제사를 지내. 근데 유사 돌이씩 돌이씩 해가지고 인제 제공에다 인제 옛날에는 제사를 지냈거든. 그니까네 그 사람들 제사 지낸다고 줬는 잠이 유사잠이다 인제. (영덕)

³⁾ 임영태 외(2011)에서는 우리나라 해양 지명의 속성은 조선수로지에 근간을 두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즉 임영태 외(2011)에서 밝힌 것처럼 일본이 우리나라 연안의 수심, 위험물 등을 조사하여 최초로 간행한 수로지는 1886년(明治 19년) 간행한 『환영수로지』이며 이후 여러 번의 수정 보완을 거쳐 우리나라 전 연안의 항과 포구의 수심과 항해 위험물, 등대 및 조류, 해류, 기상 등 거의 모든 해양에 관한 정보를 상세하게 조사하여 1907년(明治 40년) 조선수로지와 1920년(대정 9년) 일본수로지 제10권 상편 중 조선편으로 “조선 동안에서 남안”과 “조선 서안편”으로 나누어 2권으로 간행되었다. 이 수로지에서 분류한 해양 지명의 속성에 관한 원전은 영국 해군성 수로부가 간행한 CHINA PILOT에 근거하고 있다. 이때 분류한 해양 지명의 속성은 주로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해안가 지형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해양 지명의 속성에 관한 분류는 이들 『조선연안수로지』에 근간을 둔다고 본다.

⁴⁾ 하임즈(Hymes)에 의해 시작된 언어인류학에서 의사소통의 민족지학은 사회 생활에서 행위자들이 사용하는 말하기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한다. 이는 언어와 사회 구조, 언어 행위와 사회 행위 간의 상호관계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았고, 연구의 방법론적 도구로는 민족지학적 접근을 채택하였다. 의사소통의 민족지학은 언어의 존재 양태가 말하기에 기반하고, 이를 통해 언어·문화·사회 간의 관계에 대한 보다 생산적인 논의를 이끌었다.

⁵⁾ 격식 질문지에는 사람, 바다 장소, 도구, 어패류, 해조류, 기타류 등이 포함되었고, 질문지에 없는 바람, 관용표현, 생애사 등의 내용은 구술 조사로 병행하였다.

3. 동해안 어촌 해양 지명의 유형별 분류와 특징

동해안 지역에서는 해상과 해저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초(礁), 암(岩), 서(嶼), 여(礪, 汝) 등으로 다양하게 부르고 있었고, ‘서’와 ‘여’, ‘여’와 ‘짬’ 그리고 ‘바위’와 ‘돌’의 혼동되어 쓰이고 있었다.⁶⁾ 이중 전부 요소를 ‘자연 지형 및 지물, 어획물과 어업 활동, 위치 및 방향, 바람, 사회·문화적 요소’로 나누어 살펴해보도록 하자.

3.1. 자연 지형 및 지물 활용

어민들은 항해나 조업에 필요한 해안가의 바위, 갯, 만, 섬 등 독특한 자연 지형의 모양이나 특성, 즉 특정 바위의 형태나 색깔, 혹은 모양을 묘사하는 고유명사를 지명에 붙인다. 이를 통해 어민들은 어업 활동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한다.

- (2) a. 새바우, 갈매기바우/갈매기돌, 고래듬/골듬(영덕)
- b. 검등바우/검등바우, 꼬꾸랑돌, 갯방돌, 오그랑할매, 말바우/말방(영덕)
- c. 갸뻑듬/갸뻑듬(울산)
- d. 낙타성애(고성)

(2a)의 ‘새바위’와 ‘갈매기바우’는 새 또는 갈매기가 많이 앉는 바위를 말한다. ‘고래듬’ 또는 ‘골듬’은 고래의 등과 같이 바위 윗부분이 굽어져서 솟아있는 바위를 지칭하였고, ‘고래덤(영덕)’은 ‘노물 동남쪽 바닷가에 있는 바위. 모양이 고래처럼 생겼음.<한글학회(1979:61)>’으로 확인할 수 있다. 즉, ‘고래덤’은 ‘고래듬’과 동일한 장소의 해양 지명을 나타내고 있는데, 바위를 지칭하고 있었다. (2b)는 ‘검등바우/검등바우’는 ‘검등바우’는 미역이 새까맣게 많이 나는 바위, 미역이 많이 나서 바위가 검게 되는 것을, ‘갯방돌’은 돌이 마치 갯을 쓴 것 같은 것을 가르킨다. 또 ‘꼬꾸랑돌’은 굽은 돌을, ‘오그랑할매’는 굽은 바위로 그 모습이 할머니의 등과 닮았다는 의미에서 유래되었고, ‘말바우, 말방’은 말처럼 길게 연결된 바위를 말한다. (2c)의 ‘갸뻑듬/갸뻑듬’은 조류에 따라 바위 윗부분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모습이 마치 갸뻑갸뻑한다고 해서 붙여진 명칭이다. (1d)의 ‘낙타성애’는 지역주민들이 바위 모양이 낙타의 봉우리처럼 생겼다고 하여 ‘낙타성애’라 부른다.

3.2. 어획물과 어업 활동

해양 지명에는 어민들의 주된 생업인 어업과 관련된 어획물, 어장, 조업 활동 등이 지명에 반영되고 있었다. 어종이 많이 잡히는 곳이나 어획 방식과 관련된 지명은 어민들의 실제 어로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특정 어종이 잘 잡히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그 특징을 담은 지명이 생겼다.

- (3) a. 도박바우/도박짬/도박잠, 시개잠, 구생이대가리, 무네늘개(영덕)
- b. 고등돔/고등돔(울산)

⁶⁾ 영국: Pender Rk.(주서), Socotra Rock(이어도), Sylvia Rk(여리초), N.W.Rocks(소발서), MidChart Rock(소녀초), Entrance R.K(반구여), Fredrick Rock(마당여), Récif du Chenal(돈힌여), Havergal R.k(넙은여), マタノ瀬(-), Meyer rock(왜물초)

러시아: Вимязь(쌍정초), Vitias Rk.(비티아스암), Kreisser(판초)

- c. 우럭덩이/우룩뚝, 방어등이(고성)
- d. 섭덩이(강릉)
- e. 대구성애(고성)

(3a)는 모두 영덕 앞바다에 위치한 것인데, ‘도박바우/도박짬’에서 전부 요소인 ‘도박, 시개’는 해조류로 ‘도박바우’는 도박이 많이 나는 바위를, ‘시개짬’은 시개가, ‘구생이대가리’는 구생이가 많이 앉는 바위를 말한다. 그리고 ‘무네늘개’는 문어가 많이 서식하는 바위를 가리킨다. (3b)의 ‘고동뚝’은 미포시돌 옆에 있는 바위로 고동이 많이 붙는 바위를, (3c)의 ‘우럭덩이/우룩뚝’은 우럭이, ‘방어등이’는 방어가 많이 잡히는 곳으로 두 곳 모두 해당 어종이 많이 잡히는 곳이라는 의미를 말한다. (3d)의 ‘섭’은 홍합을 말하는데 이 역시 홍합이 많이 붙어있는 바위를 가리킨다. (3e)의 ‘대구성애’는 고성군의 대진항 앞바다에 있는 바위로 대구가 많이 잡혀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후부 요소인 ‘성애’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찾기는 어려웠으나, 다소 규모가 큰 바위가 바닷 속에 우뚝 솟아 있을 때 ‘성애’로 부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3c)의 ‘방어등이’, ‘우럭덩이(우룩뚝)’와 (3d)의 ‘섭덩이’의 후부 요소인 ‘덩이, 등이’의 구체적인 뜻을 찾기는 어려웠으나 제보자들은 ‘덩이’, ‘등이’, ‘뚝’을 모두 ‘바다 속에 우뚝 솟아있는 바위’를 말한다고 하였다(김지숙 2025 참고).

3.3. 위치 및 방위

어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다 위에서의 위치와 방향인데, 이로 인해 방위, 거리, 수심 등과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는 지명이 사용되었다.

- (4) a. 낙산내기, 속사내기(속초)
- b. 찬물내기(울진)
- c. 셋잠, 깨치밭골, 허릿짬, 아래구시기(영덕)
- d. 장진코지(경주)

먼저, (4a)의 ‘낙산내기’는 강원도 속초 앞바다에 있는 바위로 전부 요소인 ‘낙산’은 속초의 8경에 속하는 점인 조도와 해변인 외옹치 사이로 낙산의 봉우리가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4a)의 ‘낙산’과 동일하게 지명으로 파악되는 ‘속사’는 속초를 가리키는 말인데, 문헌을 통해서 ‘속사’와 ‘속초’와의 관련성을 추정해 볼 수 있었다. 《속초의 지명(1990)》에 ‘속사(束沙)는 속시(木賊), 속새(經草, 어옥새)를 이두(吏讀)로 속사(束沙)라 표기한다. 황무지, 원야(原野) 등에 나는 속새과(木賊科) 식물을 말하는데, 사근(沙斤)이나 원야(原野)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어 과거 속초에는 속새풀이 많았고, 이로 인해 ‘속사’라는 지명이 나온 것으로 파악이 된다. 즉, ‘속사’는 속초의 옛 지명이며, ‘속사내기’는 고성 앞바다에 있는 속초 방향의 바위를 가리킨다. (4b)의 ‘찬물내기’는 울진군에 있는 수중 바위, 즉 미역바위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때 전부 요소인 ‘찬물’은 ‘차가운 물’과 관련된다.⁷⁾ (4b)의 ‘-내기’는 ‘서울내

⁷⁾ 육상 지명에서 ‘찬물내기’는 폭넓게 확인이 되었는데, 모두 ‘찬물’은 ‘차가운 물이 나는 샘’ 또는 ‘그런 물이 있는 마을’을 가리키고 있었다.

가. 백안, 뱃설, 새각단, 찬물내기(경산)

다. 찬물내기[冷泉](김천)

마. 찬새밋골 마을, 찬물내기(함안)

사. 냉수동(冷水洞), 찬물내기(금오도)

나. 冷泉, 찬물내기, 酒巖(성주)

라. 냉천동, 찬물내기(충주)

바. 찬물내기들(거창)

아. 찬물내기(울진) 화전민이 살던 마을로 셋째 오르막길에 위치

기, 시골내기'와 같은 접사 '-내기'이다. '-내기'는 '명사+-내기'의 형태로 사용되었으며, 전부 요소에는 지명, 바람명 등이 나타났다. 이처럼 '-내기'가 붙어 바위를 가리키는 지명은 육상 지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김지숙 2025 참고).⁸⁾ (4c)의 '셋짬'은 북쪽에 위치한 바위로 '새서예'로 지칭하기도 하였다. '새'는 방위 북쪽을 가리키는 말이다. 또 '허릿짬, 허리짬'은 바다 한 중간에 위치한, '깨치발, 깨치발끝'은 대나무밭 끝에 위치한 있는 바위를, '아래구시기'는 마을 앞의 아래쪽에 위치한 바위를 말한다. (4d)는 '장진코지'는 경주에 있는 장진이라는 동네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3.4. 바람의 영향

어촌의 생활은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 이로 인해 바람의 방향, 세기, 모양, 성질 등이 지명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로 인해 특정 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이름이나 그 바람의 특징을 담은 지명이 자주 사용되었다. 이는 바다 생활의 안전과 직결되는 바람에 대한 어민들의 세심한 관찰을 보여준다.

- (5) a. 갈마성애, 된마성애(강릉)
- b. 셋바람내기, 마파람내기(고성)

(5a)의 전부 요소인 '갈마, 된마'는 모두 바람 명칭을 가리키는 말이다. 즉, 이들은 모두 남풍인 '갈바람, 마파람'과 관련된 것으로 '된마'는 동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갈마'는 서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말하며 전부 요소 '된마, 갈마'는 해당 바위가 자리잡고 있는 위치를 나타낸다.⁹⁾ 한편 (5b)의 '셋바람내기, 마파람내기'는 고성군 아야진항 앞바다에 있는 바위인데 바람 명칭인 '셋바람, 마파람'과 결부되어 나타났다. 흔히 동해안의 방위는 '새'는 동을, '하늬'는 서를, '마'는 남을, '뒤'는 북과 대응 관계를 이룬다는 점을 고려하면, (5b)의 '새'와 '마'는 각각 동쪽과 남쪽을 의미한다. 즉, 방위 명칭에 '-내기'가 결합되어 나타났는데, 여기서 전부 요소인 방위는 해당 바위의 위치를 가리키는 것이다.¹⁰⁾ 그런데 '셋바람내기, 마파람내기'는 강원도 지역의 바람 명칭에서도 확인이 되었다.¹¹⁾

3.5. 사회·문화적 요소

어촌 공동체의 역사, 설화, 신앙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요소들이 지명에 반영되기도 한다. 특정 사건이 일어난 장소나, 신을 모시는 장소 등은 특별한 이름으로 불린다.

관련 명칭과 설명은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였다.(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s://grandculture.net>, 거창군 <https://www.geochang.go.kr>, 구미시 <https://gumo.kr>)

⁸⁾ 함양문화원 <http://hamyang.kccf.or.kr>, 영월문화원 <http://ywculture.or.kr/bbs>을 참고하였다.

⁹⁾ 東南의 고유어는 '새마' <셋마 싯마(동남쪽바람: 牧島·統營) 東南風謂之緊麻即景明風也(→ 된마) 星湖僊說 西南의 고유어는 하늬마 西南의 고유어는 '하늬마' 갈마바람(서남쪽바람: 河東) 西南風謂之緩寒意(→ 느린하늬) / 或謂之緩麻即冷風也(→ 느린마) 星湖僊說 최창렬(1984) 참고.

¹⁰⁾ 자세한 내용은 박성중(1995:428-429)과 김지숙(2000:33-34)을 통해 참고하기 바란다.

예) 그 저 옛날부터 삼형제봉이었는데 거기서 바람이 나오는 것이 거 설악산내기라고 그 저 설악산 저 우리 야영 설악산 있지. 설악산 있지. 원산내기. 원산내이. 응 이거 여서 부르기는 설악산내기. 설악산바람. 바람이구나 그 래.(강원 강릉)

¹¹⁾ 박성중(1995:428-429)이 강원도 지역의 바람 명칭을 정리하면서 고성, 속초, 양양, 강릉, 삼척 지역의 바람의 명칭으로 '온산내기(서북풍), 원산내기(서북풍), 설악산내기(서북풍)'를 언급한 바 있고, 김지숙(2015:36, 2000:33-34)에서는 해당 바람 명칭이 '-매기'가 아니라 '-내기(내이)'이며, '금강산내기, 대관령내기, 원산내기, 설악산내기' 등의 어휘가 있음을 제시한 바 있다.

(6) a. 우리아범, 경술듬/경술애담/경술네, 배영감잠/배영감네잠, 남포네큰잠, 남포네적은잠, 유사잠(영덕)

b. 학신성애, 군단성애(속초)

(6a)의 ‘우리아범’은 미역바위, 즉 잠을 가리키는데 그 바위의 잠주가, 시아버지를 말한다. 즉, ‘우리아범’은 시아버지가 산 바위를 말하고, ‘경술듬’은 경술이네 집의 바위를, ‘배영감잠’은 배영감이 산 바위를 말한다. ‘남포네큰잠, 남포네적은잠’은 모두 남포네 바위인데 물 밖에서 보이는 큰 바위는 큰잠으로, 남포네 딸이 시집 갈 때 준 작은 바위는 ‘남포네적은잠’이라고 한다. 또 ‘유사잠’은 동네의 안전을 위해 제사(유사)를 지내는 사람에게 주는 바위를 말한다. (6b)의 ‘학신성애’는 속초시 속초항 앞바다에 있는 동명항 북북동 방향으로, 형제암에서 동쪽 방향에 위치한 바다 밑에 위치한 암초로, ‘학신’이라는 이름은 ‘김학신’이라는 사람이 처음 발견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였다. 또 ‘군단성애’는 속초시 청호동 일대는 한국전쟁 당시 국군 군단이 진주해 있었던 곳이며, ‘군단성애’라는 지명은 여기에서 유래되었다.

4. 결론

산업화와 도시화, 어업 방식의 변화로 인해 고유 지명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명에 담긴 어민들의 전통적인 삶의 방식과 가치가 잊히지 않도록 보존할 가치가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해양 지명 연구는 사라져가는 어촌의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발굴하고 기록하여 보존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어촌의 자연 지형 및 지물, 어종이나 어획 방식, 위치 및 방위, 바람 등의 환경과 관련된 명칭, 사회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지명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동해안 지역만의 독특한 언어 문화를 보여주고 있었다. 앞으로 아직 명명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통일되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고 기록화해서 어촌 지명 연구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정희·김지숙 외(2014), 『민족생활어 조사 어촌 생활어 질문지』, 국립국어원.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2009), 『한국어 대사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국립국어연구원(1999/2008),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국립지리원(1987), 『지명 유래집』, 건설부 국립지리원.
김지숙(2015), 「동해안 어촌 생활어에 나타난 바람 명칭 명명법 연구」, 『한민족어문학』 71, 한민족어문학회, pp.1-40.
_____(2020), 「언어 접촉으로 육지 해녀의 언어에 나타난 제주 방언 연구」, 『방언학』 32, 한국방언학회, pp.191-220.
_____(2025), 「해양 지명어 분석 연구-바위에 대한 후부 지명소를 중심으로」, 『한말연구』 제66권 18호, 한말연구학회, pp.1-22.
박성중 외(1995), 『강원 어촌지역 전설 민속지』, 강원도, 관동대학교 부설 강릉무형문화연구소.
임영태 외(2011), 「우리나라 해양지명 표준화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정보학회지』 19(6), 한국공간정보학회, pp.55-65.

임영태(2012), 「우리나라 지도와 해도의 해양지명에 관한 연구」, 『한국고지도연구』 4(2), 한국고지도 연구학회, pp.65-78.

최창렬(1984) 「우리말 계절풍 이름의 어원적 의미」, 『한글』 183, 한글학회, pp.121-140.

한글학회(1979), 『한국 지명 총람』 6 경북편 III, 평강정밀인쇄공업사.

_____(1991), 『한국 땅이름 큰사전』 (상, 중, 하), 한글학회.

<DB, CD, 웹 사이트>

민족생활어 조사 자료(국립국어원) DB.

지역어 조사 자료(국립국어원) DB.

한민족 언어 정보화 자료 CD. 등

**A Study on the Naming Practices of Indigenous Place Names in the
Vernacular of East Coast Fishing Villages**

KIM Jisuk (Kyungsung University)

The indigenous place names of coastal communities are progressively diminishing due to industrialization, urbanization, and evolving fishing practices. Consequently, there is a growing recognition of the need to preserve the traditional way of life and cultural values of fishermen embedded in these names. In this regard, the significance of research on these marine place names lies in documenting and preserving the unique language and culture of vanishing fishing villages. For this study, the names were categorized based on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natural landforms, fish species, fishing methods, location, direction, and wind, as well as on sociocultural elements. The analysis of this data revealed a distinctive linguistic and cultural heritage specific to the East Coast region. Further research should focus on systematizing and documenting the currently inconsistent and ambiguous naming criteria, thereby establishing a solid foundation for future studies on fishing village toponymy

조선후기 전라도 도서(島嶼)지역 노비 '출계집단(出系集團)'의 형성과 계승

신상원(국립부경대학교 강사)

1. 서론

조선후기 노비는 법적으로 재산으로 취급되었기에, 역사 속에서 그들은 종종 개별적이거나 파편적인 존재로 그려지곤 했다. 노비 주인의 목적과 이익에 따라 가족은 각 지역으로 떨어져 살게 되기도 하고, 재산으로써 노비 주인의 자식들의 가계로 분재(分財)되어 흩어지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남 윤씨(海南尹氏)가의 노비안(奴婢案)은 노비들 또한 그들 나름대로의 출계집단(出系集團)을 구성하여, 가계를 계승 및 유지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기록들은 노비가 단순히 재산 성격의 개인 집합이 아니라, 뚜렷한 계보와 역사를 가진 독자적인 출계집단을 형성하고 세대를 이어온 공동체였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주인은 노비를 단순한 개별 노동력으로 파악하는 것을 넘어, 수 세대에 걸친 혈연 공동체, 즉 '출계집단' 단위로 인식하고 관리했다. 본 장에서는 해남 윤씨가 노비안에 나타난 노비들의 혈연 기록과 가계 계승 방식을 분석하여, 노비 '출계집단'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문서에 기록된 상세한 족보 정보를 통해 노비 출계집단이 부계와 모계를 통해, 또는 직역(職役)과 의무 등의 대잇기를 통한 복합적인 형태로 확인되고 계승되었음을 규명하고자 한다.

2. 노비안에 기록된 부계와 모계에 따른 노비 출계집단

해남 윤씨가 노비안이 증명하는 노비 가문의 가장 명확한 증거는, 문서 전반에 걸쳐 매우 상세하게 기록된 그들의 족보 정보다. 주인은 노비 개개인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모와 조부모, 심지어 증조부까지 이어지는 혈연 계보를 꼼꼼하게 기록했다. 특히 부계와 모계를 모두 추적하는 이중적 기록 방식은 주인의 치밀한 관리 체계와 함께 노비 출계집단의 실체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1) 부계(父系) 중심의 가계 기록과 그 관리적 함의

가장(家長)을 중심으로 호(戶)를 구성하는 기록에서는 양반 출계집단과 유사한 부계 중심의 계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는 노비 가구를 하나의 관리 단위로 설정하고, 가부장을 통해 가구 전체를 통제하며, 부계 계승을 통해 안정적으로 자산을 유지하려 했던 주인의 관리적 시각을 반영한다. 불매도 포리(豊邁島鮑里)의 사노 마남(私奴 馬男) 가계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여러 시점의 노비안을 종합하면, 복립(卜立) → 복연(卜延) → 마남(馬男)으로 이어지는 3대의 직계 계보와 마남의 아들들인 마립(馬立)과 김일립(金日立)까지, 무려 4대에 걸친 부계 혈통이 명확히 확인된다. 이는 마남의 출계집단이 불매도 지역에 대대로 뿌리내린 세거(世居) 노비 출계집단이었음을 증명한다. 이러한 다세대 계보 기록은 불매도에만 한정되지 않았으며, 해남 윤씨가 관리하던 여러 지역의 노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 남당포리(南塘浦里)의 사례: 사노 김선이(金善伊)는 '아버지 김일명(父金日命), 할아버지 부지(祖父之), 증조할아버지 무지(曾祖無知)'까지 4대에 걸친 직계 조상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다.

• 청■도(靑■島)의 사례: 노 돌선(奴豊善) 역시 '아버지 원보(父元案), 할아버지 현복(祖賢福), 증조할아버지 언립(曾祖彦立)'으로 이어지는 3대의 계보를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상세한 부계 족보 기록은 주인이 노비의 도망을 방지하고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가부장적 질서를 통해 노비 가구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려는 관리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2) 모계(母系) 세습 기록의 중요성: '소생(所生)'의 원칙

부계 기록이 가구 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었다면, 노비 신분의 세습을 법적으로 증명하고 소유권을 확보하는 데 있어 가장 결정적인 정보는 바로 모계(母系) 혈통이었다. '일천즉천(一賤則賤)'과 '종모법(從母法)'의 원칙이 적용되던 조선 사회에서, 자식의 신분은 어머니의 신분을 따랐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서에는 婢 〇〇〇 所生(여종 〇〇〇의 자식)이라는 표현이 압도적으로 많이 등장한다.

- 다산(多産) 모계를 통한 인구 파악: 팔마(八馬) 지역의 여종 구월(婢九月)은 한 명의 어머니 아래 무려 6명의 자식(만녀, 애정, 애금, 개봉, 차봉, 삼봉)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구월이 출계집단의 노비 인구를 늘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생산 단위'의 중심이었으며, 주인이 모계를 통해 노동력의 증식을 철저히 파악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 모계를 통한 세대 계승의 증거: 진도(珍島) 지역의 기록은 모계 계승의 실체를 더욱 명확히 보여준다. 여종 득옥(婢得玉)의 자식으로 첫째 딸 득례(得禮)가 기록되어 있고, 바로 그 득례의 자식으로 양금(良金)이 다시 기록된다. 이는 득옥 → 득례 → 양금으로 이어지는 3대에 걸친 모계 혈통을 증명하는 사례다. 주인은 어머니의 신분을 추적함으로써 자손들의 신분과 소유권을 완벽하게 확보할 수 있었다. 이처럼 소생(所生)으로 대표되는 모계 기록은 노비 신분이 세습되는 법적 경로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장치였다.

(3) 부계와 모계 기록의 교차: 복합적 신분 확인 체계

해남 윤씨 가문은 부계와 모계 중 어느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이들은 두 계보를 모두 추적하는 이중적이고 복합적인 신분 확인 체계를 운용했다. 문서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보가 함께 기록되거나, 아버지의 족보와 어머니의 출신 정보가 병기되는 사례가 다수 나타난다. 예를 들어, 백련동의 노 신금(奴申金)은 여자 종 막덕의 소생(婢莫德所生)이라고 기록되어 모계 혈통을 밝히는 동시에, 그 어머니 막덕이 친히 얻은 여종의 자식(親得婢子)이라고 명시하여 막덕의 계보까지 추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해남 윤씨 가문에게 노비의 혈연 기록은 두 가지 핵심적인 목적을 동시에 수행했다. 모계 기록은 종모법의 원칙에 따라 새로 태어난 노비의 신분을 법적으로 확증하고 소유권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였다. 동시에 부계 기록은 노비 가구를 가부장 중심의 안정된 단위로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통제하기 위한 실용적인 장치였다. 이처럼 치밀한 이중 계보 관리 체계는 노비의 신분을 세습시키고 그들을 '출계집단' 단위의 영속적인 자산으로 묶어두려는 지배층의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다.

3. 노비안에 기록된 노비의 사회적·경제적 출계집단

(1) '대잇기'를 통한 가문의 계승

노비 출계집단은 단순한 혈연 집단을 넘어, 명확한 계승 원리를 통해 대를 이어가는 사회적·경제적 단위였다. 주인은 노비 출계집단의 영속성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자 했으며, 노비는 '대잇기'를 통해 가족의 생존과 사회적 역할을 이어갔다. 해남 윤씨 고문서의 여러 기록들은 아들이나 딸이 부모의 자리를 잇는 '출계집단의 계승'이 명시적·암묵적 방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2) 공식적 계승: '대자(代子)' 기록

가장 명시적인 계승의 증거는 대자(代子) 기록이다. 이는 출계집단의 수장(家長)이 사망했을 때, 아들이 그 법적·사회적 지위를 공식적으로 물려받았음을 선언하는 장치다. “사노 복립은 정사년에 사망하여 아들인 사노 봉돌시가 대를 이음…(戶私奴卜立 丁巳故 代子私奴奉堧屎…)” 불매도(豊邁島) 노비안에 기록된 이 사례는 노비 출계집단 계승의 핵심을 보여준다. '대자'라는 표현은 아버지 복립(卜立)이 사망한 후, 아들 봉돌시(奉堧屎)가 단순히 생물학적 대를 잇는 것을 넘어, 호적상의 가장으로서의 지위와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의무(노동, 공물 납부 등)를 공식적으로 승계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승계는 노비 주인과 노비의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노비 주인의 관점에서는, '대자'는 관리하던 노비 가호(戶)라는 자산 단위가 가장의 사망으로 소멸되지 않고, 아들을 통해 연속적으로 유지됨을 확인하는 절차였다. 이는 안정적인 자산 관리의 핵심 원리였다. 그러나 노비에게 있어, 이는 주인에 대한 의무를 물려받는 것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아들 봉돌시에게 가족 구성원에 대한 책임과 자신이 속한 출계집단을 다른 신분의 그것처럼 성공적으로 유지했다는 것에 더 중요성이 있었다. 이처럼 '대자' 기록은 노비 출계집단이 한 세대의 소멸로 단절되지 않고, 아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사회적으로 공인된 단위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준다.

(3) 실질적 계승: 직역과 역할의 대물림

명시적인 '대자' 기록 외에도, 노비안 곳곳에서 출계집단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계승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정황들이 풍부하게 발견된다. 이는 특정 직역이나 거주지가 세습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크게 전문 직역과 관리 직역의 세습으로 나타난다.

1) 전문 직역의 세습

주인에게 특히 유용한 기술을 가진 노비의 경우, 그 기술과 역할이 자녀에게 세습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함흥(咸興) 지역의 포수(炮手) 출계집단이 대표적으로 나타난다. 포수 노비 정이(丁伊)는 나이가 많아 부역에서 면제(老除)되었는데, 그의 아들 금손(今孫)이 같은 지역에서 포수로 활동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는 사냥 기술이라는 전문적인 직역이 부자(父子) 간에 성공적으로 계승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노비안에서 나이든 노비들을 기록한 장노(壯奴) 명단에는 장인(匠人)인 노비들이 등록되어 있다. 공노(工奴) 승열(勝悅)과 승인(勝仁) 형제가 있는데, 이 두 형제는 수공업 기술을 보유한 장인 직역의 출계집단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전문 기술은 외부에서 조달하기보다 출계집단 내에서 도제식으로 전수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었을 것이다.

2) 관리 직역의 세습

일반 노동을 넘어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역할 역시 특정 출계집단에 맡겨져 세습되었다. 이는 주인과 노비 출계집단 간에 형성된 신뢰 관계를 보여준다. 해남 윤씨가 노비안은 재지사

죽의 노비 명단이었으므로, 대체로 문중 재산관리에 집중된 형태가 보여진다. 묘지기(墓直)와 산지기(山直)가 대표적이다. 파주(坡州) 노비 차경(次敬)은 산내 묘직(山內墓直), 즉 산속의 묘지기 역할을 맡았다. 중요한 점은 그녀가 여섯 자녀 중 넷째 딸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아들이 없을 경우 딸이 출계집단의 직역을 잇는 유연한 계승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여겨진다. 전거론(全巨論)의 안립(安立) 역시 공금동 묘직(孔金洞墓直)으로 기록되어 있어, 묘지기 역할이 특정 가계에 부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산지기는 문소동 산직(聞簫洞山直)이라는 직책을 맡은 노 용금(龍金)이 비 순화 소생(婢順化壯所生)이 있다. 순화 소생으로 기록된 점은, 문소동 산지기라는 역할이 순화의 가계와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3) 공간과 의무의 계승: 양역(仰役)과 거주지의 대물림

출계집단의 계승은 직역뿐 아니라 특정 공간에 대한 의무와 거주권의 대물림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했다. 특히 양역(仰役)의 대물림이 눈에 띈다. 진도(珍島)의 비 인금(婢仁今)과 그녀의 딸 ■상은 모두 이 생원 댁 양역(李生員主宅仰役)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어머니가 수행하던 특정 장소(이 생원 댁)에서의 노동 의무가 딸에게 그대로 세습되었음을 보여준다. 노비안 기록을 통한 출계집단의 지속성을 확인할 수 있다. 여러 연도의 노비안을 비교하면 출계집단의 지속성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볼매도 노비안에서 무오년(戊午年)에 63세였던 가장 마남(馬男)은 18년 후인 계유년(癸酉年) 노비안에 이르면 ‘그 이름이 없다(之名無)’고 기록되어 사망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인 김일립(金日立)과 그 자손들은 이후의 임오년(壬午年), 을유년(乙酉年) 노비안에 계속해서 가장으로 등장하며 출계집단을 유지한다. 이는 마남 개인은 사라졌지만, 그의 출계집단은 아들을 통해 공식적으로 계승되고 주인에게 지속적으로 관리되었음을 의미한다.

4. 결론

해남 윤씨가 노비안에 등장하는 사례들은 노비 출계집단의 '대잇기'가 단순히 혈통을 잇는 생물학적 차원을 넘어, 출계집단의 사회적 역할, 경제적 의무, 심지어 거주 공간까지 포괄하여 대물림되는 총체적인 과정이었음을 증명한다. 노비 출계집단은 이 계승의 원리를 통해 세대를 이어가는 사회적 단위로 존재할 수 있었다.

【 Abstract 】

The Formation and Succession of Nobi descent groups in the late Chosŏn dynasty

SHIN Sangw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In the Chosŏn period, nobi were legally regarded as property and, consequently, have often been depicted in history as isolated or fragmented beings. The archival records of the Yun lineage of Haenam, however, directly challenge this conventional view. These documents demonstrate with striking clarity that nobi were not merely a collection of individuals but constituted enduring communities that formed distinct "lineages" (kamun 家門), each with its own genealogy and history transmitted across generations. Masters did not perceive or manage nobi simply as discrete units of labour, but as hereditary kinship groups, organised and supervised on the scale of a lineage. This chapter analyses the genealogical records and modes of succession preserved in these documents in order to trace how nobi lineages were formed and maintained. The detailed genealogical information further reveals that nobi lineages were transmitted in complex forms, encompassing both patrilineal and matrilineal lines. In doing so, the chapter aims to show that the formation of nobi lineages served, for the masters, as an efficient means of administering "heritable assets," while for the nobi themselves, these lineages constituted a vital foundation for preserving identity and sustaining survival in the midst of an oppressive social reality.

근대 한국의 어업구조와 수산업 변화

- 『한국수산지』를 중심으로 -

서경순(국립부경대학교 강사)

1. 글 들어가며

『한국수산지』는 전체 4권으로 구성되었으며 1908년 편찬 착수하여 1911년 편찬 완료하였다. 편찬담당자는 전체 23명이며, 한국인 엄태영(嚴台永)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일본인이며, 이들은 한국 주재 일본정부의 공무원들이었다.

『한국수산지』의 범례와 참고문헌을 확인하면 일본해군에서 간행한 『조선수로지(朝鮮水路誌)』, 통감부 소속의 수산기사(기수)들이 조사 보고한 「한국수산조사보고서」, 그리고 조선해수산조합 소속의 수산기사(기수)들의 (한국의)연해수산사업조사복명서와 연안 순회기록 등 일본 정부가 축적한 여러 자료와 한국의 고문서와 각 군(郡)에서 입수한 어촌포 어업(漁村浦漁業) 등을 비롯한 한국 측의 자료를 융합하여 편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일본정부가 한국 해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1883년 조일통상장정(朝日通商章程) 체결을 들 수 있다. 이 장정의 제41관에 한일 양국의 일부 연안을 공동조업구역으로 정해 한국 어부와 일본 어부가 해역 경계선을 넘어 장정에 명시된 구역에서 상호 통어를 합법화했기 때문이다.¹⁾

당시 한국 어부는 연안 도처에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먼 외양으로 나갈 필요가 없었던 반면에 일본어부들은 남획 등의 이유로 연안 곳곳이 수산자원의 고갈상태에 놓여져 외양 진출이 필요하였다. 일본 정부는 수산물의 보고인 한국 해에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조일통상장정을 구실로 삼아서 자국 어부의 한국해 통어를 적극 장려하는 한편 수산전문가들을 한국에 파견시켜 본격적인 한국 수산업의 실태조사에 나섰다.²⁾

근대 한국의 수산업은 외세의 침탈과 공존해 있다. 당시 한국의 주요 수산물 및 수산물 거래 그리고 한국 어업구조에 대한 변화를 『한국수산지』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주요 수산물

『한국수산지』의 제1권을 통하여 근대 한국에서 유용되는 수산물 가운데 주요수산물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제2권~제4권을 통하여 각 도(道)에서 산출되는 수산물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각권의 말미에 부록으로 첨부한 어사일람표를 통하여 전국의 수산 전반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¹⁾ 이영학, 『수산업-어업(1) 개항기 일제의 어업 침탈』, 동북아역사재단 일제침탈사 자료총서 38, 2022, 20쪽, 25~27쪽.; 장수호, 『조선시대말 일본의 어업 침탈사』, 블루&노트, 2011, 72~73쪽.

²⁾ 『조선통어사정(朝鮮通漁事情)』은 일본 정부가 한국의 수산 상황을 최초 공식적으로 조사하고 1893년 편찬한 간행물이다. 농상공부 수산국장 세키자와 아케키요(關澤明清)를 비롯한 일행에 의해 실시된 이후 농상공부 수산전문가가 연이어 파견되어 여러 한국수산조사서가 간행되었으며, 이 간행물은 한국 해로 출어하는 일본어부들의 정보지 역할을 하였다.

<표 88> 한국산 수산물(1908년 현재)

분류	한국산 수산물	
	유용 수산물	주요 수산물
해수류	고래, 돌고래, 쇠물돼지, 바다표범, 물개, 수달	고래
어류	명태, 대구, 조기, 정어리(멸치), 청어, 방어, 전갱이, 삼치, 고등어, 청새치, 다랑어, 가다랑어, 상어, 가오리, 병어, 도미, 농어, 민어, 성대, 준치, 달강어, 불바리, 가자미, 넙치, 서대, 다금바리, 매통이, 꼬치고기, 갈치, 도로묵, 전어, 사백어, 학꽂치, 복어, 놀래기, 쥐치, 쭉지미, 아귀, 불락, 감성돔, 자리돔, 빙어, 까나리, 뱀어, 봉장어, 갯장어, 칠성뱀장어, 보리멸, 망둥이, 연어, 송어, 황어, 숭어, 은어, 곤들매기, 잉어, 붕어, 뱀장어, 피라미, 미꾸라지	명태, 조기, 도미, 정어리(멸치), 삼치, 대구, 청어, 민어, 방어, 고등어, 갈치, 상어, 가오리, 농어, 불바리, 준치, 숭어, 병어, 갯장어, 봉장어, 달강어, 학꽂치, 연어, 은어, 뱀장어, 뱀어, 망둥어.
패류	전복, 참고둥, 떡조개, 소라고둥, 홍합, 가리비, 대합, 재첩, 동죽(물통조개), 바지락, 꼬막, 키조개, 왕우럭조개(부산:부채조개), 굴, 긴맛, 맛조개, 새조개, 말조개	전복, 해삼, 굴, 홍합
해조류	다시마, 감태, 대황, 미역, 톳, 풀가사리, 김, 우뚝가사리, 파래	다시마, 미역, 풀가사리, 김, 우뚝가사리.
기타	해삼, 멧게, 성게, 새우, 가시왕게, 장다리게, 꽃게, 문어(낙지), 오징어, 해파리	새우, 문어(낙지), 오징어

※출처: 『한국수산지』 제1권

<표 1>에서 보여주듯이 당시 한국의 유용 수산물 중에 주요 수산물로 분류된 것은 경제적 가치가 높았던 것임을 알 수 있다.³⁾ 이중에 최고봉은 고래였지만 고래잡이는 규모가 큰 동력 선박, 노르웨이산 포경기 등의 신식 어구를 비롯하여 잘 숙련된 어부 등을 갖춘 대규모 어업으로 이루어져 당시에는 일본 어부들의 독점어업이었다.

한국 동해안의 연안지역에는 동양어업주식회사·나가사키포경합자회사·일한포경합자회사의 고래해체장이 있어서 일본 어부들은 고래를 포획하면 각 거래회사의 해체장으로 운반하였다. 고래는 해체장에서 기름·수염·힘줄·뼈 등 부위별로 작업한 후 소금에 절여 전량 일본으로 반출하였다.⁴⁾

『한국수산지』의 기록에 의하면 1906년~1908년에 걸쳐서 긴수염고래 244마리, 흰긴수염고래 10마리, 혹등고래 11마리, 귀신고래 221마리, 북방긴수염고래 2마리 등 총 488마리가 해체작업장을 통해서 일본으로 운송되었다. 당시 고래 1마리당 가격은 연도별 그리고 계절별 편차가 매우 심했지만 평균적으로 혹등고래가 5천원, 긴수염고래가 2천~3천원, 귀신고래가 천원 내외였으며, 연중 평균 어획고는 40~50만원이었다.⁵⁾

명태는 한국어부들의 독점어업이었지만 일본 어부들이 한국의 명태 수요를 보고 경제 가치가 높은 명태어업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전복, 해삼, 굴, 홍합은 중국의 고급 식재료로 수출되어 가치가 높았으므로 일본 어업자는

3) 농상공부 수산물국 저, 이근우·서경순 역, 『한국수산지』 I-1, 239쪽.; 이영학, 『수산업-어업(2) 식민지 시기 일제의 어업 재편』, 동북아역사재단 일제침탈사 자료총서 39, 2023, 134~136쪽.

4) 서경순 외 6인 공동, 『울릉도독도의 인문과 자연』, 지성인, 2024, 208~209쪽.

5) 앞의 책(『한국수산지』 I 1), 239~240쪽.

잡수기를 동원하여 싹쓸이한 후 일본으로 대거 반출하였다.

주요수산물 40종에 대한 1년 평균 어획고는 <표 2>과 같다.⁶⁾

<표 89> 주요 수산물 1년 평균 어획고 추이(1908년 현재)

구분	어획고(원)	구분	어획고(원)	구분	어획고(원)	구분	어획고(원)
명태	857,700	조기	674,400	도미	481,500	정어리	830,000
삼치	293,000	대구	212,000	청어	250,000	민어	41,200
방어	101,000	고등어	112,000	갈치	154,000	상어	98,600
가오리	128,000	농어	97,000	붉바리	56,700	준치	21,600
숭어	44,400	병어	43,000	갯장어	46,500	붕장어	35,000
달강어	55,000	학꽂치	29,000	연어	100,000 ⁷⁾	뱀장어	33,000
뱅어	5,000	망둥어	5,000	새우	775,200	전복	105,000
굴	87,000 ⁸⁾	문어	21,000	오징어	25,000	홍합	32,000
김	166,000	풀가사리	80,000	우뭇가사리	60,000	다시마	40,000
미역	62,000	해삼	276,000	은어 ⁹⁾		고래	40~50만

※출처: 『한국수산지』 I-1,

<표 2>에서 어획고가 가장 높은 수산물은 명태이며 정어리·새우·조기·도미 순으로 이어진다. 명태·조기·멸치¹⁰⁾는 한국 3대 물고기로 불렸으며, 한국어부들의 중요 어업이었다. 일본 어부들의 주요 어업은 고래 외에 도미, 삼치, 상어 등이다.

수산물의 1년 어획고는 약 11,547,000원이며, 어류가 약 7,139,000원, 해조류가 약 408,000원, 식염이 약 4,000,000원이다.¹¹⁾

3. 수산물의 거래 내역

한국수산지의 제2권~4권에서 「외국무역통계표」와 「연안무역통계」를 확인하면 각 개항지의 수산물 거래내역을 알 수 있다..¹²⁾

원산항의 경우는 원산상공회의소 보고서에 의거한 것인데 국내외 총 거래금액이 588,987원이며 이중에 명태가 317,060원으로 가장 높는데 전량 국내로 유통되었다.¹³⁾

부산항의 수산물거래금액은 국내외 합하여 451,008원이며, 생어(生魚)가 183,200원(국외 158,768원, 국내 24,432원)으로 가장 높으며, 대부분 국외로 수출되었다.¹⁴⁾ 부산항이 전국에서 생어 국외 수출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부산과 일본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점도 해

6) 앞의 책(I-1), 230~312쪽

7) 『한국수산지』 원문에는 100,000~150,000원으로 기록되었는데 칸 여백 상 100,000으로 표기했다.

8) 『한국수산지』 원문에는 87,000~88,000원으로 기록되었는데 칸 여백 상 87,000으로 표기했다.

9) 은어는 1년 어획고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음.

10) 멸치는 <표 2>에 기록된 정어리에 포함되어있다. 일본에서는 멸치·눈통멸·정어리 등을 이와시(イワシ, 鰵・鰯)라고 통칭하였다.

11) 이영학, 『수산업-어업(2) 식민지 시기 일제의 어업 재편』, 동북아역사재단 일제침탈사 자료총서 39, 2023, 134~136쪽.; 앞의 책(I-1), 229쪽.

12) 주요항의 수산물거래내역은 『한국수산지』 제2권~제4권의 「외국무역통계표」와 「연안무역통계표」에서 발췌하였다.

13) 앞의 책(II-1), 284~285쪽.

14) 농상공부 수산국 저, 이근우·서경순 역, 위의 책, II-2, 134~138쪽(1908년도 수산물 거래내역이다.).

당되겠지만 이보다는 당시 부산에 설치된 부산수산물주식회사의 포어수송 운영시스템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¹⁵⁾

마산항은 국내외 11,312원이며, 국외 수출이 압도적이며, 어비(魚肥) 4,598원, 건어(乾魚) 3,427원이다. 통영항은 국내외 85,279원이며, 해조류가 43,791원으로 총 거래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모두 국내로 유통되었다. 목포항은 국내외 56,178원이며, 어비가 27,155원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모두 국외로 수출하였다.¹⁶⁾ 군산항은 국내외 3,336원이며, 국내 유통이 3,088원이며 이중 생건염어가 2,573원으로 가장 높다.¹⁷⁾ 인천항은 21,504원으로 전량 국외로 수출하였으며, 건해삼이 11,797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¹⁸⁾ 진남포는 1,670원으로, 전량 국외 수출용이며, 개항지 중에 수산물 거래 실적이 가장 저조하다.¹⁹⁾ 당시 국내외 수산물 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곳은 원산항이며, 국내 거래가 압도적이다. 국내거래가 가장 높은 곳은 부산항이다.

4. 지역별 어업 구조와 유통 경제

『한국수산지』 제2권~제4권에 부록으로 첨부한 「어사일람표(漁事一覽表)」는 본문의 방대한 내용을 표로 압축시켜 전국의 수산 전반을 쉽게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어사일람표」 1'은 각 지역별 총 호구와 어호, 어선 수, 어망 종류, 어살·방렴·정치망 등을 조사하여 지역의 어업 구조를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함경북도

郡面	里洞	총호구		어업자호구		선수	어망종별·및수		어장어전·소재지·및수	
		호수	인구	호수	인구		종별	수	소재지	수
慶興府		370	2106	118	602	43		12		20
西面	西水羅	45	197	33	114	8	洪魚網	7		
							魴魚網	1		
海面	雄基浦	123	656	13	69	4	免致羅	2		
							羅網			

그림 22 「어사일람표(漁事一覽表)」 1에서 발췌(한국수산지 Ⅱ-2권)

「어사일람표」 2'는 각 지역에서 산출되는 수산물의 종류와 연간 어획고 그리고 판매처, 지역 장날 등 지역 수산유통내역을 파악하기 쉽다. 재미있는 점은 물고기를 한국 명칭을 사용하여 같은 물고기인데도 지역마다 다른 한자로 기록되어 있는 점이다. 송어를 수어(秀魚)·수어(水魚)·수어(隨魚)·송어(崇魚) 등 여러 한자를 사용하였는데 수어(秀魚)가 가장 많다. 그리고.

¹⁵⁾ 1889년 창립한 부산수산물주식회사는 일본출어자들의 어획물을 전담하여 유통 관리한 수산회사이며, 나로도·삼천포·여수·남해·육지도·사량도·구성라·장승포·순천만·울산·영일만 등지에 활주(活洲)를 설치하여 일본어부들이 어획한 활어를 모아서 부산으로 수송하여 일본으로 다시 반출하였다. 1907년 5월에 부산수산물주식회사에 흡수되었으며, 부산수산물주식회사는 광복 전까지 한국 내에서 최대 규모의 어시장을 유지하였다.

¹⁶⁾ 농상공부 수산국 저, 이근우·서경순 역, 『한국수산지』 Ⅲ-1, 191~194쪽(1908년 수산물 거래내역이다).

¹⁷⁾ 농상공부 수산국 저, 이근우·서경순 역, 『한국수산지』 Ⅲ-2, 63~65쪽(1908년 수산물 거래내역이다).

¹⁸⁾ 농상공부 수산국 저, 이근우·서경순 역, 『한국수산지』 IV-1, 2024, 143~145쪽(인천항 거래내역은 1907년 인천항 무역 내용이다).

¹⁹⁾ 상공부 수산국 저, 이근우·서경순 역, 『한국수산지』 IV-2, 2024, 49~52쪽(진남포 거래내역은 1909년 조사한 내용이다).

기록된 명칭 중에서 현재 어떤 수산 생물인지 알 수 없는 것도 다소 있다.

함경북도

郡面	里洞	사계어채물명	1개년어채 개산액	판매지	군읍에 이르는 거리	부근시장에 이르는거리	부근시장 의개설일
慶基郡			2,600圓				
西面	西水羅	가오리[洪魚][과주], 명태어	1,000	당어촌	100里		
海面	旌蓋浦	질어,명태어,대구어,누어[과주]		동	70		
新海		질어,명태어,해삼	900	동	110		
安和		질어,명태어	700	동	120		

그림 23 「어사일람표(漁事一覽表)」2에서 발췌(한국수산지 Ⅱ-2권)

어사일람표(漁事一覽表)」는 한국의 각 지역별 어업 형태와 구조 및 수산 유통 경제를 알 수 있으며, 또한 당시 한국으로 들어왔던 일본 어부가 한국의 어느 지역에 근거하였는지, 어떤 어채물에 관심을 두고 있었는지 이에 어떤 어구와 어법을 사용하고 있었는지 등을 개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어업구조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1883년 조일통상조약 체결되고 한국의 어장에는 일본어부들의 통어와 함께 한국의 주요수 산물의 분류와 아울러 수출이란 이름으로 한국산 수산물이 대거 일본으로 반출되는 한편, 일 본어부들이 한국의 주요어장 곳곳에서 근거지를 구축하면서 연안지역에는 일본식 어법, 어구 등이 전파되는 등 한국의 어업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

【 Abstract 】

**Changes in the Fisheries Structure and Fisheries of Modern Korea
- Focusing on 『Chronicle of Korea Fishies』 -**

SEO Kyungso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The Chronicle of Korea Fishies is composed of four volumes in total. It was compiled in 1908 and completed in 1911.

One Korean and 22 Japanese were in charge of editing, and the Japanese were Japanese government officials sent to Korea.

Japan's interest in Korean waters began with the signing of the Korea-Japan Trade Treaty (朝日通商章程) of 1883. In the waters recorded in the treaty, Korean and Japanese fishermen were able to catch fish with each other.

There was no need to go to faraway waters because Korea's coast was rich in fishery resources at the time. However, Japanese fishermen had to go out to faraway waters to catch fish when overfishing depleted coastal fishery resources.

Under the pretext of the Korea-Japan Trade Treaty (朝日通商章程) the Japanese government dispatched Japanese fishermen to Korean waters rich in seafood. It also dispatched fishing experts to conduct a full-scale survey on the Korean fisheries industry.

Modern Korea's fisheries industry coexisted with external forces' aggression. This resulted in significant changes in the types of seafood, the trade in seafood, and the structure of Korea's fishing industry.

국제교류항 나가사키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항만 재생

공미희(국립부경대학교)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나가사키항은 에도시대 데지마를 통한 제한적 대외교류에서 출발하여, 서양 문화·기술·종교의 유입 창구이자 국제교류의 거점으로 독자적 도시 정체성을 형성해왔다. 천주교 관련 건축물, 서양식 주택, 조선소, 항만 시설 등은 근대화와 국제교류를 상징하는 역사문화 자원으로 축적되었으며, 이는 오늘날 항만 재생 과정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근대 이후 나가사키항은 산업·군사 기능을 담당했으나, 전후에는 원폭 피해와 산업 구조 변화로 위기를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만 주변에는 국제교류와 기억의 흔적이 남아 있으며, 평화공원·기념관 등은 과거 경험을 현재의 시민·관광 체험으로 연결하는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항만 재생은 기반을 정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워터프런트 개발, 관광·문화·시민 공간의 융합 전략으로 전개되고 있다. ‘데지마 워프(Dejima Wharf)’¹⁾와 건축유산 보존 사례는 문화적 기억을 토대로 한 새로운 도시 브랜드 형성과 지역 참여를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는 (1) 나가사키항의 역사적 축적과 문화자원을 고찰하고, (2) 그것이 현대 항만 재생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분석하며, (3) 기억과 국제교류 자원의 도시적 활용이라는 시각을 적용하여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나가사키항 사례는 경제 중심 접근을 넘어 역사·문화 기반의 항만 재생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학문적·실천적 의의를 지닌다.

2. 나가사키항의 역사적 전개

나가사키항은 일본의 대외 교류와 근대화 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항만으로, 그 전개 과정은 에도시대의 제한적 국제교류에서 근대 개항기 무역·산업·군사 거점으로서의 전환, 그리고 전후 재편과 도시 재생에 이르기까지 다층적인 변화를 겪어왔다.

먼저, 에도시대에는 제한적 국제교류의 창구역할을 했다. 17세기 중엽 ‘쇄국(鎖国)’ 정책 아래 일본에서 유일하게 외국과의 접촉이 허용된 항구였던 나가사키는 데지마(出島)를 통한 네덜란드·중국 무역으로 설탕, 직물, 의약품, 과학기구 등 다양한 교역품을 유입시켜 일본의 물질문화와 소비생활을 변화시켰으며, 의학·천문학·화학은 난학(蘭学)으로 발전하여 지식계의 근대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네덜란드 상관장의 에도 참부(参府)와 같은 의례는 일본 지배층이 서양 문물을 직접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고, 나가사키는 철저한 통제 속에서도 국제성을 내재한 학문적·문화적 교류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근대 개항기에는 무역·산업·군사 거점으로서의 전환시기이다. 1859년(安政 6년) 요코하마, 하코다테와 함께 「安政 5개항」의 하나로 공식 개항한 이후 나가사키항은 제한적 교역항에서 근대적 국제무역항으로 전환되었고, 영국·프랑스·러시아·미국 상인의 진출로 무역 구조가 다변화되면서 특히 석탄 수출을 통해 증기선 시대 해운과 군사 전략에서 전략적 가치를 높였다. 오

¹⁾ 데지마 앞바다의 부두 공간을 현대적으로 재개발한 이름으로, 나가사키항 워터프런트 재생 프로젝트의 결과로 조성된 상업·문화 공간을 의미

우라(大浦) 지역에는 외국인 거류지가 조성되어 서양식 주택·교회·영사관·병원이 들어섰고, 구라바엔(グラバー園, Glover Garden)이나 오우라 성당(大浦天主堂, Oura Church)은 오늘날까지 근대 교류의 상징으로 남아 있으며, 이러한 거류지는 외교·무역·문화교류의 장으로 기능하며 서양식 건축, 교육, 의료 제도가 일본 사회에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1884년 설립된 미쓰비시 조선소가 드라이도크와 대형 선박 건조 시설을 갖추면서 일본 조선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했고, 사세보 해군기지와 결합하여 나가사키는 군항과 상업항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복합항으로 성장하였으나, 해안선 매립과 부두 확장, 군수 시설 설치로 전통적 수변 경관이 크게 변형되며 ‘근대화가 남긴 유산’이라는 과제를 남겼다.

전후 재편으로는 원폭 피해와 항만·도시의 재생에 힘쓴 시기였다. 1945년 원자폭탄 투하로 항만과 도시가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전후에는 복구 과정에서 항만이 물류 기능 이외에도 도시 전체 재생과 직결되었으며, 1950~60년대 남부 지역 중심의 공업용 부두와 물류 시설 조성, 매립과 도로망 확충을 통해 조선·기계산업 중심의 산업항으로 재편되었다. 동시에 오우라 외국인 거류지, 글로버 저택, 오우라 성당, 원폭 자료관과 평화공원 등은 역사적 의미를 지닌 관광·문화 자원으로 보존·활용되었고, 항만 주변 노동자 주거지 재편과 상업지역 확장이 이루어져 항만과 도시 간 상호작용이 강화되었다. 이처럼 나가사키항은 에도시대의 제한적 국제교류의 장에서 근대 개항 이후 산업·군사·문화의 복합항으로, 그리고 전후 산업항·관광항의 재생 공간으로 변모하며 역사와 기억, 국제교류 문화, 산업 발전이 중첩된 복합 도시 공간으로서의 특수성을 보여주고 있다.

3. 나가사키의 역사문화 자원

나가사키항은 일본 근대화 과정에서 국제교류와 산업 발전, 그리고 전후 평화 담론이 교차하며 형성된 다층적 역사문화 자원을 보유한 공간이다.

3.1. 국제교류와 종교문화 유산

구라바엔과 오우라 천주당은 나가사키항을 통한 국제교류와 서양 종교문화 전래의 상징적 공간이다. 구라바엔은 스코틀랜드 상인 토마스 글로버(1838-1911)의 저택, 정원, 부속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글로버가 일본 조선·무역 산업에 기여하며 일본 기술자·상인과 교류한 복합적 거점이었다. 언덕 위 저택과 계단식 정원, 부속 건물의 배치는 항만 조망과 서양식 정원 설계를 결합한 독창적 구조를 보여주며 내부는 산업·상업·문화 교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복합 공간으로 기능했다.

오우라 천주당은 1864년 프랑스 신부들에 의해 건립된 일본 최초의 가톨릭 성당으로, 은페 크리스천 신자들의 신앙 활동과 외국인 선교사의 거점이었다. 고딕 양식 벽돌 건축, 스테인드 글라스(Stained Glass), 종탑을 갖춘 독창적 구조는 일본 내 서양 종교문화 유입의 상징성을 보여준다. 항만을 통한 외국인 입국과 성당 중심 종교 활동은 항만과 도시 구조의 통합을 촉진했으며, 현대 재생 과정에서도 관광, 해설 프로그램, 체험 학습과 연계되어 핵심 자원으로 재편되었다.

3.2. 항만·산업 유산

나가사키항의 조선소, 창고, 부두 시설은 일본 근대 산업·무역의 핵심 기반이었다. 미쓰비시

나가사키 조선소는 1857년 네덜란드 기술자와 일본 장인의 협력으로 설립된 나가사키 제작소를 기원으로 하여, 1884년 미쓰비시 인수 후 근대 조선소로 발전하였다. 이곳은 서양식 선박 건조 기술을 도입해 일본 해군과 상선 건조를 지원하며 근대 산업 기반 형성에 기여하였다. 도크, 용접·조립 시설 등은 근대 서양식 산업시설의 특징을 보여주며 오늘날 산업유산 관광과 기술 교육의 기반이 되고 있다.

창고군 역시 국제 교역과 직결된 시설로, 수입·가공·재수출의 복합 물류 공간이었다. 데지마와 나가가와 강 하구에 위치한 창고들은 항만과 직접 연결되어 효율적 물류 활동을 가능케 했으며, 현대에는 전시 공간·문화시설로 재활용되고 있다. 또한, 19세기 말 이후 정비된 석조 부두와 접안 시설은 외국 선박 입출항과 여객 수송을 가능케 한 국제교류 기반으로, 일부는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보존되고 있으며 현대 재생에서는 관광 접안시설로 전환되었다. 즉, 나가사키의 산업 유산은 생산 시설뿐만 아니라, 근대화 역사와 국제교류의 물적 기반으로서 오늘날 교육·관광·문화의 자원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3.3. 원폭 이후 평화와 기억의 장소

1945년 8월 9일 원자폭탄 투하는 나가사키항과 도심에 파괴적 전환점을 남겼다. 이후 나가사키는 물리적 복구와 함께 원폭자료관과 평화공원을 조성하여, 피해 기억과 국제 평화 메시지를 동시에 담아내는 도시 전략을 추진했다. 원폭자료관은 폭발 당시 항만 피해와 주민 증언, 재건 과정을 전시하며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고, 평화공원은 기념비·평화의 종·조각물 등을 배치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역사와 기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항만과 연결된 산책로와 조망 데크는 항만과 역사적 기억의 공간적 통합을 실현하였다. 현대 항만 재생에서는 원폭자료관과 평화공원을 관광·교육·시민참여를 결합한 전략적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관광 코스 설계에 포함되어 항만 전체가 역사적·교육적 체험 공간으로 작동한다.

4. 항만 재생 전략과 도시공간의 재편

나가사키항의 재생은 역사문화 자원의 보존과 활용, 관광산업 발전, 그리고 시민 참여를 결합한 복합적인 도시 전략으로 전개되었다. 데지마 워프 프로젝트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조선소와 창고, 부두 등 기존의 산업시설을 보존하면서도 산책로, 광장, 상업시설을 갖춘 현대적 복합공간으로 재편되었다. 이 과정에서 역사적 구조물의 보존과 현대적 활용이 조화를 이루었으며, 전시와 공연, 카페와 같은 새로운 기능이 더해져 도심과 항만을 긴밀히 연결하는 도시 공간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항만 재생은 나가사키가 지닌 역사적 기억과 지역 정체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에도시대 교역 공간이었던 데지마는 복원 사업을 통해 학술·관광·교육의 장으로 전환되었고, 미쓰비시 조선소나 도크와 같은 근대 산업유산은 관광 루트와 교육 프로그램 속에 편입되며 세계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동시에 원폭자료관과 평화공원 등은 항만 공간과 연계되어 전후의 기억과 평화 담론을 전하는 장소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자원의 활용은 행정 주도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 가이드나 대학 협력 프로그램과 같은 주민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와 긴밀히 연결되었다.

관광산업과의 융합도 중요한 축이었다. 데지마 워프 개발은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 루트를 형성했고, 크루즈 산업과의 결합은 나가사키를 국제적 기항지로 발전시켰다. 또한 서양식 건축 투어나 통역사 복식 체험과 같은 프로그램이 도입되면서 체험형 관광이 확산

되었고, 지역 상점가와 특산품을 연계한 프로그램은 지역 경제와 관광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 아울러 이와 같은 항만 재생 과정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시 브랜드 형성에도 긴밀하게 연결되었다. 재개발 협의회를 통한 주민 의견 반영은 시민 친화적인 워터프론트를 조성하는 데 기여했으며, '나가사키 군치 마쓰리(長崎くんち祭り)'와 같은 지역 축제가 항만 공간과 연계되면서 항만은 지역 문화의 무대가 되었다. 그리고 평화공원과 연결된 시민단체 활동은 항만을 경제·교통 공간뿐만 아니라 평화의 메시지를 발신하는 공간으로 확장시켰으며, 시민 NPO와 협동조합이 환경 정화, 교육, 관광 활동을 주도함으로써 도시 브랜드를 강화하였다. 결국 나가사키항의 재생은 역사문화 자원의 전략적 활용, 관광과 산업의 융합, 시민 주도의 거버넌스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는 항만을 물류 거점에서 벗어나 기억과 문화, 평화와 교류가 중첩되는 지속가능한 도시 브랜드 모델로 전환시킨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5. 결론

나가사키항 재생은 워터프론트 개발과 크루즈 산업 성장으로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며, 국제 교류항의 역사성을 현대 도시 전략과 결합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크루즈 관광 의존은 감염병과 국제 정세에 취약하다는 한계를 드러냈고, 관광객 급증은 오버투어리즘과 생활환경 악화라는 부정적 효과를 낳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지마, 글로버 가든, 평화공원 등 역사문화 자원과 항만을 연계한 도시 브랜드 형성은 장기적인 재방문과 지속적인 애착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주민 참여형 축제와 지역 문화행사는 항만 재생을 공동체 정체성 강화와 결합시켰으며, 항만을 사회적·문화적 재생의 장으로 전환시켰다.

한편, 역사문화 자원의 활용은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긍정적 성과를 거두었으나, 과도한 상업화와 관광객 중심 개발로 이어질 위험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보존과 활용의 균형, 그리고 주민 참여의 제도화가 향후 핵심 과제로 남는다. 나가사키항 거버넌스 체계는 존재하지만, 여전히 중앙정부 주도의 개발 논리에 치우쳐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향후에는 지역 주민, 전문가,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협치 구조를 제도화하여 사회적 정당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결국 나가사키항 재생의 성과는 경제적 활성화, 관광산업 발전, 지역 정체성 회복이라는 긍정적 결과를 남겼으나, 동시에 외부 충격에 대한 취약성과 거버넌스의 한계라는 과제를 드러냈다. 앞으로는 주민 친화적·환경 친화적 재생 모델로 나아갈 때, 나가사키항은 국제교류항의 역사성과 현대 도시 발전을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항만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 Abstract 】

**Port Regeneration in Nagasaki: Utilizing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of an International Exchange Port**

KONG Mihee (Pukyong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revitalization of Nagasaki Port through its historical and cultural assets. Originating as a limited international trading post during the Edo period, Nagasaki developed a unique urban identity shaped by trade, Western technology, and religious influences. Waterfront redevelopment, including Glover Garden and Oura Church, integrates heritage preservation with tourism and community participation. Cruise tourism and cultural programs have enhanced economic vitality and urban branding, while over-tourism and external shocks reveal vulnerabilities. Resident-centered festivals and educational initiatives strengthen social cohesion and collective memory. Nagasaki Port offers a model of sustainable port revitalization that balances history, culture, tourism, and community engagement.

바다를 건너온 맥주, 해양도시가 빛은 맛: 부산의 맥주 문화 연구*

이민경 (국립부경대학교 강사)

1. 바다를 건너온 맥주: 한반도 유입과 부산의 정착

한반도에서 맥주의 역사는 1876년 강화도 조약을 기점으로 외국산 맥주가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시작되었다. 개항 직후에는 주로 외국인을 위한 소비품에 한정되었으나, 금세 무역품으로서 일정한 입지를 차지하게 되었다. 1883년 12월 20일자 한성순보에는 「해관세칙(海關稅則)」이 실려 있는데, 그중 “값의 100분의 10을 관세로 받는 것은 적·백 포도주와 맥주다.¹⁾”라는 기록이 보인다. 이는 이미 맥주가 일정한 수입 규모를 갖추어, 관세 부과 대상이 될 만큼 유통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맥주는 곧 외국인 접대나 공식 연회 자리에서 빠질 수 없는 술로 자리 잡았다. 各部請議書存案, 各部請議書存案 등을 살펴보면 외국인을 접대하는 연회나 외국인과의 교섭 자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맥주 또는 맥주잔을 구매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²⁾ 맥주는 대한제국 시기 이미 관청의 공식 연회와 외교 접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더 이상 외국인만의 술이 아니라 점차 조선 사회 전반으로 퍼져 나가는 길을 열고 있었다.

1901~1903년 황성신문에 에비스(Yebisu) 맥주의 판매를 알리는 龜屋商廬의 광고가 게재되었다. 이 광고는 국한문 혼용체로 작성되어, 일본인보다는 신문을 읽을 수 있는 조선의 지식인·상류층을 주요 독자로 상정한 것이었다. 문안에는 ‘御用’과 ‘開化’라는 표현이 강조되어 있었는데³⁾, 맥주를 단순한 서양 술이 아니라 근대적 문명과 교양의 상징으로 포장하며, 신분적 욕망과 근대적 정체성에 민감한 조선 지식인과 상류층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맥주 한 병의 가격은 쌀 두 되, 즉 한 사람이 4~5일을 먹을 수 있는 양식에 해당할 정도로 고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뽀루(Beer)’를 마시며 ‘모던뽀이(Modern Boy)’, ‘하이카라(High Collar)’의 대열에 속하려는 도시 소비층이 늘어나면서 맥주 소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2. 부산의 맥주 정착과 변용

1) 맥주의 부산 정착

부산은 일본과 가장 가까운 항구이자 일본인 전관거류지가 최초로 조성된 지역으로, 타 지역

*본고는 부산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의 「2025년 부산학 연구과제(시민총서 분야)」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결과를 학회 발표문 형식에 맞게 수정·보완한 것이며, 2026년 초 『부산 술과 부산 사람의 삶』(가제)으로 출간될 예정이다. 출간 예정 저서의 일부이므로, 인용·전재·복제 시에는 사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함.

1) “值百抽十赤白葡萄酒麥酒.” (출처: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www.nl.go.kr/newspaper)

2) 『各部請議書存案』08, 『各部請議書存案』19, 『各觀察道(去來)案』1.(한국근대사료데이터베이스)

3) 김영미, 「일제강점기 풍속통제와 음주문화의 재편 : 음주를 둘러싼 사회적 통념에 대한 고찰」, 『역사민속학』 제59호, 2020, pp.23-25.

보다 일찍 맥주가 유입되었으며 그 수요 또한 높았다. 1913년 9월, 일본 상인들은 하기노 야자에몬(萩野彌左衛門)을 중심으로 ‘부산맥주판매조합’을 결성하였고, 2년 후인 1915년에는 조합원 운동회를 개최하며 지역 언론을 통해 이를 홍보할 정도로 세력을 확장하였다.⁴⁾

이 무렵 부산에서 맥주는 주로 일본인 거류민 사회와 일부 조선인 부유층이나 지식인들이 드나드는 요릿집이나 온천 등 위락 공간에서 소비되었다. 부산사람 전체가 향유하는 대중적 음주문화라기보다 근대적 소비와 여가를 누릴 수 있었던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었지만, 동시에 도시 근대화가 만들어낸 새로운 생활양식을 상징하는 소비재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소비 경험은 맥주에 대한 세련된 이미지를 형성하는 한편, 이후 대중의 접근성을 높이고 맥주에 대한 심리적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2) 부산의 맥주 실험

한국전쟁 이후 부산은 피란수도이자 미군 주둔지로 기능하면서 서구 문화의 주요 유입 통로가 되었다. 미군을 비롯한 외국인의 급증은 위스키와 맥주 등 서양식 주류에 대한 수요를 확대시켰으나, 전쟁으로 인한 산업 기반의 파괴와 전후 복구의 지연은 이를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으로 작용하였다. 당시 미군 부대에서 유출된 일부 보급용 맥주가 암암리에 시중에 유통되었으나, 급증한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다. 또한 맥주는 생필품이 아닌 사치성 소비재로 분류되어 일본 등 외국산 제품의 수입 또한 용이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의 대선발효공업주식회사(대선주조의 전신)가 1953년 ‘다이야맥주’를 출시하였다. 이는 전통적인 맥주 양조 방식이 아닌 합성주 형태로, 제조 원가가 낮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었다. 비록 술맛은 일반 맥주와 큰 차이가 없었다고 전하나, 소비자 인식은 그렇지 않았다. 당시 다이야맥주는 ‘값싼 술’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자리 잡으며, 오비나 크라운맥주에 비해 사회적 위계가 낮은 대체재로 인식되었다. 이는 곧 브랜드 확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다이야맥주는 1968년을 끝으로 생산이 중단되었다. 표면적으로는 소비자 기반의 한계가 주요 원인으로 보이나, 내부적 요인 또한 작지 않았다. 1968년 대선발효는 경영난에 빠진 크라운맥주를 인수하였고, 이 시점과 다이야맥주 단종 시기가 정확히 일치한다. 이는 자본 재편 과정에서 브랜드 통합 혹은 전략적 정리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즉, 다이야맥주는 전후 부산 기업의 실험적 시도이자, 한정된 자본과 시장 구조 속에서 탄생한 부산 최초의 ‘토종 맥주’였으나, 전국구 브랜드로 성장하기에는 사회·경제적 한계가 분명하였다.

3. 해양도시 부산이 빛나는 맥주

1) 부산 크래프트 맥주의 형성

2014년 주세법 개정을 통해 소규모 양조장이 만든 맥주의 외부 유통이 허용되었고, 2016년에는 병입 판매가, 2018년에는 소매점 판매까지 가능해졌다. 이어 2020년에는 酒稅 체계가 생산량 기준의 종량세로 전환되면서, 소규모 브루어리의 경쟁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제도 개편은 국내 크래프트 맥주 시장의 확산에 큰 전환점이 되었고, 전국 각지에서 크래프트 맥주 전문점과 지역 기반의 소규모 양조장들이 빠르게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⁴⁾ 부산일보 1915-05-21 3면.

부산에서도 송정·광안리·해운대 등 해변 지역과 서면·남포동·대학가 일대 변화가를 중심으로 수제맥주 펍과 소규모 양조장이 속속 등장하였다. 이들 중 일부는 자체 양조 시설을 갖추고 직접 병입한 제품을 편의점·기념품점 등지에 공급하며, 부산만의 로컬 브랜드를 형성해 나갔다. 제품 패키지에는 자갈치·오륙도·금정산 등 부산의 지명이나 갈매기·바다와 같은 도시 상징이 활용되어, 시각적으로도 지역성을 강조하였다.

‘부산 프라이드 브루어리’는 부산 사투리를 내세운 ‘MA!’ 시리즈를, ‘갈매기 브루잉’은 선글라스를 쓴 갈매기를 형상화한 로고를 통해 해양도시의 이미지를 전달하였다. 또한 ‘(주)부산맥주’의 ‘부산라거’처럼 지명을 직접 차용한 브랜드도 등장하여 지역 정체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러한 로컬 브랜딩은 소비자에게 ‘부산다움’을 직관적으로 인식시키는 전략으로 기능하였다.

부산의 맥주는 맛의 다양성에서도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페일에일·IPA·위트에일 등 주요 스타일을 기반으로 하되, 시트러스 향의 페일에일은 해변의 청량감을, 묵직한 흑맥주는 항구도시가 지닌 중후함을 형상화하였다. 일부 제품은 지역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해 부산의 토착성을 한층 강화하였다. 이처럼 부산의 맥주는 단순한 음료를 넘어, 부산이라는 도시의 맛과 정체성을 체험하게 하는 매개체로 자리 잡고 있다.

2) 개성의 실험과 도시 정체성의 구현

크래프트 맥주의 본질은 ‘개성’에 있다. 부산의 브루어리들은 라거나 페일에일 등 보편적 맛에 머물지 않고, 독창적인 맛과 스타일을 실험해 왔다. 특히 ‘와일드 웨이브 브루잉’은 자연 효모와 미생물을 활용한 와일드 기법을 통해 복합적인 풍미를 구현하였으며, 사우어(Sour) 맥주 ‘레드 홀릭(Red Holic)’으로 국내외 평가 기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허거스’는 김해산 블루베리를 활용한 과일 맥주를 선보이며 지역 농산물과의 결합을 시도하였다.

또한 부산의 양조장들은 커피, 깻잎, 꿀, 토마토, 고구마 등 이색 재료를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그중 2019년 남포동 ‘쓰리몽키즈’가 (사)부산고등어식품전략사업단과 협업하여 개발한 ‘고등어 흑맥주’는 스타우트에 훈제 고등어를 넣은 독특한 시도로 주목받았다. 이러한 실험적 시도는 부산이 가진 개방성과 도전 정신, 그리고 해양도시로서의 문화적 수용성을 반영한다.

부산의 크래프트 맥주는 단순한 주류 산업의 한 영역이 아니라, 지역 정체성과 창의적 감수성을 구현하는 도시문화의 산물이다. 양조인의 상당수가 청년 세대이며, 지역 상권과의 협업, 공동체와의 상생을 중시한다는 점에서도 지역 문화의 확산과 재생의 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다. 즉, 부산의 크래프트 맥주는 ‘맛과 개성’, ‘지역성과 공동체성’을 동시에 담아내는 부산다운 문화적 실험이라 평가할 수 있다.

【 Abstract 】

**Beer From Across the Sea, the Flavor Crafted by a Maritime City:
A Historical Study on the Development of Beer Culture in Busan**

YI Minkyo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how beer, an imported alcoholic beverage, was introduced to the Korean Peninsula and gradually localized in Busan, a maritime city. Initially consumed as a symbol of Western civilization and modern sophistication, beer entered Busan earlier than other regions due to its geographic proximity to Japan and its status as a treaty port. In the postwar period, Daiya Beer—produced by Daesun Fermentation Co., Ltd. (Busan)—represented one of the earliest attempts to create a synthetic domestic beer, though it eventually disappeared amid social and economic constraints. Since the 2010s, legislative reforms have enabled the rise of craft beer, allowing Busan's small breweries to incorporate local identity and creativity into their products. Today, Busan's craft beer culture embodies the city's maritime openness, entrepreneurial spirit, and distinctive sense of locality, transforming beer from a foreign import into a symbolic expression of urban identity.

부산 해양 교육 확산을 위한 해양문화원형의 콘텐츠화

김창경(국립부경대학교 교수)

공봉진(국립부경대학교 강사)

1. 서론

한국의 주요 해항도시 중 하나인 부산은 해양과 산악이 공존하고 있다. 해양과 내륙으로 연결되는 부산은 해항도시로서 다양한 얼굴을 지니고 있다. 1407년 부산포를 개항하여 일본 등과 교류를 하였다. 하지만 조선 시대에는 쇄국정책으로 인해 해양 교류는 활발하지 못하였다. 다만 대마도와 일본과의 교류 정도 있었고, 일본의 왜관이 부산포에 설치되어 있었다. 1876년 강화도조약 이후 강제 개항을 한 부산은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런 과정에서 부산의 경계는 여러 차례 변하였고, 동래부에 속하던 부산은 동래를 품은 거대한 도시로 확장되기 시작하였다.

세계적으로 ‘해양소양’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에서도 해양과 관련된 교육과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부산도 ‘해항도시’의 면모를 확산시키기 위해 부산 시민을 위한 해양교육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부산에 전승되어 오는 신화전설과 민담과 같은 문화원형과 부산의 역사와 관련이 있는 문화원형은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문화원형을 드라마나 영화 및 애니메이션, 창극과 연극 등의 문화콘텐츠로 제작되어서 해양교육의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해양소양을 강조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본 고에서는 먼저 이미 문화콘텐츠로 제작된 부산의 해양 문화원형을 조사하고 정리하고, 이러한 내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양교육에 활용할 것인지를 탐구하는데 있다. 부산의 해양문화와 관련된 논문은 적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해양문화원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해양교육과 연결시킨 논문을 보이지 않는다. 본 연구를 위해, 부산역사문화대전(<https://busan.grandculture.net/Contents/Index?local=busan>)에서는 “삶의 터전(지리), 삶의 내력(역사), 삶의 자취(문화유산), 삶의 주체(성씨와 인물), 삶의 틀(정치·경제·사회), 삶의 내용1(종교), 삶의 내용2(문화와 교육), 삶의 방식(생활과 민속), 삶의 이야기(구비 전승·언어·문학)” 중 해양문화를 살펴본다. 부산역사와 국가유산(<https://busandabom.net/index.nm?menuCd=102>)에서 부산의 역사와 부산 각 지역의 해양문화와 관련된 전설과 설화 등을 살펴본다.

2. 부산의 역사 변천

현재의 부산 정체성은 대중가요와 영화 및 드라마에서 나타나는 이미지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자갈치 아지매>, <부산 밀면>, <부산 돼지국밥>, <부산 빵>, <부산 고갈비>, <부산 꿈장어>, <부산 갈매기>, <부산항구>, ‘해운대와 광안리’ 등은 부산의 이미지를 형성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그런데, 이러한 키워드 중에, 부산과 해양을 연결짓는 키워드는 적은 편이다.

부산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중에서 ‘피란수도’의 이미지는 매우 강하였고,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 시기를 지나면서 다양한 지역의 문화가 모이는 장소이기도 하였다. 한국의 경제발전 시기에는 주요 항구의 역할을 하였는데, 그 중심에 부산항이 있다. 부

산향은 이별과 슬픔, 만남과 기쁨의 장소이기도 하였다. 부산을 제재로 한 대중가요 중에서 “항구, 바다, 갈매기, 마도로스, 배와 연락선, 부산역(기적소리, 철도 등)”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부산의 해양문화원형을 알려면 부산의 경계 변화도 알아야 한다. 오늘날 부산광역시로 확대된 경계는 “1990년대, 1960년대, 일제강점기, 조선시대”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달라진다. 조선시대로 가면 ‘동래부 부산포’라는 명칭으로 불리다가, 현대로 오면서 동래부는 축소되면서 명칭은 부산부로 바뀌었고, 부산부가 부산시로 변경되었다. 1980년에 제정된 ‘부산 시민의 날’은 이순신 장군이 부산포에서 왜군의 대선단을 대파하여 승리를 거둔 ‘부산포해전’과 관련이 있다.¹⁾ 부산포는 조선 세종대왕 때 개항을 하였고, 1876년 강화도조약도 강제로 개항된 곳이다. 부산은 한국 역사를 중심에 서 있는 곳이기도 하다.

3. 부산의 주요 해양문화원형

부산의 문화원형 특징은 역사 서사, 민간에서 전해오는 전설과 설화, 전승되어 내려오는 문화 풍속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역사 서사는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거나 언론 매체에 알려진 것들로, 사건이나 인물 및 장소와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임진왜란 때의 부산포 해전, 부산에 설치되어 있던 왜관, 일본의 식민지배와 한국 전쟁과 관련이 있는 부산항, 안용복과 조엄 등의 인물이 있다. 민간에 전해오는 전설과 설화 및 민담은 부산구술문화 총서 등에 채록되어 있거나, 해당 지역에서 전해오고 있다. 예를 들면 해운대의 최치원과 황옥공주 이야기, 청사포의 푸른 뱀 이야기, 영도의 영도할매 전설 등이다. 문화풍속으로는 수영에서 전승되어 오는 어방놀이이다.

부산에서 전해오는 다양한 해양문화원형은 오늘날에 연극이나 뮤지컬, 영화나 애니메이션, 박물관이나 기념관 및 문화관 등의 콘텐츠로 제작되어 알려지고 있다. 특히 부산시나 해당 지역 지방자치 단체에서 책으로 출간하여 알리고 있기도 하고,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공연단체를 통해 연극이나 뮤지컬 등으로 소개되고 있다. 일제 시대에 부산항에서의 이별이나 만남, 한국전쟁 중이나 그 이후, 그리고 산업화 시대에 부산항과 항구 인접 지역에서의 도시를 소재로 한 대중음악이나 문학작품도 매우 많다. 문화원형은 문화정체성을 형성하는 근간으로 고대부터 현재까지 문화적 저류(undercurrent)로 지속하면서 특수한 역사적 조건, 생태적, 시대적 환경에 따라 다양한 양태의 문화를 생산해내는 문화 생성의 힘이다. 그리고 신화, 전설, 민담, 노래, 언어, 예술, 문학작품 등에 드러나거나 놀이, 의례, 말, 풍속 등에 나타나는 공통된 행동 유형이다. 설화는 사전적으로는 “어느 민족이나 집단에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이야기”라고 정의하고 있다. 신화는 “아득한 옛날, 특별히 신성한 장소, 시공간 자체가 신성성”을 갖는다. 반면 전설은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가 나오고, 민담은 뚜렷한 시간과 장소는 없다. 신화의 주인공은 신성한 자이고, 전설의 주인공은 구체적이거나 역사적 인물인 경우가 많고, 민담은 일상적 인간이 많다.

문화원형으로서의 부산 해양문화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역사 서사이다. 부산포, 왜관,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한국 산업화 등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여기에는 “동삼동 패총, 부산포 해전, 6.25전쟁, 영도대교, 자갈치 시장, 국제시장, 부산항 제1부두, 부산항 제2부두, 깡깡이마을” 등이 속한다. 인물로는 이순신 장군과

¹⁾ 부산시민의 날 https://busan.grandculture.net/Contents?local=busan&dataType=01&contents_id=GC04215954 (검색일 : 2025.9.27.)

조엄 등이 있다. 둘째, 전설과 설화 및 민담이다. 여기에는 “해운대 최치원 전설, 황옥공주 전설, 청사포 전설, 영도 할매 전설, 덕포 강신대 전설, 해운대 장산범, 기장 오시리아, 영도 절영마전설” 등이 속한다. 셋째, 해안 지역 어촌문화이다. 여기에는 “수영 어방놀이, 부산해녀, 동해별신굿, 자갈치” 등이 속한다. 넷째, 부산 경관 문화이다. 여기에는 “부산8경, 수영8경” 등이 속한다. 다섯째, 해외 교류이다. 여기에는 ‘부관연락선, 통신사’ 등이 있다.

이 중,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동삼동패총이다. 동삼동패총에서는 고래 외에도 돌고래·따개비·전복 등 다양한 해양생물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최근 과학적 분석 기법의 발달로 이들의 서식지와 시기를 정확히 규명할 수 있게 되면서 선사시대 인간과 자연환경 간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됐다.

다음은 ‘깡깡이마을’이다. 깡깡이마을은 조선소에서 배에 붙은 녹을 망치로 제거할 때 나는 ‘깡깡’ 소리 때문에 붙은 별칭이다. 망치를 들었던 일꾼 중엔 제주에서 온 해녀도 있었다.

다음은 조엄과 고구마이다. 조선시대 통신사 조엄이 대마도에서 들여온 고구마를 처음 심은 ‘고구마 시배지’ 또한 이곳 영도다.²⁾

다음은 해운대 최치원과 멧돼지 전설이다. 옛날 장산의 멧돼지가 홍수로 인해 봄내를 따라 동백섬으로 해엄을 쳐왔다. 멧돼지는 썰물로 바닷물이 빠져나간 사이 뺨에서 고둥과 낙지 등 해산물을 잡고 있던 최치원의 어머니를 납치해 지금의 해운대석각 인근 놀이청바위 밑에서 함께 지냈다. 열달이 지나 동지선달 어머니가 아들을 낳았으니 바로 최치원이다. 이후 대학자가 된 최치원은 흔적을 찾지 못하였다. 어떤 사람은 가야산에 들어가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고 한다.

부산시를 비롯하여 부산 지역 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산에서 전해 내려오거나 해당 지역에서 전해내려오는 해양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부산시에서는 부산 각 지역에서 전해내려오는 설화와 전설 및 민담을 조사하고 연구한 결과를 『부산구술문화총서』로 엮어 출간하였다. 이 내용은 부산지역사 도서관 홈페이지 “<https://www.busandabom.net/index.nm?menuCd=102>”에 공개되어 있다. 그밖에 ‘항도부산(<https://www.busandabom.net/index.nm?menuCd=100>)’ 등에 소개되어 있다. 또 부산 영도구는 ‘스토리텔링’을 도입해 2009년 8월부터 ‘보물섬 영도이야기 스토리텔링 100선’ 발굴을 시작했고, 2015년에 『보물섬 영도이야기 스토리 텔링 100선』을 출간하였다.³⁾

4. 콘텐츠를 통한 해양교육 확산

1983년에 출간된 영국의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과 테런스 레인저의 저서인 『만들어진 전통』에서 저자는 ‘전통’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매우 최근에야 시작된 것이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주장했다.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전통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의 상당수가 근대 역사의 격변 속에서 지배 권력이 ‘국민통합’의 이데올로기 장치로서 빚어낸 ‘근대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서유럽의 많은 정치적 상징물이나 의례들, 문화적 전통이나 관습들이 기껏해야 100~200년 전에 세상에 등장했다고 말한다.

²⁾ [로컬크리에이터] “이야기가 살아 숨 쉬는 영도, 기록을 요리하고 기억을 공간으로...” <https://v.dau.m.net/v/20250416050018031>(검색일 : 2025.9.28.)

³⁾ 보물섬 영도이야기 스토리 텔링 100선 <https://www.ydculture.com/data/?mod=document&uid=4920>(검색일 : 2025.9.28.)

교육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된다. 교재 제작을 통한 학습교육, 견학과 실습을 통한 참여 교육,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 등이 있다. 특히 콘텐츠 제작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 먼저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문화관’ 등을 설립하여 견학과 실습을 이끌 수 있고, ‘애니메이션, 영화, 드라마, 연극, 창극’ 등을 제작하여 시청각적인 감각을 통해 인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도서’ 출간 등을 통해 지식을 함양할 수 있다. 다양한 콘텐츠 제작은 국가차원에서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지원 하에 여러 기관에서 제작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재생 스탬프 투어’를 2025년 9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역의 역사·문화 자산과 연계한 사업성과가 우수하며 관광자원이 풍부한 10개 도시(부산 영도구·인천 중구·광주 남구·경기 수원시·강원 동해시·충남 공주시·전북 군산시·전남 목포시·순천시·경북 경주시), 40곳이다.⁴⁾

부산 영도구는 2025년 3월 15일부터 12월까지 절영마 영도 스토리 투어버스를 운영한다. 절영마 영도 스토리 투어버스는 25인승 버스에 투어 해설사가 탑승해 주요 테마별 관광코스 소개와 영도의 숨은 이야기를 해설해 주는 일일 관광투어다.⁵⁾

5. 결론

부산의 문화유산은 부산의 역사 변화과정에서 추가되어 왔다. 전통적인 부산의 모습은 조선시대 때 개항을 할 때와 조선 후기 일본에 의해 강제로 개항될 때 다르다. 또 임진왜란, 식민지, 한국전쟁, 산업화 등의 역사적 배경을 통해 부산만이 갖고 있는 특유의 문화가 형성되었다.

각 국가의 역사에 따라 ‘전통’이라는 것을 보는 시각은 지금의 시점에서 시간을 거슬러가면서 “만들기, 기억하기, 더하기, 제거하기, 재생하기” 등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다. 부산의 해양문화원형도 이에 근거하여 정리할 수 있고, 교육에 임할 때에도 잘못된 내용을 수정해가면서, 올바른 해양 문화유산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먼저 ‘만들기’이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부산포해전을 기념하여 ‘부산 시민의 날’을 제정하였다. ‘부산 시민의 날’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기억하기’이다. 지명이나 인물에 대한 기억이다. 해운대, 광안리, 청사포의 지명 유래를 학습을 통해 기억할 수 있게 해야 한다. 2017년 8월 17일 개장한 청사포 다릿돌전망대는 해남부선 폐선부지를 산책로로 조성한 그린레일웨이에 있다. 청사포 다릿돌전망대를 통해 청사포에서 전해지는 전설을 기억하게 한다.

‘더하기’이다. 부산으로 새롭게 편입된 지역의 해양문화에 대한 인식이다. 기장군 오시리아라는 지명은 ‘연오랑의 터전 오랑대’와 ‘용녀의 전설이 깃든 기장 동암항 남쪽 시랑대’의 머리음절을 합치고 지역을 뜻하는 접미어 ‘~리아’를 붙여 만들었다. 오시리아 지역은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에 선정되었다. 이곳은 해양관광 활성화, 생활밀착형 인프라 현대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부산관광공사는 오시리아 해안산책로를 비롯한 5곳을 에코트레킹으로 선정하였다.

‘제거하기’이다. 이는 임진왜란 이후와 일본의 식민지 시기에 만들어져 잘못된 전해오는 것을 제거하여,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성대가 아닌 진성

⁴⁾ “부산 영도구 등 ‘도시 재생 현장’ 방문 인증하면 경품 받습니다” <https://v.daum.net/v/20250912145846366>(검색일 : 2025.9.27.)

⁵⁾ 부산 영도구, 절영마 영도 스토리 투어버스 운영 <https://v.daum.net/v/20250312172406957>(검색일 : 2025.9.27.)

공원으로 바뀌게 된 연유를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재생하기’이다. 도시재생처럼, 해양 역사와 문화와 관련된 지역을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영도의 깡깡이마을, 감천문화마을 등이다. 깡깡이마을 소재로 한 『깡깡이마을 100년의 울림, 산업』(2017)과 『망치질하는 어머니들 깡깡이마을 역사 여행』(2025)이 출간되었다.

『부산구술문화총서』과 『보물섬 영도이야기 스토리 텔링 100선』의 출간은 부산 지역에서 전해지는 전설과 설화 및 민담을 잘 알게 하는 자료이다. 또 부산을 소재로 한 대중가요는 부산 항구의 역사를 알 수 있게 하면서 부산의 역사를 되돌아보게 한다. 이미 연극과 창극 및 도서 출간을 통해 부산의 해양문화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학생과 시민이 참여하는 ‘백일장, 해양문화원형 탐방, 공연문화’ 등을 만들어 해양문화교육 확산을 시도해야 한다. 해양문화원형을 해양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부산시정부-지방자치단체-관련 예술단체-학교-사회단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부산이 대한민국의 해양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부산 지역 내 해양소양과 관련된 교육이 확산되어야 한다. 부산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부산의 해양문화원형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도 매우 중요하다.

【 Abstract 】

Research on creating cultural content based on maritime cultural prototypes to expand maritime education in Busan

KIM Changgyeo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KONG Bongji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one of Korea's major maritime cities, is a city where the ocean and mountains coexist. Connected by both the sea and the inland, Busan possesses a multifaceted character as a maritime city. Busanpo, a port city, opened in 1407, opening its doors to trade with Japan and other countries. Following the Treaty of Ganghwa in 1876, Busan was forced to open its ports and came under significant Japanese influence. During this process, Busan's boundaries shifted several times, and Busan, once part of Dongnae-bu, began to expand into a vast city encompassing Dongnae. As interest in 'maritime literacy' grows globally, maritime education and culture are also spreading in Korea. Busan, too, is actively promoting maritime education for its citizens to solidify its image as a 'maritime port city'. Busan boasts a diverse range of cultural archetypes, including myths, legends, and folktales, as well as those related to its history. These cultural archetypes are being produced as cultural content, including dramas, films, animations, changgeuk (traditional Korean operas), and plays, and are being utilized as resources for maritime education. In a contemporary context that emphasizes maritime literacy, this paper first investigates and organizes Busan's maritime cultural archetypes that have already been produced as cultural content, and then explores how to utilize these contents in maritime education.

【패널발표】

▶ 제9세션 (장소: 534호)

제9세션 (패널발표)	근대 동아시아의 우생사회론			
시간	발표자	발표제목	토론자	사회자
16:10~18:10	김영죽 (성균관대)	18세기 『태교신기』 독법(讀法)의 제 문제: ‘근대 우생학의 단초’ 혹은 ‘전통 심신 수양과 환경-성정의 유비’	김현미 (퇴계학 연구원)	박이진 (성균관대)
	우제인 (성균관대)	에도시대 중기 산가(産家)의 위생풍습	홍성준 (단국대)	
	송연현 (성균관대)	Python 기반 『華年』 우생학 담론 연구	김병진 (단국대)	
18:10~18:40	동아시아일본학회 2025년도 하반기 정기총회			
	2025년 동북아시아문화학회 정기총회 및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시상			
	폐회식			

18세기 『태교신기』 독법(讀法)의 제 문제: ‘근대 우생학의 단초’ 혹은 ‘전통 심신 수양과 환경-성정의 유비’

김영죽(동아시아미래가치연구소 책임연구원)

1. 들어가며: 두 개의 독법, 하나의 텍스트

하나의 텍스트는 박제된 유물이 아니다. 시대를 넘나들며 독자의 인식 틀 안에서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번역’된다. 텍스트를 읽는 행위는 투명한 창을 통해 과거를 들여다보는 정직한 과정이라기보다 독자의 현재에서 과거의 세계관을 활용가능한 언어로 ‘번역’하는 복잡하고도 난해한 실천 과정에 가깝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타자(他者)의 세계관으로 쓰인 텍스트를 어떻게 오만과 편견 없이 읽어낼 것인가라는 질문과 빈번하게 마주한다.

독법(讀法)의 문제를 탐구하는 데 있어 18세기 조선의 여성 지식인 사주당 이씨(師朱堂 李氏)가 저술하고 그의 아들 유희(柳僖)가 주석을 더한 『태교신기(胎敎新記)』는 매우 적절하고 주요한 텍스트에 속한다. 이 텍스트의 가치를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태교신기』는 남성 지식인의 저작이 주를 이루던 전근대 사회에서 여성 저자가 경험과 사유를 바탕으로 인간 형성의 원리를 체계화한, 희소한 저술이다. 이는 당대 지배 담론에서 소외되었던 여성의 목소리와 세계관을 담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귀중함을 내포한다. 둘째, 이 텍스트는 사주당 이씨의 원저에 아들 유희의 상세한 박물학적(博物學的) 주석과 실용적 언해가 더해진 복합 구조를 지닌다. 즉, 텍스트 생성의 순간부터 이미 저자와 제1독자(주석자) 사이의 내밀한 공감, 재해석이 내장된 다층적 텍스트라는 것이다. 셋째, 가문적 전승에서 근대 이행기에 이르러 ‘민족’ 담론과 만나며 새롭게 조명된 그 수용사(受容史) 자체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텍스트의 의미가 어떻게 변용되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혹은 선례)가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처럼 중요한 텍스트인 『태교신기』를 대상으로, 근대 이후의 독자들이 그것을 읽어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두 가지 상반된 독법의 실체를 분석하고, 왜 이러한 해석의 다기함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탐구하는 데 있다.

첫 번째 독법은 『태교신기』를 ‘근대 우생학의 단초’로 읽어내는 시선이다. 특히 근대 일본의 태교 담론이 우생학 및 모자 보건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었던 역사적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사회진화론의 충격 속에서 ‘민족 개량’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직면했던 근대 지식인들에게 『태교신기』의 일부 구절들은 마치 우수한 민족의 ‘생산’을 위한 과학적 지침서처럼 보였다. 두 번째 독법은 『태교신기』를 ‘전통 심신 수양과 환경-성정(性情)의 유비(類比)’라는 본래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려는 시선이다. 이 관점에서 『태교신기』는 인간과 자연, 부모와 자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세계관 아래, 인간 본성을 보존하고 조화롭게 하기 위한 윤리적 실천을 다룬 수양서(修養書)로 읽힌다.

본고는 이 두 가지 독법이 단순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세계관, 이를테면, 원인과 결과가 명확한 법칙으로 세계를 설명하려는 ‘기계론적 인과율’과 만물의 상호작용과 조화를 강조하는 ‘유기체적 관계론’의 충돌이 낳은 결과가 아닐까 하는 의심에서 출발한다. 다만 본고의 분석은 현재 진행 중인 『태교신기』의 정본화(定本化) 및 학술 역주사업의 과정속에서 이루어지는 시론(試論)에 불과하다. 향후 완전한 교감과 번역이 이루어짐에 따라 본고의 논의 역시 수정·보완될 여지가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

하기에 앞서, 『태교신기』가 학문적 논의의 장에서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텍스트를 둘러싼 기존의 연구 지형도를 검토하는 것은, 본고가 제기하는 ‘독법의 문제’가 왜 현시점에서 중요한 학문적 의의를 지니는가를 분명히 하는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다.

2. 『태교신기』는 어떻게 읽혀왔는가: 선행 연구 검토를 곁다려¹⁾

『태교신기』에 대한 연구는 지난 수십 년간 다양한 학문 분과를 통해 그 외연을 확장해왔다. 그러나 연구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텍스트가 지닌 본래의 사상적 깊이를 온전히 조명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를 보여왔다. 이는 체계적인 정본화(定本化) 및 학술 역주 작업의 부재로 인해 연구 활용도가 제한적이었던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그럼에도, 태교 연구는 특정 시기마다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며 진화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연구의 흐름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일은 본 연구가 제기하는 새로운 ‘독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중요한 토대가 되며, 태교를 바라보는 시대의 ‘독법’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궤적이기도 하다. 이에, 그간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시대별 연구 동향 추이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80년대 이전: 의학(醫學)과 민속(民俗)의 시기

이 시기의 연구는 주로 태교를 한의학적 관점에서 접근하거나(강명자·송병기, 1987), 전통사회

1) 본 발표에서는 태교 담론과 관련한 자료로서 총 41편의 학술논문과 50여편의 기타 자료 목록 (도서, 초록, 연구사업 개요, 발표자료, 보고서 등)을 참고하되, 연구사의 경향성은 학술논문만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음을 밝힌다. 주요 논문은 다음과 같다. 강유원, 김이수(2006). 『소학(小學)』에 나타난 몸에 대한 의미와 체육교육. 『한국체육학회지』, 45(4). 강현주(2008). 성리학적 태교론의 현대적 함의. 『유교학연구』, 18. 귀칭칭(2023). 『안씨가훈』의 가정교육 원리에 관한 고찰. 『동양철학연구』, 116. 김선아(2010). 여성 지식인의 태교 담론 분석. 『여성사학』, 20. 김성수(2014). 조선 전기 태교론(胎敎論)의 수용과 전개. 『인문논총』, 71(1). 김영희(2007). 한국과 중국의 전통 태교론 비교. 『중국문화연구』, 20. 김지연(2013). 한국 태교 연구의 동향과 방향성. 『한국학논총』, 31. 김진아(2005). 여성 지성사로 본 태교신기. 『여성학논집』, 22. 김현주(2012). 동아시아 태교 문화의 비교 연구. 『동아시아연구』, 23. 김현지(2004). 태교의 역사적 전개와 문화적 특성. 『역사문화연구』, 18. 김효진(2006). 여성 지식인과 태교의 현대적 해석. 『여성학연구』, 22. 떠르지 재벤, 구사회(2016). 한국과 몽골의 산속 비교 연구. 『문화와 융합』, 38(6). 박선희(2007). 태교 문화와 현대교육의 접점 탐색. 『교육사회학연구』, 19. 박지영(2011). 태교의 문화적 상상력과 생명 철학. 『철학논총』, 32. 박혜진(2011). 태교의 인지과학적 접근. 『인지과학연구』, 11. 상기숙(2007). 중국 민속문화의 임신금기 고찰. 『중국학논총』, 24. 송미란(2012). 태교의 인문학적 해석과 현대적 의미. 『인문학논총』, 45. 송혜정(2009). 태교와 생명윤리의 접점 탐색. 『생명윤리연구』, 14. 신혜정(2009). 태교신기의 윤리적 관점과 여성교육. 『윤리학연구』, 23. 심경호(2007) 사주당 이씨의 삶과 학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8. 심경호(2013). 유희의 문학과 학문에 드러난 ‘求是求真’ 경향. 『진단학보』, 118. 윤수정(2007). 태교 문화와 전통교육. 『교육학연구』, 19. 이남희(2016). 조선 후기 지식인 여성의 자의식과 사유세계: 이사주당을 중심으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68. 이숙인(2015). 이사주당(李師朱堂): 경험을 지식화한 여성 실학자. 『내일을 여는 역사』, 61. 이영숙(2009). 조선후기 여성 교육론과 태교신기. 『한국교육학연구』, 15. 이윤희(2009). 동아시아 태교의 비교연구와 문화적 맥락. 『동양문화연구』, 27. 이은주(2010). 동양 전통과 현대적 적용으로서의 태교. 『동양사상연구』, 22. 이재숙(2005). 한국 민속학에서의 태교 문화 연구. 『민속문화연구』, 11. 이재연(2013). 태교 담론의 동아시아적 확장 가능성. 『동아시아연구』, 28. 이정희(2014). 전통 태교 문헌의 현대적 재조명. 『한국사상사학』, 12. 임재해(2014). 땃줄과 출산문화로 본 민속지식의 태아생명 인식. 『비교민속학』, 54. 장정호(2008). 한·중 전통태교론(胎敎論) 비교 연구. 『교육사학연구』, 18(1). 정다운(2012). 태교와 전통 윤리학의 현대적 재해석. 『윤리학논집』, 17. 정수연(2012). 태교신기 연구의 성과와 한계. 『한국문화연구』, 15. 정은미(2003). 태교의 교육철학적 함의. 『교육철학』, 34. 정희선(2013). 태교 관념과 생명윤리의 상관성. 『생명윤리학』, 11. 조순영(2008). 한국 전통 수태관의 교육생태학적 의미. 『도덕교육연구』, 20(1). 최정희(2010). 태교신기 텍스트의 현대적 의미 탐색. 『국문학연구』, 20. 최지영(2004). 한국 전통 태교의 민속적 고찰. 『민속학연구』, 14. 최현아(2006). 조선 후기 태교 담론의 문화적 특성. 『한국문화사학』, 15. 황수정(2008). 태교 담론의 사회학적 의미. 『사회학연구』, 23.

의 풍습을 민속학적으로 고찰하는 데 집중되었다(권영철, 1972). 태교는 주로 임신부의 건강, 음식 금기 등 실용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의 영역으로 다루어졌다. 이는 태교 담론이 학문적으로 본격화되기 이전, 기초 자료를 축적하던 ‘발아기’로 볼 수 있다.

•1990년대: 인문학적 전환의 모색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태교는 단순한 의학·민속의 차원을 넘어 교육학, 철학 등 인문학적 관점에서 조명되기 시작했다. 유교의 교육 원리(나만기, 1999)나 여성 교육(하채희, 1988)의 맥락에서 태교가 지닌 사상적 의미를 탐구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이 시기는 『태교신기』가 본격적인 분석 대상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과도기’에 해당한다.

•2000년대: 『태교신기』의 부상과 다학제적 확산

2000년대는 태교 연구의 ‘확장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 연구의 폭발적인 증가는 이사주당의 『태교신기』가 연구의 핵심 텍스트로 확고히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연구자들은 『태교신기』를 중심으로 태교를 성리학적 수신론(장정호, 2005), 여성지성사(심경호, 2009), 심신의학(안명옥, 2001)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했다. 특히 태교를 단순한 생물학적 과정이 아닌, 부모와 태아 간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인격이 형성되는 교육의 출발점으로 간주하는 시각이 보편화되었다.

•2010년대: 젠더, 심리, 비교문화로의 심화

2010년대는 태교 연구의 ‘심화기’이다. 『태교신기』를 여성의 주체적 경험과 지식의 산물로 보는 여성학·젠더적 접근(이미림, 2019; 이숙인, 2017)이 급증했다. 또한, 태아 애착, 불안 등 현대 심리학적 개념과 태교를 접목하려는 시도(유미·김미옥, 2014)가 활발해졌으며, 한·중·일 태교 문화를 비교하는 연구(장정호, 2008; 박이진, 2021)를 통해 K-태교의 독창성을 규명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이는 전통 담론을 현대 사회의 맥락에서 재의미화하려는 경향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2020년대~: 융합과 새로운 철학적 모색

최근 연구들은 기존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과감한 융합을 시도하고 있다. 스피노자 철학으로 전통 태교를 해석하거나(김재영·김영철, 2022), 인공지능(AI) 시대의 생명 담론과 연결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식민지 시기 우생학 담론과 태교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연구(扈素妍, 2022)가 등장하는 등, 태교 담론을 둘러싼 역사적, 철학적 성찰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지난 40여 년간의 태교 연구는 시대적 관심사에 따라 그 초점을 달리해왔다. 1980년대 이전의 연구는 주로 의학적 효능이나 전통사회의 풍습에 대한 민속학적 접근이 주를 이루었다. 이 시기 태교는 과학적 검증의 대상이거나 민속 지식의 한 범주로 인식되었다. 1990년대 이후 성리학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태교를 윤리 실천의 영역으로 재해석하려는 시도가 등장하며, 『소학』 등 유교 문헌과의 연계가 강조되었다.

본격적인 다학제적 연구로의 전환은 2000년대에 이루어진다. 이 시기 『태교신기』는 조선 후기 여성 지식인 이사주당의 저작으로서 학술 논의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연구자들은 태교를 단순한 생물학적 과정이 아닌, 부모와 태아 간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인격이 형성되는 교육의

출발점으로 간주하기 시작했으며, 여성지성사 연구의 중요한 사례로 평가하였다. 2010년대 이후 연구는 더욱 확장되어 한·중·일 태교 문화 비교 연구나 교육 생태학적 관점에서의 새로운 해석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특히 과거의 가치를 현재의 맥락에서 재의미화하려는 ‘문화되돌이(cultural U-turn)’ 현상 속에서 태교의 현대적 실천 가능성을 모색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기존 연구들을 접근 방식에 따라 유형화해 보면, 성리학적 해석이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태교를 ‘수신(修身)’ 개념과 연결해 전인적 인간형 확립의 바탕으로 조명한다. 그 뒤를 민속학, 여성학(젠더)적 접근이 잇고 있는데, 특히 최근의 여성학적 접근은 태교를 전근대 여성에게 부과된 규범으로만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여성의 주체적 경험에 기반한 실천으로 재서사화(再敍事化)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다양한 연구 흐름 속에서 『태교신기』는 독보적인 문헌적 가치를 지닌다. 조선의 태교 관련 문헌이 희소한 것은 아니나, 대부분은 의학서나 생활지침서의 일부 항목에서 단편적으로 언급되는 데 그친다. 이들 문헌이 주로 산모의 금기사항이나 ‘남아로 바꾸는 비결’ 등 실용적 기술에 치중했던 반면, ‘태교’ 자체를 목적과 본령으로 삼아 체계적인 사유 방식으로 정리한 저작은 『태교신기』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태교신기』는 ‘경(敬)’, ‘신(愼)’, ‘정심(正心)’을 강조하는 ‘수신서(修身書)’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태교를 여성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남성을 포함한 부부 공동의 책임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다른 문헌들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 지점에서 사주당 이씨의 통찰을 엿볼 수 있다.

3. 두 개의 독법: 근대적 환원과 전통적 복원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태교신기』는 다양한 분야에서 가치가 조명되었으나, 기존 연구는 결정적 한계를 공유하니, 이는 곧 체계적으로 정본화된 텍스트의 부재이다. 현재까지 원문에 대한 철저한 교감과 현대 표점, 학술적 역주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자들의 접근이 제한되었고, 이로 인해 텍스트가 함의한 사상적, 인식론적 의미를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결국 신뢰도 높은 기초자료의 부재는, 연구자들이 텍스트의 일부를 자신의 관점에 맞춰 분절적으로 해석하거나, 심지어는 오독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어지는 3장에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시도로서, 『태교신기』 원문에 대한 정밀한 독해를 통해 두 가지 상반된 독법의 실체를 분석하고 그 충돌의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태교신기』의 독법을 둘러싼 혼란의 근원에는, 텍스트가 기반한 ‘유기체적 관계론’의 세계관을 현대의 ‘기계론적 인과율’로 번역하려는 시도가 자리하고 있다. 전자가 만물의 상호작용과 조화를 강조하는 복합적 관계의 그물망이라면, 후자는 세계를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 설명하려는 단순하고 명쾌한 공식이다. 이러한 인식의 틀 차이는 『태교신기』의 핵심 개념들을 체계적으로 오독하는 결과를 낳기 십상이다. 본 장에서는 서론에서 제기한 두 가지 상반된 독법, 즉 ‘근대 우생학의 단초’로 읽는 시선과 ‘전통 심신 수양’의 맥락으로 이해하는 시선의 실체를 구체적인 원문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근대 우생학의 단초’라는 독법, 가능성과 한계

근대적 시선은 『태교신기』에서 인간의 선천적 형질을 결정하는 생물학적 법칙의 단초를 발견하고자 한다. 이러한 독법은 텍스트의 특정 구절들을 당대의 과학적 담론과 연결하며 그 ‘선구적’ 의미를 찾으려 한다. 이러한 시선의 구체적인 사례는 1936년 위당 정인보가 쓴 서문, 「태교신기음의서략(胎敎新記音義序略)」에서 상징적으로 발견된다. 정인보는 『태교신기』의 가

치를 증명하기 위해 당대의 최신 서구 학문인 ‘우생학’을 비교의 잣대로 사용한다.

근세에 이르러 서양에서 비로소 ‘우생(優生)’을 말하였다. 우생이란 그 태어남을 우수하게 한다는 것이다. 무릇 허약하고 파리하며, 폐병, 간질, 부스럼 등 여러 나쁜 질병이 전염되어 마침내 온 종족에게 퍼지게 되면, 이를 명확히 막아서 그 좋은 점만을 순수하게 해야 한다.[晚世, 遠西始言優生. 優生者, 優其生也. 凡疴羸悴癆癩瘡毒, 諸惡疾浸淫綿聯, 終以癡蠢族類, 則明爲之防用, 粹其良.]²⁾

정인보의 서술은 태교를 개인의 수양을 넘어, ‘나쁜 질병’을 막고 ‘좋은 점만을 순수하게’ 하여 우수한 후대를 얻는다는 사회적, 생물학적 목적을 위한 기술로 재해석한다. 이러한 독법이 주목하는 『태교신기』 본문의 구절들은 다음과 같다.

남방에서 아이를 배면 그 입이 크니 남방 사람이 너그럽고 인(仁)을 좋아하며, 북방에서 아이를 배면 그 아이의 코가 크니 북방 사람이 굴강(倔強)하고 의(義)를 좋아하는 것은 기질의 덕이다. [胎於南方 其口闊 南方之人 寬而好仁 胎於北方 其鼻魁 北方之人 倔強而好義 氣質之德也.]³⁾

위의 예시는 ‘환경(원인)이 특정 신체와 기질(결과)을 낳는다’는 명쾌한 인과관계의 법칙처럼 보인다. 이는 특정 지역의 ‘종족’은 고유의 신체적, 정신적 형질을 가진다는 근대 생물학적 결정론이나 인종 담론과 쉽게 결합될 여지가 크다. ‘민족 개량’이라는 시대적 통념 아래에서, 이 구절은 우수한 기질을 선택하고 강화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로 오독될 수 있다. 또한, 제1장 6절은 부모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이러한 독법의 가능성을 강화한다.

이런 까닭에 기혈이 엉겨 막히고 지각이 순수하지 못한 것은 아버지의 허물이요, 형태와 자질이 불품없고 재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어머니의 허물이다.[是故 氣血凝滯 知覺不粹 父之過也 形質寢陋 才能不給 母之過也.]⁴⁾

이러한 구절들은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결함을 부모의 생물학적 조건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처럼 읽힌다. ‘허물(過)’이라는 단어는 윤리적 책임을 넘어 유전적 결함에 대한 책임 추궁이자, ‘부적격자’의 출산을 통제하려는 우생학적 사고의 논리와 맞닿아 있다. 이러한 독법은 텍스트를 근대 과학의 계보 안에 위치시키려는 시도이지만, 그 과정에서 텍스트가 지닌 본래의 세계관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2) ‘전통 심신 수양과 환경-성정의 유비’라는 독법의 복원

앞선 근대적 독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텍스트를 본래의 사유 체계, 즉 유기체적 관계론의 맥락 속에서 다시 읽어야 한다. 이 관점에서 『태교신기』는 인간과 자연, 부모와 자녀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심신 수양의 과정을 다룬 텍스트로 재조명된다.

‘남방/북방 기질론’에 대한 유희의 주석은 이러한 독법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그는 “남

2) 존경각본 『태교신기』, 정인보, 『태교신기음의서략』

3) 존경각본 『태교신기』, 2장 2절

4) 존경각본 『태교신기』, 1장 6절

쪽은 물이 깊으므로 입이 크고, 북쪽은 산이 높으므로 코가 크다(南方水深 故口闊 北方山高 故鼻魁)”라고 설명한다. 이는 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닌, 자연의 형상(물, 산)과 인체의 형상(입, 코) 사이의 유사성을 연결하는 ‘유비(類比)’의 사유 방식이다. 즉, 남방의 풍토적 기운과 북방의 풍토적 기운이 인간의 성정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조응(照應)하는 양상을 설명하는 자연철학적 논리이지, 환경이 신체를 결정한다는 법칙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태교신기』에서 인간 형성의 핵심 개념인 ‘기질(氣質)’은 고정된 유전형질이 아니다.

사람의 성품(性)은 하늘에 근본하고 기질은 부모에게서 이루어지니, 기질이 한쪽으로 치우침이 심하면 점점 성품을 가리게 된다.[人生之性 本於天 氣質 成於父母 氣質偏勝 馴至于蔽性.]⁵⁾

여기서 기질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선한 본성(性)을 가릴 수 있는, 기(氣)의 맑고 탁함(淸濁)과 온전하고 치우침(全偏)의 정도를 의미한다. 이는 수양을 통해 그 편차를 바로잡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유동적인 것이다. 근대의 유전학이 고정된 유전자에 주목한다면, 『태교신기』의 기질론은 변화 가능성을 전제하는 역동적 사유 체계이다. 따라서 부모의 ‘허물’은 생물학적 결합이 아니라, 태아의 기질이 조화를 이루도록 돕는 윤리적 수양에 실패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문제는 유전이 아니라 수양에 있다.

이러한 수양의 핵심 원리는 바로 ‘감응(感應)’이다. 이는 어머니와 태아, 나아가 주변 환경이 보이지 않는 기(氣)로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 공명의 현상이다.

임신 삼 개월이면 형상이 비로소 변화하는데, 마치 코뿔소 뿔의 무늬가 보는 것에 따라 변하는 것과 같으니, 반드시 귀인이나 호인, 흰 구슬이나 공작 등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아야 한다.[妊娠三月 刑象始化 如犀角紋 見物而變 必事見貴人好人 白璧孔雀華美之物.]⁶⁾

여기서 임부가 귀인(貴人)을 보는 것은 그의 덕성스러운 ‘기운’에 먼저 감응하여 자신의 마음 상태를 평화롭게 하고, 그 조화로운 기운이 다시 태아에게 전달되는 상호 관계를 중시하는 것이다. 이는 태교가 “임부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 사람이 함께 하는 것[非惟自身而已也 一家之人 恒洞洞焉]”⁷⁾이라는 구절과도 연결된다. 즉, 태교는 고립된 개인의 실천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 전체가 만들어가는 ‘조화로운 기운의 장(場)’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적 실천인 것이다.

궁극적으로 태교의 목적은 새로운 성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선한 본성을 ‘보존하고 지켜가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어머니의 모든 윤리적 실천과 행동거지는 외부의 혼탁한 기운이 태아의 맑은 본성을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방어막’이자, 태아가 머무는 환경 전체를 ‘조화로운 생태적 장(場)’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스승의 십년 가르침이 어미의 열 달 기름만 못하고, 어미의 열 달 기름은 아버지의 하루 낳음만 못하다.[師教十年 未若母十月之育 母育十月 未若父一日之生.]⁸⁾

5) 존경각본 『태교신기』 1장 1절

6) 존경각본 『태교신기』 4장 3절

7) 존경각본 『태교신기』 4장 1절

8) 『존경각본』 태교신기, 1장 2절

이러한 위계는 인간 형성에 대한 유기체적 통찰을 보여준다. 후천적 교육(스승)보다 선천적 환경(어머니)이, 그리고 그 환경의 근원이 되는 최초의 순간(아버지)이 더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성품을 부품처럼 조립하는 기계론적 관점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사유 방식이다.

4. 나오며: 독법(讀法)에 대한 경계

본고는 18세기 조선의 독창적 저작인 『태교신기』를 둘러싼 두 가지 상반된 독법, 즉 ‘근대 우생학의 단초’와 ‘전통 심신 수양’의 문제를 탐구하였다. 본론의 분석을 통해, 전자의 독법이 텍스트의 일부 구절을 당대의 과학적 담론에 맞춰 재단하는 ‘기계론적 인과율’에 기반한 환원주의적 오독일 가능성이 높음을 밝혔다. 반면, 후자의 독법은 텍스트를 ‘유기체적 관계론’이라는 본래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로, 유비, 기질, 감응, 수신이라는 핵심 개념을 통해 그 풍부한 사상적 의미를 복원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결론에 도달한다. 『태교신기』를 둘러싼 상반된 독법은 단순히 어느 한쪽이 틀렸다는 것을 넘어, 서로 다른 세계관의 충돌이 빚어낸 필연적인 결과이다. 근대 과학이라는 단일한 잣대는 『태교신기』를 **‘우생학이라는 이름의 유사 과학’**과 **‘미신이라는 이름의 비과학’**이라는 두 개의 극단적인 해석의 틀 안에 동시에 위치시켰다. 인과율로 설명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은 과학의 범주로 억지로 편입되었고, 설명되지 않는 부분은 비과학의 범주로 손쉽게 추방되었다. 이 과정에서 텍스트의 본래적 사유 체계는 설 자리를 잃고 말았다. 이는 비단 『태교신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전근대 텍스트, 즉 타자(他者)의 세계관을 마주할 때 범하기 쉬운 인식론적 폭력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이분법적 틀에서 『태교신기』를 구출하고 그 본래적 가치를 복원하는 것은 중요한 학문적 의의를 지닌다. 『태교신기』의 사유 체계는 인간을 부품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기계가 아니라, 부모와 가정, 나아가 자연환경 전체와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며 형성되는 유기체적 존재로 파악한다. 감응, 조화, 수신(修身)이라는 핵심 개념을 통해 드러나는 이 세계관은, 인간 형성을 기술적 ‘생산’의 문제가 아닌 윤리적 ‘보존’과 관계적 ‘조화’의 문제로 접근한다. 이러한 정교하고 체계적인 사유 방식은,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는 하나의 생명관으로 평가받기에 충분하다. 그것은 서구의 실증주의적 생명관이 놓치고 있는 인간 존재의 관계적, 윤리적 차원을 조명하고, AI 시대에 더욱 절실해진 인간 본질에 대한 논의에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

물론 본고의 논의는 하나의 시론(試論)으로서 한계를 지닌다. 서론에서 밝혔듯이, 『태교신기』에 대한 완전한 정보화와 학술 역주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인 과제이며, 본고의 분석 역시 향후 더욱 정밀한 기초 자료가 확립됨에 따라 수정·보완될 것이다. 또한, 본고에서 제시한 ‘인과론으로의 환원’이라는 독법의 문제가 실제 근대 계몽기 문헌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실증적으로 추적하는 작업은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는다. 나아가 한·중·일 태교 문헌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태교신기』가 지닌 사상적 독창성을 더욱 선명히 하고, 그 사유 체계를 발달심리학이나 인지과학, 생명윤리 등 현대 학문과 접목하려는 다학제적 노력 또한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원전

柳僖 撰; 金九經 校, 『校刊柳氏諺文志』.

柳僖, 『諺文志』, 大提閣, 1974.

柳近永(朝鮮) 編, 『胎教新記章句大全』, 전북대학교 도서관(618.24-태교신).

師朱堂李氏(朝鮮) 撰; 柳倣(朝鮮) 釋音義, 『胎教新記』, 성균관대학교 존경각(貴 檢여 C07-007 9).

師朱堂李氏(朝鮮); 柳倣(朝鮮) 釋義, 『胎教新記章句大全』,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172.3-사주 당ㅌ).

師朱堂李氏(朝鮮) 著; 柳倣(朝鮮) 音義, 『胎教新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C2-16).

李師朱堂(朝鮮) 著, 『胎教』, 소수박물관(11호인증-131).

李師朱堂(朝鮮) 著, 『胎教新記章句大全 : 附錄諺解』, 국립중앙도서관(우촌古5400-1).

李師朱堂(朝鮮) 著; 柳倣(朝鮮) 譯註, 『胎教新記章句大全』, 국립중앙도서관(한古朝25-24).

李氏(朝鮮) 撰; 柳敬(朝鮮) 釋音義, 『胎教新記章句大全』, 서강대학교 도서관.

李師朱堂(朝鮮) 著, 『胎教新記章句大全』, 국립중앙도서관(古5400-2).

李氏(朝鮮) 撰, 『胎教新記章句大全』, 고려대학교 도서관(육당C1-A29A).

李氏(朝鮮) 撰; 柳敬(朝鮮) 釋音義, 『胎教新記章句大全』, 고려대학교 도서관(육당C1-A29).

『胎教新記』, 한국국학진흥원 도서관.

-저역서

사주당 이씨, 김양진. 『(역주) 태교신기 태교신기언해』 서울: 모시는사람들, 2023.

사주당 이씨, 최희석. 『태교신기』 경기도: 이담Books, 2020.

사주당 이씨, 김경미. 『태교신기』 서울: 문사철, 2020.

사주당 이씨, 이순금. 『태교신기대전』 서울: 다운샘, 2018.

사주당 이씨, 이연재. 『태교신기』 서울: 안티쿠스, 2014.

사주당 이씨, 이수경. 『태교신기』 서울: 한국문화사, 2011.

사주당 이씨, 최희석. 『태교신기』 경기도: 한국학술정보, 2008.

사주당 이씨, 배병철. 『(다시보는) 태교신기』 경기도: 정보사 부설 전통의학연구소, 2005.

사주당 이씨, 최삼섭. 『(譯註) 태교신기』 서울: 정보사, 1991.

로지 브라이도티(Rosi Braidotti) 저, 이경란 역 『포스트 휴먼』 아카넷, 2015.

도나 J. 해러웨이 지음, 황희선, 최유미 역, 『종과 종이 만날 때』, 갈무리, 2022.

도나 J. 해러웨이 지음, 황희선, 임옥희 역, 『영장류, 사이보그 그리고 여자 - 자연의 재발명』, 아르떼, 2023.

들뢰즈, G. 하태환 역, 『감각의 논리』, 민음사, 1995.

미키 사카에(三木榮) 저, 오준호 역, 『朝鮮醫書志』 문진, 2022.

움베르토 R. 마투라나, 프란시스코 J. 바렐라 지음, 최호영 역 『앎의 나무』, 갈무리, 2007.

움베르토 R. 마투라나, 프란시스코 J. 바렐라 지음, 정현주 역 『자기생성과 인지 - 살아있음의 실현』, 갈무리, 2023.

학술논문

- 강길전, 「심신의학으로 본 태교(胎敎)」, 『한국정신과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1.
- 강명자·송병기, 「胎敎에 關한 文獻的 考察 : 飲食을 中心으로」, 『大韓韓方婦人科學會誌』, 1987.
- 강명자·이경섭·송병기, 「태교에 대한 문헌적 고찰 - 음식과 약을 중심으로 -」, 『동서의학』, 1984.
- 강수경, 「임신기 부부의 태교실천에 관한 인식」, 『육아지원연구』, 2013.
- 강영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정내 자녀교육」, 『자연과학』, 1992.
- 강영자, 「전통사회에서의 여성생활문화」, 『자연과학』, 2006.
- 강헌규, 「소화관 태교신기와 필사본 태교신기언해의 비교 연구」, 『공주교대논총』, 1976.
- 고강옥, 「유교의 생명관」, 『철학논집』, 1989.
- 권영철, 「태교신기(胎敎新記) 연구」, 『여성문제연구』, 1972.
- 구본권, 「한국 어머니의 태몽과 태교 : 일반아동 어머니와 장애아동 어머니의 비교」, 『인문과학논집』, 1999.
- 금현수, 「전통적 태교와 현대적 태교의 비교고찰」, 『동서의학』, 1999.
- 김경미·주영애, 「전통태교에 담긴 현대적 함의에 대한 고찰」, 『가정과삶의질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017.
- 김경미, 「부모교육의 유학적 적용 - 『胎敎新記』를 중심으로」, 『인문연구』, 2018.
- 김경수, 「장자의 생명사상」, 『생명연구』, 2015.
- 김도일, 「태교가 어떻게 태아의 도덕적 자질을 바꿀 수 있는가? - 태교신기(胎敎新記)를 중심으로」, 『중국학보』, 2019.
- 김문용, 「서양 의학의 수용과 신체관의 변화 : 최한기의 『身機踐驗』을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2009.
- 김미라, 「인성태교를 위한 임신부의 회복탄력성 프로그램 개발 - 태교신기(胎敎新記)를 중심으로 -」, 『한국철학논집』, 2023.
- 김미라·이미림, 「『태교신기』를 통한 마음치유의 방법론 연구」, 『동양고전연구』, 2016.
- 김민수, 「柳僖의 傳記 및 柑製 試券」, 『10월의 문화인물』, 2000.
- 김병희, 「전통태교의 현대 교육적 함의 - 『태교신기』를 중심으로 -」, 『교육철학』, 2010.
- 김병희, 「전통태교의 특성과 교육적 위상」,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2.
- 김부경, 「유산을 경험한 임부의 불안, 사회적 지지 및 태교 실천이 태아 애착에 미치는 영향」, 『여성건강간호학회지』, 2019.
- 김선주, 「태교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소아청소년정신의학』, 2013.
- 김선희, 「지성, 감정, 영성 발달에 좋은 ‘태교 뇌명상」, 『브레인』, 2020.
- 김성수, 「조선 전기 태교론(胎敎論)의 수용과 전개」, 『인문논총』, 2014.
- 김세서리아, 「조선 후기 여성 문집의 유가경전 인용 방식에 대한 여성철학적 고찰 : 이사주당의 『태교신기(胎敎新記)』와 이빙허각의 『규합총서(閨閣叢書)』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철학』, 2018.
- 김시근, 「胎中敎育의 敎育的 理解」, 『금구논총』, 1995.
- 김영옥, 「태교 실천에 대한 일상생활 기술적 연구」, 『대한간호학회』, 1997.
- 김영철, 「胎敎新記에 나타난 ‘존심’과 ‘정심’의 교육적 의미」, 『도덕교육연구』, 2005.
- 김영철, 「전통태교와 현대태교의 원리」, 『한국교육논총』, 2007.

김영희, 「한국에서의 태교」, 『부모자녀건강학회지』, 2009.

김은주·서영희·한미라·조희숙·임재택, 「태교의 의미와 실제에 대한 문화기술적 탐구」, 『열린유아교육연구』, 2006.

김인호·최정준, 「『胎敎新記』에 나타난 師朱堂 李氏의 태교관」, 『온지논총』, 2024.

김재영·김영철, 「전통태교에 대한 스피노자적 해석: 사주당 이씨의 『태교신기』를 중심으로」, 『교육철학연구』, 2022.

김종섭, 「唐代 理想的 人間型 - 胎敎를 중심으로」, 『중앙사론』, 2012.

김주희·구영본·신미경, 「1930-1940년대 출산풍속에 대한 사례 연구」,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006.

김주희, 「현대 한국인의 일생의례 : 2000년대 도시 여성의 출산문화: 문화변동의 장」, 『한국문화인류학』, 2007.

김지수·김영철, 「조선왕실 자녀 교육의 현대적 가치 -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왕세자 교육을 중심으로 -」, 『동학학보』, 2023.

김지현, 「조선 최초 태교 이론을 정립한 실학자, 이사주당(李師朱堂)」, 『이화어문논집』, 2024.

김초롱·권미량·이숙희, 「어머니의 태아기·영아기 육아 들여다보기」,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0.

김한상, 「초기 불교의 태교 사상」, 『보조사상』, 2023.

김혜자, 「出産 婦人의 胎敎 實態에 關한 調査 研究」, 『논문집』, 1992.

나만기, 「儒家的 敎育原理攷」, 『학생생활연구』, 1999.

대한태교연구회, 「건강한 출산을 기다리며」, 『가정의벗』, 2002.

도민재, 「한국의 전통 가정교육과 유교」, 『종교교육학연구』, 2000.

문희수·최의순, 「산모와 배우자의 태교인식과 실천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2002.

박문일, 「태교! 어떻게 해야 하나?」, 『가정의벗』, 2002.

박성진·김선호, 「문헌(文獻)에 나타난 태교(胎敎)의 사상의학적(四象醫學的) 고찰(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1999.

박성학, 「태교 : 태아교육의 모범」, 『상담과 선교』, 2002.

박시연, 「태아의 인지 발달과 여성의 심리적 돌봄을 위한 옛이야기 태교 스토리텔링 연구」, 『문학치료연구』, 2024.

박용옥, 「한국에 있어서의 전통적 여성관 - 이사주당과 『태교신기 (胎敎新記)』를 중심으로 -」, 『이화사학연구』, 1985.

박이진, 「일본 태교론의 전통과 근대」, 『일본사상』, 2021.

박지현·배재룡·하정아·홍승철, 「傳統 胎敎의 文獻的 考察 및 禁忌 研究」, 『의료기공』, 2009.

백경임, 「胎敎에 대한 父親의 認識 및 實踐에 關한 調査研究」, 『논문집』, 1985.

변정환·송병기, 「胎敎에 關한 文獻的 考察 : 養性情 및 優生學을 中心으로」, 『大韓韓方婦人科學會誌』, 1987.

선우미정, 「조선시대 유교의 자녀교육론」, 『양명학』, 2017.

성미혜·주경숙, 「임부의 결혼만족도와 배우자 지지가 태교실천에 미치는 영향」, 『여성건강간호학회지』, 2011.

신명호, 「조선의 왕과 왕실 1 : 조선왕실의 태교(胎敎)」, 『한글한자문화』, 2006.

신명호, 「조선의 왕과 왕실 (2) : 왕실의 태교음식」, 『한글한자문화』, 2006.

- 신명호, 「조선의 왕과 왕실 6 : 조선 왕실 최악의 태교 실패작 : 연산군」, 『한글한자문화』, 2006.
- 신미아·최정현, 「미혼 대학생의 성지식과 태교인식 조사」, 『한국생활과학회지』, 2010.
- 신상춘, 「태명이 지능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7.
- 신용분·고효정, 「임부의 태교인식과 태교실천에 관한 조사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2000.
- 신인숙, 「태교와 음악 환경이 유아의 음악 능력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2006.
- 신창호, 「유교의 교육적 특징 고찰 - 생활과 화해의 관점 -」, 『유교문화연구』, 2009.
- 심경호, 「사주당 이씨의 삶과 학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009.
- 심경호, 「유희의 문학과 학문에 드러난 ‘求是求真’ 경향」, 『진단학보』, 2013.
- 심향분·오연주, 「그림책에 담긴 태교 내용에 관한 연구」, 『인지발달중재학회지』, 2015.
- 안기주, 「출산여성의 태교 실천 정도와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임상간호연구지』, 2001.
- 안명옥, 「태교와 심신의학」, 『한국정신과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1.
- 안세희·김은주,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난 한국 통육아의 실제 고찰」, 『교육사상연구』, 2018.
- 양경미·김순례, 「태교 프로그램이 초임 부부의 부모-태아 애착과 부모의 정체성에 미치는 효과」,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10.
- 양근영·전한성, 「태교 독서 교육 프로그램의 설계 및 운영 방안 연구」, 『학부모연구』, 2023.
- 양승춘, 「효인성 함양을 위한 태교의 역할과 방법」, 『효학연구』, 2017.
- 양승춘, 「태교음악을 활용한 태아와 유아기 효인성 함양에 관한 연구」,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2023.
- 예철해, 「유교와 불교 태교관(胎敎觀)의 교육적 의미」, 『종교교육학연구』, 2006.
- 오문환, 「동학에 담긴 생명중심의 교육철학을 찾아서」,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06.
- 오보라, 「조선 후기 지성사의 관점에서 본 『胎敎新記章句大全』의 의미」, 『고전과 해석』, 2019.
- 우인희·전순영, 「태교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임신부의 모성정체성과 태아애착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2016.
- 원혜영, 「師朱堂 李氏의 開新 철학의 문명사적 흐름 : 『胎敎新記』에 나타난 생명의 신비한 본원에 관련하여」, 『민족사상』, 2021.
- 유가효, 「전통 태교에 나타난 임신 중 금기 및 권장 식품의 상징적 의미」, 『푸드아트테라피』, 2015.
- 유미·김미옥, 「태아 애착에의 영향 요인: 임부의 피로, 사회적 지지, 태교 실천」,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014.
- 유안률, 「韓國 傳統 育兒 方式」, 『韓國 生活 科學 研究』, 1986.
- 유안진, 「한국의 전통적인 아동양육과 상징」, 『한국 복식』, 2000.
- 유점숙, 「『胎敎新記』 內容考察(下)」, 『사회과학연구』, 1983.
- 유점숙, 「전통태교의 현대과학적 의의」, 『논문집』, 2000.
- 유정분, 「『태교신기(胎敎新記)』의 인성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예다학』, 2020.
- 육수화, 「조선시대 왕실의 유아교육」, 『동양고전연구』, 2008.
- 윤은경, 「한의학적(韓醫學的) 관점(觀點)에서 본 『태교신기(胎敎新記)』의 태교론(胎敎論)」,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8.

- 이경, 「韓國人의 傳統的인 育兒法에 關한 研究 : 李朝時代를 中心으로」, 『원우논집』, 1973.
- 이경은, 「조선 초기 왕실의 엘리트 교육에 관한 고찰」, 『교육연구논총』, 2008.
- 이경하, 「본성-양육 논쟁으로 본 『태교신기』 - 전통 태교론 및 현대 유전학과의 비교」, 『인문논총』, 2014.
- 이경화, 「제주도 전통 산속(産俗)의 의미 이해」, 『동북아 문화연구』, 2009.
- 이경혜·배경익, 「심신과학으로서의 태교」, 『부모자녀건강학회지』, 2004.
- 이남희, 「조선후기 지식인 여성의 자의식과 사유세계」,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2016.
- 이미림, 「태교, 여성이 만드는 독립적 주체의 시작 - 『태교신기(胎敎新記)』 -」, 『한국여성신학』, 2019.
- 이미숙, 「전근대 일본의 태교지식의 수용과 전개 - 일본 고전 텍스트를 중심으로」, 『인문논총』, 2014.
- 이상주, 「한국 고전에 나타난 기원(1) : 자손(子孫)의 출산(出産)과 번창(繁昌)에 대한 기원(祈願)」, 『온지논총』, 2015.
- 이석희, 「태교의 중요성」, 『대한한약』, 1999.
- 이숙인, 「이사주당(李師朱堂) : 경험을 지식화한 여성 실학자」, 『내일을 여는 역사』, 2015.
- 이숙인, 「삶과 앎의 문제로 본 이사주당 - 인물 재구성을 통한 여성사상사 서술의 시론」, 『여성과 역사』, 2017.
- 이숙희, 「그림책 『아가마중』에 나타나는 태교의 의미 탐색」, 『생태유아교육연구』, 2021.
- 이정은·박경미·이보라·정진홍·유동렬, 「임산부(妊産婦)의 섭생(攝生)이 소아(小兒) 알레르기질환(疾患)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전통태교(傳統胎敎)를 중심으로)」,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2002.
- 이지양, 「조선조 후기 사대부가 기록한 아내의 일생 : 행장 26편으로 본 내조(內助)의 힘」, 『인간·환경·미래』, 2011.
- 이향만, 「출산의례와 생명의식」, 『생명연구』, 2013.
- 이희자, 「傳統社會의 子女養育에 關한 高찰 : 胎·乳兒期를 中心으로」, 『전통문화연구』, 1984.
- 임소영·김은주, 「태교에 대한 예비부모의 이미지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2011.
- 임창경, 「東洋醫學的 胎敎에 對한 考察」, 『원광한의학』, 1992.
- 임희규, 「韓國의 傳統的 胎敎에 關한 研究」, 『가정과삶의질연구』, 1983.
- 장두석, 「민족생활의학 원리가 본 육아의 문제와 대안」,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06.
- 장상윤·방경숙, 「일 지역 임부의 태교인식, 태교실천 및 모-태아애착 간의 상관관계」,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019.
- 장순복·박영주·최연순·정재원, 「한국 임부의 태교요인 - 동양 민속행위적인 임부의 자기관리 -」,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1996.
- 장순복·김기영·김은숙, 「태교관점 임부교실 참여 전후 임부 태아애착과 분만자신감의 변화」, 『여성건강간호학회지』, 2001.
- 장연집, 「결혼과 태교」, 『여성연구논총』, 1986.
- 장원동, 「전통적 태교와 현대적 태교의 비교연구」, 『통일연구』, 2001.
- 장유진·채진영·김혜라, 「전통 유아교육과 관련된 국내 연구 동향 :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유아교육연구』, 2022.
- 장재정, 「都市主婦의 胎敎 및 産俗에 關한 研究(I)」, 『생활과학연구논집』, 1985.

- 장재천, 「한국사상(韓國思想)(사학(史學)) : 한국 전통태교의 특징과 역사적 의의」, 『한국사상과 문화』, 2009.
- 장정호, 「유학교육론의 관점에서 본 『태교신기(胎敎新記)』의 태교론」, 『대동문화연구』, 2005.
- 장정호, 「한·중 전통 태교론(胎敎論) 비교 연구」, 『교육사학연구』, 2008.
- 전진우·이호승, 「胎敎에 對한 文獻的 考察」, 『의료기공』, 1999.
- 정대성·박종익·안훈모·이기남, 「전통적 태교와 현대적 태교에 관한 고찰」, 『의료기공』, 2006.
- 정미라·강수경·김민정, 「임산부의 결혼만족도, 부모됨의 태도와 태교실천에 관한 연구」, 『Human Ecology Research』, 2013.
- 정성원, 「태교胎敎에서 신위神位까지, 총체적으로 과잉 교육화된 사회?」, 『사회사상과 문화』, 2013.
- 정순화, 「정서발달의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의 전통태교 : 태교신기를 중심으로」 『Human Ecology Research』, 2014.
- 정양수, 「내가 아는 柳僖와 그 關聯資料考」, 『10월의 문화인물』, 2000.
- 정양완, 「『태교신기(胎敎新記)』에 대하여 : 배 안의 아기를 가르치는 태교에 대한 새로운 글」, 『새국어생활』, 2000.
- 정양완, 「유희(柳僖)의 학문과 생애」, 『새국어생활』, 2000.
- 정연정, 「<태교신기언해>의 국어학적 고찰 - 표기와 음운을 중심으로」, 『어문논총』, 2019.
- 정해은, 「조선시대 태교 담론에서 바라본 이사주당의 태교론」, 『여성과 역사』, 2009.
- 조기호, 「李師朱堂의 氣候適應形質 考察」, 『한국여성철학』, 2011.
- 조순영, 「한국 전통 수태관의 교육생태학적 의미 - 신화, 불교, 유교를 중심으로」, 『도덕교육연구』, 2008.
- 조순영, 「동학의 태교사상에 관한 연구」, 『생태유아교육연구』, 2009.
- 조은숙, 「妊産婦의 心理調査 : 母性意識을 中心으로」, 『아시아여성연구』, 1963.
- 진성태, 「胎敎에 關한 研究」, 『신경정신의학』, 1981.
- 차경섭, 「태교 : 태교와 임신상담」, 『상담과 선교』, 2002.
- 차미경·이민경, 「父親의 胎敎에 대한 인식도 조사연구」, 『가정학연구』, 1988.
- 최경숙, 「태교 : 태교를 위한 발달심리학적 이해」, 『상담과 선교』, 2002.
- 최범훈, 「사주당의 [태교신기(胎敎新記)]에 대하여」, 『선청어문』, 1988.
- 최연순, 「임신부부의 태교 실태조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995.
- 최정준·김인호, 「오행론에 근거한 전통 태교음악의 구성」, 『동양문화연구』, 2023.
- 최한수, 「한국의 옛 유아교육 탐색」, 『한국교육사학』, 2002.
- 한경자, 「임부의 태교관련 지각, 태교관행 및 태교관점 모-태아상호작용 신념」, 『부모자녀건강학회지』, 2004.
- 한국건강관리협회, 「뇌 발달 태교법」, 『건강소식』, 2006.
- 한국뇌과학연구원 편집부, 「벅속의 아기와 함께하는 임신 주기별 태교 명상」, 『브레인』, 2020.
- 한국민속학회 편집부, 「胎敎新記」, 『한국민속학』, 1991.
- 한국상담선교연구원, 「태교에 관한 도서들」, 『상담과 선교』, 2002.
- 황옥자, 「어머니의 태교의식 및 태도와 유아건강과의 관련성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996.
- 황옥자, 「유희·업사상에 근거한 태아발달 및 교육에 관한 고찰」, 『열린유아교육연구』, 2003.
- 홍혜경, 「한국여성의 태교인지도에 관한 조사연구」, 『아동학회지』, 1980.

菊韵香,「难言的胎教」,『微型小说选刊』,2014.

赖扬峰·章德林·蒋力生,「《妇人大全良方》胎教观点的科学性探析」,『江西中医药』,2017.

刀把,「胎教小事」,『能源评论』,2015.

刘永连·赵利雯,「朝鲜王朝蒙学教育与中华传统文化」,『历史文献与传统文化』,2023.

马媛媛,「“礼学”视野下的中国胎教理论」,『兰台世界』,2015.

方燕芳,「医生教你做胎教」,『健康博览』,2024.

庞颖·刘雁峰,「中医胎教源流及内涵探赜」,『中国中医药现代远程教育』,2023.

樊民东,「我国胎教由来已久」,『大家健康』,2017.

史美馥,「音乐治疗在孕产期胎教中的作用研究」,『当代音乐』,2023.

徐建勇,「胎教的意义及对优生优育重要性」,『东方药膳』,2021.

聂娜,「普及科学胎教知识刻不容缓」,『南北桥』,2019.

施永谋·郭田友,「探讨中国古代胎教中的心理因素」,『中国优生与遗传杂志』,2015.

杨柳,「音乐胎教对胎儿血流动力学及行为活动影响的超声评价」,『实用中西医结合临床』,2016.

吴佳容·董岩鑫·董达,「胎教的科学性:过去、现在和未来」,『大众心理学』,2024.

熊玉萍,「健康胎教的内容方式及意义」,『家有孕宝』,2020.

李桐潇,「不同年龄及性别人群胎教知识与观念的比」,『贵州医药』,2019.

李鹏举,「“制造”传统:早期中国胎教起源考」,『陕西学前师范学院学报』,2024.

李平平·张海莲,「大学生的胎教认识现状」,『现代养生』,2017.

张大明,「医案聊斋续篇 胎啼案」,『家庭中医药』,2017.

张帆,「胎教音乐的介绍」,『教育科学』,2016.

张先庚·刘琴·梁清芳·王红艳·曹冰,「胎教的研究及展望」,『辽宁中医杂志』,2014.

张世萍,「中国古代胎教理论的发展与经验借鉴」,『科教文汇』,2018.

朱丽蓉·宋培林·尹伟莹,「正确的胎教有利于优生」,『中国药物经济学』,2013.

朱慈恩,「论传统中国胎教观念的近代嬗变」,『史志学刊』,2015.

陈可歆,「中国古代胎教的源流特点和现代启示」,『文教资料』,2020.

陈后涵·赵梓琦·董达,「莫扎特效应与胎教音乐的科学性」,『大众心理学』,2024.

陈惠娟,「胎教利弊的研究」,中国卫生产业,2018.

蔡晴,「近代报刊对民间传统胎教习俗的重构(1912-1949)」,『民族学刊』,2021.

平笑菲,「担当是最好的胎教」,『中国卫生人才』,2022.

杭林,「胎教对宝宝真的有效吗」,『中国保健食品』,2015.

黄剑书,「胎教」,『课程教育研究』,2014.

扈素妍,「植民地朝鮮の出産風習としての胎教と生政治:「優生学」言説を中心に」,『朝鮮学会』,2022.

-학위논문

김경미,「儒學의 胎教에 관한 研究:『胎教新記』를 중심으로」,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9.

김선교,「조선후기 胎教觀의 지속과 변화: 師朱堂 李氏의 『胎教新記』를 중심으로」,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21.

김수란,「傳統 女性教育에 대한 教育人間學的 研究」,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2.

김은영,「어머니의 태교인식과 실천이 부모역할 인식에 미치는 영향」,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문, 2023.

김인호, 「한국음악을 활용한 胎中·胎兒 교육에 대한 고찰」,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김정은, 「師朱堂의 胎敎禮 實現과 茶生活 研究 : 胎敎新記를 中心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김초롱, 「어머니의 태아기·영아기 육아 실태와 유아발달과의 관계」, 고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나영숙, 「역주 『胎敎新記』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박수빈, 「심리적 애착의 원형으로서의 태교」,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박정미, 「마음회복을 위한 태교프로그램 개발 : 『태교신기』 독송과 차명상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박효실, 「태교로서의 음악 활용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백혜리, 「조선시대 성리학, 실학, 동학의 아동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서경숙, 「『태교신기』에서 본 현대 태교방법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손승아, 「첫 어머니됨의 체험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양승춘, 「동요 태교를 통한 효의식 함양에 관한 연구」, 성산효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여정희, 「『胎敎新記』의 胎敎思想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오보라, 「西陂 柳僖 文學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위혜숙, 「육아 시초로서의 태교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유효실, 「『태교신기(胎敎新記)』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이연희, 「대학생의 태교 및 태교교육에 관한 인식 조사」,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임정인, 「師朱堂 李氏의 <胎敎新記> 저술과 태교교육」,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장여진, 「전통 태교관에서 본 장계향 태교의 특징」,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정선년, 「『胎敎新記』를 통해본 胎敎의 두 의미 : 일상생활의 태교와 심신수양의 태교」, 부산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정수연, 「전통태교를 통해 본 현대태교 실천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정정혜, 「韓國 傳統社會의 胎敎에 關한 考察 : <胎敎新記>를 中心으로」,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조은숙, 「명상과 침선을 적용한 태교콘텐츠 개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조현주, 「전통 가정교육의 현대적 조명 : 『태교신기』와 『소학』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조혜숙,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요가 연구 : 요가 쉼표의 수행법과 "胎敎新記"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진애라, 「『태교신기』를 통해 본 전통사회의 태교관 : 태교의 주체·본질·방법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최재호, 「『태교신기』에 기초한 기독교 태중교육의 모델 개발」, 영남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하금선, 「朝鮮時代 胎敎思想에 대한 研究 : 「胎敎新記」, 「東醫寶鑑」, 「閨閣叢書」, 「增補山林經濟」를 中心으로」,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하채희, 「朝鮮時代 胎敎思想과 그에 나타난 女性教育에 대한 研究 : 「胎敎新記」를 中心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홍명자, 「조기진통 임부의 임신스트레스, 상태불안 및 태교실천이 태아애착에 미치는 영향」,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3.

홍순례, 「祈子信仰研究：禁忌와 傳承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谢志豪, 「朝鲜王朝胎教思想研究--以《胎教新记》为中心」, 延边大学 석사학위논문, 2023.

扈素妍, 「植民地朝鮮の「出産の場」における風習と「生政治」―産婆制度と胎教言説を通じて―」, 京都大学 박사학위논문, 2023.

에도시대 중기 산가(産家)의 위생풍습

우제인(성균관대)

1. 서론

본고는 에도 시대 중기에 발표된 산과서(産科書) 『우부야 야시나히 구사(産家やしなひ草)』(안 에이(安永) 4(1775)년)를 중심으로, 에도 시대 중기 산가(産家)의 위생풍습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부야 야시나히 구사』는 산부인과 의사 사사이 모안 겐케이(佐々井茂庵玄敬, 생몰년도 미상)에 의해 집필된 서적으로, 산전·해산·산후의 주의사항을 전하는 한편, 기존의 산파에 의해 행해졌던 여러 해산풍습 및 민간에 통용되고 있던 임신 관련 속설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있다. 또한 책 곳곳에서 스승인 가가와 겐에츠(賀川玄悦, 1700~1777)의 『산론(産論)』(1765)과, 가가와 겐에츠의 양자이자 제자인 가가와 겐테키(賀川玄迪, 1739~1779)의 『산론익(産論翼)』(1775)을 언급하며 두 책으로부터의 영향을 명확히 밝히고 있어, 일본의 근대 산과술의 토대가 된 가가와류 산과(賀川流産科)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저자인 사사이 겐케이는 이 책을 집필한 후에도 『고야스노 기(孫(子)安記)』(분카(文化) 4(1807)년)를 통해 「임신시 주의사항(懷妊のこゝろえ)」(11조)과 「해산시 주의사항(臨産のこゝろえ)」(5조)을 재차 서술하였으며, 또한 분세이(文政) 7(1824)년에는 청나라 의사 장로옥(張路玉, 1617~?)의 『마진정요(麻疹精要)』를 번역하여 『마진정요국자해(麻疹精要国字解)』를 간행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에도 시대에 산과를 포함한 의학사에서 여러 주목할만한 성과를 남긴 저자의 업적 중에서도, 『우부야 야시나히 구사』는 일본의 부인위생에 있어 묵과할 수 없으며, 산과위생에 있어 적절한 논지를 서술하여 세간의 산과지식을 계발향상시킨 서적으로 평가되고 있다.¹⁾ 이에 본고에서는 이 책에 드러난 위생풍습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2. 『우부야 야시나히 구사』의 구성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크게 여섯 가지 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장(章)	필자
서문(序文)	가와와 겐에츠(賀川玄悦)
자서(自序)	사사이 모안 겐케이(佐々井茂庵玄敬)
출산 전의 주의사항 8조(産前のこゝろえ 凡八條)	사사이 모안 겐케이(佐々井茂庵玄敬)
해산시 주의사항 9조(臨産のこゝろえ 凡九條)	사사이 모안 겐케이(佐々井茂庵玄敬)
출산 후의 주의사항 18조(産後のこゝろえ 凡十八條)	사사이 모안 겐케이(佐々井茂庵玄敬)
후서(後序)	가와와 겐테키(賀川玄迪)

책을 펼치자마자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저자의 스승인 가가와 겐에츠(賀川玄悦)가 작성한 「서문(序文)」으로, 가가와 겐에츠는 다음과 같은 단락으로 글을 시작하여 독자의 주의를

1) 藤浪剛一, 『日本衛生史』, 日新書院, 1942年, 80~81頁 참고

불러일으키고 있다.

산(産)은 병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의 산가(産家)는 의자와 복대로 속박하고, 탕약(湯藥)으로 온량(溫涼)시키고, 혹자는 식기(食忌)에 구애되어 양생을 놓치고, 혹자는 주술을 믿어 미혹을 더한다. 밖으로는 속의(俗醫)의 말을 듣고, 안으로는 산파의 과장된 말을 채용하여, 결국 멧대로 하여 병이 난다. 이러한 병폐가 이미 2~300년에 이른다.²⁾

이어서는 가가와 겐에츠 자신과 그 양자인 가가와 겐테키가 이미 각각 『산론』과 『산론익』을 편찬하여 그 미혹에 대해 서술하였으며, 제자인 사사이 겐케이도 그러한 두 책에 의거하여 산전·해산·산후의 주의사항을 든 이 책을 저술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일본 산가에서 수 백년 간 답습해오던 출산풍습에 대한 비판과 자신을 시작으로 문하의 여러 의사들의 대응, 그 영향관계 정도가 밝혀진 간략한 「서문」이지만, 가장 첫 문장인 '산은 병이 아니다(産は病にあらず)'는 이 책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해당 문장은 이 책의 임신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주장으로서, 산전·해산·산후의 주의사항을 이야기할 때, 가장 기본적인 근거로서 반복 제시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저자 사사이 겐케이의 「자서」를 통해서는 저자가 이 책을 저술하게 된 경위가 보다 상세히 밝혀져 있다. 사사이 겐케이가 어렸을 때 나니와(浪華, 오사카)에서 아다치 에이안에게 의학의 일반을 배운 후, 교토의 가가와 겐에츠를 스승으로 삼았으며, 이후 재차 나니와로 가서 다카키 가스케에게 배웠으며, 마침내 이 책을 쓰게 되었다는 내역이 나타나 있다.

이어 본문에 해당하는 산전·해산·산후의 주의사항을 총 세 장에 걸쳐 서술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가가와 겐에츠의 제자이자 양자인 가가와 겐테키가 「후서」를 덧붙여 다시 한 번 이 책의 내용과 취지 및 의의를 간략히 정리하는 형식이다.

또한 이 책은 한자와 히라가나를 섞어 쓴 문체로 작성되었는데, 주목할 만한 것은 모든 한자의 오른쪽에 후리가나(振り仮名)를 덧붙여 읽는 법을 나타내었으며, 병명·증상, 특정 직업군, 혹은 저자에 의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표현에 대해서는 왼쪽에도 루비(ルビ)를 달아 그 뜻을 재차 설명하였다는 점이다.³⁾ 이는 가능한 많은 부녀자들에게 임신의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구폐·누습을 타파하도록 돕는다는 이 책의 취지에 의한 것이다. '글은 히라가나를 사용하였고, 말이 비리(鄙俚)를 삼가지 않은 것은, 처녀와 부인의 이목에 편리하도록 한 것이다'⁴⁾라는 「서문」의 설명이나, 본문에 앞서 저자도 '어리석은 촌사람이나 해녀가 보기에 통할 것을 생각하여, 말이 비천하고 되풀이하여 말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가리지 않고 쓴 것이 다음과 같다'⁵⁾라고 그 서술방침을 밝힌 것, 그리고 '국자(国字)로 쓴 것은 세상 사람들이 널리 알고 많이 보아서, 한 명의 부인이라도 재해가 없도록 하고자 한 것이다'⁶⁾라는 「후서」에

2) 産は病にあらず。而に今世の産家。椅帶もて束縛し。湯藥もて溫涼し。或は食忌に拘て養を失ひ。或は禱呪を信じて惑を増し。外俗医の制をうけ。内穩婆の誣を用て。遂に弄して病癘をなす。此弊已に二三百年に及べり。

3) 예를 들어, '산파'를 의미하는 '穩婆'의 오른쪽에는 그 발음에 해당하는 온바(をんば)를, 왼쪽에는 그 의미를 쉽게 풀어낸 토리아게 바바(とりあげばば)를 루비로 달아두었다. 또한, '목욕 후'를 의미하는 '浴後'에도 오른쪽에는 요쿠고(よくご)를, 왼쪽에는 유아가리(ゆあがり)를 붙이고, '결국'을 의미하는 '究竟'에도 오른쪽에는 쿠교(くきやう)를, 왼쪽에는 츠마루도코로(つまるところ)를 덧붙이는 등, 일상적인 용어에도 좌우 모두 루비를 붙여둔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4) 文女字を用ひ。辭鄙俚を避けざるは。閨女室人の耳目に便ならしめんと也。

5) をろかなるしず山がつ。かつきの海女の。みるめにも。通せん事をおもひて。言葉のいやしく。くりことがちなるを。擇ばず。記す事。左のごとし

6) 国字をもてしるす事は。世の人のあまねく知り多く見て。一婦も災害なからしめんと欲してなり。

서의 재언급이 모두 이러한 방침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책은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산과 의사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부인들을 계몽시키기 위한 책으로서 기획된 것이다.

3. 산전·해산·산후의 주의사항의 서술특징

이상과 같은 이 책의 기본적인 서술방침을 바탕으로, 산전·해산·산후의 주의사항을 설명하는 본문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문의 세 장은 각각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출산 전의 주의사항 8조(産前のこゝろえ 凡八條)
1. 임신 중, 남녀의 교합을 꺼려야 한다. 2. 임신 중, 복대(腹帶)를 착용하지 말아야 한다. 3. 특히 기력이 없는 임신부가 복대를 착용하면 그 해가 현저하다. 4. 임신 6~7개월부터는 뜨거운 물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5. 임신 중, 식기(食忌)에 따르기보다 평소대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 6. 임신 중, 더울 때도 차가운 물을 마시지 말고, 차게 자지 말아야 한다. 7. 출산 전부터 젖이 나오는 것은 간혹 있는 일로, 나쁜 것이 아니다. 8. 임신 중, 다리를 구부리고 자는 것은 좋지 않다.
해산시 주의사항 9조(臨産のこゝろえ 凡九條)
1. 여름에 출산할 때는 너무 덥지 않도록 하고, 겨울에 출산할 때는 너무 춥지 않도록 하라. 2. 출산이 임박하였을 때, 음식을 많이 먹지 말고 조금 적게 먹는 것이 좋다. 3. 산후 21일간은 빗의 사용을 꺼리므로, 출산이 임박하여 머릿기름으로 머리를 올려두는 것이 좋다. 4. 출산이 임박하였을 때, 좌욕을 하면 오히려 기력이 떨어지고 구토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하다. 5. 출산이 임박하였을 때, 서두르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면 된다. 6. 출산이 임박하지 않았는데 힘을 주어 자궁을 나오게 하면 산후에도 오랫동안 납입되지 않는다. 7. 출산 전·후 천연(天然)에 맡기면 낳기 쉽다. 의사도 산파에게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8. 빨리 태어나게 하는 등의 약을 사용하지 말라. 출산은 천연의 일이다. 9. 진통이 강할 때, 탈항(脱肛)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가까운 자가 항문을 눌러주면 좋다.
산후의 주의사항 18조(産後のこゝろえ 凡十八條)
1. 출산 후, 바로 일으키지 않고,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불을 깔아 엎드려 이로 이동시켜 옆으로 누여야 하고, 건도록 하지 말아야 한다. 2. 출산 후, 임산부를 산대(産臺)로 옮기지 말라. 3. 출산 후, 바로 포의(胞衣)가 나오지 않더라도 무리하지 말라. 마음을 편하게 하면 나올 것이다. 4. 막(膜)을 입고 태어나는 아이는, 임신 중 버선이나 봉투 모양의 물건을 바느질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잘못된 의견이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고, 막만 벗기면 별다른 것 없는 사람이다. 5. 아이가 발이 먼저 나오는 경우도 있다. 6. 출산 후, 복대를 강하게 매면 오로(惡露)가 내려오기 어렵고, 혈훈(血暈)이 일어나기 쉽다. 7. 출산 후, 복대를 묶지 않으면 젖이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자연스럽게 두면 된다. 8. 난산하여 기력이 약한 임산부에게는 귀에 솜을 넣어 큰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 9. 떡은 보통 사람도 체하기 쉬운 음식이므로, 출산 후 먹지 않는 것이 좋다. 10. 『산론(産論)』에 제시하였던 우메보시(梅干し), 검은콩 이외에는 그다지 꺼릴 음식이 없다. 11. 출산 전·후에 출혈이 있는 자 외에는, 출산 후 안신산(安神散)을 남용하지 말라. 12. 출산 후, 아랫배가 아픈 것은 오로로 인한 것으로, 안신산을 남용하지 말라. 13. 출산 후, 음문(陰門)이 붓는 경우, 오배자(五倍子)·망초(茫硝)·명반(明礬)·밀(小麥)·파뿌리(葱白)를 잘 볶아서 씻으면 빨리 나올 것이다. 14. 실력없는 산파는 아이를 음문의 윗 표면으로 향해 받아야 하는 것을 모르므로, 아이의 머리에 스쳐 아래 표면을 훼손시키는 일이 많다. 붙이는 약이나 마유(馬油)를 바르면 잘 아물 것이다. 15. 산후 뿐만 아니라 산전에도 피가 많이 흐를 때, 옆으로 누이고, 안신산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16. 유산을 처리할 때는 정상적인 출산 후보다 더 조심해야 한다. 유산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 17. 출산 후 17일, 손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서 하체를 닦아야 한다. 산후 제1의 양생은 목욕이다. 18. 출산 후, 21일 정도는 머리를 가볍게 올려야 하고 빗질을 삼가야 한다.

이와 같이 본문에서는 산전·해산·산후의 임산부의 식사, 거주환경, 의복, 신체 상의 주의점 등을 총 35개 조목에 걸쳐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데, 이로부터 몇 가지 반복되는 서술 상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기존에 행해져왔던 임신 관련 여러 관습과 속설을 부정하고, 그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먼저 본문의 가장 첫 장 「출산 전의 주의사항 8조(産前のこゝろえ 凡八條)」의 첫 번째 조목인 <1. 임신 중, 남녀의 교합을 꺼려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조목들은 대부분 임신부에게 행해져왔던 여러 관습을 부정하는 형식으로 서술되었다. 복대(腹帶)를 착용하지 말 것, 식기(食忌)에 따르지 말 것, 뜨거운 물(熱湯)을 끼얹지 말 것, 다리를 구부리고 자지 말 것, 약을 남용하지 말 것, 무리하게 힘을 주지 않을 것 등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이며 가장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복대의 착용에 대한 부정'으로, 이는 산전·산후의 주의사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다. 저자는 출산 전 복대를 사용하면 오히려 기력이 약해지는 폐해가 발생하고, 또한 출산 후에도 복대를 사용하면 오로(惡露)가 내려오지 않고 도리어 출혈과 어지러움이 발생한다고 설명하여 기존에 널리 행해져왔던 풍습을 의학적으로 반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속설과 관련한 조목들에서는 이러한 의학적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존의 인식을 타파하고자 분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산 전의 주의사항 8조」의 <7. 출산 전부터 젖이 나오는 것은 간혹 있는 일로, 나쁜 것이 아니다.>에서는, 임신부와 젖, 그리고 태내의 아이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출산하기 전부터 젖이 나오는 일은 혈기가 강한 임신부에게 때때로 있는 일로, 좋은 일이다. 그런데, 세속에서는 태아가 젖을 뗀기 때문에, 그 아이가 이미 떨어졌다는 등으로 말하는 자가 있다. 당치도 않은 것이다. 이러한 일을 임신부에게 들려준다면, 걱정하여 방해가 되는 일이 많다. 또한 태내에서 젖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도 실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이가 태내에 있을 때는, 흰 막에 감싸져 있고, 게다가 자궁 안에 있는 것이다.⁷⁾

아이가 자궁과 흰 막에 의해 이중으로 감싸져있기 때문에, 미리 젖이 나오더라도 낙태와는 상관이 없다는 식의 설명이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의학적 설명은, 「산후의 주의사항 18조」에서도 반복된다. <4. 막(膜)을 입고 태어나는 아이는, 임신 중 버선이나 봉투 모양의 물건을 바느질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잘못된 의견이다.>에서도 다음과 같은 서술이 이루어졌다.

蓑子라 하여, 막을 입고 태어나는 일이 있다. 세속에서는 임신했을 때, 버선이나 봉투 모양의 물건을 바느질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또한 바보같은 소견이다. 앞에서도 말한 것과 같이, 일반적으로, 아이는 태내에 있을 때, 막에 감싸져, 봉투 속에 있는 것 같은 것이다. 짐승은 그대로 태어나지만, 사람은 태어날 때, 저절로 막을 벗고 태어나는 것이다. 포의(胞衣)라고 하는 것은 그 막에 뒤이어 봉투 밑바닥 같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천 백 명 중에는 가끔, 막을 벗지 않고 태어나는 일도 있을 만한 것이다. 막만 벗기면 별로 다르지 않은 사람이므로, 놀랄 일이 아니다.⁸⁾

7) 産せざる前より。乳汁出る事。血氣つよき妊婦に。ある事にて。よき事なり。しかるを。世俗は。胎児。乳ろびを。はなすゆへなり。其の子。既に。落ちたるなどいふ者あり。わけもなき言なり。かようの言を。妊婦に聞かせば。氣にかけて。妨げとなる事多し。又胎内にて。乳をくはへ居ると。いふことも。たはひもなき言なり。なべて。子の。胎内に居るときは。白膜につまれ。そのうへ。子宮の内にあるなり。

8) ふくろ子とて。膜を被ながら。生るゝ事あり。世俗は。懷胎の内。足袋。ふくろ様の物を。縫ふ故なりと

이와 같이 저자는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임신부에 대한 기존의 관습을 부정하여 임신 중·출산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였고, 미신적인 속설에 대해서도 터무니 없는 것이라 하여 임신부에게 정신적인 안정을 주고자 하였다. 이러한 특징에 대해 선행연구에서는 '구래의 '논(論)'보다도 사실에 의거한 경험이 우선되었'다고 하여 높이 평가하였다.⁹⁾ 이러한 특징은 두 번째 특징으로 이어가 살펴볼 수 있다.

둘째, '출산은 병이 아니'므로 자연스럽게 평소대로 행동할 것을 강조하였다는 점이다.

이미 저자의 스승인 가가와 겐에츠가 「서문」에서 제시하였듯, '출산은 병이 아니다(産は病にあらず)'는 주장은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장이다. 첫 번째 특징으로서 주장한 기존의 여러 관습·속설의 부정도 이러한 주장에 따라 보다 설득력을 얻게 된다. 예를 들어, 「출산 전의 주의사항 8조」 중 <3. 특히 기력이 없는 임신부가 복대를 착용하면 그 해가 현저하다.>에서, 복대의 착용에 의해 아이의 자세가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며, 임신부의 복대 착용에 대해 일부 인정하는 태도가 드러나는 단락이다.

그렇지만 세간에 복대를 하지 않는 임신부는 드물다. 과연 복대가 해를 일으킨다면, 그 사람들은 모두 난산(難産)에 이를 것이다. 지금 십중팔구는 안산(安産)하여 난산이 적은 것을 보면, 반드시 복대가 해를 일으킨다고도 말할 수 없지 않겠는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임신부가 건강하고 태아도 별 탈 없을 때는, 평소에 복대로 묶어, (아이의) 앉은자세가 나빠지더라도, 양쪽의 세(勢)가 좋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자연히 올바르게 돌아와 태어나고, 복대의 양화를 입지 않는 것과 같다. 그렇지만 어머니가 자식에게 불평(蹉跌)이 있을 때에는 … 마침내 난산에 이르러 복대의 해가 현저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출산은 병이 아니므로, 어찌 재해가 있겠는가. 또한 세상에 안산이 많은 까닭은, 임신은 병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 중에도 몹시 기혈(氣血)이 조화될 때가 아니라면, (임신은) 있지도 않은 일이므로, 다수는, 모자의 세(勢)가 돌아오기 쉽기 때문일 것이다.¹⁰⁾

이 단락을 통해 복대를 착용하는 것이 소극적으로 인정되기는 했지만, 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출산은 병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이 책에서 가지는 위상이다. 저자는 어머니와 태아가 모

いへり。是また。例の婆嫂了簡なり。前にいふごとく。なへて。子の胎内に居る。膜につままれて。袋の内にあるごとき者なり。畜類は。それなりに生れ。人は。生れしなに。ひとりと。膜ぬげて生るゝなり。胞衣といふ者は。その膜につづきて。袋の底の様に成。あるものなり。さあれば。千百人の中には。たまたま。膜とれずに。生るゝ事も。有るべき筈なり。膜だにとれば。別に相かはらぬ人なれば。驚く事にあらず。

9) 清水忠彦, 「「産家やしない草」考—現代語訳および注解—」, 近畿大学医学雑誌 24(1), 近畿大学医学会, 1999年, 14頁

10) しかれども。世間に。はら帯せぬ妊婦は。稀なり。果たして。帯が。害をなさば。其の人々は。悉く。難産に。をよぶ筈なり。今十に八九なでは。安産して。難産すくなきを。みれば。必ずしも。帯の害を。なすゆへとも。いはれざれざるに。あらずや。答えて曰く。妊婦健やかに。恙なきときは。日頃。帯にて。締めつけられ。居住まい。悪しく成り。居れども。両方の勢。よきゆへ。時節いたれば。のをれと。まんろくに。たちもどりて。生まれ。帯の祟りを。うけざるに。似たり。しかれども。母が。子に。蹉跌あるときは。… 遂に。難産にをよんで。はら帯の害。著しきなり。しからずんば。産は。病にあらざれば。いかで。災害のあるべき。又世に。安産多き所以は。懐胎は。病にあらず。平人の中にて。も。随分。気血。調和せる時に。あらざれば。なき事ゆへ。多くは。母子の勢よく。たちもどり。易ければなり。

두 건강하다면 복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임신·출산과 병의 관계에 대해 명확한 태도를 보인다. 즉, 출산 자체는 병이 아니므로 (복대 착용 여부보다는) 어머니와 태아의 건강상태가 출산 후의 아이의 상태를 결정짓는 것이며, 게다가 임신 자체가 어머니의 기혈(氣血)이 조화되었다는 증거이므로, 임신도 병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출산은 병이 아니므로, 자연스럽게 평소대로 행동해야 할 것이 강조되고, 이에 따라 저자가 지적하였던 기존의 여러 관습들, 즉, 복대를 착용하는 것, 식기(食忌)에 따르는 것, 뜨거운 물을 끼얹는 것, 다리를 구부리고 자는 것, 약을 남용하는 것, 무리하게 힘을 주는 것 등이 모두 설득력 있게 부정되는 논리구조이다. 이러한 점을 인지한다면, 특히 「출산 전의 주의사항 8조」의 <5. 임신 중, 식기(食忌)에 따르기보다 평소대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 조목에 대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출산은 병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따라 이 책에서 '천연(天然)'과 '자연(自然)'이라는 용어가 다수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해산시 주의사항 9조」의 <7. 출산 전·후 천연(天然)에 맡기면 낳기 쉽다.>에서는 타인의 도움에 의존하지 않고 출산할 것을 강조한다.

출산은 본디 병이 아니다. 고귀한 사람도 비천한 사람도 아내된 사람은 천연, 낳는 것이므로, 사람의 손을 빌릴 것이 아니라고 마음먹고 출산에 임하더라도, 반드시 서두를 일이 없을 것이다.¹¹⁾

즉, 출산과 '천연', '자연'의 관계는 다양한 맥락으로 서술할 수 있는 것인데, 출산은 병이 아니라 ①천연, 자연스러운 것이고 ②천연, 자연에 맡겨야 할 것이며 ③신분에 상관없이 천연, 자연스럽게 아내라면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출산은 병이 아니다', '천연', '자연'과 같은 표현은 이 책에 제시된 여러 조목들을 떠받치는 가장 핵심적인 근거로서 기능하고 있다.

셋째, '정신위생'이 강조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서술들에 의해 결국 '정신적 위생'이 강조된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출산은 병이 아니'기 때문에, 신체 상에 어떠한 조치를 가할 필요가 없고, 도리어 마음을 편하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서술된다.

4. 결론

이러한 특징들을 통해, 『우부야 야시나히 구사』는 먼저, 출산은 병이 아니라는 의견에 따라 평소대로 행동할 것을 가장 핵심으로 삼았으며, 이에 기존의 임신을 둘러싼 기존의 관습과 미신적인 속설에 대해서는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반증하였고, 결국 정신적인 편안함을 주장하여 궁극적으로는 '정신위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책이라 볼 수 있다. 다만 본고에서는, 『우부야 야시나히 구사』에 대해 이러한 논리구조를 통해 정신위생을 강조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단계에 그쳤다. 추후 이 책에 드러난 모자의 관계, 태교에 대한 인식 등을 보완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¹¹⁾ 産は本。病にあらず。高きも。卑くも。人の妻たる者は天然。産むべき筈の事なれば。人手を。借る事に。あらずとこゝろえ。産に臨んでも。必ず。せく事あるべからず。

Python 기반 『華年』 우생학 담론 연구

송연현(宋硯軒, 성균관대학교)

I. 서론

본 연구는 1930년대 중국 상하이에서 발간된 『화년(華年)』에 수록된 우생학 관련 문장들을 대상으로 Python 기반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실시하여, 우생학 담론의 중국적 수용과 토착화 양상을 규명하고자 한다. 『화년』은 판광단(潘光旦)을 중심으로 창간된 근대 중국의 우생학 전문 간행물로, 우생학을 과학 지식 차원을 넘어 민족주의·사회 개혁 담론과 결합시킨 중요한 텍스트이다. 본 연구는 우선 실증적 방법을 통해 『화년』 소재 우생학 문장, 저자 및 번역자의 신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정량 분석과 의미 해석을 병행하여 근대 중국에서 과학 지식과 민족 담론이 결합되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II. 연구 배경과 자료

중국에 소개된 우생학은 전통적 출산 장려 정책과 결합하면서, 근대적 위기 의식 및 민족적 치욕의식과 맞물려 독특한 양상을 보였다. 청말 개혁가들은 ‘동아병부(東亞病夫)’라는 부정적 자아상을 계기로 자강(自強)의 논리를 전개하였고, 강유위와 량치차오를 비롯한 지식인들은 학회의 설립과 집단적 학문 활동을 통해 민족의 부흥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담론적 맥락 속에서 우생학은 단순한 생물학적 논의가 아니라, 국가 생존과 직결된 사회진화론적 이데올로기로 수용되었다.

1920년대에는 판광단과 주건인 사이의 논쟁이 대표적이다. 판광단은 ‘우자소생·열자다생’의 역전 현상을 우려하며 유전적 우생학을 강조하였고, 전통적 효문화와 귀농 이념을 결합하여 출산 조절에 반대하였다. 반면 주건인은 사회 제도와 경제 구조의 불합리를 문제의 근원으로 지적하며, 피임의 합리성과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 논쟁은 비록 관점의 차이를 드러냈지만, 공통적으로 민족의 생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생학을 사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중국적 맥락에서 우생학은 서구 사회처럼 내부 집단을 선별하는 방향보다는 ‘민족 전체’를 세계사의 비교 구도 속에 위치시키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지식인들은 서구가 부여한 ‘열등 민족’이라는 낙인을 극복하고자 우생학을 과학적 근거로 활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민족 자강의 길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 승전 경험을 바탕으로 ‘야마토 민족’ 중심의 민족주의 담론을 강화한 것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결과적으로, 『화년』을 비롯한 근대 매체에 수록된 우생학 담론은 근대 중국에서 우생학이 단순한 생물학적 담론을 넘어 민족 정체성과 사회 개혁, 그리고 제국주의적 경쟁 질서 속 자강 전략과 결합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 우생학 담론이 근대 중국 지식계에서 가지는 문화정치적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화년』은 판광단이 주도하여 상하이에서 발간된 주간 시사 평론지로, 1935년 이후에는 「우생부간(優生副刊)」을 별도로 마련해 전문적 논의를 확장하였다. 총 123편의 우생학 문장이 실렸으며, 이는 창작문과 번역문으로 구분된다.

창작문은 주로 판광단의 저술로 이루어져 있으며, 확인된 70편 외에 ‘자송작(自訟酌)’, ‘감후(坎侯)’ 등의 필명으로 발표된 문장 역시 판광단의 것임이 후속 연구에서 밝혀졌다. 이를 합산하면 그는 총 76편을 집필한 셈이다. 이 외에도 오요종, 장계우, 이수청, 이경한 등 당대 중국

지식인들이 필진으로 참여하였다. 창작문은 유전학·생물학·사회학·교육학적 논의에서부터 여성·가족·혼인 문제와 종교적 성찰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주제를 포괄하였다.

번역문에는 국제 우생학 운동을 대표하는 주요 학자들의 글이 다수 포함되었다. 레너드 다윈의 문장 12편을 비롯해, 프랜시스 골턴, 코라도 지니, 엘즈워스 헨팅턴, F.C.S. 실러, 마리 E. 코프 등 서구 학자들의 연구가 번역되어 실렸으며, 성 심리학자 해블록 엘리스와 신경학자 조지프 콜린스의 문장도 포함되었다. 또한 미국 우생학자 폴 포페노에, 선교사 아더 헨더슨 스미스 등 다양한 필진의 글이 소개되었다.

III. Python 기반 우생학 텍스트 분석

본 장은 『화년』에 수록된 우생학 문장을 대상으로 Python 기반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해당 담론의 계량적 특징과 사상적 함의를 분석하였다.

번호	키워드	TF(단어 빈도)	DF(문헌 빈도)	TF-IDF_mean
1	民族(민족)	698	77	0.053
2	遺傳(유전)	614	62	0.050
3	社會(사회)	599	79	0.040
4	中國(중국)	480	78	0.037
5	優生(우생)	275	61	0.029
6	中國人(중국인)	256	51	0.028
7	問題(문제)	463	96	0.028
8	品性(품성)	321	55	0.027
9	生子(출산)	153	17	0.026
10	生活(생활)	377	87	0.026
11	人口(인구)	295	61	0.026
12	家庭(가정)	315	62	0.026
13	女子(여성)	281	48	0.026
14	自然(자연)	418	106	0.025
15	婚姻(혼인)	245	59	0.024
16	選擇(선택)	253	57	0.022
17	環境(환경)	249	65	0.021
18	方法(방법)	292	81	0.021
19	文化(문화)	217	51	0.020
20	分子(분자)	215	55	0.019

[표 1] 『화년』 소재 우생학 문장의 TF-IDF 상위 20개 핵심 키워드

1. TF-IDF 분석

TF-IDF 분석¹⁾ 결과, TF-IDF 분석 결과, 『화년』의 우생학 문장은 「민족」(TF: 698, TF-IDF: 0.053), 「유전」(614, 0.050), 「사회」(599, 0.040), 「중국」(480, 0.037), 「우생」(275, 0.029) 등에서 뚜렷한 집중성을 보였다. 이러한 수치는 단어들이 단순히 자주 등장했다는 사실을 넘어, 우생학 담론이 민족·국가적 의제에 가장 특징적으로 사용되었음을 계량적으로 입증한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담진(覃振)의 「장단평: 담진의 우생학적 민족 개량론」(『화년』 제3권 제10호)이다. 그는 이 글에서 “민족 체질의 강약이 곧 국가의 성쇠존망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주장하며, 우생학을 단순한 과학 지식이 아니라 곧바로 국가 존망을 좌우하는 ‘구국

¹⁾ TF-IDF 분석은 문헌 속에서 특정 단어가 한 문서에 얼마나 특징적으로 사용되는지를 계량화함으로써, 단순 빈도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핵심어를 추출하고 텍스트 주제의 중심축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TF는 단어가 등장하는 빈도를, DF는 단어가 등장하는 범위를 의미하며, TF-IDF는 두 지표를 종합하여 단어가 텍스트에서 지니는 핵심성과 변별력을 측정한다. 예를 들어, 이 통계에서 ‘민족’의 TF 값은 698(텍스트에서 매우 높은 빈도), DF 값은 77(77편 문장에서 출현)이며, TF-IDF 값은 0.053으로 나타난다. 이는 해당 단어가 자주 사용되면서도 동시에 구분적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며, 결국 텍스트 주제를 구성하는 핵심 키워드임을 의미한다.

의 과학’으로 위치시켰다.

동시에 「가정」(315, 0.026), 「여성」(281, 0.026), 「혼인」(245, 0.024), 「출산」(153, 0.026) 등은 우생학이 가족과 성별 질서를 규율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판광단은 「여자 교육, 가정의 전도와 종족의 운명」(『화년』 제4권 제21호, 1935)에서 여성 교육을 종족의 운명과 연결지었고, 포퍼노이는 「이혼과 재혼의 우생학적 관점」(『화년』 제3권 제24호, 1934)에서 “우량한 혼인은 우량한 민족의 전제”라 직설적으로 언급하였다. 이는 TF-IDF 값이 드러내는 의미가 단순 빈도가 아니라, 사회적 규범과 민족 담론이 만나는 접점임을 보여준다.

아울러 「문제」(463, 0.028), 「환경」(249, 0.021), 「생활」(377, 0.026), 「문화」(217, 0.020) 등의 키워드는 우생학이 단순한 과학 지식이 아니라, 중국인의 번식을 ‘질적 결핍’으로 진단하고 생활·환경·문화 개선을 통한 사회 개혁의 과제로 전환했음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화년』의 우생학은 ① 국족화, ② 가족화·성별화, ③ 사회·문화화라는 경로를 거쳐 단순 과학 수용을 넘어, 중국 근대화와 민족주의, 사회 개혁 의제 속으로 재맥락화되었다.

2. 워드클라우드 분석

워드클라우드에는 텍스트에 나타난 단어들의 빈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연구 대상이 지닌 핵심 어휘와 주제적 경향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기법이다. 『화년』에 수록된 우생학 관련 문장을 대상으로 워드클라우드를 구성함으로써, 당대 지식 담론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주요 개념과 관심사를 시각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표 2] 『화년』 우생학 문장 워드클라우드



첫째, 국족화 담론이다. 「민족-중국-사회-유전」가 고빈도 핵심어로 도출되었으며, 이는 우생학이 ‘국민 체질 개선-국가 운명’의 논리 속에 편입되어 ‘구국의 과학’으로 재정의되었음을 보여준다. 판광단의 글은 “국민 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중국 민족의 미래는 낙관하기 어렵다”는 경고를 통해 우생학을 곧바로 국가적 위기와 연결하였다

둘째, 가족화·성별화 담론이다. 「여성-혼인-가정-출산」이 또 하나의 축을 형성하였으며, 이는 성별 역할 규범과 출산 질서를 우생학적 시각에서 규율하는 논리를 강화하였다. 예컨대, 여성 교육은 민족 운명의 문제와 결합되었고, 이혼과 출산 절제는 집단적 건강과 사회 복지의

차원에서 정당화되었다. 개인의 ‘체질 부족’은 곧 민족적 쇠퇴로 연결되며, 가족 제도와 여성의 몸은 ‘민족 미래’의 매개로 재현되었다

셋째, 사회문화화와 방법화 담론이다. 「우생-문화-방법-문제」라는 어휘 군집은 우생학을 단순 과학 지식이 아니라 사회 병리 진단과 제도적 개혁의 도구로 전환시켰다. ‘인구 과잉’ 문제를 다루거나, ‘위생·환경·방역’ 운동과 결합한 사례는 우생학이 현실 사회를 분석·개선하는 실천적 지식으로 기능했음을 잘 보여준다.

더 나아가 『화년』은 과학 담론의 정당화 메커니즘을 통해 권위를 확보했다. 「미국」, 「서양」, 「영국」, 「교수」와 같은 어휘는 외부 학문 권위와 국제 네트워크를 소환하여 담론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장치로 작동했다.

3. LDA 분석

주제(T)	주제 라벨	키워드 및 가중치(상위 15)
T1	중국 사회와 가정·혼인 문제	사회(298.680), 중국(260.695), 문제(217.728), 가족(210.209), 중국인(199.979), 생활(169.823), 혼인(149.775), 자연(134.201), 여성(131.332), 방법(122.857), 남성(116.656), 서양(101.331), 결혼(99.508), 선택(94.230), 유전(89.063)
T2	민족 인구와 종교·유전론	민족(296.804), 인구(189.981), 종교(147.797), 사회(118.620), 유전(117.584), 생활(114.020), 문화(113.369), 자연(104.559), 분자(101.532), 종족(98.286), 기독교(91.972), 문제(85.613), 신앙(83.765), 저능(74.847), 영향(69.982)
T3	유전학과 우생 의학 방법	유전(118.678), 우생(77.206), 품성(67.651), 출산(64.818), 유전자(60.938), 방법(58.679), 세포(57.681), 정질(56.682), 부모(54.921), 생식(54.891), 사실(54.367), 환경(52.114), 수술(51.929), 염색(51.676), 결과(49.982)
T4	민족 유전 연구와 환경 건강	유전(264.537), 민족(254.087), 품성(156.885), 연구(125.725), 중국(123.799), 자연(123.220), 환경(113.287), 건강(113.038), 출산(110.943), 도태(105.394), 건전(100.326), 미국(95.342), 정도(89.218), 선택(87.256), 생물(86.282)
T5	교육과 인재 정책 하의 우생 산아 제한	사회(132.549), 문제(88.241), 인재(85.540), 교육(68.138), 여성(66.331), 민족(65.612), 종족(60.963), 방법(57.804), 산아조절(55.299), 우생(54.875), 생활(54.267), 불임·절육(53.155), 출산(52.701), 선택(52.081), 국가(51.726)

[표 3] 『화년』 소재 우생학 문장 LDA 주제모형²⁾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는 단어들은 단순 빈도가 아니라 의미적 연계를 형성하였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 LDA 주제 모델링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화년』의 우생학 논의는 다섯 가지 주제로 도출되었다. T1은 가정·혼인의 사회화, T2는 민족·인구·종교의 교차, T4는 유전·환경을 통한 민족 개량, T5는 교육·인재·산아 제한의 국가 전략을 보여주었다.

특히 T3 주제는 분석 과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수치적으로 “유전”(118.678)은 가장 높은 가중치를 기록하며 주제의 중심 단어로 기능하였다. 이는 『화년』 우생학 담론이 유전학적 설명을 단순한 보조 요소가 아니라 핵심 축으로 삼았음을 입증한다. 이어 “우생”(77.206)은 유전과 결합하여 과학적 설명을 사회적 실천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²⁾ 가중치는 각 주제 내에서 특정 단어가 가지는 상대적 중요성을 수치화한 값으로, 본 연구의 해석 과정에서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 첫째, 가중치가 높을수록 해당 단어는 주제와의 관련성이 크고 출현 빈도가 높아 핵심적인 의미축을 형성한다. 둘째, 가중치는 주제 내 핵심 어휘와 주변 어휘를 구분하는 지표로 기능한다. T3의 경우 ‘유전(118.678)’과 ‘우생(77.206)’은 핵심 개념을 구성하지만, ‘사실(54.367)’이나 ‘결과(49.982)’는 상대적으로 보조적 위치를 차지한다. 셋째, 가중치 값은 주제 해석의 근거를 제공한다. 연구자는 직관이 아닌 가중치가 높은 단어들의 조합을 통해 주제를 정의하고, 예를 들어 T2에서 ‘민족(296.804)’, ‘인구(189.981)’, ‘종교(147.797)’가 동시에 높은 가중치를 나타냄으로써 해당 주제를 ‘민족 인구와 종교·유전론’으로 규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가중치는 단어들 사이에 관계와 층위를 부여함으로써 주제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해석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방법”(58.679)과 “사실”(상위권)은 상대적으로 TF-IDF 값은 낮지만, “유전-우생”과 결합할 때 주제를 방법론적 층위로 확장시켰다. 즉, 이들은 중위권 단어이지만 LDA에서 함께 클러스터링되며, 주제가 단순 서술이 아니라 과학적 논증 구조임을 드러낸다. 또한 “세포”(57.681), “생식”(중위권), “환경”(52.114), “부모”(상위권) 등은 각각 생물학적·의학·사회적 차원을 보완하면서 주제의 다차원적 성격을 강화하였다.

종합적으로 볼 때, 『화년』의 우생학 담론은 다섯 가지 의미적 연계를 드러낸다. ① 민족-국가: 민족 체질과 국가 운명을 연결하고, ② 가정-사회: 혼인과 가정을 사회 운영 및 국가 건설과 결부시키며, ③ 유전-우생: 생물학적 설명을 우생학적 실천과 결합하고, ④ 교육-인재: 인재 양성과 산아 제한을 국가 전략으로 제시하며, ⑤ 환경-건강: 생활·위생·환경 조건을 민족 개량의 과제로 통합하였다. 이 다섯 축은 핵심어의 수치적 분포와 텍스트 논증이 결합하여, 우생학이 근대 중국의 민족 개조·사회 개혁·국가 통치를 정당화하는 핵심 담론으로 작동했음을 보여준다.

Selected Topic: 0 Previous Topic Next Topic Clear Topic

Slide to adjust relevance metric (λ)

$\lambda = 1$ 0.0 0.2 0.4 0.6 0.8 1.0

Intertopic Distance Map (via multidimensional scaling)

PC2

PC1

Marginal topic distribution

2%
5%
10%

Top-30 Most Salient Terms⁽¹⁾

Overall term frequency

Estimated term frequency within the selected topic

1. $\text{saliencey(term } w) = \text{frequency}(w) * [\text{sum}_i p(t_i | w) * \log(p(t_i | w) / p(t_i))] \text{ for topics } t_i$; see Chuang et al. (2012)
2. $\text{relevancey(term } w \text{ | topic } t) = A * p(w | t) * (1 - A) * p(w | t) / p(w)$; see Sievert & Shirley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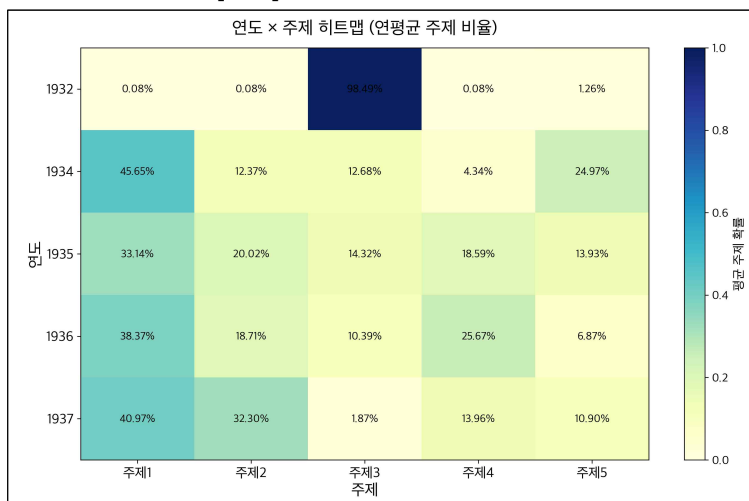
- 297 -

이러한 경향을 지지하였는데, 이는 가정·사회 의제가 전체 우생학 담론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민족·인구 문제와 과학적 논의가 그 뒤를 받치며, 교육·위생은 정책적 보조 축으로 기능했음을 보여준다.

Intertopic Distance Map은 주제 간 의미적 관계를 시각적으로 드러낸다. T1과 T4가 가장 근접한 것은 “가정·혼인·체질·국가” 등 공통 어휘를 공유하여 사적 영역과 국가 프로젝트를 긴밀히 연결했음을 반영한다. T2는 “민족·인구·국가”라는 집단적 범주를 통해 상층 구조를 형성하고, T3는 “유전·우생·방법·세포” 등 과학적 용어를 중심으로 독립적 위치를 차지한다. T5는 “교육·인재·산아 제한”과 연계되어 정책 실행의 영역에 속하며, 다른 주제들과의 거리를 통해 보조적 성격을 드러낸다.

종합하면, 『화년』의 우생학 담론은 민족-국가, 가정-사회, 유전-우생, 교육-인재, 환경-건강이라는 다섯 축을 통해 사적·사회적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재맥락화하며, 근대 중국의 사회 개혁과 민족 개조를 정당화하는 지식 구조를 구축하였다.

[표 5] 연도별 주제 분포 히트맵



연도별 주제 분포를 보면 초기인 1932년에는 T3이 98.49%를 차지하며, 담론이 전적으로 과학적 방법과 유전학의 정당화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1934년에는 T1(45.65%)과 T5(24.97%)가 부상하여, 논의의 중심이 과학에서 사회 통치와 가족 제도로 이동하였다. 1935년에는 T1(33.14%)·T2(20.02%)·T4(18.59%)가 균형을 이루며 우생학이 다층적 의제로 확장되었고, 1936년에는 T4(25.67%)가 급상승하여 환경 위생과 국민 체질의 해석이 강화되었다. 1937년에는 T1(40.97%)과 T2(32.30%)가 선두를 차지하여, 담론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가족·민족·국가 차원으로 이동하였다.

족일지라도 우생학의 도입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전반적 서구화론’과 ‘문화실조론’이 성행하던 시기에, 판광단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중화민족의 존속 가능성을 논증하면서, 학문적 태도로 민족 문제를 성찰하고 종족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판광단은 미국 장로교 선교사 아서 헨더슨 스미스(Arthur Henderson Smith, 음역 明恩溥)가 저술한 『중국인의 기질』을 번역하여 「서인(西人)의 국인(國人) 특성 관찰」 시리즈라는 제목으로 『화년』에 연재하였다. 판광단은 자신의 저서 『민족특성과 민족위생』의 서론에서 이 책이 지니는 네 가지 가치를 언급하였다. 첫째, 명씨와 중국의 관계는 오래되고 친밀하여 그 관찰이 결코 피상적이지 않다는 점. 둘째, 그는 기독교 교회의 선배들과도 적잖이 교류하였으며, ‘두뇌가 민첩하고, 시야가 예리하며, 변론 능력이 뛰어난 인물’로 평가받았기에, 그의 견문과 관찰을 무시하거나 경시할 수 없다는 점. 셋째, 『중국인의 기질』은 대체로 중국인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저작으로서, 일반 서양인의 피상적 기술이나 단편적 기록과는 동등하게 취급될 수 없다는 점. 넷째, 생물학적 도태의 학리적 측면에서 보아도 책의 진술은 일정한 불가피한 결과를 담고 있다는 점이다.³⁾

이와 같이, 명은포(明恩溥) 본인의 권위, 『중국인의 기질』이 제시한 묘사의 사실성, 그리고 우생학적 전문성은 판광단이 이 저작을 번역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요인이었다. 판광단은 명은포의 연구를 원용(援用)하면서도 이를 구망도존(救亡圖存)의 무기로 전환하여 “위아소용(爲我所用)”, “이아소용(以我所用)”의 전략을 도모하였다. 이로써 해당 번역의 가치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민족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적 자원으로 전환되는 변화를 보여주었다.

3) 潘光旦, 「“民族特性與民族衛生”自序」, 『華年』 제5권 제7호, 上海: 華年週刊社, 1936.

▶ 제10세션 (장소: 611호)

제10세션 (패널발표)		근대 표상-팸플릿과 이미지		
시간	발표자	발표제목	토론자	사회자
15:00~18:00	신동규 (동아대)	팸플릿의 개념과 특성 및 일제강점기 팸플릿 자료의 가치와 문제점에 대한 고찰	김기성 (동아대)	김기성 (동아대)
	나승희 (부산대)	신문·광고·도시의 확장: 일제강점기 일본어신문의 프로파간다적 연계에 관한 고찰 - 신문 기사와 광고의 연결성을 중심으로	임다함 (동아대)	
	阪野祐介 (長崎大学)	近代期に長崎を出立した「海外」旅行 - 長崎県立長崎中学校と植木元太郎を事例に -	김선희 (아주대)	
	황익구 (동아대)	조선부업품공진회와 부업 담론의 전개 -신문·잡지 미디어를 중심으로	양지영 (가천대)	
	허지애 (동아대)	1930년대 관광팸플릿의 기생 이미지 연구 -『경성정서(京城情緒)』를 중심으로-	최인택 (동아대)	
18:10~18:40	동아시아일본학회 2025년도 하반기 정기총회			
	2025년 동북아시아문화학회 정기총회 및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시상			
	폐회식			

팸플릿의 개념과 특성 및 일제강점기 팸플릿 자료의 가치와 문제점에 대한 고찰

신동규(동아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1. 머리말

이에 본 글은 일제강점기 팸플릿을 과연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집필하고자 한다. 첫째, 독자들에게 과연 팸플릿이라는 자료가 무엇인지, 또 그 개념 정의를 비롯해 팸플릿의 역사적 변화 과정과 그 가치 및 특성을 검토해 보는 것이다. 둘째, 일제강점기라는 약 35년 간의 시기에는 공적 기관으로서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 철도국, 각 도(道)·부(府)·군(郡)의 행정청 및 산하의 공적 기관 등에서 발행한 관제(官製), 사적인 기관·단체·기업·개인 등이 발행한 사제(私製) 등 무수한 팸플릿이 발행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팸플릿의 자료적 가치와 활용성, 또 이용상의 문제점과 그 학술적 연구의 한계성에 대해서 시론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팸플릿이란 무엇인가, 그 개념과 정의

1) 팸플릿에 대한 유네스코 정의

팸플릿은 과연 어떤 형태의 인쇄물로 개념을 정의할 수 있을까. 이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규정적인 측면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세계 공통의 규정으로서 최초로 보이는 것이 바로 1964년 11월 9일 제13회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도서 및 정기간행물의 출판에 대한 통계의 국제화, 또는 표준화에 관한 권고」¹⁾이다(1964년 10월 20일~11월 20일까지 프랑스 파리 개최). 원래 유네스코 헌장의 제8조에는 “회원국은 총회가 결정하는 양식으로 교육·과학 및 문화의 활동 및 기관에 관한 자국의 법령, 규칙 및 통계와 제4조 4항에 규정된 권고 및 조약에 따라 취한 조치에 대해 정기적으로 이 기관(유네스코)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 규정에 따라 “도서 및 정기간행물의 출판에 대한 통계를 수집 및 통보할 책임이 있는 국내의 기관이 이 통계의 국제적 비교성을 개선하기 위해 정의, 분류 및 제표(製表) 양식의 문제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따르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채택한 것이다.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도 채택하여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①총회는 국제적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가맹국이 국내법과 기타 형식에 따라 이 권고에서 정하는 기준 및 원칙을 자국의 관할 하에 있는 영역 내에서 시행하는 조치를 집행함으로써 도서 및 정기간행물의 출판에 대한 통계의 정의, 분류 및 제표 양식에 관한 다음의 규정을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②총회는 가맹국에 대해 도서 및 정기간행물의 출판에 관한 통계를 수집하고 통보할 책임

1) 유네스코 홈페이지, <https://www.unesco.org/en/legal-affairs/recommendation-concerning-international-standardization-statistics-relating-book-production-and>(확인: 2024년 10월 30일). 이하, 규정에 관련된 문구와 내용은 「도서 및 정기간행물의 출판에 대한 통계의 국제화, 또는 표준화에 관한 권고」에 따름.

이 있는 당국과 기관에 이 권고를 주지시킬 것을 권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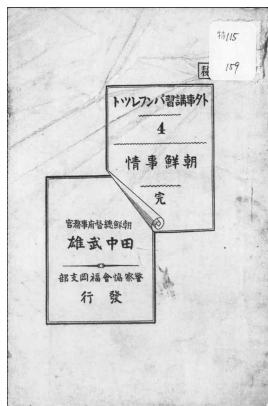
③총회는 가맹국이 이 권고에 대해 취한 조치에 관한 보고를 총회가 정하는 기한과 양식에 따라 총회에 제출할 것을 권고한다.

그렇다면 과연 이 채택된 권고안에서 팸플릿과 관련된 내용은 무엇일까. 권고안의 두 번째 항목인 「도서출판통계」 부분을 보면 범위, 정의, 계상 방법, 분류, 통계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정의'의 'a 항목'에는 책(book)에 대해서 “책(도서)이라는 것은 표지를 제외하고, 49 페이지 이상으로 구성된 비정기 간행물이며, 국내에서 출판되어 대중에게 공개된 인쇄물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b 항목'에서는 팸플릿에 대해 “팸플릿은 특정 국가에서 발행되어 대중들에게 제공되는 표지 페이지를 제외하고 최소한 5페이지 이상, 48페이지 이하의 비정기적인 인쇄 간행물이다.”²⁾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5~48페이지 사이는 팸플릿, 49페이지 이상은 '책(book)', 4페이지 이하는 전단·리플릿·브로셔·기타 인쇄물 등으로 분류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유네스코가 5~48페이지를 기준으로 출판물을 분류한 것은 당시 각국에서 '책·소책자·팸플릿'의 기준이 제각기였기에, 유네스코 권고안에서 확인되듯이 출판물의 국제적 통계 작성을 위해 객관적 기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다만, '5페이지', '48페이지'라는 제한을 둔 이유는 명확하지 않으나, 16페이지 짜리 3면 인쇄(16*3=48페이지)가 인쇄와 제본의 일반적 최소 단위였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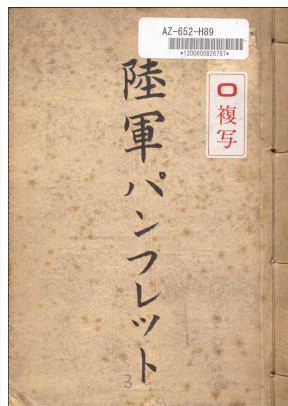
그러나 이 유네스코의 정의는 어디까지 채택된 1964년 11월 9일의 규정이며, 그 이전이나 특히 근대 시기 또는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모든 자료를 소급해 규정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한국의 경우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팸플릿은 팸플릿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도 49페이지 이상의 인쇄물들이 발행되고 있었다. 물론, [자료1]³⁾과 같이 이 규정에 적합한 48페이지 이하의 팸플릿도 당연히 발행되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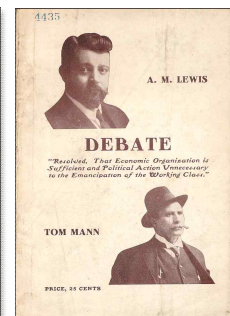
[자료1] 『朝鮮パンフレット-朝鮮愛國運動』, 총 44p.



[자료2] 『朝鮮事情-外事講習パンフレット4』, 총 68p.



[자료3] 『陸軍パンフレット3』, 총 420p.



[자료4] 『Debate between Tom Mann and Arthur M. Lewis at the Garrick Theatre, Chicago, Illinois, Sunday, November 16, 1913』, 총 82p.

대표적 사례를 소개해 보면, [자료2]의 1925년 일본 경찰협회 후쿠오카지부에서 발행한 『조

- 2) 일본의 문부과학성(文部科學省)에서도 「유네스코 관계의 법령」 안에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권고 일람」을 게재하고 있지만, 원문에 있는 'pamphlet'을 '소책자'로 번역하고 있어 '팸플릿' 자체를 소책자와 동일시 하고 있음. <https://www.mext.go.jp/unesco/009/1387084.htm>(확인: 2024년 10월 30일).
- 3) 曹喜俊, 『朝鮮パンフレット-朝鮮愛國運動』(財團法人社會教育協會, 1938), 필자 소장. 이하 소장처와 인용 정보를 표기하지 않은 것은 필자가 소장한 자료임.

선사정 외사강습 팸플릿4』(총 68페이지)⁴⁾와 [자료3]의 1937년 일본 육군성에서 발행한 『육군 팸플릿3』⁵⁾이다. 즉, 유네스코 규정 이전의 일이지만, 48페이지를 초과하고 있기에 책이라 할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발행 당시에 팸플릿으로 규정하고 있었다는 점이다(간이 제본). 특히 『육군 팸플릿3』은 그 책자 안에 『제국 및 열국의 육군(帝國及列國の陸軍)』이 사진을 제외한 186페이지와 부록, 『육군 군비의 충실과 그 정신(陸軍軍備の充實と其の精神)』 또한 사진을 제외한 94페이지와 지도, 『일만 관계의 재인식에 대해서(日滿關係の再認識に就て)』는 14페이지, 『일러전역을 생각한다(日露戰役を偲ぶ)』는 26페이지와 부록 16페이지 및 「육군기념일을 축하하는 노래」가 수록되어 있다. 총 420여 페이지에 달하는데, 여러 소책자를 묶어서 다시 제본을 하고 여기에 제명을 ‘팸플릿’이라고 붙였다고는 하지만, 수록된 팸플릿이 이미 48페이지를 넘어서고 있으며, 유네스코 정의와는 확연히 달랐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조선 광상론의 편린-고금서원 팸플릿』⁶⁾은 총 81페이지에 달하는 등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수많은 팸플릿이라고 하는 자료들이 49페이지 이상의 분량이다.

더군다나 일본 국회도서관에서는 1910~1920년 사이의 영국의 의회 정당 정치와 관련된 선전 인쇄물 컬렉션에 「영국 정당 팸플릿」이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48페이지 이하의 자료도 포함되어 있지만, 역시 49페이지 이상의 자료들도 상당수를 포함하고 있다([자료4]⁷⁾ 참조). 이것은 아직도 일본은 국립 도서관에서조차 1964년 유네스코 규정 이전의 자료에 대해서는 유네스코 팸플릿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네스코의 권고안에서 정의된 팸플릿의 규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1964년 11월 9일 이후에 실시된 것으로 근대 시기, 또는 일제강점기에 인쇄된 팸플릿 자료를 그 규정에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내재할 수밖에 없다.

2) 팸플릿의 개념 정의와 유사 인쇄물

한편, 팸플릿의 개념을 정리하기에 앞서 팸플릿(pamphlet)을 비롯해 이와 유사한 ‘리플릿(leaflet)·북클릿(booklet, 소책자)·브로셔(brochure)·카탈로그(catalog)’ 등의 용어, 그리고 이들 자료는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가에 대해 통상적인 측면에서 간단히 살펴보겠다. 전술한 바와 같이 유네스코 채택안에서는 팸플릿을 4~48페이지의 분량으로 비정기적인 인쇄물로 규정했으나, 이것은 도서 제작의 통계를 작성하는 목적이었기에 일반적인 팸플릿의 개념이나 정의라고 확정할 수는 없다. 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각기 용어에 대한 유래와 설명을 사전에 준거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팸플릿(pamphlet)이라는 단어인데, 「옥스퍼드 영어 사전」(이하 ‘OED’로 표기)에서는 “특별한 주제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얇은 책자, 종이 표지 혹은 일반 제본 없이 간단하게 만들어진 책자 형태”⁸⁾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옥스포드 학습자 사전(Oxford Learner’s Dictionaries)」에서는 동의어로 ‘리플릿(leaflet)’을 표기하고 있다.⁹⁾ 다만, 영문의 ‘온라인 어원

4) 田中武雄 著, 『朝鮮事情-外事講習パンフレット4』(警察協會福岡支部, 1925), 일본국회도서관 디지털아카이브, <https://dl.ndl.go.jp>(확인: 2024년 11월 2일).

5) 陸軍省, 『陸軍パンフレット3』(陸軍省, 1937), 일본국회도서관 디지털아카이브, <https://dl.ndl.go.jp>(확인: 2024년 11월 2일).

6) 中村新太郎, 『朝鮮鑛床論の片鱗(古今書院パンフレット)』(古今書院, 1928). 총 81쪽.

7) 『Debate between Tom Mann and Arthur M. Lewis at the Garrick Theatre, Chicago, Illinois, Sunday, November 16, 1913』, Charles H. Kerr & Co., 1914. 일본국회도서관 디지털아카이브, 특수 디지털컬렉션(영국정당 팸플릿), <https://dl.ndl.go.jp>(확인: 2025년 9월 6일).

8) OED, ‘pamphlet’, <https://www.oed.com>(확인: 2024년 10월 3일). 이하 사전 확인 날짜는 동일.

9) OLD, ‘pamphlet’, <https://www.oxfordlearnersdictionaries.com>.

사전]에서는 “제본하지 않은 작은 논문으로 14세기 후반 팸플릿(pamflet)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간단한 서면 텍스트, 시, 소책자, 작은 책자를 의미한 앵글로·라틴어 팸필루스(pamphilus)에서 유래한 것”¹⁰⁾이라고 한다. 즉, 통상적으로 팸플릿은 소책자(booklet), 리플릿(leaflet)을 포함한 인쇄물을 말하는데, 정확한 분량 표시는 하지 않고 있다.

둘째, 리플릿(leaflet)은 「OED」에서 “광고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배포되는 1장 또는 여러 장의 종이 인쇄물”로 “보통 무료로 배포”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¹¹⁾ 「OLD」에서는 동의어로 북클릿(booklet)과 팸플릿(pamphlet)을 표기하고 있다.¹²⁾ 쉽게 설명하자면, 1장의 종이, 또는 이를 접어서 만든 인쇄물, 몇 장의 인쇄물도 여기에 포함되며 팸플릿보다는 그 종류나 유형의 범위가 약간 좁기는 하지만, 여러 번 접혀 있어 휴대성이 좋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통상적으로 정확한 규정 없이 팸플릿·리플릿·전단지, 일본에서는 여기에 치라시(チラシ)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1장의 종이에 다양한 정보를 담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셋째, 북클릿(booklet)인데, 「OED」에서는 “일반적으로 종이 표지(paper cover, soft cover)로 된 작고 얇은 책자”로 “특정한 주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출판물”로 정의하였고,¹³⁾ 「OLD」에서는 “특정 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출판물로 종이 표지가 있는 작고 얇은 책자”¹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소책자로 번역하고 있다. 다만, 이 용어 역시 팸플릿에 소책자가 포함되고 있고, 그 분량이 정해져 있지 않아 근대에 발행된 48 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소책자일 경우, 팸플릿과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발생한다. 물론, 현재 유네스코에서는 49쪽 이상의 제본한 인쇄물을 ‘책자(book)’로 규정하고 있다.

넷째, 브로셔(brochure)는 「OED」에서 “몇 장의 리프(leaf, 종이 낱장으로 2페이지분)를 꿰매어 만든 짧은 인쇄물로 팸플릿이라고도 함. 또한, 특정 장소의 편의 시설 등을 설명하는 작은 팸플릿이나 소책자”라고 정의하고 있으며,¹⁵⁾ 「OLD」에서는 “광고용이거나 제품·회사 등에 관한 사진(pictures)과 정보를 포함한 작고 얇은 인쇄물이나 온라인 문서 형태”¹⁶⁾라고 기재하고 있다. 브로셔의 형태와 분량에 대한 유네스코의 기준도 없으며, 사전에서도 이를 명확히 언급하고 있지 않아 애매한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팸플릿보다는 작은 분량의 인쇄물을 의미하는 경향이 있으며, 현재 영미권에서는 정보·교육 목적이면 팸플릿, 광고·홍보 목적이면 브로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⁷⁾

다섯째, 카탈로그(catalog, catalogue)는 「OED」에서 “박물관·도서관·상점 등의 소장품이나 물품·작품 등을 나열한 출판물 또는 문서 형태”¹⁸⁾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OLD」에서는 “사람들이 볼 수 있거나 살 수 있는 물건의 전체 목록”¹⁹⁾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즉, 많은 제품과 관련 정보를 일람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며, 팸플릿과 같이 복수의 종으로 제작된다. 팸플릿에

10) Online Etymology Dictionary, ‘pamphlet’, <https://www.etymonline.com>.

11) OED, ‘leaflet’, <https://www.oed.com>.

12) OLD, ‘leaflet’, <https://www.oxfordlearnersdictionaries.com>.

13) OED, ‘booklet’, <https://www.oed.com>.

14) OLD, ‘booklet’, <https://www.oxfordlearnersdictionaries.com>.

15) OED, ‘brochure’, <https://www.oed.com>.

16) OLD, ‘brochure’, <https://www.oxfordlearnersdictionaries.com>.

17) Modern Litho, <https://modernlitho.com/resources/pamphlets-vs-brochures> : Kansas University, Community Tool Box, <https://ctb.ku.edu/en/table-of-contents/participation/promoting-interest/brochures/main> ; GeeksforGeeks, <https://www.geeksforgeeks.org/marketing/difference-between-pamphlet-and-brochure>(이상의 URL 확인: 2025년 9월 21일).

18) OED, ‘catalog’, <https://www.oed.com>.

19) OLD, ‘catalog’, <https://www.oxfordlearnersdictionaries.com>.

서도 제품과 서비스 정보를 수록하기도 하지만, 그 주된 목적은 제품과 서비스에 관한 고객 지식의 폭을 넓히는 것에 있다. 반면에 카탈로그는 특정 사항이나 제품에 대한 목록과 성능·크기·가격·접근이나 구매 단계 등의 직접적인 정보를 게재하여 주문이나 구매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 다만, 일제강점기 팸플릿의 범주에 넣기에는 그다지 사례가 많지 않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결국 제일 중요한 분류와 구별의 기준은 “①1장의 종으로 제작되었는가, 여러 장의 종으로 제작되었는가, ②전체 페이지 수, ③제본이 되어 있는 표지와 소책자의 여부, ④정기적인가, 비정기적인가, ⑤내용이 정보 전달인가, 상품의 선전인가, ⑥수익의 창출이 기대되는가 아닌가”로 확인할 수 있으며, 결국 팸플릿은 이러한 기준 속에서 개념을 정의해야 한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근대 시기, 특히 일제강점기의 팸플릿에는 유네스코의 통설적 규정 이외의 다양한 인쇄물도 팸플릿이라고 한 경우들도 있고, 또한 본 글에서 완벽하게 정의를 내리기에는 필자가 소장한 1,500여 건의 팸플릿 자료로도 부족해 보인다. 하지만, 본 글에서 팸플릿 자료의 학술적 활용과 역사적 가치를 살펴보기 위해 일단 팸플릿이 리플릿과 브로셔 및 소책자 등을 포함한 가장 큰 범주의 포괄적 용어라고 잠정적으로 전제해 둔다. 물론, 엄밀히 형태적인 측면과 유네스코의 정의를 따르자면, 1~4쪽의 인쇄물은 리플릿과 브로셔로 나눌 수 있지만, 가장 상위의 포괄적 용어는 역시 팸플릿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팸플릿은 “종으로 제작되었으며, 간이 제본으로 1~48쪽 이내의 비정기적인 인쇄물”이고, 예외적으로 “근대 시기의 48쪽 이상이라도 간이 제본(실이나 끈, 또는 호치키스 제본)의 소책자도 여기에 포함한다.”는 시험적인 정의를 내려두겠다. 즉, 1964년 11월 9일에 유네스코가 규정한 4~48페이지라는 규정에 한정하지 않고, 근대의 인쇄물, 즉 리플릿, 브로셔, 전단지, 소책자 등의 다양한 형태의 자료도 팸플릿이라는 기본적인 큰 범주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팸플릿의 역사적 변화

4. 팸플릿의 역사적 가치와 프로파간다로서의 특성

5. 일제강점기 팸플릿의 자료적 가치와 문제점

※ 위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프린트물을 참조.

6. 맺음말을 대신해

지금까지 본 글에서는 팸플릿 자료를 대상으로 개념 정의, 역사적 변화와 프로파간다로서의 특성을 비롯해 일제강점기 팸플릿의 자료적 가치 및 그에 따른 문제점 등을 살펴보았다.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의 팸플릿에 대한 연구는 미개척 분야이고, 그 시작 단계에서 미약하게나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역시 단순한 자료의 나열로 그 특성을 몇 가지 점에서 정리한 수준이라 학술적 연구라고 하기에는 대단히 부족한 측면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것도 필자가 소장한 1,500여 종의 팸플릿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만 소개한 것으로 무수히 많은 미발견의 자료는 아직도 명확하게 존재한다. 지금도 전 세계의 어느 곳인가에서, 아니면 해외나 한국·일본의 옥션, 고서점 등에서는 매우 희귀하고 자료적 가치가 높은 팸플릿들이 아직도 꾸준히 경매나 판매품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학술 연구 측면에서의 가치와 활용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외면받고 있으며, 수집가들에 의한 고가 소장품과 희귀성으로서의 가치만 극대화되어 박물관·자료관을 비롯해 역사 관련 연구기관에서는 몇 점의 전시용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인류 역사에서 인쇄술이 정착한 이후, 팸플릿만큼 당대의 정치·경제·사회·문화라는

대범주를 폭넓게 소재로 삼고 있는 자료 또한 그다지 없을 것이다. 여기에 관제·사제를 포함해 기관·단체·기업·개인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부류가 제작·발행하였기에 그 종류와 자료의 수량 또한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무수히 많다. 물론, 이 거대한 팸플릿 자료군을 총망라하여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한 작업으로 보이지만, 일제강점기라는 시기로 한정한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학술 연구 기초자료로서의 가치는 말할 필요도 없고, 이를 DB로 구축하여 활용한다면 더 많은 관련 학술 분야로의 파급효과 또한 커질 것이다. 특히, 팸플릿은 일제의 식민지 조선 지배의 양상과 역사적 전개를 그 어떤 자료보다도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여기에 수록된 텍스트와 사진·삽화·지도·통계는 역사적 고찰의 객관성·실증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자료이기에 앞으로도 학술적·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커질 것으로 기대되는 자료이다.

끝으로 본 글에서 미처 언급조차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독자들의 양해를 구해 본다. 바로 일제강점기 팸플릿 연구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자료의 분류, 팸플릿 수록 텍스트와 사진·삽화(조감도) 이미지에 대한 분석인데, 이에 대해서는 금후의 과제로 삼아 더 많은 자료의 섭렵과 분석을 통해서 연구를 이어가도록 하겠다.

신문·광고·도시의 확장:
일제강점기 일본어신문의 프로파간다적 연계에 관한 고찰
- 신문 기사와 광고의 연결성을 중심으로

나승희(부산대학교 일본연구소 전임연구원)

1. 들어가기

신문, 방송 등 미디어의 사회적 역할과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이른바 ‘광고에 동원되는 저널리즘’¹⁾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실제로 특정 기업에 대한 호의적인 보도와 광고 매출의 상관관계가 우려되는 경우가 많고, 광고주가 광고비를 지불하면 원하는 내용을 미디어에 실는 뉴스유형의 광고나 기사유형의 광고도 자주 눈에 띈다. 특히 신문광고는 방송에 비해 빠른 시기인 근대 초기에 언론매체로 성립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대중의 신뢰를 받으면서 공적 미디어로서 성장해왔기에, 신문이라는 매체에 대한 믿음이 신문에 실리는 광고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기 쉽다. 하지만 실제적인 사실과 정보를 전달하는 신문 기사와는 달리 광고에는 광고주의 이익 추구가 반영되어 있으며, 경제적 효용을 기반으로 한 산업적 측면이 크게 작용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신문 미디어를 둘러싼 산업적, 경제적인 연결성을 기사와 광고의 유착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일찍이 일제강점기 국내에서 발행된 일본어신문에 신문 기사와 광고의 연계적 양상이 강하게 드러나 있어 주목할만 하다.

알려진 바와 같이, 1883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신문인 『한성순보(漢城旬報)』가 발행된 이후, 개화기부터 1910년을 전후하여 순한문신문, 한글신문, 국한문혼용신문, 일본어신문 등 다양한 형태의 신문이 등장하였다. **(자료1)** 일본어신문이 본격적으로 한반도 주요 지역에서 발간된 것은 1910년 전후이지만, 국내에 등장하기 시작한 시점은 개화기 초기부터이므로 조선총독부 한글기관지 『매일신보(毎日新報)』(1910)가 발간되기 이전에 이미 한반도 주요 권역의 중심 도시에서 발행되어 동시대 국내의 신문미디어에 직, 간접의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대 초기 국내에서 발행된 대부분의 일본어신문은 현재 유실된 상태이며, 총독부 일본어기관지 『경성일보(京城日報)』(경성), 민간지인 『조선시보(朝鮮時報)』(부산), 『부산일보(釜山日報)』(부산), 『조선신문(朝鮮新聞)』(인천)의 4종이 보존되어 있다. 현존 4종의 일본어신문에는 사설, 정치면, 사회면, 문예물, 상황(商況), 각종 기획기사 및 담론, 지방판 등과 함께 광고란이 편성되어 있으며, 전체 지면 대비 광고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일제강점기 일본어신문은 동시대 한글신문 및 국한문혼용신문에 비해 광고란의 지면과 개별 광고의 개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광고를 기반으로 한 기사나 기사를 매개로 한 광고도 자주 등장한다. 또한 『경성일보』 『조선시보』 『부산일보』 『조선신문』의 지방판 지면에서도 기사와 광고의 연계적 양상이 두드러지는데, 부산과 인천 이외에 인근 지역 광고(상품, 지점, 행사, 개인, 단체홍보 등)가 별도로 실려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지역 일본어신문 광고란의 확장을 통해 인근 지역의 독자와 광고주를 확보하려는 신문사의 상업적 의도를 엿볼 수 있으며, 동시에 조선총독부의 통치하에 주요 거점도시(무역향)에서 진행되던 문화적 동화 정책 및 식민도시화가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는 상황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광고 저널리즘의 원형으로 추정되는 일제강점기 일본어신문(4종) 기사

1) 김병희(2018) 「언론과 광고: 경계 대상 1호는 ‘광고에 동원되는 저널리즘’」 『신문과 방송』 2018년 4월호(통권 568호) 언론진흥재단, p96

와 광고의 상호 연계적 양상을 파악하고, 저널리즘을 통한 프로파간다가 식민지 지역문화와 경제를 장악해가는 정황을 추론하고자 한다. 4종의 국내 발행 일본어신문은 전국으로 유통되는 일간지이자 각 지역권역을 대표하는 지방지의 성격도 담고 있으므로, 지역 주민들의 삶과 지역문화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광고란에 초점을 맞추어 근대 초기 신문을 고찰함으로써, 한글신문과 일본어신문, 총독부 기관지와 민간지, 중앙지와 지방지 등으로 구분되는 강점기 미디어를 더욱 다각적, 종합적인 측면에서 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연구와 국내 발행 일본어신문의 현황

최근 개화기 이후 발행된 신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근대 초기 신문광고 연구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일례로 순한문지 『한성순보』, 국한문혼용지 『한성주보(漢城週報)』와 『황성신문(皇城新聞)』, 최초의 한글 일간지 『매일신보』에 대한 다면적인 접근 및 분석이 진행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화기 이후 신문미디어의 성립 및 발전과정이 정립되고, 신문광고의 현황 및 광고사 연구도 활발해졌다. 다만 이러한 선행 신문 연구의 대부분이 한글신문 및 국한문혼용신문에 집중되어 있거나, 일제강점기 전후로 중앙(경성)에서 발행된 총독부 기관지 위주로 진행되어 아쉬움이 남는다²⁾. 러일전쟁 이후 경성, 부산, 인천 등 한반도 주요 지역권역에서 일본어신문이 발간되어 근대 지방도시의 구축에 직, 간접의 영향을 끼친 점을 상기하면, 기존의 신문연구의 외연을 확장하여 국내 발행 일본어신문에 기록된 지역 주민들의 삶과 문화를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근대 초기 신문연구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현재 남아있는 4종의 국내 발행 일본어신문 『경성일보』 『조선시보』 『부산일보』 『조선신문』의 기사와 광고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관련 동시대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1910년을 전후로 일본에서 동시대 신문개황(概況) 발간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즉 일본을 비롯하여 식민 침략지역인 조선, 만주(滿洲), 타이완(臺灣) 등 동아시아 일대에서 발간된 주요 일본어신문의 서지사항을 총정리하여 『신문명감(新聞名鑑)』(1909)과 『신문총람(新聞總覽)』(1911)등의 저서를 편찬한 것이다. 저서를 기획하여 발간한 곳은 현재 ‘덴쓰(Dentsu)’로 알려진 ‘일본전보통신사(日本電報通信社)’라는 광고대행사이다. 당초 ‘일본광고주식회사’로 설립된 ‘일본전보통신사’는 1906년 경성에 진출하여 같은 시기에 발간된 『경성일보』의 광고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광고주의 의뢰를 받아 광고를 제작하고 광고 게재를 위해 신문사와 논의를 대행하는 광고회사가 주체가 되어 신문 개황을 진행했다는 사실로 미루어보아, 상업적 측면에서 이미 신문과 광고의 업종별 연계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신문명감』과 『신문총람』에는 신문 발행과 관련된 현황은 물론, 신문 및 광고의 중요성, 기자의 역할 등을 강조하는 등 신문과 광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폭넓게 기술되어 있다. 먼저 『신문명감』을 살펴보면, ‘전국의 63개 주요 신문 연혁(全國六十三大新聞沿革)’이라는 항목하에 63종의 신문연혁이 정리되어 있고, 각 신문사의 연혁과 소재지, 신문사 사장의 성

2) 개항기에 발행된 각각의 신문을 개별적으로 연구하거나, 특정 광고에 집중하여 1910년대 신문광고의 양상을 추론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신문광고 연구사의 자세한 동향은 졸고(2024) 「근대 초기 국내 발행 일본어신문의 광고 심벌라이징」 『일어일문학』 제120집, 대한일어일문학회) 참고요망) 마정미 외 6인(2009)의 연구자가 『광고라 하는 것은』(커뮤니케이션북스)에서 개화기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신문광고와 사회상을 개관하여 『매일신보』를 중심으로 일제강점기 광고환경을 분석하였으며, 신문 발행 당시의 시대상과 광고란을 고찰한 것으로 정진석(1990/1991) 「광고사회사 I (한말-1920)」(『광고연구』 제7호) 「광고사회사 II (일제하의 광고)」(『광고연구』 제12호)가 대표적이다. 이들 연구를 통해 근대 초기 국내의 신문 및 광고사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한글신문 및 국한문혼용신문에 대한 연구이며 한반도에서 발행된 일본어신문은 대부분 연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명, 전화번호 등이 실렸다. 경성에서 발간된 총독부 기관지 『경성일보』가 1909년 당시 일본의 각 지역을 대표하는 ‘전국의 63개 주요 신문³⁾’으로 꼽힌 점도 특기할 만하다.

『신문총람』은 『신문명감』에 비해 조금 더 상세하게 신문일람표와 신문 개황을 정리하고, 신문협회 위원 및 주요 신문기자의 성명, 신문광고의 연혁, 광고대행업, 통신사업과 광고, 광고 통계표 등의 관련 사항을 상술하였다. 특히 『신문총람』에서는 일본의 각 지역을 도쿄도(東京都), 교토부(京都府), 오사카부(大阪府), 홋카이도(北海道),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을 비롯한 43개의 현(県)으로 나누었으며, 당시 일본 통제하에 있던 동아시아 각 지역을 사할린(樺太), 타이완(台灣), 조선(朝鮮), 상해(淸國), 만주(滿洲), 하와이(布哇), 홍콩(香港)으로 분류하여 일본어신문 총 220여종에 편입시켰다. 또한 각 신문사의 신문지명, 소재지, 조직, 지면 폭, 광고료, 설비, 경영진 및 간부진 성명 등을 요약하여 ‘전국 신문일람표(全國新聞一覽表)’를 작성하고, ‘전국 신문지 개황(全國新聞紙概況)’이라는 제목으로 신문사의 연혁과 현황, 광고통계표 등을 공개하였다. 『신문총람』에는 『경성일보』『경성신보(京城新報)』『군산일보(群山日報)』『조선신문』『조선시보』『부산일보』『원산매일신문(元山毎日新聞)』『북한일보(北韓日報)』『평양일보(平壤日報)』『평양신문(平壤新聞)』『광주신보(光州新報)』의 11종이 ‘朝鮮(조선)’에서 발행된 일본어신문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신문지 개황’에는 실리지 않았지만, ‘전국신문일람표’에 수록되어 있는 『목포신보(木浦新報)』『진남포신보(鎭南浦新報)』『마산신보(馬山新報)』『대구신문(大邱新聞)』『압강일보(鴨江日報)』까지 포함하면 총 16종의 한반도 발행 일본어신문이 소개된 셈이다.(자료2/자료3) 『경성일보』『조선시보』『부산일보』『조선신문』 관련 항목을 『신문총람』 소재 <전국 신문일람표>에서 발췌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1> 현존 국내 발행 일본어신문 4종의 개황(일부)⁴⁾

신문명 항목	『경성일보』	『조선시보』	『부산일보』	『조선신문』
소재지	조선 경성 야마토초(大和町) 1초메(1丁目)	조선 부산항 벤텐초(辨天町) 3-11	조선 부산항 대정초(大廳町) 4-14	조선 인천
조직	개인	합자	합자	개인
창립연월	1906년 11월	1892년 7월	1905년 1월	1908년 12월
활자종류	보통 5호	보통 5호	보통 5호	보통 5호
자호	1행 18	1행 17	1행 17	1행 17
행수	1단 100	1단 60	1단 96	1단 96
단수	1쪽(頁) 8	1쪽 8	1쪽 8	1쪽 8
광고료 정가	일반지면 50 특별지면 80 잡보(雜報)지면 100	일반지면 25 특별지면 50	일반지면 20 특별지면 40	
사장(지배인) 주필 광고 판매 주 임	사장 겸 주필 :요시노 다자에몬 (吉野太左衛門) 영업주간 :가와시마 기이(川島喜 彥) 편집장 :나카가와 가부코(中川嘉三郎)	사장 다카키 스에무라(高木末 熊) 지배인 와카야마 스에미치(若山末 彦) 주필 무라타 히로유키(村松祐 之)	사장 겸 주필: 아쿠타가와 다다시(芥川 正) 지배인 이다 신야(飯田信 也) 광고주임 아케다 마사히	대표자하기야 도시오(萩谷壽 夫) 주필 : 도이 소이치(土屋聰一) 광고주임 :오노시 요타로(尾形豊太郎) 판매주임 :오마 모리헤(小盛)

3) 국내에서는 1907년 ‘광무신문지법(光武新聞紙法)’이 공포되었으며, 1910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신문지법’이 시행되어 기존의 언론이 재편되었다. 신문지법의 공포 및 시행을 기점으로 일본인이 경영하는 16개의 일본계 신문사를 통해 약 32종의 일본어신문이 존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16~18종의 일본어신문이 발간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종 자료를 통해 일본의 신문계에서 이 시기 한반도 발행 일본어신문을 ‘전국신문’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광고주임 야타 스에(山田 雄) 판매주임 다카 마사(田中 善)	로 (池田政寛) 판매주임 야타 신(飯田 信也)	쥬

그밖에, 『신문총람』 소재 <전국 신문지 개황>에는 제호 사진(일부 신문), 경영진 사진, 전화번호 등이 명기되어 있어 1911년 시점에서 4종의 일본어신문을 비롯한 동시대 신문의 현황을 비교해 볼 수 있다. 4종의 일본어신문과 관련하여 일본계 사장 및 지배인이 신문사 설립을 주도한 점은 알려진 사실이지만, 대표(사장)나 지배인, 편집장, 주필 등의 주요 경영진뿐만 아니라, 광고 및 판매 주임을 주요 직책으로 인식하고 신문사별 광고 판매 관련 인적 자원의 광고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 점에서 자본주의 경제에 기반을 둔 일본 신문문화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즉 현황은 신문사의 광고 수입이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⁵⁾.

현존 국내 발행 일본어신문 4종의 총 지면 대비 광고 지면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표2> 현존 국내 발행 일본어신문 4종의 광고지면 구성(일부)⁶⁾(유실 지면 제외)

구분	신문명 발행시기	『경성일보』	『조선시보』	『부산일보』	『조선신문』
광고 지면	1910년대		총6면/광고5면	총4-6(10)면/광고4-6(10)면	
	1920년대	조간, 석간 각 총4-6면/광고4-6면	총4면/광고3-4면	총8면/광고8면	총4-12면/광고4-12면
	1930년대	상동	총4(6)면/광고3-4(6)면	총6-10면/광고6-10면	조간, 석간 총4-6면/광고4-6면
	1940년 전후	상동/주말 지면 증가	총6면/광고6면	조간, 석간 각 총4-6면/광고4-6면	조간, 석간 각 총4-8면/광고4-8면
특징 및 변화		주말 지면 증가, 주말 전면광고/ 전국구 광고와 시내판, 경성판 광고 구분	1910년대 1일 1-2면 전면광고(주말전면광고)/1920년대 중반 이후 석간 체제, 전면광소 감소/1930년대 중반 이후 전체 지면에 광고	1910년대 지방판 포함 1일 총 4-10면 전면광고/1920년대 전면광고 감소/1930년대 전면광고 증가 채색광고 등	1910년대 1일 1-2면 전면광고/1920년대 주말 지면 증가/총 지면 유동적/1930년대 시내판 구분, 이후 전면광고 감소

<표2>를 참고하여 국내 발행 일본어신문의 구성을 살펴보면 『조선시보』를 제외한 3종의 신문은 거의 모든 지면에 광고가 실린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경성일보』는 부정기적으로 <경제>란이 편성되었을 때 해당 지면에는 광고가 거의 게재되지 않았고, 상업지를 전신(前身)으로 하는 『조선시보』는 <상황>이 구성된 지면에 광고가 실리지 않았다. 1910년대 발행본이 현존하는 『조선시보』와 『부산일보』는 비교적 빠른 시기의 신문에서 전면광고를 찾아볼 수 있는데, 1930년대 『부산일보』에 붉은색 채색된 전면광고가 실린 점도 특징적이다. 수도권역인 경성, 인천에서 발행된 『경성일보』와 『조선신문』은 총 지면 및 광고란의 분량이 많고, 주말에

- 4) 1911년 발간된 『신문총람』의 기재사항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므로, 신문의 창립 연월일 및 일부 사항이 일반적으로 전해지는 현재의 서지사항과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다. 필요시 개별적으로 주석을 추가하여 보충 설명하겠다. 日本電報通信社(1911) 『新聞總覽』 pp.48-52
- 5) <표1>에 의하면, 중앙지인 『경성일보』와 지역지인 『조선시보』 『부산일보』 『조선신문』은 미기재)의 광고료 정가가 상이한데, 일본의 주요 일간지인 도쿄, 오사카의 『마이니치신문』 『아사히신문』의 광고료 역시 일본내 다른 지역신문에 비해 거의 2배에 가까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 『규슈일일신문(九州日日新聞)』을 비롯한 지역지의 광고료가 보통 지면:25엔(圓) /2회 이상:22엔 /특별 지면:50엔 /기사 내 광고:60엔인데 비해, 『마이니치신문』 『아사히신문』은 보통 지면이 65~75엔으로 시작하고 있으므로 일본어신문의 경영에 경제적 논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6) 일본어신문 4종의 총 분량이 방대하고, 근대 초기의 신문이라 구성 및 체제가 유동적인 부분이 많아 추후 세부사항을 보충해서 수정 및 보완할 예정이다.

는 광고가 게재된 지면이 총 12면까지 증가하였다. 4종의 일본어신문에 실린 광고는 공통적으로 도로, 철도, 선박, 열차, 수리(水利) 등의 기간 산업, 생활산업(간장, 술, 담배, 화장품 및 약품, 음식점, 도소매 유통상점, 택시, 주조, 음식 등), 문화행사 및 여가산업(일본전통예능, 연극, 영화, 벚꽃 및 국화감상회, 박람회, 바둑, 경마 등 각종 대회, 해수욕장, 캠핑, 숙박), 기타 경품행사, 월부판매, 세일광고 등이며, 근대 초기 산업 분야 전반에 걸쳐 망라되어 있다.

3. 일본어신문 기사와 광고의 연계

알려진 바와 같이 일제강점기 일본어신문은 국내의 언론계를 식민지 통치에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개편된 신문정책인 광무신문지법을 배경으로 발행되었다. 개화기 이후 한글신문 및 국한문혼용신문을 중심으로 국내의 언론계가 형성되어 독자적인 신문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었으나, 일본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한 일본어신문이 잇따라 발간되어 발행 부수를 늘려가자 기존의 신문도 차츰 영향을 받게 되었다. 특히 광고의 제작 및 편성을 중심으로 국내의 신문 광고란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기사와 광고를 연계하는 경우도 많았다.

예를 들면 현존하는 4종의 일본어신문 『경성일보』 『조선시보』 『부산일보』 『조선신문』에는 공통적으로 지역 명주(名酒)를 소개하는 기사의 하단 광고란에 당시 국내에 진출한 일본 주조회사의 주류(酒類)광고가 자주 실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병원을 소개하는 기획기사와 동일지면의 광고란에 특정병원을 홍보하는 문구가 쓰여 있거나, ‘벚꽃감상회’ 기사에는 벚꽃 명소를 운행하는 임시열차 광고가 올라온다. 국경여행자를 취재한 지면에 여행 물품 관련 판매업체의 광고가 실리고, 경마장신설 기사와 경마대회를 알리는 광고가 연일 이어진다⁷⁾. 병원탐방 특집 기사와 병원 광고, 온천 소개 기사 및 각종 행사 안내와 교통편 광고 등이 동시에 게재되어 소비의 편의성을 도모하기도 하지만, 특정산업에 대해 기사와 광고를 상호 연계시키는 방식은 오늘날 종종 거론되는 ‘광고에 동원되는 저널리즘’과도 무관하지 않다.

『경성일보』 『조선시보』 『부산일보』 『조선신문』에는 광고란에 실리지 않거나 광고 레이아웃을 벗어난 기사 형식의 광고도 자주 등장하는데, 주로 총독부의 각종 정책과 관련된 산업진흥, 위생, 교육 등의 공지, 공고 형태가 많다. 해당 기사가 실리면, 관련 상품인 일본산 기계, 비료, 위생용품 등의 광고가 주변 지면에 게재되어 정책의 효과와 필요성을 직, 간접적으로 강조하는 방식이다.(자료4)

신문 판매량과 사회상의 변화에 따라 광고의 내용은 유동적으로 변하기도 하는데, 기사와 연계된 광고의 흐름을 주시해 보면 신문물의 유입경로 및 수출입현황, 상업적인 유행, 일본 기업들의 조선 진출전략 등이 투영되어 있어 신문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식민근대도시 확장의 의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실제로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기사일수록 광고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어 문예란 근처의 지면에 지역 서점 광고를 실거나, 여행 관련 기사와 지방의 열

7) <기사와 광고의 연계 예시>(분량 관계상 일부 예시)

신문명	발행일자	품목	기사	광고
조선시보	1915.08.24.	병원	2면:병원순회(3)미쓰후지안과의원(病院めぐり(三)光藤眼科醫院)	1면: 미쓰후지안과의원(光藤眼科醫院)
조선시보	1918.03.06.	담배	1면: 동아담배 대성황(東亞煙草大盛況)	1면: 동아담배주식회사(東亞煙草株式會)
조선시보	1927.01.09.	포목	3면: 호리구치상점 신춘대매출 (堀口商店の新春の賣出し)	3면: 부산 호리구치 서양옷 포목점 (釜山堀口洋反物店)
조선시보	1930.10.31.	식품	3면: 소개-진로상점현금판매행사일(紹介金露現金デー)	3면: 진로상점(金露商店)
경성일보	1927.07.26.	자동차	3면 : 캠핑예찬(キャンピング禮讃) / 제1회 캠핑대회	3면:DOOGE BROTHERS MOTOR CARS
부산일보	1934.01.17.	간장	1면(석간): 잡어 폐기물에서 맛있는 소스와 간장 등 조미료가 만들어진다. (雑魚の廢物から美味しいソースや醬油の調味料が出来る)	3면(01.18.): 3대 명장류식품 깃코만간장, 호마레된장, 깃코류간장(三大銘醸品 キッコーマン ほまれ味噌 キッコーリュウ)

차노선 광고 또는 여행물품 판매점 광고를 게재하는 등, 신문물의 유입 현황에 맞추어 지역의 시장을 조절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4. 기사·광고의 연계와 로컬경제, 도시의 확장

4종의 일본어신문은 발행지역 이외의 주변부의 소식을 지방판으로 엮어서 발행하였다. 현존하는 가장 빠른 시기의 지방판 지면은 부산권역의『조선시보』 지방판이며, 1914년 11월 발행의 지방판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점차 지방판의 편성이 늘어나서 1930년대에는 4종의 일본어신문이 모두 지방판을 발행하였다. 『조선시보』의 경우 1910년대에 주로 대구지국 개설을 기념하는 <조선시보 경북판 일간>(1914)과 <경남물산 공진회 기념 양산호>(1915) 등을 발행하는데, 이는 지역의 특별한 사항 및 일정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주변 지역에 대한 지방판 발행이 확대되었으며, 발행 빈도 역시 점차 증가하여 1920년대에는 『경성일보』 『조선신문』 『부산일보』도 거의 정기적으로 지방판을 편성하였다. 4종의 일본어신문은 신문별(특히 중앙지와 지방지)로 지방판 편성과 광고 방식이 상이하여 『경성일보』와 『조선신문』은 시내판을 구분하였고, 『조선시보』와 『부산일보』는 인근 지역의 지방판을 별도 지면으로 구성하였다. 지방판 광고란에 광고를 실는 방식 역시 각 신문의 특징이 나타난다. 『조선시보』는 지방판의 광고란에 주로 해당 지역의 상품 및 광고주에 대한 정보를 실었으나, 『부산일보』와 『조선신문』에는 지역의 중심지인 부산, 인천지역의 광고가 우선적으로 게재되었다. 『경성일보』는 지방판에 주로 경성 소재 산업 및 상점의 광고를 실었다.(자료5)

『조선시보』를 제외한 3종의 신문은 수도권역에 집중하거나 주요 거점도시 중심의 유통과 홍보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지방판 광고 방식은 도시의 소비를 지역으로 확장하는 동시에, 지역의 로컬경제를 축소시킨다. 기사와 광고의 연계를 통한 반복과 각인을 통해 서구식 신문미디어를 접한 적이 없는 지역주민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제국주의에 대한 문화적, 경제적 동화와 종속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신문 발행과 운영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해 일본어신문사가 광고주의 상품판매에 유리한 기사를 작성하거나, 식민지 시장의 확대를 위해 도시의 물리적, 심리적 공간을 확장하고 기사와 광고의 상업적 연계를 강화하게 된 측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5. 결론

근대 초기 ‘신문’은 대표적인 신문화 콘텐츠였다. 신문의 대중 매체로서의 보편성, 확장성은 ‘근대’의 정신, 문화, 지성을 대변하였으며, ‘광고’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새로운 소통 방식이자, 판매방식이었다. 실제로 개화기 초기 국내의 신문에 광고가 실리기 시작하면서부터 한글판 『독립신문(獨立新聞)』에 광고의 중요성과 광고료에 대한 글이 실렸고, 『제국신문(帝國新聞)』의 논설에 광고가 언급되기도 했다⁸⁾. 『매일신문(每日新聞)』 『황성신문』 등의 초기 신문에서도 광고료 수입에 대한 글을 찾아볼 수 있는데, 광고를 둘러싼 이러한 관심은 광고의 기능과 효율성에 대한 자각의 과정이기도 했다. 이후 일본어신문의 광고문화가 급속도로 유입되면서부터 기사와 광고를 상호 연결하는 광고 저널리즘이 확산되고, 신문이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로서의 역할을 넘어 식민통치와 자본주의 시장 확대를 위한 프로파간다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 국내 발행 일본어신문 4종의 기사와 광고의 연계를 고찰함으로써 근대 초기 신문에 투영된 자본주의의 민낯과 식민지 경제 매커니즘, 그리고 오

8) 정진석(1990) 『광고사회사 I (한말-1920)』 광고연구 제7호/여름호 참조

늘날 우려하고 있는 광고 저널리즘의 원형을 찾아볼 수 있었다.

<주요 텍스트>

『京城日報』(1924.01.01.~1939.01.04./일부지면 결호 및 유실) 京城日報社. 『釜山日報』(1914.12.01.~1944.03.31./일부
지면 결호 및 유실) 釜山日報社. 『朝鮮時報』(1914.11.02.~1940.11.28./일부지면 결호 및 유실) 朝鮮時報社.
『朝鮮新聞』(1924.01.01.~1942.02.28./일부지면 결호 및 유실) 朝鮮新聞社.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https://nl.go.kr/ne>(검색일2025.9.3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검색일
2025.09.30.)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https://home.pen.go.kr/siminlib/main.do>)(검색일2025.09.10.)

近代期に長崎を出立した「海外」旅行 ー長崎県立長崎中学校と植木元太郎を事例にー

阪野祐介(長崎大学)

[目次]

[目次]

1. はじめに	3. 資料の分析と考察
	1) 長崎県立長崎中学校関連資料
2. 研究対象と資料について	2) 植木家資料
1) 長崎県立長崎中学校と関連資料	
2) 植木元太郎と関連資料	4. おわりに

1. はじめに

本研究の目的は、日本において近世までの日本の玄関口の機能を独占していたのとは異なりつつも、近代以降もなお上海航路など海外の玄関口として機能していた長崎に注目し、長崎を出立した「海外」旅行の主体や日程、目的などについて明らかにすることである。本セッションのテーマが「植民地・観光・イメージ」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直接的にイメージ資料を中心とした分析を行うわけではない。しかしながら、植民地ツーリズムに関わるイメージ資料の分析は、他者表象の問題も含め制作主体や観光客を誘致するホスト側に焦点を当てた研究に収斂する傾向にある。しかしながら、観光空間においては、訪問するゲスト側の行動、つまり旅行記などの分析やそこに掲載されたイメージにも着目し、比較検討をおこなうことで、「植民地・観光・イメージ」の多角的な把握が可能となると考える。それゆえ、本報告では旅行者側に注目し分析・考察することを目的とし、長崎県立長崎図書館郷土資料センター（以下、郷土資料センター）、および長崎歴史文化博物館に所蔵されているもので、「朝鮮」、「鮮満」、「満鮮」、「旅行」をキーワードに検索し得られた資料の紹介・分析を中心に行いたい。

さて、本研究の背景について述べると、報告者はこれまで、近代期に帝国日本が「外地」・植民地において作製した都市図類を対象に、年代別刊行状況や地図の種類、作製背景、描写内容について。その対象地域は、大連や植民地期朝鮮の海港都市である。大連を対象とした研究では、近代大連を描いた日本作製都市図について、主に国会図書館所蔵のものを中心に60点あまりをデータベース化し、各都市図の作製プロセスや年代的特徴を明らかにした。個別に取り上げた都市図は20点ほどで、軍部や統治機関、満鉄作製のものから民間作製の商工案内図や観光リーフレット、鳥瞰図など多岐にわたる都市図について類型化するとともに、1930年代以降のツーリズムの都市図への影響についても考察した（阪野2016）。

植民地期朝鮮を対象とした研究では、旧韓末から植民地期朝鮮におけるローカルな都市の近代的経験を考察すべく、これまで十分に焦点化されていない地方都市を描いた都市図の調査と書誌情報のデータベース化、および作成方法や描写内容の通時的・共時的分析による都市図の特徴を明らかにすることを目的とした。特に、異文化接触の場といえる海港都市の清津、元山、釜山、馬山、木浦、郡山、仁川、鎮南浦、新義州を対象とした。調査の結果、175点の都市図の現存を確認し、書誌情報をデータベース化した。

植民地期朝鮮を対象として個別研究としては、釜山を対象に基礎的研究を行った。まず48点の釜山の都市図を地形図、都市計画図、商工案内図、住宅地図、観光案内図に分類し、商工案内図の分析からは日本人社会をそのまま移入するという日本の植民地支配の特徴や、観光案内図の分析からは等高線など地形情報が省略される一方で名所や店舗などの位置情報に特化する傾向を明らかにした（阪野2020）。

同じく、釜山を描いた吉田初三郎鳥瞰図を対象として研究では、鳥瞰図の作製背景や構図、地理情報のデータベース化、描写内容の分析に基づき他者／他所表象に関する考察を行った。本鳥瞰図は、1929年の朝鮮博覧会開催時に宣伝用に作製されたもので、鳥瞰図に描かれた釜山は、帝国日本の視線によって日本の時空間に包含され、朝鮮の人々の時空間が、いかに不均衡な力関係のもと隠ぺい、忘却、排除されているかを明らかにした（阪野2021）。

以上の研究テーマにおいては、日本を含む近代東アジア海港都市を描いた都市図という視覚的資料を中心的な資料として研究を展開している点に第一の特色がある。また、ポストコロニアルの視点から植民地における権力と空間の関係や、多様な主体が交差する海港都市における人びとのくらしや異文化接触の様相を探り、近代都市における近代的経験を明らかにしてきたことに意義があるものとする。本研究もまた旅行者の側に注目しつつも、これまでの研究視点に立脚して行うものである。

2．研究対象と資料について

1）長崎県立長崎中学校と関連資料

長崎県立長崎中学校に関して近世以来の系譜を紐解くと、1858（安政5）年に岩原屋敷内（現在の長崎歴史文化博物館敷地内）に置かれた英語伝習所を始まりとする。その後、数度の移転・改称を経て、1868（明治1）年に旧県庁（長崎西役所跡）に移転し「廣運館」に改称され、1870（明治3）年に大蔵省所管、1871（明治4）年に文部省所管となった。翌1872（明治5）年には「学制」頒布により第五大学区第一番中学校となるも、翌年には廣運学校に改称された（長崎縣教育會1942、93頁）。1874（明治7）年には二度改称され、まず長崎外国語学校、次いで長崎英語学校となった。その後、1878（明治11）年に長崎英語学校を廃止して長崎中学校へと変更された。その後、長崎中学校は再度長崎外国語学校と改称されていたが、1884年に、長崎外国語学校を分割する形で長崎県立長崎中学校（以下、長崎中学校）が独立設置され（長崎縣教育會1942、947-948頁、長崎県史編集委員会1976、783-785頁）、この年を創立年としている。

この長崎中学校では、遅くとも1924（大正13）年から第五学年が修学旅行で上海へ、その後遅くとも1933（昭和8）年からは朝鮮・満州へ修学旅行に行っており、それに関連する資料の現存を確認し、閲覧することができた。そのため、本研究の対象の一つとして長崎中学校の修学旅行を扱うこととした。その長崎中学校の「海外旅行」に関わる資料は、戦前期に旅行をした当時に刊行された資料と、戦後に同窓会会誌などでかつての「海外旅行」を回想する形で刊行された資料に分類される。

前者に含まれる資料は、『学友会雑誌』、『鳴滝文林』、『[昭和十三年五月]満鮮旅行之栞』、『[写真]・鮮満修学旅行』である。『学友会雑誌』、『鳴滝文林』は校内で刊行されていた雑誌で、現存を確認し閲覧できたものは、『学友会雑誌』については1899年から1939年にかけて発行された第17号から第70号までのうち30件（欠号あり）である。『鳴滝文林』については1931年から1937年にかけて発行された創刊号から13号までの13件である。両資料には、学生が執筆した修学旅行の紀行文も掲載されており、旅程が比較的詳細に書かれているほか、彼らの目に映った

ものや、思考・感情なども読み取ることができる。

『[昭和十三年五月]満鮮旅行之栞』、および『[写真]・鮮満修学旅行』は、1938年に実施された「満鮮修学旅行」にあわせて作成された栞が1件と、翌年1939年に実施されたと考えられる修学旅行時にいくつかの訪問地で撮影された集合写真等8点であり、こちらも当時の修学旅行の様子をうかがい知ることのできる重要な資料といえるだろう。本研究ではこれら前者の資料を中心に分析しつつ、戦後に刊行された同窓会誌等の資料も補助的に用いる。

2) 植木元太郎と関連資料

もうひとつ、近代に長崎を出立した海外旅行に関わる資料として注目されるのが『植木家資料』である。これは、明治から昭和前半にかけて長崎県島原地方を拠点に実業家・政治家として活動した植木元太郎に関係する資料であり、2008(平成20)年に植木家の蔵に保存されていた2万5千点を超える膨大な資料を、植木元太郎の孫にあたる植木和憲氏が長崎県立長崎図書館へと寄贈したものである。現在は、同館郷土資料センターで整理・保管され、一般にも公開されている。この『植木家資料』資料のなかから今回取り扱う資料は、植木元太郎が実際に行った海外旅行に関する『満州旅行調書』(整理番号110)と『満州旅行(写真)』(整理番号111)、『満州旅行』(整理番号112)の3つの資料群である。これらは、植木元太郎が1923(大正12)年に大連で開催された第20回帝国鉄道協会総会へ参加するための旅行に関わる資料である。

植木元太郎(以下、植木)と鉄道との関わりについて知るために、彼の略歴を確認しておきたい。植木は、1857(安政4)年8月2日に多比良村(現在雲仙市)で生まれ、1874(明治7)年に家督を相続し、酒造業に就き、1879(明治12)年頃には養蚕・製糸・果樹などの技術改良普及に努めたとされる。1889(明治23)年に多比良村村会議員に当選し、翌々年には島原町の中山文樹氏と共に島原銀行を創設、1892(明治25)年には長崎県議会議員に当選した。その後、「鉄道狂」と呼ばれるほど植木は鉄道事業に熱心に取り掛かり、1905(明治38)年には自ら「鉄狂斎」と称するようになった。1908(明治41)年に島原鉄道を創設、専務取締役役に就任。大正2年(1913年)に島原鉄道は全線開通し、翌年には初代社長に就任した。この間、衆議院議員にも当選している。島原鉄道開通後も、鉄道事業に邁進し、口之津鉄(1919年)や温泉鉄道(1920年)を設立し、経営に携わっていった。1940(昭和15)年には初代島原市長に当選したが、1943(昭和18)年1月25日に85歳で生涯を閉じている(長崎県立長崎図書館郷土資料センター)。このように実業家、政治家の顔をもつが、とりわけ鉄道事業への情熱の傾け方は大きかったようである。

以上のように、長崎を出立した海外旅行として、学生と実業家という二つの社会的属性による海外旅行に関する資料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た。次章では、この二つの資料群をそれぞれ個別に紹介し、二つの海外旅行に関する予察的考察を行いたい。

3. 資料の分析と予察的考察

1) 長崎県立長崎中学校関連資料

『学友会雑誌』、『鳴滝文林』、『[昭和十三年五月]満鮮旅行之栞』、『[写真]・鮮満修学旅行』の4種の資料を中心に、長崎中学校の「海外」修学旅行について整理する。

a. 長崎中学校の海外旅行 まず、長崎中学校で海外旅行が行われるようになったのは、上述の通り、資料で確認できる範囲で1924(大正13)年から1930(昭和5)年までは第五学年が修学旅行で上海へ行っていることが確認できる。同年、まさに長崎―上海間の国際定期航路が開設

された時であり、同じく同年雑誌『旅』が創刊され、まさに日本郵船の「日支連絡船 長崎丸及上海丸」の広告も掲載された年であった（白幡1996）。とくに長崎市民にとっては旅券が不要な上海航路の開設により、上海は非常に身近な場所となったとされる。なお、それ以前の1910年代では修学旅行は、関西、伊勢神宮、東京への国内で実施されていた。朝鮮・満州への修学旅行は、遅くとも1933（昭和8）年から実施され、日米開戦前年の1940（昭和15）年まで行われたものと考えられる。

b. 旅程 上海への修学旅行は、1925年の場合、国内での修学旅行と同様、船内泊を含め1週間の日程で行われ、長崎を出港し訪問地は上海市内のみである（『学友会雑誌』第56号、1926）。1930年の場合も1週間の日程で行われているが、訪問地に杭州が組み込まれているほか、上海県人会による歓迎会も含まれている。「満鮮」への修学旅行は、1933年の場合、12日間の日程で行われており、午前長崎駅を出発し下関から関釜連絡船で二日目の早朝に朝鮮に入り、その日のうちに京城へと移動している。京城では2日間を過ごし、四日目早朝に計上を出発し、平壤を経由、満州へと入っていく。満州では、奉天、新京、撫順、旅順、大連を巡り、大連港を出港し船内で二泊し門司港に入り、鉄道で長崎へと帰る。1938年の場合、13日の日程で行われており、午後11時過ぎに長崎駅を出て、翌日の早朝に下関から関釜連絡船で朝鮮に渡り、釜山に一泊している。その後の旅程は1930年と同様である。以上の旅程は、荒山（1999；2007）が明らかにした、1920年代から1930年代にかけて、鉄道局やジャパン・ツーリスト・ビューロー、南満州鉄道株式会社（以下、満鉄）などが、ガイドブックや観光リーフレットで提示した「満鮮周遊旅行」や「満州旅行」の旅程と類似しており、当時の鮮満植民地ツーリズムの定型化した空間ともいえる。

c. 集合写真 長崎中学校の修学旅行に関する資料、『[写真]・鮮満修学旅行』は、上述の通り、8点の写真からなる。内訳は、7点の集合写真と1点のスナップ写真で、それぞれ写真裏に日付と撮影地が手書きされている。その撮影地は、以下のとおりである。「於京城 慶昌苑（ママ）」、「於京城南大門・朝鮮神宮下」、「於平壤牡丹台風致地区」、「平壤府牡丹台乙蜜台」（スナップ写真）、「於旅順東鶏冠山北堡壘」、「於旅順市外水師營会見所」、「於大連星ヶ浦遊園地／銅像ハ後藤新平伯」。さて、ブルデュー（1990）が、祝祭には集団を再生し、再創造する働きがあるとするデュルケムを援用しながら述べているように、「祝祭」の集合写真は、そこに映る集団を統合するとともに、「祝祭」の記憶を再生することを助けることで、集団を統合する「祝祭」を反復させる役割をもつとする。観光もまた非日常という点から一つの「祝祭」の時空間ととらえることができる。新たな帝国の領土・領域をめぐる植民地ツーリズムが、旅行者に帝国臣民としてのアイデンティティ形成に働き、帝国の維持に作用したことが指摘されているが、これら植民地と戦跡を訪問する修学旅行で撮影された集合写真もその機能を担っていたといえよう。

2）植木元太郎関連資料

上述の通り、植木元太郎は、1923（大正12）年5月9日に大連で開催された第20回帝国鉄道協会総会へ参加するために、朝鮮・満州・関東州を訪問している。旅程は鉄道協会が準備した船舶・鉄道での移動であったようで、植木元太郎は家族数名とともに、5月4日に多比良を出発し、下関から関釜連絡船で釜山に入り、京城、平壤、奉天、大連と移動し、大連を拠点に旅順や満州・長春、撫順炭鉱などを視察し、大連航路ではなく往路を戻す経路で帰路につき、5月21日に午後7時40分に多比良の自宅に戻っている。

本報告では植木家資料に含まれている旅程表やガイドブック、観光リーフレット、写真等の分

析を行い、また吉田初三郎との関連性についても言及するが、紙幅の都合上、その内容については当日の発表で提示したい。

4. おわりに

以上、本報告では植民地ツーリズムを経験する側の資料の分析を中心に行った。本報告で紹介する両事例が、荒山（1999、2007）が示した定型化された植民地ツーリズムの空間を補完する事例となりうると同時に、植木家資料からは、ガイドブックや観光リーフレットを消費する側の様相の一端を明らかにすることができる可能性が示唆される。

本報告では資料紹介にとどまり、いまだ数多くの課題が残されているが、観光リーフレット等の植民地ツーリズムに関わるイメージ資料の分析として、観光客を誘致するホスト側、観光開発側、あるいは観光空間を設定する側が制作主体となっているものと、訪問するゲスト側、観光空間を経験する側の紀行文から明らかとなる行動パターンやイメージ資料を交差させること、つまり比較分析を通して、植民地ツーリズム、ひいてはイメージ研究に関する多角的な分析が可能となると考える。そのためにも、本報告のような個々の事例研究の積み重ねも重要であろう。また、海外への修学旅行の開始時期や旅程等を他地域発着の修学旅行との比較から、長崎からの植民地ツーリズムのもつ地域性や、他地域との共通性についても検討してゆきたい。

主要資料

『植木家資料』植木家、1923～1925（長崎県立長崎図書館郷土資料センター所蔵）

『学友会雑誌』長崎県立長崎中学校、17～70号（欠号あり）、1899～1939（長崎県立長崎図書館郷土資料センター、長崎歴史文化博物館所蔵）

『〔昭和十三年五月〕満鮮旅行之栞』長崎県立長崎中学校、1938（長崎県立長崎図書館郷土資料センター所蔵）

『〔写真〕・鮮満修学旅行』長崎県立長崎中学校、1939（長崎県立長崎図書館郷土資料センター所蔵）

『鳴滝文林』長崎県立長崎中学校、1～13号、1931～1937（長崎県立長崎図書館郷土資料センター所蔵）

参考文献

荒山正彦（1999）「戦前期における朝鮮・満州へのツーリズムー植民地視察の記録『鮮満の旅』から」関西学院史学26、1-22頁

（2007）「リーフレットかわみる満洲ツーリズム」中西遼太郎・関戸明子編（2008）『近代日本の視覚的経験ー絵地図と古写真の世界ー』ナカニシヤ出版、163-181頁

阪野祐介（2016）「植民地都市大連を描いた都市図（韓国語）」、権京仙他編『大連環黄海圏海港都市100余年の軌跡』ソニン、287-321頁

阪野祐介・金仙花（2020）「帝国日本が作製した釜山の都市図に関する基礎的研究」海港都市文化交渉学22、115-159頁

阪野祐介・金潤煥（2021）「植民地都市釜山を描いた吉田初三郎鳥瞰図と他所表象（韓国語）」文化歴史地理33-2、49-68頁

白幡洋三郎（1996）『旅行のススメ』中公新書

長崎縣教育會編（1942）『長崎縣教育史 上巻』長崎縣教育會
長崎県史編集委員会（1976）『長崎県史 近代編』長崎県
ピエール・ブルデュー監修、山縣熙・山縣直子訳（1990）『写真論：その社会的効用』法政大学
出版会

参考ウェブサイト

長崎県立長崎図書館郷土資料センター「植木元太郎略歴」
<https://nagasaki-lmc.jp/top/local/present-day/biography/> （2025年9月27日閲覧）
本報告では、その時代の様相をとらえることを目的とすることから、当時の資料で記されている
「朝鮮」「京城」などの用語はそのまま表記することを先に述べておく。

조선부업품공진회와 부업 담론의 전개-신문·잡지 미디어를 중심으로

황익구(동아대학교)

1. 서론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에서는 쌀 수입량의 감소와 1918년 시베리아출병으로 인한 심리적 요인 등으로 쌀값이 상승하면서 쌀 부족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그 후 일본은 부족한 쌀을 조선이나 대만 등의 식민지로부터 대량으로 반출하는 한편 식민지에 대한 식량 및 원료 공급지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조선에서는 조선총독부가 1920년부터 ‘산미증식계획’을 수립하고 쌀 생산량 확대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산미증식계획으로 증산된 쌀의 대부분은 일본으로 반출되었으며, 쌀 가격이 낮게 책정되어 농촌경제는 피해를졌다. 또 쌀을 중심으로 한 단작형 농업 구조로 인해 농민들은 식량 자급과 생계유지가 곤란한 처지에 내몰리면서 농촌경제의 어려움과 사회 불안이 더욱 가중되는 양상이 되었다. 결국, 이러한 양상은 중·소농민의 농가 부채 증가, 소작농의 몰락으로 이어지면서 조선 농촌경제의 파탄을 가속화 하는 요인이 되었다.

주의할 부분은 조선 농촌경제의 몰락과 파탄은 고스란히 식민지 조선의 식량 및 원료 공급 기능의 차질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식민 당국의 입장에서 농민층의 몰락을 막고 조선 농촌경제를 활성화할 방안 모색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배경 하에 제기된 방안의 하나가 부업장려(副業獎勵)이다.

이 때문에 1920년대 이후 신문과 대중잡지 등을 통해 부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사가 빈번하게 등장하고 부업장려와 선전을 위한 이벤트성의 행사인 조선부업품공진회는 대대적인 광고와 지원을 받으며 개최되었다.

본 발표에서는 1920년대 이후, 특히 조선부업품공진회 개최를 전후하여 동시대 신문·잡지 미디어에 등장하는 부업 관련 담론의 전개 양상과 이를 둘러싼 미디어 담론의 긴장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식민권력이 발산하고 확산한 부업 담론의 한계와 심층에 내재한 시대적 갈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조선부업품공진회 개최와 미디어 담론의 전개

【자료】『조선총독부에 식산국 내에 부업계 신설』『매일신보』 1923.3.17. 2면

【자료】『부업장려계 신설되다』『경성일보(京城日報)』 1924.2.10. 6면

【자료】조선농회가 1923년 봄부터 기획하여 총독부의 찬동과 지사회의(知事會議)의 자문, 각종 기관과 은행, 회사 등의 협조로 1923년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개최하기로 결정

【자료】『부업공진회를 기하여』『매일신보』 1923.6.7.

총독부에서는 산미증식 개량방침에 의하여 최근 조선의 도작(稻作)은 현저히 발달되었고, 이어서 미간지의 개간, 간척 및 수리사업의 시설 등 과거의 면목을 일신하였으며, (중략) 미작(米作)의 진보가 괄목할 만큼 충분한 것은 당연한 바이다. 그러나 미작이 비록 조선산업의 현상(現狀)을 고려하여 중요할지라도 이것의 개량 증식만으로는 조선산업의 전체를 개량 진보하게 할 수 없으며, 그 부분에 불과하다. 그 때문에 총독부에서는 미작의 개량과

함께 전작(田作), 그 외 양잠, 양계 및 농가 부업 등에 대한 개량과 향상에 노력하는 바이다. (중략) 부업공진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실로 시기(時機)에 적합함은 물론이요, 조선 부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사실이 증명하는 바로 많은 말이 필요없으며, 이러한 때에 특히 일반에게 주의를 바라는 것은 부업의 필요가 적실(適實)함과 그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자료】「부업공진회의 계획 농촌진흥의 근본책은 여하(如何)」『동아일보』1923.6.22.

경복궁 내에서 개최할 터이라 하여, 그 상세한 계획의 요령을 발표하여 본보에도 어제 이를 보도하였다. (중략) 그러나 조선총독부의 소위 시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불행히도 그 정체의 여하를 파악하기 어렵다. 아, 이와 같은 근본적으로 시급한 문제는 고각(高閣)에 속치(束置)하고 다만 지엽적인 작은 일부분인 농가 부업장려의 취지를 우원(迂遠)한 공진회의 형식으로 그 보급을 시도한다는 것에 이르러서는 우리는 다만 그 짧고 얇은 식견에 웃는 것 외에 무엇이라 평론할 바가 없다. (중략) 그러나 이것을 농촌진흥의 일단으로 과장함은 반대로 실소를 금하지 못할 바가 아닌가. 설사 한발 양보하여 농촌진흥의 묘책으로 부업장려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보급·실시의 방략이 한 번의 공진회로 그 뜻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즉 실제 부업의 필요를 절감하고 또 노동의 과잉에 처한 일반 농업자는 공진회 건학의 여유가 없을 것이요. 다만 지방의 소위 유지 신사와 면사무소 관리 등에 불과할 것이요.

【자료】조선부업품공진회 공식 포스터 발표 『매일신보』1923.7.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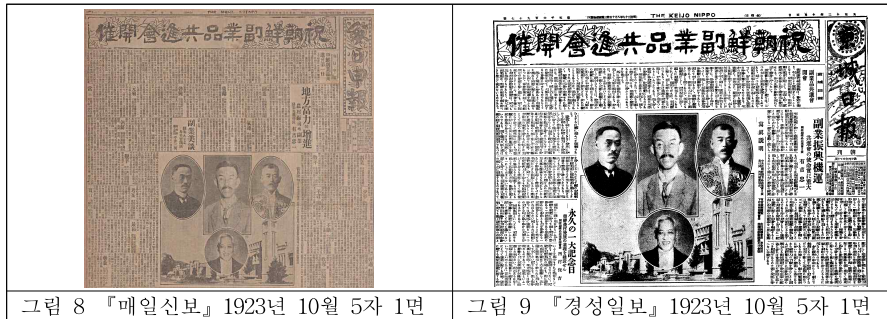
【자료】잡지『조선문 조선』은 동호부터 11월호까지 총 3회(8월호, 10월호, 11월호)에 걸쳐 「조선부업품공진회 회보」를 수록하여 공진회 개최를 위한 준비 과정이나 경과, 출력의 종류와 진열관, 진열품 사진, 관련 규칙과 경비, 개최와 폐회 상황, 그 외 포상 수여식의 결과 등을 상세하게 소개

【자료】잡지『조선공론(朝鮮公論)』은 조선부업품공진회가 개최되던 1923년 10월호를 ‘부업의 장려와 조장(助長)을 위해 부업장려호를 발간하고 이를 내외(内外)의 각 방면에 배포함으로써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추계특별호 부업장려호」로 발행

【자료】일본어판『조선(朝鮮)』, 일본어 종합잡지『조선급만주(朝鮮及滿洲)』 등에도 조선부업품공진회 개최와 관련한 기사를수록

【자료】그 외에도 조선부업품공진회를 비롯하여 경성부업품공진회 경성협찬회, 조선총독부 체신국 등이 사진그림엽서를 제작하여 조선부업품공진회 개최를 선전하고 홍보

3. 부업 담론에 나타난 시각의 현격(懸隔)과 긴장 관계



【자료】「부업품공진회와 그 효과」『매일신보』1923.10.23

【자료】「부업공진회 개최에 대하여, 철저한 장래 장려책을 취하라」『동아일보』1923.10.5.

조선의 산업 즉 주업과 부업의 양 방면을 통하여 지도장려를 획책한 것이라는 취지에서 이번 계획을 동의하지 안 할 수 없다. (중략) 부업장려의 공효(功效)를 설명함은 부업 만능의 취지를 선전하고자 함은 아니다. 다만 현재 조선의 경제상태에 있어 부업장려의 적절함이 시급한 것을 말할 뿐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번 부업공진회 개최를 찬성하는 바이며, 다만 우리의 절실히 희망하는 바는 부업공진회 개최로 부업의 장려를 완성한 것으로 유안고식(優安姑息)의 폐에 빠지지 않기를 당국자에게 바랄 뿐이다.

【자료】「휴지통」『동아일보』1923.10.5.

오늘부터 경복궁 안에 개최된 「부업품공진회」는 첫날부터 경황이 쓸쓸하다 하니 며칠만 더 지나면 구경꾼도 시골 양반뿐일 모양이라든가. 게다가 설비가 대단히 불완전하여 물밥을 사 먹어 가며 시골서 서울까지 온 사람들에게는 아무 유익을 주기는 고사하고 금전과 시간의 손해밖에 없으리라 한다. 한가지라도 자세한 설명을 해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인쇄물 같은 것으로라도 좀 더 자세한 것을 알려 줄 도리가 없을까. 원래부터 간판만 팔아먹는 당국자의 시키는 일이니까 무슨 성의 있는 구석을 보려 하는 것부터 어림없는 일이라 하겠지만은 출품 수효로만 보아도 조선 사람의 것은 몇 가지 아니 됨은 무슨 까닭인가.

【자료】「부업품공진회 소감」『동아일보』1923.10.18.

장내에 진열한 것 중에 과연 지금 조선 농가에서 실행할 만한 부업이 몇 종이나 될까. 그 대부분은 특수한 기술의 숙련을 요하는 것이 아니면 적지 않은 자본을 요하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비실용적인 것이다. 더욱이 전혀 부업이 되지 못할 것이 다수 진열된 것을 볼 때 우리는 이것이 부업장려를 목적으로 한 공진회장인지 일부 상인의 상품 매점을 목적으로 한 광고회장인지 의문을 금할 수 없다. (중략) 부업공진회 그 자체는 반대할 것이 아니다. 다만 그 방법이 너무도 형식적이요. 허장성쇠(虛張聲勢)적이어서 조선의 실정에 맞지 아니함을 책망하는 것이다.

【자료】「금일부터 공진회 개최」『조선일보』1923.10.5

【자료】잡지『조선문 조선』1923.11

조선은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더욱더 정도(程度)가 유치(幼稚) 또는 불구(不具)하여 정말 미성년의 아동이므로 중앙 정부인 부모의 부양이 아니면 자립이 어려운 즉 이번 부업품공

진회의 명의(名義)를 기본 삼아 업무의 쇄신을 도모하여 내용의 충실을 기도함이 글쓴이의 일대 희망이라 하노라.

【자료】『조선공론』1923.12

그 종류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역시 우수한 상품은 일본인의 제조 즉, 일본인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조선인에 의해서만 만들어진 것은 그다지 우수한 것이 없는 것 같다. (중략) 그래서 조선의 공업은 이러한 시대에 일본인의 손에 의해 개발해 가지 않으면 순조로운 발달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자료】『개벽』1923. 11

염상섭(廉想涉) 「세 번이나 본 공진회」, 유광열(有狂熱) 「나 역(亦) 구경의 영광을 입던 이야기」, 작자 미상 「부업공진회의 결과-조선인에게 무엇을 주었나」

조선부업품공진회는 결국 조선인에 무슨 영향을 주었는가, 문제는 여기에 있다. 부업진흥의 기운을 촉진했다는 것, 물론 옳은 말이다. 그 만철회사(滿鐵會社), 경전회사(京電會社)의 수입고를 늘리고, 경복궁 안에 새로 짓는 신 총독부 청사에 첫 번째의 예배(禮拜)를 시켰다는 말, 이것도 거짓말은 아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보다는 더 옳은 말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나. 일본의 상품을 특별한 광고료 없이 면면촌촌(面面村村)의 조선인에게 광고하여 지방 사람의 구매심을 증장(增長)하게 하였다는 그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번 부업공진회는 ‘부업진흥’이라는 부업이 있는 것 외에 ‘일본상품광고’라는 정업(正業)이 있었다는 그것이다.

4. 결론

본 논문은 식민 당국이 추진한 조선부업품공진회와 부업장려를 둘러싼 문제점과 한계를 동시대 신문·잡지 미디어에 등장하는 부업 관련 담론을 통해 고찰하였다.

먼저 지적할 부분은 식민 당국이 1920년대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한 부업장려는 조선 농촌경제의 파폐와 농민층의 몰락을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산미증식계획이 초래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적 조치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오히려 부업장려와 관련 담론은 조선 농촌경제에 대한 식민정책의 부작용을 불가시화 하고 조선 농민의 곤궁과 궁핍의 원인을 부업을 실천하지 않는 조선인 스스로의 문제로 치환하는 기능이 내재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부업장려를 선전하는 담론은 조선인을 인습과 태만으로부터 교화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지적할 부분은 조선부업품공진회는 조선인의 출품 수가 빈약하고 더욱이 조선어 안내문조차 구비되지 않았으며, 공진회의 본래 목적보다는 일본 상품의 광고와 소비 심리를 조장하는 제국주의적 경제 논리가 작동하는 장(場)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그 때문에 조선부업품공진회는 조선인에게 회의와 실망, 더 나아가 불만을 안겨준 행사였다. 그리고 조선인은 그 담론의 중심에서 배제된 존재였으며, 그만큼 식민 당국이 선전한 부업장려의 공허함도 크게 체감하였을 것이다.

1930년대 관광팸플릿의 기생 이미지 연구

-『경성정서(京城情事)』를 중심으로-

허지애(동아대학교 역사인문이미지연구소 선임연구원)

1. 들어가며

1930년대 경성은 식민지 조선의 수도로서, 제국 일본이 구상한 근대도시로 부상하였다. 경성에는 총독부 청사, 경성역, 은행, 백화점 등 근대적 시설이 집중된 한편, 경복궁, 남대문과 같은 조선의 전통 유산이 병존하는 이중적 풍경이 펼쳐졌다. 이 같은 ‘근대성과 전통의 병치’는 일본인 관광객에게 ‘동양적 이국성’과 ‘근대적 편의성’을 동시에 제공하는 관광 자원으로 활용되었다. 결국 경성은 이러한 시각적 무대를 통해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식민지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였으며, 관광산업은 조선총독부의 정책적 주도와 상공계의 경제적 이해가 결합하여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33년 5월에 설립된 경성관광협회는 경성부, 경성상공회의소, 조선생명보험주식회사가 협력한 반관반민(半官半民) 성격의 공익단체였다. 협회는 경성을 일제의 주요 관광지로 홍보하고 관광객의 소비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경성역 구내에 관광 안내소를 설치하고 팸플릿을 제작·배포하며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경성관광협회에서 발행한 다양한 관광팸플릿¹⁾ 중, 소책자 형태의 『경성정서』는 ‘기생의 초상사진’과 ‘경성의 유흥시설 지도’를 동시에 수록하여, 경성의 ‘얼굴’과 ‘소비 공간’을 직접적으로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관광팸플릿이 단순한 관광 안내 자료를 넘어 경성을 전통과 근대가 공존하는 소비 도시로 각인시키는 문화적 장치로 기능했음을 시사한다²⁾.

기존의 ‘기생 이미지’ 연구³⁾는 사진그림엽서⁴⁾에 집중되어 있다. 그중 박가영(2018)의 연구가 근대 인쇄매체 속 기생 초상사진을 매체 전략과 소비 지향성 속에서 재구성된 시각 자본으로 규정하며, 기생 이미지가 도시의 향락을 극대화하는 관광전략으로 기능했음을 지적했는데, 이는 본 연구가 『경성정서』에 수록된 기생 사진과 관광 담론을 연계해 분석하는 데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관광팸플릿이라는 매체 속 기생의 이미지가 사진이라는 매체적 특성과 식민지 소비경제라는 구조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기능했는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학술적 공백을 메우고자 한다. 관광팸플릿 『경성정서』에 실린 기생 사진을 사진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기생이 식민지 경성을 대표하는 ‘얼굴’이자 ‘관광 로고’로 재현된 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성정서』의 기생 초상사진의 구도, 시선, 배경, 복식의 차이를 면밀히 분석한다. 둘째, 이러한 시

1) 『경성안내』, 『경성관광안내도』, 『경성정서』, 『관광의 경성』, 『경성관광의 안내서』, 『경성고적 이곳저곳』 등

2) 모리타 토모에(2023)「식민지 조선의 관광산업 형성- 1930년대 경성관광협회의 조직과 활동」, 『역사문제연구』50.

3) 권행가(2001)「일제시대 우편엽서에 나타난 기생 이미지」, 『미술사논단』12. : 박가영(2018)『1930년대 관광 팸플릿에 나타난 기생 이미지 연구: '환대하는 타자'로서의 재현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민(2004)「관광 이미지의 색수열리타: 일제강점기 사진엽서에 나타난 여성이미지」, 『한국사진학회지』13 : 최인택(2018)「일제침략기 사진그림엽서를 통해서 본 기생기억」, 『문화역사지리』30, 최현식(2023)「일제 사진엽서, 시와 이미지의 문화정치학」, 글항아리. 이외 다수.

4) 사진그림엽서의 정의는 ‘사진이나 그림이 있는 우편엽서’이다. 신동규, 「근대 사진그림엽서의 개념 정의와 종류에 대한 특성 고찰」, 『일본문화연구』 79, 2021.

각적 차이가 1930년대 식민지 경성의 관광 담론과 어떠한 관련성을 지니는지를 고찰한다. 나아가, 기생 이미지가 식민지 권력과 젠더적 시선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소비되었는지를 입체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경성정서』는 현재 국립민속박물관에서 5종을 소장하고 있고, 역사인문이미지연구소(신동규 컬렉션)⁵⁾을 2종을 소장하고 있다.⁶⁾ 중복되는 1종을 제외하면 현재 『경성정서』는 총 6종이 확인되나, 본 연구에서는 신동규컬렉션 소장본 2종을 분석 텍스트로 한다.

2. 경성관광협회와 관광팸플릿 『경성정서』

1930년대 경성 관광의 흥행을 이끈 핵심 주체는 1933년 5월에 설립된 경성관광협회였다. 경성부, 경성상공회의소, 조선생명보험주식회사가 협력하여 설립한 이 반관반민 성격의 기관⁷⁾은 경성을 일제의 주요 관광지로 홍보하고, 관광객의 소비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를 위해 협회는 경성역 구내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고 팸플릿을 제작·배포하며 관광객 유치에 나섰는데, 협회의 지출 대부분이 홍보와 선전에 집중되었다는⁸⁾ 점은 관광 사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로써 관광팸플릿은 단순한 안내 자료가 아니라 경성을 전통과 근대가 공존하는 도시로 이미지화하고 ‘소비 도시’로 각인시키는 문화적 장치로 작동하였다.⁹⁾

5) 동아대학교《역사인문이미지연구소》는 역사·문화 이미지 자료의 수집·분석과 DB 구축을 통해 실증적·객관적인 역사관의 정립을 목표로 2019년 5월에 개소하였다. 주요 연구 자료들은 1875년 윤요호 사건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전까지의 근대시기 자료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사진그림엽서, 사진첩, 개인 사진, 고지도, 조선총독부 발행의 각종 홍보인쇄자료(조선안내, 팸플릿, 관광안내서, 조감도, 철도국 자료), 조선 주둔 일본군 자료, 조선총독부 발행 조선 관련 책자, 항공 자료 등 이미지가 수록된 자료들은 모두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본 연구소에서는 이들 자료들에 대한 역사적 가치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일제침략기 한국 관련 사진그림엽서(繪葉書)의 수집·분석·해제 및 DB 구축」을 하여 현재 공개하고 있다. 또한, 2024년도 9월에는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일제강점기 한국 관련 팸플릿의 분석·번역·해제·이미지 DB 구축」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6)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자료는 1937년 3월판, 1934년 8월판, 1935년 8월판, 1936년 4월판, 1936년 9



경성정서(京城精緒)

경성정서(京城精緒)

경성정서(京城精緒)

경성정서(京城精緒)

경성정서(京城精緒)

월판의 5점이다.

7) 경성관광협회의 조직: 경성관광협회는 관민이 협력하여 설립된 회원조직의 공익단체입니다. 회장은 경성부윤 간지 요시쿠니(甘蔗義邦) 씨를 추대하고, 부회장은 경성상공회의소장 가다 나오지(賀田直治) 씨와 조선생명보험주식회사 사장 한상룡(韓相龍) 씨, 상무이사는 경성부 사회과장 김영상(金永祥) 씨를 선임하였습니다. 고문과 이사는 경성의 저명인사와 유력자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경성안내』(1936.08).

8) 모리타 토모에(2023), 앞의 논문.

9) 경성관광협회 서비스: 경성역 구내 출구에 경성관광안내소 시설을 갖추고 여관, 택시, 안내인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소 안에 재팬 투어리스트 бюро 출장소가 있어, 근교와 그 외 지역 여행안내도 제공합니다. 관광 일정, 비용 예산, 조선요리 식단표 등의 작성, 기생무용 설명도 합니다. 경성부의 제시설, 교육, 산업, 사회사업 등의 시찰에 있어 미리 통지한다면 관계방면의 편의를 위한 인쇄물 등의 참고자료를 준비해 드립니다. 조선의 상류가정, 기생 사택 등 조선 고유의 풍물 풍속을 시찰하실 분은 전일까지 와주십시오. 경성관광안내소는 매일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12시까지 열려

이 시기 경성 관광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근대 교통망의 확충이다. 경성역을 기점으로 한 철도망이 전국을 연결하고 전차 노선이 도심과 근교를 편리하게 이어주면서 이동의 편의성이 증대되었다. 둘째, 소비 공간의 확대이다. 요릿집, 카페, 다방, 극장이 번성하면서 도시 곳곳에서 근대적 소비와 향락이 가능해졌다. 셋째, 전통과 근대의 공존이다. 경성은 총독부 청사, 은행, 백화점 등의 근대 건축물과 경복궁, 남대문과 같은 전통 유산이 나란히 존재하는 도시였다. 근대 건축물은 근대도시 경성의 위용을 과시하는 한편, 전통 유산은 ‘조선 전통의 정취’를 제공했다. 이러한 ‘경성의 이중성’은 일본인 관광객에게 이색적 매력으로 포장되었으며, 관광пам플릿은 이 같은 경성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핵심 도구였다.

경성관광협회에서는 소책자와 리플릿 형태의 다양한 관광пам플릿을 발행하였는데, 현재 신동규컬렉션에서 소장하고 있는 협회 발행의 관광пам플릿은 [표1]과 같다.

	пам플릿 명칭	발행처	발행일	형태
1	경성안내(京城案内)	경성관광협회	1933	리플릿
2	경성안내(京城案内)	경성관광협회	1933	리플릿
3	경성관광안내도(京城觀光案内圖)	경성관광협회	1933	리플릿
4	경성정서(京城情緒)	경성관광협회	1934	소책자
5	경성안내-인천·개성(京城案内-仁川·開城)	경성관광협회	1934	소책자
6	경성안내-근교·온천(京城案内-近郊·溫泉)	경성관광협회	1935	소책자
7	경성정서(京城情緒)	경성관광협회	1936	소책자
8	경성안내(京城案内)	경성관광협회	1936	소책자
9	경성안내(京城案内)	경성관광협회, 일본관광협회 ¹⁰⁾	1936	소책자
10	관광의 경성(觀光の京城)	경성관광협회, 일본관광협회	1937	소책자
11	관광의 경성(京城の觀光)	경성관광협회, 일본관광협회	1938	소책자
12	경성안내(京城案内)	경성관광협회	1940	리플릿
13	경성관광안내도(京城觀光案内圖)	경성관광안내소	미상	리플릿
14	경성관광안내도(京城觀光案内圖)	경성관광협회, 경성관광안내소	미상	리플릿
15	경성관광안내도(京城觀光案内圖)	경성관광협회, 경성관광안내소	미상	리플릿
16	경성관광의 안내서(京城觀光の志おり)	경성관광협회	미상	리플릿
17	경성관광의 안내서(京城觀光の志おり)	경성관광협회	미상	리플릿

있습니다. 『경성안내』(1933), 경성관광협회 서비스: ○관광안내소: 경성역 구내 출구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해 명소구적의 설명·여관·택시·유람버스·토산물 등을 무료로 소개해 드립니다. 안내소 안에 재팬 투어리스트 뷰로의 출장소를 같이 두어 경성 근교·선만(鮮滿) 여행의 안내도 해 드립니다. 기념스탬프가 있습니다. 안내소에 진열케이스를 설치해 특산물·토산품을 진열해 두었으니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현장판매(即賣)는 하지 않습니다.) ○관광안내인: 믿을만한 안내인을 두어 명소 구적과 다른 곳도 안내를 해 드립니다. 안내 요금은 사람 수와 관계없이 1일 2원입니다. 선만안내소에서 알선받은 10명 이상의 단체는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경성안내』(1936.02)

18	경성고적 이곳저곳(京城古蹟とところどころ)	경성관광협회	미상	리플릿
19	인천관광안내(仁川觀光案内)	경성관광협회	미상	리플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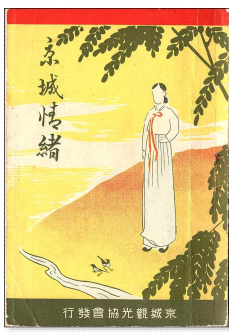
표107. 경성관광협회 발행 팸플릿 (신동규컬렉션 소장)

[표1]에 제시된 팸플릿 명칭 『경성안내』, 『경성관광안내도』, 『경성정서』, 『관광의 경성』, 『경성관광의 안내서』, 『경성고적 이곳저곳』 등을 보면 협회의 팸플릿은 ‘경성’, ‘관광’, ‘안내’를 핵심 키워드로 하여 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들 팸플릿은 신문이나 잡지와 달리 발행일이 명기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정확한 발행주기와 발행 기간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경성관광협회가 발행한 관광팸플릿 가운데 『경성정서』는 독특한 성격을 지닌다.

이 팸플릿은 ‘기생의 초상사진’과 ‘경성의 유흥시설 지도’¹¹⁾를 함께 수록함으로써, 경성의 ‘얼굴’과 ‘장소’를 동시에 제시하는 전략을 취했다. 기생 사진이 관광객이 보고 싶어 하는 ‘전통적 얼굴’이자 ‘시선의 대상’을 제공했다면, 지도는 관광객이 실제로 이동하면 소비해야 할 ‘장소’와 ‘동선’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즉, 사진은 관광객의 ‘시선’을, 지도는 관광객의 ‘동선’을 조직하는 방식으로 상호 결합한 것이다. 이러한 재현 전략 속에서 기생은 조선의 전통 예능인의 범주를 넘어 근대도시 경성을 대표하는 관광 로고의 ‘얼굴’로 재구성되었다. 이는 기생 이미지가 경성 관광의 핵심적 ‘시각 자본’으로 기능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텍스트인 『경성정서』는 소책자 형태의 팸플릿이지만 따로 목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표2]는 『경성정서』에 수록된 기사를 제시 순서대로 재구성한 것으로 식민지 경성 관광 담론의 변화양상과 기생 이미지의 소비 전략을 보여준다.

『경성정서』(1934.08)	『경성정서』(1936.08.)
	
◦ 광고 - 하야시아호텔	◦ 광고 - 명월관
• 기생이야기	□ 경성 약도
• 조선요리 가격, 기생 및 예기의 화대	• 조선요리와 기생의 서비스
• 조선요리 가을겨울 메뉴	• 조선요리 가을겨울 메뉴

10) 일본관광협회(Japan Tourist Bureau, JTB)는 외국인 관광객을 일본과 식민지(조선, 대만, 만주 등)로 유치하기 위해 1912년에 일본에서 설립된 단체이다. 1920~30년대에 JTB는 경성사무소를 두고 조선 관광안내서를 발행하거나 일본어·영어로 된 팸플릿을 제작했다.

11) 『경성정서』에 실린 지도의 제목은 ‘요릿집·식당·카페·유곽’이다. 『경성안내』 등에도 ‘경성관광안내지도’가 실려 있는데 수록 내용에 차이를 보인다.

• 기생 및 예기 이름 기입란	• 오늘날의 기생기질
• 화류계 만담	• 조선요리 가격, 기생 및 예기의 화대
• 신정권변 예기 일람표	• 동권변 예기 일람표
◦ 광고 - 하쿠스이	• 기생무용의 설명
• 간단한 조선어	• 조선 농촌의 신민용
• 밤의 경성	• 밤의 경성
• 신정 유곽	• 신정 유곽
• 노래 가사	• 간단한 조선어
◦ 광고 - 기생사진그림엽서	• 노래 가사
◦ 광고 - 마쓰야여관	• 기념스탬프용 공란
◦ 광고 - 명월관	◦ 광고 - 부민관식당
	◦ 광고 - 식도원

표 108 『경성정서』의 표지와 기사 목록

먼저 『경성정서』(1934.08)과 『경성정서』(1936.08)의 표지는 한복 차림에 쪽머리를 한 조선 여성을 전면에 내세웠는데, 내용 분석을 통해 이들이 모두 기생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관광 담론에서 기생 이미지가 ‘경성정서’를 표상하는 대표적 기표로 기능한 것을 시사하며, 팸플릿에 수록된 기생 초상사진을 통해 명확히 드러난다. 이에 3장에서는 두 판본의 『경성정서』에 실린 기생 초상사진을 중심으로 구도, 시선, 배경, 복식의 차이를 분석한다. 이러한 시각적 차이가 1930년대 식민지 경성의 관광 담론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심층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3. 『경성정서』(1934.08)의 기생 이미지의 재현 전략과 관광 담론

4. 『경성정서』(1934.08)의 기생 이미지의 재현 전략과 관광 담론

5. 나가며

▶ 제11세션 (장소: 612호)

제11세션 (개인발표)		방법으로서의 ‘신체’ : 전후를 가로지르는 젠더 · 섹슈얼리티		
시간	발표자	발표제목	토론 (라운드테이블)	사회자
16:10~18:10	조소진 (전북대)	해방을 둘러싼 신체 - 전공투에서 우먼리브까지 -	발표자 + 이가현 (고려대) 임다함 (동아대)	이승준 (세종대)
	이승준 (세종대)	1980년대 대중문화와 변태=탈피하는 신체 -도가와 준과 야푸즈-		
	박수정 (인천대)	『에반게리온』의 신체(들) —포스트페미니즘, 포스트휴먼 사유를 통해 다시 보는 『에반게리온』—		
	김진우 (세종대 박사과정)	여아 애니메이션의 젠더 수행과 장소에 관한 고찰 : 『프리파라』의 세계관을 중심으로		
18:10~18:40	동아시아일본학회 2025년도 하반기 정기총회			
	2025년 동북아시아문화학회 정기총회 및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시상			
	폐회식			

해방을 둘러싼 신체 - 전공투에서 우먼리브까지 -

조소진(전북대)

1. 머리말

본 발표는 우먼리브 운동(Women's Liberation Movement, 이하 우먼리브)을 이끈 여성해방 운동가 다나카 미쓰(田中美津, 1943~2024)의 활동에 주목하면서,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에 남성 중심적 신좌익·전공투 운동에서 통용되던 ‘자기부정’의 논리가 어떻게 새로운 여성주체로 형성으로 전환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960년대 후반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세계적인 혁명 운동을 일컫는 ‘68혁명’의 시대였다. 프랑스의 ‘5월 혁명’,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의 봄’, 중국의 ‘문화대혁명’, 그리고 미국의 흑인 민권운동과 베트남 반전운동 등 전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시위가 주목을 끌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의 양극체제 속에서 구축된 냉전구조, 즉 전후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일본사회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1960년 안보투쟁을 계기로 기존 좌익운동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며, 기존 체제에 저항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¹⁾ 이후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전국적으로 대학투쟁과 베트남 반전운동을 주축으로 신좌익·전공투 운동이 확산되었고, 일본 역시 ‘68혁명’의 세계적 흐름과 보조를 맞추게 되었다. 당시 단카이(団塊) 세대²⁾에 속한 청년들이 대거 운동에 참여하면서 사회 전반이 격렬한 변화를 맞이했다.

그러나 신좌익·전공투 운동은 오랫동안 남성 중심적이었다는 비판과 함께, 그 속에서 여성은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동반해왔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전공투 연구에서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쟁점이자, 우먼리브로의 이행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일본의 우먼리브는 1970년 10월 21일, 국제반전의 날(国際反戦デー)³⁾에 열린 신좌익 계열의 반전집회에서 다나카가 「변소로부터의 해방(便所からの解放)」⁴⁾이라는 제목의 전단지를 배포하면서 시작되었다. 다나카는 이 글에서 여성이 남성의 의식 속에서 ‘어머니’와 ‘성적 대상’이라는 이중적 위치로 분열되어 왔음을 비판하고, 이러한 억압이 사유재산제 사회질서의 유지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집회 현장에서 전단지를 배포하자 많은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다가와 받아갔고, 다나카는 그 순간 자신이 시대의 흐름을 붙들었다는 확신을 느꼈다고 회고한다.

이후 다나카는 남녀 구별 없이 각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생명의 여자들에게: 엉망인 여성해방론(いのちの女たちへ: とり乱しウーマン・リブ論)』

1) 1955년 일본공산당은 제6회 전국협의회(‘6전협’)를 통해 무장봉기 노선을 폐기하고, 미야모토 겐지(宮本顯治) 체제하에서 일상투쟁주의로 전환했다. 이러한 변화는 청년 당원들에게 ‘6전협 쇼크’로 받아들여졌으며, 이후 신좌익 형성의 단초가 되었다. 이는 1960년 안보투쟁을 전후한 세대 간 인식차이의 배경으로도 작용했다. 大嶽秀夫, 『新左翼の遺産—ニューレフトからポストモダンへ』, 東京大学出版会, 2007, pp.31-32.

2) 베이비 붐 세대.

3) 1966년 10월 21일, 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총평)는 ‘베트남 반전 통일과업’을 실시하며 전 세계 노동조합과 반전단체에 동참을 호소했다. 이 행위는 장폴 사르트르로부터 “세계 최초의 베트남 반전 과업”으로 평가받았으며, 이후 매년 10월 21일은 ‘국제반전의 날’로 자리 잡아 신좌익운동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4) 田中美津, 「便所からの解放」 『資料 ウーマン・リブ史 1号』, 松香堂書店, 1992, pp.201-207. (WAN 「ミニコミ図書館」 <https://wan.or.jp/dwan/detail/231>)

을 집필했다. 이 책에서 다나카는 여성해방을 단순히 남성 지배에 대한 저항으로 한정하지 않고, 사회적 대의와 개인적 욕망이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의 장으로서 제시했다. 그녀에게 여성들의 분노와 욕망은 상충되는 감정이 아니라, 서로를 통해 해방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계기였다. 즉, 여성들이 모순적 감정 속에서 흔들리고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지라도, 그 ‘흐트러짐’ 자체가 해방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여성의 신체를 단순한 억압의 대상이 아니라, 욕망과 연대를 매개하는 정치적 장소로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우먼리브의 독자적 사유를 잘 드러낸다. 이러한 사유는 신좌익·전공투 운동 현장에서 공유되면서, 전공투 여성들이 직접 경험한 남성 중심적 구조와 억압적 역할 배치가 이후 우먼리브에서 여성들이 스스로 자신의 역할과 목소리를 조직하는 계기가 되었다.

본 발표의 본론에서는 먼저 전공투 운동 속 여성들이 수행한 구원대책(救援対策)과 배식(炊き出し) 등의 역할을 검토하고, 이러한 경험이 어떻게 여성들의 자율적 실천과 우먼리브로 이어진 과정을 분석한다. 이어서 다나카를 비롯한 우먼리브 여성들이 신좌익·전공투 운동에서 경험한 ‘자기부정’ 논리의 한계와 모순을 바탕으로, 스스로 여성해방을 위해 역할을 재구성하고 신체와 욕망을 매개로 ‘해방’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한 과정을 살펴본다.

2. 전공투 여성의 역할: 구원대책과 배식

1968년에서 1969년에 걸쳐 일어난 전공투 운동은 전국 학원투쟁을 일컫는다. 이전까지는 각 대학자치회 연합으로 조직된 전일본학생자치회총연합(全日本学生自治会総連合, 이하 전학련)을 중심으로 투쟁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전공투는 개인의 주체성을 중시하는 전원 토의 기반의 직접민주주의 운영 방식을 채택하여 진행했다. 학원투쟁은 학내 문제를 직접 체감한 일반 학생들까지 참여를 유도했으며, ‘대학해체’, ‘조반유리(造反有理)’, ‘자기부정’ 등의 슬로건을 내세우며, 자기 자신을 직면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성찰하는 일종의 문화운동으로 발전했다.⁵⁾

1960년 안보투쟁 이후, 이케다 하야토(池田隼人) 내각이 성립하면서 소득배증정책을 축으로 일본사회는 전반적으로 경제 효율을 중시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대학은 산학협동 노선에 따라 재편이 이루어졌는데, 국가와 자본이 요구하는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각각 명확한 역할을 분배받았다. 일본의 국립대학 대표 격인 도쿄대는 국가를 이끌 유능한 고급 관료나 기술자를 배출하는 것이 목표였으며, 사립대학은 중급 노동자를 양성하는 역할을 맡았다.⁶⁾ 그러나 이러한 산학협동의 추진은 전전(戰前)의 국가적 ‘독점자본주의’의 성격을 띠고 있어, 학문의 자유와 주체성을 위협한다는 인식이 전국 학원투쟁과 함께 확산되었다.⁷⁾ 니혼대와 도쿄대까지 연달아 대규모 투쟁이 이어지면서,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전공투 활동에 나서면서 대학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전공투 운동 속에서 여성들은 주로 구원대책과 배식 등을 담당하며, 투쟁의 일상적 운영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이러한 역할은 단순한 보조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운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긴급 상황과 공동체의 요구를 직접 체험하며 운동 내 권력 구조와 성별 관계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니혼대의 경우, 전공투 내에서 체포자나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 지원을 담당하는 구원대책 활동을 통해 여성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이리에 이쿠요(入江育代, 1967년 입학, 문리학부)

5) 太田恭子, 「女たちの全共闘運動」, 女たちの現在を問う会編, 『銃後史ノート戦後篇8: 全共闘からリブへ 1968.1-1975.12』, インパクト出版会, 1996, pp.71-72.

6) 太田恭子, 위의 책, 1996, pp.71-72.

7) 夏目賢一, 「1950-60年代日本における産学協同の推進と批判」 『科学技術社会論研究』第13号, 2017, p.32.

는 구원대책의 일원으로서, ‘나카무라 가쓰미(中村克己) 학살 사건’ 관련 경과를 전보로 형무소에 수감된 동지들에게 전달했다.

니혼대는 ‘맘모스 대학’이라고 불릴 만큼 재학생 수가 많았으며, 1960년대에는 고등교육을 대량생산식 교육(mass production)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었다. 이사장 후루타 주지로(古田重二良)를 중심으로 한 대학이사회는 학내 운영과 치안 유지를 위해 우익 단체와 체육회계(体育会系)⁸⁾를 동원해 학생 활동을 통제했다. 그러나 1968년 5월, 도쿄 국세국 조사에서 약 20억 엔 규모의 비자금에 적발되자 학내 불만이 폭발했고, 이 사건을 계기로 니혼대 전공투가 결성되어 본격적인 대규모 투쟁을 조직했다. 같은 해 9월 30일, 이사회를 상대로 대중단체교섭을 주도하며 대학 민주화를 요구했으나, 교섭 직후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학원투쟁은 더 이상 대학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라고 발언했고, 대학당국은 니혼대 전공투의 요구를 거부하며 체육회계 학생들을 재차 동원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그 결과, 대학당국이 우익 단체와 체육회계 학생들을 조직적으로 지시·동원함으로써 ‘우익 테러’가 반복되었고, 이에 따른 폭력사태로 한 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970년 2월 25일, 문리학부 가건물 인근 게이오(京王)선 무사시노다이(武蔵野台) 역 부근에서 전단지를 배포하던 니혼대 전공투 소속 학생들이 우익 단체의 감시 하에 있던 중, 쇠파이프를 무장한 체육회계 학생들의 습격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상학부 투쟁위원회 소속 나카무라 가쓰미(당시 22세)가 두개골 함몰의 중상을 입고 며칠 뒤 결국 사망하였다. 사건 이후, 니혼대 전공투는 ‘나카무라 가쓰미 군 학살 규탄위원회’를 결성하여 진상규명과 대학당국의 폭력 동원 문제를 공론화했다.

1968년 6월부터 1969년 8월까지 체포된 학생 수는 11,176명에 달했으며, 그중 96명이 기소되었다. 대학당국은 전공투 학생들을 장기간 유치장에 구금하여 지치게 만들거나, 우익·체육회계 학생들의 실력행사를 통해 직접적인 폭력을 가함으로써 질서 유지를 도모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공안조례 위반 등의 죄목을 적용하여 전공투 학생들을 체포함으로써 투쟁을 법적 절차 속에서 봉쇄하려고 했다. 대학 본관을 바리케이드로 점거하더라도 사태가 민사 분쟁으로 전환되면 대학당국과 학생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로 규정되어, 학생들은 제도적·법적 한계 속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구류 단계에서의 법적 대응과 연대를 중심으로 한 구원 활동이 점차 투쟁의 핵심적인 실천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1968년 2월, ‘니혼대 투쟁 구원회(日大闘争救援会)’가 결성되었으며, 자금 모금과 물품 지원 뿐 아니라 ‘니혼대 투쟁 보고회’와 ‘니혼대 아우슈비츠 체제 항의 시위’ (1963년 9월 13일) 등을 자체적으로 조직하기도 했다. 기관지 『니혼대 구원 뉴스(日大救援ニュース)』 발행을 통해 긴급 연락망 역할을 수행하며, 투쟁 지원과 공권력에 의한 탄압에 대응하는 중요한 기능을 맡았다.⁹⁾ ‘나카무라 사건’에서도 니혼대 투쟁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구원회가 ‘규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결성되었다. 나카무라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기 위해 ‘니혼대 투쟁 구

8) 일본에서는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스포츠 중심의 동아리를 ‘체육회계’라고 하며, 상명하복의 위계질서와 엄격한 지도를 특징으로 한다. 니혼대에는 대학 본부 산하 ‘체육단체연합회’와 학부별 체육회계 서클이 있으며, 공학부에는 이를 총괄하는 ‘체육회’와 응원 활동을 담당하는 ‘응원단’이 설치되어 있다.

9) 水戸巖編, 『裁判闘争と救援活動: 60年安保から70年闘争』, 大光社, 1970, pp.219-221. 이 책은 1960년대에 전개된 다양한 재판투쟁 속에서 ‘구원대책’이 수행한 역할을 기록하고 있다. 니혼대 전공투와 관련해서는, 니혼대 법학부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후 전학련(全学連) 구원대책 본부장으로 활동했던 나카무라 미쓰루(中村満)가 서술을 담당하였다.

원회'와 구원대책 소속 학생들이 결집한 것이다. 구원회는 '구원 연락 센터'라는 이름의 인권 단체로 주로 학생운동과 사회운동 등에서 체포된 사람들을 구원하고, 공권력에 의한 탄압에 반대하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활동하였다.

이리에 이쿠요도 그러한 학생들 중 한 명이었다. 문리학부 독문학과에 재학 중이던 이리에는 학급위원으로 활동하며, 대학이사회가 연루된 불명확한 자금 사용 문제를 계기로 학급토론을 개최한 경험이 있었다. 또한 문학·예술계 학생단체인 문단련(文団連)에 속한 전학적 모임인 아동문학연구회(통칭 자리켄, ジャリ研)에 참여하면서, 다른 학부의 지원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투쟁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남성 체포자나 부상자들을 돌보는 구원대책 업무를 담당하게 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회상한다. 원래 체력이 약했던 이리에는 활동 중 여러 차례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 가기도 했다고 한다. 체육 회계 학생집단이나 기동대와 직접적으로 대치하며 실력투쟁에 임할 수는 없었지만, '나카무라 사건'을 계기로 재판투쟁의 최전선에서 싸우게 되었다. 당시 현장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미하시 도시아키(三橋俊明)는 "이리에 씨가 재판투쟁을 주도했었기 때문에 체력이 약했다는 것은 전혀 몰랐다"라며 놀라움을 드러냈다. 이리에는 재판에서의 승소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재판 과정을 통해 니혼대 전공투 학우들을 조직하고 격려하는 것 자체가 목표였다고 밝혔다.¹⁰⁾

니혼대에서는 폭력 장치와 같은 감시 체제가 존재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강한 남성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투쟁 최전선에서 직접적으로 싸우기 어려웠다. 따라서 이리에와 같은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후방에서 구원대책 활동을 수행하며, 투쟁 현장에서 체포되거나 부상한 동지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특히 니혼대 전공투는 현장 실천이 우선시되는 공간이었으므로, 이 과정에서 젠더에 따른 역할 분배가 사실상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니혼대와 같은 사립대학이 중급 노동자를 배출하는 시스템 속에서 운영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투쟁 구조와 역할 분배는 단순히 현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사회 시스템이 요구하는 효율적 기능 분담의 연장선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즉, 여성들은 후방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동시에,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운동 내 권력 구조와 성별 관계를 직접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도쿄대 전공투의 바리케이드 투쟁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은 주먹밥을 대량으로 만들어 배식하는 활동 등 후방지원에 국한되며, 남성과 대비되는 젠더 역할 분담을 확인할 수 있다. 우에노 치즈코(上野千鶴子)는 이러한 남녀 역할 분화에 대해 비판하며, 남성은 게바봉(ゲバ棒)¹¹⁾을 들고 최전선에서 투쟁했지만, 여성은 후방지원에 머물러 굴욕감을 경험해야 했다고 지적한다. 당시 학생운동과 성(性) 혁명이 맞물린 세계적 맥락에서 성적 도덕에 도전하는 것은 진보적으로 평가되었지만, 남성과 여성 간에는 명백한 성별 비대칭이 존재했다. 남성의 다양한 성경험은 사회적 '훈장'으로 기능했으나, 여성에게는 동일한 행위가 낙인(stigma)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학생운동에 참여한 여성들은 평등 의식을 갖고 있었음에도, 성관계에서 피임을 요구하거나 자기 의사를 개진하기가 어려웠고, 불완전한 피임으로 인해 임신과 낙태를 반복하며 심신에 큰 부담을 겪는 경우도 많았다.¹²⁾

10) 이리에 이쿠요·야자키 가오루(矢崎薫, 니혼대 전공투 부의장)·미하시 도시아키(三橋俊明, 니혼대 법학부 소속 전공투) 2019년 5월 20일, 루노아르 신주쿠 하르쿠요코점(ルノール新宿ハルク横店)에서 '니혼대 930 모임' 관련 인터뷰 조사 내용 참고.

11) '게발트(Gewalt) 봉'을 줄인 말이며, 신좌익·전공투 운동에서 사용된 각목을 가리킨다.

12) 上野千鶴子·酒井順子, 「『学生運動時に、バリケード内で握ったおにぎりを擲擲されてフェミニズムを志した』江戸時代から性の自由の変遷を振り返る」, 2023.2.15. (婦人公論.jp, <https://fujinkoron.jp/articles/-/7485>)

도쿄대 전공투의 ‘자기부정’ 논리는 학생운동의 핵심 이론으로, 투쟁 주체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해성과 원죄를 성찰하고, 자신이 속한 엘리트적 구조를 해체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 논리의 실천은 체제로부터 일정 형태의 자기공정을 인정받은 엘리트 남성에게 국한되었다.¹³⁾ 여성들은 국가가 요구하는 고급 관료와 기술자를 지원하는 내조적 역할에 묶였으며, 배식과 성관계로 한정된 위치에서 ‘자기부정’ 논리를 적용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역할과 위치를 재정의해야 하는 심리적·사회적 혼란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다.

도쿄대 투쟁 자체는 1962년 의학부 인턴제도 폐지를 목표로 한 파업과 졸업시험 보이콧에서 시작되었다. 1968년 1월 19일, 등록의제도 반대 투쟁이 전학 파업으로 확대되었고, 2월 19일 의국장 폭력 사건에서 교수회는 현장에 없던 학생들까지 포함해 17명에게 처분을 내렸다. 학생들은 처분 백지 철회와 대중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월 야스다 강당 점거와 기동대 투입이 이어지자 일반 학생과 교직원들의 반발로 투쟁은 전국적 규모로 확대되었다. 7월 5일, 3,000명이 참여한 전학 총궐기 집회에서 도쿄대 전공투가 결성되었고, 대학원생들과 조수들도 합세하여 연구실 봉쇄 투쟁을 전개하며 ‘도쿄대 해체’론을 구축하였다. 투쟁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며 절정에 이르렀다.

그러나 후나바시 구니코(船橋邦子)는 도쿄대 대학원생으로서 투쟁 환경은 진보적인 분위기일 것이라 기대했으나 자신이 속한 지리학 교실은 일본공산당 하 민청이 강한 교실은 학생 개개인의 요구보다 조직의 사고가 우선시되는 불편했다고 지적한다. 일관되게 대학 민주화 투쟁을 명목으로 전개되었음에도, 교수회의 학생처분과 같은 권력 행사에는 저항을 하지 않으면서 대학 측의 기동대 투입만을 도발적이라 비난하는 교실 내부의 태도는 모순적이었다. 이는 도쿄대 의학부 투쟁에서 ‘하얀 거탑’으로 상징되는 부패한 교수회 권력과 의사로서의 윤리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후나바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립을 경험하며 학문과 연구의 본질에 대해 자문하게 되었다.¹⁴⁾ 이러한 경험은 여성들이 제국대학 체제 속에서 겪는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도쿄대 전공투의 ‘자기부정’ 논리가 남성 중심으로 작동하며 여성에게는 적용되기 어려웠음을 시사한다.

3. 우먼리브 여성의 역할: 신체의 해방

전공투 여성들은 투쟁 현장에서 구원대책 및 배식, 후방 지원을 담당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그들의 활동은 남성 중심적 체제에서 주변화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이후 1970년대 일본 우먼리브 운동으로 이어지는 전환점이 되었다. 전공투에서 후방 지원에 한정되었던 여성들은 우먼리브를 통해 자신의 신체와 성적 권리를 주체적으로 인식하고 요구하는 실천적 장으로 이동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나카 미쓰는 다음과 같이 여성해방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여자에게 지배와 피지배의 역사는 여자의 성에 가해진 슬픔의 역사와 다르지 않다.

계급사회 아래에서 인간은 그 생을 비참하고 불품 없는 것, 자신과 분리된 것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우리 여자들은 (···) 여자라는 사실에 의해 보다 깊이 체제 질서에 가담해 왔다. (···) ‘성이 인간을 예측하는 기본적인 수단’이라는 것은 지배 권력이 여성의 성을 억압

13) 다나카 미쓰, 조승미 옮김, 『생명의 여자들에게: 엉망인 여성해방론』, 두번째테제, 2019, pp.52-55.

14) 船橋邦子, 「全共闘運動とジェンダー」, 女たちの現在を問う会編, 『銃後史ノート戦後篇 8: 全共闘からリブへ1968.1-1975.12』, インパクト出版会, 1996, p.97

함을 통해 남성의 성을 관리, 억압하여 그 계급 의지를 관철해 왔음을 뜻한다. 말할 나위 없이 여성해방은 프롤레타리아 해방을 지향하는 것이다. (...) 여자가 체제에 대항하며 든 반대 깃발은 여기서 펄럭인다. (...) 급진적인 옷을 걸친 신좌익 운동에서도 남자 = 투쟁으로 남성들의 배외주의가 관철되었다 (...) 다정함과 다정함이 오가는 육체적인 표현인 SEX를 한 몸에 갖춘 총체적인 여자는 오늘도 남자의 의식에서 배제당하고 있다. (...) 우리는 여성의 해방을 성의 해방의 문제로 제기한다. (...) 현재 여자에게 성의 해방이 무엇인지 보면, 성을 부정하는 의식 구조에서 자기 해방으로 권력 투쟁을 벌이고, 남자와 만나며 실천적으로 획득하는 것이 성의 해방이다. (...)

1970년 10월 10일

‘그룹 싸우는 여자들’ 다나카 미쓰 슘¹⁵⁾

위의 인용문은 전공투 운동에서 제한되었던 여성의 역할이 단순한 후방 지원과 보조를 넘어, 개인적 신체의 주체성과 사회적 권리를 결합한 새로운 정치적 행위로서 신체 해방으로 확장됨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여성해방운동은 제2파 페미니즘의 맥락에서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라는 슬로건 하에 여성의 경험과 의식 속에 존재하는 사회 규범과 가치관을 문제화하고, 이를 자각하고 행동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중시한다. 일본에서는 1969년 정점에 달했던 전공투 운동과 베트남 반전운동에 참여했던 여성들이 서로 교류하며 1970년 10월에 ‘여성해방연락회의 준비회’를 구성했고, 이를 기반으로 ‘그룹 싸우는 여자들(ぐるーぷ闘うおんな)’가 결성되었다. 다나카는 이 단체에서 리더 역할을 수행하며, ‘리브 신주쿠 센터’를 개설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1972년까지 각종 시위, 특히 중절금지법 개악 반대 시위를 주도하며 여성해방을 제창했다.

다나카 미쓰의 여성해방론은 도쿄대 전공투에서 등장한 ‘자기부정’ 논리와 명확히 구분된다. 전공투의 ‘자기부정’은 엘리트로서 자신이 속한 가해자 집단과 구조적 권력에 대한 성찰을 강조하며, 그 실천 가능성은 체제로부터 일정 형태의 자기긍정을 획득한 남성 엘리트에게 한정되었다. 반면, 우먼리브 여성들은 ‘자기부정’의 틀 안에 포함되지 않은 위치에서, 남성 지배 구조로부터 벗어난 ‘여성해방’이라는 자기 논리를 구축하며, 신체와 성적 권리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실천을 전개하였다. 다나카는 신체적 해방을 통해 여성이 권력 구조에 맞서 자기 주체성을 확보하는 과정을 강조하였으며, 이는 기존 남성 중심 운동과 대비되는 여성 중심적 운동의 핵심 논리로 작동하였다.

4. 맺음말

2024년, 다나카 미쓰가 세상을 떠나며 일본 여성해방운동사에서 하나의 시대가 마감되었다. 그러나 그녀가 남긴 사유와 실천은 여전히 현재의 페미니즘이 ‘신체의 정치성’을 사유하는 데 중요한 자취를 남겼다. 다나카가 제기한 성의 해방은 단순히 성적 자유의 요구가 아니라, 인간 해방의 총체를 구성하는 근본 조건이었다. 이는 남성 중심의 ‘자기부정’ 논리로부터 분리된 여성 고유의 해방론이자, 신체를 매개로 사회구조를 다시 사유하려는 급진적 시도였다. 우먼리브는 전공투 운동이 미처 포착하지 못한 해방의 또 다른 지평을 드러냈다. 다나카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여성해방’이 여전히 진행 중인 역사임을 상기시키는 사건이다.

15) 다나카 미쓰, 앞의 책, 2019, pp.303-307.

1980년대 대중문화와 변태=탈피하는 신체 -도가와 준과 야푸즈-

이승준(세종대)

성은 남성의 여성-되기와 인간의 동물-되기를 지나간다.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천 개의 고원』

1. 몇 개의 이미지들

영화 『서브스탠스(The Substance)』(2024)에서, 잃어버린 젊음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위험한 도박을 감행하는 엘리자베스 스파클(데미 무어 분)의 몸을 찢고 튀어나온 수(마거릿 켈리 분)의 첫 장면에서 그는 온 몸이 축축하게 젖어 있다. 자신의 몸을 확인하던 수는 등이 갈라진 채 땅바닥에 누워 있는 스파클의 모습을 내려다보며 구토를 참지 못한다. 스파클의 갈라진 등을 봉합하는 수를 비추는 장면은 마르지 않은 피가 들러붙어 있는 스파클의 등을 과하게 클로즈업한다. 수의 신체, 토사물, 피, 그리고 효과음까지, 하나이자 둘인 스파클과 수가 같이(共) 존재함(存)을 처음 드러내는 장면이 연출하는 극도로 그로테스크한 신체성을 어떻게 언어화할 수 있을까. 그 느낌은 왠지 끈적끈적하고, 차갑기보다는 뜨끈뜨끈할 것 같다. 스파클의 등을 뚫고 튀어나온 수의 매끈하게 젖은 몸은 아름다운 외모와 완벽한 몸매임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모르게 비(非)인간스럽다. 관객은 탄생의 신비라기보다는 변태, 또는 탈피의 현장을 목격한 것과 같은 느낌을 곱씹으며 자신도 모르게 침을 삼키지 않을까.

이를 변태 또는 탈피(metamorphosis) 이야기로 보자면, 서구의 『서브스탠스』는 일본의 『헬터 스켈터(ヘルタースケルター)』(2012)를 떠올리게 한다. 전신 성형의 각종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해 약물에 의존하는 스타 리리코(사와지리 에리카 분)의 환각 세계를 나비가 날아다닌다. 전신성형이 탄로난 후 리리코는 물 속으로 잠기지도 않고 물 위로 뜨지도 않은 채, 유유히 물속을 부유한다. 카메라는 물 속을 떠다니는 리리코의 신체 중에서 원발등 좌측에 새겨진 나비 문신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러다 욕조 물 위로 격하게 상체를 일으키는 리리코.

변태=탈피를 거쳐 세상에 존재하기 시작한 수의 물에 젖은 육체. 본래적 신체와 사회적 신체의 괴리에 부닥쳐 존재적 존폐의 기로에 처한 리리코의 물에 잠긴 육체. 인간도 동물도 곤충도 액성의 도움 없이는 태어나지 못한다. 나비의 유충은 여러번 탈피를 거치는데 그때마다 탈피액을 분비해 외골격을 녹인다. 그래서 탈피 직후에는 몸 전체가 축축하고 끈적끈적해 보인다. 매미의 경우에도 오래된 외피와 새 외피 사이에 탈피액을 분비해 오래된 외골격의 각질을 녹인다. 그래서 갓 탈피한 성충 매미의 날개는 축축하게 젖어 있고 몸 전체가 습기를 머금어 매끈하다. 인간의 탄생을 육화(carnification)로서의 metamorphosis로 가정하는 사고는 불가능할까. 만약 가능하다면 비인간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이미지의 중심에는 액성이 있을 것이다. 라캉적 상상계의 과도한 의미부여르르 지양하고 사회적 상상계를 둘러싼 사유를 개진했던 로지 브라이도티는 상상계의 이미지를 유목적인 것, 사회와 자아, 외부와 주체 사이를 끈적끈적하게 흐르는, 유동성이 있지만 완전히 투명하지는 않은 액성으로 이야기한다.¹⁾

『터미네이터』(1984)에서 부상당한 T-800(아놀드 슈왈제네거 분)가 스스로를 치료하는 장면에서, 왜인지 T-800 안면 위에 파리가 앉아 있다. 컷이 바뀌어도 파리가 계속 앉아 있는 것

1) 로지 브라이도티 저·김은주 역(2020)『변신: 되기의 유물론을 향해』꿈꾼문고, p.274.

을 보면 의도한 연출이 아닐까 싶지만, 적어도 미래의 인류 영웅 존 코너의 어머니인 세라 코너(린다 해밀턴 분)의 이야기로서 영화를 다시 생각해보면, 디스토피아적 미래와 모성이 때로는 결합하고 때로는 탈구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군(群)²⁾과 ‘곤충’의 관계성에 대한 물음표가 지금 내 머릿속을 부웅부웅 날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날을 대표하는 페미니스트 사상가 로지 브라이도티가, 인간과 비인간의 이분법적 재단 자체를 페미니스트이자 생물학자로서 비판하는 도나 해러웨이의 ‘사이보그 페미니즘’, 욕망을 (성욕에 기반한) 결핍으로 보는 정신분석적 틀을 거부하고 욕망을 생산의 작동으로 보고, 욕망=생산하는 개체와 개체의 신체적 결합(combination)을 통합관계(syntagm)로써 지도화(mapping)한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이하 GP)의 『안티 오이디푸스』(1972), 『천 개의 고원』(1986)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팔루스를 거부하는 일 자체가 이미 팔루스에 집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듯, (정신분석에 기반한 논의로 정신분석을 극복하고자 했던 주디스 버틀러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비남자로서의 여자가 아니라 여자 그 자체의 존재성을 인식과 현실 개척의 출발점으로 삼으면서 자신만의 포스트휴먼론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로지 브라이도티는 GP의 『안티 오이디푸스』, 『천 개의 고원』 사이에 끼어 있는 한 성과물을 놓치지 않는다. 그것은 『카프카: 소수적인 문학을 위하여』(1975)이다. GP가 보기에 카프카 소설의 본질은 언제나 비인간적인 존재, 동물, 기계, 그리고 곤충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거기에는 아무런 ‘상징표현’도 ‘알레고리’도 없다.³⁾ 그러므로 GP가 말하는 동물-되기의 동물로서의 곤충은 문학적 수사도 아니고 미사여구도 아니다. 그 metamorphosis는, 그 결과 자체가 존재의 증명이며 그 과정 자체가 ‘존재하고 있음’이 되는 양태를 새로운 방식으로 체현하는 수행성과 다름 아니다.⁴⁾ “동물-되기란 어떤 동물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다수자인 인간의 척도에 들어맞지 않는 새로운 요소를 창조하는 것이며, 다수적인 척도를 가진 통상적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저런 동물이야, 동물!’ 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⁵⁾ 카프카는 체코어, 독일어, 이디시어, 그 모든 언어를 ‘비영역화(탈영토화)’, 즉 귀어화시켰다.⁶⁾ 카프카의 텍스트에서 상징계로의 진입을 담보하는 인간 언어가 ‘비영역화’됨과 동시에, 동물, 기계, 곤충과 인간은 상상계적으로 공존한다. 상징계적 언어로 이야기하는 동물, 기계, 곤충은 결국 인간에 대한 무언가일 수 밖에 없기에 인간적인 것이고, 따라서 ‘영토화’되어 점령되어 있는 것이다. 카프카는 이를 거부했다.

다시 영화 이미지로 돌아오면, 『헬터 스켈터』에서 리리코의 전신성형이 폭로당해 세간의 웃음거리로 전락하는 장면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도가와 준(戸川純, 1961-)이 1984년에 발표한 솔로앨범 『玉姫様』⁷⁾의 수록곡 「^{めい}蛹化の女」이다. 유명한 클래식 레퍼토리인 ‘파헬벨의 캐논’에 직접 작사한 가사를 엮은 이 노래는, 스스로를 메미의 유충에 비유하는 여성 화자에 의한

2) 모성과 결합된 섹슈얼리티의 구현화가 헐리우드 영화에서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에 관해서는 클라우디아 스프링거 저·정준영 역 『사이버 에로스: 탈산업 시대의 욕망과 육체』(1998, 한나래)를 참조. 일본 SF소설 및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젠더·섹슈얼리티적 시각에 기반한 여성성, 모성과 SF의 유착 및 길항 관해서는 小谷真理 『性差事変: 平成のポップ・カルチャーとフェミニズム』(2021, 青土舎)를 참조.

3) 질·도울루즈·펠릭스·가타리著·宇波彰ほか訳(1978)『カフカ: マイナー文学のために』法政大学出版局, pp.67-74.

4) 질·도울루즈·펠릭스·가타리(2001)『천 개의 고원: 자본주의와 분열증 2』새물결, pp.452-454.

5) 이진경(2002)『노마디즘 2: 천의 고원을 넘나드는 유쾌한 철학적 유목』휴머니스트, p.117.

6) 질·도울루즈·펠릭스·가타리(1978)앞의 책, pp.47-48.

7) 이 앨범은 싱글 발표된 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80년대의 명반이자 여성 아티스트의 명반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전곡 청취 가능한 링크는 다음과 같다. <https://youtu.be/ZTGC2ZfNWhg?si=1ukzA4KMWyXM3EYE>. 이하 수록곡 가사는 본 링크를 참조하여 인용했다.

내러티브이다. 나무뿌리의 수액을 먹으며 ‘당신’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나는 ‘벌레 여자’라고 화자는 말한다.⁸⁾

모든 되기는 근대 인본주의적 지각불가능성을 확장시키는 부정신학적 소수화이다.⁹⁾ 본 발표는 일본 대중문화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려는 ‘되기’의 시도이다. 자신이 벌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던, 1980년대의 언더와 오버의 경계를 종횡무진 횡단했던 ‘신인류’, ‘후시기짱’¹⁰⁾, 도가와 준(戸川純, 1961-)을 중심으로 하는 포스트모던, 포스트휴먼 문화비평의 시도이다. 포스트모던과 포스트휴먼을 아우르는 사고는 여성에 대한 주목 없이는 불가능하다.¹¹⁾

2. 포스트모던 대중화사회, 1980년대

1980년대 배우이자 모델이자 가수로 끊임없는 변신으로서의 ‘되기’를 실천하며 당시의 사회통념적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경계를 허물어트렸던 도가와 준은, 1980년대적 의미의 서브컬처를 온몸으로 연출했다. 특히 가수로서, 게르니카(ゲルニカ)를 거쳐 야푸즈(ヤプーズ)에 이르며 인간과 비인간, 여성성과 기계성, 생산하는 욕망의 쾌락과 고통을 가사로 쓰고 노래했다.

밀레니엄의 도래를 기다리는 1980년대 일본 저널리즘의 유행어는 ‘세기말’이었다. 화가, 문학비평가, 영화비평가가 모여 수다떠는 한 지면을 보면, 새로운 말이 등장하면 적어도 5-10년은 유행했던 60년대와 달리 지금의 80년대는 새로운 것이 낡은 것에 의해 내몰리는 일은 바로바로 일어난다. ‘중심’이 없기 때문이다.¹²⁾ “그러니까 센스 있는 말 해봤자요(だからあんまり気の効いたこと、いわなくてもいいんじゃないですか).”¹³⁾ 이런 1980년대 ‘대중화사회’의 특징이란 유서 있고 특권 있는 기원과 결함을 결여한 수상하고 애매모호한 무언가가 대중의 인기를 얻는 다는 점이다. 여기에 합리적 인과관계는 없다. 또는 그것을 찾는 일은 무의미하다. 이는 후기자본주의적 ‘대중화사회’의 특징이자 포스트모던의 특징이기도 하다.¹⁴⁾

이 시대를 대표하는 논객 중 하나는 GP의 어려운 철학을 가벼운 터치로 재해석하여 보급한 아사다 아키라(浅田彰)이다. 그는 『탈주론: 스키조 키즈의 모험(脱走論: スキゾ・キッズの冒険)』(筑摩書房, 1984)에서, 편집증적으로 집중하기에 권력에게 이용당하기 쉬운 ‘파라노형(paranoic) 인간’이 아니라 도망치고 흩어지는 ‘스키조형(schizophrenia) 인간’이 되라고 역

8) 도가와 준의 난해하면서 독특한, 그만의 개성이 뚜렷한 가사는 지금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본 발표에 있어서 그 본인에 의한 가사 해설집은 정보 제공 측면에서 많은 참고가 되었다. 그러나 작자의 해설을 곧이곧대로 수용한 발표가 아니라는 점은 밝힌다. 「蛹化の女」 정보는 다음을 참조. 戸川純(2020)『戸川純全歌詞解説集: 疾風怒濤ときどき晴れ』Pヴァイン, pp.12-15.

9) GP의 ‘여성-되기’, ‘아이-되기’는 쿼어 이론에 많은 공헌을 했다. ‘여성-되기’ 논의를 계승한 대표적 예가 로지 브라이도티이다. ‘아이-되기’ 논의를 계승한 대표적 예로 Stockton, Kathryn Bond. *The Queer Child, or Growing Sideways in the Twentieth Century*.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2009.를 참조.

10) 1980년대 서브컬처를 대표하는 여성으로 도가와 준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다음을 참조. TVOD(2020)『ポスト・サブカル焼け跡派』株式会社百万年書房, pp.62-75.

11) “남성들은 포스트모던 시대에 대한 준비가 덜 되어 있지만 여성들은 새로운 기술 문화에서 이상적인 존재로 여겨졌다.” 주디 와이즈먼 저·박진희 외 역(2009)『테크노페미니즘: 여성, 과학 기술과 새롭게 만나다』공리, p.100.

12) 황거(皇居)등을 예로 일본 문화의 중심없음에서 포스트모던을 발견하는 것으로 물랑 바르트 저·김주환 외 역『기호의 제국』(산책자, 2008)을 참조.

13) 合田佐知子(1985)『世紀末代研究 行きつくところまで行くしかないんじゃない?』『Asahi journal』127(1), p.9.

14) 일본적 포스트모던과 대중화사회의 관계를 논한 것으로 하스미 시게히코 저·이승준 역『범용한 예술가의 초상: 막심 뒤 캉 론』(비고, 2024) 제2부, 제3부를 참조. 이를 바탕으로 일본의 포스트모던과 대중화사회의 현재성을 진단한 것으로 이승준『사생아의 시대, 범용함의 시대: 하스미 시게히코와 대중화사회 ‘병’』(『일본문화연구』96(예정), 2025)를 참조.

설한다. 이는 포스트모던의 문화적 특징이란 기존 시대의 정신적 불안과 소외라는 정동을 ‘정신분열적 파열’이 대체한다고 진단하는 프레드릭 제임슨의 사고와 공명한다.¹⁵⁾

프레드릭 제임슨은 포스트모던 문화적 특징으로 ‘정신분열적 파열’과 더불어 시간성의 붕괴를 든다. 현재에 집중된 시간은 역설적으로 현재라는 시간을 그 이전과 이후로부터 해방시킨다. 그렇게 고립되어 불안정한 현재는 스스로의 불안정성을 참지 못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보다 이미 있었기에 더 안정적인 과거에 기댄다. 포스트모던 문화에 있어서 절대적인 새로움은 존재할 수 없다. 대중문화는 과거에 중독되어 있다.¹⁶⁾ 오래된 것일수록 새로운 것이다.

도가와 준은 솔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게르니카’라는 음악 유닛을 결성했다. 비록 대중적인 인기를 구가하지는 못했지만 음악 뿐만 아니라 무대 컨셉, 앨범 디자인 등 총체적인 아나크로니즘은 당시에 적지 않은 충격을 남겼다. 다이쇼 로망(大正ロマン)을 연상시키는 컨셉으로 무대에 올라 마치 전전(戰前) 소학생이 창가를 부르듯 노래하는 도가와 준의 레트로한 목소리는, 1982년 앨범 『改造への躍動』 수록곡 「工場」, 「潜水艦」, 「復興の唄」 등의 기술과 발전을 찬미하는 노래와 어딘가 모르게 조화롭지 못하다.¹⁷⁾ 대량생산을, 폐허 위에 빌딩을 세우는 도시계획을, 거대한 잠수함의 발진을 찬미하는 이 노래들의 제목과 가사가 지향하는 시간성은 분명히 미래인데, 그것을 노래하는 목소리의 지향성은 반대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저 유명한 미래주의 선언(1909)에서 필리포 마리네티는 몽매한 군중들이 오롯이 미래로 약진하지 못할 것임을 짐작하고 있었다. 그런 그들을 위해 계몽가는 과거를 돌아보는 유예를 허한다. “추도의 날에 묘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처럼, 매년 그대가 그곳을 방문하는 것, 나는 허가한다.” 그러나 계몽가의 진짜 속내는, “우리는 그 과거의 어느 것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젊고 강인한 미래주의자들이다!”¹⁸⁾ 마리네티의 미래주의 선언이 ‘대중화사회’가 고도로 정교화된 파시즘에 봉사하는 것이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¹⁹⁾

그러므로 대중에게 수용된 포스트모던 대중문화는 단순히 모더니티의 과거와 절연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그 과거를 인정하고 흡수한 다음에 변태=탈피를 거친 것이다. 게르니카의 도가와 준의 시간적으로 역행하는 컨셉과 목소리와, 시간적으로 순행하는 노래 내용의 배치는, 그가 체현해 나갈 포스트모던적 분열증적 주체의 현재성을 예견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3. 곤충-되기=기계-되기

인간의 동물-되기로서의 곤충-되기는 단독자의 자기완결성적 증명으로써 체화(embodiment)되는 것이 아니다. 되기에 의한 동물은 무리를 이룬다. 되기에 의해 ‘공동-기능’하는 이 다량체(multiplicity)들은 관계에 근거한 일정한 배치를 형성한다.²⁰⁾ 배치 속의 동물들은 공생하는 다질적인 향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다양체는 다른 다양체로 끊임없이 변형된다. 따라서 모든 되기는 새로운 창조이다.²¹⁾ 그러한 창조는 개(個)가 아니라 군(群)을 형성한다. 그런 의미에서 야푸즈의 전신 하루멘즈(ハルメンズ)의 곡을 도가와 준이 커버해서 『玉姫様』에 수록

15) 프레드릭 제임슨 저·임경규 역(2022)『포스트모더니즘, 혹은 후기자본주의 논리』문학과지성사, pp.84-86.

16) 프레드릭 제임슨의 논의에 촉발되어 대중문화의 과거지향적 시간성을 분석한 것으로 사이먼 레이놀즈 저·최성민 역『레트로 매니아: 과거에 중독된 대중문화』(작업실유령, 2017)을 참조.

17) 다만 이 노래들은 도가와 준이 작사하지 않았다.

18) 이택광(2008)『세계를 뒤흔든 미래주의 선언』그린비, p.67.

19) 파시즘과 대중화사회의 문제는 오늘날의 후기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직시하기 위해 필요한 화두이나 본고에서 논하지는 않는다.

20)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2001)앞의 책, pp.460-461.

21) 이진경(2002)앞의 책, p.111.

한 노래 「昆虫軍」은 곤충-되기가 무엇인가를 알기 쉽게, 흥겹게 노래한다. ‘나는 곤충/무척추(ぼくは昆虫/無脊椎)’로 시작하는 「昆虫軍」 속 곤충은 이성(理性)이 없다. 그런 나-곤충의 초인간적 능력은 기계적인 이미지와 결합되어 있다. “머릿속은 텔레비전/모노크롬 풍경/촉각 안테나 민감/초음파でお話し.” 노래 마지막에서 도가와는 이렇게 4번 외친다. “무리를 이뤄라(群を成せ).” 여기서 이 노래의 원곡인 하루멘즈 버전의 제목은 「昆虫軍」이 아니라 「昆虫群」이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하루멘즈의 1980년 곡을 1984년에 커버한 「レーダーマン」²²⁾ 가사를 보면, 곤충이 군집으로서의 다양체를 이루듯 기계도 다양체로서 존재한다. 고성능 인간 의사(擬似) 로봇인 레이더맨은 감정도 자아도 없기에 자타의 식별이 불가능하다. 그런 레이더맨들은 서로 정보를 주고 받는다. “하나부터 열까지 같은 구조/나랑 같은 너가 거기에/너랑 같은 개가 거기에(何から何まで同じ構造/私と同じあなたがそこに/あなたと同じ誰かがそこに.” 그런 레이더맨은 모든 외부 정보를 레이더로 끌어 담지만 정작 “자신을 인식하는 능력은 없다(自分捕える能力はない).” 그런 레이더맨 다양체를 통제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된다. “피드백의 인형사에게 정보를 구하며 메타모르포제(フィードバックの人形使いに情報求めてメタモルフォーゼ).” Puppet Master의 번역어인 ‘인형사(人形使い)’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攻殻機動隊)(1995)』를 떠올리면, 인형사의 존재는 네트워크 사회를 침범하는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이자, 사이보그 구사나기 모토코와의 합일을 통해 네트워크 그 자체가 되는 존재이다. 즉 네트워크와 인형사의 자타 구분은 무의미하다. 마찬가지로 인형사와 구사나기의 구분도 무의미하다.²³⁾ 반복건대 GP가 말하는 되기로서의 metamorphosis는, 그 결과 자체가 존재의 증명이자 그 과정 자체가 존재하고 있음의 양태를 체현하는 것이다.

「蛹化の女」와 「昆虫軍」에서 유기체의 변태=탈피로서의 되기를 읽을 수 있다면, 「레이더맨」에서는 기계의 변태=탈피의 가능성이 암시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GP의 논의를 이어받아 흐트러진 포스트휴먼 이미지의 지도를 그리는 브라이도티에게 있어서 변태=탈피로서의 변신-되기의 집약체가 바로 여성 신체임은 더 강조할 필요도 없다. 발표자가 도가와 준이라는 彼女가 상징하는 유물론적 임계점(critical point)에서 비평적 지점(critical point)을 발견하는 것은, 자칫 회의론, 비판론에 빠지기 쉬운 포스트모던 논의의 바통을 페미니즘이 이어받아 그 가능성을 개척했듯이, 도가와 준이 작사한 노래에서 궁극의 비판을 거친 낙관의 가능성을 봤기 때문이다.

4. 잔인한 낙관

「蛹化の女」의 화자는 여자가 곤충으로 변한 것도 아니고 곤충이 여자로 변한 것도 아니다. 해러웨이의 사이보그 선언에 빗대어 말하자면, 여자=곤충으로서의 선언이다.²⁴⁾ 「蛹化の女」를 기점으로 소수화 전략으로서의 곤충-되기를 생각하다 보면, 동일 앨범에 수록된 「玉姫様」가 머릿속에서 묘하게 공명하는 듯하다.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신비(神秘)’ 때문에 아무것도 보

22) 청취 가능한 링크는 다음과 같다. <https://youtu.be/EAGjOReyfnE?si=a2wGLEl4WPBfxD8J>. 「레이더맨」 정보는 다음을 참조. 戸川純(2020)위의 책, pp.31-33.

23) 『공각기동대』의 속편 『이노센스(イノセンス)』2004에서 구사나기는 소녀형 애완용 가이노이드 ‘하다리’의 물성을 빌려 등장한다. GP의 ‘여성-되기’, ‘아이-되기’와 연결하여 논할 수 있을 것이다.

24) 「月光の白き林で/木の根掘れば蟬の蛹いくつも出てきし/ああ/ああ/それはあなたを思い過ぎて変わり果てた私の姿/月光も凍てつく森で/樹液すすする私は虫の女」(밀줄 발표자).

이지도 들리지 않고 “당신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あなたの話が理解できない).” 이러한 사태를 노래하는 「玉姫様」의 ‘신비’성은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이라 불러도 무방할 정도의 과격한 신체 이미지를 차용한다. ‘발한’과 ‘구토’를 겪는 와중에 “중추신경/자궁으로 이동해/10만마력의 파괴력(中枢神経/子宮に移り/十萬馬力の破壊力).” 이 파괴력은 여성 신체 본인에 극심한 고통을 주는 것이자 다른 존재의 탄생이라는 생명적 근원을 낳는 경이로운 힘이기도 하다. 여기서 성적 쾌락은 탈구되어 있다. 번식의 가능성만 이미지로서 산재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오로지 성적 쾌락만을 위해 만들어진 섹스로이드라는 소재를 놓고, 도가와 준은 충돌하는 두 가사를 썼다. 「バーバラ・セクサロイド」(1987)의 바바라는 오직 남성의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해 발명된 로봇이다. 그런데 바바라의 친구인 「シャルロット・セクサロイドの憂鬱」(1995)의 샤를로트는, ‘바바라의 반대’를 뿌리치고 ‘로봇3원칙’을 어긴다. 로켓을 타고 언제 만날지 알 수 없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백년, 아니 영원의 고독/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로켓 속에서(百年、いや永遠の孤独/何も起きぬロケットの中で)” 견디기로 한 것이다. 성적 쾌락에 구속된 바바라의 만류를 뿌리치고 성충권 밖으로 도주하는 샤를로트는 성적 쾌락의 구속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도망쳤다. 그렇다면 샤를로트는 스스로 탈구시킨 성적 쾌락의 피안에서 번식의 가능성이 탑재되기를 꿈꾸고 있는가? 영화 『블레이드 러너』(1982)의 원작, 필립 K. 딕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1968)에서 레플리칸트 레이첼은 자신은 살아있지 않다고 말한다. 생의 감각을 꿈꾸는 레이첼은 이렇게 인간에게 묻는다.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²⁵⁾

발표자는 로켓 안에 갇힌 채 영겁의 시간을 기다리기로 선택한 샤를로트에게서 성충으로의 탈피를 기다리는 매미의 이미지가 오버랩된다. 2주 정도에 불과한 성충기를 위해 길게는 15년이 넘는 유충기를 탈피를 거듭하며 견디는 매미의 존재론을 도가와와 가사에 적용시키면, 「愛のユリーダ」(1985)에서 오른손에 해머를 든 채로, 눈 앞에 널부러져 있는 남자의 시체를 내려다보며 ‘혼돈의 대우주’가 나를 부른다고 느낄 뿐인 여성 화자가, 『에반게리온』 시리즈 아스카의 성우인 미야무라 유코(宮村優子)『女性的な、あまりに女性的な』(1999)의 경우에는, 똑같이 둔기로 남성을 살해한 뒤 위에서 사체를 내려다보고는 있지만 ‘혼돈의 대우주’ 따위로 침잠할 여유가 없다. “그때 내 복부/안쪽에서 작은 힘으로/작은 발이 찼다(そのとき私の腹部/内側から小さな力で/小さな足が蹴った).” ‘에고(エゴ)’나 ‘자기도피(自己逃避)’ 따위 생각할 겨를도 없다. 화자는 자신의 업보를 평생 이고 살 각오로 뱃속의 아이를 낳아 기르기로 맹세한다.

트라우마라는 ‘의미’의 무한루프를 거부하는 로렌 벌렌트는 자본주의를 사는 삶이란 애착을 낳고 애착이 욕망을 낳고, 그 욕망은 삶을 낙관적으로, 그러나 트라우마가 되지 않을 정도로 살게 해 준다고 말한다.²⁶⁾ 오늘날 자본주의를 사는 아슬아슬한 우리 생을 담담하게 분석하는 그의 톤은 물론 그런 자본주의를 긍정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과도한 비관으로 빠지지도 않는다. 마치 일단은 현재를 직시할 줄 알아야 함을 묵묵히 설명하는 그의 정동론은, 그 침착함이 오히려 날이 서 있다. 도가와 준의 상상력 속에는 묵묵히 탈피를 기다리는 유충이 그렇듯, 미사일을 타고 영겁을 날아가는 안드로이드가 그렇듯, 또 「諦念ブシガンガ」(1984)에서 안데스 민요에 실어 자신을 ‘하찮은 고깃덩이’에 불과하다고 내뱉는 것이 그렇듯, 그저 기다리는 ‘잔인한 낙관’적 태도가 없지 않다. 발표자는, ‘諦’는 진리의 뜻과 통하며 ‘諦める’는 평온하게 수용하여 기다리며 사물의 이치를 발견한다는 뜻이 있음을 발견했다.

25) 필립 K. 딕 저·박중서 역(2013)『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폴리박스, p.292.

26) 로렌 벌렌트(2024)『잔인한 낙관』휴머니타스, pp.54-55. 정신분석 프레임을 거부하는 그의 분석은 GP의 영향 하에 있다.

포스트휴먼을 향한 신체의 변태-탈피는 지금 과정 중에 있다.

『에반게리온』의 신체(들)

—포스트페미니즘, 포스트휴먼 사유를 통해 다시 보는 『에반게리온』—

박수정(인천대학교 일본연구소)

1. 들어가며

TV 애니메이션 『신세기 에반게리온(新世紀エヴァンゲリオン)』(이하 『에반게리온』, 본 발표에서는 TV판만을 다룸)은 한신·아와지대지진(阪神・淡路大震災)과 옴진리교에 의한 지하철 사린 가스 살포 사건 등으로 전후 일본 사회를 지탱해온 안전 신화와 관료 체제에 대한 믿음이 요동치던 1995년에 방영됐다. 인류의 절반이 사멸된 세컨드 임팩트 이후의 제3 신도쿄시를 무대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적 사도를 괴멸하기 위해 인간형 병기 에반게리온에 탑승해 싸우는 소년·소녀들의 이야기는 신드롬에 가까운 인기를 끌며 애니메이션의 시청자층을 중고등학생 이상으로 확대하고 심야 애니메이션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함으로써 ‘제3차 애니메이션 붐’의 도화선을 지켰다고 평가받는다.¹⁾ TV판의 결말을 보완하기 위해 제작된 극장판과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약 15년에 걸쳐 개봉한 신극장판 등 일련의 에반게리온 시리즈는 오타쿠 문화와 애니메이션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만큼, 30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비평가와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각도로 분석되고 해부되어왔다.

특히 오쓰카 에이지(大塚英志)가 『에반게리온』의 결말을 두고 “자기계발 세미나”²⁾와 같다고 혹평한 이래 주인공 이카리 신지(碇シンジ)가 세계·타자와 접촉하는 양상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예를 들어 우노 쓰네히로(宇野常寛)는 에반게리온 탑승(사회적 자기실현)을 거부하고 내면으로 숨어들어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받아 들여줄 존재를 갈망하는 신지의 모습에서 1990년대 후반의 시대적 기분, 히키코모리의 심리 상태를 읽어냈다.³⁾ 요나하 준(與那覇潤) 또한 신지의 아버지 겐도(ゲンドウ)에게서 ‘아버지’ 되기에 실패한 전공투 세대를 겹쳐보았으며,⁴⁾ 박규태의 경우 신지와 겐도, 어머니 유이(ユイ)의 클론 아야나미 레이(綾波レイ)의 삼자관계를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라캉의 상상계 등 정신분석학적 개념을 토대로 이해하려 했다.⁵⁾ 방대한 연구 성과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으나 『에반게리온』에 관한 기존의 고찰은 주로 90년대 일본 사회가 안고 있던 불안이나 주요 등장인물의 내면과 인간관계, 즉 정신적 측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에반게리온』을 처음 접했던 때에 강렬하게 각인됐던 것은 신체적 이미지들이었다. 2002년 애니원TV를 통해 『에반게리온』이 한국에 방영됐던 당시 텔레비전 화면 한쪽에 표기된 시청 연령 제한 마크와 오프닝 영상에서 드러나는 전신의 실루엣, 파일럿의 수트를 통해 강조된 신체의 굴곡 등은 이 작품을 기억하는 데 있어 정신적 주제보다도 신체의 이미지가 선행되도록 만들었다. 본 발표에서는 『에반게리온』에 관한 기억을 되짚으며 이 애니메이션에 표상된 여성의 신체와 인조인간의 신체를 탐구하고자 한다. 본 발표가 『에반게리온』의 신체에 집중하는 이유는 단순히 선행연구가 적기 때문이 아니라,⁶⁾ 『에반게리온』 속 여성

1) 津堅信之(2022)『日本アニメ史』中央公論新社, pp.212-215.

2) 大塚英志(1996)「オウムを越えるはずが」『読売新聞』1996年4月1日.

3) 宇野常寛(2013)『ゼロ年代の想像力』早川書房, pp.16-21.

4) 요나하 준(2022)『헤이제이사』마르코폴로, pp.124-130.

5) 박규태(2021)『일본정신분석—라캉과 함께 문화코드로 읽는 이미지의 제국—』이학사, pp.421-431.

6) 『에반게리온』의 신체성에 주목한 연구로는 시노다 아미(篠田亜美)의 논고가 있다. 시노다는 신체를 나타내는 일본어인 からだと みの 어원에 집중해 인간이 내부에 탑승하거나 일체화되는 거대로봇의 외

캐릭터들의 신체 표상이 일본 사회의 포스트페미니즘 논의, 소녀의 성적 대상화, 그리고 러브 돌 시장의 확대라는 문화적 맥락과 긴밀히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작품에 등장하는 인조인간 에반게리온의 신체는 성별 개념의 불확실성을 드러내고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교란하는 포스트휴먼적 상상력을 자극한다. 따라서 본 발표는 『에반게리온』을 신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함으로써 『에반게리온』이 등장할 수 있었던 문화적 토양을 확인하고자 한다.

2. 포스트페미니즘 시대의 일하는 여성 신체

『에반게리온』은 주인공 신지의 성장·성장 불가능성을 이야기의 주요 골자로 하지만 이 애니메이션에서 신지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여성 캐릭터들이다. 무라세 히로미(村瀬ひろみ)가 『에반게리온』의 여성상에 대해 “여성의 사회 참가로서의 싸움과 모성을 둘러싼 갈등을 그려냈다는 점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사상 획기적”⁷⁾인 작품이라고 언급했듯이 제3 신도쿄시로 온 신지가 처음 만나게 된 가쓰라기 미사토(葛城ミサト)는 비밀조직 네르프(NERV) 소속 대위로서 군사 작전을 지휘하는 커리어우먼이다. 미사토는 신지에게 가슴을 강조한 사진을 보내거나 엉덩이가 노출되는 짧은 바지를 입고 생활하며 근무복으로는 다리가 드러나는 원피스를 입는다. 거침없이 음담패설을 내뱉고 전 남자친구인 가지 료지(加持リョウジ)와 성관계를 나누는 장면 등은 애니메이션을 보는 남성 시청자들에게 눈요깃거리를 제공하는 서비스 장면인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한편으로 미사토가 일터에서 여성성을 숨기지 않거나 주체적인 성행동을 한다는 점은 1980년대 이후 서구 및 일본에서 대두된 포스트페미니즘 논의와의 연결고리를 떠올리게 한다.

주지하듯 페미니즘은 여성이 근대 시민사회에서 시민으로서 권리를 갖기 위한 참정권 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제1물결 페미니즘에서 시작했다. 공적 영역에서의 권리를 요구하는 제1물결 페미니즘에 이어 사적 영역에 내재한 성역할 불평등에 주목하는 제2물결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은 우먼리브운동이 일본에서 전개된 것은 1970년대의 일이었다. 전후 핵가족 체제의 기반이 된 성별역할분업에 이의를 제기하고 성과 생식에 있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는 우먼리브운동은 ‘여성스러움’의 신화를 타파하고 여성 자신 안의 ‘여성’ 의식에 변혁을 가져왔다.⁸⁾ 한편 1980년대에 들어 이러한 기존 페미니즘의 의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인식 아래 집단적 사회 개혁보다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는 포스트페미니즘이 부상했다. 로잘린드 길(Rosalind Gill)은 포스트페미니즘이 여성성을 신체적 자산으로 인지한다는 점, 그리고 이와 같은 사고가 문화 전반의 섹슈얼화(sexualization)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것을 마치 여성의 성적 주체화 및 자유의지에 의한 자기만족적 선택인 것처럼 여겨 남녀의 성차를 재강화한다는 점 등을 지적한다.⁹⁾ 남자 못지않은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여성성을 죽였던 과거의 페미니스트와 달리 포스트페미니즘 시대의 여성은 더는 맨얼굴을 추구하지도, 수트로 몸을 감추지도 않기 때문에 이러

피를 からだ, 인간이 존재하는 내부를 み로 대비시키며 에반게리온의 폭주를 사춘기의 컨트롤 불가능한 신체로 독해하고 있다. 시노다의 분석은 신체와 정신의 관계, 심리적·정신적 차원에서 신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물질적이면서 사회적이고 성적인 신체에 집중하는 본 발표와는 차이가 있다. 篠田亜美(2015)『アニメーションの巨大キャラクター表現にみる身体性についての一考察—ガンダム、エヴァンゲリオン、進撃の巨人の比較を通して—』『京都大学大学院教育学研究科紀要』61, 京都大学大学院教育学研究科, pp.121-133.

7) 村瀬ひろみ(1997)『戦う娘たちが母を想うとき—「新世紀エヴァンゲリオン」における女性像—』『女性学年報』18, 日本女性学研究会, p.60.

8) 井上輝子(2021)『日本のフェミニズム—150年の人と思想—』有斐閣, pp.236-241.

9) Gill, Rosalind(2007) Postfeminist media culture: elements of a sensibility, *European journal of cultural studies*, 10(2), pp.147-166.

한 측면에서 봤을 때 미사토는 다분히 포스트페미니즘적 여성상을 재현하는 듯하다.¹⁰⁾

3. 문화의 섹슈얼화와 소녀의 신체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포스트페미니즘을 가능하게 하는 문화의 섹슈얼화에 있다. 『에반게리온』에서 2호기 파일럿으로 등장하는 14살의 소녀 소류 아스카 랑그레이(惣流・アスカ・ラングレー)는 가슴이 커지길 원하기도 하고 따분하다는 이유로 신지에게 키스하자고 요구하거나 짝사랑 상대인 성인 남성 가지에게 자신은 충분히 어른이라며 키스 이상의 신체적 관계를 바라기도 한다. 성적 매력을 의식적으로 발산해 자신이 욕망을 가진 성적 주체임을 당당히 표현하는 모습은 포스트페미니즘이 강조하는 능동적 성적 주체로서의 여성상에 부합해 보이지만, 14살이라는 아스카의 나이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길이 지적하듯 미디어가 여성, 특히 젊은 여성과 10대 소녀의 신체를 공개적으로 에로틱하게 제시하면서 여성은 매력적인 이성애 주체가 되도록 요구받는다.¹¹⁾ 성적 주체화란 실제로는 미디어의 섹슈얼화된 문화 환경 속에서 강제된 규율적 수행으로, 아스카가 자기 신체와 매력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거나 성인 여성을 질투하고 초조해하는 장면은 자율적 선택처럼 보여도 사실상 남성적 시선(male gaze)을 내면화한 자기 감시와 자기 대상화의 또 다른 형태인 것이다. 에구치 사토시(江口聡)는 미디어의 영향에 의해 여성(소녀)들이 스스로를 성적 대상화(sexual objectification)하거나 상품화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섹슈얼화가 본래 어른들의 세계에서 성적으로 격리되어야 할 아이들을 어른들의 성적 활동에 끌어들이는 사실을 규명했다.¹²⁾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아스카의 성적 주체성은 소녀(미성년자)를 성적 주체로 위치시키려는 문화의 섹슈얼화의 산물로 읽을 수 있다.

나아가 아스카는 『에반게리온』이라는 텍스트 내부와 외부에서 모두 90년대 일본에 있어서 소녀의 성적 기호화·상품화와 깊이 얽혀 있다. 아스카가 신지의 학교로 전학해 오자 남학생들은 아스카가 귀국자녀라는 점을 들어 성적으로 개방적일지 추측하거나 아스카의 파파라치 사진을 사고팔기도 한다. 특히 블루머(ブルマー)를 착용하고 체육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 거래되는 장면은 인상적이다. 『에반게리온』이 방영되기 바로 몇 해 전 부루세라붐(ブルセラブーム)으로 일본 사회가 달아올랐던 전적이 있기 때문이다. 미야다이 신지(宮台真司)의 저작 『제복소녀들의 선택(制服少女たちの選択)』이 출판된 것 또한 1994년으로, 미야다이는 체육복(블루머)과 교복(세일러복), 스타킹, 속옷 등을 부루세라붐에 판매하는 여고생의 존재가 미디어를 통해 보도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여고생 정보’의 가치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논의한다. ‘부루세라 여고생’의 출현은 “성적이어서는 안 되는 신체”를 가진 ‘여고생’이라는 근대 학교 교육 제도의 표면적인 원칙, 금기를 무너뜨리고 ‘여고생’을 성적인 브랜드로 만들었다.¹³⁾ 여고생에게 사용한 속옷의 시장 가치를 알려준 것은 매스컴이며,¹⁴⁾ 일부 여고생

10) 무라세 히로미의 논의를 계승한 고노 신타로(河野真太郎)는 여성성을 전면에 내세우는 미사토와 아카기 리쓰코(赤木リツコ)가 일하는=싸우는 여성상으로 새로웠음을 지적하며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전투미소녀=포스트페미니스트라고 역설했다. 河野真太郎(2020)『戦う姫、働く少女』堀之内出版, pp.143-145. 그런 한편 인스턴트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설거지와 청소를 미루는 미사토의 모습은 포스트페미니즘 논의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여자력(女子力)’과는 거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11) Gill(2007), pp.150-151.

12) 江口聡(2023)『性的モノ化と少女のセクシュアル化―「萌え絵」騒動を考えるための予備作業―』『現代社会研究科論集』17, 京都女子大学, p.6.

13) 宮台真司(2025)『制服少女たちの選択 完全版 After 30 Years』KKベストセラーズ, pp.128-133. 사이토 다마키(斎藤環)는 일본의 문화콘텐츠에서 보이는 ‘싸우는 히로인’이 유럽이나 미국의 아마조네스 계열 성인 여성 전사와 달리 순진무구함과 가련함 등의 소녀성을 지닌 ‘전투미소녀’임을 지적했는데, 남성 오타쿠의 섹슈얼리티 대상물이 된 전투미소녀는 문화의 섹슈얼화, 소녀의 성적 대상화와 연동해 확산된 것이라 생각된다. 사이토의 논의는 『전투미소녀의 정신분석―싸우는 소녀들은 어떻게 등장했

의 행동을 집단 전체로 확대해 보도함으로써 정보를 과잉 생산한 미디어는 여고생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쳤다.¹⁵⁾ 그러므로 부루세라를 판매하는 여고생의 선택을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평가하기는 힘들다. 이와 같은 구조를 참조한다면, 14살 소녀 아스카의 성적 주체성 역시 90년대 일본 문화의 섹슈얼화가 만들어낸 특정한 여성상의 수행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소녀의 성적 주체성은 결국 소녀를 성적인 브랜드, 즉 상품으로 소비하기 위해 과거의 금기를 푸는 데에 이용된다고 비판적으로 고찰할 수 있다.

아스카뿐 아니라 레이의 신체도 90년대 일본 문화의 섹슈얼화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레이의 신체의 어머니 유이의 DNA를 바탕으로 만든 육체와 제2사도 릴리스의 영혼을 결합해 만든 클론으로, 네르프의 지하 연구실에는 수십 개에 달하는 예비용 육체가 보관되어 있다. 생활감이 느껴지지 않는 노출 콘크리트 방 안에서 지내며 파일럿 수트를 제외하고는 항상 같은 교복을 입으며 표정 변화도 감정의 동요도 없이 일정한 목소리 톤으로 명령을 수행하는 레이의 아스카로부터 “인형”이라고 비난받는다. 생리통으로 힘들어하는 아스카와 달리 레이의 신체는 생리를 경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검사를 위해 속옷만 입은 채로 침대에 누워 전신 스캐닝을 받는다거나 연구실의 수조 안에서 전라로 조정을 받는 장면, 대체 가능한 예비용 육체들이 수조 안을 동동 떠다니는 장면 등은 이 캐릭터를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라 무기질적이고 수동적인 인형에 가깝게 여겨지도록 만든다.

여기서 90년대 일본의 성산업에서 또 하나의 화제였던 러브돌에 주목하고 싶다. 다카쓰키 야스시(高月靖)에 따르면 남성들의 성적인 위안을 위해 만들어진 그로테스크한 풍선인형 더치 와이프(ダッチワイフ)는 90년대 들어 정교하고 매력적인 조형으로 탈바꿈하며 러브돌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얻었다. 러브돌은 기본적으로 성행위를 전제로 여성 신체를 등신대 사이즈로 만든 것으로, 다른 나라의 러브돌과 달리 일본의 러브돌은 성인 여성이 아닌 세일러복을 입은 소녀의 형태가 많은데 특히 1994년에 발매된 ‘유코(ゆうこ)’와 ‘요코(ようこ)’는 초등학교를 모델로 했다. 다카쓰키는 이러한 일본의 러브돌이 70·80년대에 인기를 끌었던 소녀 아이돌, 현역 여고생 아이돌그룹, 소녀 누드 사진집 등의 로리콘붐, 90년대 부루세라붐과 원조교제를 통한 소녀의 성적 상품화 등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을 검토했다.¹⁶⁾ 『에반게리온』이 방영됐던 시기는 문화의 섹슈얼화, 소녀의 성적 기호화 과정에서 저연령 러브돌이 등장한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항상 같은 상태의 신체를 유지하는 인형과도 같은 레이에게서 러브돌의 이미지를 읽어내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무엇보다도 레이라는 캐릭터는 ‘모에(萌え)’의 전형적인 사례로, 분절된 기호의 소비라는 점에서 모에와 러브돌은 친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아즈마 히로키(東浩紀)가 논의했듯이 데이터베이스 소비 시대에 캐릭터에 열광하는 소비 행동은 그 대상을 모에 요소로 분해해 배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소비하는 일로 이어진다.¹⁷⁾ 하늘색 머리카락, 무표정, 붕대 등 모에 요소의 조합으로 소비된 레이와 특정 나이, 키, 복장 등의 패키지로 유통되어 소비된 러브돌 사이에는 욕망을 가속화 하는 설정들의 모음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나—』(에디투스, 2024)를 참조.

14) 上野千鶴子(2023)『発情装置 新版』岩波書店, p.28.

15) 片瀬一男(2022)『1990年代におけるメディアと少女たちの性行動』『若者の性の現在地—青少年の性行動全国調査と複合的アプローチから考える—』勁草書房, pp.172-173.

16) 高月靖(2010)『ダッチワイフと「空気人形」』『サブカルで読むセクシュアリティ—欲望を加速させる装置と流通—』青弓社, pp.143-159.

17) 아즈마 히로키(2007)『동물화하는 포스트모던—오타쿠를 통해 본 일본 사회—』문학동네, pp.94-97.

4. 에반게리온의 신체와 젠더

그렇다면 에반게리온이라는 인조인간의 신체는 어떨까? 에반게리온은 제1사도 아담 또는 제2사도 릴리스의 육체를 복제해 만들어진 인간형 병기로, 사람이 만들었다는 뜻에서 ‘인조(人造)’인간이기도 하지만 금속제 장갑 안에 살과 뼈, 안구와 치아, 내장과 신경이 있고 피가 흐르는 등 말 그대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체조직이 있는 인조생명체라는 의미에서 인조‘인간(人間)’이기도 하다. 일본 애니메이션의 역사에서 인조인간, 사이보그, 휴머노이드 등의 이름으로 불린 캐릭터들을 떠올려보면 이들 다수가 기계장치로 만들어진 육체에 인간의 외피로 두르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피는 통상적으로 인간의 신체를 둘로 나누는 기준을 모방해 여성의 몸, 남성의 몸 중 하나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에반게리온은 그렇지 않다. 에반게리온의 외피인 금속제 장갑은 성별화된 신체를 모방하지 않으며, 0호기의 경우 남성의 생식기관(전립선)을 가지고 있음에도 공식적으로는 무성이다. 시청자 또한 에반게리온의 성별에 대해 궁금증을 제기하는 경우는 드문데, 아마도 많은 시청자가 “에반게리온은 여자일까? 남자일까?”라는 질문을 듣고서야 비로소 에반게리온의 성별을 고민해볼 것이다.

이 지점에서 모이라 게이트스(Moira Gatens)의 논의를 참조하고 싶다. 게이트스는 생물학적 성(sex), 사회적 성(gender)의 구분을 문제시하며 상상적 신체(imaginary bodies)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게이트스는 동일한 행위도 성별화된 신체에 따라 상이한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신체가 사회적 상상과 문화적 실천 속에서 성별화된다고 주장한다.¹⁸⁾ 즉 신체는 해부학적으로 자명한 것이 아니라 사회가 그 신체를 어떻게 상상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의미를 부여받아 성별화된다고 볼 때 전립선을 가지고 있음에도 무성이며, 시청자 역시 그 신체에 별다른 해석을 가하지 않는 0호기는 생식기관의 유무가 필연적으로 성별을 규정하는 것은 아님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에반게리온은 성별화된 신체를 구성하는 사회적 상상과 권력의 작용이 미치지 않는 신체로, 성별화되지 않은 신체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신지의 어머니 유이의 혼을 코어로 하는 초호기의 경우 0호기와 달리 어떤 생식기관을 가졌는지 알 수 없으나 사도와 전투에서 초호기가 폭주하는 모습을 본 리쓰코는 “역시 눈을 뜬 건가, 그녀가”라고 말한다. 리쓰코가 말하는 ‘그녀’가 초호기와 융합된 유이를 가리키는지 아닌지를 떠나 이 장면을 토대로 초호기의 성별을 ‘여성’으로 규정한다면, 이는 생물학적 성과 정신적 성·사회적 성 사이에 필연적, 운명적 관계가 존재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훌륭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가 말했듯 남성의 구성(남성성)이 전적으로 남자의 몸에 속하고 여성의 구성(여성성)은 여자의 몸에 속할 이유는 없으며, 가령 생물학적 성이 두 개로 나타난다고 해도 젠더 또한 둘이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¹⁹⁾

이러한 에반게리온의 신체는 생물학적 성, 사회적 성에 관한 근대적 지식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기도 한다. 작중 인간의 근원이 된 릴리스의 분신과도 같은 초호기가 사도와 전투에서 마치 인간의 싸움처럼 목을 조른다거나 세포분열을 통해 절단됐던 팔을 재생함으로써 장갑 아래 감춰져 있던 인간의 육체를 드러내는 장면은 겉보기에 거대로봇처럼 보이던 에반게리온에 대한 기존의 판단을 유예하게 한다. 사도를 뜯어 먹음으로써 소화기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에반게리온은 인간처럼 걷고 뛰던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네발로 기어가는 모습을 통해 동물성을 느끼게 한다. 로봇이자 인간이며 동물인 에반게리온은 이질적인 범주들이 뒤섞인 존재로서 포스트휴먼적 상상력을 자극한다. 로

18) 모이라 게이트스(2021)『상상적 신체—윤리학, 권력, 신체성—』도서출판b, pp.29-44.

19) 주디스 버틀러(2022)『젠더 트러블—페미니즘과 정체성의 전복—』문학동네, p.95.

지 브라이도티(Rosi Braidotti)가 인간, 남성, 유럽에 중심을 두는 보편적 인간 개념을 비판하면서 이러한 인간 개념을 넘어서는 사유의 틀로써 포스트휴먼을 제안했다는 점에서²⁰⁾ 에반게리온은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에서 남성과 여성 어느 쪽으로도 수렴되지 않는 탈이원성을 통해 포스트휴먼적 상상력과 공명하고 있다.

5. 나오며

본 발표에서는 1990년대의 문화적 환경이 『에반게리온』 속 여성의 신체 표상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고찰하는 데에서 시작해 신체라는 개념에 집중하면서 『에반게리온』이 어떻게 젠더와 인간 개념을 뒤흔드는지 살펴보았다.

90년대 일본 사회는 포스트페미니즘 담론의 확산과 더불어 부루세라붐, 러브돌 산업의 확대로 대표되는 문화의 섹슈얼화가 급속히 진행되던 시기였다. 이 시기 여성의 성적 주체성이라는 미명 아래 다시 상품화되었으며, 『에반게리온』 속 미사토·아스카·레이의 신체 표상은 그러한 시대 감각을 응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은 단순히 90년대의 성적 소비문화를 재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여성 캐릭터의 신체가 분절된 기호로 소비되는 동시에, 인조인간 에반게리온의 신체는 그러한 섹슈얼화, 젠더화된 신체의 질서 자체를 교란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생식기관의 유무나 성별화된 외피를 넘어서는 에반게리온의 신체는 사회적 상상 속에서 구성된 젠더 체계의 임의성을 드러내며,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재사유하게 한다. 이처럼 『에반게리온』은 90년대 문화의 섹슈얼화가 만들어낸 신체 이미지 위에서 출발하지만, 한편에서는 그것을 해체하고 초월하는 포스트휴먼적 상상력을 전개하기도 한다. 이렇듯 기존 연구가 등장 인물의 내면 심리의 독해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본 발표는 신체를 매개로 동시대의 문화적 조건과 이론적 사유를 종합적으로 읽어내려는 새로운 접근이라 할 수 있다.

20) 로지 브라이도티(2015)『포스트휴먼』아카넷, p.53.

여아 애니메이션의 젠더 수행과 장소에 관한 고찰 : 『프리파라』의 세계관을 중심으로

김진우(세종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일본학 박사과정)

1. 들어가며

일본의 애니메이션 중여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소위 여아 애니메이션(少女向けアニメ)은『마법사 샬리(魔法使いサリー)(1966)』『리본의 기사(リボンの騎士)(1967)』등을 시작으로 이후 오랜 시간 동안 쇠퇴와 흥행을 반복하며 많은 작품이 제작되어 왔다. 다만, 이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여아 애니메이션의 계보를 정리하거나, 오타쿠 문화 분석의 일환으로 다루어져 온 경향이 있으며, 정작 실수요층인 여성 아동·청소년에게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본 발표는 성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시기의 아동·청소년들에게 현재의 여아 애니메이션이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자 하는지 도린 매시(Doreen Massey),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의 젠더에 대한 논의를 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여아 애니메이션 장르의 구성과 주제의식에 더욱 활발한 논의가 되기를 기대한다.

2. 『프리파라』라는 작품

『프리파라(プリパラ)』는 「주식회사 타카라토미아츠(タカラトミーアーツ)」가 키즈 어뮤즈먼트 게임과 애니메이션을 연동하고자 한·일합작으로 기획한 프로젝트「프리티 시리즈(プリティシリーズ)」의 4번째 작품으로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방영되었다. 이전에 방영된 3개의 애니메이션들과 아이돌, 오디션 등 큰 키워드는 공유하고 있지만, 특별히 세계관이 연결되어 있지는 않은 독립된 애니메이션이다. 『프리파라』는 일본 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크게 유행하였는데, 관련 이벤트나 팝업 스토어가 열리는 날이면 새벽부터 행사장에서 줄을 서야할 정도로 당시 아동 청소년들에게 화제가 되곤 했다.

『프리파라』의 줄거리는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주인공인 「마나가 라라(真中らあら)」가 우연히 「프리파라」라는 신비로운 무대에 설 수 있는 초대장을 받게 되고, 그 세계에서 함께 노력하는 동료나 경쟁하는 라이벌들을 만나 여러 사건과 역경을 겪으면서 마침내 신급 아이돌에 등극한다는 내용이다. 주인공 캐릭터가 여러 인물들을 만나 성장하고 완성된다는 서사는 비단 여아 애니메이션 뿐만 아니라 많은 창작물에서도 드물지 않게 찾아볼 수 있지만, 필자는 『프리파라』라는 작품의 세계관을 젠더 수행과 페미니즘적 공간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성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시기의 여성 아동청소년을 타겟으로 한 애니메이션의 현재를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2. 「프리파라」라는 세계

다음은 『프리파라』의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프리파라에 대한 간단한 소개문이다.

み～んなトモダチ、み～んなアイドル！

(모두가 친구, 모두가 아이돌!)

ある日お年ごろの女の子たちに届く招待状。

(어느날, 한창 때의 여자 아이들에게 도착한 초대장.)

それはファッションや ダンス、音楽といった女の子の夢と憧れが詰まった「プリパラ」ワールドの入場チケット。

(그것은 패션, 댄스, 음악 등 여자 아이들의 꿈과 이상이 가득 찬 ‘프리파라’ 월드의 입장 티켓이다.)

そこでは毎日のように歌やダンス、ファッションセンスを競い合うオーディションが開催され、その様子はTVやネットを通じて世界中に発信される。

(그곳에서는 매일같이 노래, 댄스, 패션 센스를 겨루는 오디션이 개최되며, 그 모습은 TV와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에 방송된다.)

今やトップアイドルはこのプリパラから生まれるのだ。

(이제 톱 아이들은 이 프리파라에서 탄생하는 것이다.)

위의 소개문에 따르면, 때가 된 여자 아이들은 어느 날 우연히 초대장을 받아 이를 가지고 「프리파라」라는 세계에 입장, 이 안에서의 오디션을 통해 아이들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 여기서 ‘때가 된, 한창 때의(お年ごろ)’라는 것은 명확히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작품 내에서 초대장을 받지 못해 우울해 하거나, 초대장을 받았지만 흥미가 없어 프리파라에 들어가지 않는 등장인물에 대한 묘사가 종종 등장하기도 한다.

또한 ‘여자’아이들은 프리파라에 들어가면 외형과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다. 옷을 화려하게 갈아입는 것 뿐 아니라 머리카락의 길이, 키, 신체의 성장이 자유자재로 이루어지며, 평소에 갖고 있던 성격이나 가지고 있던 콤플렉스를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되고 싶은 자신, 동경하는 자신이 될 수 있다.」는 캐치프레이즈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작중에서도 「프리파라」는 여성이면서 아동인 주인공(또는 시청자)이 겪는 각종 억압과 한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로 여겨진다.

프리파라는 철저히 ‘여자’아이들만 출입할 수 있고 자신의 이상적인 모습을 구현할 수 있는 ‘소녀들만의 낙원’이지만, 「프리파라」라는 공간이 젠더 수행 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생각해 봤을 때, 바깥의 (젠더 규범이 존재하는)현실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으며 기억과 경험 또한 공유된다는 점, 남녀노소 모두에게 프리파라의 존재가 인지되고 있다는 점은 그 안에서의 젠더 수행 또한 기존의 젠더 규범을 답습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리파라에 입장하는 여자아이는 동경하고 되고 싶은 자신을 구현하고자 하지만, 체형이 조금 더 성숙해지거나, 머리가 조금 더 길어지거나, 성격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바뀌거나 하는 정도인 것이다.

결국 여성만 출입할 수 있도록 강제되면서도 외부와 유기적인 관계가 단절되어 있지는 않은 「프리파라」는 여자 아이들이 끊임없이 출입하며 반복적으로 규범화된 젠더를 수행함으로써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장소로 기능하는 데 그친다는 것은 도린 매시(Doreen Massey)의 이론¹⁾처럼 공간은 젠더화되어 있으며, 사회적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구성되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1) 『공간, 장소, 젠더』 도린 매시,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5.

3. 『프리파라』의 전복

「프리파라」는 상술하였듯 적정 연령대의 여자 아이들만이 입장하여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으로 춤추고 노래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젠더에 대한 고찰이 의미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작품의 세계관에 변주를 일으키는 두 명의 등장인물을 통해 논의를 심화시켜 나가고자 한다.

애니메이션 2기에 등장하는 「시쿄인 히비키(紫京院ひびき)」는 마치 귀공자 같은 모습으로 프리파라에 등장해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로 단숨에 인기를 얻는 인물이다. 그의 외형과 무대는 명백하게 다카라즈카 가극단의 남장 배우를 떠올리게 하는데, 이야기가 어느 정도 진행된 뒤 그는 관객들 앞에서 자신의 신분증명서를 당당히 내밀며 스스로 자신의 성별이 여자임을 공표한다. 그렇다면 시쿄인 히비키는 자신의 젠더를 ‘남성’으로 정의했던 것일까. 캐릭터의 모티브가 된 것으로 여겨지는 다카라즈카 가극단에 대한 여러 연구에 따르면, 가극단의 남장 배우들은 ‘남성’이 아닌 ‘남성다움을 연기하는’ 형태로 남성성을 재현한다고 여겨진다²⁾. 즉, 사회적 규범으로 만들어진 허구의 ‘남성성’을 연기한다는 것이다. 당당히 자신이 여자라고 신분증명서를 꺼내는 장면은, 자신의 생물학적 성별이 여자임을 드러내는 것 뿐 아니라, 스스로를 ‘여성’으로 정체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쿄인 히비키의 행동은 드랙, 젠더 전복에 가까운 퍼포먼스³⁾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레오나 웨스트(レオナ・ウェスト)」는 쌍둥이 언니인 도로시 웨스트(ドロシー・ウェスト)와 함께 등장하는 캐릭터이다. 입이 거칠고 남학생들과 싸움을 벌이는 등 다소 괘괄한 성격인 언니에 비해 차분한 말투를 쓰며 항상 다혈질인 언니를 진정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물론 프리파라 안에서도 아이돌로서 당연히 활동하지만, 프리파라 밖에서 남학생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장면을 통해 주인공을 비롯한 다른 등장인물들에게도 (생물학적으로)남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다. 그가 어떻게 프리파라에 들어올 수 있었는지는 언급되지 않으나, 발표자는 여기서 작품이 생물학적 성별은 ‘여자 아이’를 규정하는 데 중요하지 않다는 주제 의식이 드러난다고 주장하고 싶다. 젠더 정체성과는 아무 상관 없이 사회적 남성성의 ‘연기를 연기’하지만 프리파라 안에서 스스로 자신이 여자라고 밝히는 히비키와 사회적 여성성을 수행하지만 프리파라 안이 아닌 프리파라 밖의 현실에서 자신이 남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레오나 웨스트의 대비를 통해, 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되고 싶은 자신, 동경하는 자신’, 즉 스스로가 정체화한 젠더가 ‘여자 아이’라면 프리파라에 입장할 수 있는, ‘여자 아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4. 나가며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을 정리하면, 『프리파라』 작품 내에 존재하는 특수한 공간 「프리파라」는 여자 아이들만 출입할 수 있다는 규칙이 존재하지만, 그곳에 출입하는 여자 아이는 프리파라 밖 현실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으므로 결국 프리파라 안에서 현실의 성규범을 강화하는 형태로 젠더 수행을 반복하게 된다. 반면, 이를 전복하고자 남장여자의 역할을 수행(드랙)하는 「시쿄인 히비키」와 현실, 이상 모두 여성으로 자신을 정체화하고 있는 「레오나 웨스트(트랜스젠더)」의 존재는 「프리파라」에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젠더 규범을 흔들으로써 젠더 다양성을 시청자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의도하였다. 주인공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이 프리파

2) 「일본 소녀만화의 남장여자 캐릭터에 관한 고찰 : 다카라즈카 가극단과의 관계에 주목하여」 이석, 2019.

3) 『젠더 트러블』 주디스 버틀러, 문학동네, 2024.

라 밖의 현실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프리파라라는 여자 아이들만으로 구성된 안전한 공간에서 되고 싶은, 동경하는 자신이 되어 때로는 이를 자, 타의적으로 전복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거치며 모두를 포용하는 가치관을 만들어 나가는 성장 서사를 보여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제12세션 (장소: 613호)

▶ [비대면 Zoom 주소] <https://m.site.naver.com/1SQ44>

제 12세션 (패널발표)	일본의 대표적 순례, 시코쿠 헨로			
시간	발표자	발표제목	토론자	사회자
16:10~18:10	주혜정 (청암대)	시대를 걷는 순례자들 - 일본 영화 속 시코쿠 헨로에 나타난 사회·정서적 변화 -	김희영 (전남대)	최가진 (전남대)
	김희영 (전남대)	시코쿠 헨로 순례자의 종교적 심성	최가진 (전남대)	
	송영숙 (전남대)	일본 시코쿠 지역 고보 대사 전설의 유형 및 양상	주혜정 (청암대)	
18:10~18:40	동아시아일본학회 2025년도 하반기 정기총회			
	2025년 동북아시아문화학회 정기총회 및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시상			
	폐회식			

시대를 걷는 순례자들

- 일본 영화 속 시코쿠 헨로에 나타난 사회·정서적 변화 -

주혜정(청암대 재일코리아연구소)

1. 서론

시코쿠 헨로(四国遍路)는 고보대사 구카이(弘法大師)의 수행과 깊이 연관된 일본의 대표적 불교 순례 전통으로, 종교적 의미와 사회적·문화적 상징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일본 사회에서 헨로는 역사적으로 애도, 속죄, 공동체 결속의 공간으로 기능해왔으며, 현대에는 자기 성찰, 치유, 관광 자원으로도 확장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헨로의 변용을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영화는 특정 시대의 사회적 정서와 문화적 욕망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시각적 기록물이며, 문헌이나 종교사 연구가 제도적·역사적 측면을 조명한다면, 영화는 당대 사람들이 헨로를 어떻게 상상하고 경험했는지를 감각적이고 서사적인 방식으로 드러낸다. 또한 영화 속 헨로는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인물들에게 ‘걷는 이유’를 부여하는 내러티브 장치로 기능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갈등, 세대 정체성, 정서적 결핍과 같은 문제들이 드러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195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제작된 헨로 관련 영화들을 분석하여, 순례의 의미가 시대별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영화 텍스트의 내러티브와 영상적 재현 방식을 시대적 맥락과 비교 분석하고, 일본 사회가 순례를 어떻게 재해석하고 소비해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시코쿠 헨로의 역사적·상징적 의미

시코쿠 헨로는 일본의 대표적인 불교 순례 전통으로, 고보대사 구카이(弘法大師, 774-835)의 수행과 깊은 관련을 가진다. 구카이는 시코쿠 전역을 돌며 수행과 전법을 했다고 전해지며, 그의 발자취가 88개의 사찰로 체계화되어 오늘날의 순례길로 이어졌다. 헨로와 구카이 전승은 초기부터 결합된 것은 아니고, 점진적으로 강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늘날 알려진 88개 사찰 순례의 형태로 정착한 것은 중세 말 혹은 근세 초 시기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¹⁾

이러한 기원은 헨로를 단순한 여행이 아닌, 불교적 신앙과 속죄, 그리고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적 수행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였다.

역사적으로 헨로는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사회적 기능도 담당했다. 순례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오셋타이(お接待)라 불리는 환대 문화는, 길 위에서 순례자를 맞이하는 지역민의 자발적 나눔을 통해 공동체적 연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헨로는 개인의 종교적 실천과 동시에 지역 사회를 결속시키는 장치로 기능한 것이다.

현대에 들어 시코쿠 헨로는 종교적 의미를 넘어 새로운 해석을 얻고 있다. 도시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단절된 인간관계 속에서, 헨로는 자기 성찰과 내적 치유를 위한 여정으로 재인식되

1) 山川廣司(2016), 「四国遍路の魅力 ～人はなぜ遍路に出るのか～」, 四国の大学と四経連との連携による四国学, pp.1-4

고 있다. 또한 지방도시 재생과 관광 자원화라는 흐름 속에서, 헨로는 일본의 ‘웰니스 관광’과 ‘정신적 힐링 여행’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소비되고 있다. 이처럼 시코쿠 헨로는 시대에 따라 그 의미가 변주되며, 전통적 신앙과 현대적 감수성이 교차하는 문화적 장(場)으로 자리 잡아왔다.

3. 시대별 영화 분석

1) 1950년대: 애도의 순례

전후 일본 사회는 전쟁의 상실과 상흔 속에서 정신적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필요로 했다. 이 시기 영화 《순례하는 소녀, 흐르는 꽃처럼(むすめ巡礼 流れの花)》(1956)는 혈연과 가족을 찾아 길을 떠나는 소녀의 순례를 통해, 상실의 시대에 필요한 애도와 정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헨로는 불교적 구원뿐 아니라 공동체적 유대와 회복을 매개하는 장치로 재현되었다.



<그림 39> 1956년 작품



<그림 40> 1966년 작품

2) 1960년대: 속죄와 정의의 순례

고도경제성장의 시작과 더불어 일본 사회는 물질적 번영과 동시에 불평등, 사회적 긴장을 겪고 있었다. 《자토이치 바다를 건너다(座頭市海を渡る)》(1966)은 맹인 검사 자토이치가 헨로 길을 걸으며 속죄와 구원을 찾는 과정을 통해, 순례를 개인적 속죄와 윤리적 선택의 무대로 확장시켰다. 종교적 수행을 넘어 정의와 명예 회복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투영된 것이다.

3) 1970년대: 청춘의 방황과 자유 탐색

고도성장이 정점에 달한 1970년대에는 가족 구조와 공동체 질서가 흔들리며, 청소년의 자아 탐색과 사회적 소외가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여행의 무게(旅の重さ)》(1972)²⁾는 가출한 10대 소녀가 시코쿠를 여행하며 정체성을 찾는 여정을 담아, 순례를 종교적 수행이 아닌 청춘의 방황과 자유 탐색의 은유로 재구성했다. 이는 경제 성장 속에서 개인주의와 세대 갈등이 부상한

2) <旅の重さ> <https://youtu.be/ZYAi6Rib6qs?si=fvRpBai5NzpKAR5L> (검색일:2025.9.20.)

사회적 배경을 반영한다.



<그림 3> 1972년 작품



<그림 4> 1984년 작품

4) 1980년대: 기원과 전통의 재확인

1980년대 일본은 경제적 안정 속에서 ‘전통 회귀’와 문화 정체성의 재구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사토 준야 감독의 《구카이(空海)》(1984)³⁾는 구카이의 생애를 대작 스펙터클로 그리며, 헨로의 기원을 역사적·집단적 차원에서 재현했다. 이는 일본 불교와 전통을 국가적 서사로 강조한 작품으로, 순례의 개인적 의미보다 국가적·문화적 뿌리를 확인하려는 시대적 경향을 보여준다.

5) 1990년대 후반: 공포와 불안의 순례

버블 붕괴 이후 사회 전반에 불안과 불확실성이 확산되던 1990년대 후반, 헨로는 초자연적 공포와 결합되었다. 《시코쿠(死国)》(1999)⁴⁾은 순례와 토속 신앙을 호러 장르로 풀어내며, 사카우치(逆打ち)와 같은 전통이 불안의 서사 장치로 변용된다. 순례는 구원의 길이 아니라 사회적 불안을 투영하는 무대로 전환되었다.

6) 2000년대: 관계 회복과 치유의 순례

21세기 초 일본은 핵가족화와 인간관계의 단절, 중년층의 정체성 위기를 겪었다. 이 시기 헨로는 다시 치유와 관계 회복의 공간으로 그려진다. 《로드88 만남의 길, 시코쿠로(ロード88 出会い路、四国へ)》(2004)는 병든 소년의 여행을 통해 가족과 주변 인물의 연대를 회복하는 이야기를, 《워커즈~길 잃은 어른들()》(2006, NHK 드라마)는 중년 남성이 순례 속에서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모습을 담았다. 또한 《낚시 바보 일기 14(釣りバカ日誌14)》(2003)는 순례를 희극적으로 다루며 대중적 오락으로 변환시킨 독특한 사례였다.

3) <空海> https://youtu.be/ZYA6Rib6qs?si=t-0f1_vkmg4OKUKn (검색일:2025.9.20.)

4) <死国> https://youtu.be/vbnGao_hS4s?si=jeotODtaoAor12Zp (검색일:2025.9.20.)



<그림 5> 2003년 작품



<그림 44> 2004년 작품



<그림 7> 2006년 작품

7) 2010년대 이후: 힐링과 자기 발견의 순례

도시 과밀과 워라밸 담론, 젊은 세대의 정서적 결핍이 부각된 2010년대 이후, 헨로는 힐링과 자기 발견의 무대로 재구성되었다. 《오헨로 걸 ~시코쿠 88 사이클링~(お遍路ガール~四国88サイクリング~)》(2017)⁵⁾은 젊은 여성들이 자전거로 순례를 완주하는 과정을 통해, 종교적 수행보다는 웰니스와 여행, 그리고 젠더적 주체성을 강조한다. 이는 순례가 현대 사회에서 '치유의 문화 자원'으로 소비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4. 시대별 순례자들의 비교 분석

일본 사회의 변화를 배경으로, 종교적 실천에서 개인적 탐색과 관계 형성, 나아가 자기 치유로까지 확장된 순례의 의미를 영화 속 헨로의 재해석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시대별 영화 속 시코쿠 헨로를 살펴보면, 순례의 의미는 일정한 공통점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정서와 문화적 배경에 따라 변주되어 왔다. 우선 공통적으로 헨로는 언제나 '걷는 이유'를 제공하는 무대로 기능하면서, 삶의 문제를 재해석하는 무대가 되었다. 각자 애도, 속죄, 방향, 공포, 관계 회복, 치유 등 그 목적은 다르지만, 순례는 개인과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성찰하고 극복하는 과정으로 재현되어 왔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 그 구체적 의미는 확연히 달라졌다. 1950~60년대에는 불교적 신앙과 전통적 가치를 기반으로, 상실과 속죄를 해소하는 집단적 장치로 그려졌다. 1970년대에는 순

5) <お遍路ガール~四国88サイクリング~> https://youtu.be/fDCyJ9O8uX0?si=9Fy_RrZiyGM4U5by
(검색일:2025.9.20.)

례가 청춘의 방황과 자유 탐색이라는 세속적 의미로 전환되며, 개인적 정체성의 탐구가 중심이 되었다. 1980년대에는 구카이의 생애를 다룬 대작 《구카이》를 통해 헨로의 기원이 집단적·역사적 차원에서 재확인되었는데, 이는 전통 회귀와 국가적 정체성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과 맞닿아 있다.

1990년대 후반에는 불안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순례가 호러 장르와 결합하며 공포와 불안의 공간으로 그려졌다. 반면 2000년대에 들어서는 가족과 공동체, 중년의 삶을 회복하는 장치로 순례가 재등장했으며, 이는 핵가족화와 인간관계 단절이라는 사회 문제와 연결된다. 2010년대 이후에는 순례가 힐링과 자기 발견의 여행으로 소비되며, 웰니스와 젠더적 주체성까지 반영하는 현대적 이미지로 재구성되었다.

이와 같이 영화 속 시코쿠 헨로는 시대마다 다른 사회적 정서와 문제의식을 담아 재해석되어 왔는데, 처음에는 ‘종교적 수행의 길’에서 시작되어, ‘개인적 성찰의 공간’으로 변모하면서, 나아가 ‘현대적 치유와 관광의 자원’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왔다. 이는 전후 일본의 상실, 경제 성장의 불안, 가족 해체와 재구성, 현대인의 정서적 치유까지, 헨로는 늘 ‘걷는 이유’를 통해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왔다. 따라서, 일본 사회가 시대마다 직면한 집단적·정서적 과제를 순례라는 문화적 코드에 투영해왔음을 알 수 있다.

차후의 과제로 실제 순례자들의 경험과 영화적 재현의 상호작용, 다큐멘터리 및 디지털 영상문화(유튜브, Vlog)와의 접점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화 속 헨로 연구는 종교와 전통문화 연구를 넘어, 일본 사회의 역사적 맥락과 정서적 변화를 읽어내는 중요한 방법론적 창을 제공한다. 앞으로는 극영화뿐만 아니라 다큐멘터리, 지역 홍보 영상, 그리고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미디어에 나타난 순례의 재현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시코쿠 헨로의 문화적 의미와 현대적 변용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시코쿠 헨로 순례자의 종교적 심성

김희영(전남대학교 일본문화연구센터)*

1. 시코쿠 헨로의 현 위치

시코쿠 헨로(四国遍路)는 사누키(讃岐, 현재의 가가와 현)에서 태어난 고보 대사(弘法大師) 구카이(空海, 774~835)가 수행한 곳으로 전해지는 시코쿠 소재 88개소의 영장을 순례하는 것을 말한다. 도쿠시마 현(徳島県)의 1번 후다쇼(札所) 료젠지(靈山寺)에서 고치 현(高知県), 에히메 현(愛媛県)을 돌아 가가와 현(香川県)의 88번 후다쇼 오쿠보지(大窪寺)까지, 약 1,400km의 거리에 이르는 불교 성지 순례이다.

시코쿠 헨로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 명확하지 않다. 다만, 헤이안(平安) 시대(794~1192) 말기의 문헌인 『곤자쿠 모노가타리슈(今昔物語集)』(12C?)와 『료진히쇼(梁塵秘抄)』(12C)에 이 시코쿠 헨로가 언급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헤이안 시대 후기에 그 원형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세 가마쿠라(鎌倉) 시대에는 사이교(西行), 호넨(法然), 잇펜(一遍)과 같은 고승들도 시코쿠를 방문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후 무로마치(室町) 시대부터 에도(江戸) 시대 초에 걸쳐 시코쿠 헨로는 점차 확산되었는데, 특히 에도 시대에는 해상교통의 발달과 함께 원격지 순례가 활발해지면서 고보 대사 신앙의 보급과 함께 고보 대사가 태어나 수행하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시코쿠 자체가 성스러운 장소로 여겨져 일반 민중에게 널리 퍼져 갔다.

이렇게 시코쿠 헨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를 거듭하면서 1,200년의 역사를 가진 일본의 대표적인 순례로 자리매김되었다. 현재는 버스, 열차, 자가용 등의 교통을 이용한 순례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이 직접 걸어서 순례를 하고 있다. 그들의 순례는 힐링이나 영성적 웰빙 등 다채로운 계기로 행해지고 있지만, 그로 인해 시코쿠 헨로는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관광자원의 역할까지 맡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코쿠 헨로가 단지 시대 상황과 고보 대사의 명성에만 기대어 그 오랜 시간의 지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리라 본다. 이에 순례자들의 바람을 충족시켜주는 시코쿠 헨로만의 요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2. 시코쿠 헨로의 88개소 영장과 고보 대사의 관련성

시코쿠 헨로 88개소 영장에 해당하는 사찰의 연기담이나 관련 설화를 살펴보면 일본 진언종(真言宗)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고보 대사와 관련이 있는 이야기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시코쿠 헨로의 88개소 영장과 본존불 및 고보 대사와의 관련성

연번	사호(寺号)	종파	본존	고보 관련 설화 유무

*전남대학교 일본문화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 일본문화학 전공.

1	료젠지(靈山寺)	진언종	석가여래	○
2	고쿠라쿠지(極樂寺)	진언종	아미타여래	○
3	곤센지(金泉寺)	진언종	석가여래	○
4	다이니치지(大日寺)	진언종	대일여래	○
5	지조지(地藏寺)	진언종	지장보살	○
6	안라쿠지(安樂寺)	진언종	약사여래	○
7	주라쿠지(十樂寺)	진언종	아미타여래	○
8	구마다니지(熊谷寺)	진언종	천수관음	-
9	호린지(法輪寺)	진언종	석가여래	○
10	기리하타지(切幡寺)	진언종	천수관음	○
11	후지이데라(藤井寺)	임제종	약사여래	○
12	쇼산지(燒山寺)	진언종	허공장보살	-
13	다이니치지(大日寺)	진언종	십일면관음	○
14	조라쿠지(常樂寺)	진언종	미륵보살	○
15	고쿠분지(国分寺)	조동종	약사여래	○
16	간논지(觀音寺)	진언종	천수관음	○
17	이도지(井戸寺)	진언종	약사여래	○
18	온잔지(恩山寺)	진언종	약사여래	○
19	다쓰에지(立江寺)	진언종	지장보살	-
20	가쿠린지(鶴林寺)	진언종	지장보살	○
21	다이류지(太龍寺)	진언종	허공장보살	○
22	보도지(平等寺)	진언종	약사여래	○
23	야쿠오지(薬王寺)	진언종	약사여래	-
24	호쓰미사키지(最御崎寺)	진언종	허공장보살	-
25	신쇼지(津照寺)	진언종	지장보살	○
26	곤고초지(金剛頂寺)	진언종	약사여래	○
27	고노미네지(神峯寺)	진언종	십일면관음	-
28	다이니치지(大日寺)	진언종	대일여래	-
29	고쿠분지(国分寺)	진언종	천수관음	○
30	젠라쿠지(善樂寺)	진언종	아미타여래	○
31	지쿠린지(竹林寺)	진언종	문수보살	-
32	젠지부지(禪師峰寺)	진언종	십일면관음	-
33	셋케이(雪溪寺)	임제종	약사여래	-
34	다네마지(種間寺)	진언종	약사여래	-
35	기요타키지(清瀧寺)	진언종	약사여래	-
36	쇼류지(靑龍寺)	진언종	부동명왕	○
37	이와모토지(岩本寺)	진언종	아미타여래	-
38	곤고후쿠지(金剛福寺)	진언종	삼면천수관음	○
39	엔코지(延光寺)	진언종	약사여래	-
40	간지자이지(觀自在寺)	진언종	약사여래	-
41	류코지(龍光寺)	진언종	십일면관음	○
42	부쓰모쿠지(仏木寺)	진언종	대일여래	○
43	메이세키지(明石寺)	천태사문종	천수관음	-
44	다이호지(大寶寺)	진언종	십일면관음	○
45	이와야지(岩屋寺)	진언종	부동명왕	-
46	조루리지(淨瑠璃寺)	진언종	약사여래	○
47	야사카지(八坂寺)	진언종	아미타여래	○
48	사이린지(西林寺)	진언종	십일면관음	○
49	조도지(淨土寺)	진언종	석가여래	-
50	한타지(繁多寺)	진언종	약사여래	-
51	이시테지(石手寺)	진언종	약사여래	○
52	다이산지(太山寺)	진언종	십일면관음	-
53	엔묘지(圓明寺)	진언종	아미타여래	-
54	엔메이지(延命寺)	진언종	부동명왕	○
55	난코보(南光坊)	진언종	대통지승여래	-

56	다이산지(泰山寺)	진언종	지장보살	○
57	에이후쿠지(栄福寺)	진언종	아미타여래	○
58	센유지(仙遊寺)	진언종	천수관음	○
59	고쿠분지(国分寺)	진언불종	약사여래	-
60	요코미네지(横峰寺)	진언종	대일여래	○
61	고온지(香園寺)	진언종	대일여래	○
62	호주지(宝寿寺)	진언종	십일면관음	○
63	기치조지(吉祥寺)	진언종	비사문천	-
64	마에가미지(前神寺)	진언종	아미타여래	-
65	산카쿠지(三角寺)	진언종	십일면관음	-
66	운벤지(雲辺寺)	진언종	천수관음	-
67	다이코지(大興寺)	진언종	약사여래	○
68	진네인(神恵院)	진언종	아미타여래	-
69	간논지(観音寺)	진언종	관음보살	○
70	모토야마지(本山寺)	진언종	마두관음	-
71	이야다니지(弥谷寺)	진언종	천수관음	○
72	만다라지(曼荼羅寺)	진언종	대일여래	○
73	숫사카지(出釈迦寺)	진언종	석가여래	○
74	고야마지(甲山寺)	진언종	약사여래	○
75	젠쓰지(善通寺)	진언종	약사여래	○
76	곤조지(金倉寺)	천태사문종	약사여래	○
77	도류지(道隆寺)	진언종	약사여래	-
78	고쇼지(郷照寺)	시종	아미타여래	-
79	덴노지(天皇寺)	진언종	십일면관음	-
80	고쿠분지(国分寺)	진언종	십일면천수관음	-
81	시로미네지(白峯寺)	진언종	천수관음	-
82	네고로지(根香寺)	천태종	천수관음	-
83	이치노미야지(一宮寺)	진언종	관음보살	-
84	야시마지(屋島寺)	진언종	십일면천수관음	-
85	야쿠리지(八栗寺)	진언종	관음보살	○
86	시도지(志度寺)	진언종	십일면관음	-
87	나가오지(長尾寺)	천태종	관음보살	○
88	오쿠보지(大窪寺)	진언종	약사여래	○

고보 대사와 관련된 설화의 내용은 대체로 고보대사가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처한 중생들을 도왔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가뭄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물을 구해주고, 아픈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다는 것이다. 또 여인들의 순산을 기원하고, 어민의 항해 안전을 기원하는 등 고보 대사의 중생구제 사례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고보 대사가 시코쿠 출신인데다가 시코쿠 지역 사찰에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처럼 그와 관련된 설화가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좀 더 확실한 이유로는 고보 대사가 일본 진언종의 개창자이며, ‘조복법’, ‘항복법’이라 불리는 법술도 능숙하게 구가하는 밀교 고승이었다는 점일 것이다. 사가(嵯峨, 786~842) 천황의 외호(外護)를 받았던 진언종은 대일경(大日經), 금강정경(金剛頂經)을 바탕으로 법신(法身)인 대일여래(大日如来)를 받드는 순수 밀교였다. 고보 대사 구카이는 병을 낫게 하는 밀교의 기도법, 즉 ‘수법(修法)’을 지니고 사가 천황에게 접근하여 도지(東寺)와 산악도량인 고야산(高野山)을 하사받아 이를 중심으로 강대한 진언종 세력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까닭에 시코쿠 현로의 88개소 영장 중 진언종 사찰이 79개소에 이르는 것이다.

3. 시코쿠 헨로 88개소 영장의 본존

시코쿠 헨로의 88개소 영장은 1번부터 88번까지의 사찰을 차례로 순례할 경우, 약 1,400km의 거리를 이동하게 된다. 영장의 수가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무로마치 시대 말기로, 일반 사람들이 순례에 많이 참여하면서부터이다. 이 영장들 중 진언종이 79개소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외 천태종(天台宗)이 4개소, 임제종(臨濟宗)이 2개소이며, 조동종(曹洞宗)과 시종(時宗)은 각 1개소이다.

각 영장에서 모시고 있는 본존불은 관음보살이 29개소, 약사여래가 23개소, 아미타여래가 10개소, 대일여래가 6개소, 석가여래가 5개소, 지장보살이 5개소, 허공장보살이 3개소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진언종의 법신이 대일여래임에도 불구하고 관음보살이나 약사여래를 본존불로 모시고 있는 영장의 수가 더 많다는 것은 신앙하는 이들의 수요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대일여래는 마하비로자나를 가리키며, 밀교 진언종의 본존이다. 자연, 신, 인간을 비롯하여 만물을 통제하는 우주의 법 그 자체를 신격화한 것이다. 밀교에서는 우주의 모든 존재와 현상을 대일여래의 출현이라고 여긴다. 이와 같은 부처는 일반인들에게 형이상학적으로 비칠 수도 있다.

이에 반해 관음보살은 세상의 고통 받는 모든 중생의 소리를 살피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부처이다. 다시 말해 관음보살은 가장 폭넓고 친숙하게 신봉되는 보살로, 중생이 이 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곧바로 그 소리를 듣고서 소원을 이루어 주는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관음보살의 기능에 따라 천수관음, 십일면관음, 십일면천수관음, 삼면천수관음, 마두관음 등으로 나뉜다. 이러한 까닭에 시코쿠 헨로에서는 중생들이 어려움에 닥쳐있을 때마다 등장하여 도움을 주는 고보 대사가 관음의 화신으로 여겨졌던 듯하다.

관음보살은 법화경의 보문품(普門品)에서 설해지는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 중생을 구제하며 재액으로부터 구해준다는 이유로 나라(奈良) 시대(710~784) 이후 널리 신앙되었다. 그리고 일본에서 순례의 시작은 헤이안 시대 말기에 교토(京都)와 나라(奈良) 부근의 기나이(畿内)를 중심으로 성립한 관음순례이다. 긴키(近畿) 지방의 대표적인 관음 성지를 참배하는 사이고쿠(西国) 33개소, 간토(關東) 지방 전체에 걸친 반도(坂東) 33개소, 지치부(秩父) 34개소를 합쳐 일본에 100대 관음 성지가 있다. 관음보살의 불력이 현세를 살고 있는 중생의 고통을 없애 주고 행복을 가져다준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약사여래는 중생의 질병을 치료하고 재앙을 소멸시키며, 현세의 복락을 약속하는 부처로, 모든 중생의 고통을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요컨대 관음보살과 약사여래는 현세이익을 기원하는 부처이다.

4. 시코쿠 헨로 순례자의 종교적 심성

현대에는 간편한 복장으로 순례를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순례 도중 목숨을 잃는 경우도 적지 않았던 탓에 순례자는 ‘저승길로의 여행’을 상징하는 흰옷으로 몸을 감쌌으며 관립(菅笠)을 매장용 관, 지팡이를 묘비로 삼았다고 한다. 위험을 무릅쓰고 행하는 시코쿠 헨로는 고보 대사를 신앙으로 하는 종교적인 목적을 가진 경우도 있었고, 일상으로부터의 해방이나 통과 의례로 활용되는 예도 있었다. 하지만 현대에는 단순히 여행을 목적으로 하거나, 자신의 현 상황을 극복하는 전환점으로 삼고자 순례를 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어떤 목적을 가졌든 순례자들은 그들이 추구 또는 기원하는 바가 시코쿠 헨로 88개소 영장을 통해 성취되기를 바란다. 이러한 믿음이 구체적으로 발현되어 있는 것이 88개소 영장 중

52개소에 현세이익을 기원하는 부처인 관음보살 및 약사여래를 본존불로 모시고 있는 양태일 것이다.

일본 시코쿠 지역 고보 대사 전설의 유형 및 양상

송영숙(전남대학교)

1. 글머리

일본의 시코쿠 지역에는 일본 불교의 대표적 조사 순례인 시코쿠 헨로(四国八十八ヶ所, 또는 헨로遍路라고 표기)가 1200년의 역사를 넘어서 현재까지도 활발히 실천되고 있다. 헨로가 장구한 세월을 거치며 오늘날까지 지속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헨로 중에 한 번은 살아있는 고보 대사(弘法大師: 시호) 구카이(空海: 법명, 774-835)를 만날 수 있다는 서민들의 신앙이 존재했기 때문이다(伊豫史談會 2011:213-214). 이 같은 고보 대사 신앙이 형성된 배경으로는 고야산에서 입정(立定)하신 고보 대사가 여전히 입멸하지 않고, 부처가 되어 일본 열도를 두루 순례하며 중생을 구한다는 미륵신앙에 근거한 입정신앙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것은 일본 전역에 전승되고 있는 다양한 고보 대사 전설이다.

달리 말해, 고보 대사가 각지를 순례하면서 민중들을 위해 갖가지 기적을 보여주었다는 대사 전설은, 시코쿠 지역에도 널리 전해져 대중들의 신앙을 집중시킨다. 특히 시코쿠 지역은 시코쿠 헨로가 활발히 실천되는 곳으로써, 현재도 헨로를 실천하는 이들은 고보 대사와 함께 한다는 의미의 ‘동행이인(同行二人)’의 순례를 지속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대사 전설의 주인공은 원래 고보 대사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일본에는 예로부터 신의 아들(太子, 다이시)이 각지를 순행하면서 기적을 일으킨다는 다이시 전설이 폭넓게 존재했다. 그런데 시코쿠 지역에서 전승되는 대사 전설은 모두 고보 대사에게만 집중된 것이 특징적이다. 이점은 시코쿠 지역에 위치해 있는 시코쿠 헨로 88개소의 영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시코쿠 헨로의 영장이 역사적으로 확정되고 헨로가 조사 순례로서 정착하는 데에는, 고보 대사 신앙이 필수적인 요소로 작동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자연스럽게 뒷받침한 것은 민중들의 심성을 파고든 다양한 고보 대사 전설이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있겠다.

먼저 일본에서 진행된 선행 연구를 간략히 살펴보면, 일본 전역에 전해지는 대사 전설의 원형과 대사 전설을 분석(宮田登 1970: 111-124), 시코쿠 지역에 전승되는 고보 대사 전설을 분류(武田明 1982: 46-71), 일본 전역에 전승되는 대사 전설 중에서 고보 대사가 민중에게 가장 친숙한 인물이라는 점을 조명(宮田登 1985: 642), 실재의 구카이가 전설 속의 고보 대사와 결부되는 요소를 도출(山本和加子 1995: 35-36)한 연구 등이 있다.

한국 선행연구에서 본 발표의 주제와 부합하는 연구는 아직 찾을 수 없었다. 단지 고보 대사의 영험담 모티브와 관련하여 헨로 88개소 영장에서 전승되는 영험담을 조명한 연구(송영숙 2022: 97-118)가 있다. 한일의 연구를 정리해 보면, 본 발표의 주제인 시코쿠 지역에서 전승되는 고보 대사 전설의 유형과 양상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연구는 보이지 않는다. 고보 대사 전설은 헨로를 지탱하는 고보 대사 신앙을 가장 강력하게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이에 대한 연구는 선행 연구를 보완하는 동시에 본 발표의 독창성을 나타내며, 일본의 대표적 순례 문화인 시코쿠 헨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시코쿠 지역에서 전승되는 고보 대사 전설의 유형과 양상

시코쿠 지역에서 전승되는 대사 전설에는 다양한 초목이나 동물, 인간이 감내하기 어려운 자

연현상, 민중들의 고난 등의 모티브가 등장한다. 이 외에 대사가 소유한 지팡이나 바리때 등이 특별한 상황을 마주할 때 신령한 역할의 존재로 변모한다.¹⁾ 서사구조의 모티브에 따라 유형을 간략히 정리하면, <기적 강조형> <고보 청수형> <신수 유래형> <식물 변화형> 등으로 구분된다. 각각의 유형과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²⁾

(1) <기적 강조형(奇蹟降調型)>

고보 대사가 행한 다양한 기적 모티브의 공통적인 서사구조이다. 기적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헨로 88개소의 영장과 관련된 것과 민중의 다양한 고난을 해결해 주는 것이다.

①헨로 88개소 영장과 관련된 기적: 영장의 개창이나 불상이 조성된 유래 및 하룻밤 새 세워진 건축물 등을 모티브로 하는 공통적인 서사구조이다. 이 외에 대사가 당나라에서 던진 오고(五鈷, 또는 삼고三鈷)와 관련된 영장이 많은데, 이는 고야산(高野山)의 전설과 유사하다는 것을 나타냄으로써 영장으로서의 권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①-1 : 연기 전설과 관련된 영장-헨로 88개소 영장 중에 53개 영장의 연기와 관련이 있으며, 영장의 개창이나 불상이 조성된 유래를 말한다.

-해당 영장: 4번 다이니치지(大日如來寺)-대일여래상 조각, 5번 지조지(地藏寺)-승군지장보살 조각, 8번 구마다니지(熊谷寺)-천수관음보살 조각, 호린지(法輪寺)-석가열반상 조각, 10번 기리하타지(切幡寺)-천수관음상, 11번 후지이데라(藤井寺)-약사여래상 조각, 12번 쇼산지(燒山寺)-뱀을 조복시킴, 13번 다이니치지((大日如來寺)-대일여래를 본존으로 개창, 14번 조라쿠지(常樂寺)-미륵보살의 설법, 17번 이도지(井戸寺)-우물을 파고 이도지로 명명, 20번 가쿠린지(鶴林寺)-지장보살을 본존으로 개창, 21번 다이류지(太龍寺)-다이류지로 명명, 22번 보도지(平等寺)-중생들이 평등하게 구제되기를 바라며 우물을 팠, 24번 호쓰미사키지(最御崎寺)-허공장 구문지법을 터득하고 개창, 25번 신쇼지(津照寺)-지장보살을 본존으로 개창, 42번 부쓰모쿠지(佛木寺)-녹나무로 대일여래 조각, 51번 이시테지(石手寺)-에몬사부로의 전설, 56번 다이산지(泰山寺)-토사 가지(加持)의 비법 수행, 당답 건립, 85번 야쿠리지(八栗寺), 이외에 다수의 개창 영장이 존재하며, 헨로 88개소 영장 중에서 고보 대사가 개창한 곳은 모두 39개소(81번, 82번 공동)로 확인된다.³⁾

①-2 : 대사가 조각한 불상이 있는 곳-14번 조라쿠지(常樂寺)-생목 지장, 21번 다이류지(太龍寺)-여러 부처님을 조각, 28번 다이니치지(大日如來寺)-녹나무에 손톱으로 약사여래상을 새김

①-3 : 일야건립당(一夜建立堂)이 있는 곳-대사의 영성(靈性)을 강조하기 위해 다수의 불상이나 건축물 등을 대사가 하룻밤 만에 건립했다는 공통적인 모티브이다.

-해당 영장: 70번 모토야마지(本山寺)-본당, 52번 다이산지(太山寺)-본당, 84번 야시마지(屋島寺)-본당, 이외에 24번 호쓰미사키지, 68번 진네인(神恵院), 88번 오쿠보지(大窪寺) 부근의 건축물 등이 존재한다.

1) 전설 속에는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모티브가 중복되어 한편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2) 이에 대한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①武田明(1982: 46-71), ②白木利幸 外(2001: 16-29), 이 외에 시코쿠 헨로 88개소 영장 홈페이지에 게시된 고보 대사 전설의 내용을 종합하여 필자가 정리하였다. <https://88shikokuhenro.jp/>(검색일: 2025.09.11.)

3) 헨로 88개소 영장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종합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논문을 참조. 송영숙(2024) 「일본 시코쿠 헨로 88개소 영장의 개창자들」 『日本語文学』(102) 韓国日本語文学会 pp.233-254.

-전승 지역 : 高知県 安芸郡(약사당), 高知県 幡多郡(탑)

①-4 : 대사가 던진 오고(삼고)가 있는 곳-대사가 당나라에서 던진 오고가 현재의 영장으로 떨어졌다는 공통적인 모티브이다.

-해당 영장: 36번 쇼류지(靑龍寺), 38번 곤고후쿠지(金剛福寺), 42번 부쓰모쿠지(仏木寺)

②민중의 고난을 해결해 주는 기적 : 임산부의 안산, 난임의 치유, 불치병의 치유 등을 비롯 해 민중들의 고난을 해소하는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공통적인 서사구조이다.

-해당 영장: 1번 료젠지(靈山寺): 다네사마 대사(種様大師)-쌀과 보리 씨앗을 들여옴, 2번 고쿠라쿠지(極樂寺)-안산, 6번 안라쿠지(安樂寺)-병의 치유, 30번 젠라쿠지(善樂寺)-안산, 34번 다네마지(種間寺)-안산, 37번 이와모토지(岩本寺)-안산, 붓풀을 문지르면 능필이 되며, 양 통(瘍痛) 치유, 38번 곤고후쿠지(金剛福寺)-부동명암 조각, 해상 안전 기원, 토란(약의 대용으로 사용), 40번 간지자이지(觀自在寺)-삼존을 조각한 흔적의 영목: 안산, 치유의 효과, 61번 고온지(香園寺)-자안대사: 안산을 기원하는 곳, 62번 호주지(寶壽寺)-난산 치유, 75번 센쓰지(善通寺)-우부야(産湯) 우물의 물을 마시면 병이 완쾌됨.

-전승 지역: 高知県 安藝郡(目洗池: 물이 마르지 않으며 눈병이 치유됨), 高知県 安藝郡(다 이시 우물), 土佐(가마솔), 高知県 高岡郡(입이 없는 거머리), 高知県 高岡郡(조개들이 벚꽃으로 변함), 高知県 高岡郡(다슬기 꿈무늬의 뽕족한 부분이 없어짐)

(2) <고보 청수형(弘法清水型)>

고보 대사의 위력으로 일찍이 물이 부족했던 지방에 샘이나 우물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공통적인 서사구조이다.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물’ 모티브의 이야기는 고보 대사가 소유한 ‘지팡이’가 부가되면서 다양한 서사구조로 전개되는 대표적인 유형이다. 서사구조를 공통적인 단락으로 정리하고, 이에 해당하는 헨로 88개소의 영장과 전승 지역을 제시한다.

①대사가 순석할 때 물이 없어 곤란을 겪는 곳에서, 지팡이로 땅을 찌르며 그곳을 파라고 알려주거나 스스로 우물을 판다.⁴⁾ 또는 물이 부족한 마을 사람들을 위해 대사가 석장(錫杖)이나 독코(獨鉤)⁵⁾로 땅을 찌른다.

-해당 영장: 10번 기리하타지(切幡寺)-경목장(經木場)의 물, 17번 이도지(井戸寺)-얼굴 우물, 35번 기요타키지(靑瀧寺)-금강장으로 단을 내리치자, 물이 솟아남, 48번 사이린지(西林寺)-지팡이 연못, 58번 센유지(仙遊寺)-가지(加持)의 우물, 류수안(柳水庵, 시코쿠 88개소 변외 후다쇼)-버드나무 가지로 지면을 찢어서 솟아난 청수,

-전승 지역 : 愛媛県 新居浜市(清水池), 香川県 多度津町, 香川県 善通寺市

이외의 서사구조를 공통적인 단락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②대사가 노파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하자 물이 없어서 한 번은 거절했지만, 바로 소중한 물 한 공기를 내준다. 대사가 이에 대한 답례로 지팡이를 땅에 꽂아서 물을 솟게 한다.

③대사가 베를 짜는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하자, 먼 곳까지 가서 떠다 드린다. 대사는 그 답례로 지팡이로 땅을 찢어서 맑은 물을 솟아나게 한다.

④대사에게 물을 준 마을에는 대사가 지팡이를 땅에 꽂아서 물을 나오게 하고, 주지 않은

4) 이 외에 마을 사람이 대사에게 드린 물의 색깔이 맑지 않자, 이를 안타깝게 여긴 대사가 맑은 물이 솟아나게 한다.

5) 진언밀교의 수법에 이용하는 용구이다.

마을에는 물이 마르게 된다. 또는 대사에게 물이 탁하다고 핑계를 대며 주지 않거나, 맑은 물 대신에 쌀뜨물이나 세탁수 등을 준 경우에는 우물이 탁해지거나 쌀뜨물로 변한다.⁶⁾

(3) <신수 유래형(神樹由來型)>

고보 대사와 관련하여 마을에 있는 무성한 고목의 유래를 말하는 공통적인 서사구조로, 장립 전설(杖立傳説)로 불린다. 장립전설의 모티브는 여행하는 승려가 마을을 지나다가 휴식을 취하면서 지팡이를 내려놓거나, 땅에 꽂은 것이 그대로 성장하여 거목이 된다는 내용이다.⁷⁾ 이 외에 대사가 88개소 영장 중에 심은 나무가 현재도 자라고 있다는 내용이다. 공통적인 서사구조를 단락으로 정리하고 전승 지역 및 헨로의 영장을 제시한다.

①대사가 마을을 지나다가 지팡이(또는 금강장)를 땅에 꽂은 것에서 나무가 자란다.

-해당 영장 : 3번 곤센지(金泉寺), 13번 다이니치지(大日寺)로 가는 길목-대사가 에몬사부로를 매장한 후에 그의 지팡이를 꽂아서 자란 삼나무, 67번 다이코지(大興寺)-1200여 년의 녹나무와 가야나무

②대사가 헨로 영장 중에 심은 나무가 현재도 성장하고 있다.

-해당 영장 : 10번 기리하타지-이름 없는 나무(연중 푸르름), 12번 쇼산지(燒山寺)-잇폰스기암(一本杉庵): 고보 대사가 심은 거목의 삼나무, 14번 조라쿠지(常樂寺)-편백 나무에 새겨진 지장보살, 85번 야쿠리지(八栗寺)-대사가 당나라에서 가지고 온 종자를 심은 보리수가 있음.

-전승 지역 : 愛媛県 天之江市-금강장에서 싹이 나와 자라서 큰 동백나무가 되었다. 동백잎으로 물을 떠서 마시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

(4) <식물 변화형(植物變化型)>

고보 대사가 순력하는 중에 마을 사람들에게 발작물이나 과일 등을 달라고 부탁한다. 이때 대사에게 그것들을 기꺼이 주면, 과실이 일 년에 몇 번씩 열리는 나무로 그 성질이 변화한다. 반대로 대사에게 주는 게 아까워서 토란(또는 감자)이 딱딱해서 못 먹는다는 등의 거짓 핑계를 대면, 이후 그 마을의 감자는 돌덩이처럼 굳어버린다는 공통적인 모티브이다. 공적인 단락과 전승 지역 및 헨로 88개소 영장 중에 해당하는 곳은 다음과 같다.

①대사가 마을을 지나다가 아이에게 밤을 좀 달라고 부탁한다.⁸⁾

-해당 영장 : 85번 야쿠리지-구운 밤 여덟 개를 심었는데, 모두 싹이 나와서 야쿠리지라고 칭함.

-전승 지역 : 高知縣 高岡郡(밤), 愛媛県 宇摩郡(밤)

②대사가 마을을 지나다가 노파에게 토란(배, 감자 등)을 달라고 부탁했으나, 딱딱해서 먹을 수 없다고 핑계를 댄다. 이후 그 마을에서 수확하는 과실은 실제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딱딱하게 변해버린다.

-해당 영장 : 24번 호쓰미사키지(最御崎寺)-토란(감자), 27번 고노미네지(神峯寺)-조개, 38번 곤고후쿠지(金剛福寺)-토란

6) 또는 대사에게 배를 짜거나 빨래하고 있다는 핑계로 물을 주지 않아서 우물이 줄어들거나 말라버린다.

7) 이 외에 저립전설(箸立伝説)은 여행하는 승려가 마을을 지나다가 점심을 먹는데, 그때 사용한 젓가락을 땅에 꽂았던 것이 성장하여 거목이 된다는 모티브이다.

8) 또는 노파에게 먹을 것을 부탁하자 고사리나물을 주었는데, 이를 기특하게 여긴 대사가 이후 고사리의 쓴맛을 없앤다.

-전승 지역 : 高知縣 安藝郡(토란), 高知縣 安藝郡(조개), 香川縣 木田郡(배)

3. 시코쿠 지역 고보 대사 전설의 특징

시코쿠 지역에서 전승되는 대사 전설의 유형과 양상은 기본적으로 일본 전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대사 전설의 공통적인 서사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시코쿠 지역성을 드러내는 특징이 몇 가지 나타난다. 일본 열도에서 대사 전설은 남북으로 폭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그 주인공들은 주로 여행하는 승려를 주축으로 하여 고승, 영웅, 특정한 인물 등이 제시된다. 하지만 시코쿠 대사 전설의 주인공은 모두 고보 대사로 통일된 것이 특징적이다. 내용 또한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매우 세분화되어 있고, 특히 헨로 88개소의 영장과 관련된 이야기가 다수를 차지한다.

구체적으로는 헨로의 개창 및 연기와 관련성이 있는데, 여기에는 고보 대사의 영험성을 드러내는 불상의 조각, 부처님과의 조우, 일야건립당 등을 비롯한 다양한 영험적인 모티브가 등장한다. 달리 말해, 시코쿠의 대사 전설은 주로 고보 대사의 영험성을 강조하는 <기적 강조형>에 치우쳐있다. 이점은 일본 열도에서 전승되는 대사 전설과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사 전설의 주인공들은 공통적으로 민중을 위한 기적을 펼치는데, 가장 많은 유형은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 청수를 솟아나게 하는 것이었다. 그중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지팡이(또는 석장, 돛고 등)를 땅에 찔러서 청수가 솟아나게 한다는 장립청수 전설이다.

물은 인간의 생존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방법을 몰랐던 고대인들에게 마을을 방문한 승려(또는 여행객)가 청수를 솟아나게 하는 방법을 알려준 것은 가히 기적을 펼치는 신 같은 행동일 것이다. 특히 그가 소유한 지팡이로 땅을 쳤을 때 청수가 솟는 것은, 지팡이에 주력이 내포되어 있으며 그러한 지팡이를 소유한 이는 먼 지방에서 온 내방자(來訪者), 즉 마레비토카미(マレビトカミ)를 의미하였다. 물론 이 같은 유형은 시코쿠에서도 다수 등장하지만, 시코쿠에서는 헨로 88개소 영장의 연기와 개창 전설 다음으로 밀리고 있다는 차이점이 발견된다. 이점을 포함하여 시코쿠에서 전승되는 대사 전설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헨로 88개소 영장의 개창 및 연기와 관련된 것이 많다. 이는 시코쿠 헨로 88개소 영장을 개창한 것이 고보 대사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전설로서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헨로 미치(遍路ミチ)라는 후다쇼와 후다쇼 사이를 잇는 길 한쪽에도 많은 대사 전설이 존재한다. 또한 대부분의 후다쇼 사원에는 고보 대사가 순력해 왔음을 강조하기 위해 대사가 조각했다고 전해지는 불상이 존재한다.둘째, 대사의 영험을 설파하려는 것이 많으며, 이점은 차후에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히 단순히 권선징악을 강조하는 내용이 자주 등장하여 민중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셋째, 시코쿠 지방의 대사 전설은 다른 지방에 비해 서사구조가 세분화되어 있고, 내용 또한 매우 많다.

넷째, 다른 지역의 대사 전설에는 고보 대사 이외의 다양한 주인공들이 등장하지만, 시코쿠 지역에서 대사 전설 주인공의 대부분은 고보 대사이다.

다섯째, 고보 대사 전설의 종류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武田明 1982: 47-48). 예를 들면, 원래는 교키 보살(行基菩薩)이나 다른 대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였으나, 현대에 이르러 대사 전설의 주인공은 대부분 고보 대사로 바뀌는 추세이다. 이 점은 시코쿠에서 고보 대사 신앙이 일색화되어 가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다.

4. 마무리

시코쿠 헨로는 일본 불교의 대표적 조사 순례로서, 시코쿠 지역을 나타내는 가장 큰 상징성을 내포한다. 조사의 주인공은 일본인들에게 가장 친숙한 고보 대사로, 그는 21세기 현재에도 헨로를 실천하는 순례자들에게 동행이인의 주인공이자 법신화된 인물로서 신앙되고 있다. 시코쿠 대사 전설의 유형 및 양상은 이 같은 종교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형성되어서 고보 대사 신앙을 굳건히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일본 열도에서 전통적으로 계승되는 대사 전설과는 독특한 차별성을 보인다.

가장 큰 차이점은 대사 전설의 주인공은 모두 고보 대사로 통일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가장 많은 유형은 헨로 88개소 영장의 개창과 연기 모티브이며, 특히 고보 대사의 영험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른바 88개소 각각의 영장에는 고보 대사가 조각한 불상과 다수의 당 및 신수, 연못, 오고, 안산 등을 모티브로 하는 신령한 전설 등이 존재하며, 이는 오늘날까지 영장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외에 현대까지도 고보 대사 전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점은 헨로가 고보 대사 신앙의 일색화를 표방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부분일 것이다.

그런데 전설 속의 대사는 상대가 그에게 예로써 대하면 상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큰 벌을 내린다는 단순한 권선징악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는 일본인이 좋아하는 가미(カミ)는 은혜도 베풀지만 징벌도 함께 내리는데, 강력한 가미를 신앙함으로써 보다 큰 은혜를 기대한다는 전통적 관념과 매우 유사하다. 시코쿠 전설에 나타나는 대사는 이 같은 일본 가미의 성격을 띤 존재로도 보인다. 나아가 단순한 권선징악의 개념은 시코쿠 헨로에서 고보 대사를 절대자적 존재로 부각시키는 동시에, 대사를 본존으로 하는 조사 순례의 정착을 촉진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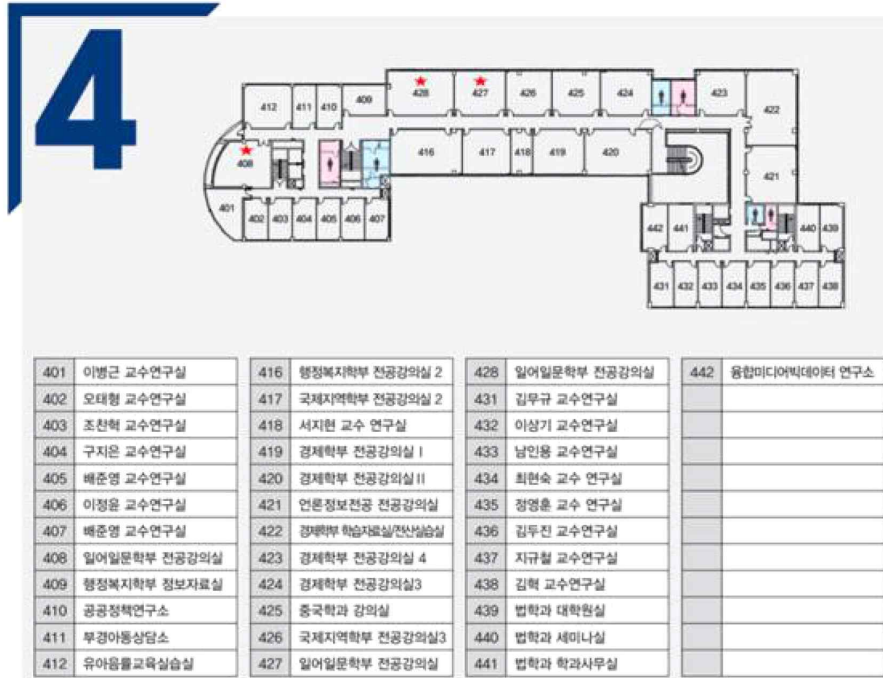
참고 문헌

- 송영숙(2024)「일본 시코쿠 헨로 88개소 영장의 개창자들」『日本語文學』(102) 韓國日本語文學會 pp.233-254.
- (2022)「일본 시코쿠 헨로 영장 영험담의 유형 및 양상」『日本文化學報』(93) 韓國日本文化學會 pp.97-118.
- 伊豫史談會(2011)『四国遍路記集』愛媛県教科圖書株式會社 pp.213-214
- 白木利幸 賴富本宏(2001)『四国遍路の研究』國際日本文化センター pp.16-29
- 山本和加子(1995)『四国遍路の民衆史』新人物往来社 pp.35-36
- 宮田登(1984)「大師信仰と日本人」『弘法大師空海』雄山閣出版 p.79
- 武田明(1982)『巡禮の民俗』岩崎美術社 pp.46-71
- 宮田登(1970)『ミロク信仰の研究』未來社 pp.111-124
- <https://88shikokuhenro.jp/>(검색일: 2025.04.15.)

발표회장 지도



4층



5층



